

요한계시록 18장: 큰 외침 –2018-2030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

“내 백성이 그 중에서 나오라..

사무엘이 선물한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궁극적인 계시를
하신다는 예언적 증거

이 작품에서: 그의 프로젝트. 그의 심판

버전: 2024년 12월 01일

(5995년 가을 70일)

“ 그리고 나는 울라이 한가운데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소리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그 환상을 그에게
설명해 주라”(다니엘 8:16).

표지 설명문

위에서 아래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메시지.

이것은 1843년 봄의 재판 이후와 1844년 10월 22일의 재판 이후 성도들에게 계시된 다니엘서의 세 가지 진리입니다. 안식일의 역할을 무시한 초기 재림교인들은 이 메시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재림교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마태 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 열 처녀 ” 의 비유에 인용된 “ 한밤중의 외침 ” 또는 “ 한밤중의 외침 ” 과 연결시켰습니다. 신랑의”라고 언급되어 있다.

- 1- **심판의 주제**는 단 8:13-14 에서 전개되었고, 요한계시록 14:7 에서는 첫째 천사 의 기별의 주제가 되었다 : “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일을 행하신 이에게 경배하라. 땅과 하늘과 물의 근원이여! »: 하나님의 명령 중 유일하게 참된 일곱째 날인 토요일로의 복귀는 유대인의 안식일이자 주간 휴식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넷째에서 요구하셨습니다.
- 2- **교황 로마에 대한 비난**, 다니엘 7:8-24과 8:10-23-25의 “ 작은 뿔 ” 과 “ 다른 왕 ” 은 아포 둘째 천사 의 메시지에서 “ 큰 바벨론 ” 이라는 이름을 받는다. 14:8: “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 주로 일요일 때문에 321년 3월 7일에 제정된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로부터 물려받은 이전의 “ 태양 의 날 ” 입니다. 1843년 이후, 1844년에 버려진 안식일 관습을 회복함으로써 재림교회 종들에게 이 안식일을 소개했습니다. “ 그녀는 쓰러졌다 ” 는 뜻은 “그녀는 붙잡혀 패배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거짓말의 진영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 3- “ 둘째 사망의 불 ” 이 기독교 반역자들을 치는 **마지막 심판의 주제** . 이것은 단 7:9-10에 제시된 이미지이고, 주제는 계시록 20:10-15에서 전개되며, 계시록 14:9-10에 있는 셋째 천사 의

기별의 주제이다 : " 그리고 또 셋째 천사가 따라오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여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하나님은 섞인 것이 없이 그의 진노의 잔에 부어지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 여기서 일요일은 " 짐승의 표 " 와 동일시됩니다 .

9-10절 과 요한계시록 14장 9-10 절의 목표 구절 번호가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넷째 천사: 그는 Apo.18에만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1994년부터 세상 끝날까지, 즉 1994년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신성한 빛의 혜택을 받는 이전 세 가지 재림교회 기별의 최종 선포를 상징합니다. 2030년 봄 이것이 이 작품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것을 비추기 위해 온 빛은 연속적인 죄를 드러낸다: 538년 이래 가톨릭 종교; 1843년부터 개신교; 이 모든 영적 타락의 원인은 그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시하는 빛을 거부한 데 있었습니다. 단 11:40에 언급된 " 마지막 때에 " 카톨릭 교회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자신의 사역과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종교 집단을 저주 가운데 하나로 모읍니다. 이는 개신교에 이어 공식 재림교회가 1995년에 합류한 소위 "에큐메니칼" 동맹의 비호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3-4

" ...만일 우리 복음이 아직 가리웠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세대의 하나님이 총명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여전히 오해된다면 그것은 멸망을 당할 자들에게만 오해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 제시된 계시를 요약하면 " 거룩함을 정당화 " 하려면,

영원한 복음 " 에 따라 다니엘 8장 14절의 창조자이자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법령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

온 땅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

신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침수로 세례를 받아야 하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인 토요일과 출애굽기 20장에 인용된 10계명 ^{중 4번째}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그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하여

성경 창세기 1장 29절과 레위기 11장에 규정된 하나님의
도덕법과 음식법을 존중 해야 합니다 (몸의 거룩함).

그리고 “ 하나님의 영을 소멸” 하지 않기 위해 “ 그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살전 5:20).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된
“ 둘째 사망”을 겪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습니다.
사무엘

설명 – 나 다니엘과 묵시록 다루는 주제의 페이지 매김

첫 번째 부분: 준비 사항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페이지 번호 자동 검색을 사용합니다.

제목 페이지

- 07 프레젠테이션
- 12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
- 13 진리의 성경적 기초
- 16 기본 주석 : 321년 3월 7일, 죄의 저주받은 날
- 26 하나님의 증거가 땅 위에 주어졌느니라
- 28 참고 : 순교와 형벌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 29 창세기: 중요한 예언적 요약
- 30 믿음과 불신앙
- 33 날씨에 맞는 음식
- 37 계시된 참 신앙의 역사
- 39 다니엘서를 위한 준비 사항
- 41 모든 것은 다니엘서에서 시작됩니다 - 다니엘서

42	다니엘 1장 -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함
45	다니엘 2장 -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의 <i>신상</i>
56	다니엘 3장 - <i>풀무불</i> 속의 세 동료
62	다니엘 4장 - 굴욕을 당하고 개종한 왕
69	다니엘 5 장 벨사살 왕의 심판
74	다니엘서 6 장 <i>사자 굴</i> 속의 다니엘
79	다니엘서 7 장 <i>네 마리의 동물</i> 과 작은 교황의 <i>뿔</i>
90	다니엘 8장 - 교황의 신원이 확인됨 - 단 8:14의 신성한 법령.
103	다니엘 9장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때를 선포함.
121	다니엘 10장 - <i>큰 재앙</i> 의 선포 - 재앙의 환상
127	다니엘 11장 - 시리아의 일곱 전쟁.
146	다니엘 12장 - 재림교회의 보편적 선교에 대한 그림과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155	예언적 상징 입문
158	재림교
163	세상의 종말에 대한 첫 번째 고찰
167	예언에 나타난 로마의 상징
173	안식일의 빛
176	다니엘 8:14의 하나님의 명령
179	종말을 위한 준비
183	화 요약
188	두 번째 부분: 묵시록에 대한 자세한 연구
188	요한계시록 1장 : 프롤로그 - 그리스도의 재림 - 재림교회 주제
199	요한계시록 2장 : 그리스도의 총회 창립부터 1843년까지
199	제1기: <i>에베소</i> - 제2기: <i>서머나</i> - 제3기: <i>페르가몬</i> -
	4시대: <i>두아디라</i>
216	요한계시록 3장 : 1843년 이후 그리스도의 총회 - 회복된 사도적 기독교 신앙
216	5 교시: <i>사데</i> - 6 교시: <i>필라델피아</i> -
223	엘렌 G. 화잇의 첫번째 시현에 드러난 재림교회의 운명
225	7시대: <i>라오디게아</i>
229	요한계시록 4장 : 하늘의 심판
232	참고 : 신성한 율법은 예언한다
239	요한계시록 5장 : 사람의 아들
244	요한계시록 6장 : 기독교 시대의 행위자, 신의 형벌 및 표징 - 처음 여섯 인
251	요한계시록 7장 : “ <i>하나님의 인</i> ”으로 봉인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 안식일과 비밀 “ <i>일곱째 봉인</i> ”.
259	요한계시록 8장 : 처음 네 개의 “ <i>나팔</i> ”
268	요한계시록 9장 : 다섯째와 여섯째 “ <i>나팔</i> ”
268	5번째 “ <i>나팔</i> ”

276	여섯째 “나팔”
286	요한계시록 10장 : “ <i>펼쳐진 작은 책</i> ”
291	계시록의 첫 부분 끝 두 번째 부분: 개발된 테마
292	요한계시록 11장 : 교황 통치 – 국가적 무신론 – 일곱째 “나팔”
305	요한계시록 12장 : 위대한 중앙 계획
313	요한계시록 13장 : 기독교의 거짓 형제들
322	요한계시록 14장 : 재림교회의 때
333	요한계시록 15장 : 시험기간의 끝
336	요한계시록 16장 : <i>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마지막 재앙</i>
345	요한계시록 17장 : 매춘부의 가면이 벗겨지고 신원이 밝혀지다
356	요한계시록 18장 : 창녀가 벌을 받다
368	요한계시록 19장 : 예수 그리스도의 <i>아마겔돈 전쟁</i>
375	요한계시록 20장 : <i>천년</i>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
381	요한계시록 21장 : 영광스럽게 된 <i>새 예루살렘</i> 이 상징됨
392	요한계시록 22장 : 끝없는 영원의 날
40 5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408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시대
410	거룩함과 성화
424	창세기의 구분 –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
525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창세기 23장에서...
528	출애굽과 신실한 모세 – 성경 일반 – 최후 선택의 시간 –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분리, 이름, 역사 – 하나님의 주요 심판 – A부터 Z까지의 신성 – 성경 본문의 왜곡 – 성령은 진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547	마지막 봉헌
548	화 마지막 부름

참고: 자동 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저자는 문서 원본의 언어인 프랑스어 텍스트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세요 .

프레젠테이션

나는 이 극도로 가증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 8절에서 그 수도를 상징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공화주의적이고 선망받는 사회 모델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모방되고 확산되고 채택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지배적인 군주제이자 혁명적인 국가이며, 신이 정죄한 세리 체제를 갖춘 5개 공화국의 실험국입니다. 자랑스럽게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의 형태로 기록하신 인간의 의무 목록에 반대되는 인권 목록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원과 최초의 군주제 이래로 그것은 적인 로마 카톨릭 종교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 거침없는 몰락이 계속되면서 혁명으로 인해 무신론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이자 흙으로 만든 향아리로서 프랑스는 진정한 철로 만든 향아리인 전능하신 신에 맞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했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먼저 같은 죄를 지은 ‘**소돔**’의 운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700년 정도의 세계 역사는 그 사악한 영향력, 특히 첫 번째 군주이자 프랑크족의 첫 번째 왕인 클로비스 1^세로 부터 로마 카톨릭 교황 정권의 권위를 지지함으로써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498년 12월 25일 랭스(Reims)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날짜는 로마가 부당하고 터무니없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거짓으로 연결한 크리스마스 축하의 표시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 있거나 존재하는 모든 것; 그는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마귀를 아비로 삼는 거짓 것을 혐오**”하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정당하게 주장합니다 .

당신은 어떤 로마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정확하고 성경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

지구상에서 교황은 무엇이라고 불리나요? 누구든지 “**거룩하신 아버지**”, 심지어 “**매우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는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반항적인 태도로 인해 수많은 사제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중개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합법화된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가톨릭 신앙은 인간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보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중보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단 8:11-12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비난될 것입니다. 질문-답변 : 단 7:8과 8:25에서 비난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교만”으로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인간을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삼으실 수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 마음의 이러한 유아화에 대한 성경적 반응은 예레미야 17 장 5절에 있습니다.!»

기독교 시대의 대부분의 종교사를 크게 형성한 곳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프랑스인에게 그의 저주받은 역할을 드러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엄격히 성경적인 암호로 암호화된 그의 예언적 계시의 숨겨진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1975년에 나는 환상을 통해 나의 예언적 사명에 대한 발표를 받았고, 그 참된 의미는 침례를 받은 후인 1980년이 되어서야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앙으로 세례를 받아 2018년부터 2030년 봄에 끝날 희년(7년의 7번) 동안 사역을 맡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 28:18부터 20까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구상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신성한 영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또 다른 공식적이고 엄숙한 선언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종교는 인간의 전통에 따른 종교적 유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죽음을 통해 제공하신 속죄의 자발적인 희생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신성한 거룩함의 완전한 의와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의 출신, 상속받은 종교,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심지어 사람들 사이의 지위가 무엇이든, 당신과 하나님과의 화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고수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에게 이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이라는 표현은 “둘째 사망 ”으로 선고받은 죄인인 인간에게 제시된 구원 계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세 가지 연속적인 역할을 나타냅니다 . 이 "삼위일체"는 무슬림이 믿는 것처럼 세 신의 집합이 아니므로 이 기독교 교리와 그 종교에 대한 거부를 정당화합니다. “ 아버지 ”로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창조주이십니다. “ 아들 ”로서 그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자신을 육체로 주셨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은 “ 성령 ” 안에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에서 가르친 대로 “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를 얻음으로써 그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회심에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오십니다. : 14; “ 성화 ”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구별 되는 것입니다 . 이는 그가 선택된 자를 받아들였음을 확인시켜 주며 그의 믿음의 행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감을 받아 계시된 성경 진리에 나타납니다.

지구상의 사람들, 그들의 종교 기관, 그리고 서구 기독교 세계의 사람들, 특히 그들의 기독교 기원 때문에 짓누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저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독특** 하고 **배타적인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마귀와 귀신의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사업은 단순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개념을 정당화하려고만 생각하고 종종 무지로 인해 죄를 짓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개념이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저주로 그들을 때리며 그들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문학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유일한 역할은 그의 택한 자들을 믿음의 시험에 두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계시하시는 동일한 가르침을 망치로 쳐서 사용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반복은 그 진실성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가 되며 그가 관련 예시된 진리에 부여한 중요성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들은 이러한 강조와 반복을 확증해 줍니다.

이 작품에서 당신은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 이름으로 우리를 방문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단에서 인용된 히브리어 "마시아"에 따르면 "기름부음받은 자" 또는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9:25 또는 “그리스도”. 새 언약 기록에 나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이 지은 원죄 이후 그분이 오시기 전에 행해졌던 동물 희생의 의식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그분의 완전하고 순수한 삶을 자발적인 희생으로 바치려고 오셨습니다. “ 기름 부음을 받은 자 ” 라는 용어는 감람나무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이름과 그분의 속죄 사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 계시는 그분이 택하신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의한 구원만으로는 택함받은 자들이 알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종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함정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자신의 은혜 제공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상 구원의 마지막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 기독교의 상황.

그러나 파종하기 전에 뿌리를 뽑는 것이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이 지구상에 만연한 거대 유일신교의 가르침으로 인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한 분 하느님을 강제로 강요하여 그분과의 관계와 분리를 증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부여된 겉보기 자유는 당시의 상황 때문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용하자마자 그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편협함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제를 통해 행동하기를 원하셨다면, 단순히 자신을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의 피조물이 그의 모든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가 선출된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를 사랑하거나 거부하는 자유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약이 있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본성에 의해, 사랑의 하느님에 의해 밀려나고 끌리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자연적 특성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사랑은 그것에 잘 어울립니다. 사랑은 그것을 승화시키고,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논쟁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승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이 무지하고 약할 당시에 물려 **받고** 범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주목! 지구상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정과 그 약함의 형태만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강하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그것은 감정이 완전히 통제되는 원리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승인하시는 참 종교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각, 법에 확립된 그분의 원칙을 자유롭게 따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은 물리적, 화학적, 도덕적, 정신적, 영적 법칙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구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사라지게 한다는 생각이 결코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듯이, 인간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원칙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에만 조화롭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완전히 정당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값없는 초대를 적용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한 견해를 전달하고 계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따르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 한 것처럼** “거룩함”의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의 의견은 처방전의 형태를 취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위해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면서 서둘러 순종하는 전문 의사가 제공하는 것만큼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틀렸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 영혼의 유일하고 참된 의사이십니다. 아프지만 상황이 좋을 때마다 치유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분은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된 모든 천상의 생명과 지상의 생명을 멸망시키고 멸절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불관용은 거짓 유일신교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얻을 위험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허물과 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믿지 않는 인류나 불충실한 인류를 징벌하고 치기 위해 그것을 재앙처럼 사용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증언에 의지합니다. 실제로, 옛 언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불충실함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블레셋” 백성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 지상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심판과 최종 정죄를 밝히고자 하셔서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봉사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 셋째,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언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후계자인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국가는 다시 멸망되었습니다. 기독교 시대에 공식적으로 321년에 다시 죄에 빠졌고, 538년부터 기독교 신앙은 교황의 편협함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적인 가톨릭 신앙은 같은 6 세기 에 종교적으로 무슬림이 된 중동 민족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불신앙 기독교는 그곳에서 영원한 강력한 적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진영의 종교적 반대는 극과 같아서 세상 끝날까지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역시 교만하며 독점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한 채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집합적으로도 여러 모임에 속하고 여러 거짓 종교에 함께 속한 구성원들을 특징짓습니다. 편협함을 정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관용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편협함은 악마 진영에서 영감을 받은 인간의 관행입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는 편협함의 사상을 의미하고 참된 믿음의 단어는 "예 또는 아니오"라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악의 존재를 지지하십니다. 그는 선출된 공무원을 선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계획된 자유의 시간 동안 이를 지지합니다. 따라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인류에게만 적용되며, 이 용어는 1598년 4월 13일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가 끝난 후에는 악한 자들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멸망될 것입니다. 관용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종교적 자유를 대체했습니다.

본 작품의 메뉴가 발표됩니다. 증거는 페이지 전반에 걸쳐 제시되고 시연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

라틴 유럽의 남성들이 사용하는 영적 사전에는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필수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묵시라는 단어가 이런 측면에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용어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종들에게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계시하는 “계시록”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 즉 반대 진영의 불행을 초래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정반대의 메시지는 가르침이 매우 풍부하며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매우 거룩한 “계시”에서 자주 암시됩니다.

또 다른 용어인 “천사”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프랑스어 단어는 메신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aggelos"에서 가져온 라틴어 "angelus" 자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번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 즉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창조하신 상대방에게 주시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성은 논리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유로운 상대를 살아 있는 메시지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각 피조물은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개인적인 선택과 위치로 특징지어지는 삶의 경험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각 생물은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천체, 우리가 전통적으로 “천사”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들에게 생명과 살 권리를 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데려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으며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 인간 종, 즉 아담이 필사자의 역할을 할 지상 차원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선과 선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할 경우 **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악과 악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반역적인 유형의 사람이 되며,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 최종적인 파멸과 그의 온 영혼의 멸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리의 성경적 기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지구 제도의 기원을 모세에게 나타내어 모든 인류에게 알리는 것을 선하고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적인 가르침의 우선순위를 지적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 그분은 시간의 질서를 조절함으로써 시작되는 그분 진리의 기초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와 고상한 일관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표준과 비교함으로써 불법의 사람이 세운 현 질서의 어리석고 일관성 없는 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죄이고 이미 원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용한 '시작', 그리고 '창세기'라는 책의 첫 번째 단어인 '기원'은 생명의 '시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구 자체 다음으로 넷째 날에 창조된 천상의 우주의 별들을 포함하는 우리의 전체 지구 차원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밤과 낮이 이어지는 이 특정한 지구 시스템이 하나님과 그의 신실한 선민과 마귀의 대적 진영이 대결하는 환경이 되도록 창조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사상 최초의 죄인인 마귀의 악에 맞서는 신적 선의 싸움은 그의 존재 이유이자 그의 보편적이고 다양한 구원 계획의 전체 계시의 기초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봉사 기간 동안 말씀하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모든 형태의 생명과 물질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추진하시는 위대한 계획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 중요한 괄호를 닫고 이 존재의 최고 주권자께서 확립하신 시간의 질서라는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연속된 7일 주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상기시키는 십계명 중 넷째 계명(또는 십계명)의 모델에 따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을 위해 성별한 날이며, 오늘날 이 행위가 무엇을 예언하는지 알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취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관행을 존중하십시오. 이 특별한 지상 창조의 이유를 설명하는 전체 계획에서, 제안된 시간 단위인 주(week)는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우주적(그리고 다중우주적)으로 나타내는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기간인 7,000년을

예언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주의 첫 6일과 마찬가지로 첫 6천년이 그분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과 마찬가지로 일곱째 천년도 그분의 완전한 의를 확립하는데 바쳐질 것입니다. 나는 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6일(천년 중 = 6천년)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일곱 번째(=천년)는 땅과 하늘의 반역자들을 심판하고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발적인 속죄 희생에 달려 있으며, 그의 신성한 뜻에 따라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예수라고 명명된 사람의 지상의 신성한 측면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래의 완전한 신의 질서에서 하루 전체가 연속된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2시간 동안 달밤이 지나고 12시간 동안 햇빛이 비치며 이 주기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일년에 이틀, 즉 춘분과 추분에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계절이 지축의 기울기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울기가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이전에는 이러한 경향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질서의 규칙성은 완전했습니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완전히 공전하는 것은 연도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모세는 간증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히브리인의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바로 그 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달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사물에 부여하시는 중요성을 증거합니다. 태음력 12개월로 구성된 히브리 달력은 시간에 따라 변동했으며, 이러한 지연이 몇 년 동안 누적된 후에 일치성을 회복하려면 태양 순서 뒤에 추가로 13개월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 춘분에 시작된 *해의 첫 번째 달 14일입니다*. 정확히 "처음"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이 달은 너희에게 있어서 첫 달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구원을 주장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계시를 받은 히브리 이스라엘은 신성한 프로그램의 위대한 우주 구원 프로젝트의 선봉에 불과합니다. 그의 달 시간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태양 시간이 뒤따를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표준의 완전한 회복은 반역하고 악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정의만큼 사랑을 확대하는 이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창조자의 영이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모든 관계는 그의 가치, 그리고 먼저 그의 시간 순서에 대한 검색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특별한

공로가 없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 측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접근하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사랑의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천국은 위업이나 기적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상호 관심의 표징에 의해 획득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사랑하는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서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질서에 대한 이 놀라운 그림을 본 후에, 우리 인간 질서의 한심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비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렇게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 가운데 우리는 단 7:25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단 하나의 기준만을 아십니다. 이는 창세로부터 친히 정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모욕을 저질렀습니까? 그가 “ 오만함 ”과 “ 그 속임수의 성공 ”을 꼽는 지배적인 정권. “ 다른 왕 ” 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이러한 기준의 종합은 종교적 힘을 암시합니다. 더욱이, “ 성도들을 박해한다 ”는 비난을 받아 해석의 가능성은 좁아지고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의 칙령에 의해 538년 이래로 설립된 로마 교황 정권 만 포함합니다. 그러나 묵시라고 불리는 계시록은 이 날짜 538년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 세가 321년 3월 7일부터 “ 시대와 신의 율법 ” 을 거스르는 악의 결과이자 확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 이 연구에서 그의 범죄가 자주 회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악한 날짜는 사도 시대에 확립된 순수하고 완전한 기독교 신앙에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교 제국 로마와 로마 카톨릭 교황 로마의 이러한 죄책감 공유는 다니엘이 기록한 증언에 담긴 예언적 계시의 주요 열쇠입니다. 이교 황제가 첫날의 안식을 제정했지만 그것은 기독교 교황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십계명의 “ 변경된 ”,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형태로 종교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죄의 저주받은 날

그리고 321년 3월 7일에 안식일의 나머지 거룩한 일곱째 날이 날짜가 적힌 제국 법령의 명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첫날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첫날은 이교도들이 태양신, 즉 SOL INVICTVS, 즉 무패의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바쳤는데, 이는 이미 출애굽 당시 이집트인들의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에서는 잉카인과 아즈텍인, 그리고 오늘날까지 일본인(“떠오르는 태양”의 땅)이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들의 피상성과 육욕적인 마음을 이용하여 영적인 삶과 역사적 과거의 교훈을 경멸하게 만듭니다. 오늘, 2021년 3월 8일,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뉴스는 이 분노, 즉 진정한 신성한 모독의 중요성을 증언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신성한 시간이 그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 년의 시간은 봄에 시작하여 겨울의 끝, 즉 현재 로마 달력으로 3월 20일부터 다음해 3월 2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321년 3월 7일은 하나님을 위한 320년 3월 7일, 즉 321년 봄 13일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는 320년이 그의 의롭고 의로우신 가증한 행위로 인해 마지막 날이 되는 해였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법.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2020년은 320년부터 수세기에 걸쳐 17^{주년} (17:심판수)이 됩니다. 그러므로 2020년 초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공격적인 국면에 들어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서구에서는 과학과 그 진보에 전적으로 신뢰와 믿음을 두는 인간 사회를 공황 상태에 빠뜨린 전염성 바이러스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패닉은 현재

과학자들의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이 17세기에 예언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우 그 숫자는 그가 예언을 구성하는 데 드러내고 사용하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7장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심판이니라. “ 큰 바벨론 ”은 그 이름이고, 관련된 “ 큰 물 ”은 다가올 제3차 세계 대전의 상징인 요한계시록 9장 13절의 “ 여섯째 나팔 ”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시는 “ 유프라테스 강 ” 을 압시합니다. 이러한 상징 뒤에는 교황의 천주교와 불성실한 기독교 유럽이 있으며, 이는 그의 분노의 근원이자 표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쇠솔과 흙솔의 싸움의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더 나아가 그것은 예언되고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20년 3월 7일(그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320년, 거짓 종교나 세속적인 세상을 위한 321년) 1700 주년을 어떻게 기념하실 예정이었습니까 ? 나는 오랫동안 세계 대전이 시작되면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원자 형태로 끝날 세계 대전은 하나님이 단 11:40부터 45까지,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세 번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 요한계시록 9:13~21. 2020년 봄부터 반역적인 인류에 맞서 하나님이 시작한 싸움은 모세 시대의 이집트 파라오; 최종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자기 시대에 장자가 죽는 것을 보고 장자를 잃은 바로처럼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것 입니다 . 2021년 3월 8일에 나는 이 해석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나는 321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신성한 영감으로 깨닫고 약 한 달 동안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 3월 7일이 아니라 이 저주받은 날이 붙어 있는 1년 전체를 의미하므로 이 형벌에는 다음 조항에 인용된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수기 14:34: “ 네가 그 땅을 탐지하는 데 사십 일이 걸렸던 것 같이 네가 사십 년 동안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요 하루는 일 년이니라 ” .

그러나 이 관찰에는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우리의 거짓 달력은 연초만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짜도 틀립니다. 부정확하게, 5 세기 에 수도사 Dionysius the Little는 실제로 그의 달력 4년에 일어난 헤롯 왕의 죽음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이 4년에 우리는 헤롯 *이 마태* 복음 2장 16절에 따라 죽이려고 했던 메시아의 나이로 추정 한 “ 2년 ” 을 추가해야 합니다. 박사들이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자세히 묻은 날짜대로 베들레헬과 그 온 지경에 있는 두 살 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니라 . 그래서 그가 연수를 셀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날짜에 6년을 더하셨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 해 봄에 일어났습니다 – 6. 결과적으로, 320년이 그에게는 326년이 되었고 17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2020년의 세속 기념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실제로 일어난

순간부터 2026년이었습니다. 이 숫자 26은 히브리어로 "Yod, Hé, Wav, Hé"라는 4문자 "YHWH"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모세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따라 하느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 ; 출애굽기 3:14에 따르면 이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신성한 저주로 표시되는 오늘 자신의 개인적인 왕실 입장을 표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이다. 올해 2026년 신성한 시간에 나타나는 전염병의 재앙은 행성 지구에서의 삶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다른 형태를 취할 이 저주의 연속성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제3차 핵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선포하신 "이방인의 때"의 "끝"이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국가.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이 "끝"은 유예 기간의 끝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구원의 제안은 끝날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시험은 마태복음 25:32-33에 나오는 "양"의 진영과 "염소"의 진영을 결정적으로 분리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를 분리하실 것입니다.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로마 일요일을 의무화하는 법령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선택된 성도들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상황은 단 12:7의 다음 말씀을 성취할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한 때와 두 때와 반때가 이르고 이 모든 일이 백성의 힘이 다하면 끝나리라 하더라 성자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일 것이며 죽음이 임박할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4:22에 인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날들을 감하시리라.** 6000년은 신의 시간인 2036년 4월 3일, 즉 봄이 시작된 후 14일째 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날로부터 2000년이 되는 우리의 거짓 달력인 2030년 4월 3일 이전에 끝날 것입니다. 30. 그리고 이 '날들'은 '단축'되거나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는 사망 판결의 적용일이 이 날짜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셔야 하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창조물에 주신 "시간"의 표준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그분의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상 역사의 6000년을 마감하는 2030년 봄의 첫날보다 며칠 더 앞선 날짜를 선택하도록 마지막 날의 반역자들에게 영감을 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끝날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날짜 또는 가능한 최대치와 영적으로 의미 있는 한계를 표시하는 2030년 4월 3일입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해의 14일은 세계 역사의 6000년이

끝나는 날이 아니며,⁷ 천년이 시작되는 날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선호와 믿음을 봄날인 2030년 3월 21일, 즉 “축약된” 예언적 시기인 4월 3일 또는 중간 날짜에 두는 이유입니다. 신이 창조한 자연이 특징인 봄은 인류 역사 6000년을 헤아려볼 때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성경 창세기 기록에서 이 첫 번째 봄까지의 날은 영원한 날이었습니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때는 최악의 땅의 때이며, 이주일에 예언된 6000년은 첫 봄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겨울이 끝날 때 끝날 것입니다. 6000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은 어느 봄이었다. 죄로 인해 지구는 축이 23° 26' 기울어졌고 계절의 연속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 명절에는 매주 안식일과 유월절이라는 두 가지 명절이 지배적입니다. 이 두 축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세 단계를 나타내는 “제7일, 제14일, 제21일”의 숫자 “7, 14, 21”의 상징 아래 배치 됩니다. “7”에 대한 선택된 성도들의 보상; “14”을 위한 이 보상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7일 동안 지속되는 유월절 축제에서 15일과 21일은 불경스러운 무활동의 두 안식일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세 개의 “7” 또는 “21”은 첫 7000년의 끝과 계시록 21장에 따라 갱신된 이 땅에서의 새로운 신성한 창조의 영원으로의 진입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 21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표인 인생 계획의 충만함(7)의 완성(3)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14절은 각각 제칠 일 안식일예수재림교회 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 여기서 다시 동일한 성화된 주제의 두 단계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7장은 재림교회 택함받은 자의 인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들의 우주적 사명을 요약하는 세 천사의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서기 30년, 4000년의 끝은 봄에 이루어졌고, 단지 상징적인 이유로 예수님은 서기 30년 봄, 즉 하나님을 위해 36년 3월 21일 로부터 14 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7'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택하신 자들의 죄 사함의 '14'가 분리될 수 없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7일”이 공격을 받을 때, “14일”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를 도우러 날아오시며, 두 날짜를 분리하는 최대 14일은 “축약” 될 것입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선출된 신자들을 구하기 위해 억압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읽어보니,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특히 세상 끝날에 그분의 제자들, 즉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1-14절은 “마지막” 때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쟁의 연속, 거짓 선지자의 출현, 최종적인 영적 냉각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5절부터 20절까지 이중 적용에서는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선택받은 자들의 유대인성에 대한 열방의 최종적인 공격에 모두 관련됩니다. 그 후에 21절은 그들의 마지막 “큰 환난”을

예언 **합니다** . “ **결코 없으리라** ”는 이 설명은 단 12:1의 가르침과 모순되기 때문에 사도 시대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두 인용문 모두 지상에서의 마지막 믿음의 시험에서 동일한 성취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12:1의 표현은 동일합니다: “ **그 때에 네 백성을 보호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것은 나라들이 존재한 이래로 그 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일 것입니다. 그 때에 책에 기록된 네 백성이 구원을 얻으리라.** ”. “ 환난 ”이 너무 커서 22절에 따르면 “ **그 날들** ”이 “ **감소** ”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발적으로 나타나실 때 자라지 않는 참된 믿음의 표준을 나타냅니다. “ **보라, 그가 광야에 있으니 거기로 가지 말라. 보라, 그가 방에 있으니 믿지 말라.** ” 같은 마지막 시대에 강신술은 그 “ **신동들** ”과 거짓 그리스도의 기만적이고 유혹적인 모습을 배가시킬 것이며, 이는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도 **속일** 정도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13:14에 의해 확인됩니다. “ **그리고 그녀는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이적들로 땅의 거민들을 미혹하며 땅의 거민들에게 이르기를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은 사람.** ” 27절은 신적 그리스도의 강력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며, 28절은 그의 개입 후에 맹금류에게 제공되는 “ **잔치** ”를 예언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반역자들은** 계시록 19:17-18과 21에서 가르치는 대로 멸망되어 “ **공중의 새들** ”의 목초지로 넘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에 신성한 창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주간을 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두운 밤과 밝은 낮으로 이루어진 낮의 통일성을 정하시고, **넷째** 날 부터 해가 그 주간을 비추게 하신다 . 밤은 이브와 아담의 장래 불순종으로 인해 땅에 죄가 확립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죄의 행위가 있기 전까지 지상의 창조물은 **영원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 죄가 범해지고, 상황이 변하고,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지고 계절의 원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6000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땅의 창조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특성** 을 갖게 됩니다 . 죄로 얼룩진 첫 번째 봄에 시작된 600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6001년 봄에 끝날 것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강림은 **일곱 번째 천년기의 첫째 해 “ 첫째 달 초하루 ”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우리 거짓 인간 달력의 2021년 3월 7일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이라크에서 박해받는 동방 기독교인들을 방문한 것으로 종교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그는 무슬림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으며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서양 불신자들을 기쁘게 하는 이 말은 택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리고 "전 십자군" 가톨릭 "기독교인"의 지도자가 그들의 영토에 침입하는 것은 이슬람주의자들의 분노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이 평화로운 행동은 단 11:40에 예언된 극적인 결과, 즉 교황 이탈리아와 그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무슬림 “남방 왕”의 “충돌”이 심화되는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도자들이 초래한 프랑스와 모든 서방 기독교 국가들의 경제 붕괴는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추진된 “제3차 세계 대전”의 성취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지난 9년의 끝으로 돌아가보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와 그 확산으로 전염병을 일으키시어 이 땅의 마지막 10년 역사를 특징짓는 저주의 길을 열어 주셨음을 기억하자.

그러나 2021년 3월 7일은 프랑스 여러 도시에서 청소년들이 라이벌 갱단 사이에서 경찰 당국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벌인 날이었습니다. 이는 일반화된 대결을 향한 길을 확인시켜 줍니다. 서로의 입장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해할 수 없다. 이는 정반대되는 두 문화, 즉 남부 국가의 보스와 카포 사회, 더욱이 전통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무슬림에 대한 서구의 세속적 자유가 충돌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극이 치료법 없이 일어나고 있다.

월 (12월) 이라는 이름을 지닌 12 월 이후 , 겨울이 시작될 때 연도가 변경됩니다 . 한밤중(자정)의 낮 변화; 정확하고 규칙적인 시간 계산만이 긍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신적 질서는 죄로 인해 사라졌고, 죄악된 질서로 대체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산을 위해 나타나실 때, 즉 처음 6천년이 끝날 때, 속이는 인간들을 위해서는 2030년 봄, 또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주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탄생이 있는 2036년 봄입니다.

확립되고 관찰된 무질서는 인류를 짓누르는 신성한 저주를 증거합니다. 지구가 기울어진 이후로 시간 계산의 안정성과 규칙성이 상실되어 밤과 낮의 시간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조직하시는 순서는 그분이 인간에게 제시하시는 영적 우선순위를 더욱 드러냅니다. 그분은 인간이 지상에서 4000년 동안 겪은 일을 겪은 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바침으로써 자신의 숭고한 사랑을 드러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의 순종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 주겠다.”

지상에서는 인간들이 서로 계승하여 같은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지만, 2020년에 접어든 마지막 세대의 세대는 특이성을 지닌다. 75년간의 유럽 평화와 최근 유전 과학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발전한

이후, 매우 논리적으로 유럽인과 미국, 호주, 이스라엘 출신의 파생물은 모든 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사회는 점점 더 위생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전염성 바이러스의 공격이 아니라, 선진 사회 지도자들의 행동이 새로운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의 행동의 원인은 그들이 미디어의 폭격을 통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미디어 중에서는 거미줄에 나타나는 뉴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가 무료 인터넷 통신을 구성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다소 투명한 디퓨저를 찾으십시오. 따라서 인류는 저주로 떨어지는 자유의 과잉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폭력으로 인해 소수민족 공동체가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바벨” 경험의 저주이다. 배우지 못한 또 다른 부인할 수 없는 신성한 교훈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같은 언어를 말하는 한 부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최악의 경험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인류는 신이 창조한 여러 언어와 방언으로 분리되어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이루어진 후 처음 7일 이후에도 창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창조하여 저주하고 때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린 만사를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자유가 있으며, 이는 창조주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대의에 대한 우리의 자유로운 헌신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완전한 자유가 우연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전혀 믿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에서 많은 부분을 우연에 맡기셨고, 무엇보다도 택하신 자들 사이에서 그의 계시된 천상의 규범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식별하신 후 그들을 인도하고 영원한 해의 왕국의 삶을 준비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인간이 탄생할 때 관찰되는 기형과 기형은 종의 번식 과정에서 다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유전적 오류를 낳는 우연의 작용을 입증합니다. 종의 확산은 때때로 적합성 오류를 생성하는 생식 사슬의 추진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전의 원리가 포함되거나 생명의 기회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나의 믿음을 자유로운 삶의 기회에 빚지고 있다면, 나는 이 믿음의 보상과 자양분, 즉 하느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취하신 조치와 그분께서 계속해서 취하시는 조치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상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날은 주중 첫 번째 날이 됩니다. 그의 운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반대하기 위해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선택받은 이 첫째

날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불순종하는 반역자들의 “ 𐄂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첫 번째 일요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성화의 표징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관한 것이며 이 숫자 7, “7”은 충만을 상징합니다. 충만이라는 용어 아래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상 차원을 창조하신 목적, 즉 죄의 규제, 정죄, 죽음과 사라지는 목적에 대한 생각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주간 안식일에 예언된 일곱 번째 ^{천년왕국} 동안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지상에서 택하신 자들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극심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이루실 구속의 수단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 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 창세기에서 “밤-낮” 또는 “ *저녁-아침* ”의 순서가 이어지는 것은 이러한 신성한 생각을 확증해 줍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으로 가장하여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새벽의 아들 새벽별이여 ,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도다 ! 당신은 땅에 던져졌습니다. 민족들의 정복자여 !* » 하나님께서 그를 “ **새벽별** ” 이라고 부르신 표현은 그가 그를 우리 땅의 “해”에 비유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그의 첫 번째 피조물이었으며 두로 왕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에스겔 28:12은 그의 원래 영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곡하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네가 인봉을 완전하게 하였고 지혜가 총족하며 아름다웠 도다* » 이 완벽함은 사라지고 반역적인 행동으로 대체되어 그를 원수, 마귀, 원수,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사탄이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불법이 발견되기까지 창조되었느니라 .* ” 따라서 “ **새벽 별** ” 로 간주되는 사람은 불충실 한 사람들을 신의 창조의 “**새벽 별**”, 즉 **거의 전 세계 서구 기독교가 이교적으로 숭배하는 로마 숭배에서 신격화 한 “정복되지 않는 태양”**을 신으로 존경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이 첫 천사가 자신에게 반역할 것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전날 12사도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알리셨고 심지어 유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무슨 일이든지 속히 하십시오!* ” .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의 선택에 반대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을 표현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사도들에게 자신을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충실함을 보여 주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궁극적으로 천상과 지상의 적, 무가치하고 무관심한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원죄

첫날의 나머지 기간은 321년 3월 7일 이후 회복된 “**죄**”를 구성하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진영에 반역한 진영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시대에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죄**”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를 상속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원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주제를 통해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창세기에 숨겨진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관찰 수준에서 이 책은 1장, 2장, 3장에서 창조의 기원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 숫자의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완벽하게 정당합니다. 1 = 단위; 2 = 불완전성; 3 = 완벽함. 이것은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Gen.1은 처음 6일의 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의 “**저녁 아침**”은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땅의 저주 이후의 의미만을 가질 것이며,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주제가 될 것이며, “**저녁 아침**”이라는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상과 수준의 의미입니다. 3장은 설명을 전달함으로써 이 신성한 계시에 완전함의 인을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서 제칠일 안식일, 더 정확하게는 제칠일의 나머지 하나님과 인간의 주제도 하와와 아담이 범한 “원죄” 이후에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존재 이유를 알려주는 Gen.3.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창세기 3장에 제시된 정당성이 없다면, 거룩하게 된 안식일은 불완전성의 “2” 상징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땅이 마귀와 그의 귀신들에게 바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악한 열매가 물질화되어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모두의 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편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죄”의 저주를 예언한다는 점을 지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의 순간부터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6천년의 시간과 일곱 번째 천년의 천년이 의미, 설명, 정당화를 갖게 됩니다. 다음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상 창조 이전, 하늘에서는 이미 악마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개인의 선택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지상 창조에서 죽도록 정죄받은 반역자들이 하늘에서 추방됨으로써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녁 아침**”에 교대로 천사들의 삶을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영원한 표준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영원히 승리하고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직면했을 때: 죄 이전의 지구는 어떻습니까? “저녁-아침”의 교대를 제외하고, 그 규범은 또한 천국의 규범이기도 하며, 분명히 삶은 영원한 규범 속에서 전개됩니다. 비건 동물, 비건 인간, 그리고 죄의 삶인 죽음이 없다면 날은 날이 이어지며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안식으로 일곱째 날에 끝나는 일주일의 시간의 순서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그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을 모두 가리킨다.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도 인간도 피곤함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몸은 질병이나 피로, 어떤 종류의 고통도 겪지 않았습니다. 이제 7일 주간은 “저녁 아침” 연속이 하나님 왕국의 천적 규범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이어지며 영원한 순환처럼 스스로 재생산됩니다. 따라서 이 차이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그램을 예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욘 키푸르(Yom Kippur)” 또는 “속죄일”이라는 축제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매년 갱신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된 속죄를 통해 죄가 끝날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매주 안식일도 일곱째 날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천년왕국, 그 때는 반역자들이 죽고 악이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택하신 분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은 여전히 “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들”과 그 때에 필멸의 잠 속에 잠들어 있을 죄인들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6일과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도 일주일 전체의 7일을 포괄하고 관련된 “죄”라는 표시 아래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둘째 사망의 불”에서 소멸된 후, “죄” 없는 영원이 새로워진 땅에서 시작되는 것은 오직 8천년이 시작될 때입니다. 만약 7일이 죄로 표시되고 그들이 7000년을 예언한다면, 이 7000년의 계산은 창 3장에 나타난 죄가 확립되면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지상의 날은 연속적인 “저녁 아침”이나 “어둠의 빛”의 규범과 논리에 속하지 않으며, 이 시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 계획되고 예언된 7000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7일씩.

이 가르침은 단 7:25에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황권에 부여하신 이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때와 법을 변경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대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매주 안식일의 예언적 성격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1세 이후 · 321년 3월 7일부터 일곱째 날이 아닌 첫날에 주간 휴식을 명령함으로써 행해진 일입니다. 로마 질서를 따름으로써 죄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죄를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죄”를 떠안게 됩니다.

저녁 아침 ” 또는 “ *어두운 빛* ” 의 시간 순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개념이며, 이 선택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적 신비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없으며 인류가 낮의 변화를 자정, 즉 봄이 진 후 6시간에 표시하도록 선택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너무 늦게 깨어나는 사람들의 진영을 예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묘한 메시지는 그의 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 신적 시간의 질서는 그분의 모든 예언,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 *알파와 오메가* ”, “ *시작과 시작과 끝* ” 으로 표현하신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조명합니다 . 우리 삶에서 지나가는 매일매일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 *밤* ” 또는 “ *어두움* ”은 창세기 1장에 제시된 세속적인 여섯 날을 나타내고, 창세기 2장에서 확립된 하나님의 안식은 “ *가벼운* ” 시간. 단 8:14에 따르면 기독교 시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안식일을 범하는 “ *죄* ”가 확립되는 321년과 1843년 사이의 영적 “ *어두움* ”의 시간이다. 선택된 자들을 위한 “ *빛* ”의 시간은 이 날부터 2030년 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창 3장에서와 같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은 선택된 자들과 선택된 자들 사이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반역자, “ *양과 염소* ”를 “ *뱀과 여자와 아담* ” 사이에서 심판하셨습니다 .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의 주제는 처음 여섯 교회에 대해서는 “ *어두움* ”을 , 이 주제들 각각의 일곱 번째와 마지막 등급에 대해서는 신성한 “ *빛* ”을 예언합니다. . 1991년에 제도적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빛*”, 즉 1982년 이래로 나에게 주신 빛인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의 “ *라오디게아* ”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 ... 공식 재림교인들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다음 인용문을 잊어버렸습니다. “ 이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라 ... 이제 우리에게서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 이 기관은 1863년부터 자리를 잡았으며 예수께서는 1873년 “ *빌라델비아* ” 시대에 그 설립을 축복하셨습니다. 신성한 원리 “ *저녁 아침* ” 또는 “ *밝은 어두움* ”에 따르면 *마지막이자 일곱 번째 시대*는 “ *라오디게아* ”라는 이름으로 상징됩니다. “하나님의 큰 “ *빛* ” 의 시대가 될 것이었고 현재의 작업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공식 재림교회 기관을 희생시키면서 예언된 신비를 밝히기 위해 큰 “ *빛* ”이 실제로 왔습니다. 세계적인. “ *라오디게아* ” 라는 이름은 “심판을 받은 사람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더 이상 주님께

속하지 않거나 더 이상 주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날”의 지지자들과 합류하라는 정죄를 받습니다. 로마의 “일요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정죄를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안식일은 그들에게 세례를 받는 복된 때만큼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 엘렌 G. 화이트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녀의 책 “초기 기록”과 첫 번째 시현에서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사악한 세상이고 우리는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빛”의 때를 예언 하고 창세기의 이 장은 “**일곱째 날**”의 기록함으로 시작됩니다 .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 이 두 주제 사이의 연결은 그들의 육체적인 나체의 발견이 그들이 범할 “ 죄 ”의 전가의 결과가 될 것이며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필멸의 영적 나체의 원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르침을 “*라오디게아*”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벌거벗게*” 만드는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맥락에서 안식일의 실천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존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82년부터 1991년 사이에 공식 재림교회 당국에 안식일의 완전한 예언적 빛을 제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가 높아졌고 그분은 이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룩한 안식일을 실천함으로써 그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택하신 자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에 예언된 계시를 위해 그의 관심과 시간과 생명과 온 영혼을 바치는 시대입니다 . 뿐만 아니라 계시록 11:3에 따르면 “*두 증인*”을 구성하는 계시된 성경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

하나님이 땅 위에 주신 증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인류를 방문하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모세 시대에 방문하신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상 차원의 기원을 계시하신 것은 바로 이 먼 상황에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서 창세기의 기록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계시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상의 생명을 조직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형태는 그분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계획을 예언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거나, 그것을 거부하고 죽음의 무(無)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의 조건.

아담이 홀로 창조되었다면, 첫째, 그는 자신의 형상에 대한 자유로운 상대로부터 사랑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형상 (창 1:26-27)”

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고독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그의 생명체에게 주려고 했던 자유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정도로 그는 이것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 중 하나에서 이브가 창조된 것은 그가 죽음의 잠에 잠겨 있는 동안 그의 교회, 즉 그의 신실한 택자로 구성된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의 속죄로 수확된 열매의 창조를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나온 여자, 하와라는 이름이 “ 생명 ”을 의미한다고 하신 “ 돕는 자 ”의 역할을 정당화합니다. 선택받은 분은 영원히 “ 살 ” 것이며, 지상에서 그녀는 영원한 우주에 완벽하게 공유되고 방해받지 않는 사랑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인간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 도움 ”을 바쳐야 할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하와를 통해서나 이 원죄를 물려받을 그녀가 선택한 자들의 상징인 “ 여자 ”를 통해서 인류에게 들어옵니다. 또한 아담처럼, 하와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택하신 자 대신에 그녀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필멸의 형벌을 함께 짊어지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의 기원과 상황을 드러내는 역사적 증언인 동시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획의 구원 원리를 드러내는 예언적 증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창조의 처음 6일(하나님께서 지상의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6천년을 예언한 6일)이 지난 후, 창세기 2장에서는 영원한 안식일의 이미지 아래 무한한 일곱째 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검증되고 선택된 당선자.

하나님은 그의 계획의 결과, 즉 6천년 동안 나타날 그의 택하신 자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상 차원을 창조하지 않고도 반역하는 천사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피조물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 지상에서 만인의 시위를 조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원칙을 높이십니다. 시편 51:6에서 선포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 거듭남 ” 또는 “ 진리로 난 자 ”로 정의하셔서 그들이 신성한 진리의 표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따르면, 그 자신이 “ 진리를 증거 ” 하러 오셨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 진실하신 분 ”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진리의 원칙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거짓말의 원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며, 두 원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거짓말의 원리는 역사 전반에 걸쳐 지구상의 주민들을 끊임없이 유혹해 왔습니다. 현대에는 거짓말이 존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인의 마음에서 “ 허세 ”라는 용어로 채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요한 복음 8:44에 따르면 “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열매입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거짓말은 관련된 지구상의 민족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종교적 위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로 “혼란”(=바벨)의 완벽한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위조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말은 과학적으로 가르칩니다.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과는 달리, 과학적 사고는 종의 진화 이론과 과학자들이 지구의 존재에 대해 수백만 년을 부여한 것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고와는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증언은 그분의 실재에 대한 많은 증거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역사가 그분의 활동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홍수는 평원과 바다 화석의 존재로 입증되는 첫 번째 예입니다. 심지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도. 이 자연적 증언에 더해 인류 역사, 노아의 삶, 아브라함의 삶,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히브리인의 해방, 유대 민족의 탄생 등 그 역사의 살아있는 목격자들이 남긴 증언이 추가됩니다. 세상의 종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목격자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떠났고, 그들의 스승이시며 모델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순교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기서는 “순교”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설명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참고: 순교와 형벌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두 물건은 겉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징벌적 조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택하신 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매우 기만적인 하나님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순교한 것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원칙에서 출발하는

다음 분석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자. 순교란 무엇인가?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martu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주제에 관해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이해한 것을 충실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주제는 종교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는 참 증인과 거짓 증인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에게 알려지고 그는 그것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증인은 자신이 계시한 모든 진리를 “행위” 로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죽은 진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 길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진정한 순교입니다. 죽음에 바쳐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요구하신 거룩함의 표준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공된 생명이 이러한 일치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순교가 아니며, 살아있는 존재를 멸망시키기 위해 마귀에게 넘겨주는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요구하신 진리의 표준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순교”를 식별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목표로 하는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작품의 목표이자 주제이다.

진리에는 반항적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역 이후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명명하신 첫 번째 창조된 천사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진리는 선택받은 자,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진리를 해치는 거짓말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성한 계시는 6천년 동안 최고의 조건과 최악의 조건에서 살아온 경험과 간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축됩니다. 6천년이라는 시간은 짧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삶의 햇수에만 실질적인 관심을 두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수세기에 걸쳐, 더 정확하게는 6천년 이상 연장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 그의 글로벌 프로젝트 성취의 다양한 단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비밀과 사역에 관하여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예비된 분명한 이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중요한 예언적 요약

이러한 이해에서 창세기 기록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성서 예언에 대한 근본적인 열쇠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열쇠 없이는 이러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언 연구 중에 필요할 때 기억될 것이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 *깊음, 바다, 땅, 여자* "라는 단어가 계시된 "묵시록"에서 신성한 사상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지상 창조의 세 가지 연속 단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심연* "은 생명체가 전혀 없이 물로 완전히 뒤덮인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둘째 날에는 죽음의 동의어이자 상징인 요소 분리의 " *바다* "가 5^{일째}에는 해양 동물들만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환경은 공기를 마시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적대적입니다. " *땅* "은 " *바다* "에서 나와서 다섯째 날에는 동물들이 살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는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과 지음을 받은 " *여자* "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갈비뼈에. 남자와 여자는 함께 두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영적 선택받은 자의 유형인 첫 번째 " *아벨* "(*아벨 = 아버지는 하나님이다*)은 *육욕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 획득)의 유형인 그의 장르 "가인"*에 의해 질투심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자, 그들은 "가인", 유대인, 카톨릭, 개신교, 모든 "성전 상인들" 때문에 순교자로 고통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지상 역사 전반에 걸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저갱* "에서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거짓 기독교의 상징인 " *바다 와 땅* " **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자신이 선출한 의회를 지정하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 *여자* "라는 단어를 부여합니다. 그녀가 하느님께 충실하다면 " *어린 양* "의 " *아내* "는 " *남자* "라는 단어로 예언된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아담) . 만일 그녀가 불성실하다면, 그녀는 여전히 ' *여자* '로 남지만, ' *창녀* '의 이미지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 연구에서 제시된 상세한 연구에서 확인될 것이며 그 중요성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2020년에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예언된 일들이 이미 대부분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들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

인간은 그 기원부터 본질적으로 믿는 유형에 속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신이나 신, 분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섬겨야 하고 기쁘게 해야 하는 우월한 영의 존재를 믿어 왔습니다. 이 자연적인 믿음은 수세기에서 수세기, 수천년에서 수천년에 걸쳐 현대까지 이어졌으며, 그 이후 과학적 발견이 서양인의 뇌를 사로잡았으며, 그 이후로 그들은 불신하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기독교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동시에 동양, 극동, 아프리카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러한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목격한 초자연적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불신을 금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들이 실제로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거부되고 시험을 거쳐 죽음을 선고받은 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도 아니고 서양인들처럼 불신자도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유혹하고 폭군적인 지배하에 두는 악마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성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인류의 특징이 되어온 우상 숭배적인 이교도 유형입니다. Eve는 그의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서구에서 불신앙은 사실상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기독교 기원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화주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의 존재를 모르지 않는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 그것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불신앙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불신앙이며, 이는 참된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반항적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지구 전역에서, 특히 아프리카 민족의 초자연적 현상에서 그에게 제공하는 증거를 고려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불신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마가 수행하는 초자연적 행동은 서양의 불신을 정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에게 복종하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통해 강력하게 행동하시며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십시오. 지진, 화산 폭발, 파괴적인 해일, 치명적인 전염병,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신성한 기원을 가리고 파괴하는 과학적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적인 눈에는 인간 두뇌를 설득하고 두뇌를 파멸로 이끄는 선택을 장려하는 과학적 설명이 추가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그는 그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지지하는 사람, 즉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선택할 것 입니다. 믿음은 수단일 뿐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거짓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을 구별하시기 위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그는 그의 선택의 목표가 독특하고 그의 영생 제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에 그의 의견이 각 피조물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유일한 재판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통과는 이러한 영원한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정당화됩니다. 믿음은 엄청난 노력과 희생의 결과가 아니라,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획득했거나 획득하지 못한 자연 상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존재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사라진다.

참된 믿음은 드문 일입니다. 공식 기독교의 기만적인 측면과는 반대로, 피조물의 무덤 위에 십자가를 놓는 것만으로는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14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간과된 것 같아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예를 통해 성경에서 더욱 확증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와 다섯 명의 강력한 왕만을 선택하실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에스겔. 그런 다음 겔14:13-20을 읽습니다. “**인자야 만일 어떤 나라가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범하므로 내가 그 위에 손을 펴고 그 위에 떡덩이를 쥐고 기근을 보내면 내가 그 위에서 사람과 짐승을 멸하고 그 중에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었다면 옴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땅에 들짐승을 돌아다니며 사람이 살지 않게 하고 그 땅이 이 들짐승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사막이 되고 그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있다면 나는 살아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만 구원을 받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혹은 내가 이 땅에 칼을 가져오며, 칼이 이 땅에 퍼지게 하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는데 그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있다면 나는 살아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자녀는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가령 내가 이 땅에 염병을 보내어 사망으로 말미암아 내 진노를 부어 사람과 짐승과 그 중에 노아와 다니엘과 옴을 멸절할지라도 나는 살아 있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자녀를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구원하려 하였느니라. » 이로써 우리는 홍수 당시 방주의 보호를 받은 여덟 사람 중 노아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14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거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높은 거룩함의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됩니다. 이 요구의 결과는 인간을 모든 것 위에 두는 세계에 대한 인본주의적 사고에 반대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반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 예수님은 마태복음 10:37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보다 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의 아들, 딸이 나보다 더 많아 나에게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이 나처럼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종교적 기준에 응하도록 초대한다면, 그가 당신을 광신자라고 부를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계시록 3:7의 “ **참되신 분** ”입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인간의 대가가 될 것이며, 그분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자기희생과 완전한 헌신에 합당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의 규모를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은밀한 생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반적인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은 지상 경험에 앞서 천사들의 천상 생활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상 사회에서는 피조물을 나누는 일과 하나님께 충실한 선한 천사를 선택하는 일이 지상에서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그분을 거부하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을 위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정죄하는 수단이며,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사랑을 가지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선택된 사람들. 그분이 완전한 자기 희생을 보여 주신 **목적은 그분과 같은 존재감을 공유하지 않는 반역적인 하늘과 땅의 피조물을 법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피조물 중에서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승인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영원함을 공유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가 없다면 그분이 선택하신 피조물들의 사랑은 무가치하고 심지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유가 없으면 생물은 자동화된 행동을 하는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대가는 결국 하늘과 땅의 반역적인 피조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 라는 단순한 말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제시됩니다. 이 성경 단어들은 “믿다”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바, 즉 참된 믿음의 특징인 신성한 법칙에 대한 순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랑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피조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상의 천사들과 지상의 인간 피조물 중에서 일부를 찾으셨고, 일부를 선택하셨고,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부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날씨에 딱 맞는 음식

인간의 몸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필요하듯이, 영으로 자라나는 신앙에도 영적인 영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표현에 민감한 모든 인간은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열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양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 ”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그에게 여전히 생생하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갈망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영광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시기 직전인 우리의 마지막 날에 그분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는 비유의 이미지를 곱함으로써 그것을 설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마 24:32-34; 밤도둑의 비유, 마 24:43-51;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1~12;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13~30; 양과 염소의 비유(마태복음 25:31~46). 이 비유들 중에서 “음식”에 대한 언급은 두 번 나타납니다. 밤도둑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 양식이 없으면 사람의 믿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 마태복음 4:4”. 믿음의 양식의 목적은 영생의 권세를 잃게 하는 계시록 20장의 “둘째 사망”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의 일환으로, 밤도둑의 비유에 시선과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V.42: “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가 정의되었으며, 그 “기다림”은 1831년에서 1844년 사이에 북미 미국에서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재림교”라고 부르는데, 이 운동의 구성원들은 그들 자신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재림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출현을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V.43: “ 잘 알 것이다.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밤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구절에서 ' 집 주인 '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이고, ' 도둑 '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 날짜를 아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격려하시며, 그분의 조언을 듣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를 조절해 줄 것입니다.

V.44: “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절에서 동사의 미래 시제를 수정했습니다 . 왜냐하면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이 동사들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 질문하는 동시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서는 이 “재림교인”이라는 주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선별하여 예언적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네 가지 재림교인의 기대 사항을 연속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매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에 관한 처음 세 구절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빛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V.45: “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자기 백성을 맡아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

판단하는 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음식”이 현재 당신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이 영적 “음식”을 구성하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이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답변 너머에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재림교인”이 “기다려라”에서 2030년 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재림 날짜와 같은 예상치 못한 계시가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에 관심을 갖고 진리와 분별의 하나님께 대한 나의 충실함의 열매인 이 문서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놀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밝히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충실히 기다리는 택하신 자들의 신앙을 키우는 데 적합한 “음식”을 계획하셨습니다 . 그리고 이 “음식”은 예언적입니다.

V.46: “ 주인 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맥락은 여기서 확증되는데, 그것은 네 번째 “재림교인”의 기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종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 곧 사람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이 마지막 신성한 빛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재림까지 이 마지막 빛을 전파하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선택된 자들에게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관련될 것입니다.

V.47: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그 모든 소유를 다스리리라. »

주님의 재물은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영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영적 보물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신탁과 계시된 빛의 독점적 보관소입니다. 이 문서 전체를 읽고 나면 내가 성경의 예언적 계시에 “보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둘째 사망 ”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 주는 계시에 무슨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 믿음과 구원에 치명적인 의심의 가능성을 소멸시키고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V.48: “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은 이진형이다. 모든 것에는 절대적인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길, 즉 그들의 선택을 인도할 두 가지 길, 즉 삶과 선, 죽음과 악을 제시하셨습니다. 밀과 왕겨; 양과 염소, 빛과 어둠. 이 구절에서 성령은 악한 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표적으로 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않는 거짓 믿음, 무엇보다도 우리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 신앙 자체에 이르게 되는 거짓 기독교 신앙을 가리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1982년에서 1991년 사이에 그에게 제시되고 1994년에 오실 것이라고 공고한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로부터 빛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이 재림교회는 1991년 11월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된 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 **스스로 말한다** ” 는 마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외부 종교 행위의 겉모습은 극도로 기만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는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살아 있는 참된 신앙을 대체합니다.

V.49: “... 만일 그가 자기 동무를 때리기 시작하며 술취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 이미지는 지금까지 약간 예상된 것이지만, 방사능은 평화의 시대에 다가올 실제 박해를 표현하고 선행하는 반대와 투쟁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제도적 재림교회는 1995년부터 에큐메니칼 동맹에 들어가 개신교, 천주교와 동맹을 맺을 정도로 “ **술고래와 함께 먹고 마시는** ” 활동을 해왔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 **큰 바벨론** ” 이라 불리는 가톨릭 신앙 과 “ **땅** ” 이라 불리는 개신교 신앙을 겨냥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 **땅의 임금들이 그와 함께 음행에 방임하였도다** ” 라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땅의 주민들은 그의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했어.**”

V.50: “ ...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 종의 주인이 오리라.”

세 번째 재림교인의 기대와 1994년이라는 날짜에 관한 빛을 거부한 결과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재림의 때, 즉 신성한 계획에 대한 재림교회의 네 번째 기대에 대한 무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이므로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재림교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분의 판단으로는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V.51: “ ... 그가 그를 찢고 **위선자들과 함께 그 몫을 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거짓 종들에게 내리실 진노를 표현합니다. 나는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 단 11:34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 **외식하는 자들** ” 이라는 용어를 언급합니다 . 그러나 예언이 목표로 삼은 시대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33절과 35절을 포함하여 더 넓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칼과 불꽃과 포로와 약탈에 한동안 굴복할 것입니다. 그들이 굴복할 때에 조금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위선에서 그들과 합류할 것이다.**”

지혜자 중에 몇 사람이 떨어져서 **마지막 때까지 정결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희게 되리라** 이는 정한 때까지 이르지 아니함이라. »
그러므로 “ 악한 종 ”은 참으로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하고 “ 마지막 때까지 ” “ **위선자들** ”의 진영 에 가담하는 자입니다 . 그때부터 그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르면, 결정적으로 “ 둘째 사망 ”을 주는 “ 불못 ”에서 소멸되고 소멸되는 마지막 심판까지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15절: “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게시된 참된 믿음의 역사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에 관해 할 말이 많지만, 나는 이미 나에게 우선순위로 보이는 이 측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상과 천국의 삶의 개념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교만하고 악한 생각 위에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우리의 체계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적과 그가 참으로 택한 자의 적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마태복음 7:16).” 이 진술에 근거하여, 그의 이름을 주장하고 출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온화함, 그의 도움, 그의 자기 희생, 그의 희생 정신, 그의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열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의 종이 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참된 거룩함의 카리스마를 정의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라”**.

박해받는 자와 박해하는 자가 하나님께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를 죽을 때까지 고문했던 로마 교황의 종교재판이나 존 칼빈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을 보지 않으려면 성경 기록에서 영감을 받은 단어를 무시해야 합니다. 성경이 온 세상에 퍼지기 전에는 그랬지만, 성경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판단의 오류를 어떤 변명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크고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 사역에 수고하신 삼년 반의 기간이 복음서에 게시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견해에 대한 참된 믿음의 표준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유일한 것.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모델로 제공됩니다. 그분의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이러한 입양은 그가 제안하는 영생에 대한 그의 개념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파괴적이고 파괴적인 자존심뿐만 아니라 이기심도 추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정하신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제공되는 영원한 생명에는 잔인함과 사악함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평화롭게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며 주님이신 그분께서는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몸을 굽히셔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특징이 되는 것들입니다. 절대적인 반대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기준은 영생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과 적, 하나님의 거짓 종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택하신 자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지켜지며, 이는 그들의 지상 생활 전체에 걸쳐 그들을 계몽시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참된 믿음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분의 빛과 성령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러가신다면, 그것은 택하신 자가 더 이상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그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인간의 행동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수준에서는 양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선으로. 그러나 집단적 수준의 종교 단체와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에서 악으로 변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 7:18).” 그리하여 그분은 가톨릭 종교가 그 가증스러운 열매 때문에 “ *나쁜 나무* ”이며, 그 거짓 교리로 인해 군주제의 지원이 박탈되어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중단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자신의 간음과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창시한 성공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과 후계 군주에게 어떤 가치를 주실 수 있습니까? 개신교 칼빈주의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시자인 존 칼빈은 그의 가혹한 성격에 대한 평판과 그가 그의 도시 제네바에서 합법화한 수많은 처형으로 인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가톨릭 관습을 넘어서는 지점까지. 이 개신교는 감미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 같지 않았으며 어떤 식으로든 참된 믿음의 모델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하나님은 개신교 개혁을 무시하고 1260년의 교황 정권과 1844년 이후 계시된 신성한 진리를 전달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메시지가 확립된 시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 2030년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까지.

역사적으로 사악한 종교적 위조물은 모두 하나님이 승인하신 모델의 측면을 갖고 있지만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속적으로 양육되지만, 거짓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성경 예언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지만 거짓 믿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언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세상에 유포되고 있는데, 각각의 해석은 이전 것보다 더 환상적입니다. 그들과 달리 나의 해석은 성경의 인용문을 통해서만 얻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일관되고, 결코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다니엘서를 위한 준비 노트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은 신앙의 주된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피조물을 그분의 계시되고 이해된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의 축복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사랑을 구체화하고 입증하는 피조물의 사랑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와 같이 상징을 사용하는 그분의 예언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니엘서를 통해 처음으로 계시되지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계시될 기독교 종교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주된 기초를 놓을 뿐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거의 계시하지 않으시지만, 이 양적인 계시는 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예언적 계시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건축 건축가는 건축 현장 준비가 얼마나 결정적이고 결정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언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받은 계시에 주어진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실제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신의 선택받은 자에게 성령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십니다.** 이 “몇 가지 일”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다니엘 시대 이후 네 개의 우주적 지배 제국이 연속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것(단 2, 7, 8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공식적인 연대(단 9); 321년에 기독교 배교가 선포되었고(단

8장), 교황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 통치했다(단 7장과 8장). 그리고 1843년(2030년까지)의 “재림교” 동맹(단 8장과 12장). 여기에 단 11장을 덧붙이겠습니다. 단 11장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구세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전에 아직 성취되어야 할 궁극적인 지상 핵전쟁의 형태와 진화를 드러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교묘하게도 다니엘의 이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삼가라!** (마태복음 24:15)»

만일 예수께서 다니엘의 편을 들어 증거하셨다면, 다니엘은 그 이전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의 초림과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그에게서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분명하게 이해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니엘에게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단 10:13-21, 12:3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계시록 12:7의 그리스도. 이 이름 “**Micaël**”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유명한 몽생미셸(Mont Saint-Michel)에 붙여진 이름인 라틴 카톨릭식 미셸(Michel)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분이 처음 오시는 해를 알 수 있도록 수치적인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나는 또한 “**미카엘**”이라는 이름이 다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두 이름 모두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첫 번째 이름은 천적 칭호를 갖고, 두 번째 이름은 땅의 칭호를 갖습니다.

미래의 계시는 다층 건설 게임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영화 초기에 만화에서 부조 효과를 만들기 위해 영화 제작자는 서로 다른 페인트 패턴이 겹쳐지면 여러 수준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유리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것은 다니엘에서 시작된다

다니엘서

이 작품을 읽는 여러분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록 숨겨져 계시지만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이 증언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증거를 상기시키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새 언약의 증거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의 경험은 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활동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신교의 종교사를 행하신다는 심판을 발견하게 되는데, 유대교는 첫 번째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이 그의 새로운 동맹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 위에 세우신 4월 30일, 30일에 대한 심판을 발견하게 해준다. 연대. “ **다니엘** ”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은 우화가 아니라 그의 충실함의 모델에 대한 신성한 축복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4장 14-20절에서 그를 불행 중에 구원할 세 사람 가운데서 제시하십니다. 선택된 자의 세 가지 유형은 “ **노아, 다니엘, 욥** ”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도 우리가 이러한 모델을 닮지 않으면 구원의 문은 우리에게 닫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선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확증합니다. “ **다니엘** ”과 그의 세 동료의 이야기는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신실함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생애에 관한 이 이야기에는 또한 전혀 모르고 숭배하던 세 명의 강력한 왕의 회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들을 인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대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대변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범적인 사람들은 사라지고 종교, 가치, 도덕성은 끊임없이 쇠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영혼을 빼앗는 일이 기나긴 싸움이고, “ **느부갓네살** ” 왕의 사례는 그러한 종류의 극히 드러나는 모델입니다. 이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양 떼를 떠나는 “ **선한 목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확증합니다.

다니엘 1

단 1: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 1a-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
- 608년부터 - 597년까지 11년간 여호야김 통치. - 605년 3년.
- 1b- 느부갓네살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바빌로니아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나부는 내 장자를 보호하신다." 나부(Nabu)는 메소포타미아의 지식과 글쓰기의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식과 글에 대한 이러한 능력을 그분께 회복시키려고 의도하셨다는 것을 이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1:2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일부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느부갓네살은 그 기구들을 시날 땅 자기 신의 전으로 가져가서 자기 신의 창고에 두었더라.

2a-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그의 손에 붙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대 왕을 버리신 것은 정당합니다. 대하 36:5: 여호야김은 25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2b- 느부갓네살은 그 기구들을 시날 땅 자기 신의 전으로 가져가서 자기 신의 창고에 두었더라.

이 왕은 이교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신인 벨을 공경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에 개종한 후에도 그는 동일한 신실함으로 다니엘의 참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단 1: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단 1:4 몸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총명과 학문이 구비하여 왕궁에서 모일 수 있으며 갈대아 사람의 문자와 방언을 배우게 될 소년들이라.

4a- 느부갓네살 왕은 친절하고 지능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단지 유대인 어린이들이 그의 사회와 그 가치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1:5 왕이 그들에게 매일 자기 상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삼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여 그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

5a- 왕의 좋은 감정은 분명합니다. 그는 신들로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것을 젊은이들과 나눕니다.

단 1:6 그 중에는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느니라

6a-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젊은 유대인들 중에서 오직 네 명만이 모범적인 충실함을 보였습니다. 다음의 사실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하는 자들과 그를 섬기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의 열매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단 1: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으니 다니엘 벨드사살과 하나냐 사드락과 미사엘 메삭과 아사랴 아벳느고라

7a- 승자가 부과한 이교도 이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 젊은 유대인들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우월함의 표시이자 참하느님께서 가르치신 원칙입니다. 창 2:19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랴 부르시는지 보시려 하시고 또 모든 생물을 사람이라 이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에게 줄 것입니다.

7b-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는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벨이 보호하리라”. 벨은 이 이교도 민족들이 전혀 모르고 섬기고 존경하는 악마를 악마 영의 희생자로 지정합니다.

하나냐 “야웨로부터 받은 은혜”는 “아쿠에게 영감을 받은 사드락”이 됩니다. 아쿠(Aku)는 바빌론의 달의 신이었습니다.

Mishaël "하나님의 의는 누구인가"는 "Aku에 속한" Meschac이 됩니다.

Azariah "도움이냐 도움은 YaHWéH입니다"는 "Abed-Nego" "Nego의 종"이 되며 이미 칼데아의 태양신이 있습니다.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간구하니라

8a- **이교도 이름을 갖는 것은** 패배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정도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요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충성심으로 인해 그들은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삼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으로 바빌론에서 존경받는 이교 신들에게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젊음은 성숙하지 못하며 거짓 신들을 바람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인 바울처럼 아직 추론하지 못합니다(롬 14; 고전 8).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까 두려워서 그들처럼 행동합니다. 만일 그와 반대로 행동하더라도 그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과 양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저지르는 더러움을 정죄하십니다. 이 예에서는 이교도 신들을 기리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단 1:9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시 앞에서 은총과 은혜를 주셨느니라

9a- 젊은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단 1: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나는 내 주 왕을 경외하노라 그가 네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네게 정해 주셨느니라 왜 그가 당신의 또래 젊은이들의 얼굴보다 더 낙담한 얼굴을 보아야 합니까? 당신은 내 머리를 왕에게 노출시킬 것입니다.

단 1:11 다니엘이 내시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도록 맡은 청지기에게 이르되

단 1:12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시고

단 1:13 그 후에 당신은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당신이 본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단 1:14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셨다.

단 1:15 열흘 후에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아름답고 통통하였더라

15a-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가 경험한 “ 십일 ”을 아포서 2장 10절의 “ 서머나 ” 시대 의 메시지에 대한 예언적 박해의 “ 십일 ” 사이의 영적 비교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 . 실제로 두 가지 경험 모두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열매를 드러내십니다.

단 1:16 청지기는 그들에게 줄 음식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채소를 주었느니라

16a-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여 그들이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분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왕의 청지기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체험은 성공이다.

단 1: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과 모든 학문에 총명과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설명했습니다.

17a 하나님이 이 네 청년에게 지식과 모든 학문에 총명과 지혜를 주셨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총명하고 지혜로운지,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여부가 얼마나 그분께 달려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17b-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모든 꿈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다니엘은 그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집트인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충실한 요셉에게 당시에 주신 간증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제물 중에서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모든 것, 즉 영광과 부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승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 1:18 왕이 정한 때에 내시가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로 가져오니라

단 1:19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청년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왕을 섬기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단 1:20 왕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것들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0a- 하나님은 이렇게 “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 ”를 보여 주십니다. 이는 말 3:18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의 이름은 성경의 간증에 포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실함의 표현은 세상 끝날까지 택하신 자들을 격려하는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1: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러하였느니라.

다니엘 2

단 2:1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니라 그의 마음은 불안했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1a- 그래서 - 604에서. 하나님은 왕의 정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단 2:2 왕이 그 꿈을 그에게 말하려고 마술사와 점성술사와 마술사와 갈대아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은 와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2a- 그런 다음 이교도 왕은 그때까지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였던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단 2:3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여 이 꿈을 알고 싶습니다.

3a-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꿈을 알고 싶습니다. 그는 그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2:4 갈대아인들이 아람 말로 왕께 대답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 2:5 왕이 다시 대답하여 갈대아인에게 이르되 이 일이 내게는 도망쳤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는 찢겨지고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되리라.

5a- 왕의 비타협적 태도와 그가 취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예외적이며, 이교의 사기 행위를 무너뜨리고 충실한 종들을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단 2:6 그러나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면 너희가 내게서 선물과 은사와 큰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나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말하여 주십시오.

6a- 이러한 선물과 예물과 큰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단 2:7 그들이 두 번째 대답하되 왕께서는 그 꿈을 신하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리라 하더라

단 2:8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참으로 당신이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은 이 일이 나에게서 벗어났음을 보시는 고로인 줄 아노라

8a- 왕은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 것을 그의 현자들에게 물었고 그는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단 2:9 그러므로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 모두에게 동일한 판결이 임할 것이요 당신은 시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거짓말과 허위를 말할 준비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 꿈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해석을 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a- 시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거짓말과 허위를 말할 준비를 하려는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거짓 선견자와 점술가가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9b- 그러므로 나에게 꿈을 말해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해석할 수 있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논리적 추론은 사람의 생각 속에 나타난다. Charlatans는 순진하고 지나치게 속기 쉬운 고객에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왕의 요청으로 그들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단 2:10 갈대아인들이 왕께 대답하되 세상에는 왕의 물으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왕도 마술사나 점성가나 갈대아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10a- 그들의 말이 참되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이교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사람의 영이 주신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악마의 영에게로 넘어갑니다.

단 2:11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에게 말할 자가 없나이다

11a- 여기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을 통해 그들은 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들을 통해 숨겨진 신들로부터 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기꾼들의 상담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왕이 시작한 도전은 그들의 가면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지혜의 대가인 솔로몬에게 이미 송고하게 제시된 참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고 무한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단 2:12 왕이 이에 노하여 심히 노하여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단 2:13 그 판결이 공포되자 박사들은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과 그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13a-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죽음 앞에 두심으로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영광 중에 살리실 것입니다. 이 전략은 선택된 자들이 반란군이 정한 정해진 날짜에 죽음을 기다리게 될 재림교회 신앙의 마지막 경험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강력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하늘에 나타나실 때 서로 죽이는 반역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2:14 다니엘은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갔던 왕의 시위대장 아르옥에게 지혜롭고 지혜롭게 말하였더라

단 2:15 그가 왕의 장관 아르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판결이 어찌하여 그같이 엄하나이까 Arjoc은 Daniel에게 이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단 2:16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시기를 간구하니라

16a- 다니엘은 그의 본성과 종교적 경험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적 은사가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있으며, 그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왕이 요구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그에게 알리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까?

단 2:17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의 동무 아사랴에게 이 일을 고하니

17a- 네 젊은이가 다니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무리가 함께 모이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를 대표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애는 아름다운 연대 정신을 보여주는 이 젊은이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단 2:18 그들을 강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남은 박사들과 함께 멸망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18a- 그들의 생명에 대한 강력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열렬한 기도와 진실한 금식은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이미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많은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 끝 날에도 죽음의 법령의 표적이 된 마지막 선택받은 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단 2:19 그 밤에 환상으로 그 은밀한 일이 다니엘에게 보이니라 그리고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9a- 택하신 자들의 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이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려고 시험을 정하셨음이니라 그들을 왕의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경험을 거듭할수록 그것들을 자신이 이끌고 마침내 개종시킬 왕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이 개종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느님께서 성별하신 네 명의 유대인 젊은이들의 신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행동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단 2:20 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지혜와 힘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20a- 이 경험에서 그의 지혜의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칭찬입니다. 그녀의 힘은 여호야קים을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했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단 2:21 그는 때와 형편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시니라

21a- 이 구절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모든 이유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깨달을 때 결국 개종할 것입니다.

단 2:22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나니 빛이 그와 함께 있느니라

22a- 마귀도 깊고 숨겨진 것을 드러낼 수 있지만 빛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을 유혹하여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승리하신 이후로 지상의 어둠에 처해 있는 마귀들이 놓은 치명적인 덫을 그들에게 드러내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단 2:23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시고 왕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고 찬송하리이다.

23a- 다니엘의 기도에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 경험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칙, 즉 “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가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얻으려면 지원자의 충성심이 모든 테스트를 견뎌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다니엘이 받은 힘은 왕의 생각에 작용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며, 왕은 그 때까지 그와 그의 백성이 알지 못했던 다니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강요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단 2:24 그 후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한 아르옥에게로 가니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라 하매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a- 지혜로운 이교도들의 생명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다니엘에게서 신성한 사랑이 읽혀집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완전한 겸손의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증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이며, 그의 좋은 믿음의 행위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단 2:25 아르옥은 다니엘을 급히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유다 포로 중에서 왕에게 설명할 사람을 찾았나이다

25a- 하나님은 왕을 큰 고통에 빠뜨리시므로 그가 그토록 바라던 응답을 얻으리라는 희망만으로도 왕의 진노는 즉시 가라앉을 것입니다.

단 2:26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보일 수 있느냐?

26a- 그에게 주어진 이교도 이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상되는 대답을 줄 사람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었습니다.

단 2:27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물으신 것은 은밀한 일이라 박사와 술객과 박수와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이실 수 없나이다

27a- 다니엘이 지혜로운 자들을 대신하여 중재함. 왕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 2:28 그러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당신의 꿈이자 침대에서 본 비전입니다.

28a- 이 설명의 시작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주제는 항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 했으며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은 흥미롭고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왕의 주의를 이끈다. 이는 물질화된 신들을 숭배하던 왕에게는 놀라운 일이다.

단 2:29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이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시며 비밀을 누설하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단 2:30 만일 이 은밀한 일이 나에게 드러났다면 그것은 내 속에 모든 생명체보다 더 큰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왕에게 설명을 하여 네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30a- 내 속에는 살아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왕에게 알릴 것입니다.

행동하는 완벽한 겸손. 다니엘은 물러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가 그때까지 섬겼던 자들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십니다. 이 말이 그의 정신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30b- 네 마음의 생각을 아시느니라

이교에서는 참하느님의 선과 악에 대한 표준이 무시됩니다. 왕들은 결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권세가 크므로 두렵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발견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의 성품의 결함을 점차적으로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대담하게 행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교훈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안에서 행동하실 때에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단 2:31 *왕이여, 왕께서 보시고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조각상은 거대하고 매우 화려했습니다. 그녀는 당신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31a- *당신은 큰 조각상을 보았습니다. 이 조각상은 거대하고 매우 화려했습니다.*

이 동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뒤를 이을 지상의 대제국들의 계승을 예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광은 인간이 바친 부와 영광과 영예로 뒤덮인 역대 통치자들의 영광입니다.

31b- *그 사람이 네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이 형편없더라.*

조각상이 예언한 미래는 왕의 뒤가 아닌 왕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의 끔찍한 측면은 세상 끝날까지 인류 역사를 특징짓게 될 전쟁과 박해를 야기할 수많은 인간 죽음을 예언합니다. 통치자들은 시체 위를 걷는다.

단 2:32 *이 형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의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었고*

32a-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38절에서 그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이 상징은 그를 특징짓는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개종하고 섬길 것이기 때문이다. 금은 베드로전서 1:7에서 정결한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의 오랜 통치는 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며 성서에서 그가 언급되는 것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상 통치자들의 계승 건설의 **우두머리 이기도 합니다.** 예언은 그의 통치 첫 해인 605년에 시작됩니다.

32b- *그의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음*

은은 금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그것은 변하지만,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각상에 대한 설명을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는 인간 가치의 저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 539년부터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칼데아 제국을 계승하게 됩니다.

32c-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었고*

황동은 은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구리 기반의 금속 합금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하게 악화되고 외관이 변합니다. 그것은 또한 은보다 단단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가단성이 있는 금보다 단단합니다. 성(性)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형상의 중심에 있지만 인간 재생산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제국은 참으로 매우 번성하여 인류에게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이교 문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녹여서 주조한 구리로 만든 그리스 조각상은 사람들의 감탄을 끝까지 받을 것입니다. 육체의 나체가 드러나고 그 타락한 도덕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 제국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수세기,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죄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단 11:21~31에서는 175년부터 168년까지 “7년” 동안 유대 민족을 박해했던 에피파네스로 알려진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4세가 그가 앞서는 교황 박해자의 모형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이 장의 예언적 설명. 이 32절은 로마제국으로 이어진 제국들을 연속적으로 그룹화하고 연상시킨다.

단 2:33 *그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의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33a- *철로 된 그의 다리*

네 번째 예언된 제국인 로마제국은 철로 대표되는 최대의 단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산화되고 녹슬고 파괴되는 가장 흔한 금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악화가 확인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신교자들입니다. 그들은 패배한 적의 신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죄가 그 확장을 통해 그 제국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33b- *그의 발은 부분적으로는 철이고 부분적으로는 진흙이다*

이 단계에서는 점토 부분이 이러한 강력한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설명은 간단하고 역사적입니다. 395년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그 후 동상의 발의 열 발가락은 10개의 독립된 기독교 왕국을 세우게 되지만 모두 538년부터 교황이 되는 로마 주교의 종교적 감독하에 놓이게 됩니다. 단 7:7과 24에 언급되어 있다.

단 2:34 *왕 께서 보고 계실 때에 돌이 손대지 아니한 중에 떨어져 나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니*

34a- 치는 돌의 이미지는 돌에 맞아 죽는 관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죄인을 처형하는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세상의 죄인들을 돌로 치게 됩니다. 계 16:21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은 우박이 될 것이다. 이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행동을 예언합니다. 속 3:9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모퉁이에 있는 돌의 형상을 주시니 이 돌로 하나님이 그의 신령한 집의 건축을 시작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둔 돌은 이 하나의 돌에는 일곱 개의 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길 것은 내가 직접 새기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그리고 내가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삭4:7에서 읽습니다. 스룹바벨 이전에 큰 산이여 네가 누구냐? 당신은 부드러워 질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환호 속에 주춧돌을 놓을 것입니다. 은혜, 그녀를 위한 은혜! 같은 곳인 42절과 47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보라 순금 등대가 있고 그 위에 꽃병이 있고 일곱 등잔이 있고 등대 꼭대기에 등잔대 일곱이 있으며 ... 시작이 미약한 날을 멸시하던 자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평탄함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보시는

여호와와 그의 눈이니라. 이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돌과 촛대의 일곱 눈이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형상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에 어린 양이 있는데 거기에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죄악된 민족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며, 인간의 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 2:35 그러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겨처럼 되었습니다. 바람에 날려갔으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 채웠느니라.

35a- 이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서 나오는 겨 같이 되었으니 바람에 날려갔으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상징된 민족들의 후손들은 모두 그들의 죄 가운데 남아 있었고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당하기에 합당했으며, 형상은 이 멸망을 예언합니다.

35b-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으니

천년 동안 하늘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선택된 자들을 새로워진 땅에 세우는 일(계 4장, 20장, 21장, 22장) 후에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밝힐 것입니다.

단 2:36 이것이 그 꿈이다. 우리가 왕 앞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6a- 왕은 마침내 그가 꾸는 꿈을 듣게 되었다. 그를 속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답은 고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그에게 설명하는 사람도 같은 환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미지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왕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단 2:37 왕이여, 왕은 만왕의 왕이시니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통치와 능력과 힘과 영광을 주셨음이니이다

37a- 저는 우리가 왜곡되고 부패한 시대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강력한 왕에게 다니엘이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는 이 구절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공식적인 연설은 모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갈대아 왕을 존경했습니다. Tuinality는 단일한 제3자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고립된 주체가 사용하는 문법 형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배우 몰리에르가 당시에 말했듯이 “왕은 위대하지만 그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서약의 표류는 자랑스러운 “태양왕” 루이 14세와 함께 있던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37b 왕이여 왕은 만왕의 왕이시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왕에게 주셨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존경심보다 왕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인정을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사실, 하늘의 왕 중 왕은 지상의 왕 중 왕을 세웠음을

증명합니다. 왕을 다스리는 것이 황제의 칭호입니다. 제국의 상징은 "독수리 날개"인데, 이는 단 7장에서 그것을 첫 번째 제국으로 특징지을 것이다.

37c- *전원,*

그것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며 양, 즉 질량으로 측정됩니다.

그것은 머리를 돌리고 강력한 왕을 자부심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왕은 때때로 교만에 굴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단 4장에 나타난 심한 굴욕의 시련을 통해 그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얻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Dan.7에서 이 힘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꿈의 상징적 이미지를 취할 것입니다 .

때로는 자신과 삶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권력은 오지 않는 큰 행복을 얻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게 만든다.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만, 이 느낌은 거의 지속되지 않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유명하고 존경받고 부유한 예술가들은 명백하고 눈부시며 영광스러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살합니다.

37d- *강도*

그것은 상대방이 싸움에서 몸을 구부리게 만드는 압박감과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성격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점은 품질과 효율성으로 측정됩니다.

또한 그 상징은 사사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사자 입이다*.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고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인가”. 사자의 힘은 근육에 있습니다. 발과 발톱, 특히 희생자를 삼키기 전에 붙잡고 질식시키는 입의 부분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기한 수수께끼에 대한 이 대답의 방향이 다른 계시는 그들에 대한 그의 편에서 비교할 수 없는 힘의 행동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37위와 *영광*.

이 단어는 지상과 천상의 개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경험까지 인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운명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주님을 그의 종들의 종이 되게 하심으로 얻으실 해의 영광을 발견하는 일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 결국 이 영광과 그에 따른 하늘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단 2:38 *그가 거하는 곳마다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네 손에 붙이사 너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너는 바로 너니라 황금 머리.*

38a- 이 이미지는 단 4:9에서 느부갓네살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38b- *당신은 금의 머리입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알고 계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금머리인* 이 상징은 그의 미래의 성화와 영원한 구원을 위한 그의 선택을 예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금은 정결한 믿음의 상징이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불로 연단하여도)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연약한 금속인 금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신 이 위대한 왕의 형상입니다.

단 2:39 *왕의 뒤에는 왕보다 작은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나라는 늦으로 되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39a-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질은 악화될 것입니다. 그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의 은이 머리의 금보다 적으니까. 느부갓네살처럼 메대 사람 다리우스도 개종할 것이고, 바사 사람 고레스도 Esd.1:1~4에 따르면 모두 다니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사 사람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1. Esd.6과 7에 따르면, 시련 속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39b- *그 다음에는 셋째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 나라는 청동으로 되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 제국의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이를 상징하는 황동은 불순함, *죄를 가리킨다*. 단 10장과 11장을 연구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의 문화는 공화주의적 자유와 원칙에 따르면 한계가 없는 모든 비뚤어지고 타락한 편차의 창시자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잠언 29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계시가 없을 때, 사람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가 법을 지키면 행복합니다!*

단 2:40 *네 번째 나라는 철처럼 강할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부서뜨리는 것과 같이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부서지고 부숩니다.*

40a- 이전 제국을 지배하고 그들의 모든 신성을 채택하여 모든 부정적인 특성을 축적하여 참신함, 화해할 수 없는 강인함의 철제 규율을 가져올 로마의 네 번째 왕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 됩니다**. 이는 어떤 국가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서쪽의 영국에서 동쪽의 바빌론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철은 양날의 검, 갑옷, 방패 등 진정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군대는 공격할 때 창끝이 뿔뿔이 들어찬 갑피의 모습을 취하며 무질서한 공격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적으로부터 분산됩니다.

단 2:41 *네가 그 밭과 밭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로 된 것을 보신즉 이 나라가 나뉘리라 그러나 그 안에는 철과 같은 힘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41a- 다니엘은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미지는 말합니다. *발과 발가락은 철로 상징된 이교 로마 제국을 계승할 지배적인 국면을 상징합니다 . 분열된 이 로마제국은 분열 후 형성된 작은 왕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철과 진흙의 연합은 힘을 넣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약함을 낳는다. 우리는 도공의 점토를 읽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따르면 토기장이는 하나님입니다: 오 이스라엘 집이여,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를 대할 수 없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진흙은 하느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선택하여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삼으시는 인류의 평화로운 구성 요소입니다.*

단 2: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이 나라가 얼마는 견고하고 얼마는 부서지리라*

42a - 로마 제국은 395년에 통일성과 지배력을 잃었지만 로마의 철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 설명은 로마 카톨릭 신앙의 종교적 유혹에 의해 지배가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500년경 클로비스와 비잔틴 황제들이 로마 주교에게 제공한 무장 지원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의 명성과 새로운 교황권을 구축하여 그를 만들었지만, 인간의 눈에는 기독교 교회의 지상 지도자로만 보였습니다. 538년부터.

단 2:43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네가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철과 진흙이 섞일 것임이니라 그러나 철이 진흙과 결합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43a- 단 7장 7절과 24절에서 열 개의 손가락은 열 뿔이 될 것이다. 몸과 발 다음으로 그들은 마지막 때에 유럽의 서방 기독교 국가들, 즉 우리의 나라들을 상징한다. 연대. 유럽 국가들의 위선적인 동맹을 질책하시며, 하느님께서 2,600년 전에 오늘날의 유럽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협정이 정확히 "로마 조약"에 기초하여 단결된 협정의 취약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단 2:44 *이 왕들의 날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키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는 이 모든 왕국을 깨뜨리고 멸할 것이며, 그는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44a- *이 왕들의 시대에*

열 발가락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동시대의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44b-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일으키시리라*
 택함 받은 자들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그의 사역 이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 이후 2천년 동안 이 선택은 악마적인 진영의 겸손과 박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843년 이후로 단

8장과 12장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수는 극소수였습니다.

6000년 택함의 시대가 끝나고 제7 천년기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택자들에게만 영원한 안식일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순종하는 인간들을 데리고 마귀와 반역하는 천사들과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택될 것입니다.

44c-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상의 인간 지배와 계승을 종식시키기 때문입니다.

44d *그가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친히 영원히 있으리로다*

성령은 끝이라는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절대적인 의미. 모든 인류가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Rev.20은 7 천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마귀는 하늘도 땅도 없이 포로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1000년 동안 택하신 자들이 죽은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1000년이 끝나면 마지막 심판을 위해 악인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와 구원받은 택자를 맞이하기 위해 땅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새롭게 만드실 땅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상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시룩이 드러낼 더 복잡한 행동을 요약합니다.

단 2:45 *네가 본 돌이 사람의 손의 도움도 없이 산에서 떨어져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이 이것을 나타내느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께 알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사실이고 그 설명도 확실합니다.*

45a-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돌로 상징된 천년**의 천년 심판과 최후 심판 집행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새 땅에서 환상에서 선포된 **큰 산이 형성되고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영원.

단 2: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명하니라*

46a- 여전히 이교도인 왕은 그의 본성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는 다니엘에게서 구한 것을 모두 받고 그 앞에 몸을 굽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자신을 향해 행하는 우상 숭배 행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하고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단 2:47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진실로 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만왕의 주재시라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발견하였으니 그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라*

47a-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개종을 향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참 하나님, 사실상 신들의 신이요 만왕의 주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돕는 이교도 수행원은 그의 개종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그의 말은 예언 활동의 효율성을 증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정상적인 인간을 선택받은 사람은 굴복하고 타락한 사람은 저항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의 벽에 부딪히게 합니다.

단 2:48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일으키고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를 세워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통치자를 삼으셨느니라*

48a- 느부갓네살은 바로가 그보다 앞서 요셉에게 행한 것과 같이 다니엘에게도 행하였더라. 그들이 총명하고 완고하게 닫혀 있거나 막혀 있지 않을 때, 위대한 지도자들은 귀중한 자질을 가져다주는 종의 봉사에 감사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과 그들의 백성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신성한 축복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참하느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단 2:49 *다니엘은 왕에게 바벨론 도의 직무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맡기기를 구하니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49a- 이 네 젊은이는 그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온 다른 유대인 젊은이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특별한 신실한 태도로 인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누구에게나 극적이 될 수 있었던 이 시련이 있은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인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분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두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눈에 공개적으로 합당함을 보여준 선출직 공무원을 높이십니다.

다니엘 3

단 3: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도 여섯 규빗이더라 그는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골짜기에 세웠습니다.

3a- 왕은 다니엘의 살아 계신 하나님을 확신했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대망상증은 여전히 그의 특징이다. 주변의 어른들은 우화 속의 여우가 까마귀에게 하듯이 그를 이 길로 격려하고 숭배하며 신처럼 숭배합니다. 또한 왕은 결국 자신을 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교에서는 다른 거짓 신들이 움직이지 않고 동상의 형태로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표류가 쉽다고 말해야 하지만, 살아 있는 왕인 그는 이미 그들보다 우월합니다. 그러나 이 금은 신상을 세우는 데 얼마나 형편없게 사용되었는가! 분명히 이전 비전은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신들의 신이 그에게 보여준 영예조차도 그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심지어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따라 시련을 통해 정화된 믿음의 상징인 금은 이 장에 설명된 새로운 경험에서 다니엘의 세 동료에게 이러한 유형의 숭고한 믿음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예언된 죽음의 법령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될 마지막 재림교회의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단 3:2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려고 총독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대판사들과 재무관들과 변호사들과 재판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행정관을 소집하니라.

2a- 단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시련과는 달리 그 경험은 왕을 둘러싼 사람들의 음모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그의 성격의 열매이다.

단 3:3 이에 총독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대판사들과 재무관들과 법률사들과 재판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행정관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을 봉헌하려고 모였느니라.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단 3:4 전하는 자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을 말하는 자들아 그들이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러하니라

단 3:5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기타와 삼부케와 양금과 백파이프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5a-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심판의 신호는 나팔소리 로 주어질 것입니다 .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 소리로 상징되고, 앞선 여섯 가지 형벌도 나팔로 상징되는 것과 같습니다.

5b- *당신은 옳드릴 것입니다*

부복은 명예를 표현하는 물리적인 형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의 손으로 그것을 상징하시며*, 이는 거룩하고 신성한 안식일을 대체하는 이교 태양의 날을 실천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5c- *그러면 너도 좋아할 거야*

예배는 명예를 바치는 정신적인 형태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이마에 그것을 형상화하셨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록에 인용된 상징에 대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마와 손*은 그의 생각과 행위를 요약하며, 선택된 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상징은 *짐승의 표*와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의 "일요일"과 동일시되며 이후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고 지지합니다. 에큐메니컬 동맹에 합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부과한 이 조치의 전체 조직은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충실성을 시험하는 세상 마지막 날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의 율법에 저항한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그들이 강요된 공동 예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을 제거되어야 할 반역자로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은 다니엘의 세 동료 경험하게 될 것과 완벽하게 일치할 것이며, 그들은 이미 입증된 충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교훈은 먼저 175년에서 168년 사이에 에피파네스로 알려진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4세에게 박해를 받아 죽음을 맞이한 옛 동맹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단 11장은 일부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참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느니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편을 택했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셨고,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 살해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개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단 3:6 *누구든지 몸을 굽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요*

6a- 다니엘의 동료들에게 위협은 *불타는 풀무입니다*. 이 살해 위협은 최후의 사형 선고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처음의 체험과 나중의 체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풀무불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핍박하는 침략자들의 마지막 심판의 형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3:7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나팔과 피리와 기타와 삼부케와 양금과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거든 곧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백성이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7a- 인간의 법과 규례에 대한 대중의 거의 일반적이고 만장일치로 복종하는 이러한 행동은 여전히 지상 신앙의 마지막 시험 당시의 그들의 행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의 마지막 우주 정부도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할 것입니다.

단 3:8 이때와 동시에 어떤 갈대아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참조하니라

8a-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로 인정하시지 않는 모든 영혼을 지배하는 마귀의 진노의 표적입니다. 지상에서는 이 악마적인 증오가 질투와 동시에 큰 증오의 형태로 구체화됩니다. 그들은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악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결과인 이러한 악을 설명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죽임으로써 제거해야 할 대중적인 저주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단 3:9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9a- 악마의 대리인이 현장에 등장하면 줄거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단 3:10 나팔과 피리와 기타와 삼부케와 양금과 백파이프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마다 엎드려 금 신상에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10a- 그것은 왕에게 그가 한 말과 순종이 요구되는 왕권의 질서를 상기시켜 줍니다.

단 3:11 누구든지 몸을 굽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11a- 죽음의 위협도 회상됩니다. 함정은 선택된 성도들에게 닫힙니다.

단 3:12 이제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관리직을 맡기신 유대 사람들이 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주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며

12a- 유대인 외국인들에게 높은 지위가 맡겨지고 불길한 질투가 촉발되어 살인적인 증오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대중의 보복심에 의해 선별되고 정죄됩니다.

단 3:13 이에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 명하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13a-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에게서 왕국의 가장 높은 지위를 얻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백성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 짜증나고 분노한 " 상태가 그들의 뛰어난 자질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단 3: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높이 둔 금 신상에게 절함은 어찌 됨이나

14a- 그는 그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내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습니까?

단 3:15 이제 준비하고 나팔과 피리와 기타와 삼부케와 양금과 백파이프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신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내가 만든 것; 만일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지리라.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냐?

15a-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깨달은 왕은 자신의 보편적인 제국 명령에 복종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묻는 질문은 느부갓네살이 왕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해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대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의 날짜를 정할 것도 없습니다.

단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왕께 대답할 것이 없나이다

16a- 당시 가장 강력한 왕에게 한 이 말은 터무니없고 불경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한 이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충실을 유지하기로 굳게 결심한 살아 계신 하느님께 순종하는 모범이 됩니다.

단 3: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7a- 왕과 달리 신실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상의 시험에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간직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애굽인과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영광스러운 기억과 연관시키면서 그들은 왕을 무시할 정도로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의 결단력은 죽음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완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개입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왕이시여,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단 3:18 그렇지 아니하시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18a-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을 경우, 배신자와 겁쟁이로 살아남는 것보다 충실한 선택으로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충실함은 168년 그리스 박해자가 부과한 시험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독교 시대 내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법과 악한 사람들의 법을 혼동하지 않을 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 3:19 이에 느부갓네살이 노가 가득하여 얼굴을 변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돌이켰더라 그는 다시 말하여 풀무불을 뜨겁게 해야 할 것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a- 이 왕은 평생 동안 자신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을 본 적도 듣지도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분노와 그의 얼굴 모양의 변화를 정당화합니다 . 마귀가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유인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단 3:20 그리고 그는 군대 중 가장 강한 군인 몇 명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단 3:21 이 사람들을 바지와 속옷과 겹옷과 기타 옷을 입은 채 결박되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지더라.

21a- 언급된 모든 물질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가연성입니다.

단 3: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거기 던진 사람들이 불꽃에 죽고

22a- 이 사람들의 죽음은 이 풀무 불의 치명적인 효능을 증거합니다.

단 3:23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박되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23a- 왕의 명령이 실행되어 심지어 그의 종들도 죽었습니다.

단 3:24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기 모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박된 사람 세 명을 불 가운데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왕이여!

24a- 그 시대의 왕 중의 왕은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는 세 사람을 용광로 불 속에 던져 넣는 행위가 현실인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자신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에게 그 사실을 확증해주었습니다. 오 왕이여, 그것은 확실합니다!

단 3:25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네 사람이 매이지 않은 채 불 가운데로 행하여 아무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번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25a- 오직 왕만이 그를 놀라게 한 네 번째 인물의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의 모범적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응답을 받습니다. 이 불 속에서 왕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빛과 불의 형상을 본다. 이 새로운 경험은 첫 번째 경험을 능가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실체가 그에게 여전히 입증되었습니다.

25b- 그리고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네 번째 인물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왕은 그를 신들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 이 표현은 참으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이시며 사람의 아들 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

단 3:26 느부갓네살이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나오라 하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26a- 다시 한 번, 느부갓네살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자 왕 앞에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변신시킵니다. 이 알림은 이전 시현의 경험에 대한 간증을 일깨워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호소를 하십니다.

단 3:27 총독들과 청지기들과 총독들과 왕의 모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불이 이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타지 않았고, 속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불의 냄새도 그들에게 닿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27a- 이 경험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느부갓네살에게 그분의 진정한 전능하심에 대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땅과 차원에 사는 모든 인간과 모든 동물의 삶을 규정하는 지상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나 천사들 모두 이러한 지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방금 증명하셨습니다. 보편적 법칙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 법칙 위에 계시며, 자신의 뜻에 따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명성을 가져다줄 기적적인 사건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3:28 느부갓네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섬기며 경배하기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라도!

28a- 왕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남자로서 다시 일어난 그는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경험이 쓸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분이 살아 계시고 활동하시며 힘과 능력이 충만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28b- *저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느니라*

높은 명료함 속에서 왕은 자신의 미친 자존심이 죽이고 싶어했던 사람들의 충성심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자존심으로 인한 이 어리석은 시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3:29 내 명령은 이것이니 백성이나 나라나 방언 중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훼방하면 멸절을 당하겠고 그 집은 멸절될 것이요 그와 같이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29a- 이 선언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동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훼방하는 자마다 위협하여 그를 찢고 그의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한 하나님의 신실한 택함받은 자들은 음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단 3:30 그 후에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하게 하였습니다.

30a-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느니라”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실한 택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에 일어나서 그들의 이전 원수였던 죽은 자들의 흠 위를 회복된 땅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테스트에서도 이런 해피엔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시련과 마지막 유익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택하신 자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예수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4장

단 4:1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들에게 전하노라 평안이 너희에게 풍성히 있기를 원하노라!

1a- 어조와 형식이 이를 증명하니 말하는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이니라 그 표현은 새 언약 서신의 글과 유사하다. 그분께서는 평화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이제 인간 마음 속에서 참되시고 유일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 4: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이 내게 좋은 줄 알았노라

2a- 이제 왕은 예수께서 고침을 받은 맹인과 불구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리라 ”. 왕은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동일한 소망으로 활력을 얻습니다. 개종은 날마다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강력하고 강한 황제가 겪은 영향력을 그들 모두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4:3 *그분의 표징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분의 기적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며,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3a-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확실성은 그에게 이 땅에서 이미 얻을 수 있는 평화와 참된 행복을 줍니다 . 왕은 모든 것을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단 4:4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평안하며 내 궁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4a- 조용하고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 하나님을 위한 개종하지 않은 이교도입니다.

단 4:5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일은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나를 쫓던 생각들과 내 마음 속의 환상들이 나를 공포로 가득 채웠습니다.*

5a-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구하고 불행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 평화롭고 행복한 지상 시대가 지나면 왕의 미래는 멸망과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그를 방해하고 괴롭히기 위해 오십니다.

단 4:6 *그리고 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으로 불러와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6a-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심각한 기억력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즉시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단 4:7 *그 뒤에 마술사와 술객과 갈대아인과 점술가들이 왔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지만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다.*

7a- 첫 번째 환상에서처럼 일이 발생합니다. 이교도 점술가들은 이미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한 왕에게 우화를 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단 4:8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8a- 망각의 이유가 제시됩니다. 벨은 여전히 왕의 신이었습니다. Esd.1, 6, 7에 따르면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페르시아 사람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1세가 그들의 시대에 선출된 유대인과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을 높이 평가할 것임을 여기서 기억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고레스도 포함됩니다 . “내가 고레스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요. 그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것이 재건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 기초를 세우라! - 예언된 목자는 자신이 순종한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뜻을 성취 할 것입니다. 이 다른 본문은 그의 예언된 개종을 확증합니다: 이사야 45:2: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 13절에서: 나 고레스를 나의 의로 일으킨 것이니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그가 나의 성을 건설하고 나의 포로들을 대속물이나 뇌물 없이 풀어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 계획의 성취는 에스더기 6장 3~5절에 나타난다.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명하여 이르되 이 전을 다시 건축하여 제사드리는 처소로 삼으라 제공되며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도 육십 규빗이며 다듬은 돌 세 줄과 새 나무 한 줄이라 **비용은 왕의 가문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예루살렘 전의 원래 있던 곳으로 도로 가져가서 전 안에 두리라 하나님의. **비용은 왕의 집안에서 지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영예를 그에게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법령은 단 9:25에 제안된 계산을 사용하여 메시아의 초림 날짜를 알아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키루스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으나,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대 민족 전체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단 4:9 내가 아는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느니라 내가 꿈에 본 환상을 내게 해석하라

9a- 우리는 왕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그는 이교도로 남아 있었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만 인정했습니다. 단,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에게는 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 비해 또 다른 신에 불과했습니다.

단 4:10 이것은 내가 누워 있을 때 마음으로 본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땅 한가운데에 아주 높은 나무가 있었다.

10a-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사용하실 이미지에서 나무는 구부러지고 구부러지는 갈대부터 강력하고 위엄 있는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나무의 맛있는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즐거운 것부터 가장 덜 유쾌한 것까지, 심지어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까지 그의 피조물이 맺는 열매를 높이 평가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단 4:11 이 나무가 크고 견고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온 땅 끝에서 보이니라

11a- 신상의 환상에서 갈대아 왕은 이미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와 힘과 제국의 형상을 따라 나무에 비유되었더라.

단 4:12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았으며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음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에 숨었고 모든 생물이 그 그늘에서 먹이를 얻었느니라.*

12a- 이 강력한 왕은 그의 지시에 따라 생산된 부와 식량을 그의 제국의 모든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12b-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들 사이에 집을 짓고*

이 표현은 단 2:38을 반복한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하늘의 새들은 그분의 통치 아래 다스리는 평화와 평온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하늘 천사들을 가리키지만, 전도서 10:20의 이 한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각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을 저주하지 말라. , 마음속으로도, 잠자는 방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가 당신의 목소리를 가져갈 것이고, 날개 달린 동물이 당신의 말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용문에서 하늘의 새는 날개 달린 종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독수리와 맹금류를 연상시킵니다. 새들은 먹이가 풍부한 곳에 정착합니다. 따라서 이미지는 번영과 식량 만족을 확인합니다.

단 4:13 *내가 누워서 본 내 영의 이상 중에 깨어 있는 거룩한 자 중의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13a- 실제로 천상의 천사들은 잠을 잘 필요가 없으므로 그들은 영구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종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단 4:14 *그가 힘차게 외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를 털어내고 과일을 뿌린다.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도 도망하고 새들이 그 가지에서 도망하게 하라!*

14a- 환상은 왕이 그의 왕국과 그에 대한 통치권을 잃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단 4:15 *뿌리 있는 줄기를 땅에 남겨 두고 쇠사슬과 낫사슬로 들의 풀 가운데에 매라 그가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처럼 땅의 풀을 자기 분깃으로 얻게 하소서.*

15a- *그러나 줄기는 뿌리가 있는 땅에 남겨두라*

왕은 그의 왕국에 머무를 것이다. 그는 추방되지 않을 것이다.

15b- *쇠사슬과 낫사슬로 그를 들의 풀 가운데에 결박하고*

쇠사슬이나 낫사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의 연약한 피조물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모든 측면에서 이성과 상식을 잃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왕은 자신을 들짐승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왕국의 위대한 자들은 그에게서 왕국의 지배권을 빼앗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5c- 그가 하늘 이슬에 젖고 짐승처럼 땅의 풀을 자기 분깃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소나 양처럼 땅에서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본 어른들의 경악을 상상할 수 있다. 그는 지붕이 있는 주거지를 거부하고 들판에서 살고 자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단 4:16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고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리라. 그에게 일곱 때가 지나갈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전능하심을 증거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언제든지 피조물을 총명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반대로 멍청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짓누르는 이 위협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가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개입할 때도 특정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처벌이 측정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곱 번**, 곧 일곱 해 동안만 적용될 것입니다. 왕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이 기간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숫자 “7”을 선택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곧 성취될 활동에 자신의 “왕의 인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단 4:17 *이 말씀은 보는 자들의 규례요 이 뜻은 성도들의 계명이라 이는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과 그곳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을 키운다.*

17a- *이 문장은 시청하는 사람들의 법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결정”의 역할을 부여하시는 이 신성한 개입의 예외적인 성격을 강조하십니다. 인간은 기만적인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존재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를 세상 끝날까지 인류에게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진영의 천사들이 자신의 계획과 행동에 연합하는 완벽한 집단적 연합을 드러냅니다. 더욱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숫자 17에 심판의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도 참조하세요.

17b-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임을 인생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종종 인간은 이 숨겨진 현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자신의 운명과 결정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를 뽑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직분에 두시는 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물과 존재에 대한 판단에 따라십니다.

17c-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들을 일으키신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합당한 지도자가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비열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부과하십니다.

단 4:18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꾸민 꿈이다. 너 벨드사살아,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것을 내게 설명할 수 없으니 설명하라. 너희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18a- 느부갓네살은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일신교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4:19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잠시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원수들은 그 꿈을 꾸고 그 대적들은 그 해석을 알게 하옵소서

19a- 다니엘은 그 꿈을 깨달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왕에게 너무 위험해서 다니엘은 그 일이 자기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더 좋아했다.

단 4:20 네가 본 그 나무는 자라서 강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땅의 모든 곳에서 보이더라

단 4:21 이 나무는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 만민의 먹을 것을 주니 들짐승이 그 아래에 깃들이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 위에 깃들이느니라

21a-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신체적 외모와 의복.

21b- 그리고 풍부한 과일
풍요로운 번영.

21c- 모든 사람을 위해 음식을 나르는 사람
모든 백성의 식량을 보장하신 분이십니다.

21d- 들짐승이 그 아래에 은신하는 곳
그의 신하들을 보호하는 왕.

21절 -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 가운데에 깃들였느니라

그의 통치 하에서 그의 백성은 매우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새들은 날아가서 나무를 약간의 위험에 빠뜨립니다.

단 4:22 왕이여, 왕은 왕이시니 크고 강하여 그 위대하심이 더하여 하늘에 미치고 그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치셨나이다

단 4:23 왕이 보니 거룩한 순찰자 중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찍어 찍어 버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 줄기를 뿌리 있는 땅에 남겨 두고 쇠사슬과 놋사슬로 들풀 가운데 묶어 두라. 그가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함께 그의 몫을 누리게 되어 일곱 때를 지내게 하소서.

단 4:24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이 내 주 왕에게 이루어지리니 이는 이렇습니다.

단 4:25 그들이 너를 사람에게서 쫓아내리니 내가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일 것이며 네가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일곱 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되리라.

25a-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너희가 알기까지 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언급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일신의 존재에 대한 왕의 생각을 지시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물려받은 다신교적 기원 때문에 왕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

단 4:26 나무뿌리 줄기를 남겨 두라 하신 것은 다스리시는 이가 하늘에 계신 줄을 깨달을 때에 왕의 나라가 왕과 함께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26a- 왕이 다스리는 자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왕은 확신을 갖고 돌이키기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일이 그칠 것입니다.

단 4:27 그러므로 왕이여, 나의 조언이 왕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실천하여 죄를 끝내고, 불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죄악을 끝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27a- 왕이 다니엘이 이 구절에 열거한 것들을 실행할 때, 그는 참으로 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격은 교만에 넘겨졌고, 이전에 밝혀진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그의 경쟁 없는 힘은 그를 번덕스럽고 종종 불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4:28 이 모든 일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습니다.

28a- 다니엘의 이 선언은 이 예언에 대한 다른 해석을 금지하며, 이는 다니엘이 정의한 규칙을 위반하는 여호와와 증인과 기타 종교 단체가 가르친 예언적 근거를 무효로 정죄합니다. 더욱이 전체 장의 내용이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나무의 예언에서 왕이 저주를 받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4:29 열두 달이 지나서 그가 바벨론 왕궁에 거닐다가

29a- 비전과 성취 사이에는 12개월, 1년 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단 4:30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으로 왕의 처소를 삼고 내 영광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한 것이 아니냐

30a- 왕이 침묵을 지켰더라면 좋았을 운명의 순간이다. 그러나 그의 바벨론은 아직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참으로 순수한 경이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측면이 40km에 달하는 광장에 녹지, 연못, 넓은 광장 및 성벽이 무성한 공중 정원입니다. 성벽의 전체 길이를 따라 두 개의 탱크가 서로 지나갈 수 있는 성벽 꼭대기에 있는 성벽; 당시의 고속도로. 베를린에서 재건된 성문 중 하나는 단 7:4에서 언급하는 왕의 상징인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새겨져 있는 파란색 에나멜 돌로 이루어진 두 개의 벽 중앙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서 교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는 교만을

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전 경험에 대한 망각과 경멸을 보신 것입니다. 확실히, 이 왕은 이 땅에서 유일한 교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시며, 그를 그의 하늘에서 원하시며, 그를 소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겉모습을 초월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합당한 양들을 알아보십니다. 이로 인해 그는 기적을 주장하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게 되지만, 그 방법은 얻은 최종 결과의 품질에 따라 정당화됩니다.

단 4:31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들으라 나라가 왕에게서 빼앗길 것임이니라*

31a-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함정을 놓으시고 그의 예언적 꿈에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판결이 들리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악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리라 기뻐하자.

단 4:32 *그들이 너를 사람 중에서 쫓아내어 네가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에게 일곱 때가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32a- 7년 동안 일곱 번, 왕은 명료함을 잃었고 그의 마음은 그가 단지 동물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단 4:33 *그 때에 그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는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마침내 그녀의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그녀의 손톱은 새의
그것처럼 자랐습니다.*

33a- 왕이 고한 바 모든 것을 증언하니 그 환상이 그에게 잘 이루어졌느니라. 개종한 왕은 자신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자신에 대해 3인칭으로 말하면서 이러한 굴욕적인 경험을 상기시킵니다. 수치심은 여전히 그를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증언은 왕과 참 하나님 안에서 그의 새 형제인 다니엘이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단 4:34 *기한이 지나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느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 계시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였노라*

34a-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의 사랑을 얻으시느니라 그녀는 그분의 양떼에 합류했으며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배가시켰습니다.

34b-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단 7:14 *인자*의 환상에 관한 영원한 다섯째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섬겼더라.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또한 단 2:44에 있는 형상의 환상에서 : 이 왕들의 날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키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백성의 지배 아래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는 이 모든 왕국을 깨뜨리고 멸할 것이며, 그는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단 4:35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시며 하늘의 군대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막을 자 하나도 없느니라 그: 뭐 하는 거야?

35a-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왜냐하면 이번에 왕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단 4:36 그 때에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왕국의 영광과 나의 위대함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다. 내 고문들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내 왕국으로 회복되었고 내 힘은 더욱 커졌습니다.

36a-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과 후손을 주신 정의롭고 정직한 율처럼, 왕은 그의 고관들의 신임을 되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몽을 받은 참된 지혜자들 가운데서 이제 현명한 통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위대한 칼데아인들이 그들의 왕을 다시 찾도록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단 4:37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린다. 그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고 그의 길은 의로우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능히 낮추실 수 있느니라.

37a- 그는 그것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말할 수 있기 위해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치아를 뽑는 것은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크는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영원을 얻으려면 힘들고 매우 힘든 시련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교만을 뿌리 뽑는 것이 그 시련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잠재력을 아셨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눈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눈먼 “그의 형제들을 핍박하는 자”가 그의 눈을 보게 된 후에 그의 진실하고 열심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영혼.

다니엘 5장

단 5:1 벨사살 왕은 귀인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느니라

1a- 느부갓네살 왕은 나이가 많아 하나님이 평안히 잠들때 그의 아들 나보니두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기 싫어하여 그의 아들 벨사살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준 이름인

벨드사살(벨이 보호할 것이다)과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려는 도전인 “벨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뜻의 이 이름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이름의 유래는 벨(Bel) 또는 벨리알(Belial)에 대한 승배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뒤에는 다신교의 유일한 조직자인 사탄, 악마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개종한 왕의 후계자들은 이 길에서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단 5:2 벨사살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왔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삼는 것이었더라 음주.

2a- 이 이방 왕에게 있어서 이 금, 은 그릇은 단지 유대인들에게서 탈취한 전리품일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개종한 참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선택한 그는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그의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하고 거룩하게 된 것들을 저속하고 속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는 짧은 생애의 마지막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은 유대인의 하나님의 활동적인 능력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민족의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은 하늘의 왕을 지지하는 그의 강력한 증언을 들었으며 특히 그의 직계 가족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공의로우시고 무자비하신 분임을 나타내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 5:3 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기명들을 가져왔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3a- 다니엘은 제거된 이 그릇들의 출처를 주장함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유대 신이 이러한 것들을 그의 성전에서 옮기는 것을 허락한 것을 볼 때, 젊은 왕은 참하느님이 자신을 나쁘게 섬기는 자들을 징벌하고 가혹하게 징벌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이교도 신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며 그들의 신도들은 단지 그들이 경솔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단 5:4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4a- 불경스러운 사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적인 사용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은 왕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동안 부주의함을 크게 드러내는 한편, 그의 도시는 그것을 포위하고 있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5:5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등잔대 맞은편 왕궁 석회암 벽에 글자를 썼더라. 왕은 글을 쓰고 있는 손 끝을 보았습니다.

5a- 느부갓네살 시대의 기적들은 멸시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이적의 목적은 개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죄인들의 생명을 멸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죽음을 바라는 악한 참소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은밀히 범하는 죄를 손가락으로 모래에 쓰실 것입니다.

단 5:6 *그러자 왕이 그의 얼굴색을 바꾸고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등 관절은 이완되었고 그의 무릎은 서로 부딪쳤다.*

6a- 기적은 즉시 그 효과를 낳는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반응하고 겁을 먹습니다.

단 5:7 *왕이 술객과 갈대아인과 점술가를 위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라 왕이 바벨론 박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는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 목에 차고 그 나라에서 삼위를 얻으리라 왕국의 정부.*

7a- 다시 한번 다니엘은 무시당합니다. 그의 증언은 왕족의 계승으로 인해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극심한 고뇌 속에서 젊은 왕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벽에 적힌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영예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3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첫째와 둘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단 5:8 *왕의 박사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거나 왕에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8a- 느부갓네살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교도 현자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5:9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의 낯빛을 바꾸었고 그의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단 5:10 *왕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이같이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고, 당신의 얼굴 색깔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5:11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네 아버지 시대에 그에게서 빛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발견되었느니라. 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네 아버지 왕이 그를 마술사와 술객과 갈대아인과 점술가의 지도자로 삼았으니*

단 5:12 *벨드사살 왕의 이름을 받은 다니엘은 그에게서 뛰어난 영과 지식과 총명을 얻었고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은밀한 말을 밝히는 능력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부르시면 그가 설명해 줄 것입니다.*

12a- 여왕의 이 증언은 혼란스럽고 왕실 전체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5:13 그러자 다니엘이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 왕이 유다에서 이끌어 낸 유다 포로 중 하나 다니엘이냐

단 5:14 나는 네 속에 신들의 영이 있고 네 안에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음을 들었다.

단 5:15 그들이 박사들과 점성술사들을 내 앞에 데려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내게 해석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5:16 나는 당신이 설명도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나에게 설명을 해 준다면, 당신은 자색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목에 차고, 왕국의 제3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6a-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자신에 이어 세 번째 위치.

단 5:17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네 예물은 간직하고 네 예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에게 그 글을 읽어 주고 그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17a-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 명예나 은과 금의 물품과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왕에게 자신의 잘못과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될 죄를 상기시킬 기회는 없습니다. 거절하면 그는 이런 유형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단 5: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으니

18a- 느부갓네살의 통치는 참 하나님의 업적이요 선물이었으며, 그의 위대함도 교만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잘못 돌렸다 가 7년 동안 하나님께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단 5:19 그에게 주신 큰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더라. 왕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살려 두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높이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낮추셨습니다.

19a- 왕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죽였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인해 그는 반역적인 유대 민족을 처벌하고 그들의 대표자들 중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19b-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떠났습니다

다니엘과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19c-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키웠어요

다니엘과 그의 충실한 세 동료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갈대아 사람들보다 높아졌습니다.

19d- 그리고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낮추었습니다

그의 왕국의 귀족들은 유대인 포로 생활에서 나온 낮은 젊은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데 동의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손으로 유대인의 국가적 자존심은 겸손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단 5:20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의 영이 강박하여 교만해지자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의 영광도 박탈당했습니다.

20a-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단 7:8의 교황 왕의 오만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왕의 계획에 따라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셨다는 것을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낮아진 일을 회상하면서, 그는 자신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지상의 왕은 하늘의 왕의 무한한 권세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단 5:21 그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과 같고 그의 거처가 들나귀와 함께 있더라 그는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1a- 나는 이 구절에서만 “ 들나귀 ”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주목합니다. 당나귀는 완고함의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당나귀처럼 완고함", 특히 "야생"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경험과 성경의 계시를 통해 주신 교훈을 듣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단 5:22 그의 아들 벨사살아 네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느니라

22a- 사실 벨사살은 자신의 “아버지”(할아버지)가 겪은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들나귀”처럼 행동했습니다.

단 5:23 네가 하늘의 주님 앞에 스스로 높아졌다. 그 집의 기구들을 네 앞에 가져왔으니 너와 네 장로들과 네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셨느니라. 당신은 은, 금,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23a- 벨사살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성별한 금 그릇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하여 거짓 이교도 신들을 찬양함으로써 그는 **가증스러운 극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계시록 17:4의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이 여자는 자주빛과 진홍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5절에서 그녀는 “ 큰 바벨론 ” 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

단 5:24 그러므로 이 글을 쓰시는 손 끝을 보내셨느니라

24a- 벨사살은 인간의 행동에 기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반응하시는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단 5:25 기록된 글자는 이러하니 피라, 피라, 데겔, 우바르신이라.

25a- 번역: 세다, 세다, 무게를 달다, 나누다

단 5:26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러합니다. 계수함: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계수를 세어 그것을 멸하셨느니라.

26a- 첫 번째 “계산”은 통치의 시작을 의미하고, 두 번째 “계산”은 이 통치의 끝을 의미합니다.

단 5:27 달아보니 너희가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느니라

27a- 여기서 저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 합니다 . 사람들은 정의의 봉사를 지정하기 위해 이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매우 불완전한 정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완전하시고 이중 저울 의 형상을 기초로 심판받는 자가 행한 선악의 행위를 달아 보시는 것입니다. 선의 수준이 악의 수준보다 가벼우면 하나님의 정죄가 정당화됩니다. 벨사살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5:28 나누어지리니 네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의 손에 넘어가리라

28a- 그가 다리우스 왕의 지휘 하에 그의 왕궁에서 가증스러운 술자리에 빠져 있는 동안 메디아 사람들은 강바닥을 따라 바빌론으로 들어가 일시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말랐습니다.

단 5:29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리매 무리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매 그가 나라의 총리가 되리라는 명령이 내려지니라

단 5:30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단 5:31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나이는 육십이 세였더라

31a- 다니엘의 이 정확한 목격자 증언은 이 행동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539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역사가들에 의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이 장의 가르침은 다니엘 3장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다니엘을 모범적인 충실성의 시험으로 제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택하신 자들을 본받고 번식하도록 하십니다. 댓글은 도움이 되지만 그냥 읽고 교훈을 배우세요. *다리우스* 왕은 당대의 느부갓네살처럼 행동했으며, *62세*의 나이에 다니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보호하셨을 때 다니엘의 신실함을 간증함으로써 얻은 개종입니다. 그는 연애 초기부터 자신을 충실하고 정직하게 섬기며, *우수한 마음*.

단 6:1 *다리오가 방백 일백이십 명을 나라 위에 세우는 것이 좋으니 그가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1a- 다리우스 왕은 120개 지방에 설치된 120명의 총독에게 왕국의 통치를 맡김으로써 자신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단 6:2 *왕이 그들 위에 우두머리 셋을 세우니 그 중에 다니엘이 있으니 이는 방백들이 그들에게 직고하게 하여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었더라*

2a- 다니엘은 여전히 태수들을 감독하는 주요 지도자들 중 하나입니다.

단 6:3 *다니엘은 관원들과 방백들보다 뛰어났으니 이는 그에게 신령이 있음이라 왕은 그것을 왕국 전체에 세우려고 생각했습니다.*

3a- 다리우스는 다니엘의 총명하고 지혜로운 정신이 우월하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것 위에 세우려는 그의 계획은 다니엘에 대한 질투와 증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단 6:4 이에 방백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기회를 찾으니라 그러나 그들은 아무 틈도 없고 책망할 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고 악한 것도 그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였음이라.

4a- 다니엘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동일한 헌신과 신실함으로 왕을 섬깁니다. 따라서 그것은 비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4:5에 따르면 “후기 재림교인” 성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기준입니다.

단 6:5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이 다니엘을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지 아니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5a- 이러한 추론은 하나님의 율법의 일곱째 날의 안식일인 믿음의 마지막 지상 시험에 대한 악마 진영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첫날의 나머지 날은 로마 종교법에 따라 일요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6:6 이에 방백들과 방백들이 소란하여 왕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6a- 이 소란스러운 진입은 왕에게 숫자의 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따라서 그가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 6:7 나라의 모든 방백과 청지기와 방백과 모사와 방백이 이르되 왕의 명령을 내려 엄히 금하되 누구든지 삼십일 안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금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왕이여, 신이나 왕 외에 어느 사람이나 사자굴에 던져지리이다.

7a- 그때까지 다리우스 왕은 그의 왕국 사람들에게 다른 신보다 이신을 섬기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신교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음모자들은 그에게 아첨하며 다리우스 왕을 신으로 존경합니다. 여기서도 모든 위대한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교만이 깨어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 명령을 승인하게 만듭니다.

단 6:8 왕이여 이제 금하는 일을 정하시고 금령을 써서 변경할 수 없게 하되 메대와 바사의 변하지 않는 율법대로 하라

8a- 이 법령은 마지막 날에 로마 일요일을 의무화할 분을 훌륭하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오류가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확립한 메대와 바사의 율법의 이 불변의 성격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불변성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에게 속합니다.

단 6:9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조서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9a- 이 단계는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법령과 변론을 작성했기 때문에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불변의 법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6:10 다니엘은 그 조서가 작성된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물러났는데 그 다락방의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0a- 다니엘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으며 인간의 이 척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창문을 열음으로써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방향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집, 곧 지상의 거처로 삼으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단 6:11 이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들어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니

11a- 음모자들은 그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저지르도록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향긋한 맛있는 음식"입니다.

단 6:12 그들이 왕 앞에서 서서 왕의 변호에 대하여 그에게 고하되 왕이여, 삼십일 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아무에게나 기도하면 벌을 받으리라 하는 변론서를 쓰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자 굴에 던져졌느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와 바사의 율법에 따르면 이 일이 확실하고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12a- 왕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법령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6:13 그들이 다시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유다 포로 중 하나가 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왕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하신 바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3a- 기도의 행위에 사로잡혀 다니엘은 비난을 받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신실하고 정직한 행동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하루에 세 번 정기적으로 그분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열심과 충실함으로 섬기는 이 하느님과 즉시 그 자신을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정죄가 그에게 가져올 고통과 고난과 그의 다가오는 회심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단 6:14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구원할 마음을 품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원하려고 힘썼습니다.

14a- 왕은 자신이 조종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매우 높이 평가하는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헛될 것이고 왕은 슬프게도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글자는 죽이지만 정신은 생명을 준다.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존중의 한계를 보여 주셨습니다. 생명은 법문으로 규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심판을 내리실 때 기록된 율법의 죽은 문자가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지혜가 없다는 세부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단 6:15 *이 사람들이 왕께 강권하여 이르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법에 금한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정한 금령은 취소할 수 없음을 아시옵소서.*

15a- 음모자들은 메대 왕과 바사 왕이 내린 결정의 취소할 수 없는(정당하지 않은) 성격을 회상합니다. 그 자신도 자신이 물려받은 문화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다니엘에 대한 음모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6:16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인내로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16a-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넣게 되었지만, 그가 그토록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랐습니다.

단 6:17 *그들은 돌을 가져와 구덩이 입구에 놓았습니다. 왕이 자기 반지와 귀인의 반지로 인봉하여 다니엘의 일이 달라지지 않게 하였더라.*

17a- 여기서 다니엘이 겪은 경험은 인간의 개입을 막기 위해 원형 돌문도 봉인된 그리스도의 장례와 유사점을 나타냅니다.

단 6:18 *왕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금식했고, 첩도 데려오지 않았으며,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a- 왕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성실성을 입증합니다. 그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다니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서 구원을 얻고자 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의 개종의 시작입니다.

단 6:19 *왕이 새벽에 일어나 사자 굴로 급히 갔더라*

19a- 다니엘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뒤따르는 순결의 준비와 새벽에 사자 굴로 달려가는 것은 이방 왕의 행위가 아니라 형을 사랑하는 형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안에.

단 6:20 *그가 구덩이에 가까이 이르자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네가 인내로 섬기는 네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20a *구덩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불러*

왕은 희망하지만 다니엘에게 최악의 상황이 닥칠까봐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한다는 사실은 그의 희망을 보여준다.

20b-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네가 인내로 섬기는 네 하나님, 다니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할 수 있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 으로 지칭함으로써 그의 개종의 시작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 그가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 할 수

있었느냐? » 그가 아직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 그가 당신을 사자에게서 구원하고 싶었느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

단 6:21 다니엘이 왕께 아뢰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21a- 6절의 음모자들의 입에서는 이 표현이 거의 의미가 없었지만 다니엘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예비된 영생에 접근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단 6:22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의 앞에 무죄함을 나타내셨음이니라 왕이여, 나는 왕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일도 없습니다.

22a- 이 경험에서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이 숨지 않고 섬기는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 인간 왕의 법령에 대한 불변의 개념을 얼마나 어리석고 부당하며 승인하지 않는지 깨닫습니다.

단 6:23 왕은 매우 기뻐서 다니엘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구덩이에서 끌어냈으나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더라.

23a 그러자 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기쁨의 이러한 반응은 이제 왕이 자신의 존재와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미래를 드러냅니다.

23b 다니엘을 구덩이에서 끌어냈으나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마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옷이 타지 아니한 것과 같습니다.

23c-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두실 수 있도록 하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로 한 그의 결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신앙 모델에 대한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단 6:24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를 사자 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구덩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붙잡아 그들의 뼈를 모두 부러뜨렸습니다.

24a- 하나님은 악을 꾀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상황을 바꾸셨느니라 앞으로 올 바사 왕들의 시대에 지도자 하만이 에스더 왕비 시대에 자기 백성과 함께 죽이려고 할 유대인 모르드개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모르드개를 매달아 놓은 교수대에 매달리게 될 사람은 바로 하만입니다.

단 6:25 이 일 후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5a- 왕이 쓴 이 새 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람의 글이다. 이제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진 그는 자신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왕국의 모든 백성에게 참하느님에게서 받은 평안을 간증하는 말을 전합니다.

단 6:26 나는 내 나라 전역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명한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계시느니라.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끝까지 지속되리라

26a- 나는 내 왕국 전역에서 이렇게 명령한다.
왕은 명령을 내리지만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26b-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외함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니엘을 반대하는 새로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두려움을 강요합니다.

26c-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지속하시느니라
그는 이 간증이 왕국 백성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것을 찬양하고 드높입니다.

26d 그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끝까지 견고하리라

동상의 제5 왕국의 영원한 성격이 다시 한번 선포된다.

단 6:27 그는 구원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니라 다니엘을 사자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27a- 그는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시니라
왕은 자신이 관찰한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이 구원은 오직 다니엘의 육체인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살아 계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27b- 하늘과 땅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가
다니엘서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행위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마귀와 그의 귀신들도 특정한 신성한 기적을 위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한 출처를 식별하려면 전달된 메시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게 합니까?

단 6:28 다니엘은 다리오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28a- 우리는 다니엘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교훈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꺾지 않고 받아들이게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7장

단 7:1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누워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보니 그런 다음 그는 꿈을 기록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1a-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즉 - 605절입니다. 단 2절의 이상 이후로 50년이 지났습니다. 죽음, 대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손자 벨사살로 대체되었습니다.

단 7:2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 이상 중에 보니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는지라

2a- 하늘의 네 바람이 불어왔다

이것은 지배자들이 네 가지 기본 방향 , 즉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도록 이끄는 보편적인 전쟁입니다.

2b- 큰 바다에서

바다는 크더라도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인류에게 아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위해 준비된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은 지구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원죄 이후 불순종으로 인해 신성한 형상을 잃었으며, 더 이상 그 순수하고 거룩한 눈에는 악마와 악마의 영감을 받아 서로를 잡아먹는 불결하고 탐욕스러운 해양 동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비전에서 바다는 익명의 인간 집단을 상징합니다.

더욱이, 예언에서 다루는 지역은 지중해와 접해 있는 해안 지역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바다는 지배자들의 정복에 따른 호전적인 행동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단 7:3 또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각기 종류가 다르더라 서로에게서.

3a- 그리고 바다에서 네 마리의 큰 동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2장에 주어진 가르침을 새로운 환상에서 발견하지만 거기에서는 동물들이 조각상의 신체 부위를 대체합니다.

3b- 다른 **파일** 서로에게서

Dan.2 동상의 재료와 같습니다.

단 7:4 첫째는 **사자 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나는 그의 날개가 찢어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땅에서 들려 올려 사람처럼 자기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4a-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여기서 단 2절의 갈대아 왕의 금머리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된다. 단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자랑인 바벨론의 푸른 돌에 새겨진 상징.

4b- 나는 그의 날개가 찢어질 때까지 보았다.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의해 어리석게 된 7년 또는 7번의 기간을 가리킨다. 단4:16에 예언된 이 7년(일곱 번)의 굴욕 동안에 그의 인간의 마음은 제거되고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4c- 그는 땅에서 들려 올려 사람처럼 자기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의 그의 개종은 여기에서 확증됩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순종의 완전한 신적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단 7:5 그런데, 보라, 둘째 짐승이 **곰 처럼** 한쪽에 섰다. 그의 입에는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5a- 보라, 둘째 짐승은 **곰 같아서** 한쪽에 섰는데

갈대아 왕 이후에는 메대와 바사의 은빛 가슴과 팔이 곰이 된다. “ 한쪽에 서 있었다 ” 라는 표현은 미디어 지배 다음으로 나타난 페르시아 지배를 예시하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가 정복한 정복으로 인해 미디어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5b- 그 입의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개가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페르시아인들은 미디어를 지배하고 546년에 부유한 왕 크로이소스의 리디아, 539년에 바빌로니아, 525년에 이집트 등 세 나라를 정복할 것입니다.

단 7:6 이 후에 내가 보니 다른 하나는 **표범과 같고** 그 등에 새와 같은 네 날개가 있더라. 이 동물은 머리가 네 개 있었고, 그에게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6a-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이는 **표범과 같더라**

마찬가지로, 그리스 통치자들의 **뽀뽀스러운 배와 허벅지는 네 개의 새 날개를 가진 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표범의 반점은 **죄의 상징**이 됩니다.

6b- 그리고 새처럼 등에 네 개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표범과 관련된 네 개의 새 날개는 젊은 왕 알렉산더 대왕(-336에서 -323 사이)의 정복 속도가 극심했음을 보여주고 확증해 줍니다.

6c- 이 동물은 머리가 넷이고 지배권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네 머리”로 되어 있지만 단 8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그리스 통치자인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리시마코스, 카산더를 가리키는 “네 개의 큰 뿔”이 될 것입니다.

단 7:7 이 일 후에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네 번째 짐승이 있으니 그것은 무섭고 무섭고 심히 강한 것이더라. 그는 큰 철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남은 것을 먹고 부수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모든 동물들과 달랐고, 뿔이 열 개 있었습니다.

7a- 이 일 후에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네 번째 짐승이 있으니 무섭고 무섭고 심히 강하더라

여기서도 로마제국의 철다리는 철이빨과 열뿔을 가진 괴물이 된다.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 13: 2에 따르면, 그것만이 이전 3개 제국의 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의 힘과 표범의 속도 그의 얼룩으로 상징된 그의 죄의 유전으로.

7b- 그는 큰 철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먹고, 부수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의 교황의 지배에 의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로마 철의 상징에 의해 수행된 대학살과 학살에 기인합니다.

7c- 이전의 모든 동물과 달랐고, 뿔이 10개 있었습니다.

개의 뿔은 프랑크족, 롬바르드족, 알레마니족, 앵글로색슨족, 서고트족, 부르고뉴족, 수에비족, 헤룰리족, 반달족, 동고트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24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설명에 따라 395년부터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형성될 **10개의 기독교 왕국입니다**.

단 7:8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본즉 그 중에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왔는데 첫째 뿔 중 셋이 그 뿔 앞에서 뽀뽀하고 그리고 보라, 그녀는 사람의 눈 같은 눈과 거만한 말을 하는 입도 갖고 있었다.

8a- 내가 그 뿔들을 본즉 그 중에 또 작은 뿔이 나오더니

작은 뿔은 10개의 뿔 중 하나에서 나오는데, 이는 로마 시가 위치한 동고트족의 이탈리아와 카엘리우스 산의 라테란 궁전에 있는 소위 교황청 "성좌"를 나타냅니다. 라틴어 이름 의미: 하늘.

8b- 그리고 이 뿔 앞에서 첫 번째 뿔 중 세 개가 찢어졌습니다.

떼어 낸 뿔은 연대순으로 세 왕이다. 즉, 493년에서 510년 사이에 헤룰리족, 이어서 533년에 반달족, 538년에 동고트족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령에 따라 벨리사리우스 장군에 의해 로마에서 쫓겨났고 ⁵⁴⁰년 라벤나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경적 앞의* 표현의 결과를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뿔이* 개인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뿔과 뿔의 종교적 힘을 두려워하고 따라서 뿔을 지지하고 복종하는 것을 선호하는 군주의 군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추론은 단 8:24에서 확증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나 그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며*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마음. 따라서 다니엘서의 여러 장, 더 넓게는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사한 메시지를 함께 그룹화함으로써만 진리가 확증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분리된 책의 장들은 예언과 그 메시지를 "봉인"하며, 가장 미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8c- *그리고 보라, 그 눈은 사람의 눈과 같았더라*

다음과 같은 용어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현실이 아닌 외양의 유사성을 암시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육신한 *인간 과의 유사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그것을 가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 눈 ”은 선지자들의 투시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예수님도 그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결국 바티칸 시국에 공식 본부를 설립하게 될 교황권의 예언적 주장을 암시하십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vaticinare”에서 유래한 예언하다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여호와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세벨*, 즉 *바알을 숭배하고* 아합 왕 과 결혼한 이방 여인 과 비교할 때 그 일은 계시록 2:20에서 확증될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종교 재판의 기둥에서 죽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는 정당합니다.

8d- *그리고 오만하게 말하는 입.*

이 7장에서 신성한 영화제작자이자 감독은 특히 자신과 관련된 기독교 시대, 즉 로마 제국의 종말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이름인 미가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사이의 기간을 “확대”하여 제시합니다. *교만한 왕이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의* 임함을 알리셨느니라 *때와 율법*, 십계명 및 기타 신성한 규례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신성한 종교적 규범을 공격하는 *가장 높으신 분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마지막 형벌을 선포하십니다. 그는 “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의 *오만한 말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오만한 말*이 언급된 직후에 제7천년기의 하늘 심판의 장면이 제시된다. 그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도 *오만함을 나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굴욕의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의 심판

단 7:9 나는 보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바퀴는 불꽃 같으니라.

9a- 왕좌가 놓일 때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20장에 인용된 천년 동안, 요한계시록 4장에 따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분 앞에서 집행될 심판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심판은 **최종 심판**의 조건을 준비하며 그 집행은 1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9b- 그리고 옛적부터 늘 계신 분이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신성화된 그리스도이시다. **앉다** 라는 동사의 동작은 서 있는 활동의 중단을 나타내며 휴식의 이미지입니다. 하늘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멸망되었습니다.

9c-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옷 수준에서 하나님의 전 본성에 관련된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업적을 상징하고,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순수하고 완전한 지혜의 면류관인 머리털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1장 18절을 암시합니다: *와서 우리가 변론하자!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죄가 주홍 같으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보라색처럼 붉으면 양털처럼 될 것이다.*

9d- 그의 보좌는 불꽃 같았고,

보좌는 위대한 재판관의 자리, 곧 하나님의 마음의 판단이신 곳을 가리킨다.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공 의이신 그리스도의 눈이** 될 불꽃의 이미지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불 이 멸망시키므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그의 택하신 자들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정죄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둘째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9일- 그리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처럼 보입니다.

보좌 에는 바퀴가 있는데 이는 땅에 불을 불꽃 에 비유 됨: 계 20:14-15: **둘째 사망은 불못**. 그러므로 바퀴 는 선고된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재판관들이 움직이는 것을 암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심판관계서는 움직이시며, 땅이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따라 그분의 보좌를 그곳에 세우시기 위해 다시 움직이실 것입니다.

단 7:10 불의 강이 그 앞에서 흘러나와 나오더라. 그를 섬기는 자는 천만명이요 그의 앞에 모인 자는 만만명이니라 심사위원들이 자리에 앉았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10a- 불강이 그 앞에서 흘러나와

하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죽은 자의 영혼을 삼키고 다시 살아나니라 그들이 지면에 올라와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을 두르니라 사랑하는 도시.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10b- 그를 섬긴 자는 천만명이요

땅에서 구원받은 **선택된 자**들의 백만 영혼이 있습니다 .

10c- 그리고 수천만이 **그의 앞에서 있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100억 명의 지상 영혼이 부활되어 그분과 그분의 재판관들 앞에 소환되어 **둘째 사망**이라는 정당한 신성한 선고 받게 됩니다 . 이는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확증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오라 그들을 다스리고 내 앞에서 그들을 죽이라** .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 누가복음 18:8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는 특히 그러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0d-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았고, 책들이 펴졌습니다.

대법원은 선고받은 각 영혼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판결과 기소를 허용한 증언을 토대로 판결할 것입니다. 그의 책에는 현재 지구인에게 보이지 않는 충실한 천사들을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 기억하시는 피조물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단 7:11 그 뿔이 발하는 오만한 말 때문에 내가 보았다. 내가 보니 그 동물이 죽어 있었습니다.

11a 그 뿔이 발하는 오만한 말 때문에 내가 보니

때문에”라는 말처럼 “**교만한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정의하는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분은 까닭 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11b- 내가 살펴보니 그 동물이 죽었더라

네 번째 동물인 제국 로마 - 유럽 10개 왕국 - 교황 로마가 불로 멸망했다면 그것은 교황 로마의 오만한 구두 활동 때문이다 .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활동입니다.

11c- 그의 시체가 **가상하여** 불에 던져지니라

작은 뿔과 그것을 지탱하고 그 죄에 참여한 열 뿔을 동시에 치는 것 입니다. 둘째 **사망**의 불뿔이 그들을 삼키고 멸 하리라 .

단 7:12 다른 동물들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되 일정 기간까지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12a- 다른 동물들은 그들의 힘을 박탈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에서와 같이 성령은 지상 역사를 통해 아담으로부터 인류 대중에게 전해진 원죄의 상속자인 이교의 일반 죄인들에게 다른 운명이 제공된다는 것을 계시하신다.

12b-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이 연장되어 일정한 때까지 허락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 기독교 보편적 정부의 마지막 형태 아래 있던 네 번째 로마 동물 의 경우처럼 세상 종말에 지배의 끝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 제국의 이점을 의미합니다. 4하우스의 끝은 완전한 파괴로 표시 됩니다. 그 후에 땅은 창세기 1장 2절의 무저갱의 형상 대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단 7:13 내가 밤 환상으로 보았는데,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가운데로 왔다. 그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오매 그들이 그를 그에게 가까이 데려가니라.

13a-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위에 오더라

인자의 이러한 출현은 방금 언급한 심판에 부여된 의미를 밝혀 줍니다. 심판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에는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으므로,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이 인간 땅에 처음 오실 때 지상 봉사를 통해 성취하실 일을 묘사하십니다.

13b- 그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오매 그들이 그를 그에게 가까이 데려가매

그분은 죽은 후에 자신을 부활시키실 것이며, 진노하신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된 자신의 완전한 의를 제시하고, 자신이 분류하고 선택하신 신실한 택하신 자들의 용서를 얻으실 것입니다. 제시된 그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꺼이 희생하셨다는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단 7:14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섬겼더라.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폐하지 아니하느니라.

14a-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으니

이 구절의 데이터는 심판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확증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4b-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섬기니라**

절대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새 땅, 즉 일곱째 천년 이후에 새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옛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유일한 구원에 의해 선택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그분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17장 15절에서 이 표현은 기독교화된 유럽과 서구세계를 가리킨다. 이 그룹에서 우리는 10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만 명의 구원받은 선택자를 발견합니다.

14c- 그의 통치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관해 단 2:44에 인용된 세부 사항은 여기에서 확증됩니다. 그의 통치는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7:15 나 다니엘은 내 심령이 속에서 불안하며 내 머리의 환상이 나를 놀라게 하였느니라

15a 나 다니엘은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니엘의 고난은 정당하며, 환상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닥칠 위험을 알려줍니다.

15b- 그리고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겁나게 했습니다.

다니엘 10:8에 따르면 곧 그가 본 미가엘의 환상도 그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는 홀로 남겨져 이 위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얼굴빛이 변하고 부패하여 기력을 다 잃었나이다. 설명: 사람의 아들과 미가엘은 하나이고 동일한 신적 인격이다. 두려움은 로마 통치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연속적인 지배에서는 느부갓네살,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와 같은 거룩한 통치자들의 백성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7:16 내가 거기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니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6a- 여기에서 천사가 제공한 추가 설명이 시작됩니다.

단 7:17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요

17a- 이 정의는 단 7장에서 동물 의 형상으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단 2장에서 신상의 형상으로 드러난 연속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단 7:1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들이 그 나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얻으리라

18a- 네 가지 연속에 대한 설명과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 위에 세우시는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나라 에 관한 것입니다.

단 7:19 그 다음에 내가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심히 무섭고 철이요 놋 못이 있어 남은 것을 먹어서 부수고 발로 짓밟았으니

19a- 철 이빨을 가진 사람

우리는 여기 **치아** 에서 단 2의 동상의 다리 로 지정된 로마 제국의 견고함을 상징하는 철을 발견 합니다.

19b- 그리고 놋 못 .

이 추가 정보에서 천사는 다음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늦되 못**. 따라서 그리스 죄의 유산은 이 불순한 재료, 단 2의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에서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합금에 의해 입증됩니다.

19c- **남은 것을 먹고 부수고 짓밟은 자**

먹거나 이용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 - 부수고, 강요하고, 파괴하고, 짓밟고, 경멸하고 박해하는 것 - 이것은 연속된 두 "로마"와 그들의 시민적, 종교적 지지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실천할 행동들이다.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성령은 “남은 자”라는 단어로 마지막 “재림교인”을 지정하신다.

단 7:20 그 머리에 있는 열 뿔 중에 또 다른 뿔 중에 나와서 그 앞에 셋이 떨어졌는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어 거만히 말하며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더 큰 외모.

20a- 이 구절은 8절과 모순되는 세부 사항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작은 뿔”은 어떻게 여기로 가나요? **남들보다 외모가 더 대단한데?** 이것이 그가 다른 열 뿔의 왕들과 다른 점이다. 그녀는 매우 약하고 허약하지만, 그녀가 지상에서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신에 대한 경외심과 경외심을 통해 그녀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하는 대로 그들을 지배하고 조작합니다.

단 7:21 또 내가 보매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니

21a- 역설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가장 높은 거룩함을 구현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그분의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비난하십니다. 그렇다면 설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녀는 숨을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매우 파괴하는 엄청나게 기만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의 성공입니다.

단 7: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권리를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느니라

22a- 다행히 좋은 소식이 확인됐다. 로마 교황과 그 시민적, 종교적 지지자들의 어두운 행동 이후에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올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은 계승 순서를 명시합니다.

단 7:23 그가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넷째 짐승은 땅에 존재할 넷째 나라라 모든 나라와 달리 온 땅을 삼키고 밟아 부수리라

23a - 27년에서 395년 사이의 제국 형태 의 이교 로마 제국 .

단 7:24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는 처음과 다른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세 왕을 끌어내릴 것이다.

24a- 이러한 정확성 덕분에 우리는 이 열 뿔을 붕괴되고 파괴된 로마 제국의 서쪽 영토에 형성된 기독교 **열 왕국**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영토는 현재 유럽인 EU(또는 EU)의 영토입니다.

단 7:25 그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학대하며 때와 율법을 변경하기를 바랄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25a-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대적하는 말로

하나님께서서는 이 구절에서 로마 교황 정권과 그 전임 로마 주교들에게 죄를 돌린 죄에 대한 질책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전임 주교들이 저지른 악행을 대중화하고 정당화하고 무지한 군중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은 가장 심각한 것부터 시작하여 **가장 높으신 분** 자신에 대한 비난을 나열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황들은 하느님을 섬기고 지상에서 그분을 대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황의 이러한 주장을 승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못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 결과, 로마가 하느님에 관해 거짓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5b-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학대할 것이다.

21절 - 성도들의 불의한 박해 여기에서 회상되고 확인되었습니다. 판결은 "성스러운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을 지닌 종교 재판소에서 선고됩니다. 고문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데 사용됩니다.

25c- 그는 때와 법을 변경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비난은 독자에게 참되고 살아 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본 진리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가 로마 수도사들에 의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첫 번째 달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올해의 첫 번째 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명령이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유대인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로 구원에 들어가는 모든 존재는 또한 그의 질서가 통치하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교리이며, 사도 시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측면을 취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질서와 교리를 확립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따르면, 이교도 개종자는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뿌리와 줄기에 접붙여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는 옛 언약의 반역적인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이 된 불신앙에 대해 바울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그것은 반역적인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 신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Dan.8의 연구는 1843년 이후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이를 확증해 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끔찍하고 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비난이 편재하는 긴 예언적 계시의 시작 부분에 있을 뿐입니다. 로마의 관심사로 인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계명}의 안식일 . 일곱째 날은 321년 3월 7일부터 첫째 날로 대체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날이자 한 주의 시작으로 지키셨습니다. 더욱이, 이 첫날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정복되지 않는 존경받는 태양", 즉 이미 이집트에서 이교도들이 신격화한 태양, 즉 성서적 죄의 상징을 숭배하는 데 헌정되었을 때 ^{부과되었습니다.} 다니엘 5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해진 분노를 어떻게 형벌하시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경고를 받았으며 벨사살 왕을 심판하고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안식일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때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 원래 봄에 있었던 연초가 처음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겨울의 시작에 시작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 하나님에 따르면 낮의 변화는 자정이 아닌 밤낮의 순서로 일몰 시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의도로 창조하신 별들로 인해 리듬이 있고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변화는 안식일의 주제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로마는 성전의 금기명을 모독하지 않았으며, 모세에게 주어진 돌판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한 말씀의 원문을 바꾸는 권한을 스스로 부여했습니다. 너무 거룩한 것들은 그것이 발견된 방주에 닿으면 즉시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25c- *성도들이 그의 손에 넘겨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르리라*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은 단 4:23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들이 너를 사람 가운데서 쫓아내며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에게 일곱 때가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런 고난을 겪은 후에 왕은 3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기한이 지난 후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본즉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느니라 . ”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고 영원히 살아 계시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신 이를 내가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였노라 . 우리는 이 일곱 때가 그의 생애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간인 7년을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간 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완전한 한 번의 공전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태양으로 상징되며 피조물이 교만하게 일어날 때 그것을 그 자리에 두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성 주위를 돌며 내가 누구인지

배우라.” 느부갓네살에게는 7턴이 필요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이 절에서 “**때**” 라는 용어로 예언된 교황의 통치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 느부갓네살의 경험과 비교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교만을 예언상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어리석게 내버려두심으로 처벌하십니다.** 321년 3월 7일부터 어리석음 속의 교만과 무지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한 질서를 존중하기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구원자이신 하느님에게서 자신을 떼어 놓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언된 기간의 시작과 끝의 실제 가치와 날짜를 찾으려 이끈다. 우리는 그것이 3년 6개월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공식은 6절의 1260일 공식과 병행되는 계시록 12:14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에스겔 4장 5-6 절의 1년에 하루를 적용 하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길고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1260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 7:26 *그 때에 심판이 이르리니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2a- 이 정확성의 관심을 강조합니다. 심판과 교황 지배의 종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언급된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2021년에도 교황은 여전히 활동 중이므로 다니엘서에 인용된 심판은 1844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단 7:27 *나라와 권세와 천하 모든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의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라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므로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고 복종할 것입니다.*

27a- 그러므로 심판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과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로 휴거된 후에 잘 시행됩니다.

27b-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 책에 제시된 세 통치자 , 즉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 메대 왕 다리오, 바사 왕 고레스 2장을 보여 주십니다.

단 7:28 *여기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나 다니엘은 내 생각이 너무 괴로워서 색깔을 바꾸며 이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28a- 다니엘의 문제는 여전히 정당하다. 왜냐하면 이 수준에서는 교황 로마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여전히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이미 매우 설득력 있는 '가설'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일곱 예언의 판 중 두 번째 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Dan.2와 Dan.7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동일하고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페이지는 이미 수행된 연구에 겹쳐질 추가 요소를 가져올 것이며 , 이로써 점점 더 명확해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작은 뿔 "이 로마 교황청 이라는 가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 다. 일은 완료될 것이다. 그러나 " 철 이뿔을 가진 네 번째 괴물 " 인 로마에 관한 이 역사적 계승을 이미 기억합시다 . 이는 로마 제국을 지정하고 이어서 자유롭고 독립된 유럽 왕국의 " 열 뿔 "을 지정하며, 538년에 교황으로 추정되는 " 작은 뿔 ", 이 " 다른 왕 "이 계승했으며 그 앞에 " 세 뿔 또는 세 왕 "이 있었습니다. 헤룰레스, 반달족, 동고트족은 493년에서 538년 사이에 8절과 24절에서 타락했습니다.

다니엘 8장

단 8:1 벨드사살 왕 제3년에 나 다니엘이 전에 본 것 외에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느니라.

1a-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다니엘은 새로운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 동물에는 20절과 21절에서 이전 환상에서 예언된 계승의 두 번째 ^{와 세 번째} 제국 ^{이었던} 메디아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인 과 명확하게 동일시되는 두 마리의 동물만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상에서 동물들은 히브리인의 의식을 점점 더 명확하게 따릅니다. Dan.8은 숫양과 염소를 선물합니다 . 유대 의식의 속죄일 에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 .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 제국의 중첩에서 죄의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단 2장의 숫배와 넓적다리 , 단 7장의 표범 과 Dan.8의 염소 .

단 8:2 내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의 수도 수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상 중에 나는 올라이 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2a- 다니엘은 당시 Ulai 강이었던 Karoun 강 근처의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와 한 민족의 강 상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비전에 대한 지리적 참조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메시지는 2장과 7장에서 누락된 귀중한 지리적 데이터를 이 장에서 제공합니다.

단 8:3 내가 눈을 들어 보니 강가에 뿔이 달린 숫양 한 마리가 섰는데 이 뿔들은 높았으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높았고 맨 나중에 솟아올랐습니다.

3a- 이 절은 뿔을 가진 이 숫양으로 묘사된 페르시아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가장 높은 것이 그것을 대표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동맹국인 메디아의 지배를 받았지만 단 10장 1절에 따르면 다니엘과 동시대의 마지막 사람인 539년에 바사 왕 고레스 2세가 권세를 잡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그 위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실제 날짜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단 5장 31절에서 바벨론 정복을 단에 따라 바빌론을 120개 총독으로 조직한 메대 왕 다리우스에게 돌리는 다니엘의 목격 증언을 역사가들이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6:1. 키루스는 다리우스가 죽은 후에 권력을 잡았으므로 539년이 아니라 조금 늦게, 또는 반대로 다리우스의 정복이 539년보다 조금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3b- 이 구절에는 작은 뿔과 큰 뿔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형태로 신성한 미묘함이 나타납니다. 이는 주의 깊게 피한 표현인 “작은 뿔”이 로마의 정체성에 구체적이고 배타적으로 붙어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단 8:4 나는 그 숫양이 뿔을 가지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동물도 그를 저항할 수 없었고, 그의 희생물을 구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고 강력해졌습니다.

4a- 이 구절의 이미지는 페르시아인들이 왕중왕의 지배권인 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연속적인 정복 단계를 보여줍니다.

서부에서는 키루스 2세가 549년에서 539년 사이에 칼데아인 및 이집트인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쪽 : 크로이소스 왕의 리디아가 정복됨 - 546

정오 : 키루스는 539년 이후 메디아 왕 다리우스의 뒤를 이어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이후 525년에는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할 것입니다.

4b- 그리고 그는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본 장 8장에서 예언된 첫 번째 제국으로 만드는 제국의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단 2장과 7장의 환상에 나오는 제 2 제국이었습니다. 이 힘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지중해까지 확장하여 그리스를 공격했으나 490년 마라톤에서 이를 저지했습니다. 전쟁은 재개되었습니다.

단 8:5 내가 자세히 보니, 보라,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와서, 온 땅을 그 얼굴로 뛰어넘었지만, 닿지도 않았습니다. 이 염소는 눈 사이에 큰 뿔이 있었습니다.

5a- 21절은 염소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염소는 *야완의 왕이요*, 그의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 번째 왕이요*. *자바*는 그리스의 고대 이름. 약한 그리스 왕들을 무시하고 성령은 위대한 그리스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계시를 씁습니다.

5b- *보라, 서쪽에서 염소 한 마리가 나왔는데*
지리적 표시는 여전히 제공됩니다. 염소는 지리적 참조 위치로 간주되는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하여 서쪽에서 유래합니다.

5c- *건드리지 않고 지구 표면 전체를 여행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 7:6에 나오는 표범의 새 네 날개와 유사합니다. 그는 10년 안에 인더스 강까지 지배권을 확장할 이 젊은 마케도니아 왕의 정복 속도가 극도로 빠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d- *이 염소는 눈 사이에 큰 뿔이 있었습니다*
그 신분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 번째 왕이니라. 이 왕은 알렉산더 대왕(~543~523)입니다.* 정령은 그에게 멋진 신화 속 동물인 유니콘의 모습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그는 종교에 적용되는 우화를 발명하고 기만적인 기독교 서구에서 우리 시대까지 수세기를 거쳐 그 정신을 이어온 그리스 사회의 지칠 줄 모르는 풍부한 상상력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속죄일”이라는 신성한 연례 예식에서 죄의 역할을 했던 동물인 염소의 형상을 통해 확인되는 *죄의 한 측면이다.*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신성한 완전성을 이루었고 이 의식은 그분 이후에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무력으로, 70년 로마인에 의한 성전과 유대 민족의 파괴를 통해.

단 8:6 내가 본 바 강 가에서 있는 뿔 가진 숫양에게로 나아가매 그가 크게 노하여 그에게 달려들더라

6a-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3세를 왕으로 하는 페르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는 이수스에서 패배하고, 그는 활, 방패, 망토, 아내와 상속인을 남겨두고 도망칩니다. - 333 그는 나중에 그의 위대한 두 사람에 의해 살해될 것입니다.

6b- *그리고 그는 화가 나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분노**는 역사적으로 정당합니다. 다리우스와 알렉산더 사이의 이러한 대화가 선행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리우스를 만나기 전에, 페르시아 왕은 왕과 자녀로서의 각자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술 분야의 왕자 초심자였습니다. 전쟁(분기 I, 가죽 끈 89). 다리우스는 그에게 총알, 채찍, 말 브레이크 및 금으로 가득 찬 은상자를 보냅니다. 보물과 함께 제공되는 편지는 요소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공은 그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플레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브레이크는 그에게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며, 채찍은 그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금은 마케도니아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경의를 나타냅니다. 페르시아 황제.

알렉산더는 메신저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흔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리우스의 기교를 축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리우스는 미래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알렉산더에게 미래의 세계 정복을 상징하는 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할 것임을 의미하고, 채찍은 감히 그에게 맞서는 자들을 처벌할 것이며, 금은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로부터 받게 될 공물을 암시합니다.” 예언적인 세부 사항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말에 "머리"라는 접두사를 추가하여 "Bucephalus"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그는 손에 무기를 들고 군대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동안 예언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다스리는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 악명은 그리스 문화와 그것에 낙인을 찍는 **죄를 조장할 것입니다.**

단 8:7 나는 그 사람이 숫양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숫양은 그를 대항할 힘이 없었더라. 그 숫양을 땅에 던져 짓밟았으나 그 숫양을 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7a- 알렉산더 대왕이 시작한 전쟁: - 333년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진영이 패배했습니다.

단 8:8 염소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해지자 그의 큰 뿔이 부러졌습니다. 그것을 대신하여 네 개의 큰 뿔이 일어나서 하늘의 사방에 이르느니라.

8a- 그의 큰 뿔이 부러졌다

323년 젊은 왕(~356~323)이 32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바빌론에서 사망했다.

8b-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 네 개의 큰 뿔이 하늘의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왕의 후임자는 그의 장군들, 즉 디아도키(diadochi)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그들 중 10명이 있었고 20년 동안 그들은 20년이 지나서 4명의 생존자만이 남을 정도로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에 왕조를 세웠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니카토르(Nicator)로 알려진 셀레우코스(Seleucus)입니다. 그는 시리아 왕국을 통치하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프톨레마이오스 라고스(Ptolemaios Lagos)로, 이집트를 통치하는 "라기드(Lagid)" 왕조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를 다스리는 카산드로스이고, 네 번째는 트라키아를 다스리는 리시마코스(라틴어 이름)입니다.

지리에 기초한 예언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의 네 가지 기본 사항은 해당 전투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로마의 귀환, 작은 뿔

단 8:9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가장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크게 자랐더라

9a- 이 절의 측면은 지배적인 제국이 될 왕국의 확장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전 수업과 세계 역사에서 그리스의 계승 왕국은 로마입니다. 이 식별은 더 짧은 메디아 뿔에 대해 사용된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명확하게 인용된 “작은 뿔”이라는 표현으로 더욱 정당화됩니다. 이것이 “작은 뿔”이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하는 공화주의 로마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경찰로서 동쪽을 향해 개입하고, 적들 사이의 국지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름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뒤따르는 이미지를 정당화하는 정확한 이유이다.

9b- **그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더라**

이전의 지배자는 그리스였고,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동부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게 된 것도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네 뿔 중 하나인 그리스.

9c- **남쪽, 동쪽, 가장 아름다운 국가를 향해 크게 확장됩니다.**

남쪽을 향한 지리적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역사는 이를 입증해 줍니다. 로마는 약 250년경에 현재의 튀니스인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다음 확장 단계는 **네 개의 뿔 중 하나인 그리스, 약 - 200** 에 개입하여 **동쪽을 향해 발생합니다**. Achaean 리그(Aetolia 대 Achaia)에 맞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Aetolian 그리스 리그가 그곳에서 소집했습니다. 그리스 땅에 도착하면 로마 군대는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 전체는 -160년부터 로마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는 폼페이우스 장군의 군대에 의해 정복된 로마 속주가 될 팔레스타인과 유대에 발을 디디며 확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단 11장 16절과 42절, 겔 20장 6절과 15절에 인용된 표현인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성령께서 지정하신 곳이 바로 이 유대이다.

가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작은 뿔”은 로마입니다

이번에는 의심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Dan.7의 교황 체제가 드러났으므로 성령께서는 불필요한 세기를 건너뛰고 황제들에게 버림받은 로마가 종교적 형태로 지배를 다시 시작하는 비극적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이어지는 10절의 상징에 의해 드러난 행동을 기독교인의 외모에 돌립니다. 이것이 단 7절의 “**다른 왕**”의 행동입니다.

**로마제국, 로마교황이 성도들을 박해하다
이 한 절을 연속해서 두 번 읽는다**

단 8:10 그녀는 하늘의 군대에 올라 그 군대의 일부와 별들 중 일부를 땅에 내려 발로 밟았습니다.

10a- 그녀는 하늘의 군대로 일어섰다

그녀 " 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은 로마의 정체성을 로마의 정체성을 그 확장의 연대순으로 유지한다. 요한계시록 17:10에서 암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 이후 로마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제국에 이르렀다. 아우구스투스로 알려진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젊은 아내인 마리아의 아직 처녀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은 바로 그의 시대였습니다. 둘 다 다윗 왕의 혈통에 속한다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자신이 선포하신 대로 스스로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구원의 좋은 소식(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때 로마는 온유함과 기독교 평화주의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도살자의 역할을 하고, 도살된 양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기독교 신앙은 전 세계, 특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퍼졌습니다. 박해하는 로마제국이 기독교인들에 맞서 일어섰다. 이 10절에는 로마의 두 가지 행동이 겹칩니다. 첫 번째는 제국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황에 관한 것입니다.

제국 체제에서 우리는 이미 그가 인용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 그녀는 기독교인들과 대결했습니다. 천국으로 무장한 이 상징적 표현 뒤에는 예수께서 이미 자신의 신자들, 즉 천국의 시민 이라고 부르신 선택받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 더욱이 단 12:3은 참된 성도들을 창 15:5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별들 에 비유합니다. 처음 읽을 때,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을 감히 순교하는 것은 이미 이교 로마에게는 오만한 행동이자 가치 없고 정당하지 못한 고양 입니다 . 제2독서에서 로마 주교가 538년부터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황으로 통치하겠다는 주장 역시 오만한 행동이며 더욱 무가치하고 정당하지 못한 상승입니다 .

그녀는 이 군대와 별들의 일부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습니다 . 그녀는 그들을 박해하고 죽여 자신의 투기장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박해자들은 주로 네로, 도미티아누스, 그리고 303년에서 313년 사이의 마지막 공식 박해자인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처음 읽을 때 이 극적인 기간은 Apo.2에서 " 에베소의 "라는 상징적 이름으로 다루어지며, 요한이 "에베소의"라는 이름의 신성한 계시를 받는 시기입니다. 묵시록"과 " 스미르나 ". 두 번째 독서에서는 교황 로마에 기인한 이러한 행위가 Apo.2에 " 버가모 "(파괴된 동맹이나 간음)와 "두아디라" 즉 가증스러운 일과 죽음 이라는 기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그녀가 그들을 짓밟았다고 말하면서 성령은 두 로마 모두에게 동일한 유형의 피에 굶주린 행동을

전가시켰습니다. **짓밟혔다**는 동사와 그 표현은 단 7:19에서 이교 로마에 기인한다. 그러나 **밟는** 행위는 13절의 진술에 따라 이 장 8절 14절의 *2300 저녁-아침* 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거룩함과 군대가 짓밟힐 것입니까?* 이 조치는 기독교 시대에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이를 로마 교황과 그 군주제 지원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교 로마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땅에 쓰러지게 할 뿐이지만*, 교황 로마는 거짓 종교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영적으로 *땅에 쓰러 뜨리고* 문자 그대로 박해합니다.

년 로마 수도인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킨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도착할 때까지 평화의 교대로 계속됐다. 계 2:8의 "*서머나*" 시대를 특징짓는 박해. 이 평화를 통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박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앙에 대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헌신은 제국 전역, 특히 순교자들의 피가 가장 많이 흘렀던 로마에서 풍부하고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의 두 번째 독서의 시작 부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321년에 매주 안식일을 변경하라는 칙령을 내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한 주의 첫날로 대체됩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정복되지 않는 존경받는 태양" 신을 숭배하기 위해 바쳤습니다. 이 행동은 술을 마시는 것만큼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실 것이며 최후의 심판의 시간은 충분할 것입니다. 새로운 안식의 날을 맞이하여 로마는 기독교 교리를 제국 전역으로 확장할 것이며 로마의 주교는 533년에 비잔틴 제국의 법령에 따라 교황 직위가 그에게 부여하는 최고 승격까지 위신과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적대적인 동고트족이 추방되고 나서야 첫 번째 통치 교황인 비길리우스(Vigilius)가 로마의 카엘리우스 산(Mount Caelius)에 세워진 라테란 궁전에서 교황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538년의 날짜와 첫 번째 교황의 도착은 이어지는 11절에 설명된 조치의 성취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교황의 통치 기간인 1260일과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과 단 7장에 계시된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발 아래 짓밟히는 계속되는 통치*가 이번에는 로마 교황의 종교적 지배와 시민 지지자들, 군주들, 그리고 그 높이에 의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38년에 설립된 천주교의 구체적인 활동

단 8:11 그가 군대 대장에게 일어나 영원한 ~~제사를 폐하고~~ 그의 성소를 기초를 헐고

11a- *그녀는 군대의 수장에 올랐다*

이 군대의 지도자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따르면 논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구조자. “*그녀가 장미였다*”라는 동사는 잘 선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538년에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교황권은 땅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녀가 지상에서 그를 대신한다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마귀가 쳐놓은 덫에서 사람들을 피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그분 자신이 그들을 이 함정과 그 모든 저주에 빠뜨리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단 7:25에서 “*성도들이 그의 손에 넘겨져 한 때와 두 때(2번) 반 때 동안*”이라는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안식일에 관해 수정한 법이지만, 무엇보다도 로마 교황에 의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538년 이후에는 안식일만이 영향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 전체가 재작업되었습니다. 버전.

11b- *그에게서 영원한 제사를 제하여 버리심*

나는 히브리어 원문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존재는 옛 동맹의 맥락을 암시하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닙니다. 새 언약 하에서 *희생과 제물은* 단 9:27에 인용된 *주의 중간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이러한 의식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사역과 백성의 죄를 위한 중보자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의 피로 사신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 수행하신 천상의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그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야 하였습니까? 그의 제사장 직무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중보자로서 그의 독점적인 역할이다. 실제로 538년 이래로 지상에 로마에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인해 예수의 천상 사역은 헛되고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그를 통과하지 못하며 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죄와 죄책을 담당하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7:23은 이 분석을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계시므로 옮기지 못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느니라.*” 지상의 통치자가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기독교가 맺는 가증스러운 열매를 정당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열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끔찍한 저주를 받았습니까? 다음 12절은 그 대답을 줄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방금 수행된 영구 기간의 식별은 단 12:11 및 12에서 제안될 1290일 및 1335일 기간을 사용한 계산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확립된 근거는 지상의 교황 지도자가 *영구 사제직*을 훔친 538년입니다.

11c- *그의 성소의 터를 헐었고*

새 언약의 문맥 때문에, "장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메콘"의 두 가지 가능한 의미 사이에서 나는 그 번역의 "근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예언의 대상이 된 기독교 시대의 문맥에 더 적합하고 타당함을 유지했습니다..

성소 에 대해 자주 논의되는 다니엘서의 미묘함에 눈을 뜨게 되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소* 에서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에 따라 속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 단 7:11에서: *그 기초는 교황권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Dan.11:30에서: 그는 유대인을 박해하는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4 에피파네스에 의해 *모독 되었습니다* - 168.

단 8:14 과 단 9:26 에서는 ~~*성소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 의 문제입니다 . 히브리어 단어 "qodesh"는 가장 일반적인 번역본의 모든 번역에서 체계적으로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히브리어 본문은 그대로 남아 있어 원래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성소 란 하나님이 친히 서 계신 곳만을 가리킨다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이 땅에는 더 이상 *성소* 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그분의 성소의 기초를 뒤흔든다* 는 것은 구원의 모든 조건을 예시하는 그분의 천적 사역에 관한 교리적 기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일단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판단하시고, 자신의 희생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할지 여부에 동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인으로 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살아가는 경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는 땅의 택함을 받은 자와 하늘의 중보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중단되면 구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거룩한 언약이 깨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321년 3월 7일과 538년에 교황이 그의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제직*을 박탈한 이후 *속고 유혹에 빠진 인류 대중이 무시한 끔찍한 영적 드라마*입니다. *자신의 성소의 기초를 뒤집는다* 는 것은 또한 신의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거짓 기독교 교리인 영적 집인 선택의 기초 또는 기초를 대표하는 12사도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어떤 사도도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단 8:12 *그리고 군대는 죄 때문에 영원한 제사로 넘겨졌습니다. 뿔은 진실을 땅에 던져 그의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12a- *영원한 희생으로 군대를 구원함*

좀 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표현은 단 7:25의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군대가 구출되었습니다 ... 그러나 여기서 영은 영원한 것을 더하신다.*

12b- *죄 때문에*

요한일서 3:4에 따르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단 7:25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썼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는 321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가며,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유일하고 영원한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12c- *나팔은 진실을 땅에 던졌습니다*

진리는 여전히 시편 119:142-151에 따라 율법을 가리키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주의 법은 진리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12d- *그의 노력에 성공*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미리 선언하셨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사기인 이 속임수를 무시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위해 인간 영혼을 잃는 결과가 가장 심각합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확증해 줍니다. *그의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나 그의 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그의 사업이 성공할 것이며, 권력자들과 성도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성화를 위한 준비

구약의 종교 의식이 주는 교훈에서 성화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첫째, 노예생활에서 가나안 입성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그의 나라 땅 이스라엘로 인도하실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실제로 가나안 입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결과 성결의 시련이 40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 해가 지는 날부터 다음 해가 지는 날까지의 안식일에 관해서도 사전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일간의 세속 활동에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으며, 이러한 것들은 제사장이 생명의 위험 없이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과되었습니다..

7일, 24시간의 창조 창조는 7천년 동안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6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시는 처음 6천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년기와 마지막 천년기는 하나님과 그의 택자들이 하늘에 모인 채 참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큰 안식일입니다. 죄인들은 일시적으로 모두 죽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이 “천년” 기간 동안 인구가 적은 땅에 고립되어 남아 있는 사탄을 제외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택한 자들은 정결해지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정화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지만, 세례 후에는 그분의

도움으로 성화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은 믿음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전가되거나 미리 획득되지만, 성화는 실제로 그의 전생애에서 얻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영혼은 살아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죄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나쁜 본성에 맞서 싸우는 싸움을 통해 획득됩니다.

다니엘 9장 25절은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끝내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절에서 택함받은 기독교인이 죄로 인해 교황의 전제정치에 넘겨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결을 얻으려면 정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부터 재림하시는 2030년까지의 기독교 시대 2000년을 적용하면, 이 준비와 성결의 시기가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재림교인의 원래 믿음과는 반대로, 이 시대는 다니엘 7장이 묘사하는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로마 교황의 가증스러운 가르침에 의해 정당화된 수세기에 걸친 죄의 유산 때문에 필요하게 된 성화의 시대입니다. 나는 13^{세기} 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역사가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순결하신 구주 하나님께서 모든 정의에서 요구하시는 정화와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단 8:13 나는 어떤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가 말하는 자에게 이르되, 영원한 제사와 속죄에 관한 환상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리이까? 성소와 군대가 언제까지 짓밟힐 것입니까?

13a- 나는 어떤 성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가 말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참된 성도 들만 이 로마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 12장에 제시된 환상의 장면에서 그들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13b- 비전은 언제까지 성취될 것인가?

성도들은 로마의 가증한 일이 끝나는 날짜를 요구합니다.

13c- 영원한 희생에 대하여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재개하시는 날짜를 묻습니다.

13d- 그리고 파괴적인 죄에 대해?

성도들은 제칠일 안식일의 복귀를 표시할 날짜를 요구합니다. 안식일의 범법은 로마의 황폐화와 전쟁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에게는 이 형벌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13절 - 성소와 군대가 언제까지 짓밟힐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인 그들에게 가해지는 **교황의 박해**가 끝날 날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8:14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이니라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14a- 1991년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잘못 번역된 이 구절에 대한 나의 연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그의 히브리어 원문의 실제 번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천삼백 명이 거룩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2300 저녁-아침이라는 기간은 이 기간으로 정해지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성화를 위한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세례로 얻은 영원한 정의가 의문시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택하신 자들이 더 이상 안식일이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다른 규례를 범하지 말라는 필요성으로 인해 변경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좁은 구원의 길이** 회복 됩니다. 그리고 **노아, 다니엘, 욥**이 제시한 선택받은 자의 모델은 단 7:10의 마지막 심판에서 타락한 100억 명에 대해 선택된 백만 명을 정당화합니다.

단 8:15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알고자 애쓰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내 앞에 섰더라.

15a- 논리적으로 다니엘은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했으며 이로 인해 단 10:12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승인을 받게 되지만 단에서 하나님의 응답처럼 그의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2:9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고 봉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 8:16 그리고 나는 올래 한가운데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쳐 말했다: 가브리엘아, 그에게 환상을 설명해 주라.

16a- 올래 한가운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단 12 장의 환상에서 주어진 교훈을 예상합니다. 그리스도의 가까운 종인 천사 가브리엘은 전체 환상의 의미를 처음부터 설명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구절에서 밝혀질 추가 정보를 주의 깊게 따르도록 합시다.

단 8:17 그 사람은 내가 있는 곳 가까이로 왔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나는 겁이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야, 주의하라 이 환상은 종말에 관한 것이니라.

17a- 천상의 존재에 대한 환상은 항상 육신의 사람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대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관련 종료 시간은 전체 비전이 끝날 때 시작됩니다.

단 8:18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만지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서게 하셨습니다.

18a- 이 경험에서 하나님은 충실한 천사들의 천체의 순결함과 동등하지 않은 육신의 저주를 강조하십니다.

단 8:19 그가 내게 이르시되 진노하심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이는 끝이 정한 때가 있음이니라 하시기로

19a- 하나님의 진노의 끝이 올 것이지만 이 진노는 로마 교황 교리의 유산인 기독교인의 불순종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된 하나님의 진노의 그침은 부분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인류가 완전히 멸망된 후에야 진정으로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8:20 내가 본 바 뿔 달린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

20a-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참조점을 주어 그들이 제시된 상징의 연속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메디아인과 바사인은 계시가 시작된 역사적 맥락을 나타낸다. 단 2장과 7장에서 그들은 두 번째 위치에 있었습니다.

단 8:21 그 염소는 야완 왕이요 그 눈 사이의 큰 뿔이 첫째 왕이니라

21a- 차례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계승입니다. Dan.2와 7의 세 번째.

21b 그의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위대한 그리스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것입니다. 큰 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의 이미지인 다리우스 3세는 그의 왕국과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굴욕을 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뿔을 이마가 아닌 눈 사이에 둠으로써 성령은 자신의 죽음만이 멈출 것이라는 만족할 줄 모르는 정복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눈은 또한 예언적인 투시력이기도 하며, 태어날 때부터 투시력에 의해 그에게 예외적인 운명이 알려졌고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예언된 운명을 믿습니다.

단 8:22 이 꺾인 뿔 대신에 일어난 네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네 왕국이니라 그러나 그 만큼 강하지는 못하리라

22a- 우리는 알렉산더의 뒤를 이은 네 명의 장군이 세운 네 개의 그리스 왕조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있었던 열 왕조 사이에 20년 동안 전쟁을 벌인 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단 8:23 그들의 통치가 끝나고 죄인들이 멸망할 때에 오만하고 간사한 왕이 일어날 것이요

23a- 중간 시대를 건너뛰고 천사는 교황 로마가 지배하던 기독교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주어진 계시의 주요 목적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이 구절의 첫 번째 문장에 나타나는 또 다른 가르침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지배가 끝날 때, 죄인들은 소멸될 때입니다. 교황 정권 시대 이전에 멸망당한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자 구원자, 해방자로서 거부한 반역적인 유대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범한 죄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의 질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70년에 로마 군대와 그들과 그들의 도시 예루살렘에 의해 멸망당했으며, 이것은 586년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일어난 멸망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대 동맹이 그 이후로 끝났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가리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23b- *뻘뻘스럽고 교활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오만함 과 뻘뻘함으로 특징지어지는 천주교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 그는 덧붙이고 교묘하다 . 그 책략은 진실을 가리고 우리가 아닌 모습을 취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웃을 속이는 술책은 역대 교황들이 하는 일이다.

단 8:24 그의 세력은 더 커질 것이나 그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그의 사업이 성공할 것이며, 권력자들과 성도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24a- *그의 힘은 커질 것이다*

실제로, Dan.7:8에서 “ 작은 뿔 ”로 묘사된 20절에서는 “ 다른 뿔보다 더 큰 모양 ”을 나타냅니다 .

24b- *그러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함*

여기서도 역사는 군주들의 무장적인 지원 없이는 교황 정권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 지원은 메로빙거 왕조의 프랑크 왕 클로비스였고, 그 이후에는 카롤링거 왕조, 마지막으로 카페티아 왕조의 지원은 프랑스 군주제의 지원이 거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원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 왕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 군주제 신하들, 주로 책임이 있는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의 참수, 프랑스의 수도와 지방 도시에 설치된 단두대, 프랑스 혁명가들 사이의 참수 등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793년과 1794년; 인류의 기억 속에 피의 글자로 새겨진 두 시대의 '테러'.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는 이 신적 형벌이 다음과 같이 예언될 것이다: **보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큰 환란을 보내리라. 가지다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 도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여자의 아이들을 죽이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24c- *그는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땅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셀 수 없으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수를 아시며 최후 심판의 형벌 때에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무서운 것까지 모두 저자에 의해 속죄될 것입니다.

24d- *그는 자신의 사업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얻으셨다고 주장하는 자기 백성이 범한 죄를 처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역할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가 성공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24절 - 그가 권세 있는 자들과 성도들의 백성을 멸절하리라

교황권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임을 가장하고 그들을 파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위협함으로써 대인과 서방의 군주, 더욱이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의 굴복을 얻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불신과 신성한 진리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모두가 무지합니다.

1170년 피터 발도(Peter Valdo) 이후 시작된 종교 개혁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교황 정권은 하느님의 신실한 종들, 항상 평화롭고 평화로운 유일하고 참된 성인들, 법원의 지원을 받는 살인적인 가톨릭 연맹들에 대해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거짓 거룩함에 대한 심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명령한 두건을 쓴 판사들은 모두 하나님과 로마에 대한 이단 혐의로 기소되어 단 7장에 예언된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당한 일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9 및 요한계시록 20:9~15.

단 8:25 그는 그 형통과 그 계략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교만하여 평안히 사는 자를 많이 멸하며 스스로 높아져서 방백들의 우두머리들과 맞서리라 그러나 그것은 어떤 손의 노력도 없이 깨질 것이다.

25a- 그의 번영과 그의 계략의 성공 때문에

이 번영은 구절이 그의 속임수와 연결되는 그의 풍요로움을 암시합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에 나열된 모든 종류의 부와 돈과 부를 얻기 위해 작고 약할 때 속임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25b- 그는 마음에 교만을 품게 될 것이다

단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과 단 5장에서 그의 손자 벨사살의 경험이 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25c- 그는 평화롭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평화로운 성품은 참된 기독교의 열매이지만 단 184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단 7:25에 예언된 1260년의 교황 통치가 끝나는 프랑스 혁명이 끝날 때까지 거짓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인성을 공격하거나 잔인함에 대응하는 잔인함이 특징입니다. 오직 이러한 시기에만 온화함과 평화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정하신 규칙은 사도 시대 이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희생 제물을 받아들이는 양이지 결코 도살자가 아닙니다.

25d- 그리고 그는 일어나 추장들의 우두머리를 대적할 것이다

이 정확성으로 인해 의심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에 언급된 지도자는 계시록 19장 16절에서 재림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합법적인 영구 사제직을 빼앗긴 것도 바로 그에게서였습니다.

단 8:26 말한 바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니라 당신 입장에서는 이 비전이 먼 시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밀로 유지하십시오.

26a 문제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니라

천사는 14절의 “2300 저녁-아침”에 대한 예언의 신적인 기원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으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된 성도들이 반드시 조명하고 이해해야 할 이 수수께끼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26b- *이 비전은 먼 시대에 관한 것이므로 비밀로 유지하십시오.*

실제로 다니엘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 약 26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가 밝혀져야 할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일이 완료될 것이지만 제안된 계산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를 제공할 Dan.9를 연구하기 전에는 완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8:27 *나 다니엘은 여러 날 동안 병들어 앓아 누웠으나 그런 다음 나는 일어나서 왕의 일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그 환상에 놀랐으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7a- 다니엘의 건강과 관련된 이 세부 사항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된 2300년 저녁-아침에 관해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번역합니다. 질병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수수께끼에 대한 무지는 **마지막 시대에 살게 될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영적 죽음으로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단 9: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이 된 원년에*

1a- 그러므로 부인할 수 없는 다니엘의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우리는 단 왕 다리오가 메대 족속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는 아직 그를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첫 해는 그가 바벨론을 정복하여 갈대아인에게서 빼앗은 해였습니다.

단 9:2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보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연수대로 예루살렘이 황무할 년이 칠십 년이니라.*

2a-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가리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시선 아래 하느님의 종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믿음과 신뢰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의 다음 말씀을 확증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라*. 다니엘은 히브리 민족의 포로생활이 예언된 70년의 대부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로의 귀환이라는 주제에도 관심이 있으며, 그에 따르면 매우 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기 위해 그는 우리가 공부하게 될 훌륭한 기도를 제시합니다.

성인의 신앙의 모범적인 기도

다니엘서 9장의 첫 번째 교훈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이 부분에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죄인들*에 대한 예언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고백한 모든 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다시 정죄를 받고 불에 멸망되었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기도.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와 제자들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첫 동맹에서 제시된 이 이스라엘은 누구였습니까? 그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표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인간은 피부색이 매우 밝은 것부터 매우 어두운 것 외에는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종, 민족,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아들과 딸에게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들의 정신적 행동은 동일합니다. "나는 당신을 조금, 많이,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데이지 잎사귀를 떼어내는 원리에 따라, 인간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감정의 범위를 발견할 때 이를 재현합니다. 존재. 또한 위대하신 재판관께서는 자신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 그분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무관심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신다. 완고하고 신랄한 마음이 그들을 광신자로 만들고, 극단적으로는 모순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상대의 살해를 지지한다.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견되었으며, 행성 지구 전체와 모든 종교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것처럼 동등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당신에게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다음 중 어떤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에 대한 당신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드리십시오.

이 9장에 이 기도문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70년에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킨 원인이 그곳에서 다루어지고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가 인간의 땅에 처음 오심입니다 .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단죄한 업적의 완성만이 유일한 결점인 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해체하고 모순되는 중상 모략으로 그를 반대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최종적인 비난을 하였으며, 사람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혼은 의로운 분노의 때에 그들을 태워버릴 화로의 숯처럼 검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그분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부활 후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열 두 제자가 행한 이적과 선행을 보고 그들은 그 당시의 바로와 같이 마음을 굳게 하여 로마인들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돌로 쳐죽인 신실한 집사 스테반을 죽임으로써 이를 증거하였느니라.

이 기도의 세 번째 이유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오랜 경험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슬픈 관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 증언, 유대 동맹이 나머지 인류에게 남긴 일종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위가 그치는 바벨론으로의 포로생활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한동안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순종을 받으시겠지만, 충성심은 곧 사라질 것이며, 그들의 생존은 오직 첫 번째 믿음에 근거한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니라.

이 기도를 드리는 네 번째 이유는 321년 3월 7일 안식일을 포기한 때부터 우리 시대까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언급하고 고백한 잘못이 모두 성취되고 갱신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 1873년 이래로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1844년 이래로 축복받은 마지막 공식 기관은 예수께서 1994년에 그것을 토하신 이후로 시간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장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이 날짜와 마지막 신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단 9:3 내가 돌이켜 기도하고 간구하며 금식하고 베옷과 재를 가져가려고 주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였노라

3a- 다니엘은 이제 늙었지만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존되고 영양분을 받고 유지됩니다. 그의 경우에는 그의 마음이 매우 성실하여 단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것이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는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금식은 먹는 즐거움에 비해 하나님의 응답이 더 우월함을 보여줍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더 이상 당신의 대답 없이는 자살하지 않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단 9:4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에게 고백하였나니 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 그는 주의 언약을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니이다

4a- 주여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으며 하나님이 위대하고 두려우신 분임을 배우기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4b- 당신은 당신의 계약을 지키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행한 가톨릭 신자들은 암흑의 세기 동안 이 계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계명 버전. 왜냐하면 육신에 초점을 맞춘 계명이 열이라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장에서 비난한 뻔뻔함과 속임수의 훌륭한 예입니다.

단 9:5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사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계명과 규례를 떠났사오며

5a- 다니엘과 그의 동료 세 사람이 이런 유형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이끈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 더 진실되고 명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죄의 짐을 짊어지면서도 자기 백성의 대의를 옹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2021년에 말 3장 6절의 선언에 따라 변치 않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섬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인 너희는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 소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말라기가 이 말을 쓴 이후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야곱의 자손들은 그를 배척하여 죽였고 단 8장 23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결국 70년에 로마인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그분의 계명,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된 안식일을 범하는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단 9:6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이 땅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6a- 히브리인들이 이러한 일에 죄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설립한 마지막 기관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단 9:7 여호와여 공의는 주의 것이니 오늘날 우리의 부끄러움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온 이스라엘 곧 가까운 자와 먼 데 있는 자에게

미치나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범죄하여 성실하지 못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들을 쫓아온 모든 나라에서

7a- 이스라엘의 형벌은 무서웠고 많은 사망자가 있었으며 살아남은 자들만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기회를 얻었고 그곳에서 갈대아 제국과 그를 계승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 민족은 외국 땅에서 해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곧 유대인들을 그들의 민족 땅, 즉 그들의 조상의 땅에서 재결합시키실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다니엘은 기도에서 이 백성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타내야 할 모든 회개를 표현합니다. 단,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을 행하는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니까? 추방인가, 아니면 죽음인가?

단 9:8 *여호와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8a- 끔찍한 단어인 “죄”라는 단어가 인용됩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초래하는 죄를 누가 끝낼 수 있습니까? 이 장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교훈은 배우고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치했던 왕, 지도자, 조상들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불순종을 장려하여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도록 하는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가 내린 선택이었고 그들은 그 선택에 대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단 9:9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자비와 용서를 베푸소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사오니*

10a- 죄의 상황에서는 단 하나의 희망만 남습니다. 선택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과정은 영구적이며, 옛 동맹의 유대인과 새 동맹의 기독교인은 용서에 대한 동일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 9:10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10a- 이는 2021년 기독교인에게도 해당됩니다.

단 9: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1a-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다니엘과 동시대의 선지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다니엘이 있는 지 13년 후, 즉 여호야김의 동생 여호야긴 왕이 뒤를 이어 티그리스와 강 사이에 있는 그발 강에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였다. 유프라테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감을 주셨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6장에서 우리는 계시록 8장과 9장의 일곱 나팔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이 발견되는 일련의 형벌을 발견합니다. 이 놀라운 유사점은 하나님이 실제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죄는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서도 형벌을 받습니다.

단 9:12 그가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통치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이르신 이에게 이런 일이 없느니라.

12a-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셨고, 동일한 관심으로 축복하시거나 저주하시겠다는 자신의 선언을 이행하십니다. 다니엘의 백성에게 닥친 “재난”은 이러한 일을 배우는 나라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성경에 기록된 간증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은 읽는 사람들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다니엘서의 나머지 부분에 드러날 두 가지 다른 큰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 9: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죄악에서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주의 진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13a-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내용에 대한 경멸은 또한 영구적입니다. 2021년에 기독교인들도 이 잘못에 대해 유죄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예언적 진리는 강렬하고 이해하기 쉽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해의 열쇠는 바로 성경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 9:14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기다리시다가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의로우시지만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a-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진심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인류를 위해,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 훨씬 더 큰 재난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잘 아십시오. 그것은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 9:15에 따르면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는* 신성한 사명을 지닌 핵전쟁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단 9:15 이제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을 행하였나이다

15a- 다니엘은 왜 불신앙이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땅에 유대 민족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체 이야기는 이 기적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을 목격할 기회가 없지만, 이 경험의 후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를 더 잘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사람들을 나치의 증오에 넘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관심은 70년 이후 잃어버린 옛 고향의 땅에 1948년에 정착한 생존자들에게로 쏠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에 관해 말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말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 그의 죽음을 얻기 위해 나는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떨어지길 바랍니다"를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지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성한 교훈을 부끄럽게도 무시해 왔으며, 그들 모두가 저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율법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는 완전히 정당합니다.

단 9:16 여호와여, 주의 크신 자비를 따라 주의 진노와 분을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에게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16a- 다니엘은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시한 논증을 제시합니다. 그의 백성이 형벌받는 것을 목격한 백성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24절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 유대인에 대하여 친히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 그는 겔 16:27의 본문을 암시한다. **보라, 내가 너를 향하여 내 손을 펴서 내가 네게 할당한 몫을 줄이고 너를 네 원수 곧 네 딸들의 뜻에 맡기고 너의 범죄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아** . 동정심 때문에 다니엘은 그의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 **예루살렘과 네 백성은 우리 주위의 모든 자에게 치욕이 된다** ”고 말할 때 그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형벌이 이교도들에게 유익한 두려움과 이 참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망을 낳았다면, 그 형벌은 진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슬픈 경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메대 왕 다리우스의 개종 덕분에 우리가 개종한 덕분에 작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단 9:17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취게 하옵소서

17a- 다니엘이 구하는 것은 허락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로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 그의 계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실제로 재건될 성전이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다시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9장에서 받게 될 정보가 그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건축된 석조 성전에 부여하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적 중요성을 그에게 치료해 줄 것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성전은 머지않아 그것을 헛되게 만들 것이며, 이런 이유로 그것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다시 파괴될 것입니다.

단 9:18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뜨고 우리의 폐허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일컬어지는 도시를 보십시오!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함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18a-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거룩하게 된 곳으로 삼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곳은 하나님이 서 있을 때만 거룩하며, 586년 이후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폐허는 그분의 공의가 공평하지 않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교훈은 참 하나님을 마귀 진영의 악한 천사들에게만 관계하는 우상 숭배의 이방 신들과 달리 보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살아 있는 존재로 인간이 바라보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불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다니엘이 호소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실재하며,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단 9:19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주목하세요!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도시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a- 다니엘의 노력은 모세처럼 그의 가장 소중한 개인적 소망이 그의 “거룩한” 땅으로의 복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그는 다시 한 번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룩한 성전의 재건을 목격하고 싶어합니다.

단 9:20 그러나 나는 말하고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나니

20a-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매혹시키고 그가 요구하는 거룩함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겸손의 모델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에 사는 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다니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자신의 극도의 약점을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영적 특성은 사람들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일 뿐이고 그 자신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단 9:21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전에 이상으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소제 시간에 나를 향해 날아오더니

21a- 가브리엘의 방문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시간은 저녁 제사 시간입니다. 즉, *저녁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거룩하고 흠 없는 몸이 자원하여 드리는 미래를 예언하는 *어린 양의 영원한 희생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유일하고 참된 백성을 구성하는 그분이 선택하신 유일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주어질 계시, 즉 다니엘과의 연결이 확립됩니다.

기도끝 : 하나님의 응답

단 9:22 그분은 나를 가르치시며 나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다니엘아, 나는 지금 네 이해력을 열어 주러 왔다.

22a- "open your Intelligence"라는 표현은 그때까지 지능이 닫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만날 때까지 숨겨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 9:23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이 나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 왔노라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전을 이해하십시오!

23a-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하니 말씀이 나되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직하셨고, 영원한 시간의 만남의 순간을 조직하셨고, 천사 가브리엘은 요한이 그의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씀”을 알리러 온다. 이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 따라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천사가 그에게 알리러 온다는 뜻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너희 중에서 일으키시리라*,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총회 날 호렙산에서 너희가 너희가 이르기를 나로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을 다시 보지 않게 하소서 죽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을 일으키리니 너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넣어 주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말하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담대하게

내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 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는 사형을 받으리라.

이 본문은 메시아 예수가 그의 오심에 대해 예언된 모든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를 거부한 죄를 이해하는 데 기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로 데려가시고 신성한 말씀을 전달하신 예수께서는 이 묘사에 부합하셨고 그가 행하신 기적들은 신성한 활동을 증거했습니다.

23b-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사랑하시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다니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자유로운 피조물을 위해 생명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가 지상의 일부 인간 피조물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매우 높은 대가를 정당화한 것은 바로 그에게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치러야 할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그가 선택한 사람들은 그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23c-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전을 이해하라!*

천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신성한 “말씀”입니까? 확실한 것은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오시는 “말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고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0주 예언

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을 그치며 죄를 끝내며 죄악을 속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이상과 선지자가 인봉되고 기름을 바르기 위함이라 지성소.*

24a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에서 칠십 이레가 끊어졌으니*

히브리어 동사 “하탁”은 첫 번째 의미에서 자르다, 썰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만 “결정하거나 고치다”라는 뜻이다. 나는 첫 번째 의미를 유지합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서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맹을 확고히 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 그러나 그는 새들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과 그의 종 사이의 동맹을 예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다”라는 동사가 27절의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과 맺은 동맹”에서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많은 사람”은 유대인 국민입니다. 그 유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익입니다.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 동사 절단의 두 번째 관심은 이 장 9장의 70주가 단 8:14의 “2300 저녁-아침”에 절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보다 기독교 신앙을 앞세우는 이 연대기에서 교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든 신자를 위한 구속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온 땅의 택하신 자들과 맺은 새 언약을 깨뜨리기 위해 피를 흘리셨을 때 사라져야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다니엘 시대의 왕들의 개종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보편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메대 사람 다리오, 바사 사람 고레스입니다.

이 메시지는 70주의 기한이 주어진 유대 민족과 그들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다시 겔 4:5-6의 코드는 1년 동안 하루를 제공하며 기간은 전체 490년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은 이미 폐허가 된 도시에 대한 위협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4b- *범죄를 그치고 죄를 그치게 하려 하심이라*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빨리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서 구원을 얻어서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며 그의 율법에 대한 범법을 그치게 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 기록한 대로 죄를 그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4절: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악한 본성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4c- *죄악을 속죄하고 영원한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유대인 다니엘에게 이 메시지는 염소 희생을 통해 죄가 제거되는 것을 기념하는 연례 축제인 “속죄일”의 의식을 상기시킵니다. 이 전형적인 죄의 상징은 단 8장에서 그리스를 대표했으며, 그 존재는 이 “속죄일”의 영적 분위기에 대한 예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일 년 내내 희생된 다른 동물들의 죽음이 죄를 제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염소의 죽음이 죄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딜레마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0:3-7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기억은 해마다 이 제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지으셨으니. 당신께서는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를 행하러 왔노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였느니라)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은 ...*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설명은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선포한 죄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위해 남겨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 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만든 그의 완전한 인격적 결백은 속죄제의 염소로 상징되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어린 양이 염소 곁에 숨겨졌으니 이는 자기가 돌보는 염소를 위하여 어린 양이 죽은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죄, 곧 그가 책임져야 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24d- *영원한 정의를 가져오라*

이것은 구세주 메시아의 죽음으로 인한 행복한 결과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이 낳을 수 없었던 이 의는 택하신 자들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이러한 표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 순수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처음에는 싸움까지 그들에게 전가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리스도의 정의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학생은 스승처럼 됩니다. 예수의 사도들의 믿음이 세워진 것은 바로 이러한 교리적 기초 위에 있었습니다. 시간과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좁은 길을 넓히기 전에 . 이 **의**는 오직 신실한 택함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영원**할 것입니다 .

24일 - *환상과 선지자의 인을 치시려고*

혹은 선포된 선지자의 출현으로 그 환상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봉이라는 동사는 예언과 자신에게 완전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적 권위와 합법성을 제시할 선지자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인을 암시합니다. 곧 성취될 사업은 신성한 왕의 인장으로 인봉되었습니다. 이 인장의 상징수는 '7:7'이다. 그것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영의 본성을 특징짓는 충만함을 가리킨다. 이 선택의 기초는 7천년에 걸친 그의 프로젝트 건설이며, 이것이 그가 시간을 7천년처럼 7일의 주로 나눈 이유입니다. 따라서 70주 예언은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숫자(7)에 역할을 부여합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이 숫자 "7"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24f- *지성소에 기름을 붓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받게 될 성령의 기름부음입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그에게 내려온 비둘기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요한에게 예수가 실제로 선포된 메시아임을 확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그를 증거한다. 이 땅에서 예수는 항상 그리스도였으며, 제사장들에게 선택된 질문의 형태로 12세 때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그의 백성을 위해 그의 공식적인 사명은 26년 가을에 세례를 받을 때 시작되어 30년 봄 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히브리인들을 두렵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내셨기에 위엄있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지성소는 지상에 물질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또는 성소.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서 있는 곳, 인류가 접근할 수 없는 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성한 심판의 자리이자 그의 보좌인 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 선택을 위해 설정된 6천년 동안 선택된 자들의 죄 용서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궁극적인 “속죄절”을 성취시켰습니다. 용서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고대 희생이 모두 유효해졌습니다. 지성소의 기름부음은 속죄일에 하나님의 범법한 계명을 담은 궤 위에 놓인 제단인 속죄소에 죽인 염소의 피를 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활동을 위해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씩 분리의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갈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통치권을 받기 위해 피의 속죄를 하늘로 가져오셨고, 그의 공의의 전가로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정당성과 악한 천사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사탄, 마귀를 포함하여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정죄할 권리를 가져오셨습니다. . 하늘, 즉 예수께서 땅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 지성소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계시된 것처럼 미가엘을 통해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하늘에서 쫓아내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종교인들의 실수는 연례 “속죄일”의 예언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축제에서 바쳐진 동물의 피가 그 해에 흘리는 또 다른 동물의 의미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잘못 믿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상 생물에 의해 생산된 동물, 두 종의 가치 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이 성령으로서 기름부음의 기름이셨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땅에서 획득하신 합법성에 대한 기름부음을 가져오셨습니다.

계산의 핵심

단 9:25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지도자를 위하여 다시 중건되리라는 말씀이 선포된 때부터 칠주 육십이주 전에는 그 곳과 도랑이 회복되겠지만 어려운 때이니라.*

25a-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이해하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영적, 지적 집중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5b-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는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지도자에게로 알려질 때부터***

이 구절만이 환상의 목적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의 백성에게 그가 어느 해에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수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은 예언된 490년의 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재건 칙령에 대해

에스라서에서 우리는 페르시아의 세 왕인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가 연속적으로 명령한 세 가지 가능한 칙령을 발견합니다. 458년에 마지막으로 제정된 법령은 우리 시대 26년에 490년의 정점을 허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의 이 조서가 기록된 시기를 고려하여 지켜져야 할 것이라 에스디서 7장 9절에 따르면 *봄이니라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 그 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다섯째 달 초하루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더라*. 왕의 조서가 정한 해는 에스라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느니라*.

법령의 출발은 샘이며, 성령의 예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샘의 부활절입니다. 계산은 우리를 이 목표로 이끌 것입니다.

25c- 7주, 62주 전에 장소와 도량이 복원되지만 어려운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70주가 있습니다. 천사는 69주를 불러일으킵니다. 7 + 62. 처음 7주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는 시기로 정점을 이룬다.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추방으로 인해 자유로워진 지역에 정착하러 온 아랍인들의 영구적인 역경 속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의 이 구절은 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와 짐을 옮기는 자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이는 명시되어 있는 세부 사항이지만 주요한 것은 70 주^차 계산에서 발견된다.

70 번째 주

단 9:26 *육십이 이레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리니 그에게 후계자가 없고 그를 위하여 아무 것도 없느니라 통치자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거룩한 성소를 멸할 것이며 그들의 종말은 홍수처럼 오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화는 지속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6a- 62주 후에 기름부음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이 62주 앞에는 7주가 있는데, 이는 실제 메시지가 "69주 후에" 기름부음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지 기름부음받은 자가 아니라 이렇게 발표된 사람은 신성한 기름부음을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공식 "*a*" 를 사용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 신성한 제약과는 거리가 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에 따르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사람의 아들은 자신보다 앞서서 그들이 학대했던 사자들을 보낸 후에 포도원 농부들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는 다른 기름부음받은 자들보다 먼저 자신을 나타내는 기름부음받은 자일뿐입니다.

천사는 총 69주 기간이 “ 이후 ”라고 말하여 70주 를 나타냅니다 . 따라서 천사의 데이터는 한 해로 이루어진 이 70번째 주의 중간에 있을 30년 봄 유월절을 향해 단계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

26b- 그리고 그에게는 후계자가 없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불법적입니다 . 그리고 나에게서는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 나에게 딱 맞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들 자신도 다른 유대 민족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을 그 나라에서 몰아낼 전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26c- 장차 올 지도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의 거룩함을 멸하라

이것은 관찰된 유대인의 국가적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구성합니다. 그를 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거짓 거룩함 으로 확실히 갚아질 것입니다 . 왜냐하면 30년 이후 유대 땅에는 더 이상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성소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로마인들을 사용하셨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감히 스스로 할 수 없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로마인들이 그들 없이는 “3년 6개월 동안” 스테반 집사를 돌로 치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 나중에.

26d- 그리고 그 끝은 홍수처럼 오리라

그러므로 몇 년간의 로마 포위 이후 예루살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갔고, 신의 열정에 힘입은 파괴적인 증오로 가득 찬 그들은 선언된 대로 그 도시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룩함을 미친 듯이 파괴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 24:2에서 선언하신 대로 다른 돌 위에 돌이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

26일 -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폐허를 지속하기로 결정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닐 겁니다. 로마 이후 서기 2천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누리는 오랜 평화의 시간은 예외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기 전에 환상이 끝날 때까지 왜곡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황폐화시키거나 황폐하게 하는 자 ”의 활동을 연장할 것이며 그곳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 9:27 그는 한 이레 동안 많은 사람과 강한 언약을 맺고 그 이레의 절반 동안은 제사와 소제를 그치게 할 것이며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있고 심지어 멸절(또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인데, 그것은 황폐한 [땅] 에서 작성된 대로 꺾이 리라.

27a- 그는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을 것이다**

성령은 새 언약의 성립을 예언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주시는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다수라는 용어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도록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기한의 마지막 **7년 동안 그분의 언약을 맺게 될 유대인 민족, 그분의 사도들,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유대인 제자** 들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과 회개한 유대인 죄인들 사이에 “**끊어진**” 것은 바로 이 언약입니다. 33년 가을, 이 마지막 주의 끝은 새 집사인 스테반을 돌로 치는 일로 대표되는 또 다른 부당하고 가증스러운 행위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잘못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듣기에 참을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던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국가적으로 자신의 중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사실을 기록하셨습니다. 서기 33년 가을부터 유대인 반군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비운 로마의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27b- 그리고 그는 **이레의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쉬게 할 것이다.**

한 주의 중간이나 절반인 이 순간은 70주 예언의 대상이 되는 봄 30일입니다. 이것은 24절에 인용된 모든 행위가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죄의 종말, 죄의 속죄, 영원한 공의를 확립하여 비전을 성취하는 선지자의 오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전능자. 메시아의 속죄의 죽음은 여기에 수반되는 결과의 측면에서 언급됩니다. 즉, 백성의 죄를 위해 저녁과 아침에 유대 성전에서 드러지는 동물 **희생과 제물이 완전히 중단되었지만**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러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언약에서 그를 예표했던 동물 상징을 쓸모없게 만들며, 이것이 그의 희생이 가져온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전 휘장이 찢어짐은 지상 종교 의식의 결정적인 중단을 확증하며, 70년에 성전이 파괴됨은 이 확증을 더욱 강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는 유대교의 연례 축제들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죽음에서 그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는 주간 안식일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참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얻으시는 일곱째 천년기의 천상의 안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인용된 **영원한 정의**.

주간 ”의 시작은 26년 가을에 세레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의 세례와 함께 시작됩니다.

27c- 그리고 **멸망의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에 L.Segond 버전에서는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제공된 계시를 고려하여, 나는 다른 번역본에서도 입증된 히브리어 본문의 번역본을 제시합니다. 하늘의 인격과 통치를 상징하는 " 날개 위의 " 라는 문구는 단 8:10-11에서 " 일어나는 " 로마 교황권과 마지막 날의 종교적 동맹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종교적 책임을 시사합니다 . 독수리 날개는 제국 칭호의 최고 승격을 상징합니다 .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또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히브리 백성을 독수리 날개 에 태운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1806년 나폴레옹 1세(Apo.8:13에 의해 확인됨), 그 다음 프로이센과 독일 황제, 마지막 독재자 A. 히틀러를 포함하여 모든 제국 이 이 독수리 상징을 채택했습니다 . 그러나 그 이후로 미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에도 이 제국 독수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전 주제를 떠나 Spirit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적인 로마를 목표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 이후, 땅의 마지막 황폐를 초래하는 가증한 일의 표적이 된 행위자는 실제로 이교 제국 시대가 26절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입니다. 그리고 "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일 " 을 범하는 행위는 세상 끝날 때까지 시간 속에서 계속하십시오. 그러므로 복수형의 가증스러운 일들은 무엇보다도 피에 굶주린 로마 국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극적인 "단계들"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선출된 신자들을 박해할 제국 로마에 기인하며, 이 일은 313년에 중단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증한 일이 나오며, 그것은 321년 3월 7일에 제칠일 안식일의 관행을 끝내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 행동은 여전히 로마 제국과 그 제국 지도자 콘스탄티누스 1세 에 기인합니다. 그와 함께 로마 제국은 비잔틴 황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538년에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자신의 로마 자리에 비질리우스 1세의 교황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또 다른 가증스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 가증스러운 일이 세상 끝날까지 연장된 것은 하나님께서 비난하신 이 단계의 교황법에 기인해야 합니다. Dan.7 이후. 우리는 " 작은 뿔 " 이라는 이름이 단 7장과 단 8장에서 로마의 두 지배적인 단계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속적인 두 단계에서 동일한 가증스러운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보신다. 이전 장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구절이 그에게 전가하는 다양한 종류의 가증한 일들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27d- 그리고 황폐한 [땅] 에서 작정된 대로 그것이 멸절 (또는 완전한 멸망) 되고 부서지기 까지 하리라.

" 그 사람은 망가질 거야 [이것에 따라] 정하신 대로 " 단 7:9-10과 단 8:25에 계시되었습니다: 그가 형통하고 그의 계략이 성공하므로 그 마음이 교만하여 많은 일을 행할 것이요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며, 그는 일어나서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손의 노력도 없이 깨질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은 현재 번역본과는 다른 이러한 신성한 사상을 제시합니다.

이 뉘앙스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 인간의 책임을 두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Rev.20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거짓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인간을 지구상에서 멸절시키는 이 신성한 계획을 무시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주어진 계시를 무시하고, 그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헛되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기와 Rev.20에서는 표면의 완전한 파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성을 지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은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역사의 시작부터 땅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땅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거대한 지진이 땅을 흔들고 심연이라는 이름 아래 *혼돈의 상태인 “형체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tohu wa bohu”, 이니셜. 그녀 위에는 살아 있는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마귀가 죽을 때까지 *천년* 동안 그녀에게 갇힌 마귀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 단계에서는 먼저 방금 연구한 “70번째 주”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언적 기간에 이루어진 성취는 문자적인 성취와 결합됩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의 증거 덕분에 우리는 30년 부활절 주간의 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그 해 목요일인 유대 유월절에 의해 정당화되는 가끔 안식일의 수요일 전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번 유월절의 과정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체포되어 밤중에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수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마감됩니다.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러냈습니다. 목요일 부활절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금요일 아침, 경건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 낮 동안 준비하는 향료를 구입합니다. 금요일 저녁 6시에 주간 안식일이 시작되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6시에는 안식일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 여자들은 돌을 굴러줄 사람을 찾기 위해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열린 것을 발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며 천사는 가서 자기 형제들인 사도들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에 머물고 있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흰 옷을 입은 남자를 보고 그 사람을 정원사로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널리 퍼진 믿음을 무너뜨리는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도적과 예수님 자신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에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아직 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주께 할 말이 없는 자들은 잠잠하라! 언젠가는 조롱이나 수치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458년이라는 날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두 가지 주요 정체성의 표를 주셨는데, 안식일과 육체의 할례라는 70주의 하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따르면,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 이교도 개종자들은 히브리어와 유대인의 뿌리와 줄기에 접붙여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동맹의 기반은 순전히 유대적이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이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는 예수께서 모든 시대의 거짓 개종한 이교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생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더 잘 파멸시키기 위해 마귀는 그들이 유대인과 그들의 동맹을 미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거룩한 안식일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류를 바로잡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닌 새 언약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과 새로 개종한 유대인 제자들은 단 9:27에서 예수님과 **확고한 동맹을 맺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반은 여전히 유대인이며, 그들은 또한 “70 이레” 기간의 시작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흘리신 인간의 피에 기초한 새 언약의 기준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추론에서 공제하면 날짜 - 458은 단 8:14의 “2300 저녁-아침”의 시작이 됩니다.

이 긴 예언 기간인 2300년이 끝나면 단 8:13에 따르면 세 가지 일이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 1- 영원한 신권
- 2- 파괴적인 죄
- 3- 거룩함과 군대에 대한 박해.

세 가지가 식별됩니다.

- 1- 교황의 영원한 지상 사제직
- 2- 첫날의 나머지 날은 일요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3- 기독교의 거룩함과 성도, 천국 시민에 대한 박해.

이러한 변경 사항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의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 2- 7^일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회복하라.
- 3-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끝나는 것을 보십시오.

날짜 - 458부터 시작하여 “2300 저녁-아침”에 대해 제안된 계산은 이 기간의 끝이 1843년 봄에 끝납니다: $2300 - 458 = 1842 + 1$. 이 계산에서 우리는 예언된 “2300년 저녁-아침”이 끝나는 1843년 초의 봄을 지정하기 위해 +1을 더해야 하는 1842년을 갖게 됩니다. 이 날짜는 1260년 동안 로마 교황 카톨릭으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 거짓말로부터 참된 성도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개신교인들이 피난처를 찾은 미국에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한 주도권을 잡으면서 성령께서는 윌리엄 밀러에게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연속해서 제안된 두 날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발표합니다. 1843년 봄, 두 번째는 1844년 가을이었습니다. 그에게 성소 정결은 예수께서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의미합니다. 예정된 날짜에 두 번 실망한 후에 성령은 두 가지 믿음의 시험에 참여한 가장 끈기 있는 사람에게 표징을 줍니다. 1844년 10월 23일 아침에 들판을 건너던 성도 중 한 사람이 하늘의 시현을 받았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늘에 열렸습니다. 환상에서 그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하여 1260년의 어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의 연속적인 시련을 통해 분류된 충실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 1- **영구의 재개**. 그러므로 이 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844년 10월 23일에 자신의 영원한 해의 신권에 대한 통제권을 공식적으로 되찾으셨습니다.
- 2- **안식일의 복귀**. 같은 달에, 또 다른 성도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레이첼 옥스 부인이 자신의 교회에서 “제칠일 침례교인”이라는 소책자를 그에게 준 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의 시험을 거쳐 선발된 성도들도 차례차례 제칠일 안식일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교 로마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교황 로마에 의해 “일요일”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었던 파괴적인 죄를 끝내신 방법입니다.
- 3- **박해를 중지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거룩함과 126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43년과 1844년에 예언과 관련된 서구 세계 전역에 종교적 평화가 지배했습니다. 혁명적인 프랑스가 종교적 학대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단두대로 침묵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Apo.2:22-23에 따라 종교적 *간음자들을* 처벌한 마지막 유형의 세월이 지난 후, 538년에 시작되는 1260년의 끝, 교황 정권의 수립으로 *영원한 형벌이 제거되는 날짜와 연결되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1798년에는 종교적 평화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확립된 양심의 자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을 아는 지식과

선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1843년에는 *성결과 성도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천국 시민권자들은 다니엘 8장 13-14절의 예언대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조직되고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선택이 끝나는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 전체 프로그램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보이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인간이 안식일과 그 빛을 존중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제가 가르친 것처럼, 인간에게 속한 이러한 것들을 인간에게 승인과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시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내가 또 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을 삼았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 사이에 있게 하라 나와 너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표징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선출된 공무원이 그 부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단 8절에서 13절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주시는 독특한 대답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특별히 그분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원한 하늘 제사장 직분과 아담과 그분의 신실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창조된 다음 날 창세로부터 그분의 *거룩하게 된 안식일*의 경우였습니다.

다니엘 8장 13-14절에 예언된 경험은 하나님의 법령이 발효된 1843년과 1844년 가을 사이에 성취되었는데, 둘 다 그 날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 경험의 동시대인들은 이러한 기대를 따르는 참가자들에게 정확히 ""를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출현." 우리는 이 "재림교인"의 경험을 다니엘서 12장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공식화된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10

단 10:1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말씀이 나타나니라 참된 이 말은 큰 재앙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1a-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말씀이 나타났으니

고레스 2세는 - 539년부터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환상의 날짜는 - 536년입니다.

1b- 참된 이 말이 큰 재앙을 알리는구나.

대재난이라는 이 용어는 대규모 학살을 알리는 말이다.

1c- 그는 이 말씀을 듣고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의미를 이해했다면 우리도 이해할 것입니다.

단 10:2 그 때에 나 다니엘은 삼 주 동안 애통하여

이 개인적인 애도는 예고된 큰 재난이 일어날 때 수행될 학살의 장례적 성격을 확증해 줍니다.

단 10:3 그 삼 주가 차기까지 나는 별미를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내 입에 들어오지 아니하였고 나 자신에게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더 큰 거룩함을 추구하는 다니엘의 이러한 준비는 단 11장 30절에서 천사가 예언할 극적인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 10:4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큰 강 히데켈가에 있었더니

*Hiddékel*은 프랑스어로 Tige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은 유프라테스로 메소포타미아를 적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으로 인해 벌을 받은 갈대아 도시 바벨론을 건너서 적셔준 강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설명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티그리스 강이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는 “호랑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다니엘서 12장의 참된 설명을 내가 알린 것이 1991년이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시험은 위험한 횡단으로 예시됩니다.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그것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복사한 이미지이며, 애굽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횡단이다. 그러나 다니엘 12장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마지막으로 선출된 “재림교인”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들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 중 마지막 사람은 마지막 **큰 재난**, 즉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구원과 복수의 재림을 위해 그리스도의 개입이 필요한 극단적인 형태의 재난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선포된 첫 번째 재난은 단 11:30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유대 민족에 관한 것이지만, 또 다른 유사한 **재앙**이 계시록 1장에서 유사한 이미지로 선포될 것입니다. 이 일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될** 제3차 세계 대전 후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에서 상징으로 제시되지만, 이 다니엘서는 11장 마지막 부분인 40절부터 45절까지 평이한 언어로 전개됩니다. 11장에는 유대인의 큰 재앙이 있고, 단 12:1에는 기독교의 택함을 입은 자들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개종할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난은 “환난의 때”라는 용어로 언급되며 주요 목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재난에 대한 두 환상의 비교

- 1- 다니엘의 옛 언약 백성의 자손에게: 단 10:5-6.
- 2- 새 언약의 다니엘 백성의 자손에게: 계 1:13-14.

이 두 가지 재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비록 시간적으로는 서로 뒤따르지만 전자는 후자를 예언하는 예표이며 마지막 충실한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십 년간의 평화와 끔찍하고 끔찍할 정도로 파괴적인 원자 전쟁이 끝난 후, 재난의 생존자들이 조직한 우주 정부가 로마 일요일의 휴식일을 정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의 시대처럼 다시 죽음이 충실하고 선택된 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장에서 **재난이 선포된** - 168년의 “마카베오” 시대와 마찬가지로 ; 그리고 결국 마지막 재림교인들은 2029년에도 제칠일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련이 있기 전에, 1260년간의 오랜 교황 통치로 인해 이미 수많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환상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그가 요한에게 준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10:5 내가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금 띠를 띠었더라.

5a- *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포로 상징되는 정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묘사된 이미지에서 하나님은 에피파네스로 알려진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4세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그는 그의 통치 기간인 175년에서 164년 사이에 유대인을 박해할 것입니다.

5b- *허리에는 우바스의 금띠를 띠고*

신장에 위치하는 벨트는 강요된 진실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그것을 만드는 금은 우바스에서 나오는데, 예레미야 10장 9절에서는 이교의 우상 숭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단 10:6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무리의 떠드는 소리 같더라.

6a- *그의 몸은 감람석 같았어요*

하나님은 환상의 저자이시지만 그는 이교 신의 도래를 알리셨고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초자연적 측면을 알리셨습니다.

6b-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다*

이 신의 그리스 정체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그리스 신 제우스입니다. 번개는 올림픽 신 제우스의 상징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올림픽 신들의 신

6c- *그의 눈은 불꽃 같았어요*

그는 자기가 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단 11:30에 따르면 그의 눈은 유대인들을 살피실 것입니다. ... 그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을 살피실 것입니다. 재앙은 까닭 없이 임하지 아니하며 배교는 백성을 더럽게 하느니라

6d- *그의 팔과 발은 윤이 나는 놋쇠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형집행인도 그의 희생자들만큼 죄가 많을 것입니다. 그의 낯쇠 팔과 발로 상징된 그의 파괴적인 행동은 단 2장의 동상에서 그리스 죄의 상징입니다.

6절 - *그 음성의 소리는 무리의 떠드는 것 같더라*

그리스 왕은 혼자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명령에 복종할 자신과 같은 이교도의 수많은 군인들을 그의 앞뒤로 둘 것입니다.

이 예언적 발표의 절정은 단이 성취되는 때에 도달할 것입니다. 11:31: *군대는 그의 명령에 따라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성소와 요새를 더럽히고 영원한 제사를 폐하며 멸망시키는 자의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경적인 정직성을 위해 나는 히브리어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지웠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 영원한 ” 두 가지 연속적인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 고대에는 저녁과 아침에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에서 그것은 선택된 자들의 기도를 위해 중재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중재를 나타냅니다. 단 11:31의 옛 언약 문맥에서 그리스 왕은 모세 율법의 영원한 제물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제사장이나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 사역에 대한 해석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언급되는 시대의 맥락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역은 인간 사역과 연결되거나, 이차적이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천상 사역과 연결됩니다.*

단 10:7 *나 다니엘은 이 이상을 혼자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7- 이러한 집단적 두려움은 비전 성취에 대한 희미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예언된 대학살의 날에 의로운 자들은 비록 땅 속이라 할지라도 도망하여 숨는 것이 옳으니라.

단 10:8 *나 혼자 남았는데 이 큰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얼굴빛이 변하고 부패하여 기력을 다 잃었나이다.*

8a- 다니엘은 자신의 감정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불행의 결과를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단 10:9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엎드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9a- 환난의 날에 박해하는 왕의 소리가 그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요 무릎이 부딪히고 다리가 구부러져 땅에 떨어질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단 10:10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내게 닿았고, 내 무릎과 손을 흔들었다.*

10a- 그에게 다행스럽게도 다니엘은 이 **큰 재앙이** 닥칠 것을 그의 백성에게 알릴 책임이 있는 선지자일 뿐이며 그 자신은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의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10:11 그가 내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주의하고 네가 있는 곳에 서라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11a-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주의하고 네가 있는 곳에 서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늘의 개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악하고 잔인하며 호전적이고 반역적인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다니엘은 이 사람들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탁월 운명의 차이를 보여주는 바로 그 징표이기 때문에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땅의 죽음의 흙 속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들은 깨어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악인은 눕고 악인은 깨어나 최후의 심판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천사는 “네가 있는 곳에”라고 명시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자연에서는 프랑스로 유프라테스 강인 "히데겔" 강둑에 있는데, 이는 계시록에서 새로운 동맹의 기독교 유럽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 신성한 건물, 사원, 제단에서만 만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이상 숭배적인 편견을 뒤집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4:21~24에서 이 교훈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자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당신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 교훈은 더 미묘합니다. 그것은 히데겔 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신의 마지막 신실한 종들에게만 자신의 책에 대한 이해를 열어 주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선택이 수행되는 시험은 다음의 이미지로 설명됩니다. 프랑스로 Hiddékel 강을 위험하게 건너는 호랑이는 이 이름의 동물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험에서도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11b-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만남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 즉 하느님의 두 피조물 사이의 교환으로 변모합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오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땅에서 옵니다.

단 10:12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가 깨닫기로 결심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니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느니라.

이 구절 전체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뿐입니다. 만약 기억을 잃으신다면, 적어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은 그러한 종류의 예입니다. 각 원인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기초한 논리적 순서입니다. 진정한 겸손을 동반하는 이해에 대한 갈증이 듣고 충족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서 12장의 끝까지 끝나지 않을 긴 계시가 시작됩니다 .

단 10:13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보라, 우두머리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나는 거기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렀다.

13a-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의 지도자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를 도우며 하나님을 위한 그의 사명은 그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 취해진 행동이 그의 위대한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러한 실패의 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참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따라서 그들의 모든 선택과 일에 책임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13b 그러나 보라, 대제사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느니라

공개된 예는 또한 실제로 필요한 경우 " 주요 리더 중 한 명인 Michael "이 개입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이므로, 이 뛰어난 도움은 신성한 도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그 분입니다. 하늘에서 그는 천사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의 표상이셨습니다. 이 경우 "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글썄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실 겸손, 온화함, 나눔, 사랑은 이미 충실한 천사들과 함께 천상 생활에서 실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법은 그분이 지상 사역 중에 보여주신 법입니다. 지상에서 그는 자신의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서 자신을 다른 천사들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c- 나는 거기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왕조의 지배는 그리스가 지배할 때까지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단 10:14 이제 내가 네 백성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네게 보이려고 왔노라. 그 비전은 여전히 그 시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4a- 세상 끝날까지 다니엘의 백성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얽려하리니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애굽의 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이라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한 계시의 목적은 그의 백성에게 다가올 비극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계시된 내용이 더 이상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가르침이 장차 그의 백성의 종들에게 유익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를.

단 10:15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동안에 나는 땅을 바라보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15a- 요한은 여전히 재앙에 대한 끔찍한 환상을 마음 속에 품고 자기가 듣는 것에 집중하려고 애쓰지만, 더 이상 감히 머리를 들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10:16 *보라,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에 닿았느니라.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있는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을 인하여 내가 겁이 나고 힘이 빠졌나이다*

1a- *보라, 인자의 모양을 가진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니*

그 끔찍한 환상은 다니엘의 마음 속에 창조된 비현실적인 가상의 이미지인 반면, 천사는 지상의 인간과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첫째,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세상의 법칙이 없는 해의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천상의 본성은 각 차원에서 활동적인 능력을 가짐으로써 두 차원 모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이 손길을 느끼는 다니엘의 입술을 만진다.

단 10:17 *내 주의 종이 어떻게 내 주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 힘이 약해져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17a- 순전히 지상의 인간의 경우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지상의 법칙이 부과되고 두려움으로 인해 힘과 호흡이 상실됩니다.

단 10:18 *그 때에 사람의 모양을 가진 이가 다시 나를 만져 강건하게 하셨느니라*

18a- 천사는 부드럽게 설득하여 다니엘을 진정시켜 힘을 회복시킵니다.

단 10:19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용기, 용기! 그가 내게 말하니 내가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옵소서.*

19a- 평화의 메시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내용과 동일합니다! 겁에 질린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용기, 용기라는 단어는 그가 숨을 고르고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10:20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왔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러 돌아갑니다. 내가 떠날 때에 보라, 야완의 통치자가 올 것이다.

20a-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지도자와 싸우러 돌아간다

이 페르시아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기름부음받은 자로 여기시는 대왕 고레스 2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와 싸워야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20b 내가 갈 때에 보라 야완의 통치자가 오리라

천사가 고레스 2를 떠날 때, 당시 그리스 지도자의 공격으로 두 페르시아와 그리스 지배 사이에 점점 커지는 적대감이 드러날 것입니다.

단 10:21 그러나 나는 진리 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당신의 리더인 마이클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21a- 다니엘이 받을 이 계시를 진리의 책이라 일컬느니라. 2021년 오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계시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이다. 이는 우리 지도자 미가엘의 불멸의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이다. 옛 언약의 다니엘에게는, 새 언약의 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 이름은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여전히 활동하는 악마들을 심판하기 위해 주장됩니다.

다니엘 11

주목 ! 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다니엘 사이의 논의는 10장의 마지막 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

단 11:1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도우며 돕더니

1a-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니엘에게 말하는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가 62세에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단 6년에 통치하던 메대왕 다리오를 돕고 지지했다고 말합니다. 이 왕은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뒷에 걸려 다니엘을 사자들에게 넘겨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개입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시며 살아

계시며 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이해하도록 도운 것도 바로 그 사람이니라.

단 11:2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리라. 보라, 페르시아에는 여전히 세 왕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막대한 재물을 얻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일으켜 야완 왕국을 대적할 것입니다.

2a- 이제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진리는 오직 참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름이며 계시록 3:14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으로 택하신 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부여하시는 이름입니다. 진리는 신성한 율법과 그 규례와 계명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성취되도록 세심하게 계획하고 이루게 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선택받은 자에게 영원이 보장되는 마지막 구원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 이 위대한 프로그램의 일부인 삶의 매일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2b- 보라, 페르시아에는 여전히 세 왕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왕: 캄비세스 2세(- 528 - 521)는 그리스인들이 스메르디스라는 별명을 붙인 그의 아들 바르디아를 살해합니다.

두 번째 왕: 거짓 스메르디스, 스메르디스라는 이름을 가진 마법사가 우마타가 잠시 동안만 통치합니다.

3대 왕: 페르시아인 다리우스 1세 (~ 521~486) 히스타페의 아들.

2c- 네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것이다

네 번째 왕: 크세르크세스 1세 (~ 486~465). 그 직후에 아닥사스다나는 그의 통치 7년째 되는 해, 즉 Esd.7:7-9에 따르면 458년 봄에 통치하고 모든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2d- 그리고 그가 그의 부로 강력해지면, 그는 야완 왕국에 대항하여 모든 것을 일으킬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반란을 일으킨 이집트를 진압 하고 진정시킨 후 그리스와 전쟁을 벌여 아티카를 침공하고 아테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480년 살라미스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는 자국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아시아에 남아 있으면서도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그의 열망을 입증하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단 11:3 그러나 강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가 큰 권세를 갖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요

3a- 쫓기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자신의 영토에서 패배하여 그의 두 명의 위대한 인물에 의해 암살되어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만적으로 조롱했던 청년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는 20세의 젊은 마케도니아인 알렉산더 대왕(356년 출생, 336년 통치, 323년 사망)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언에서는 그를 단 2의 동상의 제3 제국의 창시자, 단 7의 세 번째 동물, 단 8의 두 번째 동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 11:4 그가 높아지면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고 하늘 사방에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 땅은 그 자손에게 속하지도 아니하고 전과 같이 강대하지도 못하리니 이는 그것이 찢겨 그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4a- 우리는 단 8:8의 그리스 염소의 큰 부러진 뿔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22절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러진 뿔 대신에 일어난 네 뿔은 앞으로 일어날 네 왕국입니다. 이 나라 출신이지만 그 만큼 힘을 갖지 못할 사람은 ...**

나는 “네 개의 큰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기억합니다.

첫 번째 뿔 :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 가 시리아에서 세운 그리스 셀레우코스 왕조 .

두 번째 뿔: 프톨레마이오스 1세 라고스가 이집트에서 세운 그리스 라기드 왕조 .

세 번째 뿔: Lysimachus가 Trace 에 설립한 그리스 왕조 .

네 번째 뿔 : 카산드라가 마케도니아에 세운 그리스 왕조

단 11:5 남방 왕은 강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그보다 더 강해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강력할 것이다.

5a- 남방 왕은 강해질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라고스 -383 -285 이집트 왕 또는 “남방 왕”.

5L- 그러나 그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은 그보다 더 강해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강력할 것이다.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 -312-281 시리아 왕 또는 “북방 왕”.

단 11:6 몇 년 후에 그들이 동맹을 맺을 것이요 남방 왕의 딸이 화합을 회복하려고 북방 왕에게로 올 것이라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 팔의 힘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그도 저항하지 않을 것이며 그도 그녀의 팔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 아버지와 그 당시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과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6a- 이 예언은 “ 남방 왕 ” 프톨레마이오스를 상대로 첫 번째 “시리아 전쟁”(-274-271)을 일으킨 두 번째 “ 북방 왕 ”인 안티오코스 1세 (-281-261) 의 통치를 건너뛸다 . (- 282 -286). 그런 다음 이집트인들이 새로운 “ 북방 왕 ” 안티오코스 2 테오스(- 261 - 246)에 대항하는 제2차 “시리아 전쟁”(- 260 - 253) 이 발생합니다 .

6L- 몇 년 후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방 왕의 딸이 화합을 회복하려고 북방 왕에게로 올 것이다.

음흉한 행동이 시작됩니다. 베레니게와 결혼하기 위해 안티오코스 2세는 라오디케라는 합법적인 아내와 이혼합니다. 아버지는 딸과 함께 사위 집에서 함께 지낸다.

6c-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 팔의 힘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그도 저항하지 않을 것이며 그도 그녀의 팔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 아버지와 그 당시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과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기 직전에 Antiochos 2는 Bérénice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원수를 갚고 아버지와 어린 딸(딸 = 아이)과 함께 그녀를 죽였습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3:16에서 예수께서는 상징적으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재림교인 공식 아내와 이혼하실 예정입니다. Antiochos 2가 자신을 "Theos", 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더 잘했는데, 그는 로마의 종교적 권위에서 분리되어 이혼하고, 성공회 교회를 세우고 일곱 아내를 차례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시리아 전쟁'(-246-241)** 이 일어난다. **단 11:7** 그 뿌리에서 한 싹이 그 자리에 돋아나고 그는 군대를 이끌고 북방 왕의 요새에 들어가서 자기 뜻대로 그 요새들을 처리하고 스스로 세력을 떨칠 것이다.

- 7a- 뿌리에서 한 싹이 그 자리에서 돋아나리라
프톨레마이오스 3세 에베게테스 -246-222 베레니케의 형제.
- 7b- 그는 군대로 가다가 북방 왕의 요새로 들어갈 것이다
셀레우코스 2 칼리니코스 -246-226
- 7c- 그는 그것을 자기 뜻대로 처리하고 스스로 강대하게 하리라
지배권은 남방 왕에게 속합니다. 이 이집트의 지배는 셀레우코스 그리스인과 달리 유대인에게 유리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벌이는 두 진영이 공격을 하거나 후퇴를 할 때 반드시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두 적대 통치자 사이에 있다는 것을 즉시 이해해야 합니다.

단 11:8 그는 또 그들의 신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과 은과 금의 보물을 가져다가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며 그러면 그는 몇 년 동안 북방 왕과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 8a- 이집트인들은 이를 인정하여 그의 이름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에 "Evergetes" 또는 후원자라는 이름을 추가할 것입니다.

단 11:9 그는 남방 왕의 나라를 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 9a- 셀레우코스 2세의 대응은 안티오코스 3세와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를 맞붙게 한 **제4차 "시리아 전쟁"(~219-217)** 이 시작될 때까지 실패했습니다.

단 11:10 그의 아들들은 나가서 많은 군대를 모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와서 급류처럼 퍼져 넘쳐흐른 다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남방 왕의 요새에 적군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 10a- 안티오코스 3 메가스(-223 -187) 대 프톨레마이오스 4 필로파토르(-222-205). 추가된 별명은 Lagid 사람들의 조롱 상태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Philopator는 그리스어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죽인 아버지... 이번에도 셀레우코스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지배는 추악한 진영에 남을 것입니다.

단 11:11 남방 왕은 노하여 나가서 북방 왕을 칠 것이며 그는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며 북방 왕의 군대는 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11a- 이 압도적인 셀레우코스의 패배는 이집트인들을 잘 대해주기 때문에 그들을 선호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단 11:12 *그러면 이 무리가 교만해지고 왕의 마음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는 수천 명을 쓰러뜨릴 것이지만 승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12a- 안티오코스 3세와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205 -181)가 대결하게 될 **제5차 “시리아 전쟁”(-202-200)**으로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단 11:13 *북방 왕이 다시 와서 처음보다 더 많은 무리를 모을 것임이나라 얼마 후, 몇 년 후에 그는 큰 군대와 막대한 부를 거느리고 떠날 것이다.*

13a- 유대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리스인들이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토로 돌아갔습니다.

단 11:14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 강포한 자들이 이 목시를 이루려고 반역하여 넘어지리라*

14a- 이집트 남부 프톨레마이오스의 새로운 왕 5세 에피파네스 - 또는 5세의 일러스트리어스(-205-181)는 적들의 지원을 받는 안티오코스 3세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셀레우코스 왕조와 싸워 이집트 왕을 지원합니다. 그들은, 패배하고 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셀레우코스 그리스인들을 평생의 필멸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에 드러난 유대인의 반란은 이집트 진영을 선호하는 유대인의 성향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상황의 지배권을 되찾은 셀레우코스 진영에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집트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으셨나요? 이사야서 36장 6절에 따르면, “이집트 곧 그 의지하는 자의 손을 찌르는 갈대니라 보라 주께서 그것을 애굽에 두셨고 손을 찌르며 찌르는 이상한 갈대를 지탱하셨느니라 ” 이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이는 애굽 왕 바로라 그를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경고는 유대 민족에 의해 무시된 것으로 보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형벌이 가까워지고 닥친다. 안티오코스 3장은 그들의 적대감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참고하세요 : 이 유대인 반란은 유대인에 대한 시리아인의 증오심을 준비하고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 *비전 달성* "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하여 단 10:1에 선포된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단 11:15 *북방 왕이 나와서 밀밭을 쌓고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을 것이요 남부군과 왕의 정예들은 저항하지 않을 것이며, 저항할 힘도 부족할 것입니다.*

15a- 지배는 영구적으로 편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셀레우코스 진영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집트 왕은 겨우 다섯 살이었습니다.

단 11:16 그를 대적하는 자는 자기 뜻대로 할 것이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는 가장 아름다운 땅에 머물면서 그의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멸절할 것입니다.

16a- 안티오코스 3세는 여전히 이집트 정복에 실패하고 정복에 대한 갈증이 그를 짜증나게 하며, 유대 민족이 그의 고통이 됩니다. 그는 단 8:9에서와 같이 “ 가장 아름다운 땅 ” 이라는 표현으로 언급된 순교한 유대 민족에게 자신의 남은 분노를 쏟아 붓습니다 .

단 11:17 그는 자기 왕국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남방 왕과 화친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그를 파멸시키려는 의도로 그의 딸을 그에게 아내로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17a- 전쟁이 성공하지 못하자 안티오코스 3세는 라기드 진영과 동맹의 길을 시도한다. 이러한 전략 변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이집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의 첫 번째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시켜 이견을 해결하려고 한다. 결혼은 성사되지만 부부는 셀레우코스 진영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집트를 점령하려는 안티오코스 3세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했다.

단 11:18 그분은 섬들을 정하시고 그 섬들을 많이 취하실 것이며 그러나 지도자는 그가 끌어들이고 싶었던 비난을 끝내고 그 비난이 그에게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18a- 그는 아시아의 땅을 정복할 것이지만 결국 그의 길에서 단 9:26에서 " 수장 "이라는 용어로 지정된 로마 군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로마가 여전히 원로원 의원과 국민, 즉 평민의 권력을 대표하는 특사단의 지시에 따라 강력한 진정 작전에 군대를 파견하는 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제국 통치로의 전환은 이러한 유형의 군사 조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아프리카인으로 알려진 루키우스 스키피오(Lucius Scipio)라고 하는데, 안티오코스 왕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맞섰고, 그는 189년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패하고 전쟁 배상금으로 15,000탈렌트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로마에 지불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단 10장 1절에 예언된 “ 재앙 ”을 31절에 이를 유대인을 박해하는 그의 막내아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로마인들에게 인질로 잡혀갑니다.

단 11:19 그 후에 그는 자기 나라의 견고한 성으로 갈 것이요 그러면 그는 걸려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19a- 정복의 꿈은 왕이 죽고 그의 장남 셀레우코스 4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끝났습니다(-187-175).

단 11:20 그를 대신하는 자가 압제자를 데리고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들이려니와 수일 내에 그가 패망할 것이요 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20a- 로마인들에게 빛진 빛을 갠기 위해 왕은 성전의 보물을 빼앗기 위해 그의 신하 헬리오도루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만, 성전에서 끔찍한 환상을 본 그는 겁에 질린 이 계획을 포기합니다. 이 강탈자는 헬리오도로스이며, 그는 예루살렘 임무를 그에게 맡긴 셀레우코스 4세를 암살할 것입니다. 그 의도는 행동할 가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분노나 전쟁으로 죽지 않고 살해된 그의 지도자의 죽음으로 그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대가를 그에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안티오코스 4 장 큰 재앙의 환상에 나타난 사람

단 11:21 *멸시를 받는 사람은 왕의 위엄을 입지 못하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음모로 왕국을 장악할 것이다.*

21a-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의 막내아들 안티오코스이다. 3. 로마인들의 포로이자 인질로서 우리는 그의 성격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 있다. 왕이 된 그는 생명을 얻기 위해 복수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로마인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그들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리아 왕위에 오른 것은 음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또 다른 아들 데메트리우스가 그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메트리우스가 로마의 적, 마케도니아의 왕 페르세우스와 조약을 맺은 것을 보고 페르세우스는 그들의 친구인 안티오코스를 지지하여 왕좌에 앉혔습니다.

단 11:22 *강물처럼 쏟아지는 군대가 그 앞에서 압도되고 멸망되리니 이는 언약의 왕과 같으니라*

22a- *강물처럼 퍼지는 군대가 그 앞에서 잠기고 멸망되리라*

^{6차} '시리아 전쟁'(-170-168)으로 적대감이 재개된다.

이번에 로마인들은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의 추악한 진영에 맞서 아버지의 전쟁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녀의 죄의 상징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스어는 이 문맥에서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실을 판단하십시오. Lagid 캠프에서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그의 여동생 클레오파트라 2세와 근친상간으로 결혼했습니다. Physcon으로 알려진 그들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8세는 그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가 그들의 군대를 쳐부수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b- *동맹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협력자인 메넬라오스는 적법한 대제사장 오니아스의 지위를 탐내고 안드로니코스에게 그를 암살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것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냐? 이 드라마에서

하나님은 로마가 수세기에 걸쳐 행할 행동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메시아를 죽일 것이고, 교황 로마는 메넬라오스가 메시아를 대신하기 위해 오니아스를 죽인 것처럼 그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탐내고 빼앗아 갈 것입니다.

단 11:23 그는 그 사람과 합한 뒤에도 거짓을 행할 것이다. 그는 출발할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우위를 점할 것이다.

23a- 안티오코스는 모든 사람과 동맹을 맺고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그들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만으로도 프랑스와 유럽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동맹을 맺고, 동맹을 깨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짧은 기간의 평화와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또한 복독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120년 동안 성도들을 박해할 교황 정권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그리스 왕과 로마 교황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둘 다 속임수와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단 11:24 그는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평안히 들어갈 것이다. 그는 그의 조상이나 그의 조상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전리품, 전리품 및 부를 분배할 것입니다. 그는 요새에 대항하는 프로젝트를 형성할 것이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24a- 로마인들에게 빛진 막대한 빛을 갚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의 지방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에 따라 그가 통치하는 유대 민족에게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는 자신이 심지 않은 곳을 취하고 그의 지배하에 있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는 갈고리나 사기꾼으로 이집트를 정복하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사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그는 그의 군대와 전리품을 공유하고 그의 그리스 신들 중 주요 신인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신인 올림픽 제우스를 아낌없이 기립니다.

이중 읽기에서는 로마 교황 정권도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왕국의 위인들을 유혹하고 부유하게 하여 그들과 그들의 군대로부터 인정받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단 11:25 그는 큰 군대의 선두에 서서 그 힘과 열성을 발휘하여 남방 왕을 칠 것이며 그리고 남방 왕은 많고 매우 강력한 군대와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대적할 약한 계획이 계획될 것이기 때문이다.

25a - 170년, 안티오코스 4세는 펠루시움을 탈취하고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한 이집트 전체를 점령합니다.

단 11:26 그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은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는 급류처럼 퍼질 것이며, 죽은 자들이 크게 쓰러질 것이다.

26a-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그의 삼촌인 안티오코스 4세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는 셀레우코스 진영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의 승인을 받지 못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의 형제 프톨레마이오스 8세로 대체되었고, 따라서 그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은

그의 가족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 전쟁은 계속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단 11:27 두 왕이 마음에 악을 도모하며 같은 상에서 거짓을 말할 것이며 그러나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때가 되기까지는 끝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7a- 다시 한번 안티오코스 4의 음모가 실패합니다. 그와 합류한 조카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의 관계는 기만에 바탕을 두고 있다.

27b- 그러나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은 끝이 정한 때에 이르리라.

이 구절이 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여러 결말을 암시하며 , 첫째로 안티오코스 3세와 그의 이집트 조카 및 조카 사이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결말은 단 12:6과 7에 나오는 1260년의 교황 통치 기간과 3차 세계 대전의 성취를 볼 수 있는 현 장의 40절의 끝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보편적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증명할 40절에 인용된 “ 마지막 때 ”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이 장의 구조는 외관상 교묘하게 기만적입니다.

단 11:28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거룩한 동맹에 적대적일 것이며, 그것에 반대하는 행동을 한 다음 그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28a-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집트인들로부터 부를 빼앗은 안티오코스 4세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남겨두고 안티오코스로 돌아가는 길에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절반의 승리는 불만스러운 왕을 짜증나게 합니다.

28b- 왕이 직면한 짜증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왕의 분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들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러한 분노를 어느 정도 표출할 것이지만 그는 진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11:29 그는 정한 때에 다시 남쪽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 마지막에는 이전처럼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9a- 우리는 대재난의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년에 안티오코스는 그의 조카들이 다시 자신에 대해 화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그의 형제 프톨레마이오스 8세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정복된 이집트 땅은 이집트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저항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고 조카들을 상대로 다시 캠페인을 시작하지만...

단 11:30 깃딤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다. 낙담하면 그는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그는 거룩한 동맹에 분노하여 계속 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30a- 깃딤의 배들이 그를 향해 진격할 것이다

따라서 성령은 현재의 키프로스 섬을 기반으로 한 로마 함대를 지정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중해 사람들과 아시아 해안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의 거부권을 행사한 후입니다. 그는 그를 화나게 할 굴욕을 당한다. 로마 특사 포필리우스 라에나스(Popilius Laenas)는 발 주위에 원을 그리며 로마와 싸우거나 로마에 복종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전 인질이었던 안티오코스는 그의 아버지에게 주어진 교훈을 배웠고 완전히 로마 보호령 아래 있던 이집트 정복을 포기해야 합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그는 죽은 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 11:31 군대는 그의 명령에 따르리니 그들은 성소와 요새를 더럽히고 영원한 제사를 폐하며 멸망시키는 자(또는 파괴자)의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31a- 이 구절은 마카1:43-44-45의 외경 기록에 관련된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런 다음 안티오코스 왕은 그의 온 왕국에 편지를 써서 모두가 한 민족이 되고 각자가 자신의 특별한 율법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왕의 이 명령에 모든 나라가 동의하였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도 이 속박에 동의하여 우상에게 제사하며 안식일을 범하였느니라. 이 설명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가 바빌론에서 겪은 시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카베오서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직면하게 될 마지막 큰 재난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우리 시대와 마카비 유대인 시대 사이에 또 다른 큰 재난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120년 동안 죽게 되었습니다.

31b- 그들은 성소와 요새를 더럽히며 영원한 제사를 폐하며 멸망시키는 자(혹은 파괴하는 자)의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유대와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역사적 증언에서 확증될 것입니다. 그 중요성이 이를 정당화하고 있으니, 제3차 세계대전 생존자들에 의해 형성된 천주체제가 선포한 마지막 날의 일요일법과 동일한 내용을 발견한 이 증언을 살펴보자.

다음은 1 Macc.1:41 ~ 64의 초기 버전입니다.

마1:41 이에 왕이 명하여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였으니

마1:42 모든 사람이 자기 풍습을 버려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였느니라

마1:43 이스라엘 중에도 많은 사람이 그의 예배를 환영하여 우상에게 제사하며 안식일을 범하였느니라.

마1:44 왕이 그 명령을 전하게 하려고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성읍에 사자를 보내니 이제부터는 그 나라의 풍속을 따라야 할 것이니

마1:45 성전의 번제와 제사와 전제를 폐하라 안식일과 절기를 더럽혀야 했으며,
 마1:46 성소와 모든 거룩한 것을 더럽히며
 마1:47 우상을 위하여 제단과 산당과 전을 쌓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도살하는도다
 마1:48 그들은 자기 아들들을 할례받지 않은 채로 버려두어 온갖 더러운 것과 더러운 일로 자기들을 가증하게 만들었습니다.
 마1:49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버린 것이라
 마1:50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마1:51 왕의 편지가 온 나라에 두루 보내어지니라 그는 모든 백성의 감독자를 임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명령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마1:52 많은 백성이 순종하되 다 율법을 버린 자니라 그들이 그 땅에 악을 행하고
 마1:53 이스라엘이 피난처를 찾도록 강요함.
 마1:54 주후 145년 기슬르월 십오일에 왕이 멸망의 가증한 것을 번제단 위에 세우매 그들이 유다 인근 성읍들에 제단을 세웠더라.
 마1:55 그들은 집 문과 광장에서 분향하고
 마1:56 율법책들이 발견되면 찢어져 불에 던져졌느니라
 마1:57 누구든지 누구에게서 언약의 책이 발견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왕의 명대로 그를 죽이니라
 마1:58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달마다 그 성읍에서 범법하다가 잡혀가서 형벌하였으니
 마상 1:59 그리고 매달 25 일에는 번제단 대신에 높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1:60 이 법을 따라 자녀에게 할례를 받은 여인을 죽였으니
 마1:61 그 아기들을 목에 걸고 그들의 친족과 할례를 행한 자들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마1:62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충성을 유지하고 담대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마1:63 그들은 거룩한 언약을 범하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느니라 차라리 죽기를 택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마1:64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영원한 증보기도의 제물이 그침을 확증하는 45절부터 47절까지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을 증거하는 5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 왕은 멸망의 가증한 것을 번제단 위에 세웠습니다.
 이 악의 근원이 이스라엘의 배도 나라 마상 1:11 그 때에 이스라엘에 그릇된 세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뒤에 두고 이르되 우리가 주위 나라들과 동맹을 맺자 하고 말하되 우리가 그들에게서 떠난 후로 많은

재난이 일어났나니 우리에게 .” 불행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성실의 결과였으며, 그들의 반역적인 태도로 인해 더 많은 불행을 스스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에서 그리스의 지배는 단 2장의 신상의 **낯쇠 에 있는 죄의 상징을 잘 정당화했습니다 . 표범 Dan.7**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8의 **냄새** 나는 염소. 그러나 한 가지 세부 사항은 여전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168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으로 보낸 징벌 임무를 맡은 사람은 아폴로니우스라고 불리며, 프랑스어로 "파괴자"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 이름은 성령에 의해 선택되어 아포 9:11에서 파괴적인 사용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후기 개신교가 성경을 왜곡함; 또는 **최후 의 대재앙을 조직할 바로 그 사람들** . 아폴로니우스는 22,000명의 군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고 , **안식일에** 엄청난 대중 봉기가 일어나는 동안 그는 모든 유대인 관중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불경스러운 관심사로 안식일을 더럽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비린내 나는 사실 뒤에는 유대인의 그리스화가 명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의 왕 대표인 게론테스는 **사마리아 에서처럼 예루살렘 에서도 모든 백성에게 예배와 도덕의 그리스화를 강요했습니다 . 그 후 예루살렘 성전은 올림포스의 제우스 에게 헌정되었고 , 그리심 산 의 성전은 친절한 제우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과 예루살렘과 온 나라로부터 보호를 거두시는 것을 봅니다. 거룩한 성은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은 전보다 더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대표되는 경고 이후 도덕적, 종교적 이완은 너무나 컸습니다.**

단 11:32 그는 아침으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숙일 것이며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견고히 행할 것이요

32a- 그는 아침으로 동맹의 반역자들을 유혹할 것이다

이 설명은 하나님의 형벌이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모독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32b-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담대히 행할 것이요

이 비극에서 진실하고 합당한 신자들은 신실함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창조주 하느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존경을 버리기보다는 순교자로 죽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째 독서에서 실제 1090일의 피비린내 나는 경험은 단 7:25, 12:7 및 계 12:6-14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속적으로 예언된 1260일의 교황 통치 조건과 유사합니다. 11:2-3; 13:5.

고대의 맥락에서 현재 사건을 되돌아보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맨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높이를 높이면서 축소하고 시야는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종교사에 적용될 때, 성령의 눈길은 작은 시작, 고난의 시간, 순교자들의 시간, 그리고 기대되는 구세주의 재림으로 특징지어지는 영광스러운 종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전체 종교사를 감독합니다.

단 11:33 *그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칼과 불꽃과 포로와 약탈에 한동안 굴복할 것입니다.*

33a- *그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무리를 가르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우리가 새 동맹에 관한 14통의 서신을 빛지고 있는 다소의 바울입니다. 이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은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시간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검토된 새로운 목표가 기독교 신앙이 됩니다.

33b- *칼과 불꽃과 포로와 약탈에 한동안 굴복할 자들이 있느니라*

한동안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1260년이 예언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로마 황제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로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성령은 로마 교황의 강제 징벌 시대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로잡혀 가면 그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이면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니라.*

단 11:34 *그들이 패망할 때에 그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것이요 또한 많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위선에 가담하리라*

34a-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위선자들의 도움이 나타난 것은 바로 교황권이 잔혹하게 지배하던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가치와 명령에 대한 무시에 근거하며, 이 경우에는 칼로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이 목표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 15세기부터 우리 시대까지 광범위한 개신교 운동이 공의로운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위선적이라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843년 이후 그들의 완전한 포기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단 11:35 *지혜자 중에 몇 사람이 떨어져 나가 정결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정한 때까지 이르지 아니함이니라*

35a *지혜자 중에 몇 사람이 떨어져서 정결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세상 끝날까지 핍박을 견디고 견디는 능력에 의한 시련과 선택입니다. 이처럼 평화와 관용에 익숙한 현대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메시지에서 자신의 삶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9:5-10에서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실제

150년, 즉 “예언상 5개월”이라는 긴 종교적 평화 기간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지만, 1995년 이래로 이 기간은 끝났고 종교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은 프랑스와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살인을 저지른다. 그리고 그 작용은 지구 전체를 불태울 때까지 강화될 예정입니다.

35b- *약속된 시간에만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며, 천사는 평화나 전쟁의 징후가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요인, 즉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는 데 바쳐진 6000년의 끝인 “*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기로부터 10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즉 2030년 4월 3일 이전 봄의 3월 20일, 즉 2000년 후인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죽이려는 살인적인 반역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기독교” 로마의 가톨릭 교황 정권: 서방 세계의 종교사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자.

Antiochos 4 모델이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그를 향한 것입니다. 유형은 그 원형을 준비했으며 이 비교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경이적인 규모로 그리스 박해자는 실제 1090일 동안 활동했지만 천주교는 거의 1260년 동안 맹위를 떨칠 것이며 따라서 모든 역사적 모델을 능가할 것입니다.

단 11:36 왕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높여 모든 신들보다 자랑할 것이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믿을 수 없는 말을 할 것입니다. 진노가 그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36a- 이 구절의 단어는 여전히 모호하며 여전히 그리스 왕과 로마 교황 왕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언의 계시 구조는 피상적인 독자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숨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세부 사항은 교황의 목표를 지정합니다. 그것은 정확성입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일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용문은 단 9장 26절을 반영합니다. 62주 후에 기름부음받은 자가 끊어져 자기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통치자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거룩한 성소를 멸할 것이며 그들의 종말은 홍수처럼 오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화(혹은 황폐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11:37 그는 그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을 기뻐하는 신들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떤 신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7a- 그는 그 조상의 신들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지능을 명확히 하는 작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의 말의 표적이 된 왕이 그의 조상들의 신들을 존경했던 안티오코스 4가 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인 제우스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전을 바쳤던 올림포스 신들의 신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표적이 된 왕이 실제로는 기독교 시대의 로마 교황 정권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시된 모든 말씀은 단 7장과 다르고 단 8장과 달리 *뻘뻘스럽고 교활한 이 왕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단 9:27의 *이 파멸적이고 황폐한 왕을 덧붙인다*. "로켓 스테이지"는 모두 *머리를 지탱합니다. 교황의 남자, 작고 오만한 지배자의 꼭대기에* 위치합니다.

교황 로마는 조상의 신을 존경했는가?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이교 로마 신들의 이름을 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배의 형태와 스타일, 즉 예배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절하고 무릎을 꿇는 조각, 조각 또는 구조된 형상을 유지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모든 율법에서 정죄하신 이러한 행위를 보존하기 위해 그녀는 일반 인간이 성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십계명 중 둘째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들에게 예정된 형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아니라면 누가 형벌을 숨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황 정권의 성격은 이 절에서 제안된 정의의 범위에 속합니다.

37b- *여자를 기쁘게 하는 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 음흉한 주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법왕교에 의해 버려진 이교 로마 종교를 생각함으로써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거룩함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명백한 성적 유산에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된 신은 로마의 이교 교부들이 신으로 존경한 남성 남근인 프리아포스(Priapus)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 죄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유산을 깨뜨리기 위해 그녀는 육체와 정신의 순결을 지나치게 옹호합니다.

단 11:38 그러나 그는 요새의 신을 그 자리에서 존경할 것이다. 그 열조도 알지 못하던 이 신에게 그는 금, 은과 보석과 보물로 경배할 것이요

38a- 그러나 그는 그의 받침대에서 요새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새로운 이교도 신, 즉 *요새의 신이 탄생했습니다*. 그 받침대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으며 그 높이는 인상만큼 높습니다. 이교 로마는 모든 바람에 개방된 이교 사원을 건설했습니다. 기둥이 지원하는 대문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파괴된 유대 모델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영광과 명성을 안겨주는 강력한

외관을 지닌 폐쇄된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그를 본받아 요새화된 성과 유사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지배하고 가장 부유한 영주들이 그들의 집을 요새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다. 대성당 시대까지 엄격한 스타일로 교회를 지었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둥근 지붕은 하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외부 정면은 레이스 모양을 취하고 있으며, 참석자, 추종자 및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무지갯빛 빛을 내부로 가져오는 모든 색상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38b *그 열조도 알지 못하던 이 신에게 그는 금, 은과 보석과 보물로 경배할 것이요*

그것들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내벽은 **금, 은, 귀중한 진주, 값비싼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계 17:5의 *큰 음녀 바벨론*은 고객을 유인하고 유인하기 위해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참하느님께서서는 이 장엄함이 그분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의 예언에서 그는 자신과 조금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이 교황권 로마를 비난합니다**. 그에게 그의 로마네스크 양식이나 고딕 양식의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이교도 신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신이 탄생했습니다. 요새의 신이 성벽에 들어와 신을 발견했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불균형적으로 높은 천장 아래.

단 11:39 *그가 이방 신을 의지하여 견고한 곳들을 치며 그 이방 신과 함께 견고한 성들을 건축하여 자기를 아는 자를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며 땅을 분배할 것이며 보상을 위해 그들에게.*

39a- *그리고 그는 이방 신과 함께 요새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한 신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게 **낮선 신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단어는 “대항하여 행동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을 행하다”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3:3에서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읽혀질 것입니다: ... **용이 그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으니** ... 용이는 계시록 12:9에서는 마귀이지만 동시에 계시록 12:3에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로마 권위는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원래는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낮선 참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39b- *그를 알아보는 자들에게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러한 영예는 종교적입니다. 천주교는 자신을 지상의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왕들에게 그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신적 권위의

인장을 가져옵니다. 왕은 교회가 프랑스, 생드니, 랭스에 있는 신성한 *요새* 중 하나에서 그들을 봉헌했을 때만 진정한 왕이 됩니다.

39c- 그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Popery는 다른 가신 왕을 지배하는 종주국 왕을 지정하는 제국 칭호를 수여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샤를마뉴, 찰스 5세, 나폴레옹 1세 히틀러입니다.

39d- 그는 보상으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것입니다.

이 지상 및 천상의 현세 초강대국은 지상의 왕들에게 매우 적합했습니다. 그분은 특히 정복하거나 발견한 땅에 관한 차이점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494년, 교황 중 최악의 암살자였던 알렉산드르 6세 보르지아가 고대부터 재발견된 남아메리카 영토의 귀속과 소유를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공유하기 위해 자오선을 정하게 된 방법입니다.

3차 세계대전 또는 Rev.9의 6번째 나팔

인류를 인구의 3분의 1로 줄이고 국가 독립을 종식시키며, Apo.1에서 발표한 궁극적인 재난을 수립할 보편적 체제를 준비합니다. 공격적인 행위자 중에는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이슬람의 역할

이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은혜에만 달려 있으며, 그분의 원수를 치고, 죽이고, 학살하는 것입니다. 이미 옛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처벌하기 위해 “블레셋” 백성에게 의지하셨습니다. 이야기에서 그는 기독교인의 불신앙을 처벌하기 위해 무슬림에게 호소합니다. 무슬림과 아랍인의 기원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집트인 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이스마엘은 적자 이삭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동의로 사라의 요청에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 의해 진영 밖으로 쫓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복형제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할 추방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의 아랍 후손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과 마주하여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뜻에 따라 이 땅의 백성들과 권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선지자 무함마드(Muhammad) 는

538년 로마 카톨릭 교황이 건립된 후 6 세기 말에 태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저주. 그리고 이것은 321년 3월 7일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의 첫날인 “정복되지 않는 태양”(Sol Invictvs), 즉 현재 일요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칠일 안식일 휴식을 포기한 이래로 그러했습니다 .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콘스탄티누스도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에 단절을 표시하려고 했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존중함으로써 유대화하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이교 왕이 내린 이 부당한 심판은 계시록 8장과 9장에 계시된 “ 일곱 나팔 ”의 형벌, 즉 중단 없이 계속되는 불행과 비극 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치러질 것입니다 . 최후의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나타나실 때 끔찍한 환멸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다루었던 주제인 "제3차 세계 대전"은 그 자체로 이슬람이 중요한 행위자로 예언된 신의 형벌 중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생육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는 열두 방백을 낳을 것이요,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단 11:40의 연구를 재개하기 위해 이 괄호를 닫습니다.

단 11: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칠 것이며 북방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폭풍처럼 그를 휩쓸 것이며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강물처럼 퍼져 넘칠 것이다.*

40a- *마지막 때에*

이번에는 참으로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땅에 있는 현 나라들의 시간의 끝. 예수님은 이번에 마태복음 24:24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국의 좋은 소식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올 것입니다.**

40L- *남방 왕이 그를 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 다른 인간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신의 섬세함에 감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셀레우키 왕 과 라기드 왕 사이의 갈등이 이 구절에서 재개되고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더 이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34절부터 36절까지 이 맥락을 떠났고 이 새로운 대결이 끝나는 시기는 교황 가톨릭 정권과 에큐메니칼 동맹에 들어간 보편적 개신교의 기독교 시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해 역할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그 "의 역할 : 교황 가톨릭 유럽과 그 동맹 기독교.

남방 왕 "의 역할 : 창립자 모하메드가 주도한 행동에 따라 인간을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노예로 삼아야 하는 정복 이슬람.

여기서 동사의 선택에 주목해 봅시다: *충돌하다* ; 히브리어로 “나가”는 뿔로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용사로는 주로 공격을 가하는 맹렬한 공격자를 가리킨다. 이 동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씬 없이 서구세계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온 아랍 이슬람교와 딱 들어맞는다. " 싸우다, 싸우다, 충돌하다 " 라는 가능한 동사는 매우 가까운 근접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국가적 이웃 또는 마을과 거리의 이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유럽인의 종교적 무관심으로 인해 유럽에 잘 정착된 이슬람교를 확증합니다. 1948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이후 투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의 곤경은 무슬림 민족을 서구 기독교 식민지와 맞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슬람주의 공격이 증가하고 유럽 국민, 무엇보다도 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민족의 식민지였던 프랑스 사이에 불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더 큰 국가적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도, 그러나 내부 상황이 대도시 자체의 땅에서 잔혹한 집단 대 집단 충돌을 일으킬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프랑스는 내전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진정한 종교 전쟁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또는 신 없는 불신자들이 벌이는 전쟁입니다.

40c- **북방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폭풍처럼 그를 칠 것이요**

에스겔 38장 1절에서 이 북방 왕은 메섹 (모스크바) 과 두발 (토볼스크) 의 로스(러시아) 왕자 마곡이라 불리며 9절에서 읽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너는 구름처럼 땅을 덮을 것이며,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그러하리라.**

북방 왕 " 의 역할에서 러시아 정교회와 무슬림 연합 민족. 여기서 다시 동사 " *tourera sur* " 를 선택합니다. 그 " 는 공중에서 갑작스런 대규모 기습 공격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유럽의 수도인 브뤼셀과 러시아의 군사적 선봉인 파리와는 거리가 꽤 멀다. 유럽의 번영으로 인해 지도자들은 강력한 러시아의 군사적 잠재력을 과소평가할 정도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격성, 비행기, 육로의 수천 대의 탱크, 수많은 해양 및 잠수함 전함을 발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이 강력하게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 이들 유럽 지도자들은 불같은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부터 현재의 새로운 “차르”인 블라디미르 푸틴(블라디미르: 러시아어로 세계의 왕자)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와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이 참여하게 될 7차 " 시리아 전쟁" 의 형태로 서로 대결하게 될 것입니다 . 다음 구절이 이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공격하는 “왕”(그)은 로마 조약의 유럽이다.

40d- *그것이 땅으로 진출하여, 급류처럼 퍼져 넘쳐흐를 것이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을 침공하고 영토 전체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프랑스군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서지고 파괴됩니다.

단 11:41 *그는 가장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인데, 많은 사람이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들은 그의 손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41a- *그는 가장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리니 많은 사람이 굴복하리라*
러시아의 확장은 서방 국가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위치한 남쪽을 향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차례로 러시아 군대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죽을 것이다.

41b-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들은 그의 손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현대 요르단을 대표하는 이름을 러시아 측에 배치하는 군사 동맹의 결과입니다. 2021년 러시아는 이미 시리아의 공식 동맹국이 되어 시리아를 무기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 11:42 *그가 여러 나라 위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42a- 이러한 정치적 구성이 예언을 확증하게 된 것은 1979년 이후였습니다. 그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안와르 엘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이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공식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내린 전략적, 정치적 선택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대의 가장 강력한 대의를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은 파멸과 재앙을 “*피*”하려는 노력의 주도권을 그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의 주인이 바뀌었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2021년부터 미국에 의해 거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지역에 자국의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11:43 *그는 금, 은의 보물과 애굽의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며 리비아인과 에티오피아인이 그를 따를 것이다.*

43a- *그는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수에즈 운하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한 통행료로 얻은 수입 덕분에 이집트는 크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는 평화로운 시기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무역로가 황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관광을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 사람들은 피라미드와 고대부터 지하에 숨겨져 있던 이집트 무덤의 지속적인 발견으로 풍성해진 박물관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이 무덤에서 젊은 왕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가치를 알 수 없는 순금으로 만든 물건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전쟁 전리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무언가를 이집트에서 찾을 것입니다.

2022년 1월 22일 안식일이 끝날 무렵, 성령께서는 내가 다니엘 11장에 제시한 해석을 **논쟁의 여지 없이 확증하는 논증을 나에게 가져오셨습니다** . 42절과 43절에서 분명한 언급의 중요성을 주목합니다. 이 문맥에서 " **남방 왕** " 이라고 불리는 나라와는 다른 나라인 " 이집트 " 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 그러나 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프톨레마이오스의 나쁜 "이집트 " 는 가면을 썼지만 " 남방 왕 " 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맥락의 변화는 반박할 수 없이 확인되고 입증됩니다** . 고대의 맥락으로 시작하여 다니엘 11장의 이야기는 세상의 " **마지막 때** "로 끝난다. 여기서 1979년 이후 기독교와 불가치론적인 서구 진영의 동맹국인 " 이집트 "가 새로운 표적이 된다. " **남방 왕** ", 즉 호전적인 이슬람교, 특히 새로운 " 북방 왕 "인 러시아 정교의 이슬람교입니다.

43b- *리비아인과 에티오피아인이 그를 따를 것이다*

사하라 북쪽에 위치한 무슬림 국가인 "리비아", 아프리카 해안의 해안 국가, 에티오피아, 검은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한 모든 국가를 지정하는 예언의 " **푸트와 구스** "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사하라. 그들 중 다수는 또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였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와 공모했으며, 리비아 혼란도 그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 이집트 "는 모든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며, 그 형제인 무슬림 독수리들이 그 위로 내려와 그 시체를 청소하고 러시아의 공격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전리품을 자신들의 몫으로 차지합니다.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를 명확하게 인용함으로써 성령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632년에 등장한 아라비아와 동일시되어야 하는 " **남방 왕** "의 아프리카 종교 동맹을 지정하여 이슬람이라는 그의 새로운 종교인 메카 이후 전파하도록 지정합니다. 강력한 터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터키는 서구의 세속적 가치에 대한 일시적 굴복을 겪은 후 근본주의적이고 정복적이며 복수심에 불타는 이슬람교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 **남쪽** ' 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무슬림 국가들도 ' **남방 왕** '에 합류해 모든 무슬림 민족이 미워하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 서방 민족과 싸울 수 있다. 이 증오는 사실 서구 기독교인들이 멸시하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슬람교와 정교회를 통해 서구 세계에서 유대교, 가톨릭교, 정교회, 개신교, 심지어 재림교의 불신앙까지 처벌합니다. 그에게 유죄가 된 모든 일신교 신앙.

단 11:44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를 놀라게 할 것이요, 그가 크게 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멸하고 멸하리라.

44a-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소식이 와서 그를 놀라게 하리라*

이 두 기본 지점인 " **동쪽과 북쪽** "은 로마 교황령 유럽에서 언급되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언급되었는지에 따라 러시아

국가에만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에서는 40절과 41절에서 이 두 곳이 러시아의 연속적인 공격을 받는 것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용된 내용은 러시아 영토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한 정복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를 그토록 겁에 질리게 하였습니까? 그 대답은 다니엘서가 아니라, 세계적 본거지가 미국에 있는 개신교를 드러내고 표적으로 삼는 요한계시록 9장에 있습니다. 미국의 존재를 고려하면 미스터리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반항적인 러시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을 채택한 1917년 이래로 러시아는 제국주의 자본주의 미국과 지속적으로 격차를 벌였습니다. 개인이 공산주의자라면 이웃을 희생하여 자신을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옵션이 조화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평화의 잣더미 아래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며 표현되기를 간청합니다. 오직 경쟁과 핵 위협만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핵테러의 균형이었습니니다. 오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가 유럽, 이스라엘, 이집트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미국은 속임과 위협을 느낄 것이므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어 먼저 강타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핵 파괴는 점령 지역에 흩어져 있는 러시아 군대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44b- *그리고 그는 큰 분노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진멸시킬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러시아는 정복하고 약탈하려는 정신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갑자기 정신 상태가 바뀌고 러시아 군대는 더 이상 돌아갈 고국이 없을 것이며 그 절망은 " 파괴하고 파괴 하려는" 욕구로 변할 것입니다. 다수를 근절하다"; 이는 요한계시록 9장의 여섯 번째 나팔의 " 죽은 자의 삼분의 일 " 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핵무기를 갖춘 모든 국가는 사실에 따라 개인의 잠재적 적에 맞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단 11:45 그는 바다 가운데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향하여 자기 궁궐의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면 그는 도와줄 사람 없이 끝까지 갈 것입니다.

45a- *그가 바다 가운데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향하여 그 궁궐의 장막을 치시리라*

바다 사이에 장막이 있으니 그 궁전이 더 이상 땅 위에 없기 때문이니라. 러시아 군대의 절박한 상황은 그들을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한 성령에 의해 분명하게 묘사됩니다. 그들은 적들의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 땅으로 밀려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아무런 지원이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유대 땅에서 멸절당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옛 동맹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적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러시아에게 돌리신 무거운 분쟁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교적 정욕의 도시인 두로 사람들에게 말을 팔았습니다. 에스겔 27:13-14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완과 두발 (토볼스크) 과 메섹 (모스크바) 이 너와*

거래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물건을 대가로 종과 놋그릇을 주었습니다. 토가르마 (아르메니아) 가문 사람들은 말, 기수, 노새를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과 무역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상업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겔 27:17: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당신과 무역했습니다. 그들이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두로는 그들의 비용을 들여서 부유해졌습니다. 나중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 두로 왕 ”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사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이교도 신들의 모습으로 그를 섬겼던 위대한 이교도 도시들에 축적된 사치와 부를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숭배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수세기, 수천년에 걸쳐 축적된 좌절의 무게를 마음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최근의 끔찍하고 파괴적인 국제 분쟁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해소된 그의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상업 무역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는 전적으로 시장 경제에 기초한 국제적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현재의 국제 무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해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저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 타워가 파괴된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po.18에서 예언은 모든 규칙이나 신성한 종교적 권리가 무너지기 전에는 상업과 국제 교류로 인한 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이 너무 큼니다.

Dan.11이 끝나면 미국의 대적 러시아가 멸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에게 국제 분쟁의 모든 생존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패배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 땅 어디에 있던 승자의 법에 절하고 복종하여 살아남아야 합니다.

다니엘 12

단 12:1 그 때에 네 백성의 보호자이요 대군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 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일 것입니다. 그 때에 책에 기록된 네 백성이 구원을 얻으리라.

1a- 그 때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번에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쟁하는 종교들이 오랫동안 경쟁을 벌이던 신성의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읽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것을 볼 것이며 심지어 그것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때문에 애통할 것이다. 예. 아멘! 우리는 이 개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역할마다 자신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12:7에서 그가 자신을 천사의 천적 생명의 최고 우두머리인 미가엘로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마귀와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 이름으로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택하신 자들만을 대표합니다.

1b- *위대한 지도자,*

이 위대한 지도자는 야웨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특징적인 뻔뻔함으로 인해 교황 정권은 그 유익을 위해 1843년까지, 즉 538년부터 시작되는 **천상의 증보자**로서의 사명을 그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로마 시의 카엘리우스 산에 있는 라테란 궁전에서 교황 정권과 그 취임식. 이 주제는 다니엘 8장에서 다루어졌습니다.

1c- *당신 백성의 자녀들의 수호자;*

공격이 있을 때 수비수가 개입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반역자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함을 유지한 선택받은 자들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시간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제시하는 모든 모델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모델은 최후의 비극적 상황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큰 재난**에서 우리는 단 3장, 풀무와 그 안에 있는 네 명의 살아 있는 인물, 단 5장, 하나님이 **큰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단 6장**, 단 6장에서 언급된 기적 적인 개입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전 168년 기슬레우월 15일, 즉 안식일인 12월 18일에 유대인들을 찢던 일로 예표된 **큰 재난**의 끝이 있었습니다.

1d- *그것은 민족들이 존재한 이래로 그 때까지 이런 환난이 없던 환난의 때일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마지막 큰 재앙은 헬라인들이 조직한 유대인들의 재앙을 능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인들은 거리나 집에서 발견한 유대인들만 구타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는 상황이 매우 달라지며, 현대 기술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인간 탐지 기술을 사용하면 어디에서나 숨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고된 명령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맥락에서 선출된 자들의 근절은 인간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가득하더라도 택함받은 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유롭게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은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반란군 감옥에 있습니다. 살해당하지 않는다면 학대를 당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마음에는 고통이 지배할 것입니다.

1e- *그 때에 책에 기록된 네 백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컴퓨터 없이도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낳은 모든 피조물의 목록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각 사람의 삶이 끝날 때 최종 운명은 신명기 30장 19-20 절에서 인류에게 제시된 두 가지 길에 따라 선택받은 자와 타락한 자의 두 가지 목록을 유지하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이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이것이 네 생명과 장수에 달려 있느니라... 그의 선택에 따라 로마 교황권이 종말을 당하게 되느니라 불에 태워지는 일이 단 7:9-10에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이는 단 11:36에 따라 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오만한 말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따르니 첫째 부활이라 하였으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권세를 미치지 못하느니라.

단 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능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니라

2a-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죽은 자들은 거짓 기독교나 이교 종교가 가르치고 믿는 것처럼 놀라운 낙원이나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땅의 흙 속에서** 잘 잠을 잔다는 점에 먼저 유의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전도서 9:5-6-10에서 가르친 죽은 자의 참된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살아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느니라. 심지어 살아있는 개라도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사실 산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잊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미움, 시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다시는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 네 손에 힘이 닿는 대로 행하라. 네가 가는 지옥에는 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 (땅의 먼지인 죽은 자의 거처).**

죽음 이후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사람의 두뇌에 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이 아직 살아 있고 심장이 뛰면서 보내는 혈액으로 영양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혈액 자체는 폐호흡을 통해 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불순종으로 죄인 된 아담에게 “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니 마침내는 너를 취한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무(無)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시편 30장 9절을 읽는다: **너희가 내 피를 흘리며 나를 구덩이에 빠뜨림으로써 무엇이 유익하리요? 먼지가 당신을 칭찬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충성심을 말합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시편 115편 17절에 따르면 여호와를 기념하는 자는 죽은 자도 아니요 침묵하는 곳에 내려가는 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존재했던 생명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그분을 천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창조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 천년기의 천년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천년이 시작될 때 모든 인간 생명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반면, 타락한

자들은 해의 왕국에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이 집행된 후에만 부활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에 첨부된 이 메시지를 통해 요한 계시록 1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날이 이르렀나이다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이 구절에서 죽은 자의 심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먼저 그의 충실한 죽은 택자들을 부활시켜 그들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2b- 그리고 다른 것들은 비방을 위한 것이며 영원한 수치를 위한 것입니다.

영원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속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이 멸망한 후에 타락한 자들의 치욕 과 수치는 오직 택함 받은 자들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단 12:3 지각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에게 의를 가르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3a- 총명한 자는 하늘의 영광과 같이 빛나리라

지능은 인간을 동물보다 높인다. 그것은 추론 능력, 사실 관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또는 간단한 추론을 통해 드러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반항하지 않는다면, 지성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법칙을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모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시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야 할 추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일신 신앙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간증과 그의 저술물은 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모든 저술물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여전히 정상적인 가능성이지만, 성경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은 악마적인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립하신 신앙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근원과 참고 자료를 취하여 합법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리는 이 원칙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리도 이슬람의 코란도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그 원칙을 확증하셨습니다 .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선택된 그룹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낸 신실함으로 인해 특별한 지식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843년까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지성과 순종으로 나타난 신성한 율법을 받아들였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 이 그룹에서 가장

충실하고 **평화로운 개신교인들은** 1843년 봄까지 그 날부터 거룩한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인내로부터 유익을 얻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4-25은 이 예외를 확증할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 곧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그렇다 . 자신에게 다른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만 붙잡으라.**

3b- **무리에게 의를 가르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이 두 번째 그룹은 1843년 이래로 지상에서 대표하는 높은 수준의 성화로 인해 구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에 기초한 믿음의 시험을 통해 선택되었으며, 1843년 봄과 1844년 가을, 하나님에 의한 그의 성화는 그가 안식일을 회복함으로써 공식화되었으며, 안식일은 오랜 세기 동안의 어둠과 망각과 멸시 끝에 다시 실천되었습니다. 그를.

이러한 두 그룹으로의 구분에서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들의 상황, 그분의 십계명과 그분의 다른 건강 및 기타 규례에 대한 그들의 지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6절의 원문에서 로마가 삭제한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중요성을 부여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반대되는 최종 운명을 회상합니다. ... 나는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사 천대까지 이르게 하라.

우리의 지상 창조물에 **별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상의 택하신 자들의 상징으로 봉사하기 위해 존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7절은 그들의 메시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을 비취게 하시니라. 그런 다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의 무리를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 너희의 후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별들의 위상은 구속받은 신자가 행하는 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영적으로 타락함으로써 **별은 떨어지고 , 하늘에서 떨어진다 .** 이 이미지는 1843년에 계시록 6장 13절의 **여섯 번째 봉인 에서 실제 하늘 의 표징으로** 발표된 1843년 개신교 신앙 의 몰락을 이미지하기 위해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맹풍에 흔들리는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메시지는 단 8:10의 메시지를 갱신합니다. **그녀는 하늘의 군대로 일어나서 그 군대와 별들의 일부를 땅에 내려놓고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 성령께서는 구속받은 신자들의 3분의 1이 영적 타락을 한 것이 로마

교황 정권의 탓이라고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헛되이 믿고 그분의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단 12:4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읽을 것이며 지식이 늘어날 것입니다.

4a- 이 **마지막 시간은** 여러 연속적인 단계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1843년 봄에 단 8:14에 미리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적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아침까지 2300년까지 기록함은 있을 것입니다. 정당화** . 1994년에 두 번째 종말의 시대는 보편적인 재림교회 조직을 정죄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1843년 이래로 다니엘서는 읽혀졌지만 내가 2021년에 준비하고 있는 이 작업과 2020년 이후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이 작업 이전에는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짜는 그의 **지식의 정점을 표시하는 날짜입니다** . 2030년 봄에 알려지고 기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재림으로 끝날 참된 마지막 **때입니다** . **우리는 올해 2020년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잘 정해졌음을 봅니다** . 모든 인류가 2019년 중국에 나타났지만 교황 가톨릭 유럽에서는 2020년부터 나타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죄가 있고 반항적인 인류를 계속 공격합니다.

재림교회의 믿음의 시험을 보여주는 그림

단 12:5 나 다니엘이 보니 또 두 사람이 더 있는데 하나는 강 이편에, 하나는 강 저편에 섰더라.

5a-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식인종인 호랑이 “히데겔” 강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 양쪽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은 강을 건널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단 8:13에서 두 성도 사이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단 12:6 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섰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언제리이까 하니

6a- 단 8:14에서 성도들의 질문은 1843년 날짜를 결정하는 저녁 23시 00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접근법은 여기에서 반복되며 이번 질문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이 쓸모없게 되는 순간. **강 위에** 서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적들을 물에 빠뜨리신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단 12:7 나는 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강물 위에 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한 때와 두 때와 반때가 이르고 이 모든 일이 백성의 힘이 다하면 끝나리라 하더라 성자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7a- 그리고 나는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섰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중재자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축복하는 오른손과 벌하는 왼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 엄숙한 선언을 하신다.

7b-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시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이르리라 하였느니라

교황 통치의 예언적 기간을 인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그의 교회가 교황 정권의 가혹행위와 그에 앞서 있었던 야만인 침략의 저주를 받도록 정죄하신 그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상기시키신다. 이는 321년 3월 7일 이후로 안식일을 버렸기 때문이다. 재림교회의 시련의 시대에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황의 통치를 불러일으키도록 이끈다. 이것이 시작 날짜인 서기 538년입니다. 이 날짜 538은 11절과 12절에서 새로운 예언적 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예언이 우리에게 제안할 계산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신중합니다.

7c-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힘이 **완전히 꺾이는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큰 재난이 끝나면 선택된 자들은 지구상에서 멸절, 근절되기 직전에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밀도에 주목하세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단 12:8 내가 듣기는 하여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일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8a- 불쌍한 다니엘! 그의 책에 대한 이해가 2021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라면, 그의 구원을 위한 이 이해는 얼마나 그의 손이 닿지 않고 쓸모없는 것이었습니까!

단 12:9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9a- 천사의 응답은 다니엘을 배고프게 만들 것이지만 그것은 기독교 시대의 종말을 위해 예비된 예언의 늦은 성취를 확증합니다.

단 12:10 많은 사람이 정결해지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리니 악인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각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0a- 많은 사람이 정결해지고 희게 되며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5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천사는 36절에서 자신을 모든 신들 위에, 심지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위에 높이는** 오만하고 포악한 **왕 이 교황임을 확증합니다.**

10b- 악인은 악을 행하리니 악인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라

천사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원리를 불러일으킵니다. 악의 연장은 그리스 죄의 " 늦 "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로마 세력의 " 철 "의 확장으로 다니엘의 예언에서 이미지화됩니다. . 악인들은 두 배로 이해력을 방해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개인적 무관심으로,

둘째는 살후 2:11-12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미혹의 능력으로 인한 것 입니다. **혼란스러운, 이는 그들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를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c- 그러나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이 예는 영적 지능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이지만 모든 정상인에게 주어진 기본 지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선행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에서도 인간은 교육과 학위를 지능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이점을 기억합니다. 교육을 통해 데이터가 인간의 기억에 입력될 수 있지만 지능 만이 데이터를 올바르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2:11 계속 드리는 제사를 그치고 가증한 멸망이 이루어질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11a- 영원한 희생이 그치는 때부터

아직도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 **희생** ”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구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의 신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황권은 지상에서 그의 중보를 재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제거합니다.

이 찬탈된 평행 지상 사역은 538년에 시작됩니다. 최초의 교황인 비길리우스 1세(Vigilius I)가 로마의 카엘리우스 산(하늘)에 있는 라테란 궁전에 정착한 날짜입니다.

11b- 그리고 거기에는 가증한 황폐가 있을 것입니다

단 9:27에 언급된 로마 교황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짜는 538년 이후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일을 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리니 그 땅은 황폐한** [땅에서] **작성된 대로 멸망 하리라**.

이 구절에서, 538년을 목표로 하는 성령은 오직 교황의 로마만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의 단일화를 설명합니다. 단 9:27에서는 로마의 두 단계, 곧 이교와 교황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 8:11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 **영원한 것의 휴거** ”와 **단에 인용된 “ 가증한 멸망 ”**을 운반하는 **교황의 “ 날개 ”**를 그룹화하는 것의 중요성과 관심을 살펴보겠습니다. 9:27. 이 두 가지 행위를 동일한 날짜와 동일한 실체에 연결함으로써 성령께서는 이 악행의 장본인이 실제로 로마 교황권임을 확증하고 증명하십니다.

단 11:31에서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4장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 **멸망의 가증한 것** ” 이라고 부르시는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Popery는 그것을 재생산하지만 1260년 동안 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1c- **일천이백구십일이 지날 것이다.**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인용된 예언의 기간을 위조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다니엘의 모든 예언에서는 이 단위를 숫자 앞에 두었습니다: *날 1290* ; *1335일* (다음 절); Dan.8:14: *저녁-아침 2300* ; 그리고 이미 단 9:24: 70주에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계산만 하면 됩니다: $538 + 1290 = 1828$.

1828년이라는 날짜의 관심은 재림교회 행사에 보편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이 행사는 영국 왕실이 참석한 가운데 런던 앨버리파크에서 개최된 5년차 재림교회 대회 중 3번째 대회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 12:12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12a- 이 두 예언적 기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오직 이 구절뿐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는 성경이 제시하는 수치적 명제에 기초한 특별한 기다림입니다. 새로운 계산이 필요합니다: $538 + 1335 = 1873$. 천사는 1828년과 1873년 사이에 이루어진 재림교회 신앙 시험의 시작과 끝을 각각 표시하는 두 날짜를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심은 1843년과 1844년을 기준으로 한 날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두 번의 연속적인 기대의 원인이었습니다. 신교도.

"호랑이" 강을 건너는 이미지에서, 인간의 영혼을 먹는 호랑이는 유기된 개신교를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죽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 시기인 1843-1844년입니다. 반면에,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이 위험한 횡단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팔복을 얻습니다. "1873년에 도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단 12:13 *그리고 너는 네 끝을 향해 걸어가라. 너는 쉴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너의 기업을 위하여서 있을 것이다.*

13a- 다니엘은 자신이 부활할 첫째 부활 후에 자신이 우리에게 전한 모든 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 있는 재림교인에게 있어서 그의 가르침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계시로 여전히 보충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엄청난 부를 잘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격려의 교훈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은 지상의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퍼져 있던 두려움과 불안의 표준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11:40-45과 계시록 9:13에 발표된, 마지막으로 선출된 관리들이 선정되어 제3차 세계 대전의 반역적인 생존자들에게 탁월 불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4장은 믿음의 표준 모델인 노아, 다니엘, 욥을 제시합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방주를 지음으로써 세상의 사고방식을 피하고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거짓 종교가 세운 표준을 거부함으로써 선출된

관리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옅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옅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해의 왕국의 생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라는 뜻을 지닌 가브리엘이라는 인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한 구원 계획의 모든 중요한 사명에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그와 모든 선한 천사들이 그의 지상 성육신 기간, 즉 35년 동안 하나님의 천사의 표현인 미가엘의 임재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큰 사랑의 나눔 속에서 미카엘은 자신의 권위도 공유하며 단지 “주요 리더 중 한 사람”이 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또한 그를 택하신 자 중에 택하신 자 다니엘에게 “네 백성의 지도자”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Dan.9는 예수님께서 그의 신실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되었으며, 30년 4월 3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믿음은 어른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에 따르면 아이는 13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짓종교에서 유아세례와 종교적 출생유산이 맺는 쓴 열매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세례를 받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증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은 후 하나님은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나타난 또 다른 진주, 즉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확증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음이라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2:14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단 7:9에 의하면 100억 단지 백만 달러 를 하나님께 계산하도록 부름을 받았음 구원받은 구원 받은 택함받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겼 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장은 묵시록의 시간 구분에 대해 숨겨져 있고 제안되었지만 근본적인 날짜인 538년, 1798년, 1828년, 1843-1844년과 1873년을 회상함으로써 묵시록의 구조를 위한 기초를 방금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날짜인 1994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행과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예언적 상징 입문

모든 성경의 비유에서 성령은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익명의 실체를 상징할 수 있는 특정 기준이 있는 지상의 요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사용된 각 상징은 하나님께서 숨긴 교훈을 추출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조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많고 이름도 없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 환경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치명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지구를 불모지로 만드는 염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죽음의 상징이 됩니다. 분명히 이 상징은 인류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며,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세례의 물을 예표하는 히브리식 재계 탱크에 당신의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 물에 잠기는 것,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지 못한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신성한 창조의 단일 요소인 바다의 모든 풍요로움을 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 2-3절의 이 구절에 주시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또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아쳐 ... 그리고 큰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나오는데, 서로 모양이 달랐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은 승리한 민족이 지배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보편적인 전쟁을 암시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기서 "큰 바다"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분의 눈에 "바다"의 동물과 동등하게 보이는 이교도 민족의 인간 대중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표현에서 '4'는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바람"은 하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구름을 불고, 폭풍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합니다. 구름을 밀어내고 햇빛을 촉진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은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승리한 새 민족에게 지배권을 주는 엄청난 격변을 일으키지만,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동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참된 인간에게 제공되도록 의도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신의 빛 가운데 행하는 그의 신실한 택하신 자들. 그리고 선출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차이점에 주목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창조하신 반면, 동물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 바다, 땅, 하늘의 환경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동사의 선택은 상태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예로 "earth"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10절에 따르면, "땅"이라는 이름은 "바다"에서 나온 마른 땅에

주어졌습니다 . 카톨릭 신앙에서 나온 개신교 신앙을 상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록 13장에서 활용하실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 지구 "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 그것이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할 때에는 사람에게 이롭지만 건조한 사막의 형태를 취하면 사람에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하늘에서 좋은 물을 주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물 공급은 강을 건너는 강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 생수의 샘 "으로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이 " 물 "의 유무에 따라 " 땅 "의 성질이 결정되며 , 영적으로는 75%가 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신앙의 질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 예로 하늘의 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 태양 "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빛을 발합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따르면, 그것은 " 낮 "의 빛이며 ,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식물의 성장을 따뜻하게 하고 촉진시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과도한 열이나 비가 부족하여 농작물을 태운다. 갈릴레오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 시스템의 모든 행성이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가장 크며, 성경은 창세기 1장 16절에서 그를 " 가장 큰 자 " 라고 부릅니다 . 가장 인기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기준은 그를 이 모든 특성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만듭니다. " 해 " 위에 발을 올려놓을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습니다 . 유일한 남성별이고, 나머지는 모두 행성이거나 여성화된 별이다. 그 다음에는 " 달 ", " 가장 작은 것 ": 창세기 1장 16절에 따르면 그것은 밤과 어둠의 광채이며 그가 다스리는 곳이다. 따라서 " 달 "은 부정적인 메시지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별은 오랫동안 그 숨겨진 면의 신비를 간직해 왔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행성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주기로 "태양"으로부터 받은 희미한 빛을 우리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러한 모든 기준에 따르면, "달"은 첫째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완벽한 상징이고, 둘째로 538년부터 현재까지의 로마 카톨릭 교황청과 루터교 개신교, 칼빈교, 성공회 등의 거짓 기독교를 대표하는 완벽한 상징입니다. 1843년 이후. 하늘에도 창세기 1:14-15-17에 따르면 " 별 "이 " 해와 달 " 과 공유하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대와 날과 연도를 표시하는 것 "과 " 지구를 비추는 것 "입니다 . 대부분은 어둠의 시간, 밤에만 빛납니다. 그것은 예언이 그들에게 타락을 돌릴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 참된 종들을 나타내는 이상적인 상징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 8:10과 요한계시록 12:4에서 로마의 거짓말에 희생된 기독교의 몰락을 일깨우기 위해 사용하실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13과 8:12에서는 보편적인 개신교의 몰락을 언급합니다. 별도로, " 별 "은 계시록 8:10-11의 카톨릭 교황권을 나타내고, 계시록 9:1의 개신교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1에서 승리한 선택된 회중인 12명의 왕관을 모았습니다. 단 12장 3절에서는 그들을 “*무리에게 의를 가르치는 자*”, 즉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땅을 밝히는 자들*”의 상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상징은 묵시록의 예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기호의 기준에 따라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에서 주신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는 “*머리와 꼬리*”라는 단어와 같은 성경 구절에서 신비의 열쇠를 친히 지적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군사와 장로는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꼬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은 병행하여 제안하므로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는 “*갈대*”.

숫자와 숫자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숫자 "1"의 경우: 고유성(신성 또는 숫자)
- 숫자 "2"의 경우: 불완전함.
- 숫자 "3"의 경우: 완벽함.
- 숫자 "4"의 경우: 보편성(4가지 기본 포인트)
- 숫자 "5"의 경우: 남자(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인간).
- 숫자 "6"의 경우: 천상의 천사(천상의 존재 또는 메신저).
- 숫자 "7"의 경우: 총만함. (동의를: 창조주 하나님의 인)

이 그림 위에는 처음 7개 기본 숫자의 추가 조합이 있습니다. 예: 8 = 6+2; 9 = 6+3; 10 = 7+3; 11 = 6+5 및 7+4; 12 = 7+5 및 6+6; 13 = 7+6. 이러한 선택은 요한계시록의 이 장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다니엘서에는 2, 7, 8, 9, 11, 12장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교 시대에 관한 예언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계시록에서 장 번호의 상징적 암호는 매우 드러납니다. 기독교 시대는 두 가지 주요 역사적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숫자 "2"에 붙은 첫 번째는 538년부터 이교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21년 3월 7일 이래로 확립한 종교 규범의 상속자인 로마 카톨릭 교황이 대표하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 "불완전함"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⁴ 2장은 94년부터 1843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숫자 "3"으로 표현된 두 번째 부분은 1843년부터의 "재림교" 시대, 즉 하나님께서 단 8:14에 인용된 하나님의 법령에 의해 예언된 계획에 따라 회복된 사도적 교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2030년 봄에 예상되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점진적으로 달성될 것입니다.

숫자 7 위에 있는 숫자 8, 2+6은 악마적인 일(6)의 불완전함(2)의 시간을 연상시킵니다. 숫자 9, 3+6은 완전의 때(3)와 마찬가지로 악마적인 일(6)을 나타냅니다. 숫자 10, 3+7은 완전한 때(3), 신성한 사역의 총만함(7)을 예언합니다.

숫자 "11" 또는 주로 5+6은 인간(5)이 악마(6)와 연관되는 프랑스 무신론 시대를 겨냥합니다.

숫자 "12", 즉 5+7은 인간(5)과 창조주 하나님(7 = 총만함과 그 왕의 입장)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숫자 "13" 또는 7+6은 악마(6)와 관련된 기독교의 총만함(7)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날에는 교황 제일(바다)과 개신교(육지)입니다.

숫자 "14" 또는 7+7은 재림교회의 사업과 그 보편적인 메시지(영원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숫자 "15", 즉 5+5+5 또는 3x5는 인간(3) 완전성(5)의 시간을 연상시킵니다. 그것은 은혜의 때의 종말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영적인 "필"은 익어서 수확하여 하늘 창고에 저장됩니다. 택자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교적 원수들인 불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 일곱 대접"을 부어 주시는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큰 창녀의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이 상징적 숫자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한 해의 첫째 달 10일에 시작하여 17일에 끝나는 부활절 주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날수 수준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단9:24-27년의 "70주" 70번째 날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의 70째 주의 예언은 26일부터 33일 사이의 7년의 기간을 망라합니다. 예언에서 지적하는 목표는 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봄, 단 9:27에 인용된 예언적 주간의 7년 중 "중간".

마지막 참된 "재림교인"에게 17이라는 숫자는 321년 3월 7일에 확립된 죄인 로마 일요일을 17세기 동안 실천한 것과 관련됩니다. 이 17세기의 끝을 기념하는 날인 2021년 3월 7일은 "재림의 시간"을 열었습니다. 끝"이라고 단 11:40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계시록 9:13~21에 계시된 "여섯째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제3차 세계 대전을 가리키는 이 마지막 경고 형벌의 성취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19 바이러스는 2020년(2020년 3월 20일 ~ 2021년 3월 20일)을 신별이 시작되는 해로 지정합니다.

18장의 주제는 "큰 바벨론"의 형벌이다.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과 인간 반역자들과의 대결의 맥락을 대상으로 합니다.

"20"장은 일곱 번째 천년기를 연상시킵니다. 그곳은 마귀가 포로로 잡혀 있는 황폐한 땅과 하늘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은 사악한 반역자들의 삶과 행실을 심판하러 가는 곳입니다.

“21”장은 3x7의 상징, 즉 땅에서 구속된 택하신 자들에게 재현되는 신성한 성화의 완전함(3)(7)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 3, 7, 14장 = 2x7, 21 = 3x7(성화의 완성을 향한 성장)에서 예언이 재림교회의 택자를 주제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장”은 재생되고 새로워진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와 그의 영원한 왕국의 택하신 자들을 세우시는 때를 시작합니다.

재림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누구입니까? 이 문서가 모든 바람직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재림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든 싫든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이며,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된 법령이 발효된 1843년 봄 이래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표준은 여전히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간 종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규범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러한 진화를 거부함으로써 1994년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식적인 제도적 표현을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출현을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위대한 최종 재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843년 봄, 1844년 가을, 1994년 가을에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대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적 발표와 그 기대를 경멸한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영적 결과가 닥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들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안하신 빛을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직접적인 결과로 “재림교인”, “일곱째 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첫째

날의 종교적 안식을 버리고, 안식일이라 불리는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보완적인 신성한 요구 사항을 의미합니다. 안식일과 함께 선출된 재림교인은 자신의 육신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달아야 하며, 따라서 육신의 성소인 신성한 신성한 소유물로서 그것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인간을 위한 이상적인 식단을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씨를 맺는 나무의 열매, 이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재림교회 사상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기독교 계획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수많은 인용문에서 언급됩니다: 시편 50:3: “**우리 하나님이 오시나니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는 격렬한 폭풍이 있습니다.**”; 시 96:13: “**...주님 앞에서! 그가 오시나니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느니라 ; 그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그의 성실하심을 따라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 ; 이사야 35:4: “**마음이 불안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당신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복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6:3: “**알자,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자. 그 임함은 새벽의 임함만큼이나 확실합니다. 그분은 비처럼 우리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물비 처럼**”; 새 언약의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 21:40: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오면 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 ; 24:50: “**... 이 종의 주인은 생각지도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올 것이다.**”; 마 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 ; 예아 7: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 ; 7:31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 ; 히브리서 10:37: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 예수님의 마지막 증언: 요한복음 14: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사들의 증언: 사도행전 1:11: “**또 말하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기를 그치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 메시아에 대한 재림교회의 계획은 이사야 61:1-2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전파하며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글을 읽으시다가 읽다가 그치시고 책을 덮으셨으니 이는 그 나머지 부분이 '요한 의 날' 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복수 ”는 2003년 후,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성한 재림을 위해 성취될 예정이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 하느님의 복수의 날입니다.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

오늘날 재림교회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데, 첫째로, 1991년에 예수께서 나라는 겸손한 인간 도구를 통해 제시하신 마지막 빛을 거부한 공식적인 제도적 측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적절한 곳에 표시됩니다. 수많은 반체제 재림교회 그룹이 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빛은 그들에게 우선순위로 제시됩니다. 그녀는 우리의 영적인 장로 엘렌 화잇이 재림교인들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큰 빛”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을 '큰 빛'으로 이끄는 '작은 빛'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개 메시지에서 그녀는 양손에 성서를 휘두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성경 코드를 엄격하게 사용하여 완전히 해독됩니다. 완벽한 조화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드러냅니다. 독자 여러분, 당신이 누구든 과거의 실수를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신성한 계획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는 당신의 관점에 적응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구제책도 없는 대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그것을 덮지 못합니다. 나는 이 중요한 괄호를 닫고 발표된 “재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묵시록의 이야기에 접근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예언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언을 알거나 경멸하면 영생이나 영원한 죽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안정을 좋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러한 안정성을 보호하고 자신의 종교를 전통으로 변형시키며, 새로움의 측면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폐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신의 동맹을 맺은 유대인들이 먼저 행동한 방식이며,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3장 9절 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회 ” 라고 주저하지 않고 비난하셨다 . 그들은 조상의 전통을 고수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할 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계산을 찾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영원히

동일하게 유지되는 심판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한 구절만으로도 이 생각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빛과 같아서 그 빛이 점점 밝아져 한낮에 이르느니라.* (잠 4:18).” 이 구절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현된 “*길*”과 동일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리도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영원한 후보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계시록 2:26)”을 주리라.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유대 민족의 오류였으며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이 항상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음식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의 영구적인 관계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서의 성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살아 있는 “*로고스*”, 일시적으로 육신이 된 말씀, 성령으로 행동하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남아 그분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하십니다. 온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구하십시오. 나는 나만큼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이 새로운 빛의 공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새로움은 계시된 계획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우리는 낡은 해석이 쓸모없게 될 때 이를 결정하고 포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십시오.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살상 5:21).”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신탁의 선출된 보관자들에게 영감을 받고 계시된 빛의 점진적인 진화에 지속적으로 적응됩니다. 따라서 전통에 대한 엄격한 존중은 인류가 세상 끝날까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구원 프로그램의 진화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종교적 영역에서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의 진리 또는 현대 진리입니다. 이 사상을 더 잘 이해하려면, 사도 시대에 완전한 신앙 교리가 있었던 과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예언된 극도의 어둠의 시대에 사도들의 교리는 두 "로마"의 교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제국과 교황은 악마를 위해 준비된 동일한 신성한 계획의 두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개혁 사업은 거짓 교리를 뿌리 뽑고 사도 교리의 파괴된 좋은 씨앗을 다시 심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당화합니다. 큰 인내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빛이 완전한 완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이교신들과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며, 반응과 흥내낼 수 없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불행히도

인간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가장하여. 자연을 명령하시는 분, 번개와 천둥과 번개를 지시하시는 분, 화산을 깨워 범죄한 인류에게 불을 뿜게 하시는 분, 지진을 일으키고 파괴적인 해일을 일으키는 분은 또한 자신이 선출한 관료들의 마음에 속삭이시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가 오래 전에 미리 발표한 대로, 그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모스 3장 7절에 “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묵시록의 첫 번째 모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요한은 자신의 발표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주신 형상과 그가 듣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겉보기에만, 그리스어 "apocalupsis"를 번역한 요한계시록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는 수많은 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측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는 그들을 낙담시키고, 그들은 밝혀진 비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행하심으로써 그분께서는 그분의 계시가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따라서 그 계시는 오직 그분의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분이 택하신 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 자신이 그분의 종으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실함과 순종으로 눈에 띄는 거짓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그가 본 모든 것.** (계시록 1:1-2).”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의 묵시록, 계시를 통해 그분의 종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제공되고 제시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진리의 길을 보여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상 봉사를 통해 참된 믿음의 모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신 후, 그분과 그분의 자발적인 속죄 희생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분이 앞서 걸으신 이 모범적인 길에 진실로 헌신했다는 점에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에 대한 그의 완전한 헌신이 제안된 표준이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 ...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고 세상에 왔노라... (요한복음 18:37)”라고 말씀하셨다면, 같은 세상에서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모든 미스터리에겐 설명이 있지만, 이를 얻으려면 비밀에 대한 접근을 열고 닫는 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쉽게도 주요 열쇠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여가 시간에 오류가 없고 완벽하게 공정한 판단에 따라 인간의 지능을 열거나 닫으십니다. 이 첫 번째 장애물은 계시된 책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성경은 거짓 신자들이 읽을 때 종교적 알리바이 조항 모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신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 24:5-11-24과 마태 24:5-11에 따라 세상 끝날까지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들에 대한 경고를 이 땅에서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7:21-23, 여기서 그는 자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주장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묵시록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인 아버지에게서 오시는 성부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참된 신앙의 역사를 계시한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암흑 시대에 걸쳐 극도의 종교적 혼란의 시기를 겪는 선택된 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별**의 상징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15절에 따르면 그들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고 " **땅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

계시록의 두 번째 열쇠는 옛 언약서 중 하나인 선지자 다니엘서에 숨겨져 있는데, 이 책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인용된 하나님의 " **두 증인** " 중 **첫 번째 책이다**. 두 번째는 계시록과 새 언약의 책들이다. 지상 봉사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거룩한 " **토라** "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제자들의 관심을 이끄셨습니다.

신성한 계시는 두 개의 영적 기둥의 형태를 취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에게 주어진 묵시록이 두 개의 기둥처럼 신성한 천상 계시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정의하시는 참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웠느니라** (계 1:3)."

" **읽다** "라는 동사는 읽은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이사야 29:11-12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 **너희에게 있는 모든 계시는 봉한 책의 말씀과 같으니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 이르기를 이것을 읽으라 하라. 그리고 누가 대답합니까?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을 주면서 "이걸 읽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답합니까? 나는 읽는 방법을 모릅니다.** " 이러한 비교를 통해 성령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에 따라 "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그에게서 멀리 떠난** " 자들을 위해 암호화된 신성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며 입과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도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그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전통에 따른 계율일 뿐입니다.** " .

세 번째 키가 첫 번째 키에 연결됩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제 자매들을 깨우치기 위해 예언을 “읽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29절에서 이를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것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은사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언어를 돕고, 다스리고, 말하는 것. 다 사도인가? 다 선지자인가? 그 사람들 다 의사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질서에서는 인간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선지자로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대 앞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반대로 필요하다면 방 뒤쪽에 앉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앞줄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일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열망하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이 이상한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큰 욕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환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선보이는 작품의 유난히 빛나는 성격에 놀라지 마세요 . 이는 진정한 사도적 사명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코드에 드러난 비밀을 일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 예상됩니다. 무지는 주어진 빛을 거부한 결과가 아닌 한 잘못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임무를 맡기신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신 것을 거부할 경우, 하느님의 선고는 즉각적으로 내려집니다. 그것은 관계, 보호, 희망의 단절입니다. 따라서 선고 선지자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암호화된 비전을 받았고,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선고 선지자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해독된 환상을 제시하며, 그 숭고한 명확성을 통해 신성한 축복에 대한 모든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해독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출처, 즉 성경,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마지막 때에 드물게 된 순종적인 아이들과 같은 가장 단순한 인간 피조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 사이의 긴밀하고 강렬한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훔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신성한 발산, 열매, 본질로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보완적인 방식으로 가져온 위대한 계시록의 완전한 구성은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주제를 서로 다른 보완적인 측면과 세부 사항으로 언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내가

숙달한 수준에서 제시된 종교 역사는 실제로 요약하기가 매우 간단합니다.

아직 네 번째 열쇠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격 전체가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개념을 하나님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점에서든 자신의 교리에 도전할 것이 확실합니다. 영광스러운 계시는 택함받은 자들의 성화된 마음 속에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진실은 협상할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두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모든 것은 “예” 또는 “아니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겸손입니다. 일에 대한 교만은 합법적이지만 결코 교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약 4:6).” 교만은 마귀를 몰락시키고 마귀 자신과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교만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5)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암호화된 예언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신성한 지혜로 주님은 수십 년에 걸쳐 구분된 예언을 통해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가 장으로 구분된 이 모든 예언을 비교 종합하는 아이디어로 나에게 영감을 주기 전에는 나보다 먼저 그것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기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비난이 정확하고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빛의 비밀은 모든 예언서의 종합, 각 장의 데이터에 대한 병행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접하는 상징의 영적 의미를 찾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비난은 관련자들에게 그다지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네 가지 주요 표적이 누구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의 권위 외에는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시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따르면 “*두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상의 죄인과 천상의 죄인을 고발하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 제시된 이 예언적 이야기를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605년 이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역사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함 (-605) Dan.1

역대 통치자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

1. 칼데아 제국: 단 2:32-37-38; 7:4.
2. 메대와 바사 제국: 단 2:32-39; 7:5; 8시 20분.
3. 그리스 제국: 단 2:32-39; 7:6; 8:21; 11:3-4-21.
4. 로마 제국: 단 2:33-40; 7:7; 8:9; 9:26; 11:18-30.
- 5 - 유럽 왕국: 단 2:33; 7:7-20-24.
6. 교황 정권: 단 7:8; 8:10; 9:27; 11:36.

2부: 다니엘 + 요한계시록

유대인들이 거부한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 다니엘 9장.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168)에 의한 유대인 박해:
큰 재앙을 선포함: 단 10:1. 성취: 단 11:31. 로마의 박해(70): 단 9:26.

갈대아인, 메대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538년부터 로마, 제국, 교황의 지배. 로마에서 기독교 신앙은 연속된 두 단계의 제국과 교황 단계에서 치명적인 적과 맞섰습니다. 단 2:40 43까지; 7:7-8-19~26; 8:9-12; 11:36-40; 12:7; 개정판 2; 8:8-11; 11:2; 12:3~6-13~16; 13:1-10; 14:8.

1170년(피에르 발도)부터 그리스도 재림까지의 종교개혁: 묵시록 2:19-20-24~29; 3:1에서 3; 9:1-12; 13:11~18.

1789년과 1798년 사이, 프랑스 혁명적 무신론의 징벌적 조치: Rev.2:22; 8:12; 11:7-13.

나폴레옹 1세의 제국: Apo.8:13.

1843년부터 재림교회 신앙의 시험과 그 결과: 다니엘 8:14; 12:11-12; 개정판 3. 전통적인 개신교의 몰락: 요한계시록 3:1~ 3; 그의 형벌: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⁵절) *트럼펫*). 복된 재림교회 개척자들: 요한계시록 3:4-6.

1873년부터 보편적 재림교회 기관의 공식 축복: 다니엘 12:12; 계시록 3:7; *하나님의 인*: Rev.7; 세 천사의 보편적인 사명 또는 메시지: 요한계시록 14:7~13.

1994년부터 예언적 신앙의 시험을 받아 제도적 재림교회 신앙은 무너졌습니다(계 3:14~19). 그 결과: 1844년 이후 거부된 개신교 진영에 합류했습니다(계 9:5~10). 그의 형벌: 요한계시록 14:10 (*그도 역시 술을 마실 것이다...*)

2021년에서 2029년 사이, 제3차 세계 대전: 다니엘 11:40~45; 요한계시록 9:13~19(⁶월) *트럼펫*).

2029년, 집단적, 개인적 은혜의 시대가 끝난다: Apo.15.

보편적인 믿음의 시험: 일요일에 부과된 율법: 요한계시록 12:17; 13:11-18; 17:12-14; 마지막 일곱 재앙: Rev.16.

2030년 봄, “*아마겟돈*”: 죽음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다니엘 2:34-35-44-45; 12:1; 계 13:15; 16:16. 일곱째 *나팔*: 계 1:7; 11:15-19; 19:11~19.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 계 16:17. 선택받은 자들의 추수 또는 휴거: 계 14:14~16. 거짓 종교 교사들의 수확 또는 형벌: 계 14:17~20; 16:19; 17; 18; 19:20-21.

2030년 봄, 일곱 번째 천년기 또는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큰 안식일부터: 패배하고, 사탄은 황폐한 땅에 *천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계 20:1~3. 하늘에서는 택하신 자가 타락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다니엘 7: 9; 개정판 4; 11:18; 20:4-6.

3030년경 최후의 심판: 당선자의 영광: Apo.21. 땅에서 *의 둘째 사망*: 다니엘 7:11; 20:7~15. 새로워진 땅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다니엘 2:35-44; 7:22-27.

예언에 나타난 로마의 상징

예언의 모호한 측면은 동일한 실체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징을 사용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를 배제하는 대신 보완적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본문의 신비한 측면을 유지하고 대상 주제의 다양한 측면을 개략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로마입니다.

Dan.2에서는 신상의 환상에서 “*철다리*”라는 상징을 가진 네 번째 제국이다. “*철*”은 가혹한 성격과 라틴어 모토 “*DVRA LEX SED LEX*”를 반영합니다. “*법은 어렵지만 법은 법입니다*”로 번역됩니다. 또한, “*철 다리*”는 몸통, 머리, 어깨, 팔, 다리에 철 흉갑을 착용하고

길고 조직적이며 단련된 기둥으로 전진하는 로마 군단병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Dan.7에서 로마는 공화주의와 제국이라는 두 이교도 단계에서 여전히 " *철 이빨을 가진 끔찍한 괴물* "로 묘사되는 네 번째 제국입니다. 그녀의 쇠 *이빨*은 그녀를 댄의 쇠 *다리*에 연결해 줍니다 .2. 또한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형성될 유럽의 10개 독립 왕국을 상징하는 " *열 뿔* "도 있습니다 . 이것이 단 7:24 에 주어진 가르침이다.

예언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주요 표적이 될 열한 번째 " *뿔* "의 출현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 *작은 뿔* "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 역설적이게도 단 7:20은 그 뿔을 " *다른 뿔보다 더 큰 모양* "으로 여깁니다. 그 설명은 단 8:23-24에 나와 있습니다. " *이 뿔뿔하고 교활한 왕은... 그는 권세 있는 자들과 성도들의 백성을 멸할 것입니다.* " 이는 538년부터 유스티니아누스 ¹세 의 제국적 권위를 통해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강요한 교황 정권의 수립과 함께 성취된 이 두 번째 로마 지배에 하나님께서 돌리신 행위의 일부일 뿐입니다 . 우리는 로마 교황이 대표하는 독재적이고 독재적이지만 종교적인 정권에 대해 예언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분산된 방식으로 제시하시는 모든 비난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단 7:24이 그를 " *처음과 다르다* "고 부른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능력이 종교적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권력자들의 경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Dan.8:25은 " *그의 계략이 성공함* "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니엘 7장의 왕을 다니엘 8장의 왕과 연결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연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8장에서 우리는 단 2장과 7장의 네 가지 제국 계승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고, 본문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두 제국만 발견합니다. 즉, " *숫양* "으로 표시된 메대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입니다. 로마제국 이전의 ' *염소* '를 *이미지화한 것이다*. 323년 그리스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면서 " *염소의 큰 뿔이 부러졌다* ". 그러나 상속자가 없으면 그의 제국은 그의 장군들 사이에서 나누어집니다. 20년간의 전쟁 끝에, 오직 4개의 왕국만이 남았다. " *네 뿔이 하늘 네 바람에 일어나서 그것을 대신하였느니라* ". 이 네 뿔은 이집트, 시리아, 그리스, 트라키아입니다. 이 8장에서 성령은 이 네 번째 제국의 탄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제국은 처음에는 서쪽 도시에 불과했고, 최초의 군주제였으며 그 다음에는 510년 이후 공화제였습니다. 로마가 민족을 변화시켜 점차 권력을 얻은 것은 바로 공화제 정권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 9절에서는 이미 단 7절에서 로마 교황 정권을 가리키는 " *작은 뿔* "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동방 역사에 공화주의 로마가 헬라에 개입함으로써 성취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네 뿔 중 하나* ". 내가 방금 말했듯이, 두 그리스 연맹인 아카이아 연맹과 아이톨리아 연맹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BC 214년에 소집되었으며, 그 결과 그리스는 독립을 상실하고 로마인들에게 식민지 노예가 되었습니다. - 146. 9절은 이전 예언에서 “**찰**” 로 묘사된 이 작은 이탈리아 마을을 네 번째 제국으로 만들 연속적인 정복을 불러일으킵니다 . 추론의 지리적 위치는 로마가 위치한 이탈리아이다. 창립자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탄생에는 그들에게 모유를 먹일 암늑대가 등장합니다. 라틴어로 루브(Louve)라는 단어는 "루파(lupa)"인데, 이는 늑대를 의미하지만 매춘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창조될 때부터 이중 예언적 운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표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창녀에 비유할 예수님의 양 우리 안에 있는 늑대로 발견할 것입니다. 그 후, " **남쪽** "으로의 확장은 남부 이탈리아(-496년에서-272년)를 정복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그 후 기원전 264년부터 현재의 튀니스인 카르타고와 벌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 **동쪽** "을 향한 다음 단계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리스에 대한 개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서 물려받은 분열된 그리스 제국의 “ **네 뿔 중 하나에서 솟아오르는** ” 것으로 묘사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 점점 더 강력해지는 63년에 로마는 성령께서 “ **가장 아름다운 나라** ” 라고 부르는 유대에 자신의 존재와 식민지 권력을 강요하게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의 백성 이집트가 탈출한 후 창설된 이래로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겔 20:6-15 에서 반복됩니다. 역사적 정확성: 다시 한번, 로마는 히르카누스에 의해 그의 형제 아리스토틀루스에 맞서 싸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장에 나오는 메대-페르시아의 “ **수양** ” 과 동일한 지리적 형태로 묘사된 세 번의 로마 정복은 역사적 증언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단 7:8과 단 8:9의 “ **작은 뿔** ”이라는 표현은 두 참조 모두에서 로마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은 입증되었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확실성 위에서, 신성한 영은 하늘의 모든 벼락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이 교황의 종교 체제에 대한 가르침과 비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7장에서 입증된 교황 로마에서 제국 로마로의 계승, 여기 단 8장에서 성령은 그들을 분리하는 수세기를 건너뛰고 10절부터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필멸의 원수인 교황의 실체를 다시 표적으로 삼는다. 이유 없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인 천국 시민의 기독교 신앙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 **하늘의 군대로 일어나라** ”. 이 일은 538년에 비질리우스 1세에게 ^{종교적} 권위와 바티칸의 교황 왕좌를 ^{제안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황제 칙령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힘으로 무장한 그는 그의 역사적 후계자들이 거의 1260년(538년에서 1789-1793년 사이) 동안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가 박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대항하여 행동합니다. 역사적 정확성은 이 법령이 533년에 작성되었음을 알면서 이 기간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에서 1260년은 혁명적인 "공포"로 로마

교회의 폐지가 선포된 해인 1793년에 끝났습니다. “ 그는 별 몇 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습니다.” 그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열쇠는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별에 관해서는 창세기 1장 15절에 있습니다: “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을 비추게 하시려고 ”;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에 비유됩니다. “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것이 당신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단 12:3: “ 많은 사람에게 의를 가르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꼬리 ”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9장 1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 단어는 “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를 상징하고 지정하기 때문에 암호화된 신성한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 정권은 그 통치 기간과 그 기원 이래로 수 세기에 걸쳐,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거짓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아 왔습니다.

25절에서 분명하게 밝히듯 이 유일한 “ 관원들의 우두머리 ”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교황권을 비난하시며 ,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로도 언급됩니다. :14; 19:16. “ 그가 일어나 군대 대장에게로 가서 그 영영한 것을 빼앗고 그의 성소 기초를 헐었 느니라 .” 이 번역은 현행 번역과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엄격하게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성과 정확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 영원한 ”이라는 용어는 “제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존재는 불법이며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예언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단 9:26에 따라 제사와 예물이 폐지된 기독교 시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 영원한 ”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적 재산, 곧 그분의 제사장 직분, 즉 그분이 식별하고 선택하신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장악함으로써 교황 정권은 저주받은 자들을 축복하고 이단이라고 거짓 비난하는 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을 저주하며 스스로를 신적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단 7:25에서 “ 때와 율법을 변개시키려는 획책을 세우셨다 ”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의 예언적 계시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의를 제기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교황 정권의 전체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종교적 판단도 내리거나 내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영구 제사장직은 히브리어서 7장 24절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 전달될 수 없는 제사장 직분 ”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권위를 전달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절도가 그와 그가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올 모든 결과와 함께 그에게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훔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 7:11 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그는 " *둘째 사망, 산채로 불과 유향 못에 던져짐* "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오랫동안 자신과 군주들과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고 경외하도록 위협해 왔습니다. 그 *뿔이 내는 오만한 말 때문에 내가 보니, 내가 보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하여 불에 던져지더라 .*" 결과적으로, 묵시록의 계시는 계시록 17:16; 18:8; 19:20. 나는 교황 정권에 대한 비난의 영적인 성격 때문에 " *그리고 그의 성소의 터를 헐었다* " 로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 "mecon"은 장소 또는 기반 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참으로 영적 성소의 기초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 " 기초 "라는 용어는 에베소서 2:20-21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 *모퉁이의 머릿돌* "이심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물, 즉 교회의 " 성소 " 재산 과 비교되는 사도적 기초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 베드로의 유산이라고 주장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교황에게 있어 베드로의 유일한 유산은 그의 신성한 스승을 따라 그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형집행자들의 활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의 종교 재판 체제는 초기 이교도 모델을 충실히 재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 *때와 법을 바꾸* "셨기 때문에, 특정 교황의 우두머리들이 암살자, 알렉산드르 6세 보르지아와 그의 아들 카이사르, 사형집행인, 추기경과 같은 악명 높은 범죄자였던 이 편협하고 잔인한 정권은 교회의 완전한 악마적 성격을 증언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 기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대한 엄청난 학살이 이 종교 권위에 의해, 강제 개종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고, 십자군의 종교 명령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무슬림에 대항하여 촉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 단 9:26에 발표된 대로 로마인들이 " *성과 성소* "를 파괴하러 왔던 70년 이래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 . " *그의 성소의 기초* "는 새 언약의 성경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전달한 사도들이 받아들인 모든 교리적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3에 따르면 하나님의 " *두 증인* " 중 두 번째 . 이 침묵의 증언을 통해 교황청은 수많은 추종자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성경적 신앙의 영웅들의 이름만을 간직해 왔습니다. 로마에 따르면 진리는 부분적으로 " *미사 전례서* "(미사 지침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 *두 증인* "을 대체합니다. 그녀가 충실한 추종자들을 죽임으로써 싸웠던 성경을 함께 구성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록입니다.

단 8절 12절은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증하고 가증한 종교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에게 밝혀줄 것입니다. " *군대가 죄로 말미암아 영존하는 자들에게 넘겨졌느니라 .*" 따라서 이 정권의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은 요한일서 3:4에 따르면 율법을 범하는 " *죄* "를 처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했습니다 . 그리고

그것은 이미 로마에 귀속된 행동이지만 이교 제국 시대에 있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너무나 심각한 죄가 두 가지 극도로 민감한 지점, 즉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8장 7-8절에서 538년에 교황 정권이 수립된 것이 하나님이 내리시고 “*둘째 날짜*”의 경고 상징으로 예언된 두 번째 형벌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성실한 기독교인이 된 유럽의 야만인 침략에 의해 성취된 또 다른 형벌이 그 앞에 선행됩니다. 395년에서 476년 사이에 발생한 이러한 행위는 395년 이전에 가해진 형벌의 원인을 여전히 찾아낸다. 따라서 321년 3월 7일의 날짜가 확인되는데, 이 날짜는 이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평화}를 제안한 날이다. 제국의 기독교인들은 법령에 따라 안식일 관습을 포기하고 첫날의 나머지 날로 대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 첫째 날은 정복되지 않은 신격화된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 숭배에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이종의 분노를 겪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상실하시고, 창조자로서의 그분의 사역과 모든 적들에 대한 최종 승리를 기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신에 바로 그 첫날에 바친 이교의 영예가 연장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대열. 잘못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창조자이자 조직자이시며,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하늘의 별을 창조하셨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가 나타나 낮을 표시하고, 달이 밤을 표시하고, 다시 해와 별들이 나타나 해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한 주는 별들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분의 권위의 표징을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안식일의 빛

주간의 내부 조직은 또한 그분의 신성한 뜻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그분의 넷째 계명의 본문에서 이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엿새가 있으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날이니 너도, 네 아내도, 네 자녀도, 네 가축도, 나그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성문 안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6 과 7 " 이라는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일곱 번째* ” 형식인 서수에서 창조주 입법자는 이 *일곱 번째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주장합니다. 바쁜 하루* .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필요하다면 이 계명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바꿔야 할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세우신 시간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까지 주장한다면, 그 주간은 그의 구원 프로젝트의 전체 시간, 즉 7000년, 더 정확하게는 6000 + 1000년의 이미지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구원의 계획을 왜곡하여 호렙산 바위를 두 번 쳐서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에 대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1843-44년 이후 첫날의 안식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제공하는 선택받은 자의 믿음에 대한 보상인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역자들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행동처럼 첫날의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별다른 결과 없이 변경할 수 있지만 숫자의 특징은 불변성입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감독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경우, 시간의 점진적인 진행은 7일의 연속적인 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변하게, 첫째 날은 첫째 날로 남고 “*일곱째*”는 “*일곱째*”로 남습니다.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가치를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은 특별한 운명의 대상, 즉 “*거룩하게 된*” 날, 즉 구별된 날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 특별한 가치의 진정한 원인을 무시해 왔지만, 오늘은 인류의 이름으로 신의 설명을 전합니다. 그에 비추어, 하나님의 선택은 명확해지고 정당화됩니다. 일곱째 날은 7000태양년이라는 신성한 세계적 계획의 일곱 번째 천년을 예언하며, 그 중 Apo.20에 인용된 마지막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과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보상은 죄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덕분에 얻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안식일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주를 창조하신 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2-3에 따르면 예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 곳*”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매주 전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당선자를 위해. 여기에는 이 거룩한 일곱째 날에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매우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 그분은 우리 주간의 끝, 해질녘, 여섯째 날의 끝을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넷째 계명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는 본문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끝에 도달하면 **일곱 번째 천년기의 1000년**은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참된 믿음을 통해 나의 영원한 해의 왕국에 들어간 나의 택한 자들에게만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땅의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생의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5-46절에 인용된 비유 중 “**값진 진주**”로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여전히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그는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여자를 샀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반대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킨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며, 따라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는 진주를 찾는 “**진주**” “**상인**”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희귀하고 귀중한 진주를 찾기 위해 예수께서는 끔찍한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하늘과 그 영광과 땅을 떠나 이 영적 진주를 다시 사서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인**은 절대적인 것, 참된 믿음의 보상이 될 신성한 완전함을 갈망하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그는 천적

소명이라는 상을 얻기 위해 헛되고 불의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창조주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데 헌신합니다. 이 버전에서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30년 봄에 택하신 자들에게 제공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값진 진주**는 재림교회의 마지막 시대에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재림 때까지 살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값진 진주**가 안식일,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택하신 자들의 거룩함을 하나로 묶는 이유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발견된 교리적 완전성은 성도들에게 **진주**의 형상을 줍니다. 살아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구체적인 경험은 이 **진주 이미지를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제칠일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일곱 번째 천년기를 예언하기 위해 안식일과 일곱 번째 천년기에 “**값진 진주**” 외에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귀중한 보석의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이 개념은 계시록 21:21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고. 각 문은 하나의 구슬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광장은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화의 표준의 독특함과 동시에 재림교회의 믿음의 시련을 묘사하는 상징적 “**문**”을 통해 **일곱째 천년 안식일에 진입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독특한 보상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보다 먼저 온 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느니라. 잘려진 **보석**의 형상을 잇는 **진주**의 형상을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신 교리적 진리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예외를 두지 않으시지만, 관련 시기에 따라 구원을 얻는 데 요구되는 거룩함의 표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살펴본 기독교 시대는 주로 로마 교황 정권 수립 이후, 즉 538년 이후 종교적으로 형식화 되어 죄가 돌아오는 시대에 관한 것이다. 안식일은 1843년 봄 이후 단 8:14의 법령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묘한 암시를 통해 예수님은 진주 구입을 제안하셨습니다. 계 3:18 “**내가 네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고 구원을 얻으라**” **네 눈에 기름을 발라 네가 보게 하라**.” 예수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것들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심판 안에서 “**진주**”라는 상징적인 면을 주는 요소들을 구성합니다. “**진주**”는 **그분에게서 “사야”** 하며,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는 믿음을 위한 싸움의 기초인 극기의 대가입니다. 각각의 순서에 따라 예수님은 선택된 사람에게 영적 부를 주는 시련을 통해 검증된 믿음을 팔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영적 벌거벗음을 덮는 그분의 순수하고 흠 없는 의;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계획에 대해 죄 많은 인간의 눈과 지성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도움.

기독교 시대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택하신 자들이 그의 거룩한 일곱째 날, 즉 그의 안식을 위해 거룩하게 된 안식일의 장엄함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이 지상 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로 사랑하고 존중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동물적인 지상 생활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8:14의 법령

단 8:12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 *그 뿔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 사업을 성공시키니라.* ” 시편 119:142에 따르면 “ *진리* ”는 “ *율법* ”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사야서 9장 14절에 따라 요한 계시록 12장 4절에서 그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 *꼬리* ”라는 용어로 교황의 “ *거짓 선지자* ”를 특징 짓는 “ *거짓말* ”과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의 종교적인 “ *거짓말* ”을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 진리를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의 “ *사업* ”은 “ *성공* ” 할 수밖에 없었는데 ,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21년 3월 7일 이래로 자행된 기독교인의 불신앙을 처벌하기 위해 그의 출현을 초래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은 세상 끝날까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13절에서 성도들은 “ 영원한 죄 ”와 “ 파괴적인 죄 ” 의 강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들. 하지만 이 “ 파괴적인 죄 ” 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 문제의 황폐화는 인간의 영혼이나 생명의 황폐화입니다. 궁극적으로, 멸종된 전체 인류는 일곱 번째 천년기의 “ 천년 ” 동안 행성 지구를 원래의 형태인 “ 혼돈하고 공허한 ” 상태로 남겨두게 될 것이며, 이는 아포 9:2-11, 1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7, 17:8, 20:1-3, 창세기 1:2의 “ 깊음 ” 이라는 이름 .

“ 성도들 ”도 “ 기독교인” “ 거룩함과 주인 ”이 언제까지 짓밟힐 것인지 묻습니다. ". 이 장면에서 이 “ 성도들 ”은 단 10:12에서 “ ... » 신성한 프로젝트를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언급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14절에 나오는 단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히브리어 원문을 수정하고 개선하도록 인도하신 결과, 주어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모호한 전통의 텍스트: “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까지 성소는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소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 더욱이 동사 “ 정화 ”는 “ 정당화”로 대체됩니다. ", 세 번째 변화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실제로 단수인 “ 저녁 아침 ”이라는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녁과 아침을 나누었다고 주장하면서 총 수를 둘로 나누어 그 수를 바꾸려는 자들의 모든 정당성을 제거하십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Gen.1에서 하루 24시간을 정의하는 “ 저녁 아침 ” 계산 단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 그제서야 정령은 이 유닛의 숫자인 "2300"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인용된 예언의 총 날수는 보호됩니다. “ 의롭게 하다 ” 라는 동사의 어근은 히브리어로 “정의”, “체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안하는 번역은 그 자체로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qodesh"에 관한 오류로 인해 이 용어가 히브리어로 "miqdash"인 “ 성소 ”로 번역됩니다. “ 성소 ”라는 단어는 다니엘 8장 11절에서 잘 번역되었지만,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께서 “ 거룩함”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코데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곳이 없습니다 .

“ 파괴적인 죄 ”가 특정한 신성한 성화의 목적인 안식일을 버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때 , 이 “ 거룩함 ”이라는 단어는 예언적 메시지의 의미를 상당히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급된 “ 2300주야 ”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거룩함과 “ 영원한 정의 ”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참된 “ 일곱째 날 ”의 남은 시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 파괴적인 죄 ”의 종식에는 이교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제정한 태양의 전일인 일요일에 대한 종교적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시대에 널리 퍼졌던 구원의 교리적 규범을 다시 확립하셨습니다. “ 거룩함 ”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모든 교리적 진리를 포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을 그 모델과 기원으로 삼는 기독교 신앙은 골고다의 발 아래 있는 지하 동굴에 숨겨진 시은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의해서만 새로운 동물 희생의 대체를 가져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1982년에 그의 종 론 와이어트(Ron Wyatt)에게 계시하고 보여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거룩함 ”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주제의 발견은 점진적이며 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2018년, 이 시간은 계산되고 제한되어 있으며, 오늘 2020년에는 모든 측면을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이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은 영혼을 죽이는 법령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면 로마 카톨릭 일요일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 제안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려받은 전통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정죄하신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말 3:18) 에 영향을 미치는 운명에 관하여 “ *차이* ”를 표시하실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

말라기 3장 6절에서 “ *나는 변하지 아니하노라* ” 라고 친히 선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라는 생각 자체에 도전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1843~44년에 성취된 변화가 단지 오랫동안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원래의 규범을 재확립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불완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전가된 축복이 예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이유이며,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참된 신앙의 모델로 제시될 수 없습니다. 초기 개혁자들을 위한 이 특별한 심판은 매우 예외적이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여 계시록 2장 24절에서 1843년 이전에 개신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어.*”

단 8:14의 이 법령을 적용할 때 첨부된 “ *화* ”는 너무 “ *큰* ”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8:13에서 세 가지 “ *큰 화* ”를 선포하심으로써 그것을 알리셨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결과로 인해 발효일을 아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 8:13에 나오는 “ *성도들* ”의 관심사였습니다 . 그 기간은 이제 다니엘의 당시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주어진 암호에 따라 예언적 “ *2300일* ”, 즉 실제 태양년 2300년 으로 밝혀졌습니다 (겔 4:5-6). 로마인의 “ *죄* ”를 끝내는 것을 주제로 하는 이 8장은 단 9장에서 부족한 요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역시 “ *죄를 끝내는 것* ”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영생을 잃게 된 원죄 . 그 사역은 메시아 예수의 지상 사역과 그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그의 완전한 생명의 자발적인 봉헌에 기초할 것이며 내가 명시한 것은 그들 중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오시는 시기는 예언의 시대에 예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 민족에게 “*죄를 그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실제 1년인 490일에 해당하는 “70주”입니다. 그러나 이는 계산의 시작점을 연대 측정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을 때부터 기를 부음 받은 자까지... (7 + 62 = 69 이레).” 세 명의 페르시아 왕이 이 권한을 부여했지만 세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1세만이 에스라 7:7에 따라 이 권한을 완전히 이행했습니다. 그의 왕실 법령은 기원전 458년 봄에 공포되었습니다. 69주라는 기간은 26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속죄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의 기초를 세우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예비된 마지막 “7년”을 목표로 합니다. 성령은 Dan.9의 27절에서 “*중간*”에 있는 이 “*주간*”을 제시하며, 그의 자발적인 죽음으로 “*그는 제사와 제물을 그치게*” 합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쳐진 것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죄를 끝내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정의 보답으로 죄에 대항하여 그분의 도움으로 싸울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다른 많은 인용문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교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동맹은 단지 옛 동맹을 대체할 뿐입니다. 따라서 두 언약은 단 9:25에 나타난 동일한 예언적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458년이라는 날짜는 유대 민족에게 고정된 70주를 계산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관한 단 8:14의 실제 2300일의 계산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짜의 정확성 덕분에 우리는 30년에 메시아의 죽음을, 1843년에 단 8:14의 법령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메시지 모두 죽음이 그들에게 닥칠 때까지, 또는 세상 이전에 있을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다른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필멸의 결과를 가져오는 “*죄를 끝내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삶은 선택받은 자의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진실한 회심을 허용합니다.

P 수리

책의 집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단어를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고 계시록 22:18-19에서 그는 원본 이야기를 대대로 전달하거나 복사할 책임이 있는 번역자와 서기관에게 단어의 사소한 변화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매우 높은 거룩함을 지닌 매우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래의 작은 조각이라도 수정하면 조립이 완성될 수 없는 거대한 “퍼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신성하게 거대하며, 그 성격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 종말에 대한 그의 “종들”, 더 정확하게는 “ 그의 종들 ”에게 이 예언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예언은 예언된 요소들이 곧 성취되거나 대부분 성취될 때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구원 프로젝트가 지속될 전체 시간의 길이는 항상 사람들에게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종은 언제나 세상의 종말을 목격할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바울은 자신의 말로 이를 증언합니다. “ 형제들아,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때가 짧다** . 이제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되고, 세상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는 자 같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느니라(고전 7:29~31).”

우리는 바울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택하신 자들의 선택을 끝내시려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의 참된 선택자들은 그분의 영감받은 권고를 실행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오직 택하신 자들의 영생만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 내가 **속히 오리라** ”는 말씀은 참되고, 완벽하게 정당화되며, 우리 시대인 이 마지막 때에 적합합니다. 그가 돌아온 지 9년 후,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우리는 단 7:25에서 로마의 목적이 “ **시대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밧모섬에 억류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묵시록의 신비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된 때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하신 묵시록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이용하여 책이 비난받고 비난받는 존재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우리 시대의 20세기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무해하고 신비한 특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변화된 시대, 특히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잘못된 날짜에 로마가 정한 달력은 선택받은 자들이 신성한 예언을 해석할 때 속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그 기간의 시작과 끝이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여 쉽게 식별되고 전문 역사가들이 날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묵시록에서 시간 개념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책의 전체 구조가 시간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해는 1844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회복하신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달려 있었습니다. 1980년에 시작된 나의 사역은 안식일의 예언적 역할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곱 번째 천년기,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자, 요한계시록 20장의 주제. 벤후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창조의 7일 형상과 7일 창조의 형상이 연결되는 것이다. 신성한 계획의 전체 시간인 천년만으로도 나는 이 책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식을 통해 예언은 더욱 명확해지고 그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따라서 예언은 그 소식이 그리스도교 시대의 역사 속 연대와 연결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생생하고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5장 5절과 10장 2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는 이 “*작은 책 펴서 펴라*”를 선포하게 하소서.

건축 측면에서 묵시록 비전은 사도 시대의 끝인 94년경과 203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을 잇는 일곱 번째 천년기 말 사이의 기독교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공유합니다.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에서는 기독교 시대를 개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책의 연구를 통해 얻은 주된 가르침은 단 8:14이 정한 1843년 봄의 중추적 날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끝난 1844년 가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교회 신앙의 기초를 놓으신 것은 1844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이 두 날짜는 매우 중요하므로 하나님은 계시록에 대한 그분의 비전을 구성하는 데 이 날짜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두 마감 날짜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예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시작된 1843년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이날 최초의 영적 희생자들은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의 첫 번째 재림교회 발표를 경멸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시기는 1844년 10월 22일 예수의 재림에 대한 두 번째 발표와 함께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10월 23일에 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식화되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집단 테스트는

끝났지만, 개별 전환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더욱이, 사실 재림교인들은 모두 아직까지 죄로 분류되지 않은 로마 일요일의 휴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재림교인 전체가 그 주요 역할을 깨닫지 못한 채 점차적으로 재림교인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나로 하여금 거짓 개신교 신앙의 종식일인 1843년 봄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재림교회의 시작일인 1844년 10월 23일을 선호하게 만든다. 이미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봄과 가을이 연결되어 있었다. 정반대되는 보완적인 주제를 기념하는 축제를 만들어냄으로써; 한편으로는 봄의 “유월절”의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영원한 정의 이고, 가을과 다른 곳에서 죄의 “속죄일”을 위해 죽임을 당한 “*염소*”의 죄의 끝입니다. 두 가지 종교 축제는 메시아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기원 30년 유월절에 성취되었습니다. 1843년 봄과 1844년 10월 22일도 의미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7:24에 따르면 믿음의 시험의 목표는 “*죄를 끝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 날에 매주 안식을 취하는 가증스러운 관습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용도를 위해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을 위해 이것을 지상 창조의 첫 주가 끝날 때부터 정하셨습니다. 우리보다 5991년 앞선 2021년.

우리는 또한 1843년 봄의 날짜를 정의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법령의 날짜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는 이 순간이 그때까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에 확립된 모든 관계를 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연속적인 재림교회 발표를 바탕으로 최종 선택을 하셨습니다. 1843년 봄부터 안식일이 기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이 그분께 속했다는 축복되고 성스러운 표시로 1844년 가을까지 시험의 승자에게 안식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겔20:12-20, 앞서 본 바와 같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값진 승리를 치르지 않으셨다면, 모든 신성한 도움과 모든 계시된 빛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어떤 영혼도 그 승리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장됩니다. 그분의 예언적 빛은 그분이 자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이신 만큼 그분의 택하신 자들도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은 단 7:24에 따라 그분의 “*영원한 공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지만, 그분의 계시는 우리의 길을 밝히고 마귀가 놓은 영적 함정을 보여 주어 우리가 그의 끔찍한 운명을 함께 하게 만듭니다. 이 경우 구원은 구체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미묘한 함정의 예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으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시대의 맥락에 몰입한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면, 그의 대적 마귀 사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의 전략과 행동을 적절하게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그 당시 공개적인 박해 전쟁에서 “용”의 형상으로 행동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만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니라. 그가 오실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가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은 자신의 목격자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확인하기 위해 “육신으로 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그의 확언은 321년 3월 7일부터 기독교가 거룩하게 된 참 제칠일인 참 안식일의 실천을 버리고 배교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에 의해, 1843년까지 죄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의 가치를 감소시켰고, 같은 날 이후로 그것은 모든 가치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원수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그분이 선포하신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리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기적”은 마귀와 그의 악귀들에 의해 행해진 것입니다.

목시록 요약

영광스러운 계시의 시작인 1장 서문에서 성령께서는 준비된 잔치의 메뉴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보편적이고 주로 미국 개신교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이미 1843년과 1844년에 조직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선포한다는 주제를 발견합니다. 이 주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3절, *때가 가까웠음이라*; 7절,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즉 *주의 날*, 말 4:5에 따르면 “*크고 두려운 날*”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 *뒤에는* 기독교 시대의 역사적 과거가 있습니다. *아시아 7개 도시* (현재 터키) 에서 차용한 7개 이름의 상징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와 같이 *편지와 인과 나팔의 세 가지 주제*가 기독교 시대 전체를 병행하되 각각 두 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구분이 단 8:14에

명시된 1843년의 중추적인 날짜에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각 주제 내에서 대상 시대에 맞게 다니엘서에 확립된 영적 표준에 맞춰 조정된 메시지는 해당 시간의 7가지 순간을 표시합니다. 7, 그 “인” 역할을 하고 계시록 7장의 주제가 될 신성한 **성화** 의 수 .

시간의 개념은 첫 번째 장에 인용된 "일곱 교회"의 이름의 의미에 의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나오는 설명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편지 주제에서 우리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 ; “ *인봉과 나팔과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재앙* ” 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런 식으로 일부 사람들은 그 소식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고대 카파도키아와 현재 튀르키예의 이 도시들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언에서 이러한 도시 이름을 제시하는 순서는 기독교 시대 전체에 걸쳐 종교적 역사적 사실이 성취된 순서를 연대순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 이미 얻은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 이름의 의미를 통해 각 시대에 부여하시는 특성을 정의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개된 순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1- *에베소* : 의미: 발사(하나님의 성소 또는 집회의 발사).

2- *서머나(Smyrna)* : 의미: 몰약(하나님을 위한 죽은 자의 기분 좋은 냄새와 방부 처리; 303년에서 313년 사이에 신실한 선택된 자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

3- *페르가몬(Pergamon)* : 의미: 간음(321년 3월 7일 안식일이 폐지된 이후, 538년에 확립된 교황 정권은 종교적으로 첫날의 나머지 날을 일요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4- *두아디라* : 의미: 가증함과 죽음의 고통(가톨릭 신앙의 악마적인 본질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개신교 종교 개혁 시대를 지정합니다. 기계 인쇄 덕분에 성경의 보급이 선호되었던 16^{세기} 무렵의 시기).

5- *사르디스(Sardis)* : 이중적이고 반대되는 의미: 경련을 일으키는 돌, 보석. (그것은 하나님께서 1843-1844년의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신 심판을 계시합니다 . 경련적인 의미는 거부된 개신교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 *너는 죽었느니라* ”, 그리고 보석은 시험의 선택된 승자를 지정합니다: “ *그들은 함께 걸을 것이다 나에게 흰 옷을 입힌 것은 그들이 합당하기 때문이니라* .”)

6- *빌라델비아* : 의미: 형제애(*사데* 의 보석은 1863년 이래 재림교회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 12:12에 정의된 1873년에 수여되었습니다. 현재 축복을 받은 그녀는 그러나 *자신의 왕관을 빼앗길*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

7- *라오디게아* : 의미: 사람들이 판단함: “ *춤지도 덤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 (“ *그의 면류관을 빼앗긴 것은 필라델피아* 입니다 : “ *너희는 불행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 기관은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1980년과 1994년 사이에 1844년의

개척자들이 신성한 축복을 얻었던 것과 동일한 신앙의 시험에 의해 시험되고 시험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계시된 예언의 빛에 대한 사랑과 모든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특징인 온유하고 순종적인 성품을 통해 식별하고 선택하신 흠어져 있는 재림교인들을 통해 계속됩니다.

“계속”에서, Apo.4는 “24 보좌”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천상의 심판의 장면(*하늘에서*)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악인을 심판한다. Rev.20과 병행하여 이 장은 일곱째 천년기의 “천년”을 다룬다. 설명: 왜 왕좌가 12개가 아닌 24개인가? 왜냐하면 기독교 시대가 1843년부터 1844년까지의 기간에 신앙 시험의 시작과 끝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중요한 제쳐두고 Rev.5는 예언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거룩하신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에 의해서만 가능해질 것입니다.

계시록 6장과 7장에서는 기독교 시대를 새로운 주제의 시선으로 다시 고찰할 것이다. “일곱 인”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6개는 무대 위의 주요 배우들과 기독교 시대 구분의 두 부분을 특징짓는 시대의 징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Apo.6의 경우 1844년까지; 그리고 1844년부터 Apo.7의 경우.

계시록 8장과 9장의 처음 여섯 가지에 대한 경고 형벌과 계 11:15, 19에서 항상 구별되는 “*일곱째 나팔*”에 대한 *최종 형벌을 상징하는 “나팔”*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Apo.9 뒤에 있는 Apo.10은 세상 종말의 시기를 목표로 하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두 대적, 즉 가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앙의 영적 상황을 불러일으킵니다. 1994. 10장은 이 책의 계시의 첫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주요 주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지고 전개될 것입니다.

깊음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상징적 이름 아래 확립된 국가적 무신론을 신이 사용하는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역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계시록 13:1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카톨릭 정권의 권력을 파괴하십시오. 따라서 Apo.7에 언급된 보편적인 종교적 평화는 1844년에 획득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혁명적 정권을 임박한 제3차 세계 대전의 이미지 또는 Apo.9:13의 “*6번째 나팔*”로 삼아 참된 평화를 구성합니다. “*둘째 화*”는 계시록 8장 13절의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주제를 제시한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기독교 시대에 대한 또 다른 개요를 제시합니다. 그는 특히 악마와 그의 천사 지지자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완성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후 단 10:13, 12:1에서 이미 인용한 천상의 이름인 *미가엘* (단 10:13, 12:1), 즉 예수 안에서 인간 성육신 이전에 하늘에서 지냈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하늘을 그들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악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체 차원에 영원히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악귀의 유혹과 생각에서 구원받은 하늘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행복한 하늘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추방 이후 그들은 우리 지상 차원에 갇혀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2030년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 하나님의 지상 적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개요에서 성령은 악마의 전투의 두 가지 전략, 즉 공개 전쟁, 비난받는 제국 또는 교황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기만적인 종교적 유혹을 각각 지정하는 " 용 "과 " 뱀 "의 연속을 이미지화합니다. 가면을 벗고 거의 인본주의적인 바티칸 교황권, 히브리인의 경험에서 차용한 미묘한 이미지에서는 " 땅이 입을 열어 " 가톨릭 연맹의 교황의 공격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작업은 프랑스의 무신론 혁명가들에 의해 수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거짓 기독교의 개신교 군대에 의해 시작될 것입니다. 개요는 " 여성의 나머지 후손 " 에 대한 언급으로 끝날 것입니다 . 그런 다음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의 참된 성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십니다. " 성도의 견인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니라 ". 성령께서는 나처럼 그분의 예언적 계시에 매달리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며 끝까지 하늘이 주신 진주를 모으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13장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두 명의 공격적인 종교적 적들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 13장에서 그들을 정의하는 창세기 이야기의 " 바다와 땅 " 이라는 단어의 관계에서 암시된 것처럼 첫 번째 짐승에서 두 번째 짐승이 나온 두 마리의 " 짐승 "으로 그들을 이미지화합니다 . 첫 번째 짐승은 이전에 행동했습니다. 1844년과 두 번째 해는 지상 시간의 마지막 해에만 나타날 것이며, 이로써 인간에게 제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릴 것입니다. 이 두 " 짐승 "은 첫째로 카톨릭인 모교회이고, 둘째로 그로부터 나온 개신교 개혁교회인 그 딸들이다.

1844년 이후 기독교 시대의 두 번째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은 영원한 조건에 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진리의 세 가지 메시지, 즉 거룩한 안식일의 실천을 회복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정죄를 상기시킨다. , 그리고 그가 로마 제국과 교황의 인간적이고 악마적인 권위의 " 표식 "으로 지정한 일요일을 존중하는 개신교에 대한 비난. 준비 사명의 시간이 " 추수기 " 로 상징되는 선택된 성도들의 휴거와 " 포도수 " 로 상징되는 반역적인 교사들과 모든 불신자들의 파멸 로 연속적으로 끝날 때 , 땅은 다시 모든 형태의 지상 생물이 없는 창조 첫날의 " 심연 ". 그러나 그것은 " 천년 " 동안 살아 남아 있을 것이며 , 선택받은

거주자인 사탄, 마귀 자신은 최후의 심판에서 파멸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모든 반역자들과 천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Rev.15는 시험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초점을 맞춘다.

계시록 16장은 "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재앙* "을 계시하는데, 이 재앙은 은혜의 기간이 끝난 후, 믿지 않는 마지막 반역자들에게 임하며, 그들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율법을 관찰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명할 정도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 이전에 의로운 신성한 안식일입니다.

큰 바벨론 "이라 불리는 "큰 창녀"의 정체를 밝히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용어로 성령께서 제국과 교황의 " *큰 도시* "인 로마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장은 또한 그녀의 미래의 심판과 불에 의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양과 그의 신실한 택자가 그녀를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 *큰 바벨론* "의 " *추수* ", 즉 *형벌* 의 시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공포에 질린 지상의 반역자들과의 대결을 묘사합니다.

Rev.20은 선택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그리고 사탄에 의해 고립되어 황량한 땅에서 매우 다르게 경험되는 일곱째 천년의 천년의 시간을 목표로 합니다. 천년 끝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조직하실 것입니다. 즉 모든 땅의 인간과 하늘의 천사 반역자들을 하늘과 지하의 불로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택자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성회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의 완전성은 땅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가장 귀중한 것, 즉 금, 은, 진주, 보석과의 비교를 통해 예시됩니다.

Apo.22는 죄의 땅에서 영원히 발견되고 세워진 잃어버린 에덴으로의 복귀를 이미지로 상기시킵니다. 이 땅은 재생되고 변형되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하고 위대한 하나님, 창조자, 입법자, 구속자의 보편적 보좌가 됩니다. 세상에서 구속받은 것과 함께.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간략한 개요가 끝나며, 자세한 연구를 통해 방금 말한 내용을 확증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숨겨진 추론을 드러내는 매우 영적인 설명을 추가합니다.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라는 미묘한 암시를 통해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묵시록의 구성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은 그가 " *변하지 아니하며* " " *영원히 동일* " 할 것임을 확증하십니다. 또한 나는 묵시록에서 " *총회에 보내는 편지* ", " *인장* ", " *나팔* "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병행하는 동일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Apo.5에 따르면 묵시록이 " *일곱 인* " 으로 닫혀 있는

책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으며, " *일곱째 인* " 을 떼야만 8장부터 22장까지의 해석과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7장은 계시된 신비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주제는 바로 안식일이며, 이는 1843년 이래 참된 거룩함과 거짓된 거룩함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Apo.7에서 1843년 봄에 개신교를 수수께끼로 만든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묵시록은 다니엘에게 계시된 이 근본적인 가르침을 확증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승리자로 등장한 재림교회의 경우, 묵시록은 1994년에 대한 시험을 차례로 밝혀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빛은 다시 한 번, "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 " 이상을 만들 것입니다.

2부: 묵시록에 대한 자세한 연구

요한계시록 1장: 프롤로그 – 그리스도의 재림 – 재림교 주제

프레젠테이션

1절: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신성한 계시의 보관자입니다. 요한(John)은 히브리어로 “요한(Yohan)”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은 내 이름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메시지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내용이 무한합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속성을 다시 되찾으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하늘에서 자신의 종들,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종들”을 위해 행동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처럼, “미리 경고받은 사람은 미리 무장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그의 종들에게 미래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속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지**”라는 표현은 그 메시지가 서기 94년에 주어졌고 지금이 이 문서가 쓰여진 시기인 2020-2021년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즉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동시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편재하는 계시록에 포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다루는 요한계시록 9:1-12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최종 시험에서 믿음으로 입증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지막 “재림교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이 장의 5절과 10절은 나까지 잘못 해석되었던 “다섯 달”이라는 예언적 기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연구에서 이 기간은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새로운 날짜를 1994년, 즉 그리스도의 진정한 탄생의 실제 해인 2000년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공식

재림교회를 마지막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하고 형식주의적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묵시록에서 그분의 적으로 계시하신 자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2018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재림 날짜를 알고 있으며, 이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어떤 데이터에도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모두 정한 때에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재림은 창세기 기록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7일은 죄와 죄인들을 제거하고 그의 영원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체 계획의 7,000년의 이미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 6000년 동안 선택된 사랑하는 자들. 히브리 성소나 성막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6000년이라는 시간은 2000년의 3분의 3을 차지합니다. 마지막 1/3의 시작은 30년 4월 3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유대 달력이 이 날짜를 확증해 줍니다. 따라서 그 귀환은 2000년 후인 2030년 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앞에 이같이 가까웠음을 알므로 “**속히**”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정당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여러 세기에 걸쳐 알려지고 읽혀졌지만, 우리 세대에 관한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얼어붙고,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2절: “...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계시록 19:10에서 “**예언의 영**”으로 정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구성하는 환상입니다. 메시지는 ‘**본**’ 이미지와 들은 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요한은 기독교 시대의 종교사의 위대한 주제를 형상으로 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세상의 우발적인 사건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적들에게 영광스럽고 가공할 만한 복귀로 끝날 것입니다.

3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웠느니라.”

나는 나에게 마땅한 역할, 곧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의 **팔복**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동사 읽기에 정확한 논리적 의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사야 29:11-12에서 설명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계시는 봉한 책의 말씀과 같으니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 이르기를 이것을 읽으라! 그리고 누가 대답합니까?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을 주면서 “이걸 읽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답합니까? 나는 읽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이러한 무능력의 원인을 드러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가까이 올 때에 그 입과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니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전통에 따른 계율일 뿐입니다.” “인봉된” 또는 봉인된이라는 용어는 묵시록이 봉인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측면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요한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것을 완전히 열고 봉인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참된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과 이미지에 드러난 진리를 “듣고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동사들은 “이해하고 실천하다”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형제 중 한 사람인 “읽는 자”로부터 예언의 신비를 설명하는 빛을 받아 기뻐하고 그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믿음, 신뢰,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교만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체질하여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공식 번역가이자 전달자인 인간은 잊어버리고 참 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함께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7개의 의회”에 대한 언급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문자 A가 있는 의회는 영원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총회”는 반드시 일곱 개의 연속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총회를 가리킵니다. 그 일은 확인될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독교 시대를 7개의 특정 시기로 나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언급은 유용하고 타당합니다. 11절에 제시된 이름은 소아시아, 즉 현재 터키 서쪽에 위치한 고대 아나톨리아에 존재하는 도시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유럽의 한계와 아시아 대륙의 시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나톨리아라는 단어처럼 아시아라는 단어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뜻은 아카드어와 그리스어로 **떠오르는 해를 의미** 하며 누가복음 1:78-79에서 “떠오르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 하나님의 진영을 암시합니다. 이 능력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 그는 또한 말 4 : 2의 “의의 해”이십니다. 너희는 나가서 마구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오를 것이다.” 인사말의 형식은 요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주고받은 편지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표현, 즉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게서”로 지칭됩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어 원어와 다른 번역본에서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인 “YaHWéH”의 의미만을 반영합니다. 이는 히브리어의 불완전 시제에서 3인칭 단수로 활용된 동사 “to be”입니다. 불완전하다고 불리는 이 시제는 시간에 따라 확장되는 성취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활용형에는 현재 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누가 오느냐 ”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인 재림교를 더욱 확증합니다. 이로써 이교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개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을 지칭하는 또 다른 참신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 인용문은 Rev.5:6에 나타날 것입니다. 숫자 7은 성화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그의 피조물에게 부여된 신성한 영의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 그의 보좌 앞에 ”.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 죽임을 당한 어린양 ”은 이러한 상징들과 연결되어 있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전능하심을 확증해 줍니다. “ 하나님의 일곱 영 ”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는 히브리 성막의 “ 일곱 가지 촛대 ” 로 상징됩니다 . 그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4000년,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예수께서는 30년 4월 3일에 택함받은 자들의 죄를 속죄하셨고, 이로써 그는 죄의 휘장을 찢으시고 계획된 6천년 중 마지막 2천년 동안 구속받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천국으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택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온 땅의 민족들 가운데 흘으셨느니라

5절: “ ...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

예수 그리스도 ” 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지상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기 위해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에 대한 완전한 충실성으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안된 “ 신실한 증인 ”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벌거벗은 몸을 입기 위해 죽임을 당한 첫 번째 동물의 죽음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은 참으로 “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분의 신성한 중요성으로 인해 그분의 죽음만이 마귀와 죄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효과 와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종교 역사상 모든 “ 장자 ”보다 먼저 “장자”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히브리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 구출 ”하기 위해 반역적인 애굽의 모든 “ 처음 난 ” 인간과 동물, 곧 죄의 형상을 죽게 하신 것은 그의 죽음을 생각하심으로 그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 이미 “ 죄 ” 의 상징이자 이미지입니다 . “ 장자 ”로서 영적 장자권은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 땅의 왕들의 왕 ” 으로 나타내심으로써 구속받은 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 땅의 왕들 ”은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새로워진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해의 왕국의 삶에 대한 신성한 표준에 충실한 해의 왕국의 존재들의 겸손, 동정심, 우정,

형제애, 사랑의 수준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이 “스승이요 주”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그는 영원히 “왕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들”은 또한 자기 형제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왕자”라는 칭호를 부여하심으로써 자신을 “이 세상의 왕자”라고 부르는 그의 대적이자 패배한 경쟁자인 마귀의 수준에 두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육신은 두 “군왕”의 대면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세상과 그 피조물의 운명은 위대한 승리자 예수 미가엘 야훼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부분적으로 그의 신성 덕분입니다. 첫 아담이 패배한 지 4000년이 지난 후,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마귀와 동등한 조건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신 상태와 자신이 선택한 자들만을 구하기 위해 승리하려는 결단력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분은 충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순한 “어린 양”이 육과 영을 삼키는 “늑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 주면서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위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선출된 총회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의하는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대 이스라엘은 옛 언약의 의식에서 예언된 영적인 형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참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섬김으로써 그의 왕권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들은 또한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몸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자신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그들은 고대 예루살렘 성전의 분향단에 바쳐진 향유를 전달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사이의 분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는 많은 거짓 기독교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희생하여 아들을 “공경”한다고 주장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321년 3월 7일 이후로 기독교 신앙의 잘못, 즉 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아버지의 경륜인 옛 언약의 유대인들에게만 관련된 규례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그분의 신성한 본성 안에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광과 능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 “아멘” 즉,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재림교 주제

7절: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것을 볼 것이며 심지어 그것을 찢은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때문에 애통할 것이다. 예.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따르면, 그분은 “하늘에 오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은 적들을 놀라게 할 극도의 하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실제 프로젝트에 반대함으로써 “그를 찢은 자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그분이 오실 당시의 인간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거나 죽음을 당할 때, 예수께서는 그들과 동일시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에 동참하십니다. 내 형제들이여, 당신이 나를 위해 그것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40).”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이 메시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구원 사업을 방해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은혜와 영원한 구원을 좌절시키는 모든 인간에게 이 행동을 전가시킵니다. 예수께서는 “땅의 족속들”을 언급하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들이 그의 참된 선택자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애통해할 정당한 이유를 갖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위한 프로그램의 세부점은 계시록의 여러 장에 걸쳐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요한계시록 6장 15-16절이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큰 자들과 천부장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 안에 숨어 동굴과 산 바위. 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분은 하늘에서 신성한 영광을 찾으신 감미로운 예수님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증거를 갖기 위해 이 구절을 요한계시록 22:13-16의 구절과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일을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씨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4절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모세의 친구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 아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출 3:14에 따르면 모세의 히브리 이름은 “야웨”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을 부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부르는지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나는 있다”는 “야웨”의 형태로 “그는 있다”가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 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공하신 전체 계시를 요약합니다. 일주일의 실제 6일이라는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확인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지구와 지구가 지탱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이 6일 또는 “6000”년은 2030년 봄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의 재림과 그의 충실한 성도들의 휴거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 라는 표현을 통해 후기 성도들에게 자신이 재림하실 실제 시간을 알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6000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2018년 봄까지 기다려야 했고, 2022년 1월 28일에 이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과 연관시켜야 했습니다.

9절: “*너희 형제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즉 환난 뭉, 왕국 뭉, 인내 뭉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신성한 환상을 받은 상황을 간증합니다. 그가 파괴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로마인들은 마침내 그를 밧모 섬에 유배시켜 남자들에게만 증언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구성하는 예수의 증언을 평온하게 받기 위해 밧모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두 예언의 두 저자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받았다는 점을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이빨에서 구해졌고 요한은 끓는 기름이 담긴 통에서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격려하고 싶은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심으로써 자신의 종들 사이에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언 사역은 고전 12:31에서 “*더 좋은 길*”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나 예언을 받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된 모든 사람은 예언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즉, 이웃에게 주님의 진리를 증언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재림교회 시대에 대한 요한의 견해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이라는 표현은 비극적인 해석을 선호할 것입니다. JN Darby는 자신의 성경 번역에서 "일요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계시록 13:16에서 마귀가 이끄는 " 짐승 "의 시들여가는 " 표 "로 간주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스러운 안식의 일곱째 날인 그분의 왕의 “ 인장 ”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어원적으로 "일요일"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날"을 의미하지만, 문제는 그 날이 한 주의 첫날을 안식에 바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날을 명령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거룩하게 하신 영원한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이 구절에 인용된 “ 주의 날 ”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나 그 대답은 이미 7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으신 “ 여호와와 의 날 ”이 있습니다. “ 보라, 여호와와 의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 (말라기 3:5)” ; 재림교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 “기대”를 창시한 사람은 1843년, 1844년, 1994년에 세 번의 시련으로 인해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모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에 살고 있는 요한은 일곱 번째 천년기의 시작 부분에 있는 영입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신성한 영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 뒤에 ”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기독교 시대의 전체 역사적 과거; 예수의 죽음 이후 기독교의 2000년; 2000년 동안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 가운데 서서 성령 안에서 그들이 마귀와 죄와 죽음을 물리치셨듯이 악을 물리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의 “ 뒤에서 ” 들리는 “ 큰 음성 ”은 “ 나팔 ”처럼 개입하여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일곱 세상에서 그들의 삶에서 직면하게 될 악마적인 종교적 함정의 본질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름을 지정할 시대.

11절: “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신지라.” ”.

본문의 외견상 형태는 문자적으로 요한 시대의 아시아의 이름이 붙은 도시들이 수취인으로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 고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지에 부여하신 진정한 의미를 가리기 위한 기만적인 걸모습일 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람에게 부여된 고유명사는 히브리어, 칼데아어, 그리스어 등 그 어근에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이 일곱 도시의 그리스 이름에도 적용됩니다. 각 이름은 그것이 대표하는 시대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이 제시되는 순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의 발전 순서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의 순서가 존중되고 확인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연구에서 이 일곱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와 마지막 이름인

"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는 그들에게만 드러냅니다. 성령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각각 "시작하다"와 "심판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기독교 은혜 시대의 "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은 정의로 소개하신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 그리하여 그분은 그리스도교 시대 전체에 걸쳐 충실한 종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등록하십니다.

12절: " *나는 무슨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서 보니 금촛대 일곱 개가 보였습니다.*

돌이키는 " 행위는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순간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시대 전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 *뒤에* "라는 정밀도 뒤에는 " *나는 돌아섰습니다* ", 그리고 다시 " *그리고, 뒤돌아서* " 가 있습니다. 성령은 과거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우리는 그 논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 *일곱 개의 금촛대* ". 여기서도 " *7개 의회* "와 같은 문제가 의심됩니다. 모델인 " *촛대* "는 히브리 성막에서 발견되었으며,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그의 빛의 거룩함을 함께 상징하는 일곱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관찰은 " *7* " 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집회* ", " *일곱 촛대* "는 하나님의 빛의 성화를 상징하지만 기독교 시대 전체에 걸쳐 일곱 순간에 표시됩니다. 촛대 는 시대의 선택받은 자를 상징하며 , 그 빛으로 선택받은 자를 깨우치는 데 의존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받습니다.

큰 재앙을 알리다

13절: *일곱 촛대 사이 에 인자 같은 이가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더라. »*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가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약속을 예시합니다: 누가복음 17:21: " *그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자가 없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 » ; 마태복음 28:20: "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이 환상은 다니엘 10장의 환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1절은 그것을 유대 민족에 대한 " *큰 재앙* " 의 선포로 제시합니다 .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도 " *큰 재앙* "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인 총회에 대한 재앙입니다. 두 가지 비전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세부 사항이 매우 다른 두 가지 역사적 맥락 각각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시될 상징적 묘사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재림의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 *재앙* 은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세우신 두 동맹의

끝에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이제 두 가지 환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 인자 ”는 *다니엘* 의 “ 사람 ” 이었습니다 .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 *사람의 아들* ”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에 대해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이름을 붙이시는 “ *사람의 아들* ”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기 다니엘서에서 “ *긴 옷을 입으셨고* ”, “ *베옷을 입으셨* ” 습니다. 이 긴 옷 의 의미에 대한 열쇠는 계시록 7:13-14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순교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 *장로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 예수님은 다니엘서에서 힘의 상징인 “ *금띠를 가슴에* ”, 또는 심장에 띠고 *허리에는 띠 를 띠고 계십니다.* 그리고 “ *금 띠* ” 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따른 **진리를 상징합니다.** “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라 . 의의 흉배를 붙이라 ;* ”. 예수님처럼 진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존경을 받습니다.

14절: “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니라.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

완전한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은 결과적으로 죄를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 *큰 재앙* ”을 선포하는 것은 오직 죄인을 징벌하려는 목적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두 가지 재앙 모두에 관련되므로 우리는 여기와 다니엘에게서 “ *눈이 불꽃과 같은* ” 위대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 그분의 시선은 죄나 죄인을 소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궁극적으로 소멸될 거짓 유대인과 거짓 기독교 반역자와는 달리 예수 중 택하신 자는 죄를 버리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 *재난* ” 의 마지막 문맥은 이 책의 장들과 다니엘의 장들에서 모두 확인된 역사적 적들을 가리킨다. Apo.13은 창세기 1장 9-10절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카톨릭 신앙과 그로부터 나오는 개신교 신앙을 가리키는 “ *바다와 땅* ” 이라는 이름으로 식별되는 두 “ *짐승* ” 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제시합니다. . 그가 돌아오면 동맹을 맺은 두 마리의 짐승이 하나가 되어 그의 안식일과 충실한 자들과 싸우기 위해 연합합니다. 요한계시록 6:16에 따르면 그의 적들은 겁에 질려 서지 못할 것입니다.

15절: “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하는 주석 같았으며* ”.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

예수님의 발은 그의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 형상에서는 반역적인 죄인들의 피를 밟음으로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단2:32에서처럼 불순한 합금 금속인 “ *놋쇠* ”는 *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 그의 손에는 펴진 작은 책이 있더라. 그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 습니다. ”. 계시록 14:17~20에서는 이 작업에 “ 포도 수확 ” 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사야 63장에서 전개된 주제. 요한계시록 17:15에서 “ 많은 물 ”은 “ 음녀 큰 바벨론 ” 과 동맹을 맺는 “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방언들 ”을 상징한다. 교황청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이름. 이 마지막 순간의 동맹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반대하도록 그들을 연합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충실한 관찰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분노의 상징을 이해합니다. 환상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느님의 한 개인 “ 음성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십니다.

16절: “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더라.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

그의 오른손”에 쥐어진 “ 일곱 별 ” 의 상징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의 영원한 통치를 회상합니다. 이교도 적들에 의해 너무 자주 그리고 대규모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별은 창세기 1장 15절의 별처럼 종교적 사자의 상징이며, 그 역할은 그의 경우에는 신성한 정의를 “ 땅에 비추는 것 ”입니다. 재림의 날 예수께서는 일곱 성회 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모든 시대의 택하신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그와 그의 신실한 택자들을 위해 그분은 자신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인용된 “ 좌우에 날선 검 ”의 상징인 “ 하나님의 말씀 ”으로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 하나님의 “ 두 증인 ”으로 상징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 신성한 말씀에 나타난 믿음에 따라 이 검이 생명과 죽음을 줄 때입니다. 인간의 경우, 얼굴의 겉모습만이 그 사람을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탁월한 식별의 요소입니다. 이 비전에서 하나님은 또한 목표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얼굴을 조정하십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그리스 신 제우스의 전형적인 상징인 “ 번개 ”로 그의 얼굴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적은 예언을 성취한 안티오코스 4세 왕의 그리스 셀레우코스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시록의 비전, 예수님의 얼굴은 또한 이번에는 “ 강렬하게 빛나는 태양 ”인 그의 원수의 모습을 취합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이 땅에서 근절시키려는 이 마지막 시도가 황제가 321년 3월 7일에 제정한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날”을 존중하기 위한 반란 투쟁의 정점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콘스탄틴 1^어. 이 반군 진영은 2030년 봄의 첫날에 그 모든 신성한 능력 속에서 “ 신성한 정의의 태양 ”을 그 앞에서 발견할 것 입니다.

17절: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으니라.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이런 식으로 반응함으로써 존은 자신이 돌아올 때 자신과 맞서게 될 사람들의 운명을 예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행동을 했으며, 두 경우 모두 예수께서는 자신의 충실한 종인 자신의 종을 안심시키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 그의 오른손 ”은 그의 축복을 확증하며 그의 신실함 안에서, 다른 진영의 반역자들과 달리 택함 받은 자는 그를 사랑으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가 전한 재림교인의 기별이 1843년 이후 특징으로 나타난 마지막 상황을 확증해 줍니다. “ 그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임이로다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앞에 경배할지어다. »; 즉 창조주 하나님이다.

18절: “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 있는 자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 있느니라. 나는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용어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분은 바로 마귀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 처음과 나중 ”이라는 그분의 말씀은 예언에 담긴 시간의 시작과 끝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지만, 동시에 예수께서는 인간 피조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을 주는 자신의 신성을 확증하십니다. “ 죽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 그분은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할지 결정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의 재림의 시간은 그의 성도들이 요한 계시록 20장 6절에 따라 “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복된 자들 ”을 위해 예비된 “ 첫째 부활 ”로 부활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와 로마 유산의 거짓 기독교 전통에 대한 모든 신화를 피하고, “ 죽은 자의 무덤 ”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을 모아 흙으로 변하게 한 땅의 흙임을 이해합니다. 3:19: “ 네가 취함을 받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유해는 결코 다시는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창조주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충실하게 남아 있는 천사들과 동일한 썩지 않는 천체 (고전 15:42)로 그분의 신성한 기억에 새겨진 그들의 모든 인격과 함께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리라. 마태복음 22:30”.

미래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가 확증되었습니다

19절 “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

이 정의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끝날 기독교 시대의 세계적 시대에 대한 예언적 범위를 확증하십니다. 사도 시대는 “ 네가 본 것 ”이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으며 ,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사도 사역의 진정한 목격 증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는 계시록 2장 4절에 인용된 선택받은 자의 “ 첫사랑 ”을 목격했습니다. “ ... “... 그리고 그 뒤에 마땅히 올 일들 ”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일곱째 천년이 끝날 때까지 일어날 종교적인 사건들을 가리킨다.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

“ 일곱 의회의 천사들 ”은 이 일곱 시대 모두에서 선출된 자들입니다. 그리스어 "aggelos"에서 나온 " 천사 "라는 단어는 메신저를 의미하고 "천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설명되는 경우에만 천상의 천사를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 마찬가지로 나의 논평에서 의심되는 ' 일곱 촛대 '와 ' 일곱 총회 '가 여기에 모인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해석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 일곱 촛대 ”는 “ 일곱 성회 ”의 이름으로 지정된 일곱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기록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

요한계시록 2장: 그리스도의 집회 출시부터 1843년까지

편지 주제에서 우리는 Rev.2에서 94년에서 1843년 사이의 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네 개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Rev.3에서는 1843-44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간을 다루는 세 개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이름 : " *에베소* 와 *라오디게아* "는 각각 던지기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은혜 시대의 시작과 끝. 요한계시록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은 단 12:11에 미리 설정된 1828년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재림교회 주제"의 시작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계시록 3장의 시작 부분은 재림교회의 믿음의 시험이 시작된 해인 1843년과 합법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입증된 개신교 신앙을 승인하기 위해 " *당신은 죽었습니다* " 라는 메시지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러한 설명은 다니엘서에 명시된 날짜와 메시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환상은 다니엘이 전개하지 않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시작에 관한 계시를 제시합니다. 우리 시대 전반에 걸쳐 예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내신 편지나 메시지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염려하는 거짓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환상에 대한 종교적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정당한 요구와 항상 정당한 비난을 하시는 진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Rev.2의 네 글자는 연속해서 94년부터 1843년 사이에 위치한 네 시대를 대상으로 한다.

1 교시 : 에베소

94년, 그리스도의 성회 출범의 마지막 증인

1절: “ *에베소 회중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페소스(Ephesus) 라는 이름은 출발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에페시스"를 번역한 첫 번째 단어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총회를 출범시킬 때부터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대(81-96년)부터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때를 목표로 삼는다. 그는 기적으로 살아남은 마지막 사도이며,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회 출범을 목격한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한 능력을 기억하십니다. 그의 축복의 상징, 그의 택하신 자들의 생명, 그가 심판하시는 “ *별들*”, 그들의 믿음의 열매를 상징하는 “ *그의 오른손에*” 쥐고 계신분은 바로 그 분뿐입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 *걸으십니다* .",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삶과 그분이 조직하거나 싸우시는 세상의 사건들과 함께 세대를 거쳐 그분의 계획의 시간에 전진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 *그리고 내가 규정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당신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세상 끝날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은 그가 그들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연습하세요.* 엡 2:10." 그리고 그들은 일곱 시대 각각에 요구되는 특정 조건에 적응 해야 할 것입니다 . " *에베소* " 에 주어진 교훈은 일곱 시대에 유효합니다. 그분은 " *그의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별* "을 땅에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데, 이는 반역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 *촛대* "는 *빛을 줄 때만 유용하다*는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빛을 주기 위해서는 신성한 영의 상징인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2절: "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아노라. 나는 당신이 나쁜 놈들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과 거짓말쟁이를 발견했습니다.* »

주목 ! 동사 활용 시제는 사도 시대의 목표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절에서 현재 시제의 활용형 동사는 94년을 가리키는 반면, 과거 시제의 동사들은 65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 황제 네로가 가한 박해의 시기와 관련됩니다.

94년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온전하고 왜곡되지 않은 진리를 사랑하며, " *악한* " 이교도들, 특히 그들 가운데 당시의 지배적인 로마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에 대한 고대의 다른 많은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아직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거짓말쟁이* "의 정체는 쉽게 드러납니다. 각 시대마다 회심하지 않은 가라지는 밀과 섞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여전히 크고 구원의 메시지가 매력적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리에 잘못된 사상을 도입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사랑의 시험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진정으로 계몽된 선택을 받은 자들에 의해 가면이 벗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시대의 과거인 " *너희가 시험하였느니라* "와 관련하여 성령께서는 어떻게 죽음의 시련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기만적인 가면, 즉 이 절에서 표적이 된 참된 " *거짓말쟁이들* "을 *무너뜨렸는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로마 주민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선택자를 콜로세움의 야수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거 시대의 이러한 열심을 불러일으키셨다는 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3절: " *너희가 인내를 갖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여기서도 동사 활용형의 시제에 주목하세요!

인내의 증거가 여전히 보존된다면, 고난의 증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 30년 전인 65년에서 68년 사이에 피에 굶주린 로마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사악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에게 구경거리로 제시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명백히 나타났고 송고하게 영예롭게 여겨졌던 고난의 용납을 기억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진영이 그 " 이름 " 때문에 " 고통 "을 겪었고 " 지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였습니다.

4절: “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

제안된 위협이 더욱 명확해지고 확인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충실했지만 네로 치하에서 보여준 열심은 약해졌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 첫 사랑을 잃다 "라고 부르신 것은 94년 시대에 첫 번째 사랑보다 훨씬 열등한 두 번째 사랑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5절: “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전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

단순히 진리를 존중하거나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람들을 영원한 동반자로 삼기 위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은 첫 번째 삶의 평가절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영원히 동일합니다.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담당할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면 사람이 자기 영혼과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 “ 촛대 ” 로 상징되는 그분의 영을 제거하겠다는 위협은 하나님에게 참된 믿음이 영혼에 붙어 있는 단순한 꼬리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촛대가 동방, 기독교 신앙이 탄생한 예루살렘, 그리스와 오늘날의 터키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있었습니다. 종교 중심지는 곧 서쪽으로, 주로 이탈리아 로마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6절: “ 그러나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있으니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

이 편지에서 로마인들은 상징적으로 " 악인 "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 니콜라당 "은 승리한 사람들, 즉 당시의 지배자들인 승리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어로 나이키(Nike)라는 용어는 승리를 의인화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자들이 미워하는 “ 니콜라당의 행위 ” 는 무엇입니까 ? 이교주의와 종교적

혼합주의. 그들은 많은 이교도 신들을 기리며, 그 중 가장 큰 신에게는 일주일의 하루가 그들에게 바쳐집니다. 우리 태양계의 일곱 별, 행성 또는 별의 이름을 일주일의 7일에 할당하는 현재 달력은 로마 종교의 직접적인 유산입니다. 그리고 “정복되지 않는 태양”에 바쳐진 첫날 숭배는 321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로마인들의 종교적 “행위”를 미워하시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7절: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

이 구절에 있는 두 가지 메시지는 지상의 승리의 때, 즉 “ 이기는 자”와 그의 상급의 하늘의 때를 연상시킵니다.

이 공식은 예언의 대상이 된 일곱 시대 중 하나에 예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각 시대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 조정하십니다. 에베소의 그것은 예언이 적용되는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은 지상 역사의 시작이라는 형태로 에베소에 영원한 구원을 제시하신다.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순결한 인간을 그곳에 두시기 위해 창조하신 지상 동산의 생명나무 아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 Apo.22는 새 땅에서 승리한 선택된 자들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에덴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매번 제시되는 공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제공하신 영생의 한 측면에 관한 것입니다.

2 교시 : 서머나

303년에서 313년 사이, 마지막 로마 “제국” 박해

8절: “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스미르나 "라는 이름은 " 몰약 "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스무르나"를 번역한 것으로 , 하나님은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끄는 끔찍한 박해의 시대를 겨냥하고 계십니다. “ 몰약”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분의 발을 방부 처리하는 향유로, 그분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그분에게 제물로 가져온 향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련에서 94년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믿음의 열성을 발견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죽기로 동의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으며, 다시 한 번 살아나셔서 자신처럼 그들을 부활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스스로 그랬어요. 이 예언은 예수 자신이 “ 첫 번째 ” 대표자 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언급된 것입니다 . 그의 인격을 그의 종들의 삶에 동화시킴으로써 그는 또한 “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될 것입니다.

9절: “ 내가 네 환난과 궁핍(네가 부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하는 것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니라. »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박탈당했으며 대부분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육신적 가난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믿음의 기준에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그는 자신의 판단을 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신성한 구원의 규범을 거부한 유대교에 자신이 부여한 가치를 매우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대인들은 마귀와 그의 악귀들에게 점령당하여 하나님과 그의 참된 택함을 받은 자들, 즉 “사탄의 회당”이 됩니다.

10절: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게 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구절에서 악마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불리며, 이 잔인한 로마 황제와 그와 관련된 “분봉왕들”은 그들이 근절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맹렬한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발표된 박해 또는 “환난”은 실제로는 303년에서 313년 사이에 “10일” 또는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 중 축복받은 순교자들로서 “죽기까지 충실한”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은 그들의 승리의 표시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간말 메시지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이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순교의 첫째 사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불못”의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함을 일깨워 구원을 불러일으키신다. . “둘째 사망”은 택하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3기: 버가모

538년 로마에 교황 정권 수립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적 간음 의 시대를 상기시키십니다 . 버가모(Pergamum) 라는 이름에는 두 개의 그리스어 뿌리인 "페라오(perao)와 가모스(gamos)"가 있는데, 이는 "결혼을 범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덮칠 불행이 시작되는 운명적인 시간입니다 . 이전 시대는 313년을 목표로 하여 분봉왕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의 아들이자 막센티우스에 대한 승리자인 콘스탄티우스 1세 황제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교 통치를 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 321년 3월 7일 황제 칙령에 따라 그는 신성한 일곱째

날인 신성한 안식일의 주간 휴식일인 현재 토요일을 버리고, 당시 태양신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 숭배일보다 첫날을 더 선호했습니다. 인빅투스(Invictus)', 정복되지 않는 태양. 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간음”을 저질렀는데, 이는 538년부터 *페르가몬 시대와 관련된 로마 교황청의 공식 규범이 되었습니다*. 불성실한 기독교인들은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가 세운 새로운 종교 지도자 비길리우스를 따릅니다. 이 호기심 많은 사람은 황제의 아내인 매춘부 테오도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보편적인 종교 세력, 즉 가톨릭교로 확대된 교황 지위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버가모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콘스탄티누스로부터 물려받은 이전의 "태양의 날"이 로마 기독교 교회에 의해 계속 존중되는 새로운 이름이자 영적 **간음**의 원인인 "일요일"의 관행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교황 수장의 칭호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라틴어로 "VICARIUS FILII DEI"라는 글자 수로 주장합니다. 이는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18에서 "짐승"의 종교적 요소를 나타내는 숫자와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버가모**라고 불리는 시대는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총회 의장이라는 직함을 제거하는 편협하고 강탈적인 교황의 통치로 시작됩니다(단 8:11; 엡 5:23: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구원자시니라*.”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행동은 하나님 자신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불충실해진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고 교황 정권에 넘겨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단 8:23에서 비난된 이 정권의 **뽀뽀함**은 심지어 단 7:25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에 **앞장서게 만듭니다**. 더욱이 그는 어떤 인간도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가장 거룩한 아버지"라는 칭호로 숭배를 받음으로써 자신을 창조주 하느님, 입법자보다 높이며 언젠가는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 23:9).” 이 인간 왕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의로우신 참된 “가장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날까지 정권과 그 과잉 행위가 계속될 후계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1세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간음”으로 여기시는 종교 체제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중요성은 역사에 기록되고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535년과 536년에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대기를 어둡게 하고 541년에 치명적인 전염병을 일으킬 두 번의 거대한 화산 폭발을 기록합니다. 이 전염병은 767년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592년에 최대 공격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더 끔찍한 형태를 취하지 마십시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구절에서 제공됩니다.

13절: “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거기에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줄을 아노라. 너희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예언은 “ 보좌 ”와 그 위치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그 명성과 죄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불하고 있는 영예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거짓 기독교적이고 완전히 이교적인 종교적 측면 아래서 다시 지배를 재개하는 것은 바로 “로마”입니다. 자신의 “대체자”(또는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교황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도록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예언의 수신자는 타락한 자도 아니고 이교 의식을 찬미하는 찬탈자가 아닌 선택된 자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앙의 이 높은 곳은 로마의 라테란 궁전에 교황 보좌가 있으며, 관대하게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 주교에게 바쳤습니다. 이 라테란 궁전은 도시 남동쪽에 위치한 "로마의 일곱 언덕" 중 하나인 카엘리우스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Caelius라는 이름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언덕은 면적이 7개 언덕 중 가장 길고 넓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표되는 교황청과 성직자들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톨릭 교회인 라테라노 교회 근처에는 높이가 47m에 달해 13개가 있는 로마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오벨리스크가 솟아 있습니다. 지하 7미터 아래에서 발견되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교회는 1588년에 교황 식스토 5세에 의해 세워졌으며, 동시에 *두아티라* 라고 불리는 다음 예언 시대에 바티칸 국가의 지배권을 조직했습니다. 이집트 태양 숭배의 상징인 이 상징은 콘스탄티누스의 제안을 회상하는 비석에 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그것을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오고 싶어했던 아버지의 소원을 부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그것을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져온 것은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헌신은 콘스탄티누스의 아들보다는 하느님의 뜻에 더 기인합니다. 높은 받침대가 있는 오벨리스크 전체가 예언된 연결고리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1세는 "태양의 날"의 나머지 부분을 정하는 시민 권위를 갖게 되었고, 교황은 당시 로마 기독교 교회의 단순한 주교였습니다. 종교적 권위는 이 이교일을 "일요일", 즉 주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으로 강요합니다. 이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는 오름차순으로 서로 이어지는 4개의 상징이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4개의 기본 지점을 향하고 있는 4개의 사자가 앉아 있고, 그 위에는 태양 광선이 얹혀 있는 4개의 산이 있고, 그 위에는 함께 기독교인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십자가. 네 개의 기본 지점을 가리키는 사자의 상징은 보편적인 힘의 왕국을 나타냅니다. 그 설명은 단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18은 로마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 또한,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이집트 카르투슈는

“왕이 태양신 아몬에게 보내는 불순한 소원”을 연상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콘스탄티누스 1세 이래 그의 승리일인 313년 이래로 로마를 지배해 온 기독교 신앙의 실제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 오벨리스크와 그것이 담고 있는 상징은 단 8:25에 예언된 마귀의 종의 “성공”을 **증거합니다.** 그는 콘스탄티누스 1세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정죄하신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상징들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십자가”: 기독교 신앙; “태양 광선”: 태양 숭배; “산”: 지상의 힘; “네 마리의 사자”: 보편적인 왕족이자 힘; “오벨리스크”: 이집트는 죄, 출애굽 당시 파라오의 반역 이후, 그리고 태양신 아몬에 대한 우상 숭배를 구성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을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발전시킨 로마 카톨릭 신앙에 귀속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들에 이집트 카르투슈를 통해 그는 자신이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로마 주교들의 종교적 헌신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도시의 종교적인 형제들에 의해 “교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자신이 이미 실천하고 존중한 태양 숭배와 기독교 신앙의 결합은 인류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치러야 할 끔찍한 저주의 근원입니다. 이 라테란 **왕좌는 로마 황제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1세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로마에 거주하지 않고 제국의 동쪽인 콘스탄티노플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예언적 계시를 무시함으로써 수많은 인류가 역사상 가장 큰 종교적 속임수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거짓과 온갖 거짓말쟁이들에게 내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페르가몬 시대** 인구의 교육 부족은 당시 로마 황제들이 강요하고 지원한 교황 정권의 성공을 설명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선출된 특정 공무원이 이 새로운 불법적 권위를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참된 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선택된 자들의 로마 위치가 정해졌는데, 일요일을 지키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지킨 538명의 종들에게서 성령이 그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로마의 이곳에서 마지막 순교자 또는 “신실한 증인”은 네로 시대(65~68년)와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303~313년)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안디바**”는 지나간 시대의 “**신실한 증인**”입니다. 이 그리스어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65년에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황의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거짓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칭호에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진정한 대리자는 충실한 바울이지 불충실한 비길리우스나 그의 후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시대 종교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자연에 새겨 두셨습니다. 저주가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강렬한 성격을 띠는 순간입니다. 이미 지상 봉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고 놀란 열두 사도에게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통제하셨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폭풍이 즉시 진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533년에서 538년 사이의 기간은 특별히 저주받은 성격을 띠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가 교황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콘스탄티누스 1세가 공포한 법령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 입니다. 321년 3월 7일부터 한 주의 첫날인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날"에 쉬도록 했습니다 . 그, 신은 행성의 북반구를 질식시키고 남반구에도 남극 대륙까지 흔적을 남긴 두 개의 화산을 깨우게 했습니다 . 몇 달 간격으로 적도 지역에서 서로 대척점에 위치한 어둠의 화산은 매우 효과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십억 톤의 먼지가 대기 중으로 퍼져 인간의 빛과 일반적인 식량 작물을 앗아갑니다. 정점에 있는 태양은 완전히 사라진 보름달과 같은 빛을 제공합니다. 역사가들은 유스티니아누스의 군대가 7월 중순에 발생한 눈보라 덕분에 동고트족으로부터 로마를 탈환했다는 이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 크라카토아(Krakatoa)라는 이름의 최초의 화산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535년 10월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깨어나 산악 지역을 50km가 넘는 해상 지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산은 '일로팡고(Ilopango)'로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하며 536년 2월에 폭발했습니다.

14절: “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있느니라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

성령은 로마에 확립된 영적 상황을 묘사합니다. 538년 이래로 당시 신실한 선출직 관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 발람 ”에 비유하시는 종교적 권위의 확립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으나 이익과 세상 재물의 유혹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로마 교황 정권이 공유하는 모든 것. 더욱이 “ 발람 ”은 “ 발락 ”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폭로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이교도 사이의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히 정죄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 발람 ”에 비유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교황 체제의 개요를 보여 주십니다. 그런 다음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악마와 그의 천상 및 지상 파트너가 수행하도록 하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저주는 불성실한 기독교인들이 321년부터 지켜온 이교의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날"을 채택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 발람 ”과 같은 교황 정권은 그들을 몰락시키고 그들의 신성한 저주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 ”는 이교의 “태양의 날”과 비교되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로마는 이교주의를 기독교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그것들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동일한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시대의 “ 발람 ” 에 의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은 또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해하게 하신 후에 스스로 “ 음행 ” 에 빠진 히브리인들의 불신앙에 비유됩니다 . 321년에서 538년 사이에 불충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15절: “ 그러나 너희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

에베소 에서 인용된 “ 니골라당 ” 의 이름이 이 편지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에서 그들과 관련된 “ 행위 ” 는 여기서 “ 교리 ” 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로마인들은 에베소 이후 기독교인이 되었고, 321년 이후에는 불충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이는 538년 이후 공식적인 종교적 방식으로 로마 카톨릭의 “ 교리 ” 를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16절: “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

성령께서는 당신의 “말씀”, “ 그분의 입의 검 ” 이 이끄는 “ 전투 ” 를 불러일으켜 네 번째 메시지가 올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16 세기 의 일이 될 것이며 , 성경, 성경의 거룩한 기록, 계시록 11:3에 따른 “ 두 증인 ” 이 신성한 진리를 전파하고 거짓 로마 카톨릭 신앙의 가면을 폭로할 것입니다.

17절: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에게는 흰 돌을 주리라. 그리고 이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성령은 영생의 한 측면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건조하고 척박하고 건조한 사막에서 배고픈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만나가 예언한 형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창조자의 능력으로 택하신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실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써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전체 구원 프로젝트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 때에 택함 받은 자는 성령이 형상으로 묘사한 영생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 음식의 “ 만나 ” 이미지는 천국에 숨겨져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그 생산자이십니다. 고대 상징에서 만나는 이미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로마 관습에서 “ 흰 조약돌 ” 은 “찬성”

투표를 나타내고 검은색 조약돌은 “아니오”를 나타냅니다. “*흰 돌*”은 또한 선택받은 자의 영원하신 삶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엄청난 환영을 반영하는 신성한 '예'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천체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의 새로운 상태는 “*새 이름*”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본성은 선택된 자들에게 영원히 신비롭고 개별적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이 본성을 물려받아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4^{시대} : 두아디라

15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절: “*두아디라 회중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단련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 라는 이름으로 가톨릭과 개신교 연맹의 기독교 신앙이 피비린내 나는 충돌을 통해 가증스러운 광경을 제공했던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는 엄청난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두아디라(Thyatira)* 라는 이름에서 두 개의 그리스어 뿌리인 "thuao, téiro"는 "가증한 것과 고통과 함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을 번역합니다. 가증스러운 것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정당화하는 그리스어 용어는 Bailly 그리스어 사전에서 발정기에 있는 돼지나 멧돼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세기}는 로마 교황 정권의 권위에 도전한 프로테스탄트들이 각성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세속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교황 식스토 5세로 대표되는 교황권은 종교적 권위와 연결된 시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바티칸 국가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세기} 부터 교황 정권이 이전에 라테라노 궁전에 있던 본부를 이미 독립된 교황 국가를 구성한 바티칸의 영토로 이전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이전은 단지 속임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바티칸 국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라테란 궁전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 사절들을 환영하는 곳이 라테라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87년, 1588년 8월 3일 이후 라테란 궁전 근처에 다시 세워진 오벨리스크는 7미터 깊이의 땅 속에서 세 조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바티칸 국가는 로마 외곽의 바티카누스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시를 접경하는 테베레강. 이 바티칸 시국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돼지머리 모양을 하고 북쪽에는 귀가 있고 남서쪽에는 주둥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어 “투아오(thuao)”의 메시지는 이러한 일을 조직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중으로 입증되고 정당화되었습니다. *버가모* 에서 물려받은 가톨릭 신앙은 그 가증함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계몽을 받고 마침내 인쇄기 덕분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죄와 남용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증오와 잔인함으로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더욱이 그녀는 수도원과 수도원에서 수사들에 의해 출판된 성경의 수호자로서 그녀의 죄악을 비난하는 성경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맹목적이고 안일한 군주의 힘으로 고발자들을 죽입니다. 그의 의지를 유순하게 집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를 인용하셨습니다. *그 발은 불 같은 주석과 같으며*”,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 멸망시키실 종교적 적들에 대한 그분의 징벌적인 행동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칼”과 총기로 서로 죽기까지 싸웠던 두 가지 기독교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면 “*그의 발*”은 계시록 10:5과 계시록 13:1-11에서 카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앙의 상징인 “*바다와 땅*” 위에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둘 다 죄가 많고(죄= *넛쇠*)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불타는 넛*”으로 묘사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서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 이미지를 취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박해자들이 그의 신실한 자녀들에 맞서 연합하여 들짐승처럼 서로 죽기까지 싸웠던 때를 계시하십니다. 예언 전체. 프랑수아 1세부터 루이 14세 까지 종교전쟁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크족의 첫 번째 왕 클로비스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프랑스 국민의 저주, 즉 교황권의 무장 지원을 드러내셨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저주의 정점을 표시하기 위해 하나님은 “5”세의 어린 루이 14세를 프랑스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전도서 10:16의 이 성경 구절은 그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에 막대한 지출을 하고 값비싼 전쟁으로 프랑스를 망쳤습니다. 그는 빈곤에 빠진 프랑스를 뒤로하고 그의 후계자 루이 15세는 방탕한 동반자인 뒤부아 추기경과 공유하는 자유주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혐오스러운 캐릭터 루이 온유하고 평화로운 사람을 이 분노의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세습 군주제 정권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셨습니다. 클로비스 이후로 세습 군주제 정권이 교황의 종교적 주장을 부당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신실한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죽도록 충성한 ” 그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그들의 주인의 형상대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구주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의 “*믿음*”은 “*신실한 섬김*”을 동반하므로 의롭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불변성*”이라는 단어는 상당한 역사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마리 뒤랑(Marie Durand)이 신앙의 모델로서 40년의 길고 힘든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곳은 에그 모르트(Aigues-Mortes) 마을의 “콘스탄스 탑”에서였습니다.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도 같은 간증을 했지만 종종 역사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교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신 작품은 루이 왕의

통치 시기(1643~1715)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 12:9-4-13-16에서 “마귀”를 가리키는 “용”이라는 이름의 역할과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의 공공연한 공격적 행동을 분명히 주목하십시오.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칭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1세 이후 물려받은 “태양의 날”을 옹호하는 가톨릭교를 위한 투쟁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오랜 통치 기간 전체를 어둠 속으로 빠뜨리셨고, 그에게 진정한 태양의 따뜻함과 완전한 빛을 거부하셨고, 이는 프랑스 국민의 식단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절: “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니라. »

1170년에 하나님께서는 피에르 보데스(Pierre Vaudès)를 통해 성경을 프로방스 언어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참 안식일에 대한 존중과 채식주의의 채택을 포함하여 온전한 사도적 진리의 교리를 재발견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피에르 발도(Pierre Valdo)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는 이탈리아 알파인 피에몬테(Alpine Piedmont)에 정착한 “Vaudois”의 출신입니다. 그들이 대표하는 종교개혁은 천주교의 반대를 받았고 그 메시지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 전체를 몽골의 잔혹한 침략에 넘겨주셨고, 그 뒤를 이어 몽골에 의한 끔찍한 전염병이 일어나 1348년부터 인구의 3분의 1과 거의 절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구절의 메시지인 “ 너는 이세벨 여자를 버리고... 1170년에서 1517년 사이에 그들은 기독교 구원의 진리에 대한 완전한 교리를 무시했으며, 이 시대 말에 이루어진 그들의 개혁은 부분적이고 매우 불완전합니다.

참고 : 피에르 발도(Pierre Valdo)가 이해하고 적용한 교리적 완전성은 하나님께서 수행해야 할 종교 개혁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그에게서 제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일들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안식일 요구 사항은 단 8:14의 법령으로 표시된 시간에 따라 1843-1844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묘사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린 끔찍한 “ 이세벨 ” 인 아합 왕의 외국인 아내에 비유하십니다 . 사본은 모델에 부합하며 작동 기간이 훨씬 오래 지속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 여선지자 ”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보좌”의 새로운 장소인 바티칸의 이름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바티칸은 고대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바티시나레(vaticinare)”를 의미합니다. 장소에 대한 역사적 세부 사항은 매우 드러납니다. 원래 이 장소는 “ 뱀 ” 신인 Aesculapius 에게 헌정된 로마 사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 이 상징은 계시록 12:9-14-15에서 마귀와 교황권을 가리킬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이곳에 전차 경주장을 마련했고, “마술사 시몬”도 그곳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도 베드로의 유해처럼 영예를

받을 그의 유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콘스탄티누스가 기증한 바실리카가 기독교의 영광을 기념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늪지대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거짓말은 15 세기 에 확대되고 장식된 이 바티칸 대성당의 새로운 이름을 정당화할 것이며 ,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술사** 와 " **뱀** " *Aesculapius* **에게 주어지는 이 영예는 성경 다비 버전에서 다음 과 같이** 말하는 계시록 18:23에서 성령께서 로마 카톨릭 종교 의식에 부여하신 " **마법** " **이라는 이름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 등불의 빛이 더 이상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신랑과 아내의 목소리가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상인들은 땅의 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술로 인해 모든 나라가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 정확하게 말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 “생 피에르 드 로마” 대성당의 공사가 완료되면서 테첼 고위 성직자는 자신의 “면죄부”를 팔게 될 것입니다. 죄 사함이 돈에 팔리는 것을 본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속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1517년에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독일 교회 문에 자신의 유명한 95개 조항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악마적인 본성과 일부 오류를 비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170년 이래로 하나님께서 피에르 발도에게 제안하신 종교개혁 사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개혁된 종들, 참되고 체념한 평화로운 희생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이세벨이 그의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 우리는 이 비난에서 이 개혁의 시작에 대한 모든 교리적 불완전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 **종들** ", 즉 **예수님의 종들을 " 가르치고 유혹 " 하여 그녀를 기독교 교회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 **음행** ' 이라는 비난 과 ' **고기** ' 의 이미지가 있었던 **페르가몬 시대의 가르침이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고 이미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만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실체는 " **여자 이세벨** "이 아니라 개신교 그리스도인 자신입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 **너는 여자 이세벨을 떠나라 ...** 그런 다음 그는 이 결점의 성격, 즉 이교 우상 숭배를 폭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 당시에는 아직 부과하지 않았지만 1843년부터 요구할 " **짐** "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 실천을 실천하는 로마의 " **일요일** "을 표적으로 삼으신다. 그의 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교의 거짓 태양신을 기리는 이교 우상 숭배 작품으로 보입니다. 1843년부터 그는 "일요일", 즉 지상 죄인들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

이 때는 단 7:25부터 나타나며 묵시록 11장, 12장, 13장에서 세 가지 형태로 확인됩니다.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60 일 또는 42개월**

”은 모두 538년에서 1798년 사이에 활동했던 편협한 교황의 통치를 가리킨다. 성경을 통한 진리의 전파와 참된 개혁자들의 설교는 가톨릭 신앙에 회개하고 포기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자신의 죄.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호기심 많은 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화로운 사자들을 박해하고 고문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두 번째로 성취한 유대 민족의 반역적인 행위를 재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첫 번째 사람들을 죽인 포도 재배자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유업을 빼앗으려 함이니라

22절: *보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게 만일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녀를 “ 침상에 눕힌 ” “ 창녀 ”로 다루실 것이며, 이는 이 주제의 “ 여자 이세벨 ”을 계 17장 1절의 “ 창녀 큰 바벨론 ”과 연결시켜 줍니다 . 예언된 “ 큰 환난 ”은 성경의 선포가 실패한 후에 올 것입니다. 이 동일한 메시지는 계시록 11:7에 나오는 “ 깊음에서 올라오는 짐승 ”과 이 “ 큰 환난 ”을 동일시함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 그것은 성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록인 하나님의 “ 두 증인 ”의 사역 이후에 일어납니다 . 영적인 “ 간음 ”이 확인되고 명명되었으며, “ 이세벨 ”과 함께 그것을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는 “ 그들 ”은 프랑스 군주들과 군주론자들입니다. 카톨릭 신부들과 함께 군주주의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표현일 뿐이었던 혁명적 민족 무신론의 진노의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1793년에서 1798년 사이에 교황 통치가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중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환난 ”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2장 19절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를 가리킨다: “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있느니라. ”. 그러나 카톨릭 군주제와 그 동맹국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죄를 처벌하는 “ 환난 ”은 계시록 17:5에서 “ 바벨론 ”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됩니다. 크다 ”는 논리적으로 “ 큰 환난 ”이다.

23절: “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

“ 죽음으로 죽는다 ”는 성령께서 1793년과 1794년 혁명 정권의 두 가지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그는 개신교에 영향을 미칠 단순한 영적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도 일축합니다. 1843년 계시록 3:1에서 당시의 천사 “ 사데 ”에게 전달된 메시지에서. 인류는 루이 박사가 발명한 살인 기계에 의해 수행되는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작업을 결코 알지 못했지만, 그 이름이 그 이후로 단두대라고 불리는 도구 자체에 기인한 길로틴 박사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약식 판결은 전날의 판사와 고발자 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원칙을 추가하여 수많은 사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류는 사라져야 할 것처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파괴적인 혁명 정권을 “*심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창조 첫날부터 땅을 생명체가 없는 “*심연*”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시대의 선택자인 “*모든 교회 (혹은 집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미와 함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직 천국에서, 집합된 선택자들에 의해 행사되는 천상의 심판 동안에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합니다. 거짓 판단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24절: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가톨릭 신앙을 비난하고 그 종교 의식에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은 1200년경부터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 등장한 개혁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든, 그들의 교리는 가톨릭 신앙이 가르친 순수한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세 가지 긍정적인 점만을 주목합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믿음, 오직 성경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들의 인격과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교리적 요점은 가톨릭교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된 개혁자들은 비록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관한 교리의 수준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선출된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1844년, 즉 칙령이 발효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 8:14,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봉사를 승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예외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이 이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5절: “*네게 있는 것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개신교 신앙을 축복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선택된 자들에 의해 보존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 구절은 종교 개혁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구원의 상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나타내신 일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 중에 오시는 그 때까지 빛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뜻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빛과 같아서 그 빛이 점점 밝아져 한낮에 이르느니라* (잠 4:18)”; 이 성경 구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1844년부터 그의 프로젝트 틀 내에서 그의 독특한 성경 예언의 말씀으로 계획되고 예언된 날짜에 신성한 요구 사항이 나타날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은 오직 천상의 심판관의 자격에 달려 있습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으니라.*”»

이 표현은 사형을 선고받을 권리를 암시합니다. 선택된 자들이 일곱째 천년의 큰 안식일인 “*천년*” 동안 마지막 심판을 위해 확립된 악인에 대한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 옳습니다.

28절: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하나님께서서는 현재 지구에 태양의 빛으로 상징되는 완전한 신성한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천상의 생명의 빛을 선포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느님 자신이 더 이상 태양과 같은 하늘의 별에 의존하지 않는 빛의 원천이 됩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묵시록의 건설은 7층으로 이루어진 탑과 같으니, 7층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구성에서 2장과 3장은 94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기독교 시대의 기본 틀을 구성합니다. 묵시록에 언급된 모든 주제는 이 기본 틀에서 그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틀에서 1층은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역할만 할 뿐이다. 계시의 중요성은 *페르가몬 이라는 레벨 3에서 나타난다*. 이 중요성은 *두아디라(Thyatira)* 라는 레벨 4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혼란스럽고 오해를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다. 이 시대의 영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끝날까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확고히 하기 위해, 루이 14세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개신교인들에게 하신 이 메시지를 요약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요약: 종교개혁 당시 기독교인의 행위는 다양했다. 우리는 박해를 받지만 항상 평화로운 참된 성도들과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고 스스로 무장하여 가톨릭 왕실 군대에 일격을 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니엘 11장 34절에서 성령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규정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금지하신 사항에 복종하는 것임을 이해한 종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무기의 사용은 그 중 하나이며, 이것이 그가 체포되었을 때 받은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예수의 비난은 가톨릭

유산을 계속 실천하면서 개신교도들 자신도 자신들의 모범을 통해 가톨릭 *이세벨* 에 속한 가르침과 유혹을 조장한다는 사실로 정당화됩니다. 그들의 불완전한 종교적 행위는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불명예를 돌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종교개혁 초기의 이 단계에서 그는 예외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있는 것만 내가 올 때까지 간직하라 ” 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교리적 불완전성이 합법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박해와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봉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줄 수 없었고, 최대한의 것, 즉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 *처음보다 더 많은 일 (19절)* ” 이라고 부르신 이러한 희생의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교주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로마의 속임수 에 대한 비난은 1170년부터 라틴어가 아닌 프로방스 언어로 성경 번역본을 쓴 피에르 발도(보데)의 완벽하게 계몽된 작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사항에 대한 그의 지식과 이해는 놀라울 정도로 완전했으며, 그 이후 개신교 신앙은 악화되었습니다. 존 칼빈의 영감을 받아 개신교 신앙은 심지어 가톨릭의 대적의 이미지를 취하면서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임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참된 자들이 그들에게 가해진 타격을 갚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복수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 “오로지 성경”을 모토로 삼은 개신교인들은 무장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폭력을 금지하는 성경을 경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대접해야 한다고 가르치심으로써 이 분야에서 아주 멀리 나아갔습니다.

가톨릭의 박해로 인해 예수의 신실한 종들이 죽게 된 이 기간은 묵시록에서 세 번 강조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두아디라* 이며 또한 주후 5세기 예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6장과 3장의 *인장* 8장의 *나팔*. 여기 22절에서 예수께서는 순교한 종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의 죽음이나 로마와 그 왕실 종들에 의해 가해진 고통을 복수하겠다는 뜻을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에 숨겨진 핵심 단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가톨릭 종교는 신에 대해 *간음하는 죄를 짓는 것이며*, 이를 저지르는 자, 가톨릭 군주, 그들의 동맹 및 거짓 귀족들은 프랑스 혁명가들의 단두대 아래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부당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계시록 2:22-23: “ *보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 에게 그들이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보내리라. 내가 그 여자의 아이들을 죽이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 하지만 조심하세요! 1843년 이후에는 “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 ”도 프로테스탄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서는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및 기타 재림교인에 대한 새로운 형벌인 핵 “제3차 세계 대전”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병행하여 성령께서 5절 에서 말씀하십니다. *인* (계 6:9~11) “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는 일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렵니까? 그들 각자에게 흰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한동안 더 쉬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시다.”.

다섯째 봉인 에 나오는 이 장면은 깨달음이 부족한 마음에 혼란스럽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자면, 이 이미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생각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9:5-6-10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기억이 잊혀진 상태에서 잠을 자고 더 이상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첫째 사망에 전 존재가 소멸된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죽은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과 같지만 존재했었다면 그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생각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살아 있는 종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이 위로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그분을 통해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심판 아래서 똑같이 부활한 고문자들을 심판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천년 이 끝날 때... *두아디라* 의 메시지에서 가톨릭 신자인 *이세벨*과 *간음한 자들*에게 선포된 죽음 은 이종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혁명가들의 활동은 첫 번째 단계이지만 그 후에는 제때에 올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두 번째 죽음*이 올 것 입니다. 기독교 시대에는 영적 *간음* 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로 4번째 8장의 *나팔*은 교황권과 그것을 지지하는 군주제의 *간음*을 처벌하기 위해 계획된 “ *큰 환난* ” 의 행동을 확증합니다. *태양*, 신성한 빛, *달*, 어둠의 가톨릭 종교, 그리고 *별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1793년과 1794년에 프랑스 혁명가들의 무신론에 대한 박해로 *3분의 1 또는 부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시다*.

평화로운 개신교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끝에서, 성령께서는 선택받은 자의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일곱째 천년기의 천상 심판 중에 준비된 최후의 심판임을 상기시켜 무기 사용에 대한 정죄를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박해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그들의 사형 판결에 참여할 이 하늘 심판 전에 스스로 복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 그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심판의 목적은 마지막 심판의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 죄인들의 고난의 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새벽*

별을 언급합니다. “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표현은 신성한 빛의 이미지인 태양을 나타냅니다. 승자는 영원히 신성한 빛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문맥 이전에 이 용어는 다섯 번째 문자를 준비합니다. **새벽 별**은 베드로후서 1:19-20-21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 또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밝아오고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느니라. 먼저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 이 구절은 예언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시대의 상황은 단 8:14에 예언된 하나님의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영적으로 조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오후 23시까지 거룩함이 입증될 것입니다 .**” 그러나 당시 이 구절은 번역본에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 **2300년까지 저녁과 아침이 되며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 이 번역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했지만 덜 정확했습니다. 이 형식에서는 우리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재림을 통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 개신교인 윌리엄 밀러를 사용하여 1843년 봄과 1844년 가을에 두 번의 재림교회 신앙의 시련을 시행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이 두 날짜 사이인 1843년에 하나님의 법령이 타락한 개신교 에서 물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정의;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참된 선택자들에게만 유익하며, 이는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1843년 봄 첫날 **두아디라** 와 **사데** 사이에서 단 8:14의 법령이 발효되었으며, 우리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전하신 메시지에서 그 결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43년 이후의 총회 – 사도적 기독교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5 시대 :사르디스

1843년 봄과 1844년 10월 22일 재림교회 재판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고하신 심판

1절: “ **사데 회중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광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나는 당신이 살아 있다고 생각되고 죽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사데 ” 시대는 반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두 가지 개신교 기독교인의 행동을 드러낼 것입니다 . 그리고 4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 그들은 합당한 까닭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요 . ” 그의 두 메시지의 내용처럼, “ 사데 ”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완전히 반대되는 이중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경련과 보석, 죽음과 삶이라는 그리스 뿌리의 주요 아이디어를 유지합니다. 핑그린 표정과 경련은 냉소적인 웃음을 정의합니다. 그리스어로 사도니온은 사냥 그물의 위쪽 밧줄입니다. 정어리는 물고기입니다. 반대의 의미로 사르도(Sardo)와 사도마노(Sardonix)는 보석이다. 사도닉스는 다양한 갈색 칼세도니입니다. 이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일곱 시대의 종들에 대한 심판으로 소개하십니다. 단 12장에서처럼 그는 재림교회 신앙의 시험인 살인 강 위에 서서 여기서 그의 평결을 내린다. 집단적 의미에서 대화 상대가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친숙함에 주목해 봅시다. 전체 개신교 규범이 관련됩니다.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메시지* 에 언급된 개신교의 예외를 종식시키셨습니다 . (반역적인 신자들이 이해하는 대로) 새로운 “ 짐 ”이 이제 부과되고 요구됩니다. 로마 일요일의 관행은 폐기되어야 하며 토요일 안식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단 8:14의 이 법령은 321년 3월 7일 이후 콘스탄티누스 ¹ 세 황제가 확립한 상황을 뒤집는다. 1844년보다 11년 전인 1833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계속되는 유성우를 통해 하나님은 개신교 기독교인의 대대적인 몰락을 예시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해석을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 주시며 “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833년의 별들의 몰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대적으로 몰락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천체 표시는 *여섯째 불인* 의 주제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 계시록 6:13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너는 살았다 하고 죽었느니라* ”.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부 사항은 종교 개혁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에 해당합니다. 신성한 평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는 당신의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 이 심판은 위대한 심판관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개신교인은 이 심판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1843년에 다니엘 8장 14절의 법령이 발효되었으며, 어떤 그리스도인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무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지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19-20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하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경멸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주의하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운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아십시오.* » 새 언약 성경의 모든 본문 가운데서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는 이 구절들은 특히 1843년부터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듭니다.

2절: “ 너희는 깨어서 남은 자를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

만약 그들이 거룩함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신교의 “ 나머지 ”는 “ 죽을 ”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두 가지 이유로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단 8:14;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재림교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고려하지 않는 개신교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점 모두에서 예수께서는 “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나의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개신교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아들을 위해 그들이 멸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십계명의 규범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가 모델로 삼은 그의 완벽하게 순종하는 신앙은 무엇보다도 첫날 주간 휴식을 포함하여 수많은 가톨릭 죄의 상속자인 개신교 신앙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개신교 집단적 종교 규범에서는 구원의 문이 영원히 닫히고, 여섯째 인의 “ 별들 ”이 떨어진다.

3절: “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어느 때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

이 동사 “ 기억하다 ”는 과거의 작품에 대한 비판적 묵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선택된 사람만이 자신의 작품을 비판할 만큼 겸손합니다. 더욱이, 이 “ 기억하라 ”라는 명령은 일곱째 날의 거룩하게 안식을 명령하는 넷째 계명의 시작 부분에 있는 “ 기억하라 ”를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다시 이중으로 공식적인 개신교는 1843년 봄과 1844년 가을에 윌리엄 밀러가 발표한 예언적 메시지뿐 아니라 하나님의 10계명 중 4번째 본문을 받아들인 것을 재고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오리라. 그러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 우리는 2018년부터 이 메시지가 어떻게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철야가 없고,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개신교 신앙은 확실히 죽은 것입니다.

4절: “ 그러나 사데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네게 있느니라.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거룩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 몇몇 사람 ”의 존재를 증언하는데 만족하셨습니다 . 그 숫자 중에

엘렌G.화이트에게 계시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오직 50명만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소수의 남자들”은 주님의 기대에 따라 그들의 신앙을 간증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승인받고 축복받은 남자와 여자를 지정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데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정하신 존엄성에 대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843년과 1844년의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빌라델비아* 에서 오는 메시지에서 공식적인 형태를 취하게 될 영생과 완전한 지상 인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복’ 이 더러워지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에 기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된 의인 “옷”, 이 경우 “흰”, 그것의 더러움은 전통적인 개신교 진영에 대한 이 의의 상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단 9:24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가 계속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아 안식일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그들에게 참된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정의의 열매와 표징을 줄 것입니다. 이 현명하고 총명한 선택은 장차 오는 5절의 “흰 옷”으로 상징되는 성화와 천상의 영광 속에서 그들을 곧 영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순전”하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계 14:5). 그들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바울에 따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육체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흰 옷”은 로마 일요일의 관행을 구성하는 죄를 제거하는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자리에서 그를 두 번이나 신실하게 기다렸으므로 그의 승인의 표시로 하나님의 인이 오는 안식일에 그들에게 주어졌나니 이 날은 주의 의를 지키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희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여 당시 다니엘 8장 14절이 번역된 형태인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선 아래서, 1844년 10월 23일부터 예수께서는 선택된 승리자들에게 하늘의 환상을 통해 지상 성소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죄가 속죄되어 “속죄일”, 즉 히브리어로 “욘 키푸르”가 성취된 순간을 비유를 통해 회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환상에서 행동의 재개는 단지 예수의 죽음으로 얻은 영원한 정의의 첫 번째 성취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타락한 사데 백성을 위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신 예언적 진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다니엘 8장 14절의 법령이 발효됨에 따라 1843년 이래로 합당한 안식일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5절: “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택함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영원이 창조주이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빛지고 있음을 의식하는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는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승인하기 때문에 그와 논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자신이 구원자의 기쁨이시니 이는 창세로부터 미리 아심으로 보시고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은 거짓 종교인들의 거짓 주장이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헛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것입니다. 이 사역에 따라 그분은 양떼를 나누어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마지막 심판의 둘째 사망의 불에 던져질 반역적인 염소와 약탈하는 이리들을 두셨습니다.

6절: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모든 사람이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반대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교육하시는 택하신 자들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역사적 시간에 성취된 정확한 사실을 언급하므로 선택받은 사람은 종교와 세속의 역사와 간증, 찬양, 예언의 이야기로 구성된 성경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 :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개신교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 반대로, 승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는 2018년 봄부터 이 메시지가 “ 너희가 깨어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고 어느 때에 너희 에게 올지 너희가 알리라 ”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2020년 오늘부터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은 2030년 봄에 밝혀진 그의 진정한 재림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신앙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유보된 이 정확성을 무시하도록 정죄되었습니다. 그의 당선자에게. 악한 종들에 대한 그분의 행동과는 달리, “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모 3:7).

6 시대: 필라델피아

재림교회는 보편적 선교에 들어갑니다

1843년에서 1873년 사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참된 일곱째 날인 신성한 안식일인 토요일이 복원되어 1863년부터 공식적인 미국 기독교 종교 기관의 형태를 취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선구자들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일 재림교회. 단 12:12에 준비된 가르침에 따라, 예수의 메시지는 1873년 안식일로 기록해진 택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동시에 이 택함받은 자들은 단 12장의 행복으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12: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843년 이후 제정된 새로운 표준은 1873년에 보편화되었습니다.

7절: “ **빌라델비아 회중의 사자에게 편지** 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

빌라델비아 ” 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택하신 자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3:35”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어 뿌리가 형제애를 의미하는 **필라델피아** 의 경우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써 그것을 구성하는 선택된 자들을 선택하셨고, 이 승리자들을 위해 그분의 사랑이 넘쳐흐릅니다. 그분은 이 메시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기록하신 분, 참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1843년 봄부터 시행된 단 8:14의 법령에 의해 안식일과 택하신 자들의 기록함이 요구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 예언의 시간에, 진리의 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21년 3월 7일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밟아온 제4 계명 의 기록함을 재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성 베드로의 열쇠가 아닙니다. “ **다윗의 열쇠** ”는 “ **다윗의 자손** ”이신 예수님께 직접 속해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누구도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2장 22절에 따르면 그분은 이 열쇠를 십자가의 형태로 “ **그의 어깨에** ” 메고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히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 그분의 고통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이 열쇠는 이 구절의 성취에서 다음과 같이 읽혀집니다. “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사람.** ” 구원의 문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건설에 열려 있었지만 1843년 봄 이래로 로마 일요일 신도들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된 교리적 진리에 복종하기로 동의하고 예언적으로 그분의 말씀인 성령을 믿음으로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시대** 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보라 네가 권세가 적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 이 작은 종교 그룹은 공식적으로 1863년 이래로 오직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873년 배틀크릭에서 열린 연차 대회에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재림까지 계속될 보편적인 선교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성도들 사이에서 보신 모든 좋은 것은 1843년에 개신교 신앙이 타락한 원인을 정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3절에서 *사데*의 타락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입니다. 대상이 된 작품 자체가 반전된다.

Rev.7의 12지파 성장

8절: “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권세가 적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

때에 택하신 자는 예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신 일로 말미암아 호의적인 심판을 받느니라. 그분의 “ 작은 능력 ”은 4절의 “ 소수 사람들 ” 에 기초한 그룹의 탄생을 확증해 줍니다. 1873년에 예수께서는 2009년 봄에 열릴 열린 하늘 문을 상징하여 재림교인들에게 그분의 재림을 향한 진전을 알리셨습니다. 2030년, 즉 157년이 됩니다. 이어지는 메시지에서 라오디게아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예수께서는 이 문 앞에 서서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겠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개정판 3:20 »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접근이 허용됨

9절: 보라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

이 구절은 인종과 육체에 따른 참 유대인들이 재림교 집단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안식일의 회복을 확증해 줍니다. 일요일은 더 이상 그들의 개종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321년 이래로 그 포기는 진실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종족에 대한 그분의 심판은 신실한 증인인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이미 서머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중상을 받고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그의 종들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그것을 확증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셨습니다*. 유대인 인종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재림교 표준에 따라 기독교 구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보편 재림교회만이 1873년 이래로 **유일한 공식 보관소**가 된 신성한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 빛과 그 교리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 재산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구원을 위협하지 않고는 진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축복의 시간이 지나면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가 전하는 메시지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10절: “*네가 내 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올 시험의 때에 나도 너를 지키리니 이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인내라는 용어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언급된 재림교인의 기다림의 맥락을 확증해 줍니다. “*기다려 일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시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알려진 땅*”에 거주하는 “*땅의 주민들*”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고 이 구절의 “*알려진 땅*”을 그리스어 “oikomèné”로 지칭하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반역적인 정신을 폭로하기 위해 옵니다.

이 약속은 그 제도가 처음의 믿음의 질을 보존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예수님을 구속합니다. 재림교회의 메시지가 이 구절에 예언된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제도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의 이 메시지에는 위협이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적으로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2030년에 살아남은 그의 후손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1873년에 참으로 선택된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따르면 “*주 안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라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범적인 선출자에게 주신 두 번째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상속자들은 2030년에 그 사업과 신앙,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신 형태의 진리에 대한 수용을 충실히 재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온전해지는 마지막 날까지 그들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교회의 약속과 경고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당신이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당신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라”는 메시지는 재림교회 유형이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다른 종교적 고백을 포기함을 확증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기대는 그의 참된 선택을 식별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세상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은 심각한 위협을 제기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억제하여 아무도 네 왕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 그의 적 외에 누가 그의 왕관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후손들이 먼저 그들을 식별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문주의 정신의 희생자들이 1966년부터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될 것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영원히 나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

승리자들에게 바치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얻은 구원의 모든 이미지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란 나의 모임인 선택된 자들 안에서 나의 진리를 전하는 견고한 지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 나올 거야. more”: 그의 구원은 영원 할 것입니다. “...; 나는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의 형상을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성의 이름”: 그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설명된 택함받은 자들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하늘 천사들처럼 완전히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은 택자들의 모임의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느끼시는 사랑의 힘을 증거하는 보석과 진주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그것을 묘사합니다. 그녀는 새로워진 땅으로 내려와 그곳에 보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지상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옮기는 것과 연관시키십니다.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 살아 있거나 부활한 사람은 동일한 경험을 하며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해의 왕국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의 비교를 강조하는 것은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그분의 신성한 측면에서 발견한다는 사실로 정당화됩니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선택된 사람은 교훈을 이해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직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이 사실이다. 이 메시지는 계시된 신비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오직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

공식적인 말세재림교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제3 재림교회가 기대하는 메시지를 거부하여 토해졌습니다.

“**빨리** 올게요 .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 아쉽게도 당시의 공식적인 재림교회의 종말은

아직 멀었고, 시간이 지쳐 150년이 지난 지금 신앙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정당했지만 주목받지도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재림교회 기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인 엘렌 G. 화잇이 그녀의 책 "첫번째 환상" 장에서 예언한 마지막 "큰 빛"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그 "면류관"을 잃게 될 것입니다. , 페이지 14 및 15: 다음 텍스트는 이 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는 그가 재림교회 사업의 운명을 예언하고 요한 계시록 3장: 1843-44 *사대* , 1873년 *필라델피아* , 1994년 *라오디게아 의 세* 집회에서 제시한 모든 가르침을 그 자신 안에서 요약했다는 점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

재림교회의 운명 엘렌 G. 화잇의 첫 번째 환상에서 계시됨

“가정예배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게 임하셔서 이 어둠의 세상 위로 점점 더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재림교회 형제들을 보기 위해 돌아섰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목소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조금 더 높이 보세요.” 위를 올려다보니 이 세상보다 훨씬 높은 가파르고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재림교인들이 거룩한 성을 향해 전진한 곳이다. 그들 뒤에, 길의 시작 부분에 밝은 빛이 있었고, 천사는 그것이 한밤중의 외침이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빛은 그들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 전체를 비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들의 선두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를 쳐다보는 동안에는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 중 몇몇은 피곤해졌고, 그 도시는 아직 너무 멀기 때문에 그곳에 더 빨리 도착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들어 재림교인들에게 빛을 발산하여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은 “할렐루야! »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그들 뒤의 빛은 꺼졌고, 그들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목표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길에서 떨어져 악한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엘렌 굴드-하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환상의 이야기는 다니엘이나 계시록만큼 가치 있는 암호화된 예언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앙의 오심을 알리는 것을 가리킨다. 1843년 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험과 20세기의 시험 1844년 가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취였다. 이 두 가지 기대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길, 즉 시간 속에서 전진하고 있던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그룹 “뒤”에 놓인 이야기의 “첫 번째 빛”을 나타냅니다. 재림교회 개척자들에게 1844년은 세상 종말의 날이자 예언의 말씀이 그 시대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마지막 성경 날짜를 의미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지나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상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일깨워 줍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더 빨리 도착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1844년 또는 그 날짜 직후에 발생합니다. 또한 내가 세 번째 재림교인의 기대를 세우는 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빛을 받아 현장에 등장한 1980년경까지 그들은 낙담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1994년 가을로 정해졌습니다**. 확실히 이 메시지의 선포는 프랑스의 발랑스쉬르론(Valence-sur-Rhône)에 위치한 보편적인 재림교회의 축소판에만 관련되었습니다.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이 작은 마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예언된 사실이 성취되면서 교황 비오 6세가 1799년에 구금되어 사망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더욱이 발렌시아는 하나님께서 프랑스 땅에 첫 번째 재림교회를 세우신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빛을 가져오셨던 곳이 바로 그곳이며, 2020년 말에 저는 이 문서에 제시된 그분의 최신의 가장 귀중한 계시를 그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재림교인 발렌티누스의 소유주는 우리 자매 엘렌의 환상에서 나타난 마지막 영광의 빛에 관한 역할을 성취하기 위한 보편적인 무대 역할을 했습니다. 이 환상은 열 처녀 비유의 세 번째 성취인 발렌시아에서의 경험에 대해 예수께서 내리는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제시된 빛을 향한 행동을 통해 참된 재림교인을 알아보십니다. 참된 재림교인은 “할렐루야!”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 ; 그는 성령의 축복을 받아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대로, 거짓 재림교인들은 “이 빛을 뻔뻔스럽게 거부합니다.” 신성한 빛에 대한 이러한 거부는 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의 사자에게 전하려는 영감받은 메시지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등불의 “빛”을 내는 기름이 없는 빈 그릇이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선언됩니다. “그들 뒤에 있던 빛이 결국 꺼진다”; 그들은 재림교회의 기본 기초를 부인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29.” “...그들은 결국 목표와 예수님을 모두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재림교회 메시지에 둔감해지거나, “재림교회”라는 이름에 담긴

재림교회 운동의 목표를 부인합니다. "그런 다음 길에서 떨어져 아래에 있는 사악한 세계에 빠졌습니다." 1995년에 그들은 공식적으로 개신교 동맹과 에큐메니즘에 헌신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잃었고, 재림교회 신앙의 목적이었던 천국 문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단 11:29, " 외식하는 자들 "과 " 술 취하는 자들 "에 따라 합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 24:50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작품 초반에 보여준 것들.

오늘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일은 “그들 뒤에 있는” 첫 번째 빛이 나타난 날인 1844년과 프랑스 발랑쉬르론 마을에 설립된 최초의 재림교회에 의해 거부된 위대한 예언의 빛이 나타난 날인 1994년 사이에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시연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공식 재림교회는 진리의 적들인 개신교와 가톨릭교와 함께 에큐메니즘의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7 시대 : 라오디게아

제도적 재림교회의 종말 – 세 번째 재림교회의 기대를 거부하는 것.

14절: “ *라오디게아 회중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
*라오디게아*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시대의 이름이다. 제도적 재림교회의 축복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는 “심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두 개의 그리스어 뿌리인 “laos, dikéia”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재림교인들은 “심판하는 백성”이라고 번역했지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 심판 **이 그것으로 시작될** 줄은 그 기관에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서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 예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 *아멘*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의 간증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이 말을 자주(25회) 사용하셨는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처음에 두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종교 관습에서는 기도나 말씀의 끝에 구두점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가톨릭교에서 물려받은 “그렇게 되라”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멘*이라는 단어에 완벽하게 정당한 이중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개념을 “ **진실로** ” 사용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된 예언들을 온전하게 밝히기 위해 큰 빛을 비추시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작품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예수님과 공식 재림교회 기관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그분의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정당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재림교회를 개신교를 잃고 재림교회 개척자들의 축복을 가져온 모델을 본떠서 신앙의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이미 1843년 봄, 그리고 1844년 가을에 발표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1983년부터 1994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발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9:5-10의 “ 다섯째 나팔 ” 메시지에 인용된 “ 다섯 달 ” . 이 주제를 1844년 개신교의 저주에 돌림으로써 인용된 “ 5개월 ” 의 기간 , 즉 실제 150년은 1994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의 끝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보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눈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세부 사항에서 나는 내가 신성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공식적인 경고가 있는 후 , 기관에서는 1991년 11월에 나의 해고를 선언했습니다. 내 발표를 증명하고 부정하려면 아직 3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의 진정한 의미가 나에게 분명해진 것은 1996년경이 되어서야였습니다. 예수께서 “ 라오디게아 ” 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막 성취되었으며 이제 정확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1991년이 되자 미지근한 재림교인들은 더 이상 1873년만큼 진리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 역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그들을 약화시켰습니다. “ 에베소 ” 시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재림교회도 “ 첫사랑 ” 을 잃었습니다 . 그리고 예수님은 “ 그 촛대와 면류관을 빼앗 ” 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도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메시지는 명확하게 빛납니다. “ 아멘 ” 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진리에 대한 요구와 축복된 관계의 끝을 확증합니다. “ 증인 ” 신실하고 참되다 ” 는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하는 선택된 분을 거부합니다. “ 하나님의 창조원리 ” , 즉 창조자는 창세기 이야기에 포함되고 숨겨진 진리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지능을 집단적으로 닫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지능을 개별적으로 열게 됩니다. 동시에 “ 하나님의 창조원리 ” 를 상기시켜줌으로써 그가 “ 아멘 ” 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키면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재림이 매우 가까웠음을 확증하십니다: “ 즉시 ” . 그러나 1994년부터 지구상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2030년까지 36년의 세월이 흘렀다.

치명적인 미지근함

15절: “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나는 당신이 춥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을 압니다. 추울지 더울지! »

비공식 주소는 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딸에게 물려받은 종교의 열매입니다. 신앙은 전통적이고 형식주의적이며 일상적이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빛이 너무 많아도 더 이상 그녀를 축복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16절: “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

1991년 11월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공식 기관에 의해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이러한 관찰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4년 봄에 그것이 토해 낼 것입니다. 그녀는 1995년에 가톨릭 교회가 조직한 에큐메니컬 동맹에 가입하여 반항적인 개신교에 합류함으로써 스스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저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유산에 기초한 기만적인 환상

17절 “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 부자 ”, 재림교인 당선자는 1873년에 있었고, 엘렌 G. 화이트에게 주어진 수많은 계시는 그녀를 영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차원에서 볼 때, 주님의 사자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이 올바르게 생각했던 것처럼 당시의 해석은 금방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예언이 완전하고 흠 없는 최종 성취를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의 흐름이 받아들이고 가르친 해석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정당화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한 1991년, 그 종말은 아직 멀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수단을 통해 제안하신 새로운 빛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제도의 환상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상태 사이에는 참으로 대조가 됩니다! 인용된 모든 용어 중에서 “ 벌거벗은 ”이라는 단어는 제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그 제도에서 그분의 영원한 정의를 거두셨고, 그것은 그분의 입에 있으며, 죽음의 선고이자 마지막 심판의 둘째 사망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기록된 대로: “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탄식하여 옷 입을 것이요 벗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하늘에 있는 집을 덧입기를 원하노라. »

충실하고 참된 증인의 조언

18절 “ 내가 네게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을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고 또 네 몸에 바르는 연고를 사라” 눈, 네가 볼 수 있도록. »

1991년의 발견 이후, 그 기관은 그 방식을 고치고 오지 않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아직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타락한 개신교와의 관계는 1995년 공식 동맹을 맺을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참된 믿음의 전속 상인, 시험의 “*불로 연단한 금*”으로 소개하십니다. 그가 교회를 정죄한 증거는 계시록 3장 4절에서 개척자들이 “*합당하게*” 입었던 “*흰 옷*”이 없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예수님은 1994년 이전에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을 1843년과 1844년 이전의 기대와 동일한 재림교인의 기대에 복종시켰다는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1844년 “*사데*”의 재림교인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가르친 대로, 세 가지 경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폐쇄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로 인해 기관은 예수께서 자신을 비난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참여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계시록 3장 18절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생의 표준에 대한 그림을 정의하는 마 13:45-46의 비유에서 “*값진 진주*”를 사라는 그리스도의 초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비로운 부르심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벌하노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 형벌을 내어 토해 내실 때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 즉 초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조직이 굳어지자 예수님은 하늘 소명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편적인 부르심

20절: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겠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문 “*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3:8, 여기 요한계시록 3:20, 요한계시록 4:1 및 요한계시록 21:21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3:8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은총에 다가가는 길을 열거나 닫는 믿음의 시험의 상징이 됩니다.

20절에서 “*문*”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9”;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문이 열렸느니라.*» ;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선택받은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마음을 열도록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피조물이 그의 계시된 진리에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그와 그의 신성한 창조자 사이에 친밀한 친교가 가능해집니다.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나누는데, 밤이 오면 하루의 일을 끝내게 됩니다. 인류는 곧 “ 아무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 이런 유형의 밤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9:4).”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육체의 차원에서 동등하게 책임이 있고 엄격하게 상호보완적인 남성과 여성의 마지막 종교적 선택이 영원히 동결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의 메시지와 비교하면 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라오디게아* 시대에 있다. “ 열린 문 ” 천국에서 ”는 계시록 4:1에서 이 메시지의 연속으로 열릴 것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권면

예수께서는 승리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1절: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

그리하여 그는 이 메시지에 뒤따르며 요한계시록 4장의 주제가 될 천상의 심판의 활동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그를 진정으로 선출된 승자에게 맡길 뿐입니다.

22절: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편지 ' 라는 주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실패로 끝난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빛은 영감받은 사람에게 의해 전달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그룹에 의해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될 것이며,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적 인격만큼 신성한 최신 진리의 확산의 원천을 향해 선택받은 사람을 인도하심으로써 친히 지시하실 인터넷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그가 이 땅 어디에 있든 이렇게 하십시오.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

다음 주제는 성도들이 행하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천년왕국을 그 맥락으로 삼을 것입니다. 전체 주제는 요한계시록 4장, 11장, 20장에 흩어져 있는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은 지상의 선택받은 자의 마지막 시대를 연대순으로 따르는 이 활동의 천상의 맥락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 하늘의 심판

1절: “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처음 들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 오라 이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

내가 처음 들은 소리는 나팔소리 같은 소리 ” 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은 이 “ 라오디게아 ” 시대의 메시지를 요한 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을 인도하신 메시지로 정의 하십니다. 주님의 날이었는데,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 그러므로 라오디게아는 “ 주님의 날 ”, 즉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로 끝나는 시대입니다 .

라오디게아 의 메시지와 함께 계승된다는 생각을 강력히 지지하십니다 . 이 설명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은 반대자들에게 천상의 심판 교리를 결코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편지에 붙은 낱자를 올바로 정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라오디게아와 요한계시록 4장 사이 , 요한 계시록 11장의 “ 일곱째 나팔 ”로 예수께서 마귀와 반역자들에게서 땅에 속한 “ 세상 나라의 권세 ”를 빼앗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 추수기 ”를 통해 그분은 택하신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죽은 악인들의 지상 생활을 심판하는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 2:27에서 말씀하신 대로 “ 이기는 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 ” 입니다 . 박해자들이 나처럼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이 확실하다면, 그들이 그들의 행동을 바꿀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최악의 행동으로 이끄는 것은 어떤 경고도 무시하려는 그들의 맹렬한 욕망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현재의 지상 상황에서 재현될 수 없는 최악의 형벌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주제는 이미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것을 볼 것이며 심지어 그것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때문에 애통할 것이다. 예. 아멘! » 이 세 본문의 연관성이 제시된 것은 주 예수께서 택하신 동수들과 그의 충실한 천사들에 의해 미가엘 이라고도 불린 주 예수의 재림 날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맥락을 확증해 줍니다 . 예수의 음성이 나팔 에 비유된다면 , 그것은 천상의 천사 군대의 선두에 서서 이 울리는 소리의 군대 악기처럼 예수께서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 군대의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분의 음성은 나팔 처럼 그 자신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들이 정복할 준비를 갖추도록 그분이 택하신 자들에게 경고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 나팔 ” 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그분의 계시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종들에게 이 주제는 제거 테스트를 숨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묘사된 장면은 그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의 택하신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같은 문맥에서 악인의 행동은 계시록 6:16에서 *다음과 같은* 계시적인 용어로 설명될 것입니다.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 명백히 대답 없이 중단된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 다음에 나오는 7장에서 제시하실 것입니다: 인봉된 택함 받은 자, 즉 숫자 144,000, 12의 제곱의 배수, 즉 144로 상징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곳에서 행동하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의 맥락에서 천국으로의 휴거는 또한 아벨 이후에 죽은 택자들에게 관한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 약속된 보상인 영생을 그들에게도 주기 위해 부활시키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성령은 오직 이 이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모든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실 뿐입니다. 이 하늘로의 승천은 인간의 지상적 본성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택함받은 자들은 마태복음 22:30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합니다. 육체와 그 저주가 끝났으니 그들은 후회하지 않고 남겨둔다. 인류 역사상 이 순간은 너무나 바람직해서 예수께서는 다니엘 이후 자신의 계시에서 이 순간을 계속해서 회상하셨습니다. 인간 때문에 저주받은 땅처럼, 참으로 선택된 자들은 그들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2절은 계시록 1:10에서 복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역사에서 동일한 사건, 즉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예언된 “*큰 날*”에 *그분의 재림을 언급하는 두 가지의 연관성을 더욱 강력하게 입증해 주십니다*.

2절: “ 나는 즉시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으셨더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기쁘게 하며*, 그들은 인간이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천상의 차원으로 투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눈에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마노로 된 돌 같고, 왕좌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언할 수 없는 천상의 영광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석으로 표현됩니다. “*벽옥 돌*”은 매우 다양한 측면과 색상을 취하여 신성한 본성의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사르도인*’과 비슷합니다. ‘*무지개*’는 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자연현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유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9장 9~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표였습니디다. 또한 비가 하나님의 상징인 해를 만날

때마다, 무지개는 지상의 생물들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의 홍수를 언급함으로써 “**불과 유향의 홍수**”가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벧후 3:7). 바로 이 멸망시키는 “**불의 홍수**”를 고려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늘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조직하시고, 그 재판관은 구속받은 택함받은 자들과 그들의 구속주 예수가 될 것입니다.

4절: “내가 보매 보좌 주위에 **보좌 이십사 개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이십사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24명의 노인 으로 상징되는 두 예언적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은 다음 원칙에 따라 드러납니다. 94년과 1843년 사이에는 12사도의 기초가 있습니다. 1843년부터 2030년 사이, Apo.7에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봉된 “12지파” 의 영적인 “재림교” 이스라엘 . 이 구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와 새 땅에 거할 새 예루살렘**” 에 대한 설명에서 확증될 것입니다 . “ 12지파 ”는 12개의 “진주” 모양의 “12개의 문” 으로 표현됩니다 . 심판이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리고 거기 앉은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머리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니 소유 .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 택하신 자의 통치는 재판관의 통치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판단합니까? 계시록 11:18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 하시며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해 계시된 세 가지 주제의 연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진노하는 나라들” 을 위한 “**여섯째 나팔**”, “**주의 진노가 임하였음**”을 위한 “**마지막 일곱 재앙**” 의 때 , 그리고 “**천년**” 의 하늘 심판은 “**죽은 자를 심판할 때가 이르렀음 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끝부분은 악인들을 멸망시킬 **불과 유향** 못 의 최종 심판으로 성취될 최종 계획을 제시합니다 . 그들은 모두 두 번째 에 참여합니다 요한계시록 20:5에 따르면 “**천년**” 이 끝나면 부활을 제안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악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땅을 파괴하는 자들**”. 이 행동 뒤에는 단 8:13에 인용된 “**파괴적이고 황폐하게 만드는 죄**”가 있습니다. 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죄 ; 그는 538년에서 1798년 사이에 잔인한 로마 교황 정권에 기독교를 전달하도록 하나님을 이끌었습니다. 321년 3월 7일 이래로 참 일곱째 날인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그토록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4장로들은 다니엘 8장 14절의 규정에 따라 구별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3장 5절에 따르면 합당한 것으로 판명된 그들 모두가 “ 흰 옷 ”을 입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약속된 “ 생명의 면류관 ”을 입는 이유입니다. 면류관의 “ 금 ”은 베드로전서 1:7에 따라 시련을 통해 정화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앞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숫자 3은 완전함의 상징이며, 성령께서는 이 일곱째 천년기 심판이라는 주제를 정복자들의 완전한 안식의 표징 아래 두셨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 시 110:1 및 마태복음 22:44. 그와 앉아 있는 자들은 **안식 하고 있으며, 이 이미지를 통해 성령은 일곱째 천년기를 잘 나타내시는데**, 창세 이래로 우리 주간의 일곱째 날의 성결한 안식으로 예언된 큰 안식일 또는 안식과 같습니다.

5절: “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나오느니라.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켜라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라.** ”

‘**보좌에서 나오는**’ 현상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이미 히브리 사람들의 공포 속에서 시내 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은 죽은 악인을 심판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수행할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이 알림은 또한 과거에 피조물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해 보이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본성을 바꾸지 않으신 하나님이 구원받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택하신 자들에게 위험 없이 보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목 ! 이제 해석된 이 짧은 문장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나타날 때마다 독자는 이 예언이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일곱 번째 천년기 심판이 시작되는 맥락을 상기시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책 전체의 구조는 “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있었다** ”라는 핵심 표현으로 구분된 다양한 주제로 기독교 시대에 대한 연속적인 개요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쇠에 “ **지진** ”이 추가된 계시록 8:5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 그것은 **나팔**의 주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천상 중보의 주제를 분리할 것입니다 . 그러면 계시록 11:19에서는 “ **강한 우박** ”이 그 열쇠에 추가될 것입니다. 설명은 이 “ **큰 우박**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재앙 중 일곱째 재앙**의 주제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나타날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 **지진** ”은 계시록 16:18에서 “ **큰 지진** ”이 됩니다. 이 열쇠는 계시록의 가르침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기본입니다.

5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번에 “ **보좌 앞에** ” 놓인 “ **일곱 등불 켜는 것** ”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 **하나님의 일곱 영** ”을 상징합니다.

숫자 “ 7 »는 성화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의 성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모든 생명을 담고 있는 그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그들 안에 계시며 그들을 “ 그의 보좌 앞에 ”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을 자신의 반대편에 자유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 일곱 개의 불타는 등불 ”의 이미지는 신성한 빛의 성화를 상징합니다. 완벽하고 강렬한 빛은 어둠의 가능성을 모두 제거합니다. 구속받은 자의 영생에는 어둠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6절: “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으니.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으니라.”

성령은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 이전 ”이란 무엇입니까? 보좌 ”는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돕는 천상의 창조물을 가리킨다. 많은 수의 이것들은 바다의 모습을 취하는데, 그 성격의 순수함은 그가 그것을 수정과 비교할 정도로 순수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충실을 유지해 온 천상과 지상의 피조물의 기본 품성입니다. 그런 다음 성령은 보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보좌 주위에 있는 다른 세계와 다른 차원의 천상의 창조물에 관한 또 다른 상징을 불러옵니다. 주위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시선 아래 흠어진 피조물을 가리킨다. 네 가지 생물이라는 표현은 생물의 보편적인 기준을 가리킨다. 다수의 눈은 다수라는 단어로 정당화되며, 눈의 ‘ 앞과 뒤 ’ 위치는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 이는 이러한 생명체에게 다방향, 다차원적인 모습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 앞과 뒤 ” 라는 표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의 네 면에 새긴 신의 율법을 가리킨다. 성령은 우주의 생명을 우주의 법칙과 비교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완전한 삶의 표준을 돌이나 육체, 영에 새기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수많은 눈들은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열정과 연민으로 지켜보고 따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 내 생각에는 사람의 마지막인 사도인 우리를 어떤 면에서 사형에 처하게 하신 것 같으니 우리가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어서. 천사들에게도, 사람에게에도 .” 이 구절에 나오는 “ 세상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주”입니다. 내가 다차원 세계로 정의하는 것은 바로 이 우주이다. 지상에서는 선택받은 자들과 그들의 싸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과 동일한 신성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관중들이 뒤따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기뻐하며 싸움이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또한 로마 사람들과 같은 믿지 않는 세상, 즉 그들의 경기장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살해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천상의 구경꾼 세 그룹, 즉 *네 생물과 천사와 장로들이* 모두 승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그들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아래 영원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많은 눈 ”과 *신의 율법을* 연결하는 연결 고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에 주시는 “증거” 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 우리는 이 율법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지성소”에 보관되었으며 “속죄일” 외에는 인간에게 금지된 것임을 기억합니다. 율법은 “ 증거 ”로서 하나님과 함께 남아 있었고 그 “ 두 돌판 ”은 계시록 11장 3절에 인용된 상징적 “ 두 증인 ”에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 이 단원에서 “ *많은 눈* ”은 지상의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증인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신성한 생각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충실함이라는 단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교자”로 번역된 그리스어 “마르투스”는 그것을 완벽하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실함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예수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비교하시고 심판하시는 십계명의 신성한 율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성한 율법이 예언됨

여기서 저는 2018년 봄에 받은 신성한 빛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괄호를 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영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 *모세는 증거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돌아와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표는 양면에 적혀 있었고 한쪽 과 다른쪽에도 적혀있었습니다 .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 에 새기신 것이니라* (출 32:15-16).” 나는 처음에 율법의 원표가 네 얼굴, 즉 *네 생물의 눈 처럼 ' 앞뒤 '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설명을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전 구절을 공부했습니다. 끈질기게 인용된 이 설명에는 영이 제가 발견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체 텍스트는 원래 두 돌판의 네 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의 앞면에는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의 절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에는 두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 전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판의 앞면에는 넷째 계명 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마지막 여섯 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구성에서 눈에 보이는 양면은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제시하고, 두 번째, 절반, 넷째 계명은 일곱째 날의 거룩하게 된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안식일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고 요구되었던 1843년에 거룩함의 표인 이 세 가지 계명이 강조됩니다. 이날 개신교도들은 물려받은 로마 일요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림교인의 선택과 개신교의 선택의 결과는 두

표의 뒷면에 표시될 것입니다. 1843년 이래로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고 제3계명도 범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저지른 허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계시록 3:9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 1843년에 가톨릭의 상속자인 개신교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제3계명 이전에 제2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두 진영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개신교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1994년에 공식 재림교회가 “구토”한 것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반대로 1843년부터 2030년까지 그의 거룩한 안식일과 그의 예언의 빛을 지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인용된 숫자 “천”은 영원에 들어간 선택된 승리자들의 보상이 될 계시록 20의 일곱 번째 천년기의 “천년”을 미묘하게 연상시킵니다. 또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개신교와 재림교인들은 1843년과 1994년에 연달아 하나님의 뜻을 버린 개신교와 재림교인들은 표 2의 뒷면에 적힌 마지막 여섯 계명(앞면 포함)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일곱째 날의 신성한 휴식에 바쳐졌습니다. 반면에 이 안식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인간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관한 이 계명들을 순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율법판을 모세에게 넘겨주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2018년 마지막 때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의미와 역할과 용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회복의 메시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강화되고 확증됩니다.

이제 십계명이 나타나는 형태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 1 – 앞면: 처방전

하나님은 자신을 제시하신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이 포함됩니다. 종의 집은 죄이며 마귀를 본받은 열매입니다).

제 1 계명: 가톨릭은 538년부터 죄, 개신교는 1843년, 재림교는 1994년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 계명 제1^{계명}: 538년 이후의 가톨릭 죄.

“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

표 1 - 뒷면: 결과

제 2 계명 : 제 2 부분 .

“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 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가톨릭은 538년부터, 개신교는 1843년부터, 재림교회는 1994년부터). ”
)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니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1843년 이후; 최신, 1994년 이후).

제 3 계명: 538년부터 카톨릭, 1843년부터 개신교, 1994년부터 재림교인에 의해 범해졌다 .

“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

표 2 - 전면: 처방

넷째 계명: 321년 이후 그리스도인 총회가 이 계명을 범함으로써 단 8:13의 “ 파괴적인 죄 ” 가 됩니다. 그는 538년부터 카톨릭 신앙을, 1843년부터 개신교 신앙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43년과 1873년부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앙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 일하고 네 일을 다 하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

표 2: 반대: 결과 : 이 마지막 여섯 계명은 321년 이후 기독교 신앙에 의해 범해졌습니다. 538년 부터 가톨릭 신앙으로 ; 1843년 이후에는 개신교 신앙으로, 1994년에는 “ 토한 ” 재림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들은 1843년과 1873년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축복받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앙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1994년부터 2030년까지의 "마지막 것".

제5 계명

“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제6 계명

“ 살인하지 마십시오. 살인을 저지르지 마세요 .” (악랄한 범죄, 살인 유형 또는 거짓 종교의 이름으로)

제7 계명

“ 간음하지 마십시오. »

제8 계명

“ 도둑질하지 마세요. »

제9 계명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제10 계명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당나귀나 네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

나는 여기서 이 숭고하고 매우 중요한 괄호를 닫습니다.

7절: “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 있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니라.”

바로 말해 봅시다. 이것은 단지 상징일 뿐입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에스겔서 1장 6절에도 설명의 변형과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마리의 동일한 동물이 있는데, 각각 네 개의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네 마리의 동물이 있지만 각각은 네 마리의 얼굴이 서로 다른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괴물들은 실재하지 않지만 상징적인 메시지는 숭고합니다. 그들 각각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다차원적 우주 창조물에 관한 영원한 우주적 삶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우주적 삶의 네 가지 기준인 신성한 완전성을 성육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사사기 14:18에 따르면 그 분에게서 사자의 왕권과 힘이 발견됩니다. 송아지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 ; 인간의 하나님 형상; 그리고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최고 천상의 고도의 지배권 . 이 네 가지 기준은 우주적이고 영원한 해의 왕국 생활 전반에 걸쳐 발견됩니다. 그것은 반역하는 영들이 싸운 신성한 계획의 성공을 설명하는 규범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속되는 지상 봉사 기간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완벽한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하시고,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전에, 그 자리에서 " 송아지 "처럼 그의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속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의 규범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본성과 열망과 소망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기준입니다.

8절: “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하늘의 심판을 배경으로 이 장면은 하나님께 충실한 존재들이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적용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다른 세계의 천체들은 지상차원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날개를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상의 상징을 채택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여섯 개의 날개*
”를 부여함으로써 천상의 인물과 천사의 숫자가 되는 숫자 6의 상징적
가치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죄 없이 남아 있는 세상과 반역
천사인 사탄이 처음으로 창조된 천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왕실 "인장"으로 "7"이라는 숫자를 자신에게
지정하셨고, 숫자 6은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인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악마의 경우에는 "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6은
세상이 순수하게 남아 있고, 선한 자와 악한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사를 포함합니다. 천사 아래에는 숫자가 "5"인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의 5가지 감각, 손의 다섯 손가락, 발의 다섯 손가락으로
정당화됩니다. 다음은 동서남북의 4개 기본 방위를 나타내는 보편적
문자의 숫자 4입니다. 아래에는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 3, 불완전함을
뜻하는 2, 일치, 즉 완전한 연합의 숫자 1이 나옵니다. 네 생물의 눈은 '
주위와 안에' 있고, 더 나아가 '*앞과 뒤에도*' 있다. 신성한 영의 기원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신성한 영이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이 천상의
다차원 우주 생명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지상에서 죄와 죄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그들을
자신 *안에 가두어 둠으로써* 이웃을 향한 계획과 비밀스러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죄와
죽은 자들을 이기신 후에 악이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천국의 생명은 수정처럼 투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선포는 이 순수한 세계의 주민들에 의해 완전성(3번:
거룩함)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선포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작품을 통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의 완전함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 집단적 거룩함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이름을 계시록 1:8에 인용된 형태로
계시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라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완벽하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야훼”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시고 신성한 경쟁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기 위해 이름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했던 모세의 요청에 응답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 불완전성의 3인칭 단수형 동사 "to be"로 번역되는 "YaHWéH"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이 “불완전한” 시간은 시간적으로 확장되는 성취를 의미하므로 우리의 미래보다 더 큰 시간입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이라는 형태는 이 히브리어 불완전성의 의미를 완벽하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히브리어 이름인 “야웨(YaHWéH)”를 서양 언어나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적용하셔야 할 때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는” 부분은 1843년부터 단 8:14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확립된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재림교회 단계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종종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히브리서 1:8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니라. 당신의 통치의 홀은 공평의 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청하는 빌립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9).”

9-10-11절 “*산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곧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느니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 앞에 경배하고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신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이 당신 뜻대로 존재하고 창조되었나이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표현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살아 남아 있는 택하신 자들에 의한 것입니다. 2018년 봄 이래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때에 묵시록이 준비되고 완전히 밝혀진 것은 오직 그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경배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감사를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인류는 사도 도마처럼 보이는 것만 믿으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작하는 장난감으로만 만드는 그의 극도의 약점을 무시해야 한다는 저주를 받았습시다. 적어도 그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정당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알면서 그에 맞서 싸우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며, 또한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유

선택의 다양하고 상반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상과 지상의 피조물에게 주신 참되고 완전한 자유를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사람의 아들

빌라도가 예수를 군중에게 소개하자 “ 보라, 이 사람이니라 ”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육신의 형체를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 사람 ”이 그의 마음과 뜻대로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죄로 인해 죽음이 첫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부끄러운 상태의 표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면의 영적인 벌거벗음에 대한 외적인 표시일 뿐인 육체적 벌거벗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첫 번째 구원의 선언은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동물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상징성을 보면 어린 숫양이나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00년 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류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바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수한 은혜로 제공하시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택하신 분이 그분의 완전한 정의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동시에 그의 죽음은 그가 자발적으로 짊어진 그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었으며, 그의 구원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적용됩니다.

“ 사람 ”이라는 비유 아래 배치된 이 5장은 그에게 바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상 생활의 여정 내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는 마귀가 그들의 길에 놓은 영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분의 기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처럼 그분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받는 그분이 선출한 관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계시 “묵시록”은 번역되지 않은 그리스 이름, 세상이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 거대한 비유 아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예언이 참으로 그분의 “계시”입니다.

1절: “ 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기록하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느니라.”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의 축복 아래에 “안과 밖”이라고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안에” 기록된 것은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남겨진 해독된 메시지이며, 하느님의 원수인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닫혀 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쓰여진 것은 암호화된 텍스트이며, 인간 다수가 볼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이 설명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인”을 떼야만 그 봉인이 완전히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인할 봉인이 남아 있는 한 그 책은 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책의 전체 개봉은 “일곱째 인”의 주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7일의 나머지 날인 거룩한 안식일을 지정하는 Apo.7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제목으로 언급될 것이며, 그 회복은 1843년에 첨부될 것이며, 따라서 또한 다음 날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책의 교육학에 일곱 나팔이라는 주제를 가져오는데, 이는 그 책에서 선택된 자들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절: “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니, 책을 펴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이 장면은 예언의 몽타주에 나오는 괄호이다. 요한계시록이 펼쳐져야 할 곳은 앞장 4장의 문맥인 하늘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는 마귀의 울무에 노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진영에 있으며, 강력한 천사는 미가엘의 천사 형태를 취하신 하나님, 야웨의 천사입니다. 봉인된 책은 봉인을 풀고 펼치는 데 매우 높은 위엄이 요구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거룩합니다.

3절: “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느니라. »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책은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분의 피조물 중 누구도 펼칠 수 없습니다.

4절: “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

요한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피조물이며 그의 눈물은 악마가 놓은 함정에 직면한 인류의 실망을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계시가 없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따라서 그것은 내용에 대한 무지의 비극적 정도와 그 치명적인 결과, 즉 이중 죽음을 드러냅니다.

5절: “ 노인 중 하나가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

“ 늙은 사람들 ”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생명체 위에 높이는데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분 자신이 아버지와 하늘의 존재들로부터 받았다고 선언하신 통치권을 그분 안에서 인식합니다. “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감을 주셨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 대해 예언하면서 유다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유다는 젊은 사자이다. 내 아들아, 너는 대학살에서 돌아왔다! 그가 무릎을 꿇고 사자 같이 눕고 암사자 같이 눕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리이까?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권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므로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라. 그는 그의 당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당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매었습니다. 그는 포도주에 그의 옷을 빨고 포도의 피에 그의 옷을 빨느니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해 희다 (창 49:8~12).” 포도의 피는 이사야 63장에도 예언된 계시록 14:17~20에 선포된 “ 추수 ” 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 “ 다윗의 뿌리 ”에 관해서는 이사야 11:1~5에서 읽습니다. : “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리라. 그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는 주님께 대한 두려움을 호흡할 것이다. 그분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며, 소문으로 판단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며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휘두르듯이 그의 말씀으로 땅을 치시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이실 것이다. 공의로 그의 옆구리의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리라 .” 죄와 죽음, 즉 그의 봉급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는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적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택한 자들은 마귀가 놓는 치명적인 종교적 함정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불신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다니엘 8:14의 법령이 발효되는 때, 즉 1843년 봄의 첫날에 완전히 퍼질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이해로 인해 2018년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6절: “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거기에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

어린 양이 " 보좌 가운데 " 임재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 형태의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대천사 미가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 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음”입니다. 그분의 “일곱 뿔”은 그분의 능력의 거룩함을 상징하며, 그분의 “일곱 눈”, 즉 그분의 피조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깊이 조사하는 그분의 시선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7절: “예수께서 나아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니라.»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예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메시지의 목적은 요한계시록의 내용 이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한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오른손”에 표시된 그의 모든 축복을 그녀에게 엮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8절: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금 향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구절에서 다음 상징적 열쇠를 유지합니다. “향유를 담은 금잔,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신실함으로 선택받은 모든 천상과 지상의 피조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합니다. “하프”는 집단적 찬양과 예배의 보편적인 조화를 상징합니다.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당신께서는 죽임을 당하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이 “새 노래”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일시적으로 반역의 선동자들이 사라진 것을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최후 심판 후에만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들은 모든 출신, 모든 피부색, 인종,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4장 11-12절의 선언에 따라 구원 계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안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 그러므로 다른 **모든** 종교는 불법적이고 악마적이고 환상적인 속임수입니다. 거짓 종교와는 달리, 참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 논리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낯선 분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요구는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며, 그분이 제공하신 구원에는 그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는 자신의 순교로 유익을 얻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10절: “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 *에 대한 권리를 얻습니다. 재판관* ”, 선택된 사람들은 계시록 20:4에 따라 왕들에 비유됩니다. 옛 언약 활동에서 “ *제사장들* ”은 죄를 위한 상징적인 동물 희생을 바쳤습니다. 천년 심판의 “ *천년* ” 동안, 택함받은 자들은 또한 그들의 심판을 통해 타락한 모든 천상과 지상의 창조물을 단번에 멸망시킬 거대한 보편적 희생의 마지막 희생자를 준비할 것입니다. “ *둘째 사망의 불못* ”의 불이 심판 날에 그들을 멸절시킬 것입니다. 이 멸망 후에야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 새로워진 땅이 구속받은 택함받은 자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 19:16) “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 내가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천천이라.”

이 구절은 지상의 영적 전쟁을 목격하는 세 그룹의 관중을 연합하여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성령께서 천사들을 “ *만만이요 천천* ”이라는 그 수가 매우 많은 특별한 그룹으로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주님의 천사들은 현재 근접 전투원으로서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 지상의 택하신 자들을 섬기는 일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 최초의 증인들은 지상 생활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역사를 기록합니다.

12절: “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

천사들은 지상에서 자신의 모든 신성한 능력을 빼앗아 완전한 사람이 된 그들의 지도자 미카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끝날 때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발적인 희생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공무원. 그분의 은혜 제공이 끝나면, 택하신 자들은 부활하여 약속된 영원에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께 그분이 미가엘에게 가졌던 모든 속성, 즉 “ *권능, 부, 지혜, 힘, 명예, 영광* ”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 *칭찬합니다.* »

13절: “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힘이 영원무궁토록 있도다! »

하나님의 피조물은 만장일치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인격을 선물로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의 표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프로젝트는 영광스러운 성공입니다. 그의 사랑스런 존재들의 선택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 14:7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형식을 취합니다. “ *그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앞에 경배하라.” 1843년 이후 마지막 선택은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자들은 321년 3월 7일 이후 폐기될 때까지 예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실천했던 일곱째 날의 안식일 관행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회복함으로써 듣고 응답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넷째 계명을 존중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이 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의 메시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하는 천상 영광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힘이 영원 토록! “. 이 단어는 앞선 13절에서 천사들이 인용한 단어를 거꾸로 반복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서는 천상의 생명, 곧 신성한 “능력과 부와 지혜” 를 회복하셨습니다. 지상에서 그의 마지막 원수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 합당한 “칭찬과 영예와 영광과 힘”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의 힘”을 불러 마침내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의 발 아래 짓밟았습니다. 또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그분의 거룩하고 순결한 피조물들은 함께 그분의 영광의 백성을 합법적으로 그분께 회복시켜 줍니다.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그러자 노인들이 앞으로 나와 절을 했습니다.”

순수한 세계의 주민들은 이러한 회복을 승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사실이에요! » 그리고 승화된 사랑으로 구원받은 지상의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러 오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행위자, 신의 형벌 기독교 시대의 징후

나는 계시록 5장에서 주어진 교훈을 기억합니다. 이 책은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만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분이 제칠일 안식일 준수를 절대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선택은 그를 승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지혜와 영적, 예언적 분별력을 받을 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본문 자체가 그것을 명시하지 않고도 선택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인용된 “하나님의 인”을 “일곱째 인”과 동일시할 것이며, 이 인은 여전히 계시록을 닫고 있으며, 그는 이 인과 연관시킬 것입니다. 두 개의 “인장”,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 믿음은 빛과 어둠을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 안식일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언이 닫혀진 밀폐된 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떤 명백한 주제는 잘 인식할 수 있지만,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하고 날카로운 계시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곱째 인”의 중요성은 성령께서 “일곱 나팔”이라는 주제를 여는 역할을 주시는 계 8:1-2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일곱 나팔”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나팔의 주제는 동시에 계시록 2장과 3장의 “서신”의 주제에 예언된 진리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과 7장의 “인”. 하나님의 전략은 그가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적 계시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안식일의 실천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 직분을 맡을 자격을 갖게 된 성령께서는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써 나에게 계시록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인장”의 정체를 알아보시다.

1절: “내가 보니 어린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

이 첫 번째 “생물”은 사 14:18에 따르면 계 4:7의 “사자”의 왕권과 힘을 나타냅니다. 이 천둥소리는 신성하며 계시록 4:5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각각의 “인”을 여는 것은 환상의 메시지를 보고 이해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빌립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격려하기 위해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 내가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것을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승리하고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흰색은 완벽한 순도를 나타냅니다 . 말은 야고보서 3 장 3절에
따라 인도하고 가르치는 선택된 백성의 이미지입니다 . 그의 " 활 "은
그의 신성한 말씀의 화살을 상징합니다. 그의 " 왕관 "은 그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순교로 얻은 " 생명의 면류관 "이다. 그의 승리는
그가 첫 번째 상대를 창조한 이후 확고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묘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분은
이미 골고다에서 마귀와 죄와 죽음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분의 최종
승리는 확실합니다. 스가랴 10:3-4은 이러한 형상을 확증합니다. “ 내가
목자들에게 진노하고 염소들을 벌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양 떼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시고 그들로 전쟁에서 자기 영광의 말로
삼으시리니 그에게서 각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못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나올 것이다 . 그에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나올 것이다. »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우리 주간의 “ 제칠일을 거룩하게 하심 ”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안식일은 계시록 20:4-6-7에서 " 천년 "이라고 불리는 " 일곱 번째 "
천년기의 나머지 기간을 예언하며 , 예수께서는 그의 승리를 통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상 세계가 창조될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 승리자로 시작하셨다 ”는 표현을 확증해
줍니다. 안식일은 죄와 마귀에 대한 신적, 인간적 승리를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표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것, 즉
마귀를 잡아채시는 “ 성화 ”의 전체 계획을 그 위에 두십니다.

3절: “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더라 ”

“ 둘째 생물 ”은 요한계시록 4장 7절의 제물 중 “ 송아지 ” 를
가리킨다 . 희생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참된 제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4절: 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사람들이 서로 목을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리고 그에게는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 빨간색 " 또는 " 불 같은 붉은색 "은 계시록 9:11의 " 아바돈
아폴리온 " 의 이미지에서 사탄인 수석 파괴자가 조장하는 죄를
나타냅니다 . “ 불 ”은 파괴의 수단이자 상징이다. 그는 또한 타락한
나쁜 천사들과 지상의 세력을 유혹하고 조종하는 자들로 구성된 그의
사악한 진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사람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 ”를 하나님으로부터 “ 받은 ” 피조물일
뿐입니다 . 이 행동은 계 18:24에서 “ 음녀 큰 바벨론 ” 인 로마에 귀속될

것입니다 :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음 이라”. 그러므로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파멸자”는 그의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누구인지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가 받는 “칼”은 에스겔 14:21-22에 인용된 네 가지 무서운 신의 형벌 중 첫 번째를 가리킨다. 들짐승과 염병이 사람과 짐승을 멸하려 하여도 남은 자가 있어 거기서 나오리라 아들들아 그리고 여자애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셋째 생물”은 계시록 4:7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 인물은 허구이지만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따르면 그는 죄에 대한 두 번째 신성한 형벌을 구성합니다. 남성의 식단에 반대하는 행동, 이번에는 기근에 관한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것이 부과될 것입니다. 두 적용 모두에서 그것은 필멸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신성한 빛이 박탈된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 직접적인 결과는 마지막 심판에서 타락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둘째 사망”의 죽음입니다. 이 세 번째 말탄 자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느님의 형상이 아니고 동물의 형상이므로 나는 그에게 생명을 주는 육신적인 영양분과 영적 영양분을 박탈합니다. 저울은 정의의 상징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6절: “또 내가 네 생물 사이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스아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스아라 하더라. 그러나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이 음성은 거짓 신자들의 불신으로 인해 멸시받고 좌절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같은 가격이면 보리보다 밀의 양이 적습니다. 이 풍성한 보리 제사 뒤에는 매우 높은 영적 수준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5장 15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 느끼는 질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율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고 싶다면 12절부터 31절까지 설명된 이 절차를 자세히, 완전히 읽어 보십시오. 이에 비추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부이신 신랑 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에서 “질투의 혐의”에 대해 항의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계시록 8장 11절의 “셋째 나팔”에 인용된 “쓴 물”에 대한 언급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민수기 5장의 절차에서 여자는 결백한 경우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흠이 많은 물을 마셔야 했지만, 죄가 있으면 괴로워져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간음은 계 2장 12절(비가모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혼인을 범함)과 계 2장 22절에서 정죄되었으며, 셋째 인과 셋째 나팔 사이의 연결고리로 다시 입증될 것이다.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다니엘 8장은 “가설”로 제시된 단 7장의 “작은 뿔”이 로마인의 동일성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7장, 8장을 이렇게 평행시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로마인임을 입증할 수 있게 해 준 참신함이었다. 이는 재림교가 존재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상황은 똑같아 보입니다. 나는 세 가지 주요 주제인 편지, 인장, 나팔을 통해 평행 기독교 시대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팔 ”이라는 주제는 다니엘서의 다니엘 8장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예언이 없으면 내가 다니엘 연구에서 “가설”이라고 불렀던 “의심 ”만 제시할 증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민수기 5장 14절에 나타난 “ 질투의 의혹 ”이라는 말씀은 계시록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과 성회에 적용됩니다. 그런 다음 “ 일곱째 인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주제인 일곱째 날 안식일과 동일시됨으로 인해 책이 열리면서 “ 나팔 ”이라는 주제로 총회에서 “ 간음 혐의 ”가 “확증”될 것입니다 . 이어지는 10~22장. 따라서 성령은 7장에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세관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계시록의 경우 그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Apo에 따르면 접근의 문은 그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 내가 그의 문 (마음의 문) 을 두드릴 때 나에게 열리는 사람 , 나와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라고 말합니다. 3:20. “ 포도주와 기름 ”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한 둘 다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전히 자비를 베푸셔서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6:1과 14:10에 따르면 지상의 마지막 날에 그분의 “ 진노 ”의 “ 일곱 마지막 재앙 ”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의 음성이 이르되 오라 하시니»*

“ 네 번째 생물 ”은 최고의 천상 고양의 “독수리 ”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네 번째 형벌인 필멸의 형벌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8절: *“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지라. 그것을 탄 자를 죽음이라 부르는데, 음부도 그와 동행하였다. 그들에게 땅의 사분의 일의 권세를 주었으니 곧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니라.”*

발표가 확인되면 그것은 실제로 “ 죽음 ”이지만 상황에 따른 처벌로 부과되는 필멸의 의미입니다. 죽음은 원죄 이후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 땅의 4분의 1 ”만이 죽음에 맞고, “ 칼과 기근과 사망 ”과 전염병으로 인한 “ 야수 ”와 동물과 인간 모두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 “ 지구의 4분의 1 ”은 불성실한 기독교 유럽과 16세기 경에 그곳에서 등장할 강력한 국가들 , 즉 두 개의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9절: *“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이들은 거짓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짐승” 행위의 희생자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계시록 2:20에서 상징된 로마 교황 카톨릭 정권에 의해 가르쳐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종들을 가르치는 행위, 문자적으로는 “*그의 종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그 여자 이세벨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래에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호 아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공의”(참조 단 9:24)로부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알 수 있듯이, 택하신 자들은 순교자의 희생자이지 결코 사형 집행자나 인간을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인정하신 이 구절에 관련된 선택된 자들은 죽음에서도 순교자로서 그분을 본 받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히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꼬리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증거”는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는 일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의 피와 같이 하나님의 귀에 복수를 외치는 것은 땅에 흘린 그들의 피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 죽은 자의 실제 상태는 전9:5-6-10에 드러납니다. 에녹, 모세, 엘리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당시 부활된 성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들의 생각과 기억하는 것이 없어졌음이라.*” “*지옥에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지식도 없느니라. 그들의 기억은 잊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죽음에 관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기준입니다. 거짓 신자들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이교주의에서 물려받은 거짓 교리의 희생자입니다. 플라톤의 죽음에 대한 견해는 진리의 하나님께 충실한 기독교 신앙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에게 속한 것은 플라톤에게, 그에게 속한 것은 신에게 돌려줍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정반대이지 새로운 존재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니라. 그리고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한동안 더 쉬라 하시더라.*

“*흰옷*”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입으신 순교자들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흰옷*”은 종교적 박해 시대에 그분이 전가하신 정의의 이미지입니다. 순교의 시대는 예수 시대부터 1798년까지이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따르면,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프랑스 혁명과 그 공포의 상징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1794년 에는 Apo.13:1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명명된 군주제와 가톨릭 교황청이 조직한 박해가 종식될 것입니다. 혁명적 학살 이후 기독교 세계에는 종교적 평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읽습니다. “ 또 자기와 같이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가만히 있으라 하시더라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 다섯째 봉인 ”의 메시지가 “ 두아디라 ” 시대의 가톨릭 교황의 종교 재판으로 박해를 받는 개신교인들에게 전달된다고 가정하면 , 선출된 자들을 죽이는 시간은 곧 1789년에서 1789년 사이에 일어날 프랑스 혁명적 행동으로 인해 중단될 것입니다. 1798년, 교황청과 프랑스 군주제 연합의 공격적인 세력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개봉될 “ 여섯째 인 ”은 계시록 2:22과 7:14에서 “ 큰 환난 ”이라고 부르는 이 프랑스 혁명 정권에 관한 것입니다. 개신교 신앙을 특징짓는 교리적 불완전성 때문에 개신교 신앙은 또한 무신론 혁명 정권의 불관용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행동을 통해 죽임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12절: “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붉은 베처럼 검어지고 온 달이 피처럼 변했습니다.

“ 여섯째 봉인 ”의 때의 징조로 주어진 “ 지진 ”은 우리가 ^{1755년 11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쯤 에 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 그 지리적 중심은 120개의 가톨릭 교회가 있는 가톨릭 도시인 리스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 지진 ”이 또한 영적인 형상으로 예언되었다는 그의 진노의 표적을 지적하셨습니다 . 예언된 행동은 1789년에 프랑스 국민이 군주제에 대항하여 봉기하면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그녀의 동맹국인 로마 카톨릭 교황을 정죄하셨으며 둘 다 1793년과 1794년에 죽었습니다. "두 가지 혁명적 테러"의 날짜. 계시록 11:13에서는 프랑스의 혁명적 행동을 “ 지진 ”에 비유했습니다. 인용된 행위의 날짜를 알 수 있게 되면 예언이 더욱 정확해집니다. “... 해가 말총처럼 검게 변 했어요 », 1780년 5월 19일, 북미에서 발생한 이 현상을 '암흑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태양빛이 전혀 없는 날이었고, 여기서는 “ 태양 ”으로 상징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대항하여 프랑스의 혁명적 무신론이 수행한 행동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 성경은 아우토다페(auto-da-fé)에서 불태워졌습니다. “ 달 전체가 피처럼 됐습니다 .” 이 어두운 날이 끝날 무렵, 두꺼운 구름이 달을 뚜렷이 붉은색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1793년에서 1794년 사이에 어둠의 교황-왕실 진영에 예정된 운명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들의 피는 혁명적인 단두대의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풍성하게 흘릴 것입니다.

참고 :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 ”을 쳐서 “ 넷째 나팔 ”의 메시지는 혁명가들의 희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참된 택함을 받은 자요 타락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방금 본 “

다섯째 인 ” 메시지의 의미를 확증해 줍니다 . 충실하고 선택된 자들을 마지막으로 죽이는 것은 무신론의 행위를 통해서이다.

13절: “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세찬 바람에 흔들려 푸른 무화과나무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

이 세 번째 시대의 징조, 이번에는 하늘의 징조는 문자 그대로 1833년 11월 13일에 성취되었으며,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에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표징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영적인 사건을 예고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하늘 전체에 우산 모양으로 떨어진 이 별들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1843년에 개신교 신자들이 단 8:14의 법령에 의해 희생되었을 때 그들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지입니다. 1828년과 1873년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짐승의 이름인 "호랑이" 강의 활동(단 10:4)이 단 12:5~12에서 확증됩니다. 이 구절에서 “ 무화과나무 ”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실함은 땅에 던져진 “ 푸른 무화과 ”의 형상으로 인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 신앙도 유보와 잠정적 조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나, 윌리엄 밀러의 예언적 메시지에 대한 열시와 안식일 회복의 거부로 인해 1843년에 개신교 신앙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 녹색 ”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익기를 거부하면 죽게 됩니다. 그녀는 2030년 그녀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까지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이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1994년 이후로 마지막 빛을 거부함으로써 공식적인 재림교회는 “ 그것도 ”가 되었습니다. 두 번 죽을 운명의 ' 녹색 무화과 '.

14절: “ 하늘이 말리는 두루마리 같이 떠나가니라.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

이번 지진은 이번에 보편적입니다.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사람과 짐승의 모든 것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이 조치는 계시록 16:18에 따르면 “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재앙 중 일곱째 재앙 ”이 있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따르면 그것은 참으로 택한 자들의 부활의 시간, 즉 “ 첫 번째 ”, “ 복 있는 자들의 ” 부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5절: “ 땅의 왕들과 큰 자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느니라. »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인간의 어떤 힘도 설 수 없고, 그 어떤 피난처도 그의 의로운 진노로부터 그의 원수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그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범죄한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16절: “ 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

신성한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시지만, 이 시간에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은 더 이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니라, 후기의 원수들을 쳐부수기 위해 오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17절: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실제로 도전은 “*존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법적 개입 후에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 수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3:15에 언급된 일요일 법령의 계획에 따라 죽게 되어 있는 자들이며, 그에 따라 거룩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20일에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구. 앞 구절에 드러난,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의 공포가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련된 그분의 계획의 일부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일 안식일 재림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신 날: 안식일

1절: “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막아 땅에나 바다에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

이 “ 네 천사 ”는 “ 땅의 네 모퉁이 ” 로 상징되는 우주적 활동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천상의 천사들이다 . “ 네 바람 ”은 보편적인 전쟁과 갈등을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 제지 ”되고, 방지되고, 차단되며, 이는 보편적인 종교적 평화를 가져옵니다. 천주교의 상징인 “ 바다 ”와 개혁주의 신앙의 상징인 “ 땅 ”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인 “ 나무 ”에도 적용됩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 평화는 1793년에서 1799년 사이에 프랑스 국민 무신론에 의해 분쇄된 교황권의 약화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날 교황 비오 6세가 내가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발랑스 쉬르 론의 성채 감옥에 구금되어 사망했습니다. 이 행동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 깊음에서 올라오는 짐승 ” 에 기인합니다 .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는 이를 “ 넷째 나팔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녀 이후 프랑스에서는 Apo.8:13에서 “ 독수리 ”로 상징된 나폴레옹 1세의 제국 정권이 협약에 의해 회복된 가톨릭 종교에 대한 권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2절: “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돌는 해를 향하여 올라가더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 떠오르는 해 ”는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양 떼를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진에 나타납니다. 천사는 자신의 권위를 확증하는 “ 큰 소리 ”로 하나님으로부터 “ 해를 끼치라 ” 는 권한을 받은 우주의 마귀 천사들에게 “ 땅 ”과 “ 바다 ”에게 명령을 내린다. 신앙과 로마 카톨릭 신앙. 이러한 영적인 해석은 우리가 창조한 “ 땅과 바다와 나무 ”에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이는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 여섯째 나팔 ” 때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3절: “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를 끼치지 말라. ” »

이 세부 사항을 통해 우리는 선택받은 자의 인봉 행위가 1843년 봄부터 1844년 가을까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최초의 재림교인인 조셉 베이츠 대위가 다음과 같이 입양하여 인봉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일곱째 날 안식일 휴식. 그는 곧 그 당시의 모든 재림교인 형제자매들로부터 점진적으로 본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인봉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계시록 9:5-10에 예언된 “ 다섯 달 ”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Ezé.4:5-6의 일-연도 코드에 따라 “ 5개월 ” 또는 실제 150년입니다. 이 150년은 종교적 평화를 위해 예언되었습니다. 확립된 평화는 오늘날 모든 서구 국가와

가능한 모든 곳에서 대표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별의 선포와 보편적인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재림교회의 사명은 보편적이며,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기독교 신앙고백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으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천상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감에만 의존해야 하며, 그분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11:3에서 하나님의 “ 두 증인 ” 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 1844년에 시작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평화의 때는 요한계시록 9장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1994년 가을에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에 관한 중요한 참고 사항: 안식일만으로는 “*하나님의 인*”으로서의 역할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봉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일들, 즉 진리 **와 예언적 진리 에 대한 사랑과 고린도** 전서 13장에 제시된 열매에 대한 증언이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실천에 대한 죽음의 위협이 나타나면 안식일을 버릴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그 안식일의 표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 겔 20:12-20에 따르면, “ *내가 또 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으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을 행하여 이로써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 **방금** 말한 내용을 모순하지 않고 오히려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읽** 습니다 . **그에게 ;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

4절 “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의 수는 십사만 사천이요* ”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미지를 통해 개종한 이교도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족장 아브라함의 뿌리에 접붙여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 개종한 이교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 연장선입니다. 할례를 표로 받은 육신적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를 거절하였으므로 타락하여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321년 3월 7일 이후 배도에 빠진 기독교 신앙도 그때부터 타락한 영적 이스라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1843년부터 그분께서 축복하신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보편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용된 “ 144,000 ” 이라는 숫자는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 *하늘의 별* ”에 비유하면 그 수가 너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문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 나오는 “ 수 ”라는 용어를 숫자적인 양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별하시는(그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종교적 행위를

가리키는 영적 코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144,000”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144 = 12 \times 12$, $12 = 7$, 신의 수 + 5, 인간의 수 = 신과 인간의 동맹. 이 숫자의 입방체는 완벽함의 상징이자 정사각형, 즉 표면의 상징입니다. 이 비율은 계시록 21장 16절의 영적인 법전에서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비율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천”이라는 용어는 무수한 무리를 상징합니다. 사실 “144,000”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완전한 구속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이 언급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동맹이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탈출 이후 제시된 유대 모델은 이유 없이 그리스도에게까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식일의 계명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계명과 회복된 도덕, 건강 및 기타 규례에 대한 기독교적 진리와 존중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날의 신실하고 반역적인 재림교에서 이스라엘의 모델이 그 계명에 부합함을 발견하셨습니다. 이상적인 제4계명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신다는 점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옛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행하라...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는 날이니라”. 하루 24시간을 6일로 합치면 144시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침을 받은 144,000명이 이 신성한 의식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속적 일을 위해 부여된 6일 동안의 존중으로 강조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 그들은 이 계명의 성별된 안식의 대상을 공경합니다. 이 “재림교인” 이스라엘의 영적 특성은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인용된 히브리 족장들의 이름은 육적 이스라엘을 구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의 기원을 정당화하는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일곱 모임”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열두 지파”의 이름에도 이중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번역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가장 풍부하고 복잡한 것은 각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을 정당화할 때 하는 선언에 기초합니다.

5절: “유다 지파에서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명이요 갓 지파에서 이천명이요»

인 맞은 만 이천”이라는 숫자는 안식일에 인을 받은 하나님과 연합한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창세기 29:35의 모성어: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

루벤 : 아들을 만나세요. 창세기 29장 32절의 어머니 말씀: “야훼께서 나의 굴욕을 보셨느니라”

갓 : 행복; 창세기 30장 11절의 어머니의 말씀: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6절: “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일만 이천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이천명이요 »

인 맞은 만 이천 ”이라는 숫자는 안식일에 인을 받은 하나님과 연합한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Asher : 행복합니다: 창세기 30장 13절의 어머니의 말: “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

납달리 : 분투: 창세기 30장 8절의 어머니의 말: “ 내가 내 누이와 신의 힘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므낫세 : 망각: 창세기 41장 51절의 아버지의 말씀: “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슬픔을 잊게 하셨습니다.”

7절: “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일만 이천명이요 잇사갈 지파에서 이천 명이요, » 각 이름에 대해 ” 인을 받은 만 이천 ”이라는 숫자는 안식일에 인을 받은 하나님과 연합한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시므온 : 들어보세요: 창세기 29장 33절의 어머니 말씀: “ 야훼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느니라”.

레위 : 첩부: 창세기 29장 34절의 어머니 말씀: “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에게 붙어 있을 것이다.”

잇사갈 : 급여: 창세기 30:18의 어머니 말씀: “ 하나님께서 나에게 급여를 주셨습니다.”

8절: “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일만 이천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 명이요 »

인 맞은 만 이천 ”이라는 숫자는 안식일에 인을 받은 하나님과 연합한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스불론 : 거처: 창세기 30장 20절의 모성어: “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다”.

요셉 : 그분은 제거하셨습니다(또는 추가하십니다): 창세기 30:23-24의 모성어: “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셨으니... / (... 야훼께서 나에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

베냐민 : 오른쪽의 아들: 창세기 35장 18절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 “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 영혼이 떠나려 할 때 그에게 이름을 베오니 (내 슬픔의 아들) 이라 주었으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의인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이 12개의 이름과 어머니, 아버지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지막 재림교인 모임이 겪은 경험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7에서 신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시된 성, “ 베냐민 ”으로 하나님은 반역자들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분이 선택하신 자의 마지막 상황을 예언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부과한 이름 변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개입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귀환은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죽을 자들은 영광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서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온전한 예언적 의미를 갖습니다. 즉 권리는 선택받은 자, 즉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 즉 그것을 구성하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님의 우편에 있는 양들입니다(마 25:33).

9절: “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더라.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

이 “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는 이전 구절에서 인용된 “ *숫자* ” “ *144,000* ”과 “ *12,000* ” 의 영적으로 암호화된 상징적 성격을 확증합니다 . 더욱이, “ *아무도 그들을 셀 수 없더라* ” 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신 “ *하늘의 별들* ” 에 관하여는 “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원은 다양하며 *모든 국가, 모든 부족,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시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장의 주제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성에 관한 최신 재림교회 메시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따라 마지막 반역자들이 공포한 법령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고 순교자로 죽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 *흰옷* ” 을 입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 종려나무 ”*는 죄인의 진영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절 : “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 »

이 행동은 요한계시록 6장 15-16절에 묘사된 반군 진영의 반응에 대한 설명과 병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구출된 당선자들의 발언은 반군들의 발언과 정반대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들을 놀라게 하기는커녕 그들을 기쁘게 하고 안심시키며 구원해 줍니다. 반군이 던지는 질문 “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 » 여기서 그의 대답을 듣습니다. 필요하다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재림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충실성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존중하려는 그들의 애착과 그분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 승리를 거두고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된 영생을 받아들임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일곱째 천년기의 큰 안식을 예언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11절: “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더라.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 하나님 앞에 얼굴을 숙였습니다.* ”

우리에게 제시된 장면은 하나님의 크신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루는 4장과 5장에서 이미지를 찾습니다.

12절: “ 말씀하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지상 구원 경험의 아름다운 결말에 기뻐하며, 천사들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지상에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구속하는 일에 앞장서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 인간의 육체의 약함으로 성육신하여 그의 정의에 의해 요구되는 잔혹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들은 이 구원 계획의 모든 단계를 따랐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송고한 표현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첫 번째 말은 “ 아멘!” 입니다. 진심으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 찬양하라”는 12지파의 첫 번째 이름이기도 하다: “ 유다 ” = 찬양하라. 세 번째 단어 는 “ 그리고 하나님은 1843년 이후 자신의 구원을 주장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영광을 요구하기 위해 계명 14:7에서 자신의 영광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번째 단어는 “ 지혜 ” 입니다. . 이 문서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이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묘함, 마인드 게임, 모든 것이 신성한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다섯째는 “ 감사 ”입니다. 거룩한 말과 행위 로 이루어지는 종교적 감사의 형태이다 . 6학년에는 “ 명예”가 옵니다. 반역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원망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니다. 그들은 계시된 그분의 뜻에 도전함으로써 그분을 경멸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선출된 관리들은 가능한 한 그에게 정당하게 합당한 명예를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일곱째와 여덟째에는 “ 능력과 힘”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구속력은 땅의 폭군을 무너뜨리고, 아직 땅을 통치하고 있는 오만한 반역자들을 진압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이 능력 과 힘이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선택된 자들은 기독교 시대의 다른 많은 순교자들처럼 죽었을 것입니다.

13 절 :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

질문은 계 3:4의 “ 흰 옷”과 계 19:8에서 “ 고운 아마포 ” 와 관련하여 “ 흰 옷 ”의 상징이 갖는 특수성을 우리에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일들”은 마지막 때의 “예비된 신부”의 일이며, 하늘로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실한 마지막 때의 재림교회입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

' 흰옷 '을 보면 진은 사실 그들 중 한 사람의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예상되는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 즉 “ 다섯째 인 ”이 우리에게 계시한 바와 같이

선택받은 자들, 종교 전쟁과 무신론의 희생자들과 순교자들입니다. 계시록 6:9-11에서: “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니라.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한동안 더 쉬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 큰 환난 ”은 1793년에서 1794년 사이에 이루어진 프랑스 무신론 혁명 정권의 학살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 지진 ”; 종교인의 경우 “ 일곱 ”, 다수의 경우 “ 천 ”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의 종들도 죽이는 지진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 큰 환난 ”은 이 성취의 첫 번째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Rev.9의 “ 여섯 번째 나팔 ”에 의해 완성될 것이며, Rev.11의 편집을 미묘하게 보면 이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 여섯 번째 나팔 ”이 상징하고 입증하는 제3차 세계 대전 중에 수많은 불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843년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게 하신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셨고, 마지막으로 구별하신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하기에 너무 귀중합니다. 그분께서는 지상 구원 역사에 대한 마지막 간증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는 반군 진영의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그분의 제철일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므로써 그분께 드릴 신실함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마지막 시험은 “ 빌라델비아 ”에 전달된 메시지(계 3:10 및 13:15(죽음의 법령))에 드러납니다. 하느님께 의도는 행동할 가치가 있으며, 그들이 시험을 받아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는 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순교자 집단에 동화시켜 “ 흰 옷 ”의 진정한 순교자로 여기십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개입으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에서 두 번째 “ 큰 환난 ” 후에 그들은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간증을 통해 “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고 희게 하 ”며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 끝나면 순교자로 죽게 될 사람들의 수가 가득 차게 될 것이며, “ 다섯째 봉인 ”에 의해 순교한 성도들의 필멸의 “ 안식 ”은 그들의 부활로 끝날 것입니다. 1843년 이래로, 특히 1994년 이래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화의 사역은 그것을 쓸모없게 만들고, 그가 다시 오실 때와 그에 앞서 오는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살아 있고 신실하게 남아 있던 참 택하신 자들의 죽음이 그것을 더욱 쓸모없게 만듭니다. 쓸모 없는.

15 절 : “ *이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에 이러한 유형의 선택자는 특별히 높은 엘리트를 대표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분은 그에게 특별한 영예를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 영은 현재와 미래라는 두 가지 활용형 시제를 사용합니다. “ 그들이 있다 ”와 “ 그를 섬기다 ” 라는 현재형

활용형 동사는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육신의 몸 안에서 그들의 행위가 계속됨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휴거된 후에도 하늘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 “보좌에 계신 이가 그들 위에 영원토록 장막을 치시리라”고 대답하십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은 최후의 재림교인들에게 그들이 음식이 없어 “배고프고”고 문자들과 간수들에 의해 물이 없어 “목 마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재앙 중 넷째로 “열”이 더욱 강해지는 “해의 불”이 그들을 태워 고통을 겪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째 봉인”의 순교자들이 소멸되거나 고문을 받은 것도 역시 교황의 종교 재판의 장작불, 즉 또 다른 종류의 “열”에 의해서였습니다. “열”이라는 단어는 여섯째 나팔의 문맥에서 사용된 재래식 무기와 원자 무기의 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택하신 자들만이 들어갈 영생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7절: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양”은 사실 자신이 사랑하는 양들의 목자가 될 선한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신성은 여기에서 “보좌 가운데”라는 그분의 위치로 다시 입증됩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그분의 택하신 자를 영생의 상징적 이미지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택하신 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마지막 상황을 목표로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은 또한 그리스도 시대의 역사 전체에 걸쳐, 종종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분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학대와 박해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참고: 참된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2020년 우리 시대에 관찰되는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종, 민족, 언어적 기원에서 나오는 “무리”의 개종과 구원을 예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5-10절에 따르면, 이해와 보편적인 종교적 평화의 시기는 그분에 의해 “150”년(또는 *예언적 5년*) 동안만 프로그램되었음을 아는 것이 그분이 선출한 관리들에게 주신 진정한 특권입니다. 1844년에서 1994년 사이의 기간입니다. 참된 선택을 받은 이 독특한 기준은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의 메시지에서 인용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녀는 심연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가야만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면 기이히 여기 리니 이는 전에 있었다가 이제는 없어졌음이라 .* » **진정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선포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처음 네 나팔

하나님의 처음 네 가지 형벌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 ”을 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따라 “ *일곱 인으로 봉한* ”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 이 시작을 알리는 침묵은 액션에 예외적인 엄숙함을 더해줍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21년 3월 7일 안식일의 폐기로 인해 하늘과 땅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 “ *일곱째 인* ”을 “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7장)은 내 생각으로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가리킨다. 그분은 이 계명을 십계명 중 네 번째의 주제로 삼으심으로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우리의 숭고한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 주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창세기 기록에서 나는 일곱째 날이 2장에서 별도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 6일은 1장에서 다루어집니다. 더욱이, 일곱째 날은 이전 날들처럼 다음과 같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저녁과 아침* ”. 이러한 특수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곱 번째 천년기에서 그것이 예언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택함받은 자들의 영원성의 표징 아래 놓인 일곱째 천년기는 그 자체로 끝이 없는 날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히브리어 성경인 토라에 제시된 넷째 계명의 본문은 다른 계명과 분리되어 있으며, 정중한 침묵의 시간을 요구하는 표시가 앞에 나옵니다. 이 기호는 히브리어의 문자 "Pé"이므로 텍스트의 구분을 표시하는 격리된 문자로 "pétuhot"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 표시되는 모든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843년 봄 이래로, 이는 가톨릭 “일요일”의 계승자인 전통적인 개신교 신앙의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련을 겪었지만 1844년 가을에 에스겔 20:12-20이 그에게 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표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야훼 너의 하느님.* »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선택받은 사람이 하느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계시하신 계획의 정확한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8장에서 하나님은 일련의 저주 메시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321년 3월 7일 이후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포기함으로써 기독교 시대 전체에 걸쳐 사슬에 묶인 저주의 측면에서 안식일의 진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이것은 또한 안식일의 주제를 321년 3월 7일 기독교의

불신앙을 치는 " 일곱 가지 신의 형벌"을 상징하는 "일곱 나팔"에 연결함으로써 나오는 구절이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제칠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특권 중 첫 번째는 그분께서 " 일곱 나팔 " 이라는 주제에 부여하신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접근 방식의 형태에 따라 이 주제는 선택한 사람의 지능을 완전히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 8:12에서 인용된 " 죄 " 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인 총회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약 이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일곱 가지 형벌"은 하나님에 의해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레위기 26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형벌은 그의 계명을 미워함으로써 정당화됩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은 불성실하고 부패한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을 처벌하기 위해 이미 동일한 원칙을 채택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창조자이시며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 두 계약 모두 순종과 충실성이라는 동일한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나팔"이라는 주제에 접근 하면 모든 기독교 종교, 즉 1843년 이후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뿐만 아니라 1994년 이후 재림교에 대한 연속적인 비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 여섯 번째 나팔 " 에 대한 보편적 처벌도 드러냅니다.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들을 함께 파업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 일곱째 나팔 "은 11장에서 안식일처럼 별도로 다루어지고 18장과 19장에서는 폭넓게 전개될 것이다.

321년, 더 정확하게는 1709년부터 지난 17세기 동안 단 8:14의 법령에 따라 1843년에 안식일이 회복되도록 예정되어 있을 때까지 1522년이 안식일 범법으로 인한 저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일부부터 2030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안식일은 단지 187년 동안만 축복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신실한 태함을 입은 자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불신실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저주가 승리하므로 이 주제는 신성한 저주를 제시하는 8장에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 위에 섰더니 많은 향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 함이라*»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 멸망시키는 죄 "를 언급한 후, 환상에 나오는 성도들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 공유할 수 없는 " 하늘의 " 제사장직 "에 관한 " 영원한 " 것을 상기 시켰습니다. 단 8:11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538년 이래로 교황 정권이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1843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해를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3절에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목적입니다. 천국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위해 중보자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상에서 538년에서 1843년 사이에 이 장면과 이 역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례로 계승되는 로마 카톨릭 교황의 활동에 의해 패러디되고 찬탈되었으며, 하나님의 합법적인 최고 주권을 계속해서 좌절시켰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8장에 제시되어 있고 안식일의 폐기와 동시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주제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중보의 중단에 대한 저주의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제시됩니다. 로마의 이교 “태양절”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 특히 이것은 기만적이고 매혹적인 이름 변경 이후에 “일요일”: 주의 날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영주에게서요? 아아! 아래 것.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에 수반되는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좋은 냄새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가 그분의 신성한 심판에 받아들여지도록 만드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라는 단어의 연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1843년에 새로운 상황이 확립된 이후 거짓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지정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9:2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환기시키는 것은 사도시대와 저주받은 날짜인 321년 3월 7일 사이에 만연한 상황이다.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예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 당신의 이름으로 중보하셨다. 하나님과 택하신 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유지됨을 의미하는 교육적 이미지이다. 321년까지 그들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충실성을 증거하는 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1843년에 예수의 제사장직은 선출된 재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모든 축복된 활동을 재개 할 것입니다. 그러나 321년에서 1843년 사이에 두아디라 시대 의 개혁자들은 그의 사면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라. 그리고 음성들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습니다.»

설명된 행동은 눈에 띄게 폭력적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때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단”의 역할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상징하는 “불”은 “땅에 던져져” 이를 과소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시받는 자들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의 종말은 여기서 계시록 4장

5절과 출 19장 16절에 계시된 핵심 공식에 의해 환기된다. 기독교 시대의 개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교인의 출현으로 끝납니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중보라는 주제는 321년에서 1843년 사이의 심판의 저주라는 측면에서 제시됩니다. 단 8:13에서 그것에 관해 성령께 질문한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 영원한 ”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으실 때를 알고 싶습니다 .

참고 : 이전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설명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주제의 끝은 321년 3월 7일의 날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진노에 빠지게 만들었고, 이는 서양인들이 속죄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어지는 6절에 나오는 “ 일곱 나팔 ” 을 사용합니다 . 이 이중 설명은 더욱 정당합니다. 안식일을 버린 것은 세상 끝날까지, 즉 203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눈에 보이는 재림으로 로마 교황 정권과 그 마지막 미국 정권에서 영원히 제거될 때까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를 지지하고, 그를 섬기고 대표한다는 그들의 거짓된 주장. 그러면 예수께서는 교황권이 찬탈했던 교회의 “ 머리 ” 라는 직함을 다시 되찾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신실한 택함을 받은 자들과는 달리, 타락한 불신자들은 단 8:14의 명령과 그 결과를 세상 끝날까지 무시할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6:15-16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의 공포를 정당화합니다. 2030년 이전에 처음 여섯 개의 “ 나팔 ” 은 321년에서 2029년 사이에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은 최후의 멸절 전 마지막 경고 형벌 인 “ 여섯째 나팔 ” 로 *반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엄중히 징벌하신다*. 이 여섯 번째 형벌 후에 그분은 마지막 보편적인 믿음의 시험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실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계시된 빛이 모든 생존자들에게 선포되고 알려질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와 타락한 자가 그들의 자유 선택에 의해 죽음의 위협에 맞서 그들의 최종 운명을 향해 전진한다는 것은 입증된 진리에 직면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를 위한 영생,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죽음 타락한 사람을 위해.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는 “ 죄 ” 가 발생한 해인 321년 3월 7일부터 기독교 시대 전반에 걸쳐 배포된 “ 일곱 나팔 ”, 즉 “일곱 번의 연속 형벌”을 주제로 삼아 기독교 시대에 대한 새로운 개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공식적으로나 **민법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서문에서 그리스도의 “ 음성 ” 자체가 이미 “ 나팔 소리 ” 에 비유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데 사용된 이 도구는 묵시록 계시의 온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고는 적이 설치한 함정에 대해 경고합니다.

7절: “ 먼저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나무의 삼분의 일도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

첫 번째 형벌: 321년에서 538년 사이에 소위 "야만인" 민족들이 로마 제국을 여러 차례 침략하면서 행해졌습니다. 나는 특히 지도자 아틸라가 자신을 “신의 재앙”이라고 말한 “훈족”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을 불태운 재앙. 갈리아 북부, 이탈리아 북부, 판노니아(크로아티아 및 헝가리 서부). 그의 모토는 '아, 얼마나 유명하냐!'였습니다. "내 말이 지나가는 곳에는 풀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7절에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 우박 ”은 농작물이 황폐해지는 것을 상징하고, “ 불 ”은 소모품이 파괴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론 “ 땅에 흘리는 피 ”는 인간의 생명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상징한다. “ 던지다 ”라는 동사는 5절의 “ 제단에서 불을 던지다 ” 후에 행동을 고취하고 지시하시는 창조주, 입법자, 구원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

동시에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공포와 폐병과 열병을 보내 너희 눈을 어지럽게 하고 너희 영혼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너는 네 씨를 헛되이 뿌릴 것이며 네 원수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희를 대적에게 패하게 하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를 다스릴 것이며 너는 쫓기지 않고 도망할 것이다. »

8절: “ 두 번째 벨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두 번째 형벌: 이 형상의 핵심은 예레미야 51:24-25에 있습니다. “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이 너희 목전에서 시온에 행한 모든 악을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멸망의 산아, 온 땅을 멸한 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위에 내 손을 뻗어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산으로 만들 것이다. » 성령께서 “ 바벨론 ”이라는 상징적 이름으로 로마 교황 정권을 연상시키는 것은 바로 이 절 8절에서 “ 바벨론 ”의 형태로 나타날 것 입니다. 크다 ”(계 14:8, 17:5, 18:2). “불”은 그녀의 성격에 고착되어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서 그녀를 태울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승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즉 유럽 군주들과 그들의 카톨릭 민족들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불을 불러일으킵니다. . 여기서 다니엘에서처럼 “ 바다 ”는 예언적 덮개와 관련된 인성을 나타낸다. 명백한 기독교 개종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이교도로 남아 있는 익명의 사람들의 인간성. 538년 교황 정권 수립의 첫 번째 결과는 무장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것이었다. ' 산 '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지리적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는 교황 체제를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이는 불성실한 기독교인의 종교 생활을 굳건히 하여 그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외부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제종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샤를마뉴가 수행한 강제 개종이라는 불필요한 학살과 교황 우르바노 2세가 무슬림 민족을 대상으로 시작한 십자군 전쟁 명령을 그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 “**둘째 나팔**”에 예언된 모든 것입니다.

9절: “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멸망하리라.* ”

그 결과는 보편적이며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 바다 "와 " 배 "라는 단어는 지중해의 무슬림과의 충돌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복적인 가톨릭 신앙이 강요된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사람들과의 충돌에서도 원주민 인구에 대한 끔찍한 학살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는다: “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 강함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힘이 헛되리니 너희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며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 이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시대에 로마가 이교에서 천주교로 넘어가면서 이루어진 종교적 완고함을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로마 지배권은 "Caelius", 즉 하늘에 정확히 위치한 라테 란 궁전에 교황권을 설치하기 위해 "국회 의사당"을 포기했다는 관심에 주목합니다. 가혹한 교황 정권은 예언된 종교적 완고함을 입증해 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열매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공격성과 잔인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충실성은 종교적 거짓에 대한 불신과 열심으로 변합니다.

10절: “ *세 번째 별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

세 번째 형벌: 생성된 악은 중세 말기에 더욱 강화되어 정점에 이른다. 기계 인쇄술의 발전으로 성서 출판이 유리해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가르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계시록 11:3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는 “ *두 증인* ”의 역할을 정당화합니다. “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천이백육십 일 동안 배옷을 입고 예언하는 권세를 주리라 ...* » 가톨릭 신앙은 자신의 종교적 교리를 선호하며, 신민들이 숭배하게 만드는 성인의 이름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에만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성경에 의해 정죄되고 그 소유자를 고문과 죽음에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주어진 이미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의 발견입니다. “ 그리고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불은 이번에 상징하는 '큰 불의 산'과 같은 '큰 불별'로 상징되는 로마의 이미지에 여전히 붙어 있다. “ 별 ”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5절에 따라 종교적으로 “ *땅을 비추라* ”는 주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 복음 21장 23절에서 그가 비교되는 빛을 전달하는 참된 “ *햇불* ”의 형상이라고 그녀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녀는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 *위대* ' *하지만 그녀의 핍박의 불은* ' *불타는* ' *상태에서* ' *불타는* ' 상태로 증폭되었습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녀의 분노를 그녀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반대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더욱 커졌습니다. 계시록 12:15-16에 따르면 이는 교활하고 기만적인 “ *뱀* ”의 전략에서 공개적으로 박해하는 “ *용* ”의 전략으로 이동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대적들은 평화롭고 유순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것보다 더 정치적인 거짓 개신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을 무시하고 무기를 들고, 가톨릭 진영만큼 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 *강의 3분의 1* ", 즉 기독교 유럽 인구의 일부는 " *물의 근원지* "와 마찬가지로 가톨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물샘의 모델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물을 보유하지 않는 것.* » 이 구절의 복수형에서 성령은 “ *물들의 샘* ”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택하신 자들을 지정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에게서 흘러나리라*”고 확증합니다. » 이 표현은 또한 태어날 때부터 혐의 없이 종교적 낙인을 받아 선택되지 않은 종교적 대의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의 세례 관행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종교적 예의에 따라 무기를 들고 적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마가복음 16:16)고 말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정죄합니다.

11절: “ *이 별의 이름은 썩이라. 그리고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으로 바뀌었고, 그 물들이 쓰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었습니다.* »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순수하고 갈증을 풀어주는 물과는 대조적으로, 가톨릭 가르침은 쓴맛이 있고 독성이 있으며 심지어 치명적인 음료인 “ *썩* ”에 비유됩니다. 이 가르침의 최종 결과는 “ *마지막 심판의 둘째 사망* ”의 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합니다. 일부, 즉 “ *3분의 1* ”의 사람들이 가톨릭이나 거짓 개신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됩니다. “ *물* ”은 인간이자 성경의 가르침이다. 16^{세기}에 무장한 개신교 집단은 성경과 그 가르침을 오용했으며, 이 구절의 이미지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간과 거짓 종교 가르침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인간과 종교의 가르침이 쓸쓸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 물이 쓰게 되었다 ”고 선언하심으로써 *계시록 6장 6 절 이후 셋째 인*에서 해결되지 않은 “ 질투의 의혹 ”에 대한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신다 . 그는 자신의 서면 말이 나올 때 538년 2장 12절에서 종교적으로 버가모라고 명명된 간음이 공식화되기 이전인 321년 3월 7일 이후로 의회에 제기한 간음 혐의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레위기 26장 21-22절을 읽습니다: “ 만일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칠지라. 내가 들짐승을 보내어 네 자녀를 빼앗고 네 가축을 멸하며 너를 몇 명으로 줄이리라. 그러면 네 길은 버려질 것이다. » *레위기 26장과 요한계시록 셋째 나팔을 병행* 연구하면 종교 개혁 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평화롭고 체념하며 죽음이나 포로 생활을 진정한 순교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고한 본과는 별도로, 그는 대부분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서로 대결하고 약탈적인 야생 동물의 잔인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 짐승 ”만을 봅니다. 이 개념은 *계시록 13:1과 11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의 표준에서* 선택받은 분이 *계시록 12:6에서 “ 광야 ”(= 재판)*로 인도되는 때의 절정입니다 . 14장에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 두 증인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60년 동안 예언된 교황권의 편협한 통치는 끝날 것입니다.

12절: “ 넷째 별이 울렸습니다.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의 삼분의 일이 그 빛을 잃고 밤도 그러하더라. »

네 번째 형벌 : 여기서 성령은 *계시록 2:22에서* 발표된 “ 큰 환난 ”을 묘사합니다. 상징에서는 그 효과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 태양 ”이 빛을 발합니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1793년 위선적인 카톨릭과 개신교와 관련된 어둠의 종교 진영을 상징하는 ‘ 달 ’도 타격을 입었다. “ 별 ”이라는 상징 아래에는 땅을 밝히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도 개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기독교의 빛과 거짓된 기독교의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답변: 무신론의 이념은 당시의 큰 빛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빛은 다른 모든 빛을 가립니다.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쓴 작가들은 볼테르나 몽테스키외처럼 스스로를 '계몽주의자들'이라고 부르며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빛은 먼저 피를 흘리며 사슬에 얽매인 인간의 생명을 파괴한다. 루이 16세의 수장과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의 수장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를 실천하는 자들은 차례로 혁명가들의 단두대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정의의 행위는 무신론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은 더 우월하고 더 강력하며 더 강력한 폭정으로 폭군을 반대함으로써 폭군을 타도하실 수 있습니다. “ 능력과 능력 ”은 *계시록 7:12에서*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레위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습니다. “만일 이 형벌이 너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대적하면 나도 너를 대적하고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일곱 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내 언약을 갚게 하리라. 너희가 너희 성읍에 모일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 너희가 대적의 손에 넘어가리라.” “나의 동맹을 갚을 칼”은 실로 하나님께서 프랑스의 무신론 정권에 대항하여 영적 간음의 죄를 지은 머리들을 넘겨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이 무신론 정권은 이 구절의 역병처럼 어제의 사형집행인이 내일의 희생자가 되는 대량 처형의 원칙을 시작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 지옥의 정권은 모든 인류를 죽음에 빠뜨릴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이 자신의 주제를 전개하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에게 “무저갱” 즉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실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이름이 생명도 없고 형태도 없고 혼란스럽고 장기적으로 무신론 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파괴될 지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카톨릭과 군주제 Vendée의 운명을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운 혁명가들에 의해 “Venge”로 이름이 변경된 것을 발견합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 화, 화가 있으되 이는 세 천사의 다른 나팔 소리로 말미암음이라.” 어느 것이 울릴 것인가! »

프랑스 혁명은 살인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바라셨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종교적 폭정이 종식되었고, 그 이후에는 관용이 널리 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따르면, 이 구절에서 제시된 나폴레옹의 “독수리”의 강력한 권위로 인해 카톨릭의 “바다의 짐승”이 “상처를 입어 죽었지만 치유”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의 Concordat을 통해, “... 하늘 한가운데를 나는 독수리”는 나폴레옹 1세 황제의 통치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상징한다. 그는 모든 유럽 민족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했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사건 연대 측정에 있어 매우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므로 1800년부터 1814년까지의 기간이 제안됩니다. 이 통치의 엄청난 결과는 다니엘 8:14, 1843의 중추적 날짜에 도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견고한 기준이 됩니다. 프랑스 국가 역사상 이 중요한 정권은 하나님을 위해 끔찍한 선언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불행”. 세 번 반복하면 ‘불운’의 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Apo.3:2이 가르치는 것처럼 1843년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피에르 발도가 성경적 진리를 완전히 회복한 날인 1170년 이후 시작된 종교 개혁을 마침내 완료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작품*”; 이 완전함은 계시록 3:2과 다니엘 8:14의 법령에 의해 요구됩니다. 적용 결과는 이제

별도로 연구할 세 가지 주요 " 불운 "의 형태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종교적 평화의 시기를 큰 " 불행 "으로 만드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서구 인류의 마음에 스며들어 있고 앞으로도 스며들게 될 프랑스 민족 무신론의 유산이라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이것은 그들이 1843년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개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계시록 6:13의 " 여섯째 인 "은 이 " 불운 " 중 첫 번째를 " 떨어지는 별 "의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녹색 무화과 ", 그러므로 1843년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한 영적 성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천상의 표징이 11월 13일에 주어졌습니다. 1833년은 Big 3 발표 시점과 평행을 이룬다. 연구된 구절의 " 불운 ".

계시에서 성령은 빅 3의 표적이 되는 인간들을 지정하기 위해 " 땅의 주민들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 불운 '을 예언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그들의 불신과 죄로 분리된 성령은 그들을 " 땅 "과 연결시키십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 천국의 시민 "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참되고 신실한 선택자를 지정하십니다 . 그들의 고국은 " 땅 "이 아니라 요한복음 14:2-3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 처소를 예비하신 " " 하늘 "입니다. 그러므로 묵시록에서 " 땅의 주민 "이라는 이 표현이 인용될 때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반역적인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 9장: 다섯째 와 여섯째 나팔**
' 첫 번째 '와 ' 두 번째 큰 불행 '

다섯째 나팔: “첫째 큰 화”
개신교(1843년)와 재림교인(1994년)

참고 : 처음 읽을 때 “ 다섯째 나팔 ”이라는 주제는 1843년 봄 이후 치욕에 빠진 개신교에 대한 하나님 의 심판을 상징적 이미지로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자로 택하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엘렌 굴드 화잇 여사. 그의 예언 활동은 특히 마지막 믿음의 시험의 시기를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예측은 이 메시지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자체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림교회의 기대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확실히, 이 세 번째 기대는 이전 두 가지의 공개적 발전을 취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첨부된 새로 밝혀진 진실의 규모는 이 명백한 약점을 보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1983년에서 1991년 사이에 프랑크 발랑스 쉬르 론과 모리셔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험을 받은 후, 예수께서 마지막 예언의 빛을 거부하신 후, 공식 기관의 재림교회 가르침이 영혼의 구세주에 의해 “**토해**”진 이유입니다. 1994년은 이 장 9절의 5절과 10절의 예언적 “**다섯 달**”을 사용하여 구성한 날짜입니다. 왜 제2독에서 개신교 신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 상징적인 심판이, 신성한 예언의 빛을 거부함으로써 배도에 빠진 제도적 재림교회에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렌 G. 화잇이 재림교회 교사들에게 쓴 책 “복음주의 사역”의 “**빛을 부인함**”장에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995년 재림교회와 개신교의 공식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의로운 심판을 확증해주었습니다. 두 가지 타락의 원인은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이 임무를 위해 선택하신 종에 의해 제안된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불운**”은 예수님과 그분이 택하신 성도들의 원수인 사탄을 선동하고 영감을 주는 악의 시간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분께 버림받고 마귀에게 넘겨질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는 정말 큰 “**불행**”을 의미합니다.

1절: “**다섯 번째 별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으니**

“**다섯 번째**”, 그러나 중대한 경고는 1844년 이래 구별된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 별 ” 이 아닙니다. “ 떨어지지 않은 ” 이전 장의 “ 압생트 ”, “ 에 거기 지구 ”, 그러나 “ 에 그만큼 강하 그리고 그만큼 출처 물의 ”. 예수께서 “ 손에 일곱 별을 쥐고 있다 ”고 회상하신 것은 “ 사대 ” 시대 의 시대입니다 . “ 불완전하다 ” 고 선언된 그의 “ 행위 ” 때문에 예수께서는 프로테스탄트 메신저의 “ 별 ”을 땅에 던졌습니다.

재림교인의 시련은 1843년 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첫 번째 기대가 끝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돌아오기를 위한 두 번째 기다림은 1844년 10월 22일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자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 장 4절에 인용된 “ 하나님의 인 ” 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들의 인봉은 두 번째 시험이 끝난 후인 1844년 가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떨어진 자 ” 라는 표현은 1843년 봄, 즉 단 8:14의 법령이 끝나고 첫 번째 재림교회 재판이 끝난 날을 의미합니다. 1844년은 선택받은 승리자들의 인봉이 시작되는 해이며 이 “ 다섯째 나팔 ” 의 주제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개신교 신앙의 타락과 1994년 이후에 하나님과 동맹을 맺게 될 재림교 신앙의 타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5절과 10절에 예언된 “ 다섯 달 ” 의 용어. 따라서 이 주제의 “ 다섯 달 ”은 1844년 가을에 시작되지만, 인봉의 주요 주제인 개신교 신앙은 이 날짜 이전인 1843년 봄부터 “ 무너졌습니다 ”. 그러면 우리는 신성한 계시가 성취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정확하게 존중하는지 봅시다. 1843년과 1844년이라는 두 날짜에는 각각 특정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신앙을 마귀에게 넘겨주신 예수님에 의해 버림받은 개신교 신앙은 종교개혁 당시에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종교개혁자들 스스로가 질책했던 카톨릭의 “ 우물 ”, “ 사탄의 깊은 데 ”에 빠졌습니다. 미묘하게도 그것이 “ 땅에 ” 떨어진다고 말씀하심으로 성령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과 10장 2절에서 “ 바다 ”라고 불리는 천주교로부터의 탈출을 회상하는 “ 땅 ”이라는 단어로 상징된 개신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십니다. “ 빌라델비아 ”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 문 ”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열쇠는 생명의 소멸을 상징하는 “ 심연 ”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우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 빛이 어둠이 되고 ” “ 어두움이 빛 이 되는 ” 시간이다 . 그들은 공화주의 철학 사상의 원칙을 유산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신앙의 참된 거룩함을 보지 못합니다. “ 그에게 주어졌다 ” 라는 정확성을 주목해 봅시다 .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또한 열쇠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따르면 1873년과 1994년에 선택된

축복받은 자들을 위한 “ 다윗의 열쇠 ”와 1843년과 1994년에 타락한 자들을 위한 “ 무저갱의 열쇠 ”입니다.

2절: “ 그리고 그가 깊음의 구덩이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우물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해와 공기가 우물에서 나오는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

개신교 신앙은 주인과 운명을 바꾸고, 행실도 바꾼다. 그리하여 그녀는 계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 언급되는 “ 둘째 사망 ”의 “ 불 ”로 마지막 심판의 멸망을 당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이르게 됩니다. “ 불과 유황 못 ”의 이미지를 취하는 이 마지막 심판의 “ 불 ”은 출 19:18에 따라 시내 산에서 선포된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들을 위협하는 “ 큰 풀무 ”가 될 것입니다: “ 시나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음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 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 그런 다음 Spirit은 “ 플래시백 ”이라는 영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플래시백은 타락한 사람들이 악마를 섬겼을 때 만들어진 작품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 연기 ”라는 단어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11에서 읽을 수 있는 “ 큰 풀무 ”의 불의 의미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과 또한 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된 “ 성도의 기도 ”를 받는 자들도 밤낮 쉬을 얻지 못하느니라 거짓 성도들. 기도를 통해 나타난 풍부한 종교 활동은 예수께서 1843년 사데 에서 그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었어.” 죽음과 두 번의 죽음, 제안된 죽음은 “ 마지막 심판 ”의 “ 둘째 사망 ”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활동은 하나님과 그것이 깨달은 그분의 선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속입니다. 이러한 널리 퍼진 속임수는 현대 세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 공중 ”에 퍼져 “ 해 ”를 가릴 정도로 퍼지는 “ 연기 ”의 이미지를 통해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중독의 개념입니다. 후자가 참된 신성한 빛의 상징이라면, “ 공기 ”의 빛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 공중 권세 잡은 자 ”라고 불리고 예수께서 “ 왕자 ”라고 부르신 마귀의 예비된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것”(요한복음 12:31, 16:11). 세상에서 잘못된 정보의 목적은 비밀로 남아야 할 진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선택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실제로 개신교 집단의 증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앙의 존재를 가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995년 그들이 그녀의 “ 큰 불행 ” 때문에 그녀를 그들의 대열에 환영할 때까지 이것은였습니다. 이 새로운 영적 상황에서 그들은 땅의 표면을 불타는 용광로로 변화 시킬 둘째 사망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서운 것이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 남겨져 그들이 어떤 운명에서 탈출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3절: “ 때뚜기들이 연기를 내며 나와 땅에 흩어지니라.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

“연기 ” 로 상징된 기도는 타락한 개신교인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남자와 여자는 그 수가 많기 때문에 “ 때뚜기 ” 로 상징됩니다. 사실 1843년에 수많은 인간 피조물이 쓰러졌습니다. 10년 전인 1833년에 주님께서는 11월 13일 밤에 성취된 “별의 추락”을 통해 이 무리에 대한 개념을 주셨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역사적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1833년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였습니다. 다시 한번, “ 땅 위에서 ” 라는 표현은 지상적 확장과 개신교의 정체성이라는 이중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파괴적인 “ 때뚜기 ” 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부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을 배반하고 대적과 협력하여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농작물을 파괴하는 신자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므로 이 상징이 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10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장인 에스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 가시와 가시와 전갈 ” 이라고 부르시는 유대인의 “ 반역자들 ” 을 지칭하기 위해 “ 반역자 ” 라는 단어가 6번이나 인용됩니다 . 여기서 “ 전갈 ” 이라는 용어는 개신교 반군에 관한 것입니다. 3절에서 그의 능력에 대한 암시는 가장 중요한 미묘한 상징의 사용을 준비시킵니다. “ 전갈 ” 의 힘은 “ 꼬리 ” 의 독침으로 희생자를 치명적으로 쏘는 것 입니다 . 그리고 이 “ 꼬리 ” 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9장 14절에 나타난 신성한 생각에서 근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꼬리이다 ” . 동물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파리와 기타 기생 곤충을 쫓아내고 채찍질하기 위해 자신의 “ 꼬리 ” 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 “ 여선지자 이세벨 ” 의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기만당한 불충실한 종들을 징계하고 고통을 주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채찍질을 하는 행위 역시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성령은 이사야 9장 14절의 핵심이 “ 꼬리 ” 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제공하는 “ 갈대 ”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비교를 입증합니다 . 이러한 교황 교회의 이미지는 1844년 이래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타락한 개신교 신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제안된 단어 “ 꼬리 ” 는 10절에서 명확하게 인용될 것입니다.

재림교 기대의 구성
(이번에는 일곱째 날부터)

4절: “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 »

이 “ 때뚜기 ”는 푸른 식물은 먹지 않지만, “ *하나님의 인* ”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칩니다. “ *하나님의 인* ”에 대한 이 언급은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의 맥락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선택받은 인봉에 관한 7장과 버림받은 타락한 9장에 평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따르면, 진정한 택함을 받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서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 *이마에 하나님의 인* ”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1844년 10 월 23일에 선택된 재림교회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이 시작되었음을 가리킨다. 이어지는 구절;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실제 15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5절: “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으나, 그리고 그들이 초래한 고통은 전같이 사람을 쓸 때 겪는 고통과 같았습니다.** »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 시대에 성취된 활동들을 그 형상으로 통합합니다. 혼란스럽고 그림 해석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메시지가 매우 명확해집니다. 이 구절 5는 1994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나의 발표의 기초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1844년에 시작하여 1994년이라는 날짜를 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예언적 “ *다섯 달* ”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오늘까지 연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희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본문의 정확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눈이 먼 채 창조주께서 바라시는 방향을 계속해서 걸어온 방법입니다. 실제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섯 달 동안 괴롭히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 “ *그들을 죽이는 것은 안돼* ” 라는 설명은 “ *6번째* ”라는 주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펫*; *괴물 같은 살상 전쟁*, ^{5차} 시대 *트럼펫*; 실제 150년의 시간. 그러나 그의 시대에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는 이미 부분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1844년 가을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하십시오. 1843년 봄을 설정한 초기 계산이 오늘 최신 계산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주권적이며, 다행스럽게도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그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발표의 오류로 인해 공식 재림교회는 1991년에 1994년에 발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림교인에게 가장 나쁜 것은 마지막 예언의 빛을 빼앗긴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34장 전체를 조명하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오늘의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2018년 봄부터 그분의 율법과 2030년 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나에게 주신 다른

새로운 빛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구성에서 분리된 새로운 기초 위에 있습니다. 나에게 1982년부터 1991년 사이의 5개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될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추론에 확신을 갖고 더욱이 정당화되는 나는 "살인" 금지에 의해 부과된 시간 제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1994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탄생 2000년을 의미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내 실수의 원인을 알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인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취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들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라"는 설명에 주목해 봅시다. 문제의 "고통"은 예언된 "5개월" 동안 피해자들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식은 극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암시하시는 "고통"은 마지막 심판에서 타락한 자에게 가해질 것이며, 그곳에서 "불못"이 타면서 "둘째 사망"의 형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요한계시록 14:10-11의 셋째 천사의 메시지에서 선포되는데, 이전 구절에서는 "그들의 고통의 연기"를 인용하여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메시지는 재림교회의 보편적 사명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재림교의 몰락을 미리 아시는 성령께서는 이 메시지에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이지 않고 부여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심판대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고 미묘하게 말씀 하십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있느니라.* "그도 역시"라는 설명은 차례로 개신교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는 199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부하신 공식적인 이교도 재림교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저주를 확인하기 위해 이 새로운 "반역자"는 이미 하느님과 단절된 가톨릭교인과 개신교인을 하나로 모으는 에큐메니칼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재림교회가 몰락하기 전에는 "그도 역시"라는 공식을 타락한 개신교에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1844년에 몰락한 그들은 이제 가톨릭교인, 정교회, 거짓 유대인 의 운명을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도"라는 말은 에큐메니칼 동맹을 체결하고 콘스탄티누스 1세의 법령, 즉 그의 주일과 탄생일인 "태양의 날"을 존중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를 존경하는 모든 비가톨릭 신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월 25일). 복수형 "그들 역시"가 아닌 단수형 "그도"의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성령께서는 종교적 선택이 개인이신 하느님께 책임을 지게 만들고, 정당화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개인의 선택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겔 14:18에 나오는 "자녀도 구원하지 아니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둘째 사망의 고통

6절: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은 죽기를 원할 것이며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매우 논리적으로 흘러갑니다. “ *둘째 사망의 고통* ”을 불러일으킨 성령은 이 구절 6절에서 “ *그 날에* ”라는 표현을 목표로 7^{천년기} 말에 올 그 적용의 날에 대해 예언합니다 . 그런 다음 그분은 이 극도로 무서운 최종 형벌의 특징을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를 원할 것이요 죽음이 그들에게서 도망하리로다 .* ” 인간이 모르는 것은 악인의 부활체는 오늘날의 육체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최종 형벌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의 마지막 원자가 파괴될 때까지 의식 상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고통의 기간은 개인의 죄에 대해 선고된 판결에 따라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47-48은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 *지옥에 던져지리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 또한 개신교 신앙은 가톨릭 교회와 많은 거짓 종교 교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안식의 첫날인 일요일 외에도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지옥의 존재. 그러므로 저주받은 자들이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카톨릭의 지옥 위협, 기독교 국가의 모든 군주들을 굴복시키는 위협은 약간의 진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거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은 성도들이 악인을 심판하는 “ *천년* ” 끝에야 비로소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둘째, 현재의 지상 상황에 비하면 고통은 비록 길어지기는 하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에게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될 사람들 중에는 영혼 불멸이라는 이교 그리스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열렬한 옹호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이 정말로 불멸이었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떨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성을 만날 사람은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운반하는 지구 자체는 불과 유황의 마그마가 융합되어 "태양"이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기만적인 모습

절 : “ *이 때뚜기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으니라. 그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이 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

7절은 상징을 통해 무너진 개신교 진영의 행동 계획을 보여줍니다. 종교 집단(*말*)은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에만 성취될 영적 “ *전투* ”를 위해 모이지 만 최종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계 16:16에서 “ *아마겟돈* ”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 그렇다면 사물의 현실과의 비교에 대한 성령의 주장을 주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는 “ *like* ” 라는 용어의 사용을 곱함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 이는 해당

종교인들의 거짓된 주장을 부인하는 방식이다. 모든 것은 단지 기만적인 겉모습일 뿐입니다. 믿음의 승리자에게 약속된 “면류관”과 믿음(금) 자체는 참된 믿음과 “유사”할 뿐입니다. 이들 거짓 신자들의 “얼굴”은 그 자체로 기만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인간의 모습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고삐와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은밀한 생각을 아시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현실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십니다.

8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고린도전서 11:15에 따르면, 여성의 머리카락은 베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베일의 역할은 가려진 주체의 정체인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 이 절 8절은 상징을 통해 기독교 종교 집단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엡 5:23-32에서 여자)의 외양(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영은 “사자”의 흉폭함(이빨)으로 활력을 연습한다. 우리는 왜 그들의 얼굴이 인간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사자에 비유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잡아먹혔던 로마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세상 끝날에 정당화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참된 선택자를 죽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9절: “그들은 철 흉갑 같은 흉갑을 가졌고 그 날개 소리는 많은 말들이 싸우러 달려가는 병거 소리 같더라.»

흉갑”(엡 6:14)을 두른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군사들의 갑옷을 위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정의는 이미 로마제국의 상징이었던 “철”처럼 단단합니다. 다니엘. “매뚜기”는 활동할 때 “날개”로 소리를 냅니다. 그러므로 오는 비교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설명은 “여러 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 경주로 순회하는 로마인들을 기쁘게 했던 로마와의 연관성을 확증해 줍니다. 이 이미지에서 “많은 말”은 로마의 권위를 찬양하기 위해 로마의 “전차”를 끌기 위해 모인 여러 종교 단체를 의미합니다. 유혹을 통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굴복시킬 줄 아는 로마. 이것이 영이 반군 진영의 행동을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지지하는 이 모임은 일요일을 반대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충실히 준수하는 자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수호자이신 보호자이신 그리스도를 상대로 하는 마지막 “야마겟돈 전쟁”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10절: “전갈과 독침 같은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전갈의 권세”라는 제목 아래 “꼬리”라는 단어가 제안된 3절의 베일을 들어올립니다. 이사야 9장 14절에서 그 뜻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꼬리이다 ”라는 중요한 열쇠를 기억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용어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 그룹에는 거짓말(꼬리)과 반역적인(전갈) 선지자 와 거짓말하는 혀(찌르기)가 있었으며, 이 거짓 선지자(꼬리)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 그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종교적 평화의 150년(5개월) 동안 로마 일요일을 지키도록 설득하십시오. 이는 그들을 7 천년기 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의 “ 둘째 사망의 고통 ”에 돌이킬 수 없게 노출시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만약 그들이 해독되고 계시된 이 메시지를 믿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11절: “ 그들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였으니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

더욱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난은 극에 달합니다. 이러한 종교 단체들은 “ 무저갱의 천사 ” 인 사탄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3에 따르면 그는 “ 천년 ” 동안 황무지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 깊음 ”이라는 단어는 생명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전의 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황폐해진 땅,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인해 모든 형태의 생명체가 멸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 천년 ” 동안 이 상태에 있을 것이며 , 유일한 거주자는 사탄이 그녀를 포로로 잡은 천사뿐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를 “ 용 ”과 뱀을 곧 마귀 라고 부르신 다. 그리고 사탄 ”은 여기서 “ 히브리어와 헬라어 , 아바돈과 아폴리온 ” 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파괴자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 미묘하게도 성령께서는 이 천사가 자신이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파괴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 성경 원본의 언어입니다. 그리하여 1844년 개신교 신앙이 무너진 이래로 이 주제의 시작은 “ 5차 나팔을 불어요 . ” 악마는 성경에 대한 그의 유명한 관심으로 그녀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영광스러운 시작과는 대조적으로,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저항의 시험의 시간에 그리스도 자신을 넘어지게 하려고 헛되이 시도했던 것을 타락한 개혁 신앙에 적용하여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행했습니다.

12절: “ 첫째 화가 지나갔느니라. 이 후에 두 가지 불행이 더 찾아옵니다. »

제5장”의 매우 특별한 주제가 끝납니다. 트럼펫.” 이 순간은 인류가 평소 달력으로 1994년에 진입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유일신교 사이에 종교적 평화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종교적 헌신이라는 영적인 동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5절의 살인을 금지한 조항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존중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8월 3일 GIA에 의한 최초의 무슬림 종교 공격으로 알제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 근처에서 프랑스 관리 5명이 사망했고, 이어서 1994년 12월 24일 기독교 크리스마스 전날 프랑스 비행기에 대한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인을 포함해 알제에 3명이 있었습니다. 이듬해 여름, 알제리 GIA의 무장 이슬람 단체들은 프랑스 수도 파리의 RER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알제리 티비린에서 프랑스 가톨릭 신부 7명이 참수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언은 예언된 “ 5개월 ”이 지났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전쟁은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특징지어지는 세상 끝날까지 재개되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 둘째 큰 나팔 “ 불행 ” 모든 거짓 기독교 거룩함에 대한 여섯 번째 형벌

제3차 세계 대전

13절: “ 여섯 번째 벨이 울렸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계시록 8:13에서 선포된 “둘째” 큰 “ 화 ”를 구성합니다. 이는 집단적, 개인적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이므로 2021년에서 2029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펫 ”은 전쟁의 복귀와 “ 살인 ” 승인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주제는 “ 5차 ”와 동일한 종교 단체에 관한 것입니다. 트럼펫 » 이전. 사용된 기호는 동일합니다. 또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트럼펫 '은 ' 살인하지 않는 것 '에 익숙해졌고, 유럽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형을 금지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국제 무역이 유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는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민족 간의 전쟁은 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세 번째 유일신교는 훨씬 덜 평화롭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 것은 이슬람교입니다. 테러리스트의 다리와 그들의 살인적인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다른 추종자들의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담자는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전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이 상당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문명과 종교의 충돌에 대해 자신의 승인을 “ 발명 ”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지구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각 민족은

전통적인 적, 즉 지구 전체에 관해 악마와 그의 악마들이 준비한 분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언은 불성실한 서부 기독교 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마지막 재앙 ” 이전의 마지막 형벌은 “ 제6의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임합니다. *트럼펫* .” 이미 주제의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주제가 실제로 Apo. 8:13 에서 나폴레옹 제국의 “ 독수리 ”가 발표한 “ 큰 불행 ” 중 두 번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에 맞게 조정된 몽타주에서 Apo.11의 예언은 이 이름을 “ 두 번째 화 ”라고 부르며 “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짐승 ” 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혁명에 기인합니다 . 요한계시록 8장의 “넷째 나팔” 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 4차 와 6차 ”에 관련된 사건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함을 우리에게 암시하십니다. *트럼펫* .”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 6일 나팔 소리, 분향단 앞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명령을 표현합니다. (선택된 자들의 기도를 위한 중보자로서 미래의 하늘 역할을 예언한 지상 성막의 이미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표적이 된 서유럽

14절: “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 주라 하더라.”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 네 천사를 풀어 주시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인 사람 ”: 유프라테스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악마의 세력을 풀어줍니다. Rev.7:2에 따르면, 1844년 이후 유지되어 온 서유럽과 그 미국 및 호주 확장; 이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 나라* . 해석 키는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유프라테스”는 다니엘이 살았던 고대 바빌론에 물을 공급했던 강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 큰 바벨론 ” 이라 불리는 “음녀”는 “ 많은 물 위에 ” 았았으며, 이는 “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의 상징 ”입니다. 로마를 지칭하는 “ 바벨론 ”, 해당 민족은 유럽 민족이다. 그리스도 하느님께서는 유럽을 당신의 살인적인 진노의 주요 표적으로 지정하심으로써 당신을 배반한 자들을 벌하시고 당신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 "라고 옛 언약의 상징적 의식에서 예언했습니다.

유럽을 표적으로 삼아 성령은 자신에게 죄의식을 집중시키는 두 나라에 대한 복수를 지시합니다. 그것은 카톨릭 신앙, 어머니 교회, 그리고 프랑크의 첫 번째 왕인 클로비스에 의해 시작된 이래 수세기에 걸쳐 많은 지원을 받아온 프랑스를 부르는 장녀에 관한 것입니다 .

4th”와의 첫 번째 링크 *트럼펫*”이 등장하면 무신론 자유 사상가 인 철학자들의 글을 퍼뜨려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 불신앙의 씨앗을 뿌린 혁명적 민족 프랑스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파괴하고 침묵하게 만든 곳도 바로 교황 로마이다. 레위기 26장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제시된 경고 형벌과 나팔에 대한 비교 연구는 네 번째로 “ 그의 언약을 보복하는 ” 신성한 “ 검 ”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 이번에는 ‘ 6월 ’ 나팔을 불면서 , 예수께서는 범죄한 두 민족과 그들의 유럽 동맹국을 쳐서 자신의 동맹을 직접 복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Apo.11에 따르면, 프랑스의 무신론은 “ 기쁨 ” 했고 주변 사람들을 “ 기쁨 ”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Apo.11:10에서 읽음). 그러면 신성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재래식 폭탄과 원자폭탄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2019년 말 유럽에서 나타난 치명적인 전염성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주목할만한 선물 중에는 프랑스가 미국 뉴욕시에 자유의 여신상을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너무나 훌륭 해서 프랑스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는 같은 학살로 모델을 반복할 것이다.

글로벌 핵전쟁

15절: “ 연월일시를 기다리던 네 천사가 놓였으니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 하더라. »

계시록 7:2에 따르면 “ 땅과 바다를 해칠 ” 준비가 되어 있는 “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 하느니라 ”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행동이 계획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졌습니다. *시간, 일, 월, 연도가 준비되었습니다 .* ”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형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321년 3월 7일부터 콘스탄티누스 1세가 태양절을 제정한 날이 되었다 . 요한계시록 17장에 따르면 그 주제는 “ 음녀의 심판 ”입니다. *큰 바벨론*”이라는 숫자 17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321년 3월 7일부터 수세기 동안 적용되었으며, 이 숫자 17은 2021년 3월 7일에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9년 동안의 신의 저주는 “ 제 6차 ”의 성취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나팔*”(계 9:13).

이 파괴적인 제3세계 분쟁은 끔찍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인(**제3의**) **경고 성격을 띠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 인류의 제3자 ”**에 대한 언급에 주목해 봅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종교적 개종을 일으키고 선출된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재림교회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이끄는 데 유용합니다. 이 멸망은 “ 다섯째 나팔 ”의 “ 다섯 달 ”로 예언된 종교적 평화의 “실질 150년”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인류를 처벌하고 회개하도록 초대하기 위해 옵니다 .

1914년 이후 세계 대전 중 세 번째로 내려진 이 형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형벌을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세 번째로

끌려간 것과 병행하여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호전적 개입으로 -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국가의 마지막 남은 나라인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거룩한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남긴 폐허는 히브리 민족의 유대 동맹 못지않게 기독교 동맹도 배도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종교적 생존자들은 모든 유일신교의 신자들에게 구원의 최종 기회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편적인 신앙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고 참된 일곱째 날인 그분의 거룩한 토요일 안식일에 관한 단 하나의 진리만을 가르치십니다.

이 보편적 전쟁을 위해 발표된 학살은 그것을 " 네 번째 나팔 "이라는 프랑스 혁명적 무신론의 불행과 연결시키는 " 두 번째 불행 "의 또 다른 측면을 구성합니다. 프랑스, 특히 그 수도인 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십자선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그는 그에게 " 소돔과 애굽 "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는데, 이는 예를 들어 하나님에 의해 잊혀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는 하늘에서 불로, 하나는 하나님의 눈부신 능력으로 멸망된 고대 적들의 이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똑같이 끔찍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그녀에게 대항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사라진 데에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된 이후 공화정권은 나폴레옹 1세 의 독재적인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에게 종교는 그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유용한 장식일 뿐이었습니다. 카톨릭 신앙이 신적 진리의 원칙을 파괴한 협정의 수립을 통해 존속하게 된 것은 그의 교만과 기회주의 덕분이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정확성: 2억 명의 전투기

16절: “ 군대의 마병의 수가 이만만이니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들었노라.” »

16절은 전쟁에 참여하는 전투원의 수에 대해 중요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즉, “ 이만 수만 ” 즉 이억의 군인입니다. 내가 이 문서를 쓰고 있는 2021년까지, 그 어떤 전쟁도 이 정도 규모의 대결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인구가 75억 명에 달하는 오늘날에는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제공하는 정확성은 이 같등을 과거의 행동으로 돌리는 모든 해석을 정죄합니다.

이데올로기 전쟁

17절: “ 또 내가 환상 중에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과 자색과 유흡빛 홍갓이 있더라.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흡이 나왔습니다. »

하나님의 심판의 수인 17절에서 우리는 “다섯째 나팔 ” 의 상징인 무리들(말들)과 그들을 지휘하는 자들(마병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정의(*홍배*)는 불로 타는 행위인데, 이 얼마나 불이냐! 지구 지하 마그마의 불에 버금가는 핵불. 성령은 그들에게 구절 끝에 *연기* 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과 일치하는 *히아신스* 의 특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 이것은 이미 이전 주제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향의 성격이며, 거기에서 우리는 그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식물은 독성이 있고 피부를 자극하며 냄새가 두통을 유발합니다. 이 기준은 관련된 전투원의 기도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기도 중 어느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를 구역질나게 만들고 깊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본질적으로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갈등에는 종교만이 관련되어 있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유일신교인 유대교, 카톨릭교, 개신교, 정교회, 이슬람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14절의 새로운 핵심 상징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 머리는 행정관이나 장로니라 ." 그러므로 오늘날 공화국에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치안판사들이 서로 대결하는 집단의 우두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통령은 동물의 왕이자 정글의 왕인 ' 사자 ' 의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 힘의 의미는 사사기 1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서 성령은 매우 강력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국가 원수들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호전적인 헌신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 입 " 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연기 " 라는 단어로 표현된 그들의 기도를 전하십시오 . 같은 " 입 "에서는 " 불 " 로 파괴하라는 명령 , " 연기 "로 기도하는 명령, " 유향 " 을 형상화한 핵폭탄 사용을 명령하여 군중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 분명히 성령께서는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핵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하십니다. 지구 역사상 그토록 파괴적인 힘이 한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었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놀랍고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조직에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극악함은 더 이상 충격조차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종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입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리라.* »

불과 연기와 유향 " 이 하나님이 뜻하신 재앙을 구성한다고 명시하면서 이전 절의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 그 구절은 복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확증해 줍니다.

국가 정상의 원자력

19절: "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음이니라. 그 꼬리는 머리 달린 뱀 같았고 꼬리로 악을 행했습니다. »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전쟁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확증합니다: 싸우는 무리들(말들)의 힘은 그들의 말(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꼬리)에 있음이니라 그들은 겉으로는 속이는 자들(뿔) 유력한 자들 같으니라 국가 원수, 그들(전투원)을 통해 해를 끼친 치안 판사(수장). 이렇게 정의된 원칙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의 조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번 제3차 세계대전 누가 오나요? "나팔" 또는 경고 형벌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옛 언약의 유대인들에게, 이어서 단 11:40-45,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책 계시록에서 언약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 마지막 신의 경고인 "여섯째 나팔"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풍부한 보완적 교훈을 찾아봅시다.

다니엘 11:40-45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단 11:40-45의 예언에서 밝혀지고 발전된 국가들의 마지막 전쟁을 연구하도록 이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조직의 주요 단계를 발견한다. 원래는 주로 서유럽 영토에 설치되었으며, "남방 왕"이라고 불리는 공격적인 이슬람교가 주로 가톨릭을 믿는 유럽인들과 충돌했습니다. 단 11:36 이후 예언의 대상은 로마 교황 카톨릭 신앙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로마 교황의 지도자는 "그"라는 용어로 제시됩니다. "왕"이라는 칭호로 그는 "그와 충돌"할 "남방 왕", 이슬람의 공격을받습니다. "충돌하다"라는 동사의 선택은 정확하고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하여 서유럽을 완전한 혼란과 공포에 빠뜨린 상황을 이용하여 "북방 왕"(또는 북쪽)이 어려움에 처한 이 먹이 위로 "폭풍처럼 돌며" 그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십시오. 그것은 "기수"에 지나지 않는 "많은 선박", "탱크" 및 전투기를 사용하여 서유럽 북부가 아닌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41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관련된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적들에게 말을 사육하고 공급하는 "기병"(코사크)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북방 왕"이 1054년 공식적인 기독교 종교 분열 이후 서방 교황 로마교의 동방 종교적인 적대자였던 강력한 러시아 정교회와 동일시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우리는 방금 제3차 세계 대전의 호전적인 행위자들 중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는 바이러스, 즉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재앙이 된 경제 경쟁 때문에 이를 다소 방치해 온 강력한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무혈 경제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각 사람들은 점점 더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분쟁이 시작되면 미국 동맹국은 행동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거의 반대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차례로 북부 유럽인들이 점령당했습니다. 프랑스만이 약한 군사적 저항을 펼쳤고, 러시아군은 북부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이미 이 지역에 대규모로 설립된 이슬람교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통 이익 합의가 무슬림 전사와 러시아인을 연결합니다. 둘 다 약탈에 욕심이 많고,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망했지만 부유한 나라다. 아랍인들은 전통유산을 약탈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측의 상황은 재앙적이며, 국가는 점령당했습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무슬림 아랍 민족들, 즉 에돔, 모압, 암몬 자손, 현대의 요르단은 살아남았습니다.

1979년 이집트가 아랍 진영을 떠나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전에는 이를 수 없었던 일이 당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불리한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정령은 1979년에 이루어진 선택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당대의 가장 강한 편에 서는 그녀는 자신을 뒤흔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대단합니다. 그녀는 점령중인 러시아인에 의해 부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듯 리비아인과 에티오피아인도 러시아인을 쫓아 이곳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세계 분쟁의 핵 단계

44절은 사물의 상황에 큰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서유럽, 이스라엘, 이집트를 점령하는 동안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러시아 영토에 관한 '뉴스'에 겁을 먹고 있다. 성령께서는 서유럽의 점령과 관련하여 “동쪽”을 언급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점령과 관련하여 “북쪽”도 언급하셨습니다. 러시아는 첫 번째의 “동쪽”에 있고 두 번째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 소식은 너무나 심각해서 살인적인 광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미국이 핵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전멸시키기로 결정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후 분쟁의 핵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버섯이 곳곳에서 발생하여 전멸하고 “멸종” 합니다. 수많은 인간과 동물의 삶. 이 사건으로 인해 “여섯째 나팔”이 선포된 것과 같이 “사람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산”으로 밀려난 “북방 왕”의 러시아 군대는 “그를 도우러 오는 사람도 없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전멸되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

에스겔 38장과 39장 역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역사상 이 마지막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러시아 왕의 *턱에 베클을 채워* 그를 끌어들이 전쟁에 참여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이러한 정확성과 같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의 백성과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유혹적인 기회를 보여주며, 그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긴 예언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참조점으로 *곡, 마곡, 로쉬* (러시아어), *메세크* (모스크바), *투발* (토볼스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의 상황은 공격** 을 받은 민족들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확증됩니다. *모든 집에 있어서 벽도 없고 빗장도 없고 문도 없느니라* (겔 38:11).” 현대 도시는 실제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은 비극적으로 불평등합니다. 성령은 여기 다니엘의 “**북방 왕**” 의 입에 두시는데, 이번에는 동사 “**내가 오리라**”라는 **동사와 “폭풍처럼 휘몰아칠 것이다**”라는 이미지에 따라 거대하고 빠른 공중 공격을 암시하는 “내가 오리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꽤 먼 곳에서 단 11:40의 소리입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에는 관련된 나라들에 관한 신비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명확하게 식별됩니다. 그 신비는 단 11:36-45에만 로마 교황권과 유럽 영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유럽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북방 왕**”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북쪽**”에 위치하는 것은 주로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 교황의 위치인 ‘**동쪽**’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교황령 유럽에서 러시아 군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성령께서 “**동쪽**”에서 나쁜 소식이 도착하는 위치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군대에게 불과 유향을 비같이 내리리라** (겔 38:22)”; “**내가 마곡에 불을 보내리라**”(겔 39:6). 단 11:44의 “**북방 왕**”을 분노케 하는 나쁜 소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에서와 같이 러시아의 침략자는 이스라엘 산에서 궁지에 몰려 멸망할 것입니다. “**너와 네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산에 앞드리지리라**”(겔 39:4). 그러나 미스터리는 이 행동의 근원지에 있는 미국의 정체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나는 겔39:9에서 매우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발견한다. 본문은 이 끔찍한 세계적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불태워 “**7년**” 동안 불을 지를 가능성을 환기시킵니다. 목재는 더 이상 현대 무기의 원료가 아니지만, 언급된 “**7년**”은 이 전쟁의 격렬함과 무기의 양을 반영합니다. 2021년 3월 7일 현재,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국제 분쟁이 일어날 하나님의 저주의 마지막 9년;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전쟁. 12절에 따르면, 러시아 시체는 “**일곱 달 동안**” 매장될 것입니다.

끔찍하고 화해할 수 없는 신성한 정의

많은 시체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9장에서 그분이 조직하실 대량 학살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2021년에서 2029년 사이에 예상되는 제3차 세계 대전은 586년 느부갓네살이 고대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제3차 ^{전쟁}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좌절시키고, 멸시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

“겔 9:1 그가 내 귀에 큰 소리로 외치되 이 성을 벌할 자여 각각 손에 멸망의 도구를 들고 가까이 오소서

겔9:2 보라, 여섯 사람이 각각 손에 파괴의 도구를 들고 북쪽 윗문 길로 오는지라. 그 중에는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띠에 필기통을 메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놋 제단 가까이에 섰습니다.

겔9:3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일어나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리고 그분은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띠에 필기통을 메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셨다.

겔9: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로 순행하여 거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신지라

에스겔 9:5 내가 듣는데 그가 남은 자에게 이르되 그를 따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쳐라. 당신의 눈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겔9:6 노인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죽이고 진멸하라. 그러나 그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성역부터 시작하세요! 그들은 집 앞에 모인 장로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겔9:7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을 더럽히며 뜰에 죽임을 당한 자들로 채우라 나오라!...그들은 나가서 성읍을 쳤다.

겔9:8 그들이 칠지라도 내가 그대로 서서 엎드려 부르짖되 아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주의 진노를 쏟으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시리이까?

겔9:9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매우 크도다 그 땅에 살인이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의가 가득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아무 것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도다.

겔9:10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겔9:11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띠에 편지 상자를 가지고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이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나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이 신앙의 순교자는 아닙니다. 이 범주에는 종교뿐 아니라 정치적 또는 기타 이념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광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참된 순교자는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에 앞서 그의 시대를 위해 계시된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삶이 있었다면, 그는 희생으로 바쳐진 삶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6번째} 라는 주제로 찾아보겠습니다. *트럼펫* ”은 전쟁 이후 시대의 도덕적 맥락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생존자들의 회개하지 않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리, 핵무기는 파괴적이지만 인류를 멸절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쟁이 끝난 후에도 '생존자'는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닐 겁니다. » 인류의 멸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이후 창조주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최종적인 믿음의 시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자 무기가 최초로 사용된 날인 1945년 이래로, 원자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상 강국에 의한 시험을 위해 2,000회 이상의 폭발이 수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연속적으로 75년에 걸쳐 사실이며 지구는 거대하지만 제한되어 있지만 인류가 가하는 타격을 견디고 지탱합니다. 반대로 다가오는 핵전쟁에서는 짧은 시간에 수많은 폭발이 일어나고 방사능의 분산으로 인해 지구상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으로 신성한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가는 반역적인 인류의 고통을 끝내실 것입니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뿔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곧 보지도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며 듣지도 말고 걷지도 말라.* »

20절에서는 성령께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강박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 제국 시대에 선포된 “ *둘째 화* ”는 실제로 하나님의 “ *재앙* ”을 구성하지만, 그것은 요한계시록 15장의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죄인에게 임할 “ *마지막 일곱 재앙* ”에 앞서는 것입니다. 이 “ *재앙* ”은 모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질서에 반하는 로마의 침략을 처벌한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 그들이 귀신과 뿔금, 은, 동과 돌과 나무의 우상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느니라.”

이 열거에서 성령은 이 우상 숭배 종교의 추종자들이 숭배의 대상인 가톨릭 신앙의 제의 이미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먼저 “성모 마리아”를 나타내고 그 뒤에는 익명의 성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성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시장은 하루 24시간 열려 있으며, 모든 스타일과 크기의 모든 거드랑이용 패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특히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신 분을 짜증나게 합니다. 또한 그의 복수는 끔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2018년에 자신이 선출한 관료들에게 2030년, 2019년부터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알리신 후, 그분은 치명적인 전염성 바이러스로 땅의 죄인들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그의 분노에 대한 아주 작은 신호일 뿐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에게 원래 서구 기독교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적 파멸을 빚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의 편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하면 나라들이 다투고, 그러다가 싸우고 또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난은 더욱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참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거기에서 그들 중 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각하거나 주조한 우상과 달리 “*보고 듣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로 주제가 마무리됩니다. “*그들의 살인*”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성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자들의 죽음을 요구할 치명적인 일요일 율법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법*”을 인용함으로써 그분은 자신의 “일요일”, 즉 이 거짓 주님의 날이자 정통 이교도 “태양의 날”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톨릭 대중을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뻘뻘함*”을 기억함으로써 성령은 계 2:20의 거짓 “*여 선지자 이세벨*”의 카톨릭 “*음행*”의 상속자인 개신교 신앙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도적질*”을 전가함으로써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 성취된 영적인 도적질을 암시합니다. 단 8:11에 따르면 교황 왕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과 그 정당한 직분을 빼앗았습니다. 에베소서 5:23의 “*총회장*”으로부터 정당화됨; 또한 단 7:25에 따르면 “*때와 법*”의 순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우 영적인 해석은 일반적인 문자적 적용을 배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지은 저자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는 그 적용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 퍼진 작은 책

그리스도의 재림과 반역자들의 형벌

작은 펼쳐진 책과 그 결과

제4차 재림교인의 기다림 끝에 그리스도의 재림

1절: “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

10장은 그 때까지의 영적 상황을 간단히 확인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동맹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홍수 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 무지개 ” 의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 그것은 다시는 홍수로 땅의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을 통해 이제 땅은 “ 불사르기 위해 보존되어 ”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불의 홍수. 그 일은 일곱째 천년기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은 생명을 멸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골짜기의 도시들을 향해 이미 사용하신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 성령은 ^{6절} 이후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펫**.” 이 장은 복수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이미지로 시작됩니다.

완전히 봉인된 예언

2절: “ 그의 손에는 퍼진 작은 책이 있고 ... 그분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으셨습니다. »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따르면, 책의 시작 부분부터 예수께서는 신격화된 “해”를 숭배하는 자들과 싸우러 오십니다. 상징의 역할은 더 명확해집니다. “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 그의 적들, 즉 “ 해 ” 를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 대답: 그의 발걸음,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 그의 발이 불기둥 같 ” 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 (시 110:1, 마 22:44)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1844년부터 요한계시록 5장 1~7절에서 여전히 봉인되어 있던 “ 일곱째 인 ” 을 풀어 요한계시록의 “ 작은 책을 떼셨다 ” 는 사실로 인해 그들의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1844년에서 2030년 사이, 이 장 10장에서 논의된 문맥의 해에 안식일에 대한 이해와 의미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남자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 작은 책 ” 은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 “ 열려 ” 졌고 태양 숭배자들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2절에는 그들의 운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 바다와 땅 ” 상징 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서기 2000년에 나타날 두 영적 “ 짐승 ” 과 연결시켜 주시는 계시록 13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 첫 번째 “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 은 최초의 역사적 형태인 군주제와 로마 카톨릭 교황제 의 비인간적, 따라서 짐승 같은 시민 세력과 종교 세력의 연합 체제를 상징합니다 . 이러한 군주제는 단 7장에서 “ 작은 뿔 ” 로 로마를 지정하는 상징과 연관된 “ 열 뿔 ” 로 상징되며 , 요한계시록 12, 13, 17장은 “ 일곱 머리 ” 로 상징됩니다. 신성한 가치의 판단에 따라 이 “ 짐승 ” 은 다니엘 7장에 인용된 상징들, 즉 로마 제국의 전신 제국들을 단 7장의 상징과 반대 순서로 표시합니다: 표범, 곰, 사자 . 그러므로 “ 짐승 ” 은 단 7:7에 나오는 로마 괴물이다.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 열 뿔 ” 에 이어 교황의 “ 작은 뿔 ” 이라는 상징이 로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 일곱 머리 ” 의 상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 신성모독 ”, 즉 종교적 거짓말을 씌우셨습니다. “ 열 뿔 ” 위에 “ 면류관 ” 이 있다는 것은 단 7:24의 “ 열 뿔 ” 이 통치하게 된 때를 가리킨다 . 그러므로 이때는 “ 작은 뿔 ”, 즉 “ 다른 왕 ” 이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 ‘ 짐승 ’ 이 확인되면서 속편이 그 미래를 알린다. 그녀는 ‘ 한 때, 두 때 (2 번), 반 때 ’ 동안 자유롭게 행동할 예정이다 . 이 표현은 단 7:25과 계시록 12:14에서 예언상 3년 반, 즉 실제 1260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 1260일 ”-년 의 형태로 찾습니다 . 또는 계시록 11:2-3, 12:6 및 계시록 13:5에서 예언적인 “ 42개월 ”. 그러나 13장 3절에서 성령께서는 그녀가 정확하게 1789년에서 1798년 사이의 프랑스 무신론에 의해 “ 상처를 입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 ” 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1세의 조약 덕분에 그녀의 치명상은 “ 치명상을 입게 될 것 ” 입니다 . 치유되었습니다 . ” 그러므로 신성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거짓말을 계속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짐승은 이번에는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로 구별됩니다. “**땅**”이 “바다”에서 나오는 창세기의 이미지에 의지하여 영은 미묘하게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서 나왔다고 말함으로써 소위 개혁된 가톨릭 교회를 지정합니다. 개신교 개혁 신앙의 정확한 정의. 2021년에는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대표하고 있으며 1944~45년 일본과 나치 독일에 맞서 승리한 이후 권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미국입니다. 원래는 주로 개신교였으나, 강력한 히스패닉 이민을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대부분 카톨릭이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첫 번째 짐승이 자기 앞에서 경배**” 한다고 비난함으로써 그의 로마 일요일 유산을 비난하십니다. 이는 종교적 라벨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개신교 신앙은 이 로마 유산에 너무 집착하여 제재 조치에 따라 일요일 휴식을 의무화하는 구속력 있는 법률을 공포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상업 불매 운동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일요일은 로마의 “**짐승**”, 최초의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 “666”은 **성령이 “**짐승의 수**”**라고 부르는 제목 “VICARIVS FILII DEI”의 글자로 얻은 합계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비시빌리디

$$5 + 1 + 100 + 1 + 5 = 112 + 1 + 50 + 1 + 1 = 53 + 500 + 1 = 501$$

$$112 + 53 + 501 = 666$$

중요한 설명 : “**손**”이 작업과 행동을 상징하고 “**이마**”가 자유로운 각 생물의 개인적 의지를 나타내는 한도 내에서 이 표식은 “**손**” 또는 “**이마**”에만 표시됩니다. *Ez.3:8*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선택하십시오 : “**내가 네 이마를 굳게 하여 너로 그들의 이마와 대치하게 하리라**”.

의로우신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발등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미묘하게 “**오른발**” 또는 “**왼발**”의 우선순위를 표시함으로써 누가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불타는 “**오른발**”은 계시록 18:24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를 흘린 것으로 여기시는 로마 교황 카톨릭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에 대한 그의 우선 순위는 당연합니다. 그런 다음 “**땅**”이라고 불리는 개신교 신앙은 최초의 카톨릭 “**짐승**”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그것을 모방한 것에 대해 똑같이 유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왼발**”로부터 불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구원의 개입 없이 흘러질 마지막으로 선출된 성도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하십니다.

3절: “ 그리고 그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그가 외치자 일곱 천둥이 소리를 냈습니다. »

일곱 우레의 소리 ” 로 선포하셨던,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 음성 ” 은 그분의 성화를 상징하는 숫자 “ 7 ” 과 관련된 “ 천둥 ” 소리에 비유됩니다 . 이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고 무시되었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신성하고 숭고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해입니다. 날짜는 2018년에 선출직 공무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2030년 봄은 30일 4월 3일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기 위해 계획하신 6000년 중 3/3이 끝나는 날입니다.

4절: “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낼 때에 내가 기록하러 가니라.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 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위한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을 그분의 택하신 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불경한 6일 동안 예언된 6000년 계획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 날짜 자체가 이해의 길을 열 때까지 이 날짜에 대한 검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1843년, 1844년, 199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영원한 정의의 혜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된 택자를 선별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세 가지 재림교회 시험 각각에 대해 달성되었습니다.

5절: “ 또 내가 본즉 바다와 땅 위에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르되 ”

승리를 거두신 위대한 재판관의 이러한 태도로, 그의 발은 그의 적들 위에 놓여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신성하게 묶는 엄숙한 맹세를 하실 것입니다.

6절: “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자 곧 하늘과 거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시간이 더 있으리라 하더라 ” ,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며 요한계시록 14:7; 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영광을 돌리는 넷째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 경외 ” 를 나타냄으로써입니다 . “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 ” 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서 1843년, 1844년, 1994년의 세 가지 헛된 재림교회의 기대를 계획하셨음을 확증해 줍니다 . 제가 이미 표현했듯이, 이러한 헛된 기대는 기독교 신자들을 선별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는 헛되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극적이고 영적으로 필멸의 결과였으며,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의한 축복과 성화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큰 재앙이 선포됩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

예언적 날짜를 구성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예언된 자료에 의해 확립된 것들은 1843-44년 개신교의 신앙과 1994년 재림교인의 신앙을 차례로 시험하는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잘못된 날짜나 잘못된 기대가 없을 것입니다. ; 2018년부터 시작된 소식은 좋을 것이며, 선택된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신성한 정의의 그리스도의 개입을 알리는 “ 일곱째 나팔 ”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11장 15절에 따르면, “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에게 넘겨져 ” 마귀에게서 빼앗긴 때입니다.

예언 사역의 결과와 시기

8절 “ 내가 하늘에서 들은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섰는 천사의 손에 퍼 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시더라.” »

8절부터 11절까지는 암호화된 예언을 평이한 언어로 제시하는 임무를 맡은 종의 사명 경험을 설명합니다.

9절: “ 그리고 나는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나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것을 받아 삼키십시오. 네 속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먼저 나오는 “ 창자의 고통 ”은 반역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제안한 빛을 거부함으로써 야기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아주 잘 묘사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선택받은 자들의 생명이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일요일 율법 시대에 믿음의 마지막 시험을 위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빛과 그 보관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상 및 지상의 악마들, 계시록 9:11의 이 "파괴자", " 아바돈 또는 아폴리온 "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동맹자들에 의해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달콤함 여보 ”는 또한 진리에 목마른 참된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나누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행복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떤 제품도 그것만큼 자연적으로 달콤한 단맛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에게 즐거운 이 달콤한 맛을 높이 평가하고 추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로운 관계의 달콤함과 그분의 지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신의 계시 “묵시록”(=계시록) “ 꿀의 단맛 ”을 주시므로써 그것을 “ 꿀 맛 ”이 있고 사막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영양을 공급한 “ 하늘의 만나 ”에 비유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입니다. 히브리인이 이 “ 만나 ”를 먹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처럼 , 요한계시록 9장 5-10절에 예언된 “

다섯 달 ”의 끝인 1994년 이후로 재림교회 신앙은 이 마지막 예언적 영적 “만나” 를 먹음으로써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음식 ”(마태복음 24:45)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의 강림의 때를 위하여 예비한 것 ”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2021년 1월 16일(그러나 하나님은 2026년) 4시 안식일 아침에만 깨닫게 하신다는 이 가르침은 어느 날 나에게 예언 연구에 관해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하는 데 유용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간단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피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만일 그 영이 “떡 ”의 이미지를 취하지 않고 단지 “ 꿀의 단맛 ”의 이미지를 취했다면 그것은 히브리인의 육체적 생명이 이 “ 만나 ” 음식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음식은 오직 택하신 자들의 영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에서 그것은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 사항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종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도록 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만찬의 마지막 형식이자 성취 이후 가장 성스러운 요소를 구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음식과 몸과 예언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10절: “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키니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삼키니 내 속이 쓰게 되었느니라. »

살아 있는 경험에서 하인은 고독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눈부신 빛을 발견했고, 실제로 그는 먼저 “ 꿀의 달콤함 ”, 즉 꿀의 달콤한 달콤함에 버금가는 즐거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개하고 싶었던 재림교인과 교사들이 보여준 차가움은 내 몸에 대장염이라는 본격적인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설명은 예언의 빛이 밝혀지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시대에 시작되지만 전쟁과 살인적인 테러의 시대에 끝날 것입니다. 단 12:1은 그것을 “ 열국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환난의 때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 장통 ” 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 특히 우리는 애 1:2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 여호와여,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내 속이 들끓고 내 마음이 속에서 불안하니 이는 내가 패역하였음으로다. 밖에서는 칼이 죽음 안에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 또한 예레미야 4:19에서: “ **내 창자 ! 내 속 :** 나는 마음 속으로 괴로워하고, 심장이 뛰고,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함성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 “ 내장 ” 의 괴로움은 재림교회의 마지막 사명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을 비교하게 합니다. 두 가지 경험 모두에서 선출된 공무원은 당시 반항적인 통치자들의 적대감 속에서 일합니다. 예레미야와 마지막 참된 재림교인들은 그 시대의 사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죄를 고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그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16의 “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 끝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서문과 세 가지 병행 주제, 일곱 교회의 천사들에게 보낸 편지, 일곱 인 또는 시대의 표징,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일어나는 여섯 개의 나팔 또는 경고 형벌을 발견했습니다.

11절: “ 그들이 내게 이르되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

11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6000년 계획 중 마지막 2000년의 전체 범위를 확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에 이르러 예언의 호출은 “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다른 주제로 11장에서 기독교 시대의 개요를 재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둘째 부분이 시작됨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독교 시대에 대한 병행 개요를 통해 성령께서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중요한 사건들을 목표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테마 각각. 여기서도 각 장은 서로 다르지만 항상 보완적인 기호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언이 표적이 된 주제를 식별하는 것은 이 모든 가르침을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니엘서 이후로 예언의 장들을 평행시키는 이 원칙은 계시의 영에 의해 적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 12, 13장

이 세 장은 기독교 시대의 시대를 병행하여 다루며 다양한 사건을 조명하지만 항상 매우 상호 보완적입니다. 주제를 요약한 다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교황 통치 – 국가 무신론 – 일곱 번째 나팔

1~2절: 가톨릭 교황 거짓 선지자 박해자의 1260년 통치.

3~6절: 이 편협하고 박해하는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두 증인, 즉 두 언약의 성서는 유럽 서부의 군주제와 연합한 로마 종교 연합인 "짐승"에 의해 괴로움과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프랑스 혁명"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민족적 무신론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일곱째 나팔"의 부분적인 발전을 주제로 삼을 것입니다.

교황 통치의 역할

1절: " 또 그들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르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더라." »

몽둥이' 라는 단어로 드러나는 형벌의 때이다 . 그 형벌은 321년부터 시민적으로 회복되었고 538년부터 종교적으로 회복된 " 죄로 인해 " 정당화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날짜 이후 이사야서에서 "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 를 가리키는 " 갈대 "로 상징된 교황 정권에 의해 죄가 부과되었습니다. 9:13-14. 이 메시지는 단 8:12의

내용을 이미지합니다: " 군대가 죄로 말미암아 영구한 자와 함께 내준 바 되었으니 " 여기서 " 군대 "는 기독교인의 모임, " 영원한 ", 곧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의미합니다. 교황 체제, 그리고 " 죄", 즉 321년 이후 안식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양한 측면과 상징으로 여러 번 반복된 메시지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로마 교황 정권 수립에 징벌적인 역할을 주셨음을 확증해 줍니다. ' 측정하다 ' 라는 동사는 '판단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 성전 "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집합체, 그의 희생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 ", 그리고 "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 ", 즉 그의 구원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2절: " 성전 바깥뜰은 그대로 두라. 밖에서 측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발로 짓밟을 것임이라. »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 밖 "이다. 이것만이 여기에서 " 42개월 " 로 제시된 1260일의 통치 이미지와 관련된 로마 카톨릭의 피상적인 신앙을 나타냅니다. 참된 선택을 받은 자의 " 거룩한 도시 " 형상은 교황의 독재 정권과 동맹을 맺은 " 열방 "이나 1260년의 오랫동안 편협한 통치 기간 동안 가톨릭 " 이세벨 "과 간음한 유럽 왕국의 왕들에게 " 발 아래 짓밟힐 것 " 입니다. 538년에서 1798년 사이의 실제 연도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 성소인 모세의 장막의 상징을 사용하여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를 표시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우리는 두 경우 모두 " 뜰, 성전 밖 "에서 세속적인 종교 의식, 즉 희생의 제단과 재계의 대야를 발견합니다. 참된 영적 거룩함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는 일곱 등잔대와 열두 진설병의 상과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놓인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기독교 구원을 위한 후보자들의 진심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지상에서는 우리 시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로마 카톨릭 신앙이 대표하는 '외형' 종교 에 인류가 미혹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박해를 받음

3절: " 내가 내 두 증인에게 천이백육십 일 동안 붉은 베 옷을 입고 예언하는 권세를 주리라. »

1260일 " 이라는 형식으로 확인된 이 긴 통치 동안, " 두 증인 " 으로 상징된 성경은 종교 개혁 때까지 부분적으로 무시될 것이며, 심지어 칼로 지지하는 교황에게 유리한 카톨릭 연맹에 의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 베 옷을 입은 "이라는 이미지는 성경이 1798년까지 지속될 고난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끝나면 프랑스의 혁명적 무신론은 성경을 공공장소에서 불태우고 완전히 없애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쫓대니라. »

이 “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계획에서 조직하신 두 개의 연속적인 동맹을 상징합니다. 성경과 두 동맹의 본문을 유산으로 남기는 성령을 전달하는 두 번의 연속적인 종교적 경륜입니다. 두 동맹의 계획은 속4:11~14절에 “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두 그루 ”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절의 “ 두 증인 ”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증언에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들은 온 땅의 주 앞에서 있는 기름 맡은 두 아들이니라. » 이 상징에서 “ 기름 ”은 신성한 영을 나타냅니다. “ 등대 ”는 상징적 촛대가 “ 촛대 ”에 들어 있는 기름을 태워 빛을 발산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몸에 성령의 빛을 가져오시고(= 7) 사람들 가운데 그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일곱* ” 꽃병.

참고 : “ 일곱 ” 등불이 있는 “ 촛대 ”는 가운데 꽃병 중앙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절 주간의 넷째 날^날 주의 종간과 같습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을 통해 히브리 종교 의식인 “ 제사와 예물 ”을 중단 하게 하신 날입니다. 단9:27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 그러므로 일곱 등잔 “ 촛대 ”에도 예언적인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5절: “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려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3:10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참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성경과 그 원인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악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 하나님의 말씀 ” 이라고 부르는 성경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므로 , 그를 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6절: “ 그들은 하늘을 닫아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권세를 가졌느니라.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성령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인용하십니다. 그 당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모세는 그 전에 하나님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받았느니라. 계시록 16장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기록되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같은 유형의 재앙으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 증언은 더욱 중요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민족 무신론
어두운 조명**

7절: “ 저희가 그 증언을 마치거든 깊은 데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이리라.” »

성령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1793년은 성경의 증언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신앙을 지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신성한 권위를 거부하고 성경을 박해했던 당시의 적들을 위해; 즉, 군주, 군주제 귀족, 로마 카톨릭 교황 정권 및 그 모든 성직자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미 그분의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는 거짓 개신교 신자들도 정죄하십니다. 단 11:34에서 하나님은 심판에서 그들에게 “ **위선** ”을 **씩우 셧습니다**. » 완성되는 것은 성경 증언의 첫 번째 부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1843년에 선출된 사람들이 재림교회 예언을 발견하도록 초대함으로써 그 역할이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국가무신론 확립은 성경을 표적으로 삼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단두대”를 피비린내 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번에는 “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 새로운 “ **짐승** ”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이야기에서 빌려온 이 용어를 통해 성령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도 발달하지 못했을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 **무저갱** ”은 “ **혼돈하고 공허** ” 한, 사람이 없는 땅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 **태초에** ”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이후 세상 끝인 “ **천년** ” 동안 다시 그러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래의 혼란과의 이러한 비교는 정치적 혼란과 가장 큰 무질서 속에서 탄생한 공화주의 정권에 대해 당연한 일입니다. 반란군은 단결하여 파괴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재건에 부여해야 할 형식에 대해서는 매우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보여줍니다. 유익한 작용을 박탈당했습니다.

창조주의 영이 그것을 “ **무저갱** ” 이라고 명명함으로써 하나님은 또한 우리 땅의 원래 창조의 맥락과 상태를 암시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이 창조의 첫날을 목표로 하여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어떤 별의 빛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완전한 “ **어두움** ”에 빠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이 “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을 “ **베옷처럼 검은 해** ”로 묘사된 계시록 6:12의 “ **넷째 인** ” 과 영적으로 연결합니다. 이 연결은 또한 “ **삼분의 일과 해와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의 충돌** ”로 묘사된 요한계시록 8:12의 “ **넷째 나팔** ” 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영은 그 이미지에 특히 “ **어두운** ”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자유 사상가들에게 “ **계몽** ” 이라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미화할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과 이러한 “ **어두운** ”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인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 **그러나 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 따라서 어두운 자유 사상은 종교 정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이 새로운 **자유주의 정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되어 서구 세계로 확장될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불리며 세상 끝까지 사악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어둠”은 죄와 함께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함께 자유로운 사상의 철학자들이 쓴 책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니엘 2-7-8장의 예언에서 그리스를 특징짓는 “죄”와 연결됩니다. 이 새로운 책들은 성경과 경쟁하여 성경을 엄청나게 억누르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난된 “전쟁”은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이다. 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어둠은 본래의 불관용과 대조되어 깨어지는 최고의 인문주의의 모습을 취하게 되지만 이념적 ‘전쟁’은 계속된다. 서양인들은 이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의 국가와 안전을 희생할 것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8절: “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광장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느니라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 »

“ *시체* ”는 같은 “ *도시* ”의 “ *광장* ”에서 첫 번째 공격자가 처형된 “ *두 증인* ”의 시체입니다. 이 “ *도시* ”는 파리고, 인용된 “ *장소* ”는 차례로 “루이 14세 장소”, “루이 15세 장소”, “혁명 장소”로 불리며, 현재의 “콩코르드 장소”를 가리킨다. 무신론은 어떤 종교적 형태에도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단두대에 처형된 희생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정확히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 *넷째 나팔* ” 메시지가 가르치는 대로, 그 표적은 참 빛(해), 거짓 집단(달), 모든 개별 종교 사자(별)입니다. 더욱이, 특정 부패한 종교 형태는 지배적인 무신론의 규범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일부 사제들은 조롱의 의미로 “성격을 박탈당한”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 *소돔* ”과 “ *이집트* ”에 비유하십니다. 자유의 첫 번째 열매는 전통적인 사회 및 가족 관습의 붕괴와 함께 성적 과잉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도시가 하나님을 향한 죄와 반역의 전형적인 상징이 된 “ *소돔* ”과 “ *이집트* ”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확립된 다니엘서 2-7-8장에서 비난된 “헬라적” 철학적 “ *죄* ”와의 연관성은 여기서 입증됩니다. 그리스 죄에 대한 이러한 신적 낙인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철학적 언어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그곳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고려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철학적 사고가 창조주 하나님의 적으로 영원히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말이 올 때까지 “파리”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성적, 종교적 죄의 상징인 이 두 이름과 비교되는

정확성을 유지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파리"라는 이름 뒤에는 켈트어에서 유래된 단어인 "가마솥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극적으로 예언적인 이름인 "파리시"의 유산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곳은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를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거점이었지만,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인 파리스의 무대이자 냉소적인 이미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인 아름다운 헬레나와 간통을 저지른 그는 그리스와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지게 될 것입니다. 포위 공격이 실패하자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해변에 남겨두고 철수했습니다. 트로이인들은 그것이 그리스 신이라고 생각하여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포도주와 잔치가 끝나자 그리스 군인들이 말에서 나와 조용히 돌아오는 그리스 군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신민에 이르기까지 그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트로이 목마의 행동은 마지막 날 파리의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훈을 무시하고 식민지화한 적들을 자신의 영토에 정착시켜 실수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도시는 "악취나는 늪"을 의미하는 "Lutece"로 불렸습니다. 그의 슬픈 운명의 전체 프로그램. 프랑스가 공화정권을 채택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서방 세계 최초의 죄 많은 정권이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와의 비교는 정당합니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프랑스 모델 위에 세워진 마지막 시대의 군주제와 공화제 연합의 형상인 "짐승"의 "진홍색" 색깔로 확증될 것이다.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도"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께서는 프랑스 무신론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거부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의 국가적 거부 사이의 비교를 확립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상황은 동일하며 동일한 결과와 불경건과 불법의 동일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는 다음 구절에서 계속됩니다.

자신의 수도를 "이집트"라고 부르심으로써 프랑스를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인간 저항의 전형적인 모델인 파라오에 비유하십니다. 그 나라는 멸망될 때까지 이러한 반역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에는 결코 회개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악을 선택하고 선을 악"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최악의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에 반대하는 "그의 인권"을 창설한 "어두운" 사상가인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델을 모방할 것입니다. 심지어 1917년에 강력한 러시아가 "여섯 번째 나팔" 당시 원자탄으로 그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켈트족에서 예언된 "파리시"라는 이름입니다. '가마솥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언어.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을 멸망시킬 정도로 파멸시킬 시련 속에서 끝까지 하느님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에 그 시체를 보며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

프랑스에서는 1789년 혁명에 참전했고, 1793년에는 왕과 여왕을 차례로 처형했는데, 두 사람 모두 "루이 15세 광장", "혁명 광장"이라고 불리는 도시의 큰 중앙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참수당했습니다. 현재는 '콩코르드 광장'입니다. " 3일 반 "을 파괴적 행동의 시기로 간주함으로써 정신에는 1792년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프랑스 공화국을 공격한 유럽 왕국의 왕당파 군대와 맞서 싸워 격파한 발미 전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의 본가의 집. 이 증오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260년 동안 교황-왕실 연합에 의한 온갖 종류의 학대가 결국 프랑스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완전히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루이의 마지막 두 통치 주목 ! 공화국은 프랑스에게 축복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섯 번째 형태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고 자신을 몰락시킬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피에 굶주린 정권은 그 기원부터 죄인을 옹호하고 불의를 통해 피해자를 좌절시키는 '인권'과 인본주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적을 환영하고 그들을 자신의 영토에 설치할 것이며, 앞서 본 것처럼 그리스인들이 남긴 목마를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트로이 도시의 유명한 예를 최악의 경우까지 모방할 것입니다.

10절: “ 또 그들로 말미암아 땅의 거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의 거민들을 괴롭게 하였음이라. »

전염병처럼 다른 서방 국가에 퍼지고 퍼지는 시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 여섯째 인 ”으로 “시대의 표징”을 표시합니다. “ 해가 말총처럼 검게 변하는 ” 곳 : 자유사상가들의 철학서들에 가려져 성경의 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성 독서에서는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의하는 “ 천국 시민 ”과 달리 “ 땅에 사는 자들 ”은 미국 개신교인들을 가리키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반항하는 인간들을 가리킨다. 유럽과 더 많은 미국 왕국의 사람들이 프랑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민족은 성서를 읽는 사람들, 즉 “ 두 증인 ”을 “지옥”의 “ 고통 ”으로 위협하는 군주제와 가톨릭 기독교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10-11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위협을 기만적으로 사용하는 거짓 종교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만 남겨진 실제 “ 고통 ”입니다. 프랑스 밖에서 동일한 학대를 당한 외국인들 역시 이 계획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몇 년 전에 세계에서 새로운 북미 합중국이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찾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자유가 움직이고 있으며 곧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정의 표시로 “ 서로에게 선물을 보내겠다

”는 것이다. 이러한 선물 중 하나는 1886년 뉴욕 반대편 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인들에게 준 프랑스 선물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에게 1889년에 세워진 복제품을 제안함으로써 보답했습니다. 이 모형은 파리의 에펠탑 근처 센 강 한가운데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법칙을 무시하려는 과도한 자유의 저주를 구성하는 공유와 교환을 드러내는 이러한 유형의 은사를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11절: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라.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792년 4월 20일,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위협을 받아 1792년 8월 10일 프랑스 왕 루이 16세를 몰아냈습니다. 혁명군은 1792년 9월 20일 발미에서 승리했습니다. 루이 16세는 1793년 1월 21일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독재자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친구들은 7월 28일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1794. "협약"은 1795년 10월 25일에 "디렉토리"로 대체되었습니다. 1793년과 1794년의 두 "테러"는 합쳐서 단 1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1792년 4월 20일부터 1795년 10월 25일 사이에 나는 이 기간이 예언된 "3일 반" 또는 실제 "3일 반"이라는 기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영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은 일주일 반을 나타내며, 이는 정확히 “예언적 사흘 반” 동안 지속되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암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은 자신의 행동을 파리의 혁명 광장에서 불태워지기 전에 행동하고 가르친 “*두 증인*”인 성경의 행동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에 따르면, 성경은 요한 계시록 1장 7절에 표시된 대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믿음입니다. 유혈사태의 홍수는 결국 프랑스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에 굶주린 의회의 지도자인 막시 밀리앙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친구 쿠통, 생쥐스트를 처형한 후 약식 처형과 체계적인 처형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적 갈증을 일깨웠고, 종교의 실천은 다시 한 번 합법적이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유익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다시 나타났고 성경에 대한 관심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그것은 그리스 모델을 모든 것의 최전선에 두고 있는 자유 사상가들이 쓴 철학 서적들과 싸우고 경쟁할 것입니다. 그 다양한 형태.

12절: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보았다.*»

이 신성한 진술은 1798년 이후의 성경의 “*두 증인*”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과 비교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택하신 자들이 (선지자 엘리야 이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의 적들도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에 베푸시는 지원은 그분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프랑스 혁명의 맥락에서 1798년 이후의 성서에도 동일 합니다. 1799년 교황 비오 6세가 발랑스쉬르 론(Valence-sur-Rhône)에서 투옥되어 사망함으로써 1843년부터 1994년까지 오랜 평화 기간이 가능해졌습니다. 계시록 9:5-10에서는 150년이 “ 다섯 달 ”로 예언되었습니다. 루이 16세의 죽음, 왕정의 폐지, 포로 교황의 죽음은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나오는 “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에 대한 종교적 불관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디렉토리 협정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파괴된 왕실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포에서 “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 ”이라는 이름 아래 프로테스탄트의 불관용이 나타날 마지막 때까지 그녀는 더 이상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13:11.

13절: “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더라. 이 지진으로 사람 칠천 명이 죽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

이 시대(이 시간)에 아포 6장 12절의 “ 여섯째 인 ” 주제와 관련된 1755년 리스본 지진의 성취로 이미 예언된 “ 지진 ” 이 영적인 형태로 성취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영에 따르면 파리는 인구의 “ 십분의 일 ”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단 7:24과 요한계시록 13:1에 따르면 “ 열 뿔 ”의 10분의 1, 즉 로마 교황 카톨릭의 지배를 받는 서방 기독교 왕국에 따르면 또 다른 의미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로마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장녀”로 간주했던 프랑스는 무신론에 빠졌고, 지지를 박탈했으며, 심지어 권위를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넷째 나팔은 “ 해의 삼분의 일이 침을 당함 ”을 드러냈습니다. “ 이 지진으로 칠천 명이 죽었습니다 ” 라는 메시지는 이 사회적 정치적 지진으로 수많은 종교적 “ 사람 ”(7: 당시의 종교적 성화)이 죽었다는 말로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

14절: “ 둘째 화는 지나갔느니라.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니 ”.

그리하여 강렬한 피흘림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렸고, “공포”는 그쳤고 , 주민들에게 마지막 세 번의 “ 나팔 ”과 세 번의 “ 큰 불행 ”을 알리는 “ 독수리 ”인 나폴레옹 1세의 제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지구의. 이 발표가 1789년부터 1798년까지의 프랑스 혁명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면, 14절에서 그에 따른 “ 두 번째 불행 ”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 직전에 새로운 형태의 프랑스 혁명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8:13에 따르면 “ 둘째 화 ”는 분명히 여섯째 화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의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필멸의 원수인 마지막 반역자들을 멸절시킴으로써 그분의 거룩하고 신실한 종들의 부당한 정죄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오시기 전에 정확히 “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 ” 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가들이 일으킨 학살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제3차 세계대전의 학살을 조직하셨는데, 이번에는 핵무기로 학살이 완료되기 전에 지구의 주민 수를 크게 줄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파괴적인 개입 이후에 원래의 “ 심연 ”이 나타났습니다.

“ 둘째 화 ”의 이중 의미는 영적인 이유로 넷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연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기독교 시대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첫 번째의 ' 불운 '은 1844년 이전에 처벌받은 죄인을 처벌하고, 두 번째는 세상이 끝나기 직전인 1844년 이후에 처벌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제 두 가지 징벌 행위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25절에서 네 번째 형벌에 부여하신 의미와 동일합니다. “ 내가 내 언약을 갚을 칼을 보내리니 ... 첫 번째 형벌은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종교 개혁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했고, 두 번째 형벌은 1843년부터 이 종교 개혁을 완성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종교 개혁을 세우시는 것은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제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789년부터 1795년까지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렸던 사물과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서구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 의식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대해 똑같은 경멸과 불경건, 증오를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행동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무신론과 거짓 종교가 서방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 이중 읽기를 우리에게 제안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혁명 시대와 인류 마지막 시대의 과학 시대 사이의 주된 차이를 만드는 ' 생존자들 '의 행동. 더 명확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11:11-13에 따르면, “ 넷째 나팔 ”에 관한 첫 번째 읽기에서는 “ 생존한 자 ”가 회개하였고, 둘째 “ 여섯째 나팔 ”에 관한 읽기에서는 “ 살아 남은 자 ”가 회개했습니다. 아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9:20-21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 큰 화 ”(죄인들에게):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절 :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에게 맡겨졌으니 그리고 그는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 주제는 “ 일곱째 나팔 ”의 주제로,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눈에 자신을 보이시는 순간을 가리키는

“일곱째 나팔”입니다. 구름과 모든 눈이 그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뚫은 사람들까지도요.” 예수님을 찌른 “ 그를 찌른 자 ”는 마지막 시대를 포함하여 기독교 시대의 모든 시대에 걸쳐 그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찢어 충실한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 대해 “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행사를 축하하는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들은 계시록 12:7~12에서 “ 미가엘 ” 이라 불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미 자신을 표현한 천국의 주민들입니다. 선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되고 승리했습니다. 지상의 죄의 역사는 신성하신 그리스도의 입으로 멸망된 죄인이 없기 때문에 그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 이 세상 임금 ” 인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 파괴된 죄 많은 세상의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황폐된 땅에서 앞으로 천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부활시키실 다른 모든 죄인들과 함께 마지막 심판에서 그의 완전한 제거를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택하신 자들의 천국의 큰 행복

16절: “ 하나님 앞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으며 계시록 20:4에 따라 악한 자들을 다스리거나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시작되는 상황을 연상시킨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취해야 할 형태를 제시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법화하신 형태입니다.

17절: “ 이르시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께서 큰 권능을 얻으시며 나라를 얻으심에 감사하나이다. »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 “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를 새롭게 하고 부복합니다. 당신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하시고 당신의 “ 어린양 ” 사역을 통해 그들의 죄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속죄하신 “ 당신의 큰 능력을 붙잡으셨습니다. ”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당신은 “ 당신의 왕국을 차지 ”했습니다. 제안된 문맥은 실제로 요한계시록 1:10에서 성령이 요한을 데려간 곳입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집회의 역사는 과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출직 공무원 뒤에는 “ 7개 의회 ”가 있습니다. 택자들의 믿음의 소망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8절: “ 나라들이 노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사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

우리는 이 18절에서 예언된 사건의 순서에 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발견합니다. 6 번째 트럼펫 사망 남성의 3분의 1은 “ 국가들이 짜증을 냈다 ”고 말하고 있으며, 2020-2021년 우리 눈앞에서 이러한 짜증의 원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파탄, 이슬람 침략, 그리고 즉각적인 러시아의 공세 동맹국과 함께. 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갈등 이후, “ 땅의 짐승 ”, 즉 미국과 유럽의 생존자들 로 이루어진 개신교와 가톨릭 연합이 일요일 법령을 공포한 후 ,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 그분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재앙 ” 을 부여 주셨습니다. Rev.16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타락한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 다음 일곱 번째 천년기인 “ 천년 ” 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따르면 하늘에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니 ... 성도들은 그들의 보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얻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택함 받은 자에게 약속된 새벽별과 면류관을 얻습니다. “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시대에 대한 예언의 중요성(베드로후서 1:19에 따르면), 특히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십니다. “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은 계1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세 천사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자들이다. 그 중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면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계명에 논쟁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 지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19절: “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그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라.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

이 요한계시록에 제기된 모든 주제는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이 역사적인 순간을 향해 수렴됩니다. 이 구절은 다음 주제가 성취되고 결론을 내리는 맥락을 목표로 합니다.

Rev.1: 재림교:

4절: “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함께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7절: “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것을 볼 것이며 심지어 그것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때문에 애통할 것이다. 예. 아멘! »

8절: “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

10절: “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Apo.3: 일곱 번째 모임: “ 라오디게아 ” 시대(= 심판받은 사람들)의 끝.

계 6:17: 반역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 으니 누가 서리요? »

Apo.13: “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개신교와 가톨릭 연합) 및 일요일 법령; 15절: “ 또 그에게 허락을 받은 것은 그 짐승의 우상을 살리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

추수 ”(세상의 종말과 택함받은 자들의 휴거) 와 “ 포도 ”(미혹되고 속은 추종자들에 의한 거짓 목자들의 학살) 의 두 가지 주제.

Rev.16: 16절: “ 아마겔돈 전쟁의 큰 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개입에 대한 핵심 공식을 발견합니다 . “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이 나더라 ”(계 4:5, 8:5). 그러나 여기서 성령께서는 “ 그리고 큰 우박 ”을 덧붙이십니다. 계 16:21의 “ 마지막 일곱 재앙 ” 중 일곱 번째 주제가 끝나는 “ 우박 ”.

2030년 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얻어 택자들에게 제공되는 참된 구원을 가져 오는 마지막 재림교회 주제로 특징지어집니다 . 지금은 로마 일요일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첫 주부터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는 택하신 자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반역자들과 대결하실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 여섯째 인 ”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들을 대량 학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주님께서 붙잡으신 반역자들의 행동과 실망을 보여줍니다. 불일치의 주제는 이 19절에서 제기됩니다. 그것은 성막과 히브리어 “ 성전 ”의 지성소에 있는 “ 증거궤 ”에 보존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법궤의 위엄과 매우 높은 거룩함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모세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긴 율법의 돌판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반역자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 아삽의 시.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말씀하시고 땅을 부르시느니라. 완전한 아름다움이신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는 맹렬한 폭풍이 있느니라** . 그가 자기 백성을 심판하라고 위 하늘과 땅을 향하여 외치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그들이니라 -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이로다»

공포의 상황에서 반역자들은 하늘에 불의 문자로 표시된 하나님의 십계명 중 넷째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행동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정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 주제의 이 마지막 구절은 반역적인 거짓 기독교의 도전을 받는 그분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성을 드러내고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과 은혜에 반대된다는 구실로 경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한 말을 잘못 읽은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확하고 간단한 설명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를 대조하는데 , 그 이유는 새 언약이 시작되는 당시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 아래” 라는 공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의에 기초한 새 언약을 거부하는 옛 언약의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는 “법과 함께” 라는 공식을 통해 이 새로운 동맹을 맺는 선출직 공무원을 지정합니다 . 이것이 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자신이 택하신 자를 도우시고 거룩한 신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그는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에 있게 되며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 나는 바울이 신의 율법에 대해 “거룩하고 계명도의 롭고 선하다”고 말한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과 나누는 것. 바울이 죄를 징계하면서 독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현대의 반역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의해 확립된 " 죄의 사역자 "로 만들어 바울의 본문을 반박합니다. 321년 3월 7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도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시리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 » 정밀도의 중요성에 주목합시다 .”는 거짓된 현대 기독교 반역 신앙의 종교적 개념을 정죄하며, 이는 로마의 " 죄"가 이교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의 권위에 의해 서방과 동방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날인 321년 3월 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일곱째 나팔”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기 위해 따로 떼어 놓으신 처음 6천년, 즉 그분의 전체 계획인 7천년이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 계시록 20의 일곱 번째 천년기, 즉 “천년”이 시작되는데, 계시록 4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선택받은 자들에 의한 반역자들의 천상 심판에 헌정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 위대한 중앙 계획

여자 - 로마 침략자 - 사막의 여자 - 괄호: 천국에서의 싸움 - 사막의
여자 - 종교개혁 - 무신론 -
재림교회 남은 자

승리한 여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어린양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서도 여러 그림이나 장면에서 여러 주제가 서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도표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따르면,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유익을 얻게 될 선택된 총회를 보여줍니다. “여자”라는 상징 아래,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4:2에 예언된 “의로운 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중 적용에서 어둠의 상징인 “달”은 “*그의 발 아래*”이다. 이 적들은 역사적으로나 연대적으로나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타락한 기독교인,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재림교인입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 열두 별의 면류관 ”은 7인 하나님과 12를 의미하는 5인 인간과의 동맹에서 그가 승리한 것을 상징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앞둔 박해받는 여인

2절: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해산하고 진통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 산고 ”는 하늘 영광의 시대 이전에 있었던 지상 박해를 연상시킵니다. 이 이미지는 요한 복음 16:21-22에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은 후에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지금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교도의 여성 박해자: 위대한 제국의 도시 로마

3절: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 보이니라. 보라, 그것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 큰 붉은 용이었다.»

3절에서는 그를 박해하는 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뜻에 따라 택하신 자들을 박해하는 육신의 지상 세력을 통해 행동합니다. 그의 행동에서 그는 두 가지 연속적인 전략을 사용합니다. “ 용 ”의 것과 “ 뿔 ”의 것. 첫 번째, “ 용 ”의 공격은 이교 제국 로마가 사용하는 공개적인 공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가 “ 열 뿔 ”을 가진 네 번째 괴물의 출현으로 나타난 단 7:7에서 이미 볼 수 있는 상징을 발견합니다. 이교적 맥락은 Apo.17에 따르면 로마 도시의 상징인 “ 일곱 머리 ” 위에 있는 “ 왕관 ”의 존재로 확증됩니다. 이 정확성은 우리가 이 이미지가 제시될 때마다 예언된 역사적 맥락인 “ 왕관 ”의 위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종교적 박해자: 교황청 가톨릭 로마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은 막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였더라.»

막대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도록 " 권한을 부여받은 계시록 11:1-3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로마제국의 “ 열 뿔 ”이 교황청의 “ 작은 뿔 ”(538년부터 1798년까지) 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이 계승은 여기 Rev.12의 4절에서 확인됩니다.

거짓 '을 표적으로 삼는 용어 ' tail ' 여선지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이새뿔”은 거짓 기독교인 교황 종교 로마의 계승을 예시합니다.

단 8:10 에 인용된 비난은 여기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 뱀 ” 에 합당한 그의 속임수와 유혹의 희생자들은 “ *하늘의 별* ” 이라는 상징 아래, 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 *천국 시민* ” 이라는 칭호 아래 짓밟히게 됩니다 . . . “ *제3자가 몰락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 세 번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총 수 중 중요한 부분으로 인용됩니다. 피해자는 이 비율을 문자 그대로 1/3까지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5절: “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더라.* »

이중 적용을 통해 이 예언은 메시아의 탄생부터 승리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마귀가 메시아를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회상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장자들의 승리이며, 그 후에는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성공하여 최종 승리를 얻을 때까지 동일한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천상의 몸을 받아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함께 할 것이며, 그곳에서 함께 “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 “ *천국의 고통* ” 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 ” 은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그의 택하신 자의 체험은 하나의 공통된 체험으로 통합되며, “ *하느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진 아이* ”, 즉 천국으로의 이미지는 택하신 자들의 지상적인 “ *구원* ” 의 이미지입니다. 2030년에 복수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은 “ *의 고통* ” 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출산* ”. *아이* 는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진정한 기독교 회심의 상징입니다.

6절: “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

박해받는 의회는 평화롭고 무장해제되어 있으며, 유일한 무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므로 공격자들 앞에서만 도망칠 수 있습니다. 6절은 선지자적 “ *1260일* ”, 즉 에스겔 4:5-6의 법전에 따르면 실제 1260년 동안 박해하는 교황 통치 기간을 회상합니다 . 이 시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 “ *사막* ” 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기입니다 . 따라서 그녀는 계시록 11:3의 “ *두 증인* ” 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단 8:12에서 이 하나님의 선고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되었습니다: “ *죄로 인해 군대가 영구한 자와 함께 넘겨졌습니다.* ”; 321년 3월 7일 이후 안식일에 대한 존중을 저버린 죄.

괄호 열기 : 하늘의 싸움

7절: “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용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웠다.* ”

발표된 성도들의 휴거는 성령께서 일종의 괄호 안에 제시하시는 설명을 받을 만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는 그분의 부활 후에 확증되었지만, 성령께서는 이 순간까지 마귀와 사탄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하늘의 주민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천상의 갈등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의미를 밝혀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 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장소**”의 “**준비**”에 주어진 의미는 다음 구절에 나타날 것입니다.

8절: “*그러나 그들은 강하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이 천상의 전쟁은 지상의 전쟁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죽음을 초래하지는 않으며, 두 반대 진영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대천사 미가엘의 겸손하고 형제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과 그의 마귀들은 강압을 받을 때만 순종하는 반역적인 피조물이며, 마침내 그들은 저항할 수 없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실 때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지상 사역 동안 자신에게 복종하고 자신이 참으로 신성한 계획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여 그를 지명한 악한 천사들로부터 두려움을 받았습시다.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는 “*그들이 있을 곳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명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적 반역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장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 반역자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받아들이도록 이 해의 왕국이 “**정화**”되고 “**준비**” 될 수 있도록 해방되어야만 했습니다. 영광으로. 그런 다음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면 “그들은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 항상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정화된 하늘에서는 그들을 영접하도록 “**준비**”됩니다. 그러면 땅의 부분은 창세기 1장 2절 이후로 “**깊음**”이라는 단어가 예언한 형태의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 비추어 신성한 구원 프로젝트가 조명되고 그 계획의 각 핵심 단어가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23에 인용된 다음 구절의 경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 *거든 이같이 정결케 하여야 하느니라* » 따라서 필요한 “**더 나은 희생**”은 예수라는 메시아의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 희생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공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피조물과 자신을 위해 정죄할 합법적인 법적 권리를 얻기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반역자들을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으며, 승리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이 그분의 “발등상”으로 지정하신 땅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성소”(사 66: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라**... 당신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곳을 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이루어져서 이루어졌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돌보아 줄 사람은 고난을 받고 심령이 약한 자, 내 말을 경외하는 자이다.» ; 또는 에스겔서 9장 4절에 따르면,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탄식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꺾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영적 정화로부터 유익을 얻은 첫 번째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이천년 동안 땅에 “내던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의 악마들이 선택된 성도들과 신성한 진리에 대항하여 행동할 “때”가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 : 예수께서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옛 언약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아 거의 무시당했던 마귀라는 가공할 만한 성품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대로 승리하신 이후, 두 진영 사이의 싸움은 현재 지구상의 사람들 사이와 하늘의 행성과 별을 포함하는 지상 차원 전체에 걸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마귀들이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들은 우리 지구 차원의 유일한 외계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의 전반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독점적인 특권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 믿음은 그 계획에 대한 해석이 항상 틀렸다는 점에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주신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육신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역할을 예언한 반면,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만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입증되었습니다. 죄의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거짓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왕국과 그의 권세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적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분의 계획에 넣지 않으신 일들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그들의 삶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며, 그 삶은 그분을 향한 그들의 죄와 모든 죄책을 짊어진 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분은 자유로운 삶이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나타내기 위해

지상의 괄호가 필요해진 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충실하게 남아 있는 그의 피조물의 생명을 연장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늘의 모습으로. 그러면 하늘과 땅의 반역자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멸절될 것입니다.

천국이 해방되다

10절: “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느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

이 “ 지금 ”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기신 4월 3일 수요일 다음 주의 첫날인 4월 30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첫날에 그분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 나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습시다 .” 그의 승리는 여전히 하늘에서 공식화되어야 했고, 그때부터 그는 그의 모든 신적 능력과 재발견된 천사의 이름 “ 미가엘 ”로 하늘에서 악마와 그의 악귀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라는 인용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 그것은 이 땅의 선택된 자들과 함께 반역 진영을 거부하는 하나님 진영의 엄청난 우주적 형제애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 “ 형제들 ”은 누구입니까 ? 그의 “ 고발 ”이 근거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마귀에게 넘겨진 욕과 같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 .

11절: “ 저희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서머나 ” 시대 의 메시지에서 발견되며 ,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예언된 모든 시대에 요구하시는 믿음의 표준을 나타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성한 이름인 “ 미가엘 ”의 승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에 나오는 그분의 엄숙한 선언을 정당화합니다. 지구상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그러므로 하나님은 첫 언약의 기초에서 모세에게 우리 지상 차원의 기원에 관한 역사를 계시하셨으나, 인류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인류의 전반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이해를 계시하신다. 육천년 동안 지속된 지상의 죄 경험의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실한 천상 및 지상 선택자들의 영원한 재회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주민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선택된 특권입니다. 그들은 택하신 자들의 운명과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지상 역사에 관심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전 4:9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사람 중의 마지막 사도인 우리를 어떤 면에서 사형에 처하게 하였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

지구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2절: “ 그러므로 하늘이여, 하늘에 거하시는 이여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마귀가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

“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 기뻐 ” 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 기쁨의 대응은 “ 지구의 주민들 ”에게 “ 불운 ”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악마는 자신이 가석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구원 계획을 거스르는 행동을 취할 “ 시간이 거의 ”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갇힌 마귀의 진영이 2000년 동안 행한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또는 묵시록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을 위해 쓰는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은 마귀가 유혹하는 일을 하도록 예비된 마지막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30년 봄에 그들의 신성한 스승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이 주제의 괄호는 12절로 끝납니다.

하늘에서의 싸움의 괄호를 닫는다

운전하는 여성 주제 재개 사막에서

13절: “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가니라. »

이 괄호는 성령께서 6절의 교황 통치라는 주제를 받아들이도록 해줍니다. 이 절에서 “ 용 ”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마귀, 사탄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 여성 ”에 대한 그의 싸움은 로마의 행동, 차례로 제국주의, 교황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4절 “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뱀의 얼굴. »

단 7:25에서 이미 사용된 “삼 년 반”, “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의 형태로 교황의 통치 기간을 나타냄으로써 메시지를 재개합니다 . 이번 재개에서는 사건의 연대순으로 새로운 세부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 가지 세부 사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3절의 “ 용 ”이 “ 꼬리 ”로 대체된 것과 마찬가지로 4절의 “ 용 ”이 “ 뱀 ”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 뱀과 꼬리 ” 라는 용어는 “ 큰 독수리 ”이신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귀신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적극적인 전술의 변화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 용 ”의 공개적인 공격 이후에는 예언된 1260년의 교황 통치에 의해 성취되는 “ 뱀 ”의 계략과 종교적인 거짓말이 뒤따릅니다. “ 뱀 ”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죄의 상황과의 비교를 제시하실 수 있게 해줍니다. 하와가 마귀가 말하는 “ 뱀 ”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 그리스도의 “ 여자 ”, “ 신부 ”는 마귀가 로마 교황 카톨릭의 대리인들의 “ 입 ”을 통해 그녀에게 제시하는 거짓말의 시험을 받습니다 .

15절: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강으로 끌어가려고 하더라.*»

15절은 불성실한 기독교 신앙이 받는 카톨릭의 박해를 묘사합니다. 손 이 닿는 곳에 있는 모든 것을 “ 옮겨가는 ” “ 강물 ” 과 같습니다 . 로마 카톨릭 교황의 “ 입 ”은 종교적 반대자들을 상대로 광신적이고 잔인한 가톨릭 연맹을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의 완벽한 성취는 르 텔리에 주교의 조언에 따라 루이 14세가 "용" 군단을 창설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박해하기 위해 창설된 이 군대는 그리스도의 모든 약하고 온유한 선택자들을 그의 교리로 " 훈련 "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그들에게 카톨릭으로 개종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끔찍한 학대와 고문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성령께서는 이 한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중첩된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 여자 ”와 “ 땅 ”은 서로 다른 두 개체이며, “ 땅 ”은 개신교 신앙을 상징하거나 문자 그대로 지구, 즉 지구의 흙을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이 구절에 신성한 계시에서 연대순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해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거짓 짐승 같은 개신교 : 연대순으로 먼저, “ 여자 ”는 공식 “ 입 ” (1517년 마틴 루터의 입)이 가톨릭 신자들의 죄를 비난한 평화로운 종교 개혁 개신교의 그림적 묘사에 해당합니다 . “프로테스탄트”는 하느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참된 종들을 죽이는 가톨릭 종교적 불의에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 지구 ”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개신교의 또 다른 위선적 구성 요소 도 “ 입 ”을 열어 가톨릭 신앙을 비난했지만 무기를 들고 폭력적인 타격을 가해 가톨릭 연맹 전사의 상당 부분을 “ 삼켰습니다 ”. 여기서 “ 땅 ”이라는 단어 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거나 존경하지 않았던 "종교 전쟁" 동안 유명한 "위그노", 세벤느의 개신교 투사, 그리고 라로셀과 같은 군사 요새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전투원.

두 번째 메시지: 프랑스 민족 무신론 의 보복의 검 . 제2독서에서 연대순으로 이 16절은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가톨릭 군주제들의 교황의 공격을 완전히 삼킬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주요 메시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 4차 ”의 역할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 8:12의 *나팔* 과 계 11:7의 “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 ”은 레 26:25과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칼과 같이 나의 동맹한 원수를 갚으려 오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반항적인 가톨릭 죄인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민수기 16장 32절에 나오는 반역자 “ *고라* ”의 형벌에 근거합니다 : “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의 모든 백성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삼키니라 .*” 신성한 계시 및 역사적 성취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비교 이미지는 두 상황 모두에서 반역자들이 신성한 율법을 거부한 것을 회상합니다.

용의 마지막 적 : 재림교회 남은 여인들

17절: “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

다섯째 나팔 ”이라는 주제로 신성한 저주를 받은 프로테스탄트의 활동 150년을 묵묵히 지나치면서 , 성령께서는 마귀와 그의 천상과 지상의 부하들의 마지막 지상 싸움을 불러일으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 주십니다. 그들의 공통된 증오. 이 마지막 표적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따라 이 마지막 시험이 예고된 1873년 재림교회 개척자들의 마지막 후손이자 상속자들인 선택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 동일한 신성한 축복을 지니고 임무를 완수할 개척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확고하고 신실하게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일요일에 어떤 방식으로든 “ *짐승의 표* ”를 존중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토요일 동안 안식일의 관행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참된 주일의 일곱째 날,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직하시고 세우신 날입니다. 이 구절에서 “ *여인의 남은 자손* ”에 대한 설명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 즉 아홉 계명이 아니라 열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간직할 사람들* ”은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 *용* ”도 아니고 “ *뱀* ”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 *예수의 증거* ”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10에 따르면 “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마귀가*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언적 증언*입니다 .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만큼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

사탄의 거의...완전한 승리

18절: “ *그리고 그가 바다 모래 위에 서시니라 .*”

그가 지배하고 그의 권위 아래 유지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 종교 기관을** 타락과 치명적인 정죄로 데려오는 데 성공한 승리한 악마를

보여줍니다 . 이사야 10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 멸망이 해결되면 정의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예언에 따르면, 세상 끝에 “*여자의 남은 자*”, “*선택받은 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반체제 재림교인만이 이 곳으로 피신할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나는 “재림교인”이라는 이름 아래 성령께서 1843년 이후 선택된 마지막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한 신앙의 표준을 정의하셨음을 기억합니다. 2020년에는 종교적 행위이지만, 더 이상 1994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거부하신(“*토하신*”) *제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 기독교의 거짓 형제들

바다의 짐승 - 땅의 짐승

숫자 13은 미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각 개인의 의견과 국가에 따라 행운의 부적 또는 불운의 부적을 나타냅니다. 여기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시에서 하나님은 1부터 7까지의 숫자와 그 다양한 조합에 기초하여 그분 자신의 숫자 코드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숫자 13은 천사 사탄의 수인 "6"과 하나님의 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주어진 합법적인 종교의 수인 "7"을 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에서 “기독교의 거짓 형제들”이지만 진정으로 선택된 이들의 진정한 필멸의 적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타르쉬*”는 이 장에서 폭로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종교적 겉모습 아래 “*좋은 곡식*”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

첫째 짐승 :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서펜트 드래곤의 첫 번째 전투

1절: “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적인 이름.

요한계시록 10장 연구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이 장에서 우리 시대의 소위 기독교인 “ 짐승 ” 두 마리를 발견합니다. 단 7:2에서처럼 “ 바다에서 올라오는 ” 첫 번째는 카톨릭 신앙과 예언적인 “ 42개월 ”, 즉 1260년의 박해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단 7장에 나오는 제국의 상징을 취하면 단 7장 24절에 따라 “ 열 뿔 ”이 그들의 왕국을 받은 후에 나타날 “ 작은 뿔 ”의 통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 열 뿔 ’ 위에 놓인 ‘ 왕관 ’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겨냥한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교황 로마는 특히 이중적인 의미로 특징지어지는 “ 일곱 개의 머리 ”로 상징됩니다. 가장 문자적인 표현은 계시록 17:9에 따르면 로마가 건설된 “ 일곱 언덕 ”입니다. 더 영적인 것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 일곱 머리 ”라는 표현은 행정관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 일곱 ”은 거룩함의 수를 의미하고, “ 머리들 ”은 이사야 9장 14절에서 행정관이나 장로를 의미한다. 이 상급 행정관은 교황 로마에 귀속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교황이 우두머리인 시민적, 종교적 독립 국가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있습니다. ” “ 신성 모독 ”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이므로 “ 신성 모독 ”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따라 “ 거짓말의 이름 ”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 거짓말 ”을 로마 교황 정권의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곧 사탄 자신을 지칭한 “ 거짓의 아버지 ” 라는 칭호를 그에게 돌립니다. “ 너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의 아버지 ”.

2절: “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니라.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이 그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느니라. »

“ 넷째 짐승 ”은 “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라고 말하며 여기에서 더 정확한 설명을 받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칼데아 제국 이후 이전에 있었던 세 제국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 표범 ”의 민첩성과 “ 곰 ”의 압도적인 힘, “ 사자 ”의 잔혹한 육식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 일곱 머리 ” 위에 “ 관 ”이 있는 3절의 “ 용 ”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교 제국 시대의 로마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단 7:8-24의 “ 작은 뿔 ”이 단 8:9의 작은 뿔을 계승한 것처럼 여기서는 교황권이 로마제국으로부터 권력을 받는다. 이는 533년(저술)과 538년(적용)에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제국 법령에 의해

역사가 확인되었습니다 . 하지만 조심하세요! “ 용 ”은 또한 요한계시록 12:9에서 “ 마귀 ”를 의미하는데, 이는 교황권이 마귀로부터 그 능력과 “ 그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 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두 존재를 “ 거짓말의 아버지 ”로 만드셨는지 이해합니다.

참고 : 군사 수준에서 교황 로마는 제국 형태의 힘과 권력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왕실 군대가 로마를 섬기고 그 결정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단 8:23~25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그 힘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구성된 “ 그 계략의 성공 ”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제안된 영생에 대한 접근을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 그들의 통치가 끝나고 죄인들이 멸망할 때에 뻘뻘스럽고 교활한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커질 것이나 그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그의 사업이 성공할 것이며, 권력자들과 성도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가 형통하고 그의 계략이 성공하므로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평안히 살던 많은 사람을 멸하고 일어나 통치자들의 우두머리를 대적할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손의 노력도 없이 깨질 것이다. »

1260년대 말,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은 538년 이후 확립된 전제 권력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

3절: “ 그리고 나는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그 짐승을 두려워했습니다. »

역사 전체를 통틀어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황의 행정권은 강제로 박해하는 권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1792년에 왕정의 무장 지원자인 왕정이 프랑스 무신론에 의해 전복되고 참수된 때부터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예고된 바와 같이, 이 무신론적 “ 큰 환난 ”은 “ 여자 이세벨 ”의 로마 종교 세력을 멸망시키고자 하며 그 표적은 “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 ”입니다. 군주, 군주제, 카톨릭 사제. 그녀는 이렇듯 “ 상처를 입어 죽은 듯 ”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이유로 나폴레옹 1세는 1801년에 자신의 콩코르다트라는 이름으로 이를 다시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적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짓말과 허식을 모두 믿을 수 많은 가톨릭 신자들 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 “ 그리고 온 땅은 짐승 뒤에서 경탄했습니다. ” “ 온 땅이 짐승을 따랐다. ” 이 단어 땅은 이중 의미에서 행성에 관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에서 나온 개혁 개신교 신앙에도 관련됩니다. 그 이후 체결된 에큐메니칼 동맹(= 지상, 그리스어)은 이 발표를 확증합니다.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읽을 것입니다. “ 개신교 전체 가 율법을

따랐습니다. 편협한 가톨릭 종교. 이 진술은 이 장 13절 11절에 나오는 이번에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증될 것입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 누구며, 누가 그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따르면 로마제국과 사탄을 모두 지칭하면서 용, 즉 마귀 자신은 교황 정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에 의해 숭배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무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 8:24 에 예언된 교황의 “사업의 성공”은 역사에 의해 확증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종교적 힘으로 오랫동안 경쟁의 여지 없이 절대적인 방식으로 왕들 위에 군림합니다. 단 11:39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녀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토지와 영예를 부여하여 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많은 사람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상으로 땅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1494년 교황 알렉산데르 6세 보르지아(악명 높은 암살자)가 땅을 분할하고 브라질과 인도의 동쪽 진출 지점인 포르투갈과 새로 발견된 나머지 모든 지역을 스페인에 할당했을 때 문자 그대로 잘 알려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땅. 성령께서 주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분은 가톨릭 신앙이 악마적이며, 그 모든 공격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행동이 하느님의 대적이자 택함받은 자들의 대적인 사탄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이 강조는 그가 단 8:25에서 “그 사업의 성공과 그의 계략의 성공”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유럽의 왕, 권력자, 기독교 민족이 인정한 종교적 권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위신을 부여하므로 실제로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악마가 정벌을 위해 함께 연합할 때, 군중, 인간 대중은 추적되고 무엇보다도 부과된 잘못된 길을 순종적으로 따릅니다. 지구상에서 사람들은 권력을 느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권력은 권력을 요구하며, 이 영역에서는 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교황 정권이 장르의 주인입니다. Rev.6에서와 같이 주제는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이며 누가 능히 그와 싸우리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 11장과 12장은 답을 제시했습니다. 1793년에 프랑스의 혁명적 무신론을 일으켜 대학살에 휩싸이게 하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복수하는 칼”(레위기 26:25의 네 번째 형벌 에 부여된 역할) 이 나타날 때까지 무장한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미 그것을 물리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만큼 강인한 남성, 프로테스탄트, 프랑스인, 독일인, 영국 성공회는 16 세기 부터 그녀와 싸워 치명타를 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5절: “ 또 그에게 큰 말과 신성모독하는 입이 주어졌으니. 그리고 그는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

유럽 왕국의 " 열 뿔 " 뒤에 나오는 로마 교황의 "작은 뿔"에 관한 단 7:8에서 읽은 내용과 동일합니다 . 여기서 우리는 그의 “ 오만함 ”을 발견하지만, 여기서 성령은 “ 그의 성공 ”의 기초가 되는 “ 신성모독 ”이나 거짓된 주장과 종교적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5-6의 “ 일을 일 년으로 ” 라는 규정에 따라 성경의 예언적 형식인 “ 42개월 ”로 표현된 실제 연도 “ 1260 ” 의 통치를 확증하십니다

6절: “ 그녀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 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

신성모독 ”이나 모욕이라는 단어에 부여하는 공통된 의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 이러한 개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왜냐하면 거짓말을 지칭하는 " 신성모독 "은 전혀 모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로마 교황에게 전가시키신 것들은 오히려 거짓되고 기만적인 거룩함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입은 “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 이는 단 11:36에서 그의 정체성을 확증해 줍니다. “ 왕은 원하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높여 모든 신들보다 자랑할 것이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믿을 수 없는 말을 할 것입니다. 진노가 그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 성령은 교황 정권에 모든 종교적 교리의 특징인 거짓말, 즉 “ 신성모독 ”을 전가시킵니다. “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이름을 모독 ”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그의 성품을 왜곡하며 그의 살인적이고 사악한 행동을 그에게 전가합니다. “ 그의 장막 ”, 즉 그의 회중이자 그의 택하신 자들인 그의 영적 성소입니다. “ 그리고 천국에 거하는 자들 ”은 천국과 그 주민들을 기만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그 교리를 통해 천상의 지옥, 즉 천국을 땅, 낙원, 연옥 아래 두었던 그리스인의 유산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 하늘의 주민들 ”은 지상의 마귀 진영이 인간에게 고취한 사악함과 잔인함의 모델이 그들에게 부당하게 부여된다는 사실에 고통받고 분개합니다.

7절: “ 또 그에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

이 구절은 단 7장 21절의 메시지를 확증한다: “ 내가 보매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기더니 ... 유럽과 세계의 기독교가 실제로 표적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앙은 사실상 시민적으로 독립된 " 부족, 민족, 언어 및 국가 "로 구성된 모든 유럽 민족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는 그녀가 “ 많은 물 위에 앉은 자 ”로 묘사되는 요한계시록 17:1에서 나오는 “ 음녀 큰 바벨론 ”이라는 이미지를 확증해 줍니다 .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따르면 “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과 방언들 ”을 상징하는 “ 물 ”. 우리는 흥미롭게도 이 장 17장에 “ 부족 ”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족 형태가 다양한 국가 형태로 대체된 유럽과 서구 기독교에 관련된 목표 시대의 최종 맥락 때문입니다 .

반면, 교황 정권 수립 초기의 맥락에서 유럽 인구는 본질적으로 로마 갈리아와 같은 “ 부족 ”으로 조직되어 서로 다른 “ 언어 ”와 방언으로 분리되고 공유되었습니다 . 연대순으로 유럽은 “ 부족 ”으로, 그 다음에는 왕을 따르는 “ 민족 ”으로, 마지막으로 18 세기 에는 중요한 파생물인 북미와 같은 공화 주의 “ 국가 ”로 채워졌습니다 . “민족”의 헌법은 로마 교황 정권에 대한 복종에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클로비스 1대 프랑크 왕 이후 기독교 유럽 왕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확립하는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입니다.

8절: “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 »

“ 땅 ”이라는 상징이 개신교 신앙을 가리키는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는 정확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개신교인은 가톨릭 신앙을 숭배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다음과 같이 미묘하게 정의하신 택하신 자들 외에는 모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 그리고 여기서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선출된 대표자는 “ 땅의 주민 ”인 반역자들이 아니라 “ 천국의 시민 ”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공식화한 이 예언적 발표가 진실임을 증거합니다. 종교개혁 초기부터 개신교도들은 1170년 피에르 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21년 3월 7일 부터 이교도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로부터 물려받은 가톨릭 신앙의 '일요일'을 존중해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 “ 짐승 ”은 11절에 나옵니다.

9절: “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

“ 귀 ” 를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제안하신 메시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프랑스 민족 무신론의 복수의 칼에 의한 처벌 발표

10절: “ 누구든지 사로잡혀 가면 그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이면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평화로운 유순함을 기억하십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처럼 잔혹한 교황 통치에 선출된 관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때가 되면 왕과 교황, 그리고 성직자들의 종교적 강압을 처벌할 자신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언하십니다. 선출된 관료들을 포로로 “ 인도 ”한 후 그들 자신은 프랑스 혁명가들의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선택받은 자들을 “ 칼로 죽인 ” 후에, 그들 자신도 동일한

프랑스 혁명가들의 단두대에 의해 성취될 하나님의 보복하는 “ 칼 ”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 절에서 순교자들의 피로 표현된 복수 에 대한 열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입니다 .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갚으려고 하였느냐? ". 그리고 혁명적인 단두대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선언된 바와 같이 군주제와 교황청 로마 성직자들의 “가톨릭 자녀들을 죽음으로 치게 ”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자들 중에는 신앙과 시민적 정치적 의견을 혼동하고 손에 " 칼 "을 들고 개인적인 의견과 종교적, 물질적 유산을 옹호하는 위선적인 개신교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존 칼빈과 제네바의 사악하고 잔혹한 협력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1793년과 1794년에 성취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이 예언은 계시록 9:5-10의 예언적 “ 다섯 달 ” 이 예언한 “150”년 동안 확립된 오랜 종교적 평화의 맥락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는 1994년 이후인 1995년부터 종교적 이유로 '살인'할 권리가 다시 확립되었다. 그러면 잠재적인 적은 2021년에서 2029년 사이에 "제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호전적인 확장까지 이슬람 종교가 될 것입니다. 2030년 봄으로 예상되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두 번째 "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13.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양의 최후의 저항

11절: “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

땅 ”이라는 단어를 식별하는 열쇠는 창세기 1장 9-10절에 있습니다. “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땅이 창조된 둘째 날에 마른 “ 땅 ”이 “ 바다 ”에서 나온 것처럼 이 둘째 “ 짐승 ”도 첫째 날에서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 짐승 ”은 카톨릭 종교를 가리키며, 두 번째 짐승은 거기서 나오는 개신교, 즉 개혁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계시는 더 이상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장들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적 심판을 통해 이 개신교에 부여하신 영적 지위가 보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는 수행된 개혁을 완료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완성은 단 8:14의 법령에 의해 요구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계시록 3:1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빚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당신은 죽었어.” 이 영적인 죽음은 그녀를 마귀의 손에 넘겨주는데, 마귀는 지상 죄의 마지막 시간인 계 16:16의 “ 아마겟돈 전쟁 ”을 위해 영감을 받아 그녀를 준비시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에서 그녀의 재림교인 종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에서의 예언된 이 마지막 믿음의 시험의 시간에 그녀는 자신을 ”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으로 만들 관용 없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녀는 다음 구절 12절에서 정당화되고 식별될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동맹으로 연합하여, 개신교와 가톨릭 종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일주일의 일곱째 날에 맞서 싸우는 데 연합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토요일 또는 안식일뿐 아니라 아담, 노아,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봉사하고 가르치시는 동안 이 사실을 의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적인 유대인들이 예수께 제기한 안식일 범법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의 동기는 안식일 휴식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두 종교는 그 묘사 기준에 따라 "용처럼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에 대한 불관용을 옹호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그야말로 공개 전쟁, 즉 '용'의 계략이다.

12절: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하여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우리는 일종의 중계를 목격하고 있는데, 가톨릭 신앙은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고 그 이전의 권위가 개신교에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신교는 공식적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북미 또는 미국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를 포함하여 유럽과 미국의 개신교의 융합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이후. 지구의 새로운 "바벨"은 다양한 종교를 믿는 이민자들을 환영하여 건설되었기 때문에 종교적 혼합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피상적인 생각과 종교적 무관심으로 인해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도 바꾸지 않으시며,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는 이 불순종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제2의 개신교 '짐승'은 콘스탄티누스 1세가 제정한 안식일인 첫째 날의 로마 일요일을 차례로 옹호함으로써 '최초의 카톨릭의 짐승' 숭배를 하여 공식적인 종교적 지위로 인정하고 이름을 붙였다. 일요일"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번 개신교와 가톨릭교의 동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입힌 "치명상"이 "나았"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둘째 짐승은 고침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멸망될 것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였으니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였느니라."»

1945년 일본에 승리한 이후 개신교 미국은 지구상 최초의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매우 높은 기술은 끊임없이 모방되지만 결코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경쟁업체나 적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이 우선권은 단 11:44에 따르면 이 예언에 나오는 “북방 왕”의 나라인 적국 러시아를 멸망시킬 “제3차 세계 대전”의 맥락에서 입증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명성은 엄청날 것이며,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경악하고 감탄하며 그들의 삶을 그에게 맡기고 모든 인간 생명에 대한 그의 권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지만 1945년부터 미국이 그것을 소유하고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승리와 다가오는 핵전쟁에서의 승리와 함께 더욱 커질 현재의 모든 명성을 빚지고 있습니다.

14절 “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누가 살았는지. »

기술적 " 신동 "은 무수히 많습니다. “ 지구의 거주자들 ”은 그들의 삶과 생각을 흡수하는 모든 발명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들에게 마약 중독자들처럼 그들의 영혼을 차지하는 이러한 도구들을 빼앗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 지구의 사람들 ”은 “ 아주 작은 집단”, “ 여성의 남은 자들 ”에 대한 종교적 불관용을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계 12:17. “... 짐승의 형상을 만든다 ”는 것은 가톨릭 종교의 행위를 모방하고 개신교 권위 하에서 이를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혹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두 가지 행동에 기초할 것입니다. “ 생존자들 ”은 끔찍한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하나님은 계시록 16장에 설명된 “ 그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재앙 ”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치실 것입니다.

일요일 사망 법령

15절: “ 또 짐승의 형상을 살리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하며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마귀의 계획은 구체화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성령은 “마지막 일곱 재앙” 중 여섯 번째 재앙에서 취해질 극단적인 조치의 형태를 계시해 줍니다. 지상에 남아 있는 모든 반군이 받아들인 공식 법령에 따라 이른 봄부터 2030년 4월 3일 사이의 날짜에 마지막 남은 제철일 안식일 준수 재림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 날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해를 표시합니다. 올해 2030년 봄은 그분이 그들의 “ 큰 환난 ”의 “ 날을 단축 ”함으로써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 반역자들의 비참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시는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마태복음 24: 22).

16절: “ 또 그 여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느니라.”

채택된 법안은 시대의 생존자들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눕니다. 반란군의 날은 321년 3월 7일부터 카톨릭의 숭배자 중 한 명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부과한 고대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날"인 가톨릭 "일요일"을 지정하는 인간 권위의 "표" 로 식별됩니다. “ 표 ”는 “ 손에 ” 받은 것입니다 .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인간의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아래서 책임을 맡은 모든 인간 피조물의 개인적 의지를 상징하는 “ 이마”에 나타납니다. “ 손 ”과 “ 이마 ” 의 상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성경에서 입증하기 위해 신명기 6장 8절에 하나님 께서 **그분의** 계명에 관해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 눈 사이 의 이마처럼 될 것이다. »

이전 보복

17절: “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와 그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

이 “ 사람 ”이라는 단어 뒤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충실히 지켜온 재림교회 성도들의 진영이 있습니다. 이교 첫날의 나머지 날인 일요일에 “ 표 ”를 존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쳐져 있습니다 .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을 저항하는 반대자들에 대한 미국의 조치로 잘 알려진 “보이콧”의 피해자였습니다. 거래할 권리를 가지려면 일요일에 개신교인의 경우 “ 표 ”, 가톨릭교인의 경우 “ 짐승의 이름 ”, 또는 “ 그의 수 ”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름 ”또는 숫자 666.

18절: “ 이것이 지혜니라.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계산하라. 이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경우처럼 그것은 반드시 그에게서 물려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그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고 온 땅에 명성을 떨쳤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채택되기 전에는 히브리어, 그리스인, 로마인 사이에서 알파벳 문자도 암호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의 값을 더하면 단어의 수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구절에서 명시한 대로 “계산”을 통해 그것을 연습합니다. “... 그의 이름의 숫자 ”는 “ 666 ”입니다. 즉, 그의 라틴어 이름 "VICARIVS FILII DEI"에 포함된 로마 문자의 숫자 값을 더한 숫자 입니다. 이 이름은 그 자체로 그의 주장 중 가장 큰 “ 신성모독 ” 또는 “ 거짓말 ”을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대리자”, 즉 “대리자”라는 단어를 의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 재림교회의 때

세 천사의 메시지 – 추수 – 포도 수확

1843년부터 2030년 사이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장입니다.

1843년에 단 8:14의 예언을 특별히 사용함으로써 “재림교인”은 그 날짜의 봄으로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언의 영, 즉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따른 “예수의 증거”에 대한 관심이 예수의 구원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입증되는 일련의 믿음의 시험의 시작입니다. 다양한 종교적 명칭을 지닌 그리스도. 시연된 ‘작품’만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두 가지 가능한 선택, 즉 수신된 빛과 그 신성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844년, 1844년 가을에 대한 새로운 기대 이후, 예수께서는 선택된 택자들을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준수회 회복으로 시작되는 종교 개혁의 사명을 향해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범법이 그의 종들의 주목을 받게 된 1844년부터 “의롭게 된” “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단 8:14의 이 번역은 나의 사역에 따라 “이천삼백 아침이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인 “이천삼백 아침과 저녁이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와 일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거룩함이 정당화될 것이다. 321년 이후 신성한 안식일을 범한 일에는 사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교리적 진리를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버린 일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60년간의 거짓 통치 이후 신앙의 파괴적인 계승자들인 천주교는 개신교 교리에 진리의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많은 거짓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 14장에서 성령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연속적으로 제시하시는 이유입니다. 재림교회의 사명 또는 “세 천사”의 메시지; 세상 끝의 “추수”, 선택된 자들의 분류와 휴거; 진노의 포도의 “포도 수확”, 거짓 목자들, 기독교의 거짓 종교 교사들의 최종 형벌.

1844년 이래로 선택된 자를 신의 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르쳐진 마지막 시험은 계시된 신의 뜻과 가장 총체적인 배도에 빠진 반역적인 인간의 요구 사이에 위치하도록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의 마지막 시험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선택은 1844년 이후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직 계몽되고 신실한 선택받은 자들만이 13절의 가르침에 따라 “주 안에서 죽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관련된 “빌라델비아”의 천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미 모든 축복을 확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인”에게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여기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버림받은 일의 세부 사항을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는 성령께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세 천사의 기별”의 형태로 핵심 사항에 밑줄을 긋고 요약해 주십니다. 결과의 연속.

나는 이 책의 2면 표지에 있는 설명 다음에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상징적 이미지로 이미 밝혀진 세 가지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계시록 14장에서 그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극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인합니다.

구속받은 재림교인들이 승리하다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건설된 곳을 가리킨다. 그것은 구원의 희망과 이 구원이 지상과 천상 신앙의 시련이 끝날 때 취할 형태를 상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따라 땅과 하늘의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144,000 [백성]”은 1843년부터 2030년 사이에 선택된 그리스도의 택함을

상징합니다. 즉 재림교인들은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심판이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험받고, 입증되고, 승인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집단적 판단은 기관을 판단하고, 개인 판단은 각 피조물에 관한 판단이다. “144,000명”은 재림교회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표합니다. 이 숫자는 엄밀히 말하면 상징적이며 선택된 사람들의 실제 숫자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제안된 이미지의 정의를 통해 그들이 선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생각을 상징하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인 예수와 옛 동맹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죄가 있기 전에 첫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실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재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미지는 그의 캐릭터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유일하고 신실한 택하신 자들의 죄를 구속하심으로써 얻고자 하신 열매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이마에는 그들의 영 안에 그들의 생각과 뜻이 계시니 계 7:3의 하나님의 인이 있거나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안식일과 떨 수 없는 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옛 언약에서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의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로마 일요일의 추종자들이 말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행동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에 부여된 종교적 규범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2절: “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소리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수금 연주자가 수금을 타는 소리 같았습니다. »

이 구절에 언급된 모순되는 문자들은 실제로는 상호보완적입니다. “큰 물”은 표현될 때 “큰 천둥”의 모습을 취하는 수많은 생물을 상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프”의 이미지를 통해 승리한 피조물들을 하나로 묶는 완전한 조화를 드러내십니다.

절 : “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

하나님께서서는 여기에서 1843-44년 이래로 확립된 “재림교” 신앙의 매우 높은 성화를 확인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선출된 대표자는 다른 상징화된 그룹과 구별됩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후자는 지상에서 살았던 경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계시는 단 8:14의 명령이 두 개의 연속적인 단계로 구분되는 기독교 신앙의 2천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843-44년까지 택함받은 자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인용된 “24 장로” 중 12명의 “장로”로 상징되었습니다. 나머지 12명의 “장로”는

1843년부터 44년까지 요한계시록 7:3-8에 나오는 재림교인의 "12지파" "인봉된" 사람들이다.

4절: “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처녀임이라.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

이 구절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만 적용됩니다. “ 여성 ”이라는 단어는 로마 카톨릭 신앙, 1843-44년 이후 개신교, 1994년 이후 제도적 재림교 신앙과 같이 그 기원부터 배교에 빠진 기독교 교회를 지칭합니다. 언급된 “ 더러움 ”은 로마서 6장 2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로 나타나는 죄와 그 “ 샀은 사망 ”인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 144,000명 ”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죄의 행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 그들의 “ 순결 ” 역시 영적인 것이며, 그것은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희게 된 정의를 지닌 “순결한”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죄와 더러움의 상속자들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그들을 완전하게 “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정화가 그들의 “ 행위 ”를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 기독교나 유대교, 더 넓게는 유일신교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버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언적 계시에서 하나님은 특히 지구와 해의 왕국을 창조하신 첫 주부터 세우신 시간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 ”는 이미지 뒤에는 인봉된 “ 144,000 [명] ”만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체험이 담겨 있습니다 . 죄의 상징인 애굽에서의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찬양한 “ 모세의 노래 ”에 이어 “ 144,000 ” 택함받은 자의 “ 노래 ”는 그들이 단 8:14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의 일에 협력하였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합니다. 1843-44년 이래로 하나님은 성화를 원하셨고 심지어 요구하셨다. 이 날, 하늘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죄의 정결을 회상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로마 일요일과 그의 다른 거짓 죄의 상속자인 유형의 개신교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책망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히브리 의식의 예표에 따르면, 이 “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은 가을의 종교 축제였으며, 이 기간 동안 죽인 염소의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놓여 있는 속죄소에 얹어 놓고 나머지 사람들 에게는 금지시켰습니다. 올해의 시간. 죄의 상징인 이 염소의 피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죄가 되셨습니다. 이 의식에서 염소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나니 ... 1844년 10월 23일의 환상에서 이 장면을 회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은 자신이 선택한 무의식적인 상속자들에게 교리상의 거짓, 즉 죄를 금지하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1844년부터 로마 일요일과 같은 **자의적**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해졌고, 버림받은 죄는 이 관계의 확장을 허용하여 선택받은 자를 구원을 통해 온전한 성화에 이르게 한다. 계시된 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열매 ” 로 간주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실 때 발견하신 최고의 열매를 구성합니다. 히브리 의식에서는 “ 첫 열매 ”를 “ 거룩하다 ” 고 선언했습니다 . 이러한 동식물의 첫 열매로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에 대한 인간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사실상 “ 거룩한 첫 열매 ”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계시된 빛이 그 영적 정점에 도달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에게 계시된 신성한 빛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5절: “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

거듭남을 통해 진리로 태어난 참으로 선택된 사람은 자신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 거짓말 ”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해로운 결과만을 가져오고 선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가증합니다. “ 거짓말 ”을 믿는 사람은 실망의 고통, 속임의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구도 동료 인간을 유혹하고 속이는 일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진리는 참된 형제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 진리의 하나님 ”이라는 이름을 주장하고 높이는 우리 구원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을 확신시켜 줍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교리적인 죄를 짓지 않고 계시된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선택된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 자신에 의해 “ 책망받을 수 없는 ”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

6절: “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으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려 하더라. »

“ 다른 천사 ” 또는 다른 사자가 “ 하늘 한가운데 ” 또는 태양의 천정 으로 상징되는 완전한 신성한 빛을 선포합니다 .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의 “ 복음 ” 또는 “ 좋은 소식 ” 과 관련이 있습니다 . 그 메시지가 진실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 영원한 ” 이라고 불립니다 .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가르친 것과 일치함을 입증하십니다. 이러한

진리로의 복귀는 로마 카톨릭 신앙에서 물려받은 수많은 왜곡 이후 1843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포는 재림교회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계시하는 다니엘 12장 12절의 메시지와 유사하여 보편적이다. 여기서 “ 영원한 복음 ” 은 다니엘서 8장 14절의 법령에 의해 계시된 신성한 요구에 따라 믿음의 참된 열매라는 측면에서 언급됩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규범의 정당한 열매이다. “ 영원한 복음 ”.

7절: “ 그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

7절에서 첫째 천사는 신성한 십계명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안식일 범법을 비난합니다. 따라서 그는 1844년 10월부터 교회의 복원을 요구했지만, 1843년 봄 이후에는 자신의 범법을 개신교인들에게 비난했습니다.

둘째 천사의 메시지

8절 “ 또 둘째 천사가 따라와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 »

이교적인 "태양의 날"을 몽타주 라틴어의 "주의 날"로 번역한 후 이름을 바꾸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인 로마 교황 카톨릭 교회의 엄청난 죄를 폭로합니다. 일요일의 유래는 dies dominica입니다. 두 번 반복되는 “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 이라는 표현은 그와 그 상속자들에게 하느님의 인내의 때가 확실히 끝났음을 확증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개종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대가로는 회개의 열매나 “ **행위** ”를 거두는 것뿐입니다.

기억하세요: “ 그것이 무너졌다 ” 는 의미는 도시가 적의 손에 넘어지듯이 **진리** 의 하나님에 의해 점령되고 패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1843년 이후, 즉 1844년과 1873년 사이에 그분의 신실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종들을 위해 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것을 특징짓는 “ **비밀** ” 을 일으키시고 빛을 비추십니다. 그의 거짓말 의 유혹은 그 효과를 잃습니다.

8절에서는 이전 메시지에서 내린 심판이 무서운 경고와 함께 확증됩니다. 1844년부터 콘스탄티누스 1세가 321년 에 정한 안식일의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반역자들을 마지막 심판의 **둘째 사망의 고통** 에 대한 신성한 정죄에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일요일에 대한 자신의 비난을 위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인봉”에 반대되는 악명 높은 “표” 라는 이름 으로 그것을 숨기셨습니다. 시간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간 권위의 이 표시는 그분의 처벌을 받을 만한 엄청난 모욕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발표된 형벌은 실제로 끔찍할 것입니다. “ 그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반역자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셋째 천사의 메시지

9절: “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오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

이전 두 메시지와 함께 이 세 번째 메시지의 보완적이고 연속적인 성격은 “ 그들이 따랐다 ”라는 공식으로 지정됩니다. “ 큰 소리 ”는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의 매우 높은 신성한 권위를 확증해 줍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의 통치를 지지하고 승인하며 일요일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인용된 그 권위의 “ 표 ”를 순종을 통해 채택하고 존중하는 인간 반역자들에게 가해지는 것입니다. : 현재 전체 기독교인 인구는 16명입니다.

표 ”가 “ 하나님의 인 ”, 즉 첫째 날 일요일부터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의 직접적인 반대는 이 두 날이 모두 성소의 자리인 “ 앞 ”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계시록 7:3과 13:16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3의 “ 하나님의 인 ”이 계시록 14:1에서는 “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으로 바뀌었음을 주목하십시오. “ 손으로 ” 받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구절들에 의해 명확해집니다:

“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유일한 야훼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주는 이 계명들을 네 마음속에 새기라 . 이것을 네 자녀에게 심어 주고, 집에 있을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말하라. 너는 그것을 네 손에 매어 기호를 삼 으며 네 미간에 이마를 삼으라. 너는 그것을 네 집 문설주와 문에 기록할지니라. » ” 손 ”은 행동, 실천을 나타내고 “ 전면 ”은 생각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37에서 인용하신 것과 그가 “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 하나님의 인 ”을 지닌 선출직 공무원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 거룩하게 된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준수하여 이를 존중하라.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 어린 양 ” 예수 그리스도 “ 와 그의 아버지의 이름 ” 야훼의 이름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을 명시함으로써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옛 언약에서 택하신 자들의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계명과 규례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확증하십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3-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죄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충분히 정당화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17절에서 성령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괴적이고 의로운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결과를 묘사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참고 사항 : 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왜 거룩한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토록 많이 일으키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소죄도 있지만 성령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 경고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시대에 이러한 유형의 죄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일 뿐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주신 증언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설득하고 가르치기 위해 성령께서는 성경의 거룩한 말씀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증언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과 그 기록으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뜻을 알리는 일을 더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뜻과 생각과 주관적인 판단을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16 세기 에 전쟁을 벌였던 성경에 대한 이러한 경멸은 로마 카톨릭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의 결정적인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결코 인식하지 못한 교리에 대한 그의 인내심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43년에 예언의 말씀에 대한 경멸로 인해 로마 일요일의 상속자인 모든 다양한 형태의 개신교 신앙, 즉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교회는 예수께서 내가 성육신한 겸손한 종을 통해 제시하신 궁극적인 예언적 계시를 거부함으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1995년 이후 일요일 준수자들과의 동맹을 통해 확인되고 증폭된 신성 모독. 성령에 대한 모독은 매번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응답을 받습니다. 이 구절 10에서 확인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한 정당한 선고입니다.

11절: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을 얻지 못하느니라»

“ 연기 ”는 오직 마지막 심판의 때, 즉 반역적인 타락한 자들이 계 19:20과 20:14의 “ 불못 ”의 “ 불과 유향으로 고통을 받는 ” 시간에만 있을 것입니다 . 이것은 일곱 번째 천년기가 끝날 무렵입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순간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시간이 그들의 최종 운명을 확정해 줄 것입니다. 이 구절의 메시지는 “ 안식 ”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의 때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타락한 자들은 같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중요성과 심각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마지막 형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어떤 안식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절: “ 성도의 견인은 이것이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

인내 또는 인내 ”라는 단어는 1843-44년부터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신성한 메시아 예수의 참된 성도들을 특징짓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1절의 “ 아버지의 이름 ”이 “ 하나님의 계명 ”이 되고, “ 어린양의 이름 ”이 “ 예수 믿음 ”으로 바뀌게 됩니다 . 우선순위도 변경됩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은 먼저 “ 하나님의 계명 ”을 언급하고, 둘째로 “ 예수 믿음 ”을 언급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가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서 승인하신 질서입니다. 1절에서는 “ 이름 ”을 우선시켰습니다. 어린 양 ”은 “ 144,000 ”의 선택된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에 연결합니다.

13절: “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죽은 자들은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더라.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라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느니라. »

지금부터 ” 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날짜는 각각 다니엘 8장 14절의 법령이 발효되고 윌리엄 밀러가 조직한 두 번의 재림교회 재판이 끝나는 1843년 봄과 1844년 가을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식적인 재림교회는 “ 지금 ”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창시자들만이 1843년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요구하신 결과를 이해했습니다. 이 제칠일 관습을 채택함으로써 그들은 그때까지 지키던 일요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승된 재림교회는 전통적이고 형식주의적이 되었으며, 대다수의 신자들과 교사들에게 일요일과 안식일은 부당하게 평등한 차원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신성함과 참된 거룩함에 대한 감각의 상실은 예언의 말씀과 내가 1983년에서 1994년 사이에 전한 재림교회의 세 번째 기별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경멸이 프랑스 재림교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재림교회 기관은 재림교회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1995년 에큐메니컬 클랜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10절의 “ 고통 ” 의 위협은 “ 그도 마실 것이다 ” 라는 표현을 암시함으로써 그녀와 관련이 있습니다 . 1994년부터 제도적 재림교는 개신교 이후 1843년부터 심판과 정죄를 받았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 8장 14절의 법령은 1843년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재림교 그룹을 포함하여 두 진영으로 분리시켰으며, 팔복의 수혜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부터 복이 있도다! ” ". 예수님께서 “ 라오디게아 ”에서 “ 토하 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 재림교회 기관이자 그리스도의 공식 사자인 1991년, “ 벌거벗은 ” 이라고 불리는 빛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날짜는 더 이상 유익할 수 없습니다. 이 행복에서.

수확시기

14절: “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가졌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 »

이 묘사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 흰 구름 ”은 2천년 전에 경험했던 출발과 천국으로의 상승의 조건을 회상합니다. “ 흰 구름 ”은 그의 순결을 나타내고, 그의 “ 금 면류관 ”은 그의 승리하는 믿음을 상징하며, “ 이한 낫 ”은 히브리서 4:12에서 “ 그의 손 ”으로 실행되는 하나님의 “ 자르는 말씀 ” 을 이미지합니다.

15절: “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라 하더라. 추수할 시간이 이르렀고 땅의 추수물이 익었도다. ” »

추수 ” 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 때 “ 밀과 겨 ”를 확실히 분리할 때가 올 것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 그분의 계시를 통해 그분께서는 선택받은 자의 안식일과 타락한 자의 일요일이라는 두 진영을 구분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 이름 뒤에는 이교 태양신에 대한 숭배와 권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시간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은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첫날은 모독적이며 결코 신성한 거룩함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지상 시간의 시작부터 새겨진 시간 순서에 따라 거룩하게 된 일곱째 날에만 전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6000태양년 동안 지속된다.

16절: “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내리시니. 그리고 땅이 수확되었습니다. ” »

성령은 “ *땅의 추수* ”가 미래에 성취될 것을 확증해 줍니다. 구원자이자 복수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0절부터 43절에서 사도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돌보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 *추수* ”는 주로 남아 있는 선택된 성도들의 하늘 휴거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충실합니다.

수확의 시간(그리고 복수)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

이전의 “천사”가 선출된 자들에게 유리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반대로 이 “다른 천사”는 타락한 반역자들을 징벌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낫”은 또한 그분의 뜻에 의해 실행되는 “하나님의 자르는 말씀”을 상징하지만, 수확과 달리 포도 수확에는 “그의 손에”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손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징벌적인 행동은 신성한 뜻을 실행하는 대리인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사실, 그의 유혹의 희생자들입니다.

18절 *“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이한 낫 가진 자에게 큰 음성으로 말하여 이르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라 하더라. 땅의 포도나무; 땅의 포도가 익었기 때문이다.”*

포도 수확”의 순간이 옵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성령은 이 상징적 용어가 목표로 하는 행동을 발전시킨다. 성경에서는 붉은 포도즙을 사람의 피에 비유합니다. 예수께서 성만찬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러한 생각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나 “포도수”는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의 종들을 가장하여 합당하지 않게 일한 자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흘리신 피는 그들의 수많은 배반을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고난을 겪어 그 실행이 중단되게 한 죄를 정당화할 정도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자들은 그분께 대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맹목적인 광기 속에서 그들은 1843-44년 이래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요구하신 제칠일 안식일의 관습을 땅에서 근절하기 위해 그들의 참된 선택자를 죽이려고까지 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적들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오직 그분 자신만을 위해 남겨 두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고 보복은 나의 것이다”라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선언했으며, 이제 이 복수를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추수”라는 주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죄 있는 포도가 익었다고 선언되는 것은 그 포도가 그 행위로 그 참

본성을 충분히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는 포도 따는 자들의 발에 밟힐 때 포도즙이 통으로 흘러 들어가듯 흘러갈 것이다.

19절: “ 천사가 낮을 땅에 내리니라.” 그리고 그는 땅의 포도나무를 모아서,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그 행동은 이 장면에서 드러난 이 발표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오만함에 대한 형벌을 확실하게 예언하신다. 그들은 수확한 포도가 으깨는 자의 발에 의해 으깨어지는 통으로 예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20절: “ 그리고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라. 그러자 피가 통에서 흘러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졌습니다.»

이사야 63:3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나 혼자 포도주들을 밟았으며;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 포도 수확은 계시록 16장 19절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의 형벌을 성취한다. 그녀는 이제 그 잔을 끝까지 마셔야 하는 신성한 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 성 밖에서 포도주들이 밟히더라 ” 즉, 택하신 자들은 이미 하늘로 올려져 간 자 없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성 밖에서 처형하여,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과소평가한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상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경우입니다. 그의 적들이 그들의 많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차례로 피를 흘릴 때가 왔습니다. ” 그리고 피가 통에서 말의 비트로 흘러나왔습니다. ” 분노의 대상은 기독교 종교 교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수들이 “ 말 입에 ” 넣어 지시하는 “ 재갈 ” 의 형상으로 언급하십니다. 이 이미지는 야고보서 3장 3절에 제안되어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종교 교사들입니다. 야고보는 3장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가르치는 사람을 많이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 “ 추수 ” 의 행동은 이 현명한 경고를 정당화합니다. “ 말의 재갈까지 ” 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성령께서는 그 통이 먼저 “ 큰 바벨론 ” 의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과 관련이 있지만 1843년 이래로 “ 파괴적 ” 으로 사용하는 개신교 교사들 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성령의 고소에 따른 성경.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10에 주어진 경고의 적용을 발견합니다: “ 그도 하나님의 진노 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

일천육백 스다디온 이상 ” 이라는 메시지의 경우, 이전 메시지와 계속해서 형벌은 1600이라는 숫자가 암시하는 16 세기 이후의 개혁 신앙까지 확장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가톨릭 신앙에 대한 고발을 공식화한 시기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금지한 폭력과 칼을 정당화하는 개신교의 “ 거짓 그리스도 ” 와 거짓 기독교 교리가 형성된 것도 이 16

세기였다. . 묵시록은 해석에 대한 그 자체의 열쇠를 제공하며 이 16 세기는 계시록 2:18-29에서 “ 두아디라 ” 시대의 상징적 이름으로 지정됩니다 . “ 경기장 ”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종교적 활동, 즉 승자에게 약속된 승리의 면류관이 걸린 경주에 대한 그들의 참여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은 다 달리지만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기도록 달려라 .” 그러므로 천상의 소명이라는 상은 어떤 식으로든 획득할 수 없습니다. 순종에 있어서 신실함과 인내만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빌3:14에서 “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 확증합니다. “ 추수 ”의 때에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입증될 것입니다: “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 22:14) ”.

요한계시록 15장: 시험의 끝

“ 추수와 포도 수확 ”이 끝나기 전에 두려운 순간, 즉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인간의 선택이 시간의 돌에 새겨져 있으며, 이러한 선택을 되돌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제안은 끝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록 15장의 아주 짧은 주제입니다. 은혜시대의 끝은 8장과 9장의 첫 여섯 나팔 이후, 그리고 16장의 “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재앙* ” 이전에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할 일을 줍니다. 계 13:11-18의 “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의 권위 있는 보호 아래 마지막 두 길은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토요일 또는 안식일로 인도하고, 다른 하나는 로마 교황권의 일요일로 인도한다 . 삶과 선, 죽음과 악 사이의 선택이 이토록 명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것이 주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신인가, 사람인가? 선택받은 자들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언적 계시를 통해 그의 계획의 종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아십니다. 그러면 영생은 매우 가까이,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게 될 것입니다.

1절: “ *또 내가 하늘에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으로 이루어졌음이라.* »

로마 일요일을 선택한 거짓 신자들에게 닥칠 “ *마지막 일곱 재앙* ”을 제시합니다. 은혜의 시대의 끝이라는 이 장의 주제는 “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재앙* ”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2절: “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다 위에 섰고 하나님의 하프.* »

그분의 종들, 즉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예언의 다른 구절에서 가져온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그들의 임박한 승리를 상기시키는 장면을 제시하십니다. “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섰다* ”는 것은 그들이 핍박(불 섞임)을 받는 믿음의 시련을 겪고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 *유리바다* ”는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같이 택하신 백성의 순결을 가리킨다.

3절: “ *또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다. 만국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

“ 모세의 노래 ”는 이스라엘이 죄의 전형적인 상징이자 땅인 이집트에서 영광스럽게 탈출한 것을 기념합니다. 40년 후 이어진 지상 가나안 입성은 마지막 택하신 자들의 천상 가나안 입성을 예표하였다. 결국, 택하신 자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후, “ 어린 양 ”이신 예수께서는 영광과 천적 신적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신실한 증인들, 즉 믿음과 행함으로 모든 재림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하늘로 승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 위대하고 감탄할 만한 일들 ”을 찬양하면서, 선택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가치, 즉 그분의 완전한 “ 정의 ”와 그분의 “ 진리 ”를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참 ”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것은 행동의 맥락을 그가 자신을 “ 아멘이요 참 ” 이라고 표현한 “ 라오디게아 ” 시대의 끝과 연결시킵니다. 그때는 계시록 12장 2절의 “ 해산하는 여자 ”의 때의 끝을 나타내는 “ 구원 ”의 때이다. “ 아기 ”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늘 품성의 순결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 전능하신 ” 상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과 구출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신성한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을 모으고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 만국의 왕 ”이십니다. 그와 그가 선출한 공직자들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4절: “ 여호와여 누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이까? 당신만이 거룩하시니까요. 주의 판단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

간단히 말해서,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당신을 경외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거룩한 제7일 안식일을 존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감히 당신의 정당한 영광을 사취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거룩하시며** 당신의 일곱째 날과 그 날을 주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당신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이에 속한다는 표시입니다. 실제로 성령은 “ 그의 경외함 ”을 불려일으킴으로써 계시록 14:7의 첫 번째 “ 천사 ”의 메시지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경배)하십시오. ”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멸망된 반역적인 나라들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부활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들을 결정적으로 “ 불뭇 ”에서 멸절시킬 그의 마지막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유향은 계 14:10의 “ 셋째 천사 ”의 메시지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기 전에, 택함받은 자들은 1절에서 선포된 “ 일곱 재앙 ”의 작용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5절: “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라. »

하늘의 “ 성전 ”이 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중단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구원을 부르시는 때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증거 ”는 거룩한 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순간부터 선택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의 분리는 최종적이다. 지상에서 반란군은 법의 법령에 따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 와 비질리우스 1세 를 로마 황제 로 만든 유스티니아누스 1세 에 의해 시민적, 종교적으로 확립된 주간 휴식을 존중할 의무를 막 결정했습니다. 538년에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 즉 카톨릭의 현세적 우두머리인 최초의 교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법령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17 그리고 유럽 가톨릭 신앙의 지원을 받는 미국 개신교 신앙의 지배적인 활동 아래 놓였습니다.

6절: “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성전에서 나오니라. »

예언의 상징에서 “ 일곱 천사 ”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상징하거나 그와 비슷하게 그의 진영에 충실한 “ 일곱 천사 ”를 상징합니다. “ 고르고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 ”은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가슴 둘레의 금띠는 마음 의 높이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미 인용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의 진영을 징벌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일깨움을 통해 성령께서는 “ 해가 강하게 빛날 때 ”에 비유하여 그 얼굴로 그 형체가 드러난 “ 큰 재앙 ”을 암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 반역자들 사이의 마지막 대결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7절: “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

네 생물 ”의 모형이셨습니다. 그는 또한 “ 세세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 ”이시며 “ 진노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성은 그에게 모든 역할을 부여합니다: 창조자, 구속자, 중보자, 그리고 영구적으로 심판관. 그리고 그의 중보를 끝내고, 그는 반역적인 반대자들이 “ 하나님의 뜻 ”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고 죽음으로 처벌하는 정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의 의로운 “ 진노 ”의 잔. 이제 “ 잔 ”은 가득 차 있으며, 이 분노는 신성한 자비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 마지막 일곱 가지 ” 형벌의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8절: “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다 이루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임재 로 인해 연기가 가득한 성전 ”의 이미지를 제시하십니다. “ 하나님의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다 이루기까지는 아무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 그리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진노의 “ *마지막 일곱 재앙* ” 이 일어나는 동안 그들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반역적인 이집트를 강타한 “ *열 가지 재앙* ” 당시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경험을 다시 경험할 것입니다 . 재앙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인 반역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 *성전* ”에 들어갈 날이 임박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며*, “ *마지막 일곱 재앙* ” 이 끝난 후부터 그 가능성이 주어질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16장 : 일곱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 ”가 표현되는 “ 마지막 일곱 재앙 ” 이 쏟아지는 것을 제시합니다 .

하나님의 진노 ” 의 표적은 처음 여섯 “ 나팔 ” 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과 동일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성령께서는 “ 마지막 일곱 재앙 ”과 “ 일곱 나팔 ”의 형벌이 동일한 죄, 곧 “ 일곱째 날 ”의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처벌함 을 계시하십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괄호를 열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 나팔 ”과 “ 재앙 또는 재앙 ” 을 특징짓는 차이점에 주목하십시오 . “ 나팔 ”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인간 살인을 말하지만 영적인 본성을 지닌 다섯 번째 존재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 재앙 ”은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창조물의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과하시는 불쾌한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에게 “ 마지막 일곱 재앙 ”을 제시하는데, 이는 영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겪은 다른 “ 재앙 ”이 그 재앙들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미묘하게 암시합니다. 마지막 ”은 단 11:40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시대의 종말이고, 둘째는 미국의 감독과 주도 하에 조직된 우주세계정부의 시대입니다. 2021년 12월 18일 안식일에 진행된 이번 업데이트에서 저는 이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2020년에 처음 등장한 전염성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 코비드-19로 인해 온 인류가 경제적 파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세계주의적 교류와 지식의 맥락에서 실제 효과를 정신적으로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국민 지도자들은 서유럽과 미국 경제 전체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중단했습니다. 불공평하게도 팬데믹으로 간주되는 서구는 언젠가는 죽음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공황상태에 빠진 무신론자들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 즉 전능한 의학에 몸과 영혼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기꾼의 나라는 사람들을 그들의 진단, 백신, 치료법 및 기업 결정의 포로로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프랑스에서 역설적이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 지침을 듣습니다. "아파트를 환기시키고 몇 시간 동안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착용자가 질식합니다." 프랑스와 다른 모방 국가의 젊은 지도자들의 '상식'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을 주도한 국가가 최초의 이스라엘이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교 역사상 최초의 신의 저주를 받은 나라.

처음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을 때 금지됐던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예상치 못한, 그러나 파괴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2021년부터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3차 세계 대전 사이에 다른 “*하나님의 재앙*”이 지구상의 여러 곳, 특히 서방 세계에서 죄 있는 인류를 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근*”과 같은 “*전염병*”과 이미 전염병과 콜레라로 알려진 기타 실제적인 보편적 유행병. 하나님은 에스겔 14:21에서 이러한 유형의 형벌을 주장하십니다. *짐승들*. 현대에는 신의 형벌이 암, 에이즈, 치쿤구니아병,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 목록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두려움의 출현에도 주목합니다. 많은 인류는 녹아내리는 얼음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홍수를 생각하면 겁을 먹고 당황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을 강타하고 분리와 증오의 벽을 쌓는 신성한 저주의 열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재앙*”을 특징짓는 은혜의 종말 이후의 맥락에서 연구를 재개하기 위해 이 괄호를 닫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목표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은 세상 끝날에 창조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이룬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는 그의 일을 파멸시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의 과정을 따르지만, 창조하는 대신 파괴합니다. “*일곱째 마지막 재앙*”으로 땅에서 인간의 생명은 소멸되고 그 뒤에 땅은 다시 한 번 “*무저갱*”이 되어 유일한 주민이자 죄의 창시자인 사탄이 있는 혼돈 상태가 될 것입니다. 황폐한 땅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라 그와 다른 모든 반역자들이 멸망될 마지막 심판까지 “*천년*” 동안 그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1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정당한 권리를 좌절시키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권위는 최고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분이 이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정하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숭배와 영광을 받으려는 그분의 바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위대하고 신적인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와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대가를 “*둘째 사망*”으로 속죄하기 전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무시할 것이라고 보장하셨습니다.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아픈 종기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반역의 지배세력이자 주도권력인 이 맥락에서 우선 타깃은 타락한 개신교 신앙의 상징인 '땅'이다.

첫 번째 재앙은 인간이 정한 안식일을 순종하기로 선택한 반역자들의 몸에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악성 귀양”입니다. 그 표적은 첫째 날인 로마 일요일을 선택한 카톨릭과 개신교의 핵 분쟁 생존자들입니다. 짐승의 표.”

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피가 죽은 사람의 피 같이 되더라. 바다에 있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둘째”는 모세 시대에 이집트 나일강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다”를 쳐서 “피”로 변하게 합니다. 지중해를 겨냥한 로마 카톨릭의 상징 ‘바다’: 그 순간, 하느님께서 “바다”에서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십니다. 그것은 창조 과정을 거꾸로 진행시키며, 궁극적으로 “땅”은 다시 한번 “혼돈하고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의 “심연” 상태로 돌아갑니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샘에 쏟으니. 그리고 그들은 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강과 샘”의 신선한 “물”에 닿아 갑자기 “피”가 됩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물. 그들은 택하신 자들의 “피”를 흘리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벌은 가혹하고 합당합니다. 이 형벌은 많은 사람이 죽는 혹독한 종살이에서 짐승과 같이 취급받았던 히브리인들의 “피를 마시는 자들”인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처음으로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5절: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던 네가 의로우시도다. 당신이 이 심판을 행하셨으니 거룩하시도다.»

“의로운”과 “거룩한”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단 8:14의 법령 본문에 대한 나의 정확한 번역을 확증해 줍니다: “2300 저녁 아침과 거룩함이 의롭게 되리라”;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마지막 맥락에서,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공격은 마실 “물”을 “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물”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도 이중적으로 인간 대중과 종교적 가르침을 가리킨다. 교황 로마에 의해 왜곡된 계시록 8:11에서는 둘 다 “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신이 의롭다는 것은... 당신이 이 심판을 행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천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참되고 완전한 공의가 요구하는 척도를 정당화합니다. 미묘하고 매우 정확하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리고 누가 오느냐”라는 형태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출현은 그분과 그분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순수하게 남아 있는

세상과 그분에게 충실했던 거룩한 천사들을 잊지 않고 영원한 선물을 열어줍니다.

6절: “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다. »

반역자들은 예수님의 개입으로만 구원을 받은 선택된 자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이 저지르게 될 범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인들처럼 취급됩니다. 하나님께서 “ 그들은 합당하다 ” 고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재림교인의 선택을 받은 공격자로서 예수께서 “ 당신은 살아있는 줄로 여기고 죽은 자로 여기나다 ” 라고 말씀하셨던 사데에서 온 사자를 발견합니다 . 그러나 동시에 그는 1843-1844년에 선출된 공무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각 사람은 믿음의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오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실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 흰 옷 ”, 타락하고 신실하지 못한 반역자들을 위한 “ 피 ” 를 마실 것입니다.

절 “ 또 내가 들으니 다른 천사가 이르되 그러하외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 »

“ 제단 ” 에서 나오는 이 음성은 이 심판을 승인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사람들은 감히 그분의 구원을 주장하면서도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더 좋아함으로써 극악무도한 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29:13에서 “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입과 입술로 나를 공경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전통 에 따른 계율일 뿐입니다 . 마 15:19: “ 저희 가 사람의 계명인 교훈을 가르쳐 나를 공경하는 것이 헛되도다. »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

네 번째는 ' 태양에 ' 작용하여 평소보다 더 뜨거워지게 만든다. 반역자들의 삶은 이 강렬한 열기로 인해 “ 타오르 ” 게 됩니다. “ 거룩함 ” 의 범법을 징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¹세로 부터 물려받은 “ 태양절 ” 의 우상숭배를 벌하실 것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존경하는 ' 태양 ' 은 이제 반군의 피부를 ' 불태우기 '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상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항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Rev.1에서 예고된 “ *대재앙* ”의 정점이다. ‘ *태양* ’을 명령하는 자가 태양을 사용하여 숭배자들을 처벌하는 순간입니다.

9절: “ *그 사람들이 심히 불붙어서 이 재앙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 »

그들이 도달한 고난의 수준에서 반역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럽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의 “ *이름* ”을 “ *모독* ”하여 그분을 모욕합니다. 그것은 이미 피상적인 신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으며 그분의 경멸적인 침묵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의 ‘ *이름* ’을 저주합니다. “ *회개*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계시록 9:20-21의 “ *여섯째 나팔* ”의 “ *생존자들* ”의 맥락을 확증해 줍니다. 반역적인 불신자들은 종교적이든 아니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그들에게 죽음의 덮이었습니다.

10절: “ *다섯째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리고 그의 왕국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남자들은 고통에 혀를 깨물었고,*

“ *다섯 번째* ”는 그 구체적 대상으로 “ *짐승의 왕좌* ”, 즉 바티칸이 위치한 로마 지역,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작은 종교 국가인 교황권을 취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교황의 진정한 “ *보좌* ”는 고대 로마의 카엘리우스 산 위, 세계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당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잉크 같은 “ *어둠* ”에 빠뜨리시어 눈이 보이는 모든 사람을 소경의 처지에 놓이게 하십니다. 그 결과는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종교적 거짓말의 이 출발점은 전적으로 정당하고 정당합니다. “ *회개* ”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 있는 표적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11절: “ *또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 »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재앙은 더해지고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 *회개* ”가 없고 “ *신성모독* ”이 계속됨을 주장함으로써 성령께서는 반역자들의 분노와 사악함은 더욱 커질 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목표이며, 그래서 그들이 택한 자들의 죽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12절: “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그 물이 말라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느니라.* ” »

“ *여섯째* ”는 “ *유프라테스 강* ”이라는 상징적 이름으로 지정된 유럽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계시록 17:1-15의 이미지에 비추어 “ *창녀* ”

큰 바벨론”을 숭배하는 민족, 가톨릭 교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 물이 마르는 것 "은 인구의 절멸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임박했지만, 아직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이르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메대 왕 다리우스가 칼데아의 “바벨론”을 점령한 것은 “ 유프라테스 강 ” 이 부분적으로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성령의 메시지는 로마 카톨릭 “ 바벨론 ” 의 완전한 패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지지자와 옹호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잠시 동안입니다. “ 큰 바벨론 ”은 이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하여 참으로 “ 무너질 ” 것입니다.

세 더러운 영의 상담

13절: “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

창조주 하나님께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불순종한 안식일 준수자들을 죽이겠다는 결정을 상징하는 “ 아마겟돈 전쟁 ” 을 위한 준비를 설명합니다 . 원래는 강신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흉내내는 마귀가 등장하여 반역자들에게 일요일 선택이 정당하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안식일을 존중하는 충실한 저항군의 목숨을 앗아가도록 그들에게 권합니다. 따라서 악마적인 삼인조는 마귀, 가톨릭 신앙, 개신교 신앙, 즉 “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를 같은 싸움에 참여시킵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9장 7-9절에 언급된 “ 전투 ”가 성취됩니다. “ 입 ” 에 대한 언급은 진정으로 선출된 사람을 죽이는 명령을 내리기 위한 협의의 구두 교환을 확증합니다. 그들이 무시하거나 완전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 “ 개구리 ”는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에게는 불순한 동물로 분류되지만, 이 메시지에서 성령은 이 동물이 이를 수 있는 큰 도약을 암시합니다. 유럽의 '짐승'과 미국의 '거짓 선지자' 사이에는 넓은 대서양이 있고 그 둘의 만남은 큰 도약을 수반한다. 영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프랑스인은 “개구리”와 “개구리 먹는 사람”으로 희화화됩니다. 불순함은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1789년 혁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도덕적 가치가 무너진 프랑스의 특산품이다 . 삼인조를 움직이는 불순한 정신은 “신도 주인도 아닌” 자유의 정신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저항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함께 모인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들로서 기사를 행하는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나아와 그들을 모아 들이느니라. »

단 8:14의 법령의 저주 이후, 귀신의 영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신술이 유행했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적인 영들과의 이러한 유형의 관계에

익숙해졌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많은 종교 단체가 악마와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이 예수 및 그분의 천사들과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악마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경건한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이기 위해 함께 모이도록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에게 죽음을 위협하는 이 극단적인 조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연합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모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반역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임은 반군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거짓말에 속고 속인 사람들의 손에 죽음을 당할 자격이 있도록 살상 의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진 주된 이유는 바로 안식일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영은 제안된 날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미묘하게 지적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관한 것은 그 성격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평등하지 않으며 반대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그의 악귀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력한 “*미가엘*”로서 그의 적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성한 안식일 준수자들에 맞서 싸우는 진영은 계시록 3:3에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개신교인들을 포함하여 불성실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진영입니다. *만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대조적으로, 성령께서는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시대에 그 충만한 예언의 빛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재림교회 택함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고 우리가 그의 수치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고린도 후서 5장 2-3절에 따르면,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벌거벗은*” 상태로 선언되어 수치와 거부의 진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옷을 입고 벗은 것이 아닌 것이 발견된다면 집으로 가십시오.**”

16절: “*그들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모으리라.*»

하나님의 적들의 진영을 그 필멸의 계획에 함께 모으는 영적인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르*”라는 단어는 산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므깃도 골짜기가 있지만 그 이름의 산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겟돈 ” 이라는 이름은 “*보배로운 산*”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그의 모임이시며 그의 택하신 모든 자를 모으시는 그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거의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반역자들의 목표는 신성한 안식일과 그 준수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은 그의 신실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적들입니다.

이 “보배로운 산”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율법을 선포하신 “시나이 산”을 가리킵니다. 반역자들의 표적은 넷째 계명으로 거룩하게 된 제칠일 안식일과 그 신실한 준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이 “산”의 “귀한” 특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우상 숭배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실제 위치를 무시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집트 반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아내 “스포라”의 아버지 “이드로”가 살았던 “미디안”의 북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그곳 주민들은 실제 시내산에 “율법”을 의미하는 “알 라우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서 기록을 지지하는 정당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반역자들이 승리자이신 영광스럽고 신성한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곳은 바로 이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실제로는 보편적인 측면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들은 현재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온 땅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는 선택된 자들과 부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천사들에 의해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집합”될 것입니다.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재앙이 공중에 쏟아 ” 라는 표징 아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고 영광스러운 천상의 영광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마귀에게서 빼앗으시는 “**일곱째 나팔**”의 순간을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지배하는 지상의 모든 인류를 공유하는 요소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은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인간에 대한 지배권과 권세를 마귀로부터 빼앗고 그것을 끝내는 때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순간을 6000년 동안 기다려 오신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으십시오. » 그리고 나서 그분의 불충실한 피조물에게 남겨진 자유가 중단되는 이 순간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룩한 일곱째 날”에 그분이 부여하신 가치를 이해하십시오. 반역적인 피조물들은 더 이상 그를 좌절시키고, 짜증나게 하고, 경멸하고, 불명예를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2장 1 절 **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이름인 “미가엘”에게 이 영광스러운 오심을 *예언*

했습니다.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 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일 것입니다. 그 때에 책에 기록된 네 백성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메시아를 지칭하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에게 그의 숨겨진 신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이름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구원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징을 주실 것이다. 보라, 그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 9장 5절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권세를 메었느니라.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라 불릴 것입니다.**”

18절: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와 큰 지진이 나니 사람이 땅에 있는 이래로 이런 큰 진동은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핵심 참조 구절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갱신된 문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셨습니다. 불신실한 신자들과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신실한 재림교인들도 그의 재림의 영광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이 끔찍하고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두 진영의 서로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진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20:5에 따라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비된 첫째 부활과 그들이 예수님과 합류하는 천국으로의 휴거를 공포 속에서 목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17절에 예언된 대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떠나지 아니하리니 죽은 자들보다 먼저. 주께서 명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 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 구절을 활용하여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사도적 개념을 지적 합니다. **죽은 사람들.** 바울과 그의 동시대인들은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인들처럼 “죽은”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찰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 있는” 택함받은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뉘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라 하나님이 큰 바벨론을 기억하사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시니라.**»

“ 세 부분 ”은 본 장 13절에 수집된 “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속 11:8의 본문에 근거합니다: “ 내가 한 달 안에 세 목자를 멸할 것이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도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여기서 “ 세 목자 ”는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왕, 성직자,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개신교 신앙과 가톨릭 신앙이 연합되고 통합되는 최종 맥락을 고려하면, “ 세 부분 ”은 다음과 같이 식별됩니다: “ 용 ” = 악마; “ 짐승 ” = 유혹에 빠진 카톨릭과 개신교 민족; “ 거짓 선지자 ” = 카톨릭과 개신교 성직자.

패배한 진영에서는 “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는 좋은 이해가 중단됩니다. 기만당하고 유혹에 빠진 희생자들, 짐승의 진영과 거짓 선지자 사이에서 증오와 분노는 그들의 구원을 상실하게 한 기만적인 유혹자들에 대한 복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그때 “ 추수 ”라는 주제가 모든 논리와 정의에 있어서 종교 교사들을 주요 목표로 삼는 피비린내 나는 점수의 해결로 성취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절의 이 경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니 우리가 더욱 엄한 심판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알느니라 ”. 이 “ 재난 ”의 시기에 이 행동은 다음 인용문으로 촉발됩니다: “ 하나님께서 큰 바벨론을 기억하사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에게 주시니라 ”. Apo.18은 불경건한 종교인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20절: “ 섬들이 다 도망하고 산들은 간데 없느니라. »

형태가 없고 " 곧 " 공허 "하거나 " 황폐하게 " 되는 우주적 혼돈의 양상을 띠는 땅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 죄 '의 결과, 결과이다. 황폐하게 하는 자 ”는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비난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형벌은 단 9장 27절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21절: “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우박의 재앙 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

그들의 불길한 임무가 완수되면 땅의 주민들도 재앙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며,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우박 ”의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 한 달란트 ”, 즉 44.8kg 의 무게를 전가시키십니다 . 그러나 이 “ 달란트 ”라는 단어는 “ 달란트 의 비유 ”에 근거한 영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비유에서 그들에게 주신 “ 달란트 ”, 즉 은사를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역할을 타락한 사람들에게 전가시킵니다 . 그리고 이 나쁜 행동은 결국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진정으로 선출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자신들을 징벌하시는 하늘의 “ 하나님 ”을 계속해서 “ 모독 ”(모욕)합니다.

달란트 의 비유 ”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믿음의 행위의 증거를 따라 주실 것입니다. 불충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주시고 그들이 그를 생각하고 판단한 것처럼 자신도 가혹하고 잔인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된 그의 완전한 사랑과 신실하심 안에서 믿음을 따라 영생을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인용하신 “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 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있을 후 땅은 황폐해지고 모든 형태의 인간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1장 2절의 “ *무저갱* ”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17장: 매춘부의 가면이 벗겨지고 신원이 밝혀진다

1절: “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아와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성령은 이 장 17장의 목표, 즉 “ **큰 창녀** ” 의 “ **심판** ” 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 **큰 물 위에 앉아** ” 있거나, 15절에 따르면 “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 ” 을 지배하고 있으며, “ **유프라테스** ” 라는 상징으로 이미 유럽과 기독교의 행성 확장을 지정했습니다. **여섯째 나팔** ”(계시록 9:14): 미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호주. 심판 사역은 앞장 16장의 “ **일곱 천사** ” 가 쏟아 부은 “일곱 재앙”, 즉 “ **일곱 대접** ” 의 맥락과 연결됩니다.

숫자 17의 “심판” 숫자 **의 의미는 다니엘 4 장 17 절** 에서 확증됩니다. 이는 성도들의 명령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 시며 자기 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가운데 높이시는 줄을 인생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 **심판** ” 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책임을 져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이는 이 장이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14장의 셋째 천사의 메시지에서 이러한 동일시가 영생이나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 **심판** ” 의 문맥은 13장의 “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 의 문맥과 같습니다.

역사적, 예언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1843년의 개신교 신앙과 1994년의 공식적인 재림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확인하면서 두 그룹 모두 로마 카톨릭 신앙이 제안한 에큐메니칼

동맹에 들어갔고, 두 그룹의 선구자들은 그 동맹의 악마적인 성격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은 모든 이교와 교황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적, 즉 로마가 누구인지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개신교와 재림교의 죄는 두 종교의 선구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악마적인 본성을 비난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더욱 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유일한 구주이자 위대한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 행위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요? 두 종교 모두 지상의 평화와 인간 사이의 좋은 이해에만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일단 가톨릭 신앙이 더 이상 박해를 하지 않으면, 가톨릭 신앙과 협정을 맺고 동맹을 맺을 정도로 자주 또는 더 잘 연관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의견과 의로운 심판이 멸시받고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 오류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추구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그분은 자신의 인격과 율법, 그리고 의식에 드러난 선의 원칙에 행해진 잘못을 정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34~36에서 이 주제에 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과 아버지 사이, 딸과 어머니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나누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공식적인 재림교회는 1843년부터 1873년 사이에 제칠일 안식일을 회복하여 3월 1일 제정된 이래로 “짐승의 표”라고 일컬어 온 로마 일요일을 보여 주신 하나님의 영을 듣지 않았습니다. 7, 321. 제도적 재림교회의 사명은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일요일에 대한 재림교회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 달리 우호적이고 형제애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동일하게 남아 있는 태양 이교주의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일요일이 그의 분노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중요한 유일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의 예언적 계시는 우리를 그의 심판과 연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평화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를 가리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신성한 시선에 따라 시민 또는 종교 체제를 판단하고 식별하시는 것처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결과로 우리는 심지어 기만적인 평화의 시대에도 “짐승”과 그 행동을 보게 됩니다.

2절: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의 종들에게 영적인 “*음행(또는 방탕)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혐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하신 “*여자 이세벨*”의 행위와 연관성이 확립됩니다. 요한계시록 18:3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창녀*”를 계시록 8:10-11의 “*썩 별*”과 연결시킵니다.

썩은 성령이 그의 로마 카톨릭 종교 가르침을 비교하는 그의 유독한 포도주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느님께서 가톨릭 종교에 대해 하시는 비난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도 정당화됩니다. 비난받은 잘못은 그분의 신성한 권위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 두 증인 ” 을 구성하는 성경의 기록은 이 로마 종교의 거짓 종교 가르침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의 거짓 가르침이 그의 유혹에 빠진 희생자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는 계시록 14:18~20의 “ 추수 ” 에 대한 그들의 복수 행위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3절: “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진홍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

“ ... 광야에서 ” 는 믿음의 시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 마지막 때 (단 11:40)” 상황의 “건조한” 영적 분위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성령은 이 마지막 맥락에서 널리 퍼져 있는 영적 상황을 형상화합니다. “ 그 여자는 진홍빛 짐승을 주관하고 있다 ”. 이 이미지에서 로마는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로부터 물려받은 안식일을 강요하여 가톨릭교인들에게 “ 짐승의 표 ” 를 숭배하게 만드는 순간, 개신교 미국을 지칭하는 “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 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맥락에서 종교적인 로마의 “ 일곱 머리 ” 에도, 이 경우 그녀가 조종하는 유럽과 세계 기독교 민족의 시민 지배자들의 상징인 “ 열 뿔 ” 에도 왕관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연관성은 죄의 색인 “ 주홍색 ” 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3:3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 그리고 나는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그 짐승을 두려워했습니다. ” 우리는 이 치유가 나폴레옹 1세 의 협약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로마 카톨릭 교황은 더 이상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 짐승 ” 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온 땅은 그 짐승 뒤에 경배했습니다. ” 이는 위에 주어진 설명을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평시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는 평화시나 전쟁시에 그의 신실한 택하신 자들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절 :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

여기서도 제시된 설명은 영적인 교리적 오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교 의식을 정죄하십니다. 그녀의 미사와

혐오스러운 성찬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과 귀족, 세상의 모든 부자가 원하는 타협으로 이끄는 사치와 부에 대한 그녀의 취향. “*매춘부*”는 자신의 “고객”이나 연인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홍색 "색상"은 "창녀" 자신인 "보라색과 주홍색"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자*”라는 용어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따르면 종교적인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지만 또한 이 장의 18절이 17절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땅의 임금들 위에 왕권을 가지는 큰 성*”을 가리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로마 바티칸의 “추기경과 주교”의 유니폼 색깔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코올성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여겨지는 “*황금*” 성배를 사용하여 가톨릭 미사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속죄하는 피 대신에 그는 오직 “*그의 매춘의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만을 본다. 단 11:38에서는 성령께서 “*요새의 신*”에게 주시는 교회의 장식으로 “*금*”이 언급되었습니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요 땅의 음행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의 어머니라.*»

이 구절에 인용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비추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비밀*”입니다. 불행히도 그 수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 8:24-25 이후에 발표된 교황 정권의 “*성공과 계략의 성공*”은 세상 끝 심판의 때까지 확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살후 2:7에 따라 사도 시대에 마귀가 선포하고 이미 실행한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사라졌음이 틀림없어요.* “*비밀*”은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고대 도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영적으로 로마에 이 이름을 부여했으며, 불행하게도 속은 무리들에게는 선택받은 자들만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기서도 개신교의 순종을 가리키는 “*땅*”이라는 단어의 이중 의미에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가톨릭 신앙이 통합된 만큼 개신교 신앙도 다중적이어서 “*매춘부*”, 즉 *그들의 가톨릭 신앙의 딸들*로 지칭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소녀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가증한 것*”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증한 일*” 중 주된 것은 일요일, 즉 일요일에 부여된 종교적 권위의 “*표*”입니다.

토지”라는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정당화됩니다. 가톨릭의 종교적 불관용이 주요 국제 종교 침략의 선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왕들을 선동하여 땅의 사람들을 그녀에게 순종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더럽히고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권세를 잃은 후에도 그의 “*가증한 일*”은 계속되어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녀의

이교도적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작은 선지자 중 한 명으로 표현하는 이슬람교도들을 “형제”라고 부를 때 드러납니다.

6절: “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리고 그녀를 보고 나는 큰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

이 구절은 단 7:21을 인용하여 그녀가 싸우고 지배하는 “ 성도들 ”이 참으로 “ 예수님의 증인 ”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 큰 바벨론 ”의 신비를 크게 밝혀 줍니다. 로마 종교는 취하게 될 정도로 선택받은 자들의 “ 피 ”를 마신다. 현대 로마 교황청과 같은 기독교 교회가 “ 예수의 증인들이 흘린 피에 취한 ” 이 “ 창녀 ”라고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선출직 공무원, 그러나 오직 그들뿐입니다. 성령께서 예언을 통해 그들에게 원수의 살인적인 계획을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악하고 잔인한 본성으로의 이러한 복귀는 은혜의 시대의 종말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악함은 무엇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 세상 마지막 시대의 지배적인 개신교 신앙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 성도들 ”과 “ 예수의 증인들 ”을 따로 언급하십니다. 최초의 “ 성도들 ”은 이교도인 로마 공화주의자와 제국주의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 예수님의 증인들 ”은 제국주의와 교황주의 이교도 로마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음녀의 도시는 로마이다. Dan.8:9에 따르면, “ 세계의 왕들 위에 왕권을 갖고 있는 큰 성 ”은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래로 - 63년에 단 8:9에 따르면: “ 가장 아름다운 나라들 ”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 예수의 증인 ”이 나타나 이 표현을 정당화하는 믿음의 시험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획된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할 타당한 이유를 하나님께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요한은 로마 도시에 관한 “ 비밀 ”에 놀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를 파트모스 섬에 구금하게 만들었던 그녀의 가혹하고 무자비한 이교도 제국의 면모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 창녀 ”가 들고 있는 “ 금잔 ”과 같은 종교적 상징은 당연히 그를 놀라게 할 수 있었습니다.

7절: “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여자와 그를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

“ 비밀 ”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며, 7절부터 성령께서는 요한과 우리가 “ 비밀 ”을 해제하고 로마 도시와 로마의 이미지에서 그 역할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3절의 상징이 다시 인용됩니다.

“ 여자 ”는 교황 로마의 종교적 성격, 즉 “ 어린 양의 아내 ”,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로마 교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 창녀 ”라고 부르심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셨습니다.

“ 그것을 운반하는 짐승 ”은 종교적 주장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정권과 국민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단 7:24에 주어진 그림에 따라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된 후 유럽에 형성된 왕국의 " 열 썰 " 에 그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들은 ' 네 번째 동물 ' 의 로마제국을 계승한다 . 그리고 이러한 관련 영역은 끝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국경이 이동하고, 정권이 바뀌고,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이동하지만, 거짓 로마 교황 기독교의 규범은 그들을 더 나쁜 방향으로 연합시킵니다 . 20 세기 에 로마의 비호 아래 이 연합은 1957년 3월 25일과 2004년에 체결된 " 로마 조약 " 을 통해 유럽 연합에 의해 구체화되었습니다 .

8절: “ 네가 본 짐승은 있었다가 이제는 없어졌느니라.” 그녀는 심연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짐승을 보면 기이히 여기리니 이는 전에 있었다가 이제는 없어졌음이라.»

“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제는 없어졌느니라 . ” 번역: 기독교 종교적 편협함은 538년부터 있었고 1798년 이후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 성령은 단 7:25 이후 편협한 교황의 통치에 대해 다른 형태로 예언된 기간을 제시합니다: “ 한 때, 두 때, 반 박; 42개월; 1260일 . ” 그 편협함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프랑스 혁명과 그 민족적 무신론을 가리키는 “ 깊음에서 올라오는 짐승 ” 의 행동으로 끝났지만 , 여기서 “ 깊음 ”이라는 용어는 악마, 생명을 파괴하고 지구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 파멸자 ”,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그를 “ 무저갱의 천사 ”라고 부릅니다 . 계시록 20:1은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 마귀 ”는 “ 무저갱 ” 이라 불리는 비인간화된 땅에서 “ 천년 ” 동안 결박될 것입니다 . 그 도시가 “ 무저갱 ” 에 있었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가 결코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밝히십니다 . 그의 이교도 지배 기간 동안 그것은 매우 논리적이지만 또한 그의 교황 종교 활동 전반에 걸쳐 수많은 속인 인간이 그들의 몰락에 대해 믿는 것과는 반대로 여기에서 그의 마지막 “ 멸망 ”이 드러났습니다 . 예언의 말씀을 멸시함으로써 로마의 유혹에 희생된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 왜냐하면 종교적 불관용이 발표되고 드러나는 이 마지막 맥락에서 “ 다시 나타날 ”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택하신 자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 그들의 “ 이름 ”은 “ 어린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성경 예언의 신비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

“ 무저갱 ” 이라는 단어에 관해 이 구절에 대한 두 번째 분석을 제안합니다 . 이 성찰에서 나는 3절의 “ 진홍빛 짐승 ” 에 대한 성령의 묘사 에 따라 성령께서 표적으로 삼으신 마지막 문맥을 고려합니다 . 일곱 머리 ”는 그것을 “ 마지막 때 ” 에 둔다 . 우리 시대의 것 . 나는 “ 어리석은 ” 이라는 개념이 편협하고 독재적인 행동에만 관련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편적 신앙의 마지막 시험으로 특징지어진 바로 마지막 날의 편협한 정권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 겨울이 끝날 무렵, 저에게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사실 “ 짐승 ”은 끊임없이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있으며, 그 과장되고 터무니없는 인본주의 가르침의 희생자는 그 편협함으로 인한 희생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새로운 매혹적이고 기만적인 인본주의적 행동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는 계 1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라는 이름으로 표적을 삼으신 혁명적 철학자들에게서 나오는 자유로운 사상의 유산의 열매이다. 이 장의 3절에 나오는 우리 시대의 “ 짐승 ”에 붙은 “ 진홍색 ” 색깔은 인간이 스스로 부여한 과도한 자유로 인해 발생하는 죄를 비난합니다. 그녀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종교적 기반이 유럽 가톨릭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출신의 서구 지배자들: 미국과 유럽은 전적으로 가톨릭 종교에 매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 짐승 ”은 “ 다섯째 나팔 ” 메시지에 예언된 행위의 최종 결과입니다. 평화롭게 된 카톨릭 신앙에 현혹된 개신교 신앙은 개신교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카톨릭을 하나로 모으고, 1994년 공식적인 제도적 재림교와 결합하여 계시록 9:7-9의 “ 전투 준비 ”, “ 야마겟돈 ”, 계시록 16:16에 따르면, “ 여섯째 나팔 ” 이후에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신실한 종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안식일; 일곱째 날의 안식은 십계명 중 넷째 계명에 따른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그들의 연설은 형제 사랑과 양심의 자유를 드높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가 만든 이 터무니없고 거짓된 자유는 서구 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 둘째 사망 ”으로 이끈다. 부분적으로는 무신론, 부분적으로는 무관심,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거짓 종교적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무가치하게 된 종교적 헌신이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인본주의적 “ 짐승 ”은 성령께서 이 구절에서 계시하시는 대로 “ 심연 ”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가 인본주의적 철학자, 그리스인, 프랑스인 또는 외국 혁명가들의 이미지와 적용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입맞춤처럼, 평화시에 대한 매혹적인 거짓 인본주의적 사랑은 칼보다 더 많은 것을 죽입니다. 우리 평시의 “ 짐승 ”은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서 “ 깊음 ”이라는 단어가 부여하는 “ 어두움 ” 특성을 물려받습니다. “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영은... 하나님은 물 위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기원 사회의 이러한 “ 암흑 ” 특성은 역설적으로 프랑스의 혁명적 자유 사상가들에게 붙여진 이름인 “ 계몽 ”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종합을 제안함으로써 성령은 충실한 종들에게 서구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그에 대한 비난을 드러내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불명예를 안겨준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많은 죄와 배신을 비난합니다.

9절: 지혜 있는 총명은 이것이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니라»

이 구절은 로마를 오랫동안 지칭하던 표현인 “일곱 산의 도시 로마”를 확증해 줍니다. 나는 이 이름이 1958년의 구식 지리 지도에서 인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곱 언덕”이라고 불리는 산은 오늘날에도 Capitoline, Palatine, Caelius, Aventine, Viminal, Esquiline 및 Quirinal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교 시대에 이 언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신격화된 우상들에게 바쳐진 성전을 지탱하는 “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의 신”을 기리기 위해 가톨릭 신앙은 로마에 따르면 “천국”을 지정하는 Caelius에 대성당을 세웠습니다. 국회의사당에는 “머리”라는 뜻으로 사법부의 시민적 측면인 시청 궁전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동맹국인 미국도 워싱턴에 위치한 “국회 의사당”을 중심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머리” 상징은 로마를 대신하고 계시록 13:12에 따르면 “그 앞에서” 땅의 주민들을 다스릴 이 대정부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10절: *또 일곱 왕이 있으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물리라.*»

성령은 “일곱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 로마의 “일곱” 정부 체제를 연속적으로 언급합니다. 처음 여섯 왕조는 - 753년부터 - 510년까지의 군주제; 공화정, 영사관, 독재, 삼두정, 옥타비아누스 이후의 제국, 예수가 태어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284년과 324년 사이에 7위를 차지한 사두정치(4명의 관련 황제)는 “그는 1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정확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짧은 시간”; 사실 30년. 새로운 황제 콘스탄티누스 ¹세는 재빨리 로마를 떠나 동쪽의 비잔티움(콘스탄티노플은 터키인에 의해 이스탄불로 개칭됨)에 정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476년부터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다니엘과 묵시록의 “열 뿔”이 서유럽 왕국을 형성하여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476년 이래로 로마는 동고트족 야만인들의 점령 하에 남아 있었으며, 538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동부에 거주하고 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의 군대와 함께 보낸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로마를 넘겨주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이제는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유스티니아누스 ¹ 세 황제의 호의적인 칙령에 의해 설립된 교황의 종교 통치다. 그리하여 그는 전직 매춘부였던 아내 테오도라(Theodora)의 요청에 응했고, 그녀는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인 Vigile을 대신하여 개입했습니다. 11절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교황 정권은 다니엘이 “다른” 왕이라고 지적한 새롭고 전례 없는 형태를 구성하면서 언급된 “일곱” 통치 시대에 나타납니다. “일곱”의 이전 왕 시대보다 앞선 것은 이미 그 황제들에게 부여된 로마 종교 지도자의 칭호이며, 그 유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Pontifex Maximus)”로 라틴어 표현은 “주권 교황(Sovereign Pontiff)”으로 번역되었습니다. 538년, 로마

가톨릭 교황의 공식 명칭. 요한이 환상을 받은 당시 존재하고 있던 로마 정권은 여섯 번째 로마 통치인 제국이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는 황제 자신이 "주권 교황"이라는 칭호를 달았습니다.

로마가 역사적 장면으로 돌아온 것은 496년 프랑크 왕 클로비스 1세가 당시의 거짓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기 때문 ^{입니다}. 즉, 콘스탄티누스 1세에게 순종하여 ^이 321년 3월 7일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것이다. 제국의 지배 이후 로마는 대거 이주하는 외국 민족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오해는 로마의 단결과 힘을 파괴한 불안과 내부 투쟁의 기초입니다. 이 행동은 오늘날 유럽에서 유럽을 약화시키고 적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바벨탑" 경험의 저주는 수세기, 수천년 동안 인류를 불행으로 이끄는 모든 영향과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에 관해서는 비잔틴 황제가 지지하는 로마 카톨릭 신앙에 교리적으로 반대하는 아리우스 동고트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 7:8-20, " 세 썩" 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538년에 로마 교황 정권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이 지배에서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천주교(작은 썩) 이전에 낮아졌습니다. 476년에는 헤룰리족, 534년에는 반달족, 그리고 538년 7월 10일 "눈보라에 의해" 장군에 의해 동고트족의 점령에서 해방된 로마 카톨릭교에 적대적인 민족들이 우려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보낸 벨리사리우스 · 로마는 이에 의해 제정된 배타적이고 지배적이며 불관용적인 교황 정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통치 교황인 호기심 많은 비길리우스(Vigilius)의 요청으로 황제. 이 순간부터 로마는 18절부터 “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 이 되었는데, 여기서 8절에 이어 두 번째로 성령께서 명시하신 대로 “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 베드로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칭호와 종교적 권위를 부여한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칙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321년 3월 7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명령되었고, 일요일을 정당화하는 교황권은 538년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두 날짜. 로마 주교가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도 538년이었습니다.}

12절: “ 네가 본 열 썩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으느니라. »

여기서는 단 7:24과 달리 “종료 시간”의 끝 부분에 위치한 매우 짧은 시간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니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요한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 열 썩 ”은 아직 독립을 얻지도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 17장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문맥은 세상 종말의 문맥이므로, 이어지는 구절들이 확증해 주듯이, 성령에 의해 불러일으키는 이 정확한

문맥에서 “ 열 뿔 ”이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된 “ 시 ”는 계시록 3장 10절에서 1873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신실한 개척자들에게 선포된 믿음의 마지막 시험의 때를 가리킨다. 202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빛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예언서(에스겔 4:5-6)에 따르면, 예언적인 “ 날 ”은 실제 “ 년 ”의 가치가 있고 , 따라서 예언적인 “ 시간 ”은 실제 15일의 가치가 있습니다. 18장에서 “ 한 시간에 ” 라는 표현을 세 번 인용할 성령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주장되는 것을 보면 이 “ 시간 ”은 “ 일곱 재앙 ”⁸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죽음에서 자신이 택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대천사 “ 미가엘 ” 의 영광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신성한 주 예수의 영광의 재림입니다 . 그러므로 이 “ 시간 ”은 “ 아마겟돈 전쟁 ” 이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

1절 3절 : “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느니라. »

이 마지막 시련의 시기를 목표로 성령께서는 “ 열 뿔 ”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느니라.” 그들이 공유하는 이 목표는 제3차 핵전쟁의 모든 생존자들이 일요일 휴식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파멸은 고대 유럽 국가들의 군사력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자인 미국 개신교도들은 생존자들로부터 그들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는 악마적이지만, 타락한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영은 사탄에게 넘겨져 그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 열 뿔 ”이 자신들의 권위를 “ 짐승 ”에게 넘겨주는 것은 오직 “ 용 ”과 “ 짐승 ”과 “ 거짓 선지자 ” 의 연합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포기는 하느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가하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죽음의 법령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사이에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이교 태양 숭배로 더럽혀진 로마식 “일요일”인 “ 짐승의 표 ”를 채택하는 데 15일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030년 4월 3일 이전 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 시 ” 라는 용어의 해석에 오류가 없는 한 , 사망의 법령은 이 날짜 또는 그 날과 그 날 사이에 있는 날짜에 공포되어야 합니다. 현재 달력의 2030년 봄입니다.

마지막 때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다음 사실을 고려해 보십시오. 은혜의 시대의 종말은 그것을 일요일 법령의 공포와 연결시키는 선출된 공직자들에 의해서만 식별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녀 이후입니다. 아직 살아 있는 믿지 않고 반항적인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 일요일 법령의 공포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단지 일반적인 관심의 척도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다섯 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야 그들의 복수심으로

인해 하늘의 형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제시된 사람들을 “죽이는” 결정을 완전히 승인하게 됩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울 것이요 어린 양이 저희를 이기시리니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됨이라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들과 그와 함께 신실한 자들도 저희를 이기리라.” »

“저희가 어린양과 싸울 것이요 어린양이 저희를 이기시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세력도 능히 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께서는 땅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과 주들에게 자신의 신성한 힘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선택된 자들은 그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여기에서 성령께서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 이들, 그리고 구원의 길에 자신을 헌신한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기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길은 그들을 위해 “부르심”이라는 영적 신분으로 시작하고,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화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성경적 빛을 향한 “충성”에 의해 “선택된” 지위. 언급된 전쟁은 계 16:16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사람들의 “충성”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계시록 9:7-9에서 성령께서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한 개신교 신앙의 준비를 계시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도록 선고받은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들에 대한 신뢰를 증언하며, 그에게 주어진 이 증언은 첫째 천사의 메시지에서 요구하시는 “영광”을 그에게 줍니다. 계시록 14:7에서.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게 될 죽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에 그토록 많은 중요성을 두신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적이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지상 정원의 “두 그루 나무”에 부여하신 중요성 때문에 우리 인류가 영원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마겟돈”은 “두 그루의 나무” 대신에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선악을 아는 날”인 일요일과 “성결한 삶의 날”인 안식일 또는 토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

“음녀가 앗은” “물”에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유럽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기만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유럽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만들어진 노조와 동맹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어가 가교 역할을 하며 국제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은 신성한 저주의 무기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창조주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반응은 더욱 끔찍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채로 인한 죽음입니다.

16절: “ 네가 본 바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를 벗기고 벗은 몸을 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멸하리라.” »

16절은 다가오는 18장의 프로그램을 알려줍니다. 그는 “ 열 뿔 ”의 역전을 확증하신다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고 승인한 후 결국 “ 창녀 ”를 멸망시키는 짐승 ” . 여기서 나는 " 짐승 "이 시민권력과 종교권력 연합의 체제이고, 이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개신교인 미국 국민과 가톨릭과 개신교인 유럽 민족의 권력을 가리키는 반면, " 창녀 "는 권력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직자, 즉 가톨릭 종교 권력의 교육 권위자, 즉 수도사,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입니다. 따라서 그 역전에서는 로마 거짓말의 두 희생자인 유럽 가톨릭 민족과 개신교 미국 민족이 로마 교황 가톨릭의 성직자들에 맞서게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개입을 통해 악마적이고 기만적인 가면을 벗겨내실 때 그들은 “ 불로 그 여자를 소멸 ”할 것입니다. “ 열 뿔 ”이 그 여자를 벗겨 벗겨버질 것이며, 그 여자는 사치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벗겨 벗겨질 것이며, 그 여자가 거룩한 모습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 벗겨 벗은 ”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입히는 것은 하늘의 의입니다. “ 그들이 그의 살을 먹을 것이다 ” 라는 정확한 표현은 그의 형벌이 잔인하게 잔인함을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14:18-20의 “ 포도 ” 주제를 확증해 줍니다. 진노의 포도는 화 있을진저!

17절: “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대로 하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였느니라. »

17절은 심판의 수에 따라 사람이 멸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상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자신이 예상되는 시간에 시작될 “ 끔찍한 게임 ”의 유일한 주인임을 확신하도록 여기에서 주장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귀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위대하고 송고한 계시록에서 그가 발표한 모든 것은 이미 성취되었거나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8절에 따르면 “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기 ”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이 마지막 신실함의 시험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제3차 세계 대전의 핵 파괴. 그러므로 이 땅에 조직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하신 “ 설계 ”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살인적인 “ 계획 ”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란 무슨 뜻입니까 ? 성령은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교황청의 “ 작은 뿔 ”에게 예비된 최종 운명을 언급합니다 . 내가 보는 동안 동물은 죽었고 그 몸은 파괴되어 불에 던져졌습니다. ”; 단 7:26: “ 그 때에 심판이 이르리니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영원히 멸망하리라 ”; 그리고 단 8:25: “ 그가 그의 형통과 그의 계략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교만함을 품고 평안히 사는 많은 자를 멸할 것이요 또 일어나서 추장들을 대적할 것이요 그러나 어떤 손의 노력도 없이는 부서질 것입니다. ” 로마의 종말에 관한 “ 하나님의 말씀 ” 의 나머지 부분은 계시록 18, 19, 20장에 제시될 것이다.

18절: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

큰 성 ”이 실제로 로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 천사가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또한 요한은 요한에게 “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고 말함으로써 천사가 “일곱 산의 성”인 로마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대한 식민지 제국 전체의 여러 왕국을 제국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제국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나라는 이미 “ 땅의 왕들에 대한 왕권 ”을 갖고 있으며 교황의 지배하에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기의 비극”의 적, “ 창녀 ” 를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계시를 집중하셨습니다 . 따라서 그는 숫자 17에 자신의 판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2020년 올해 우리가 경험한 321년 3월 7일(공식 날짜이지만 하나님의 날은 320일)을 태양절로 채택한 죄 창조 1700 ^{주년} 기념일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관찰입니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독교 시대(Covid-19) 역사상 유례없는 저주를 내리셨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재앙적인 세계 경제 붕괴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다른 저주들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매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음녀가 벌을 받다

아마겟돈 전쟁 ”이 끝나는 매우 특별한 맥락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 말씀은 그 내용을 드러냅니다. “ *땅의 음녀들의 어머니, 큰 바벨론이 형벌을 받을 때*”; 피비린내 나는 “ *추수* ”의 시간 .

1절: “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 »

큰 권세를 지닌 천사는 하나님 편,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지으신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 이 이름으로,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이 그에게 인정한 권위를 통해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두 이름 아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돌아와 그의 소중한 택자를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실하고 이 시험된 신실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따라 1844년 이래로 요구하신 “ *영광* ”을 그분께 드리심으로써 현명하게 순종한 사람들을 그분의 신실함으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 안식일을 지키므로써 그분의 택하신 자들은 그분이 천상과 지상의 생명을 창조하신 이래로 그분만이 합법적으로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절: “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굴혈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굴혈이 되었도다*”

“ *그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인용문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타락의 증거가 그녀의 기만적인 유혹 활동의 이 마지막 순간에 살아남은 인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황청 바벨론의 거룩함의 가면도 무너진다. 그것은 사실상 “ *귀신들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의 굴혈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굴혈*”입니다. “ *새* ”에 대한 언급은 지상의 행동 뒤에는 그들의 지도자이자 신성한 창조물에 대한 최초의 반역자인 사탄의 진영에서 나온 나쁜 천사들의 천적 영감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3절: “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느니라.* »

“ *...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라...* ” 종교적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행한 교훈을 완전히 경멸하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선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가득하신 예수님, 분노로 가득찬 교황들;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 허영과 교만의 모델이신 교황,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시는 예수,

사치와 부를 누리며 사시는 교황.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셨고, 교황은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의 가톨릭 기독교는 예수께서 본보기로 제시하신 신앙과 전혀 유사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 그 궤계의 성공 ”을 예언했는데, 왜 이런 성공이 이루어졌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321년 3월 7일 이후로 폐기된 안식일 범법을 처벌하기 위해 이 잔인하고 가혹한 제도를 일으켰다는 것이 계 8:8의 “ 둘째 나팔 ” 의 형벌이라는 제목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레위기 26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실하여 이스라엘을 칠 재앙에 대해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당신의 하늘을 돌려줄 것이다 철처럼, 그리고 당신의 땅처럼 황동처럼. ” 새 언약에서는 이와 동일한 저주를 이행하기 위해 교황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계획에서 하나님은 동시에 그분의 사랑의 율법과 완전한 공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희생자이시며 재판관이시며 집행자이십니다. 321년 이래로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인류는 막대한 대가를 치렀고, 인류는 불필요한 전쟁과 학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구절에서 “ 음행 ”(또는 “ 방탕”)은 영적인 것이며, 합당하지 않은 종교적 행위를 묘사합니다. “ 포도주 ”는 그녀 때문에 공격이나 공격의 희생자가 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 분노 ”와 악마적인 증오를 증류시키는 그녀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가톨릭 가르침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숨겨서는 안 되며, 거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신 가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땅의 왕들이 “ 바벨론 ”의 “ 음행의 포도주”(방탕)를 마셨다면 그것은 “ 창녀 ”로서 그녀의 유일한 관심은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고객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탐욕을 최고 수준으로, 범죄에까지 이르게 하고, 부와 호화로운 삶에 대한 사랑을 높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함께 무리를 짓는 것처럼요. 사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녀가 있든 없든 어떤 경우에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상 역사의 시작부터 그의 형제 아벨을 살해한 가인을 통해 사악함이 인간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 땅의 상인들은 그 사치의 힘으로 부유해졌습니다. ”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황 정권의 성공을 설명합니다. 땅의 상인들은 돈만 믿고 종교적인 광신도는 아니지만, 종교가 그들을 풍요롭게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심지어는 존경할 만한 파트너가 됩니다. 주제의 마지막 맥락은 땅이 영적으로 개신교 신앙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미국 개신교 상인을 식별하도록 이끈다. 본질적으로 개신교를 기원으로 하는 북미는 16^{세기}부터 히스패닉계 가톨릭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가톨릭 신앙은 개신교 못지않게 대표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직 '사업'만이 중요한 이

나라에서는 종교적 차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네바 개혁가인 존 칼빈(John Calvin)이 격려한 부자가 되는 즐거움에 힘입어 프로테스탄트 상인들은 원래의 프로테스탄트 규범이 제공하지 않았던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톨릭 신앙에서 발견했습니다. 개신교 사원은 벽이 없고 비어 있는 반면, 가톨릭 교회는 금, 은, 상아 등 이 주제가 12절에 열거된 모든 재료로 만든 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예배의 부는 주 하느님께 미국 개신교 신앙의 약화에 대한 설명. 새로운 맘몬인 달러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고, 교리의 주제는 모든 관심을 잃었습니다. 야당은 존재하지만 정치적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4절 “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와 그가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하시니라” »

4절은 마지막 분리의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 내 백성아, 그 중에서 나오라 ”; 지금은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 구절이 설명하는 것은 계 14:14-16의 주제인 “ 추수 ” 의 때입니다. 그 구절이 명시한 대로 그들은 "추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교황 로마와 그 성직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택함을 받은 자 중에 사로잡히려면 “ 자기 죄에 참여 하지 ”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죄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신앙의 최종 시험에서 존중하는 “ 짐승의 표 ”인 일요일 휴식이기 때문에, 이 두 주요 종교 집단의 신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휴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는** 일요일 율법의 선포가 은혜의 시대의 끝을 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마지막 기회가 나타나는 순간을 목표로 삼고 계십니다. 이 선언문은 “ 여섯째 나팔 ”(제3차 세계 대전)의 생존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감시 하에 선택의 힘을 실어주는 인식을 고취시킵니다.

5절: “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

그의 말에서 성령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에 뿌리를 둔 “바벨탑”의 이미지를 제시하십니다. 321년과 538년 이래로 “ 창녀 ”가 “ 보좌 ” 를 차지하고 538년 이래로 “거룩한” 교황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 큰 도시 ” 로마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1709년(321년부터) 동안 자신이 쌓은 죄를 세어 기록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예수께서는 교황 정권의 가면을 폭로하셨고, 로마와 그 거짓 거룩함을 위해 이제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6절: “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고 그의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 주라.” 그녀가 부은 컵에 그녀의 두 배를 부으십시오. »

Rev.14 주제의 진행에 따라 수확 후에 빈티지가 옵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톨릭교의 거짓말로 인해 가장 사악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희생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십니다 . 우리는 그의 작품이 그의 재판정의 말뚝이자 고문이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종교 교사들은 가능하다면 두 배의 고통을 겪게 될 운명입니다. 같은 메시지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반복됩니다. “ 그가 부은 잔에 그 두 배를 부으라 .” 마시는 잔의 이미지는 로마가 골고다 산 기슭에 이미 세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통을 당할 때까지 그의 몸이 겪게 될 고문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께서는 가톨릭 신앙이 자신이 견디기로 동의한 고통에 대해 지독한 경멸을 나타냈으므로 이제 그 고통을 겪으실 차례임을 상기시키십니다. 이 시점에서 오래된 속담이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하지 마십시오.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보복의 법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이에는 이의 법칙을 이행하십니다. 그는 개인적 사용을 유보한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집단적 차원에서 그 적용은 인간에게 허용되었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며, 악과 그 반역적인 정신은 기독교 출신의 서구 민족을 악화시키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계 17:5에서 “ 큰 바벨론”, “ 음녀 ”는 “ 그의 가증한 일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느니라 .” 이 설명은 그의 종교 활동과 성찬 잔의 특별한 사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신 이 신성한 의식을 무시한 것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특별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며 그의 심판하시는 뜻이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나느니라.

7절: “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그에게 고통과 애통을 주소서. 그가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니 과부가 아니니 애통함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

7절에서 성령은 삶과 죽음이 반대되는 점을 강조합니다. 죽음이라는 불행을 겪지 않은 삶은 유쾌하고, 근심이 없고, 경박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로마 교황의 “바빌론”은 호화로운 생활을 살 수 있는 부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와 왕들로부터 그것을 얻기 위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죄 용서를 "면죄부"로 팔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속죄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서 매우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세부 사항입니다. 이 부와 사치에 대한 비난은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가난하게 살았으며 필요한 것에 만족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 고통 ”과 “ 애도 ”는 로마 교황 가톨릭 성직자들의 “ 부와 사치 ”를 대체합니다.

바벨론은 기만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 내가 여왕으로 앉아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7:18의 “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의 왕권 ”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20절에 따르면 그의 “ 보좌 ”는 바티칸(바티시네이트=예언), 즉 로마에 있습니다. “ 나는 과부가 아닙니다 ”; 그녀가 아내라고 주장하는 그의 남편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 그리고 나는 애도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녀는 모든 반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반복해서 결국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로마에는 "영원한 도시"라는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지구에 있는 서구 열강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고, 공격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8절: “ *이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기근이라 그가 불에 살라지리라.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

이 구절은 그의 모든 환상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 *이 때문에 어느 날* ”;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곳은 “ *그의 재앙이 임할 것* ”이거나,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입니다. “ *죽음과 애도와 기근* ”은 사실 반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굶어 죽는 것이 아니므로, 첫째로 영적인 “ *굶주림* ”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생명의 떡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 *애도* ”는 우리와 가족의 감정을 공유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따르면 “ *죄의 삯은 사망* ”이기 때문에 “ *사망* ”이 죄인에게 임합니다 . 다니엘과 계시록에 반복된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게, “ *그리고 그것이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 그녀 자신이 너무나 많은 생물을 불의하게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웠기 때문에 그녀 자신이 불 속에서 멸망하는 것은 완전한 신의 공의에 따른 것입니다. “ *그녀를 심판하신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 매혹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가톨릭 신앙은 팔에 안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만 나타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했습니다. 이 측면은 감상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여자, 더 나아가 어머니, 종교는 참으로 안심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리의 때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은 그것을 파괴하고 속인 희생자들의 복수심에 찬 분노에 넘겨줍니다.

9절: “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가 타는 연기를 보고 그를 인하여 울고 통곡하리로다.* ” »

음행과 사치에 빠진 땅의 왕들 ” 의 행위를 드러냅니다 . 여기에는 가톨릭 신앙의 성공과 활동을 촉진하고 마지막 시련에서 안식일 준수자를 죽이기로 결정한 왕, 대통령, 독재자, 국가의 모든 지도자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 그가 타는 연기를 보고 그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 . ” 분명히 땅의 왕들은 상황이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도 이끌지 않고 단지 속은 희생자들에 의해 점화된 로마의 불, 즉 신성한 복수의 실행 도구에 주목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탄식은 그들을 최고의 권력으로 이끌었던 세상의 가치관이 갑자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로 정당화된다.

10절: “ 그들이 받을 고통을 두려워하여 서서 이르기를 화로다! 비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만에 당신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

“영원한 도시”가 죽고 불타고 땅의 왕들이 로마에서 물러납니다. 그들은 이제 그의 운명을 공유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의미합니다 . “ 불운! 비애!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화는 “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 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 “ 강력한 도시!” » ; 그녀는 너무나 강력해서 기독교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루이 16세와 그의 오스트리아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의 단두대에 올랐던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정죄하신 이 연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 성령께서 선포하신 대로 “ 큰 환난 ”의 희생자들도 단두대의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 , 계시록 2:22-23에서. “ 일시간 안에 당신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계시록 3장 10절에 예언된 상징적인 “ 시 ”였으나, 현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며, 이번에는 문자 그대로의 “ 한 시 ”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변화를 얻기에 충분합니다.

11절: “ 땅의 상인들도 그를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자기 상품을 사는 자가 다시는 없음이니라 ”

이번에 그 영은 “ 땅의 상인들 ”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이전 장 17장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의 생존자들이 채택한 미국의 상업 정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 그 때문에 울고 애통합니다. 더 이상 자기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그가 애도하고 있는 가톨릭 신앙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애정의 죄를 강조하며 , 따라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가톨릭 신앙 에 개인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 그렇다면 정반대로 로마 교황의 가톨릭 죄를 비난하고 이해된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혁 사업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피에르 발도(Pierre Valdo), 존 위클레프(John Wicleff),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와 같은 진정한 개혁가들이 그 시대에 행한 일들입니다. 상인들

역시 자신들이 사랑했던 가치관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움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업 활동을 통해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즐거움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의 기쁨을 요약합니다.

12절: “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가는 베실과 자주 옷감과 비단과 홍색실과 각종 향목과 각종 기물과 상아 기물과 각종 기물을 물품으로 삼았느니라” 매우 귀한 나무, 황동, 철,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로마 카톨릭의 우상 숭배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자료를 나열하기 전에, 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참된 믿음의 특별한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당신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 (요한복음 4:21-23).”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어떤 물질이나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상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참된 믿음은 탐욕스럽고 도둑질하는 세상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영적으로 선택된 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부요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영으로, 즉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한 진실로 예배합니다. 이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표준 위에 세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표준을 벗어난 모든 것은 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종의 우상 숭배 이교입니다. 정복하는 동안 공화당 로마는 패배한 국가의 종교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교리의 대부분은 고대 최초의 위대한 문명인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황의 형태로 우리는 이 모든 유산 이 주님의 12사도를 시작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 “성도”와 결합된 것을 발견합니다 . 그러나 가톨릭 신앙은 이러한 우상 숭배 행위를 정죄하는 하느님의 두 번째 계명을 억압하기까지 하여, 조각되거나 그려진 형상이나 악마의 환영에 나타나는 숭배를 영속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태를 갖추는 데 재료가 필요한 이러한 조각된 우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숭배의 의식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록을 제시하시는 자료들: “... ..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아마포, 자색 비단, 홍색실, 각종 단목, 각종 상아와 매우 귀한 나무와 놋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기물 ... 단 11:38 교황의 “ 금, 은, 보석과 귀한 물건 ” “ 성체의 신에게 경의를 표하라 ”. 다음으로, 계시록 17:4에서 “ 자주색과 진홍색 ” 옷은 음녀 큰 바벨론에게 입힙니다. ” 금, 보석, 진주 ”는 그녀의 장식품 입니다. 계 19:8에 따르면 “ 세마포 ”는 거룩함에 대한 그분의 주장을 가리킨다. “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인용된 다른 재료는 그녀가 조각한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입니다. 이러한 고급 소재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톨릭 신자의 높은 수준의 헌신을 표현합니다.

13절: “ **계피와 향료와 향료와 몰약과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육신과 사람의 영혼의 것입니다.** »

“ **향수, 몰약, 유향, 포도주, 기름** ”이라는 문구는 종교 의식을 암시합니다. 다른 것들은 열왕기상 4장 20~28절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건축된 최초의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를 암시하는 영양분과 상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은 그의 시도가 부당하다고 비난합니다. 계시록 13:6에서 “ **모독** ” 하고 단 8:11에서 “ **무너뜨리는** ” “ **하나님의 성전** ” 건축을 재현합니다. “ **인간의 육체와 영혼** ” 에 관한 구절의 마지막 정확성은 그녀가 불법적으로 현세 권력을 공유하는 군주와의 협력을 비난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예 제도, 고문, 하나님의 피조물 살해와 같은 가증스러운 행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위해 남겨두신 것; 이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다음과 같은 용어로 요약하는 지점까지입니다. “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여자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 이 장 18절의 18절에서. “ **사람의 영혼** ”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속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활동과 거짓 종교적 허식으로 인해 악마에게 넘겨진 “ **영혼** ” 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기억할 점 : 성서와 하느님의 생각에서 “ **영혼** ”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모든 측면, 즉 육체와 정신적 또는 심령적 사고, 지성과 감정을 가리킵니다. “ **영혼** ”을 **생명의 요소**로 제시하는 이론은 죽을 때 몸에서 분리되어 살아남는다는 것은 순전히 그리스 이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이나 동물의 “ **피** ”를 영혼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레위기 17:14: “ **모든 육체의 영혼은 그 안에 있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 이니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 그리하여 그는 미래의 그리스 이론에 반대되는 관점을 취하고 이교도 민족들 사이에서 탄생할 철학적 사상에 대항하는 성경적 퍼레이드를 준비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생명은 혈액의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질식으로 인해 흘러거나 더러워진 피는 더 이상 생각을 지탱하는 뇌를 포함한 육체의 요소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산소화되지 않으면 사고의 원리는 멈추고 이 마지막 단계 이후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 **부활** ”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안에 있는 죽은 “ **영혼** ”의 구성에 대한 기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 **소생시키실 때** ” 또는 “ **다시 일으키실 때** ”, 그 경우는 영생을 위한 것이거나 “ **둘째 사망** ”의 결정적인 멸망을 위한 것입니다.

14절: “ 네 영혼이 바라는 열매가 네게서 멀었느니라. 섬세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사라져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전 구절에서 설명된 내용을 확증하면서 성령께서는 교황 로마의 “ 욕망 ”을 그 “ 영혼 ”, 즉 유혹적이고 기만적인 성격에 전가시키십니다. 그리스 철학의 계승자인 가톨릭 신앙은 영혼이 새로운 땅에서 발견된 동물과 인간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최초로 제기한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보조 동사의 선택에 기초합니다. 사람은 영혼 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습니다.

성령은 전도서 9:5-6-10에서 그분이 확립하고 계시하신 참된 죽음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새로운 동맹의 글에서 갱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봅니다. 멸망된 “ 바벨론 ”은 “ 영혼이 바라는 열매 ”와 그가 소중히 여기고 추구했던 “ 모든 미묘하고 장엄한 것들 ”을 영원히 “ 잃어버릴 ”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하십니다. “ 너희를 위하여 ”; 그녀와 달리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누실 경이로움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 이 물건의 상인들은 그것으로 치부하여 그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할 것이며 그들은 울고 애통할 것이다.”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성령은 “ 성령으로 부를 누리는 상인들 ”을 표적으로 하십니다. 반복하면 이 장에서 세 번 반복되는 “ 한 시간 안에 ” 라는 표현 과 “화로 다! 비애! ”. 숫자 3은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적 선포의 취소될 수 없는 성격을 확증하라고 주장하십니다. 이 형벌은 신성한 완전함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화로 다! 비애! ”, 상인들이 시작한 이 소리는 계시록 14:8에서 선택된 자들에 의해 시작된 경고의 외침을 반영합니다. “ 그가 무너졌도다! 그녀는 떨어졌다! 큰 바빌론 .” 이 상인들은 “ 고통을 두려워하여 ” 멀리서 그 파괴를 지켜봅니다 . 그리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의 열매를 두려워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을 후회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진영에 두게 되고, 결국 위로할 수 없는 종교적 기만의 희생자들의 잔인하고 인간적인 분노에 의해 멸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공에 대한 상업적 이익의 막대한 책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 상인 ”은 순전히 재정적, 물질적 부를 추구하기 위해 매춘부와 그녀의 최악의 잔인하고 독재적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모든 매우 가증스러운 학대에 대해 눈을 감았으며 그의 마지막 운명을 공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는 프란시스 1세 ^{와 그 이후} 의 종교 개혁 초기부터 개혁 신앙에 맞서 가톨릭 신앙의 편을 들었던 파리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

16절: “ 그리고 화 있을 것이다! 비애! 고운 아마포와 자색 홍색실로 옷을 입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성이여! 한 시간 만에 너무나 많은 부가 파괴되었습니다! »

이 구절은 목표를 확증해 줍니다. “ 큰 바벨론이 세마포와 자색과 진홍색 옷을 입었느니라 ”; 왕들의 망토 색깔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이 “ 보라색 ” 망토로 예수의 어깨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에 부여하신 의미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속죄의 희생물로서 예수께서는 진홍빛 이나 보라색 으로 표시된 그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1:18에 따르면, 택하신 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재림하신 후에 “ 한 시간 ”이던 로마와 그 교황과 그 성직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에서 그들의 신실함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익숙해져야 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강화하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 한 시간에 ” 그러한 멸망이 기적이며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핵무기를 마스터한 우리 시대에 이것은 덜 놀라운 일입니다.

17절: “ 모든 선장들과 이곳으로 항해하는 모든 자와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멀리 서서”

이 구절은 특히 “ 바다를 개척하는 자들, 이 곳으로 항해하는 사공들, 모두 멀리 떨어져 있다”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황 교회 자체가 부유해진 것은 스스로 부유해지려는 왕들의 열망을 이용함으로써였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끔찍한 인구 학살을 자행한 발견 당시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땅의 정복을 지지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남아메리카와 코르테스 장군이 이끄는 피비린내 나는 원정대의 경우였습니다. 이 영토에서 추출된 금은 유럽으로 돌아와 가톨릭 왕과 이에 공모한 교황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해양 측면에 대한 강조는 “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 의 정권으로서 “ 선원들 ” 과의 연결이 그들의 공동 풍요를 위해 강화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8절: “ 그들이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그 큰 성과 같은 성읍이 어디 있느냐? »

“ 어느 도시가 큰 도시 같았나요? » ” 화재의 연기 ”를 본 선원들에게 소리쳐 보세요. 대답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없음. 왜냐하면 538년 이래로 제국 도시만큼 시민과 종교의 권력이 집중된 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는 동방 정교회가 이를 거부한 러시아를 제외하고 지구상의 모든 땅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중국은 그를 환영한 뒤 싸우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여전히 서부 전체와 미국, 아프리카, 호주의 일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세계 최초의 종교 관광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 유적”을 보기 위해 오고, 어떤 사람들은 교황과 그의 추기경들이 거주하는 곳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19절: “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화 있도다. 비애! 바다에서 배를 가진 모든 사람이 그 풍요로 부를 누리던 큰 도시가 단 한 시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

한 시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라는 설명도 함께 제공됩니다. “바다에서 배를 가진 모든 사람이 그 풍요로움으로 부자가 된 큰 도시.” 비난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해양 선주들이 세계의 부를 로마로 가져옴으로써 부자가 된 것은 실제로 교황 정권의 부유함을 통해서였습니다. 로마는 영원한 동맹국인 시민 군주제 세력과 무장 세력에 의해 살해된 반대자들의 재산을 공유함으로써 부를 축적합니다. 역사적인 예로서, 필립 르 벨(Philippe Le Bel)의 왕관과 로마 카톨릭 성직자 사이에 재산이 나누어진 “기사단(Templars)”의 죽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프로테스탄트”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20절: “ *하늘이여, 그를 인하여 기뻐하소서!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인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심판하여 당신에게 공의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

성령은 하늘의 주민들과 땅의 참된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을 초대하여 로마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거룩하게 된 안식일에 충실하게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자들과 관련하여 진리의 하나님의 종들을 견디게 하기 위해 그녀가 겪은 고통과 괴로움에 상응할 것입니다.

21절: “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취하여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떨어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

로마를 “ 돌 ”에 비유한 것은 세 가지 생각을 시사합니다. 첫째, 카톨릭은 단 2:34에서 “ 돌 ”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합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슥 4:7; 시편 118:22의 “ 주 모퉁이 ”; 마 21:42; 그리고 사도행전 4:11: “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 두 번째 개념은 사도 “ 베드로 ”의 뒤를 잇는 교황의 주장에 대한 암시입니다. “ *그의 사업이 성공하고 그의 책략이 성공하는* ” 주요 원인은 단 8:25에서 하나님이 비난하신 것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결코 기독교 교회의 머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 *계략* ”은 또한 “ *거짓말* ”이다. 세 번째 제안은 교황의 종교 거점인 “로마의 성 베드로”라는 명망 높은 대성당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당의 매우 값비싼 건축으로 인해 “면죄부”가 판매되어 개혁 수도사 마르틴 루터의 눈에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설명은 두 번째 아이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티칸 유적지는 묘지로

사용되었지만 , 주님의 사도 베드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은 실제로는 뱀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숭배자이자 제사장인 “마술사 시몬 베드로”의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돌아가서, 성령은 로마의 “ 바벨론 ”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그는 장래의 멸망을 “ 천사가 바다에 던지는 ” “큰 돌 ” 의 “ 큰 뿔돌 ” 의 형상에 비합니다 . 이 비유를 통해 그는 로마를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 만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뿔돌을 그 목에 달리게 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그것을 바다 밑바닥에 던져라 . 그리고 그의 경우에 그녀는 그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스캔들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일단 ” 파괴되면 다시는 발견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22절: “ 수금 타는 자들과 연주하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더 이상 너희 가운데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기술을 가진 기술자도 너희 중에 보이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가운데서 뿔돌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집,

그런 다음 성령은 로마 주민들의 근심과 기쁨을 표현하는 음악 소리를 불러일으킵니다. 한번 파괴되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 피리 또는 나팔 연주자 ” 의 음악 소리와 동일한 효과로 그의 말이 들린 하나님의 사자를 암시합니다 . 마태복음 11:17의 비유에 나오는 이미지. 그는 또한 작업 지시가 과중한 장인들이 내는 “ 소음 ”에 대해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도시에서는 곡식을 갈거나 갈는 데 사용되는 “ 뿔돌 소리 ”를 포함하여 전문적인 활동의 “ 소음 ”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낫, 낫, 칼, 칼과 같은 절단 도구; 이것은 예레미야 25:10에 따르면 이미 고대 칼데아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23절: “ 등불의 빛이 다시는 네 가운데 비취지 아니할 것이요 신랑과 아내의 소리도 다시는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상인들이 세상의 고관들이요 모든 나라가 망하였음이니라” 당신의 마법에 매료되어,

“ 등불의 빛이 더 이상 당신의 집에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 성령은 영적인 언어로 로마에게 성경의 빛이 더 이상 오지 않아 하나님에 따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의 이미지가 반복되지만 여기서는 “ 신랑과 신부의 노래 ”가 “ 더 이상 네 집에 들리지 않을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 됩니다 . 영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선택된 회중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심하고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이 가능성은 파괴된 후에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 네 상인들은 땅의 위인들이었느니라 .” 로마가 지상의 많은 민족에게 가톨릭 신앙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유혹함으로써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종교 사업의 대표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네 마술에 모든 나라가 미혹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톨릭 대중을 사악한 마법사와 마녀에 대한 이교 숭배의 특징을 이루는 “마술”이라고 부르십니다. 반복적인 형식주의 공식, 헛된 반복을 사용함으로써 가톨릭 종교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단 11:39에서 그녀에게 “이방 신”을 돌리고 결코 그녀를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칭호인 “하느님 아들의 대리자”는 그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알려줄 것입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에게서 발견되었음이라.” »

“...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역사 전반에 걸쳐 가혹하고 완고하며 무감각하고 잔인했던 로마는 희생자들의 피를 통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이교 로마의 경우뿐만 아니라 왕이 적수, 즉 자신의 악마적인 본성을 감히 비난하는 하나님의 계몽을 받은 종들을 죽이게 한 교황 로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도(Valdo), 위클리프(Wyclif), 루터(Luther)와 같은 일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았으며 믿음의 순교자, 기둥, 블록, 기둥 또는 교수대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활동이 확실히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될 예언적 전망은 하늘의 주민들과 땅의 참된 성도들에게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원전 747년에 건국된 이래로 로마의 행동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의 세계 정세는 서양이 지구상의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지배함으로써 맺은 마지막 열매입니다. 당시 군주제였던 로마는 자신이 정복한 지상의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이 사회의 모델은 2000년 동안의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의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 이교 로마, 교황 로마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형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모델을 인류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 제자들의 학살을 정당화함으로써 인류를 끔찍한 제3차 세계 대전으로 이끄는 종교적 충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슬람 무장 단체가 목을 베는 행위의 규범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이러한 증오는 1095년 11월 27일 클레르몽페랑에서 우르반 2세가 시작한 십자군 전쟁에 대한 뒤늦은 대응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전투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겟돈

1절: “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

이전 장 18장에 이어, 구속받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천상의 본성을 가리키는 “ *새 이름* ”을 지닌 자신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다스리고 신실한 하늘 천사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 *군중* ” 많은 ”은 *계시록 7장 9절에 인용된* “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와는 다릅니다. 이는 4절에서 “ *24장로* ”로 상징된 지상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 *아멘 !* » 즉, 정말입니다!

구원, 영광, 능력 ”이라는 용어의 순서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 *구원* ”은 창조주 하나님께 “ *영광* ”을 드리는 지상의 선택받은 거룩한 천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공동의 적을 멸하기 위해 자신의 신성한 “ *능력* ”을 부르셨습니다.

2절: “ *그의 판단은 참되고 의로우심이로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 종들의 피를 친히 갚으셨느니라.* »

진실과 진정한 정의에 대한 갈증을 공유했던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제 완전히 만족하고 성취했습니다. 맹목적인 광기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정의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마지막 민족들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악만이 이 선택을 이용했고

괴저처럼 인류 전체를 침범했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 죽음을 주시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될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악의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 정의로운 행위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인을 처벌할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정의는 불의가 됩니다.

3절: “*그리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연기가 영원히 솟아오릅니다.*»

그 이미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를 멸망시킨 불에서 나온 “*연기*”는 로마가 멸망된 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겁의 세월*”은 우주적 천상 및 지상 시련의 승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영원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이 표현에서 “*연기*”라는 단어는 파괴를 암시하고 “*세기의 세기*”라는 표현은 그것에 영원한 영향, 즉 결정적인 파괴를 나타냅니다. 그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최악의 경우, 피의 원수인 로마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영광스럽고 신성한 행동에 대한 기억으로 “*연기*”가 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절: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야훼를 찬양하라!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과 순수하게 남아 있는 세계들을 함께 말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부복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위해 독점적으로 예약된 합법적인 형식입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천상과 지상의 두 가지 표현인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너희여*”라고 말씀하시며, 계시록 14:7의 첫째 천사의 메시지에서 요구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단지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지적인 태도를 요약할 뿐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17-18에서 가르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로 낮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판단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분께 더욱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적어지게 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사도들과 겸손한 제자들과 같이 작은 자 가운데서 뽐힐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큰 자 중에서도 뽐힐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왕중의 왕은 인간 중에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왕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약한 피조물일 뿐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6절: “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소리도 같으니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셨느니라. »

이 구절은 이미 본 표현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 많은 물 소리 ”에 비유된 “ 많은 무리 ”는 계시록 1:15에서 창조주에 의해 표현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 목소리 ”는 너무나 “ 수많은 ” 나머지 단지 우르릉거리는 소리, “ 소음 ”에 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천둥 “. “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셨느니라. » 이 메시지는 계시록 11:17에 있는 “ 일곱째 나팔 ”의 작용을 나타냅니다 . “ 가라사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주께서 주의 큰 권능을 붙잡으시고 주의 나라를 얻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7절: “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 이는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음이니라

“ 기쁨 ”과 “ 기쁨 ”은 충분히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 전투 ”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 영광 ”, “ 신부 ” 안에서, 땅에서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의 모임은 “ 신랑 ”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 미가엘 ”, 야훼와 연합하였습니다. 모든 천상의 친구들 앞에서 구속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하나로 묶는 “ 혼인 ” 잔치를 거행할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서 사라지게 만든 모든 신성한 진리를 회복함으로써 “ 신부는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 “ 준비 ”는 17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종교 역사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특히 1843년 이래로 필수가 된 다양한 복원, 즉 박해받는 개신교 개혁자들에 의해 복원되지 않은 모든 진리에 대한 신성한 요구가 시작된 날짜였습니다 . 이 준비의 완성은 내가 그 빛의 이 버전을 쓰고 있는 2021년 초까지 하나님의 승인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 안에 머물렀던 마지막 반체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8절: “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느니라. ”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

“ 고운 아마포 ”는 “ 마지막 참 성도 들의 의로운 행위 ” 를 가리킨다 . 하나님께서 “ 의롭다 ”고 부르시는 이 “ 행위들 ” 은 1843년과 1994년 이후 연속적으로 주어진 신성한 계시의 열매입니다. 이 일은 2018년부터 그분이 사랑하고 축복하며 “ 준비하는 ”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영감을 드러내는 최신 열매입니다. 결혼식 ”이 구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 성도 ”의 “ 의로운 일 ”을 축복하시면 , 오히려 “ 불의한 일 ”을 하는 거짓 성도들의 진영을 멸하실 때까지 저주하시고 싸우셨습니다.

9절: “ 천사가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단 12:12(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의 개척자들의 관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개척자들은 정확하게 " 144,000 " 또는 Apo.7의 12 X 12 X 1000.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이 기회를 가진 사람들을 신성하게 “ 행복 ” 하게 만드는 큰 행복의 이유입니다 . 이 특권의 혜택을 누리는데 있어 행운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구원의 제안은 원죄를 물려받고 정죄받은 후의 “두 번째 기회”로서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과 미래의 하늘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구두 약속으로 입증됩니다. 마지막 날의 시련 에는 더 이상 의심이 있을 수 없는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택하신 자들은 기록된 내용이 미리 말씀되었기 때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믿음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10절: “ 그리고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는 너와 함께 된 종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피조물에 대한 이러한 숭배를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가톨릭 신앙에 대한 요한의 정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요한의 오류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로마로부터 물려받은 이교의 “태양의 날”을 존중함으로써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개신교 신앙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게 말하는 천사는 의심할 바 없이 이미 예수님의 “대리모”인 다니엘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신성한 선교의 지도자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와 똑같은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는 마지막 때에 반대하는 재림교인이 마지막으로 선출될 때까지 요한의 “ 봉사의 동반자 ” 라는 칭호만을 주장했습니다 . 1843년 이래로 선택받은 자들은 이 구절에 따르면 “예언의 영”을 가리키는 “ 예수의 증언 ” 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림교인들은 이 “ 예언의 영 ”을 1843년부터 1915년 사이에 주님의 사자인 엘렌 G. 화잇이 성취한 사업에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께서 주신 빛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영”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에서 나오는 영원한 선물이며, 무엇보다도 당신 신성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선택하신 종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의 결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를 증거합니다. “예언의 영”은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11절: “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나타나더라. 그를 탄 이는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느니라. »

이 장면에서 성령은 우리를 “ 큰 바벨론 ”의 최종적인 승리와 멸망이 있기 전인 이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성령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의 반역자들과 맞서시는 순간을 예시해 줍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이는 당신의 모습에서 나오십니다. “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 그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 첫 번째 인 ”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 백마 ”를 타고 “ 승리하고 정복하기 위해 ” 출발하는 기수이자 지도자로서 순결과 거룩함으로 표시된 그의 진영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면에서 그가 자신에게 붙인 “ 충실하고 진실하다 ”는 이름은 계시록 3장 14절에 “ 라오디게아 ”라는 이름으로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 이름은 “심판받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 그가 심판하시다 ”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확인됩니다. 성령께서는 “ 정의로 싸운다 ”고 명시하심으로써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의 “ 아마겟돈 전쟁 ”의 순간을 상기시키십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귀가 이끄는 불의의 진영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 주어진 영광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태양의 날”은 콘스탄티누스 1세^와 로마 카톨릭 교황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12절: “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녀의 머리에는 여러 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장면의 맥락을 알면, 우리는 “ 그의 눈 ”이 “ 불꽃 ”과 비교하여 그의 진노의 표적을 바라보고 계시록 9:7-9 이후 연합된 반역자들이 “ 전투를 준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843. “ 그의 머리 ”에 착용된 “ 몇 개의 면류관 ”의 의미는 이 장의 16절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는 “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이십니다. 그분의 “ 기록된 이름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함 ”은 그분의 영원한 신성을 나타냅니다.

13절: “ 그리고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

이 “ 피 물든 옷 ”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 피 ”를 흘리심으로써 얻으신 그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치르신 이 희생에는 그들의 공격자들과 박해자들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의 “ 옷 ”은 다시 “ 피 ”로 덮일 것이지만 이번에는 이사야서 63장과 계시록 14:17~20에 따르면 “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밟힌 ” 그의 원수들의 옷이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 ”이라는 이름은 예수의 지상 봉사의 중요성과 그분이 부활하신 후 땅과 하늘에서 연속적으로 주어진 계시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가

선출한 관리들이 받는 그의 영구적인 가르침은 구원받은 진영과 잃어버린 진영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14절: “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

그 이미지는 영광스럽습니다. 순결함의 “ 흰 ”은 하나님의 진영과 충실하게 남아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의 거룩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 고운 아마포 ”는 그들의 “ 의롭고 ” 순수한 행실을 드러냅니다.

15절: “ 그의 입에서는 만국을 칠 예리한 칼이 나오더라.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

“ 하나님의 말씀 ”은 성경, 즉 선택된 자들을 신성한 진리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한데 모은 거룩한 “ 말씀 ”을 가리킨다. 그분이 돌아오시는 날, “ 하나님의 말씀 ”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택하신 자들의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반역적이고, 항의하고, 반항하는 원수들을 죽이기 위해 “ 날카로운 검 ”처럼 임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파멸은 “ 그가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 라는 표현을 조명합니다. 이 표현은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따라 승리할 선택된 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심판의 일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 “ 포도 ” 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복수의 계획이 여기서 다시 확증됩니다. 이 주제는 이사야 63장에서 전개되는데, 거기서 성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없이 홀로 행하신다고 명시하신다. 그 이유는 이미 천국에 간 선출된 관리들은 반역자들을 강타하는 드라마를 목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 “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 »

“ 의복 ”은 생명체의 활동을 나타내고 “ 그의 넓적다리 ”는 그의 힘과 힘을 암시하는데,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그가 기수로 등장하고 말을 서는 경우에는 “ 허벅지 ”의 근육,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행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병으로서의 그의 이미지는 과거 무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컸다. 오늘날 우리는 기수는 말을 탄 “ 말 ”로 상징되는 인간 집단을 지배하는 교사임을 알려주는 이 이미지의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일은 현재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는 땅의 왕들과 주들의 불의한 명령에 복종하는 그분이 사랑하는 택하신 자들을 위한 참된 위로의 대상이 됩니다. 이 주제는 명확하게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상의 왕권 모델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원칙에 따라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 다른 이교도 나라들처럼 ” 왕에 의해 지상에서 통치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요구에만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최고의 왕은 “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 “가증한”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개혁하기 전에 백성에 의해 전복되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모델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대대로 이 땅에 전수한 모델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지도자는 그의 백성의 종이며 그의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서 얻습니다. 완전한 행복의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명체도 동료 인간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에서 예수께서는 사악한 왕들과 군주들을 멸망시키러 오십니다 . 그들은 그들의 통치가 신의 권리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사악함을 그분에게 돌립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인간 대중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취되고 적용되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결 이후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서 있는 것이더라. 또 큰 소리로 외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르시되 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예수 그리스도 " 미가엘 "은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안식일을 변경한 것을 정당화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짓 기독교인들과 싸우기 위해 신성한 빛의 상징인 태양의 이미지로 오셨습니다 .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태양신보다 더 무서운 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탈하는 새들의 집합을 부릅니다.

참고 : 나는 반역자들이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태양신을 숭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주간 휴식으로 존중하는 첫날이 그의 이교도의 더럽힘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합니다. 과거형의 사용. 마찬가지로, 그들의 선택은 그분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신 시간의 질서에 대한 큰 경멸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날수를 세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개입하시는 동안,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일곱째 날의 이름을 지정하심으로써 주의 순서를 상기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진실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표현하신 진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실함이나 확신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을 믿음으로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개인적인 의견을 듣지도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8장 20절의 다음 구절을 통해 이 원칙을 확증합니다. “ *율법과 증거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는 새벽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 잔치 ”를 준비하셨습니다. “ 어린양의 혼인 잔치 ”는 선택받은 자들 각자를 초대하는 손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합적으로 “ 신부 ”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 잔치 ”는 소름 끼치는 유형이며 그것의 수혜자는 먹이, 독수리, 콘도르, 연 및 기타 종류의 “ 새 ”뿐입니다.

18절: “ 왕들의 살과 지휘관들의 살과 용사의 살과 말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한 자와 종과 작은 자와 큰 자의 고기를 먹으려 함이라. ” »

모든 인류가 멸망된 후에는 시체를 땅 아래에 둘 자가 남지 않을 것이며 예레미야서 16장 4절에 따르면 “ 그 시체가 똥 같이 땅에 퍼질 것이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전체 구절을 찾아봅시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장사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배설물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 이 18절에서 그 영이 제시한 열거에 따르면,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 장 3절에 따르면 “ 말 ”은 국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이끄는 백성을 상징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

19절: “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서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하려 하더라. »

아마겟돈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이었고 지상에서 그 전쟁의 양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참 종들 모두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내려졌으며 반역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신성한 복수의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 군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6장 15-17절에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자유인들은 동굴과 산 바위 속에 숨었습니다. 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군에 의해 살해될 선출직 공무원; 거룩한 안식일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된 택함 받은 자들. 이 안식일은 예수께서 그의 모든 적들과 구속받은 자들에 대해 승리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20절: “ 짐승과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던 자라. ” 그들은 둘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산 채로 던져졌습니다. »

주목 !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 짐승과 거짓 선지자 ”, 즉 1994년 이후 거짓 재림교인들이 합류한 가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앙을 위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최종 운명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유황* ”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죄인들을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기 위해 일곱 번째 천년기 말에만 땅을 덮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대한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실제 가해자와 속았지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죄인 피해자의 차이를 설정합니다. 종교 통치자들은 계 14:9에 따라 땅의 남자와 여자들을 선동하여 형벌이 선포된 “*짐승의 표*”를 존중하게 하였기 때문에 “*산채로 불못에 던져*” 집니다.

21절: “ *그 나머지는 말 탄 이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고 모든 새들은 그들의 살로 만족했습니다.*”

이들 “*기타*”는 기독교 반군이 수행하는 행동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국제 운동을 따르고 일반 질서에 복종한 비기독교인이나 믿지 않는 인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의로 덮이지 못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남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상징된 그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참 하나님의 출현을 목격한 이 타락한 존재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역에 활동하는 큰 종교적 범인들을 위해 예비된 “*불 못*”의 장기간의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심판관의 영광을 마주한 후 갑자기 멸망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일곱 번째 천년 의천년 그리고 최후의 심판

악마의 형벌

1절: “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땅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는 모든 형태의 땅과 인간과 동물의 생명이 없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것을 가리키는 “*심연*”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열쇠*”는 이 황량한 땅에 대한 접근을 열거나 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잡혀 있는 “*큰 사슬*”은 한 생명체가 그의 감옥이 될 황폐한 땅에 묶여 있을 것임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2절: “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지내니라.*” »

계 12:9에서 반역한 천사인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기에 다시 인용되어 있다. 그것은 그의 반항적인 성격으로 인해 초래된 고통에 대한 그의 매우 높은 책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악했기 때문에 그의 영감과 영향을 받는 지배자들이 인간에게 가한 육체적, 도덕적 고통과 고통. " 용 " 으로서 그는 이교 제국 로마를 이끌었고, " 뱀 " 으로서 교황 기독교 로마를 이끌었지만 종교 개혁 당시에는 가면을 벗었고, 그는 다시 무장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연맹과 "드라고나드"가 섬기는 " 용 " 으로 행동했습니다. " 루이 14세의 말이다. 악마 천사들의 진영에서 " 사탄 " 은 유일한 생존자이며, 마지막 심판에서 속죄의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어떤 생물과도 접촉하지 않고 고립된 채 또 다른 " 천년 " 동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시체와 뼈만 가득한 텅 빈 빈 감옥이 됩니다.

황폐한 땅의 무저갱의 천사: 계 9:11의 파괴자 .

3절: “ 또 그를 깊은 데에 던지고 그 위의 입구를 닫고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 후에는 잠시 동안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

주어진 이미지는 정확합니다. 사탄은 천국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덮개 아래 황폐한 땅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손실을 초래했거나 조장했던 인간 규범의 한계에 자신이 종속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생명체들, 하늘의 천사들과 차례로 천사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 위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이후로 그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이상 동료도, 천사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이 구절에서 “땅의”라는 언급 없이 인용한 “ 나라들 ” 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체인 " 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를 지구에 홀로 남아 고립되게 만듭니다. 신성한 계획 에 따르면 마귀는 " 천년 "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며 그 끝에는 풀려나 둘째 부활로 부활한 악한 자들과 접촉하고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 심판은 이 땅에 잠시 동안 다시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거룩한 천사들과 위대한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서 싸우려는 헛된 시도로 정죄받은 반역적인 나라들을 다시 한번 정복하실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재판관은 악인을

4절: “ 그리고 나는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거기 앉은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머리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니 소유.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 보좌에 앉은 자들 ” 에게는 심판할 왕 같은 “ 권세 ” 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 왕 ” 이라는 단어에 부여하신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 “ 미가엘 ” 안에서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인간 피조물과 함께 자신의 심판을 공유하십니다. 지상의 악인과 천상 악인의 심판은 집합적이며 하나님과 공유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받은 택함받은 자의 왕권의 유일한 측면이다. 지배는 선택된 사람들 의 범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상에 지나간 시대에 처음으로 끔찍하고 살인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 바울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30년에서 1843년 사이에 활동했던 로마 이교주의와 편협한 로마 교황 신앙의 희생자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다음 성령은 아포의 “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받는 마지막 선택받은 자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13:11 -15, 지구 시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9년부터 2030년 유월절 전 봄 첫날까지.

계 11:18의 “ *일곱째 나팔* ” 의 선포에 따라 “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니* ” 이것이 이 절 4절에 인용된 “ *천년* ”의 때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간 구속받은 자들의 직업이 되십시오. 그들은 악한 사람들과 타락한 하늘 천사들을 “ *심판* ” 해야 할 것입니다 .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우리가 이생의 일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리요?* »

타락한 반역자들의 두 번째 부활

5절: “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

함정을 조심하세요! “ *다른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 라는 문구는 괄호를 구성하고 그 뒤에 오는 표현인 “ *첫째 부활이니라*”는 “*첫째 부활* ”이라는 표현은 “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첫 번째 죽은 자들 ”에 관한 것입니다. *천년* ”이라고 인용했다. 괄호는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 *불과 유향 호수* ” 의 마지막 심판과 대죄를 위해 “ *천년* ” 끝에 부활할 악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두 번째 “ *부활* ” 에 대한 발표를 연상시킵니다 . “ *둘째 사망* ”을 이루는 것입니다.

6절: “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그들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의로운 심판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 ” 에 “ *천년* ” 이 시작될 때 참여하는 참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 그들은 심판하러 오지 않을 것이며, “ *천년 동안* ”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심판에서 스스로 심판관이 될 것입니다. 발표된 “천년”의 “치세”는 단지 사사 활동의 “치세”일 뿐이며 이 “천년”에 국한됩니다. 영원에 들어간 택함을 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반대로, 심판받는 죽은 자들을 악인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할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악하고 잔인하고 살인적인 종교적 범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선출된 판사들은 심판을 받은 각 존재가 현재의 지상의 첫 번째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둘째 사망”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고통의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불에게 파괴적인 행동의 형태를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동료의 경험이 다니엘 3장에서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늘의 몸과 땅의 몸에는 불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부활의 몸은 현재의 땅의 몸과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은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특별한 특성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지렁이 몸의 고리가 개별적으로 살아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의 몸은 마지막 원자까지 생명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소비하는 속도는 거룩한 재판관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고난의 기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대결

7절: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리라.»

“천년”이 끝나면 그는 잠시 동안 다시 친구를 찾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상의 반역자들을 위해 예비된 두 번째 “부활”의 순간입니다.

8절: “그가 나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전쟁을 하리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네 모퉁이”의 공식으로 표시되는 대로 온 땅에 부활한 “나라들”의 회사입니다. 대지의” 또는 행동에 보편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네 가지 주요 지점. 그러한 모임은 전쟁 전략 수준에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의 “여섯째 나팔”의 제3차 세계 대전 전쟁과 유사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때 모인 사람들에게 원래 에스겔서 38장 2절에 인용된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비교이며, 그 이전에 창세기 10장 2절에서는 “마곡”이 야벳의 둘째 아들인 곳입니다. ; 그러나 작은 세부 사항은 이 연상의 상대적인 측면만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 마곡은 곡의 나라이고, 그것은 제3차 세계 대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군인을 투입할 러시아를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역사; 이는 서유럽 대륙 땅에 대한 엄청난 확장과 빠른 정복을 정당화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바다의 모래”에 비유하심으로써 마지막 심판의 희생자 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 계시록 12:18 또는 13:1(성경 버전에 따라)에 계시된 마귀와 그의 인간 대리자들에 대한 그들의 복종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구제할 수 없는 반역자인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기를 다시 희망하기 시작하고, 다른 정죄받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과 그분이 택하신 자들에 맞서 싸우도록 설득합니다.

9절: “ 그들이 지면에 올라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 그러나 적이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적을 붙잡을 수 없다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처럼 불이나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 하늘로부터 오는 불 ”이 “ 성도의 진 ”에 있어도 그 불이 아무 효력이 없는 곳 에서도 그들을 치느니라 . 그러나 이 불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그의 택하신 자들을 “ 삼키느니라 ”. 스가랴 14장에서 성령은 “ 천년 ” 으로 구분된 두 전쟁을 예언합니다 . “ 여섯째 나팔 ”에 앞서 성취되는 일이 1절부터 3절에 제시되고, 나머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행해지는 두 번째 전쟁에 관한 것이며, 그 후에는 새 땅에 세워질 우주 질서에 관한 것이다. 4절에서 그 예언은 다음 과 같은 용어로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자의 땅 강림을 상기시킵니다. 올리브 산이 가운데와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형성될 것이다.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 마지막 심판의 성도들의 진영은 이렇게 식별되고 위치가 결정됩니다. 하늘의 “ 천년 ”이 끝난 후에야 예수의 “ 발 ”이 땅, “ 예루살렘 맞은편 동편 올리브 산 ”에 “ 놓일 ”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잘못 해석된 이 구절은 “천년왕국”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0절: “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

계시록 19장 20절에 나타난 종교적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을 시행할 때가 왔다. 이 구절의 발표에 따르면, “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가 함께 “ 불과 유황 못에 산 채로 던져진다 ”고 하였는데, 이는 “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의 작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 여기에는 지구 표면 전체에 걸쳐 지각 지각의 균열로 인해 방출되는 녹은 지하 마그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해”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 “불”은 반역자들의 살을 삼키고 그들 자신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의식은 없지만 죄가 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지상과 천상의 범인들은 계시록 9:5-6 이후에 예언된 “ 둘째 사망 ”의 “ 고통 ”을 겪게 됩니다. 거짓 안식일 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이 끔찍한 종말을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둘째 사망*”에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무궁*”이라는 표현은 “*고통*”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일으키는 “*불*”의 파괴적인 결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정적이고 영원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심판의 원칙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이 없더라.*”

완전한 순결의 “*흰*”, 그 “*큰 보좌*”는 모든 생명과 사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히 순수하고 거룩한 성품의 이미지입니다. 그 완전성은 마지막 심판이 내린 황폐화되고 파괴된 측면에서 “*땅*”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모든 기원의 악당들이 멸망되었고, 상징의 시대도 끝났으며, 천상 우주와 그 수십억 개의 별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구 차원의 “*하늘*”과 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은 제거되어 무(無)로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날에 영생을 얻을 시간입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곧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 부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며,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생애 처음으로 동일한 운명, 죽음을 부과합니다.

이어지는 이 구절들은 마지막 심판의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단 7:10에 이미 예언된 바와 같이, 천사들의 증언의 “*책들*”이 “*열려*” 있으며, 이 보이지 않는 증인들은 정죄받은 자들이 범한 허물과 범죄를 지적하고 각 사건의 심판 후에 택하신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소할 수 없는 최종 최종 평결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면 선고된 판결이 집행됩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놓았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놓았느니라.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에 정의된 원리는 두 가지 부활 모두에 적용됩니다. “*죽은 자*”는 “*바다*”나 “*땅*”으로 사라집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실체를 불러일으키는 “*had*”라는 형태에 주목해 봅시다. 참으로 이 이름은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갓다*”는 “*땅*”의 “*먼지*”이다. 죽음은 때때로 인간을 불로 태워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일반적인 장례 의식에 따라 “ *흙으로 돌아가지* ”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성령께서 “ *죽음* ”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당한 사람들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명시하시는 이유입니다. 완전히 분해된 인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핵 화재로 인한 분해를 이해함으로써 .

14절: “ *사망과 음부도 불뿔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뿔이다.* »

' *죽음* '은 생명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원리였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은 생명의 체험을 가진 피조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친구를 선택하실 새로운 후보자를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이루어지고 악인들이 멸망당하고 나면, “ *사망* ”과 “ *땅* ”은 “ *죽은 자들이 있게* ” 되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파괴적인 원칙은 그 자체로 하나님에 의해 파괴됩니다. “ *불뿔* ” 뒤에는 생명과 그 피조물을 비추는 신성한 빛을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15절: “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뿔에 던져지더라* ” »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인간 앞에 두 가지 길,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운명, 두 운명만을 두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신명기 30:19). 선택받은 자들의 이름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또는 더 멀리, 자유롭고 독립적인 피조물을 함께 제공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 계획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이 선택은 그에게 육신의 끔찍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지만 사랑에 대한 그의 열망은 그의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그는 그의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천상의 삶과 지상의 삶에 대한 우리 이야기의 상세한 성취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창조물이 언젠가는 자신의 치명적인 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의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택하신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전생애의 간증을 아시고 각 시대와 시대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놀라움이다.

그분은 또한 인간 재생산 과정에서 생겨난 무관심하고 반항적이며 이상 숭배하는 수많은 인간 피조물의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계시록 19:19-20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차이는 그의 모든 피조물에 적용됩니다. 그들 중 죄가 덜한 사람들 중 일부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 *둘째 사망의 불의 고통* ”을 알지 못한 채 “ *하나님의 말씀* ”에 의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 그러나 두 번째 “ *부활* ”은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 피조물과 하늘에서 창조된 천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11절에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 *기록되었으되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으리라 하였느니라. □ · □ · 모든
허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영광스럽게 된 새 예루살렘이 상징됨

1절: “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

천년 이 끝난 후 새로운 다차원 질서가 확립되면서 영감을 받은
감정을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 이 순간부터 시간은 더 이상 계산되지
않으며 살아있는 모든 것은 끝없는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새롭거나 더 정확하게는 새로워졌습니다. 죄악시대의 “ 하늘과 땅 ”은
사라졌고, “ 사망 ”의 상징인 “ 바다 ”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지구의 모습을 바꾸셨고, 위험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그 주민들에게 사라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다도
없고, 가파른 바위 봉우리가 있는 산도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영광과 평안이 있는 첫 번째 “ 예덴 ” 과 같은 넓은 동산이 되었습니다 .
이는 Rev.22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2절: “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

새 예루살렘 ” 에서와 같이 이 구절에서 “ 거룩한 성 ” 이라고
명명된 땅, 예수 그리스도의 “ 신부 ”, “ 남편 ” 으로 명명된 땅에서
구원받은 선택된 성도들의 모임 을 환영할 것입니다 . 그녀는 “
하늘에서 내려오며 ”, 곧 구세주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마지막 심판인 천년 심판이 끝날
때 처음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 그 후 그녀는 천국으로 돌아가 “ 새
하늘과 새 땅 ” 이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 하늘
” 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상의 존재를 두 개의 반대 진영으로 나누는 것을

암시하는 복수형 “ 하늘 ”과는 반대로 완전한 연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3절: “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

“ 새 땅 ”은 귀한 손님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 하나님 자신 ”이
옛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마귀와 죄와 죽음을 물리치신 이 땅에
새 보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장막 ”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천적 몸인 “ 미가엘 ” (= 하나님과 같은 자)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는 선택된 자들의
모임을 상징합니다. “ 성막, 성전, 회당, 교회 ”, 이 모든 용어들은 사람이
건축한 건물이 되기 이전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들 각각은 신성한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첫째,
“ 성막 ”은 성막 위에 기둥처럼 내려오는 구름에 의해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인도되는 히브리인의 애굽
출구를 가리킨다. 그 당시 그는 이미 “ 남자들과 함께 ” 있었습니다.
이는 이 구절에서 이 용어의 사용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 “ 성전 ”은 “
성막 ”의 견고한 건축을 표시합니다. 솔로몬 왕 밑에서 명령을 받고
수행된 일. 히브리어로 ‘ 회당 ’이라는 단어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반역적인 유대 민족을 “
사탄의 회 ”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단어 “ 교회 ”는 그리스어(ecclesia)로
모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기독교 가르침을 전파하는 언어.
예수께서는 “ 그의 ” 예루살렘 ”의 “ 성전 ”에 있는 “ 몸 ”이며, 에베소서
5장 23절에 따르면, 모임인 그의 “ 교회 ”는 “ 그의 몸 ”입니다. 교회의
머리시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는 교회의 구주시니라 .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 그들을 떠나셨을 때 사도들이
겪었던 슬픔을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는 “ 새 땅 ”에 설치되는 선택받은 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7장의 “ 열두 지파 ”의 열두 이름의 메시지는
그들의 승리에 대한 순수한 기쁨과 행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절: “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의 연관성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7장이
끝나는 다음과 같은 신성한 약속을 찾아 확인됩니다. “ 그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임이라 ”. 울음의 치료법은 기쁨과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성취될 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미래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 죽음과 애통과 부르짖음과 고통 ”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송고하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만물의 갱신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천년” 끝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 후에만 사라질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악의 영향력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실 때 그칠 것입니다.

5절: “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쓰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으로 자신을 맡기시며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니라 .”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상 뉴스에서 이미지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모든 신비와 놀라움을 간직한 “ 새 땅과 새 하늘 ” 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 천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됩니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얻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규범에 어긋나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의 겸손한 자세와 희생, 극기의 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을 강화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은 충분히 정당합니다. “계시되고 표현된 진리의 확실성”이 참된 믿음의 표준입니다.

6절: “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리라.”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십니다. ” 끝났어! » ; 시 33:9: “ 그가 말씀하시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주문하면 존재합니다 .” 그의 창조적인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성취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기독교 시대의 계획은 서기 30년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다시 살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발표된 일들도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1:8에서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 시작과 끝 ” 이라는 개념은 죄인들의 멸망과 죽음 이후 일곱 번째 천년기의 “ 끝 ” 에 완전히 끝날 지상 죄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 상업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은 “ 생명수 샘에서 ” “ 값없이 ” 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이 “ 생명수 ” 의 “ 근원 ” 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대가가 없습니다. 이 설명은 교황권으로부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사면을 의미하는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정죄합니다.

7절: “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자신의 “승리”를 통해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인정하는 왕의 영광을 “상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택하신 자들, 또한 “승리자”들이지만, 그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창조하신 “이 새로운 것들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사도 빌립에게 자신의 신성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으나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 인간 메시아는 자신을 “영원한 아버지”라고 소개함으로써 이사야 9장 6절(또는 5절)에 예언된 그와 관련된 선언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택하신 자들 곧 그들의 형제요 아버지를 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의 형제요 아들들이니라. 그러나 부르심은 개별적이므로 성령께서는 “편지”라는 주제의 7시대 끝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죄에 대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

인간 품성에 대한 이러한 기준은 이교 인류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기서 거짓 기독교 종교의 열매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정죄는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서 예수님에 의해 분명하게 표현되고 계시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20에 따르면, “...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은 *마지막 심판에서 “ 짐승과 거짓 선지자 ”*, 즉 카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앙 의 몫이 될 것입니다 . 거짓 기독교는 거짓 유대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우선 순위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마 15:2)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비난하신 적이 없었으며 마 15:17~20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로 들어가고 은밀한 곳에 던져지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 마찬가지로 거짓 기독교는 주로 육신의 죄를 징계함으로써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숨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3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 분명히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의 순결함으로 개종한다는 조건하에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 각다귀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 ”고 또는 “ 이웃의 눈에 있는 지푸라기를 보고 이웃의 눈에 있는 지푸라기를 본다 ”고 비난하신 “ 소경 인도자 ” 를 비난하시는 것은 거짓 종교이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 ”(눅 6:42, 마 7:3~5).

예수께서 나열하신 이 모든 성격 기준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단 하나만 당신의 본성과 일치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맞서 싸우고 당신의 결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역경이다.

이 열거에서, 그 영적 의미를 옹호하면서, 신성한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황 로마 카톨릭과 같은 거짓 기독교 신앙으로 비난받은 결점을 인용하십니다. 그분은 “ 겁쟁이들 ” 을 표적으로 삼으심으로써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은 모두 “ 이기는 자에게 ”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싸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 신실한 증인 ” 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겁쟁이를 떠나십시오. “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 (히브리서 11:6); 나가라, “ 믿지 않는 자 ”. 그리고 본받아야 할 본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지 않는 믿음은 불신앙일 뿐입니다. “ 가증한 것 ” 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며 이교도들의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출구, “ 가증스러운 ”. 계 17:4-5에 의하면 “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 인 큰 바벨론 으로 인한 누수입니다. “ 살인하는 자 ” 는 여섯째 계명을 범합니다. 출구, “ 살인자 ”. Dan.11:34에 따르면 살인은 가톨릭 신앙과 “ 위선자 ” 의 개신교 신앙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정숙하지 못한 ”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뻔뻔한 자 ” 를 종료하십시오. 그러나 가톨릭 신앙을 ‘ 창녀 ’ 에 비유하는 영적인 ‘ 불손 ’ 은 천국의 문을 완전히 닫아 버립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영적 “ 간음 ”, 곧 마귀와의 거래 로 이어지는 “ 부정 ” 을 정죄하십니다. “ 마법사 ” 는 악마적 강신술을 따르는 가톨릭 사제이자 개신교 추종자입니다. 출구, “ 마술사 ”; 이 행동은 계시록 18:23에서 “ 큰 바벨론 ” 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우상 숭배자 ” 는 또한 가톨릭 신앙, 즉 숭배와 기도의 대상인 조각된 우상을 지칭합니다. 출구, “ 우상 숭배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44에 따라 “ 마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버지 ” 를 영적 아버지로 둔 “ 거짓말쟁이들 ” 을 언급하셨습니다. “ 거짓말쟁이 ” 를 종료하세요.

9절: “ 마지막 일곱 재앙의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 »

“ 마지막 일곱 재앙 ” 의 비극적이고 끔찍한 시기를 승리로 통과할 선택된 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 그들의 보상은 죄의 땅의 이 마지막 역사적 국면에서 “ 어린양의 아내 ”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성하고 대표하는 승리한 택함받은 자들에게 예비된 영광을 보는 것(“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 이 될 것 입니다 .

“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 는 앞 구절에서 인용한 거짓 기독교의 기준에 맞는 인간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 마지막 일곱 재앙 ” 은 하나님께서 곧 무너진 진영에 주실 몫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승리하고 구속받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돌아갈 부분을 상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천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그 모임이 집합적으로 “ 어린 양의 신부 ” 를 구성하는 선택된 자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 어린양의 아내 ” 를 명시함으로써 성령께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가르침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관계는 선택받은 자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만 성취됩니다. .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완전한 가치를 창조하신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영이 주신 이 교훈에 비추어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여자 ” 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 신부 ”, “ 택하신 자 ” 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 여자 ” 의 형상과 연결시킵니다 .

영광스러운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10절: “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

“ 천년 ” 에 대한 하늘 심판이 있는 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간으로 이동합니다 .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기독교의 영적 “ 열두 지파 ” 중 “ 인을 받은 ” 재림교인 “ 144,000 명 ” 이 “ 시온 산 ”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천년 ” 후에 예언된 일은 “ 새 땅 ” 의 현실에서 성취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로 선택된 자들은 영원하게 된 영광스러운 천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 하나님의 영광 ” 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천체의 밝기는 다르며, 지구의 밝기도 다릅니다. 하나는 태양의

밝기이고, 다른 하나는 달의 밝기이고, 다른 하나는 별의 밝기입니다. 별조차도 다른 별과 밝기가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몸은 썩을 것으로 심었습니다. 그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시며 비천한 것으로 심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는 병약하게 씨를 뿌리고 힘을 얻어 일어선다. 그는 동물의 몸으로 뿌려지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동물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11절: *그 광채가 아주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투명한 벽옥 같더라.* »

앞 구절에서 인용한 “하나님의 영광”은 계4:3의 “벽옥”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면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확증된다. 두 구절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심판의 문맥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벽옥”도 “홍보마”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선택받은 분은 “수정처럼 투명한” 완벽한 순결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더라. 그 문에는 열두 문이 있고 문 위에는 열두 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을 썼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안한 이미지는 “**성전**”의 **상징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20-22에 언급된 영적 **성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잘 조화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나 이 정의는 사도 시대의 선출된 자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높은 벽**”은 30년부터 1843년까지 기독교 신앙의 진화를 이미지합니다. 오늘날까지 사도들이 이해하고 가르친 진리의 표준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이 321년에 제정된 안식일의 변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깨뜨린 이유이다.** 이 예언의 계시를 참으로 받는 자들과 관련하여, 1843년 이래로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재림교 신앙을 형상화하는 상징들은 “**빌라델비아**”의 선출된 관리들 앞에 “**열두 문**”, “**열린**” 형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계 3:7) 그리고 “**사데**”의 타락한 “**살아 있는 죽은 자들**” 앞에 “**닫혀**” 있었습니다(계 3:1).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으로 인 맞은 12지파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라.**” »

네 가지 주요 지점으로 향하는 “**문**”의 이러한 방향은 그 **보편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어 어원인 “카톨릭코스” 또는 “가톨릭”으로 번역된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종교를 비난하고 불법화합니다. 따라서 1843년 이래로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보편적 사명을 위해 그분의 “**영원한 복음**”(계

14:6)을 말기신 유일한 기독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가 영적 선택받은 자에게 밝히는 진리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재림교회는 1843년 봄에 처음으로 예상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함으로써 촉발된 종교 부흥 운동의 형태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 봄으로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최종 재림까지 이 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은 끊임없는 진화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운동"이 아니라 "막힌" 죽은 제도가 됩니다. 전통과 종교적 형식주의를 선호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이미 믿지 않는 최초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반역적인 유대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시간순으로 자세한 설명

기독교 신앙의 기본

14절: “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

구절 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30년에서 1843년 사이의 기간을 포괄하고 321년과 538년에 로마에 의해 가르침이 왜곡 된 사도 적 기독교 신앙을 이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2:4-5에 따르면 “ **산 돌** ”에 대하여: “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 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산 돌로서** 자신을 건축하여 신령한 집,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

15절: “ 나에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느니라. »

영화롭게 된 택함받은 자의 가치를 재림교회 시대(12문)와 사도적 신앙(기초와 성벽) 에 대하여 “ 측정 ”하거나 판단하는 문제이다.). 계 11:1의 “ 갈대 ”가 형벌의 도구인 “ 막대와 같다 ”면 정반대인 이 절의 “갈대”는 “ 금 갈대 ”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따르면 “ 금 ”은 “ 연단으로 정결케 된 믿음 ”의 상징입니다. “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그러나 불로 연단하여)보다 더 귀하여 칭찬을 받게 하려 함이라 ” 영광과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16절: “ 그 성은 모양이 정사각형이요 길이와 너비가 같았더라. 그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더라. 길이, 너비, 높이가 동일했습니다. »

“ 정사각형 ”은 표면적으로 완벽한 이상적인 모양입니다. 그것은 원래 모세 시대에 건축된 성막의 “지성소” 또는 “지성소” 측면에서 발견됩니다. “ 사각형 ”의 모양은 지적인 참여의 증거이며, 자연은 완벽한 “ 사각형 ”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은 세 개의 “

사각형"이 배열되어 형성된 히브리 성소의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두 개는 "거룩한 곳"을 위해 사용되었고, 세 번째는 "지성소" 또는 "지성소"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이 곳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위해 예비되었기 때문에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정시에 속죄하실 것입니다. 이 삼분의 일의 비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프로젝트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선택하는 데 6000년 또는 2000년의 세 배를 바친 이미지였습니다. 이 선택이 끝나면 선택된 선택된 사람들은 구원 프로젝트의 결과를 예언하는 "지성소"의 "정사각형"으로 이미지화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이루어진 화해로 인해 이 영적인 장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묘사된 성전의 영적 "광장"은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속죄의 죽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30년 4월 3일에 그 기초를 얻었습니다. "사각형"의 이미지는 상징적인 숫자가 "3"인 진정한 완벽함의 정의를 완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바로 '큐브'의 그것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에 있어서 동일한 척도를 갖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선택된 자들의 모임인 완벽한 "입방체" 완전함을 상징하는 "셋"이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정사각형 도시(심지어 입방체: "높이"), 그 기초와 12개의 문" 건설이 완료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에 입방체 형태를 부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시하는 "도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측정된 숫자 인 "12,000 스다디아"는 요한계시록 7장의 "인봉된 자 12,000"과 같은 의미입니다. 참고로 $5 + 7 \times 1000$, 즉 사람(5) + 신(7) x 무리(1000)입니다. "경기장"이라는 단어는 빌 3:14에서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하늘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경주에 참여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 소명. » ;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은 다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승리할 수 있도록 달리세요." 승리한 선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았습니다.

17절: "그가 성벽을 측량한즉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

"규빗" 뒤에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숫자 "5"로 상징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 즉 그 숫자가 "7"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두 숫자의 합은 "12"가 되며, 이를 "제공"하면 "144"가 됩니다. "사람의 척도"라는 정확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선택된 "사람들"의 심판을 확증해 줍니다. 따라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체결된 거룩한 동맹의 계획의 모든 단계에 존재합니다. 즉, 12명의 히브리 족장, 12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12지파는 1843년부터 1844년까지 확립된 재림교회 신앙을 상징합니다.

18절: “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

이러한 상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선택자들이 1843년까지 보여준 믿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십니다. 그것들은 종종 빛을 거의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간증은 그를 사랑으로 보상하고 채워주었습니다. 이 구절의 “ 순금과 순금 ”은 그들의 영혼의 순결을 예시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 자신은 그들을 2030년 봄에 “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 참된 부활인 “첫째 부활 ”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사도적 기초

19절: “ 그 성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

20절: “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마노요, 일곱째는 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히아신스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 »

하나님께서서는 보석을 깎거나 다듬을 때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자신을 망칠 정도로 재산을 낭비하며, 그러한 것에 대한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감정을 사용하여 그의 사랑하고 축복받은 택하신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 보석 ”은 선택된 사람들이 동일한 복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각 사람은 분명히 육체적 수준에서, 특히 영적 수준에서, 성격 수준에서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 열두 사도 ”가 제시한 예는 이러한 생각을 확증해 줍니다. Jean과 Pierre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차이점을 가지고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참된 풍요로움은 마음과 온 영혼에서 그분을 첫째 자리에 모실 수 있었던 이러한 다양한 개성에 있습니다.

재림교

21절: “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광장은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

1843년 이래로 선택된 선택된 자들은 구주의 심판관의 심판에서 그들보다 앞서 있었던 자들보다 더 큰 신앙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 하나의 진주 ” 상징은 복된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43년 이래 선택된 재림교회의 선택된 자들이 그분의 모든 빛을 받기에 합당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마지막 반체제 재림교인만이 마지막 완전한 형태의 예언적 설명을 받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마지막으로 선택된 재림교인이 사도 시대에 구속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프로젝트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교에 빠진 로마 교황 카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앙에 의해 왜곡되고 공격받은 **모든 교리적 진리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체험을 드러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1843년 봄에 다니엘 8장 14절의 법령을 적용하는 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중요성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저녁 이천삼백 시까지 거룩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진주”는 다른 보석과 달리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잘라서는 안 되는 “정의화된 거룩함”의 이미지입니다. 이 마지막 문맥에서 성결하게 된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은 요한계시록 14:5에 따르면 조화롭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언적 안식일과 이에 의해 예언된 일곱째 천년왕국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구원 계획의 모든 완전함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며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3:45-46에 나오는 그분의 “값진 진주”는 그분이 주고자 하신 모든 영광을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큰 변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성 광장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치 투명한 유리 같았습니다.» 그는 이 “순금의 장소” 또는 순수한 믿음을 인용함으로써 요한 계시록 11장 8절에서 “소돔과 애굽”이라는 이름을 받아 죄의 형상을 지닌 파리의 장소와 비교를 제안합니다.

22절: “나는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그의 성전이시며 어린양도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징의 시간은 지나갔고, 택함받은 자들은 신성한 구원 프로젝트의 참된 성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집합의 “성전”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과 현실에 들어가면 골로새서 2:16-17에 따라 예언된 “그림자”가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꾀론하지 못하게 하라. : 그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 이나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주목 ! 이 절에서 “안식일”이라는 공식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후 일곱째 날에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매주 안식일” 이 아니라 종교적 절기에 따른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옛 언약에서 예언되었던 축제 의식이 쓸모없게 된 것처럼, 영원으로의

입성은 지상의 상징들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창조 정신의 눈에 보이는 표현이 될 참되고 신성한 "성전"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필요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비추고 어린 양이 그의 횃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의 교대로 존재가 정당화되는 현재의 태양과 같은 광원 없이 영구적인 빛 속에서 산다. "밤이나 어둠"은 죄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가 해결되고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4절에서 "좋다"고 선언하신 "빛"을 위한 여지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조물이 그를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횃불"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석은 큰 변화를 드러낸다. 천국에 들어가면 선택된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동맹의 상징인 "해"나 옛 유대 동맹의 상징인 "달"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따르면 둘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서 사람들이 그분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계몽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요약하자면, 선택된 자에게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4절: "만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국가들"은 해의 왕국에 있거나 해의 왕국이 된 "국가들"입니다. "새 땅" 역시 하나님의 새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선택된 자들을 구성하는 "땅의 왕들"은 "새 땅"에 세워진 이 영원한 생명에서 영혼의 순결의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흔히 반역적인 지상 권세를 경멸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이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은 계 4:4과 20:4에서 "보좌들"에 "앉아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택하신 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5장 10절도 읽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5절: "그 성문들은 낮에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메시지는 현재의 불안이 사라졌음을 강조합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날의 빛 속에서 평화와 안전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에서 어둠의 형상은 신의 '빛'과 마귀의 진의 '어두움'의 싸움으로 인해 이 땅에만 창조된 것입니다.

26절: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거기로 돌아오리라."»

6000년 동안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족, 민족, 국가로 조직해 왔습니다. 기독교 시대에 서구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왕국을 국가로

바꾸었고, 기독교인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영광과 존귀” 때문이었습니다.

27절: “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이 그분께 큰 요구가 되는 주제임을 확증하십니다. 신성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완벽하게 순수한 영혼만이 영생을 위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성령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의 “사데”의 메시지에 있는 타락한 개신교 신앙과 추종자들이 “가증한 것과 종교적, 민사적 거짓말 예” 자신을 내어주는 가톨릭 신앙을 가리키는 “더러워진” 자들에 대한 거부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귀신들에게 속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성령께서는 놀라운 일은 인간에게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이들의 이름이 창세 이후로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생명책에” 라고 명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서는 구원 계획에서 비기독교적인 모든 종교를 제외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기독교 종교를 배제함을 계시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3-14절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좁고 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끝없는 영원의 날

신의 선택에 따른 지상 시간의 완성은 Apo.21:7 x 3으로 끝났습니다. 이 책에서 22라는 숫자는 역설적으로 역사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에 따르면 “ 모든 것 ” 에 관한 이 갱신은 “ 새 땅과 새 하늘 ” 과 연결되어 있으며 둘 다 영원합니다.

1절: “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 ” »

“ 생명수의 강 ” 의 이미지로 영원해진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 피조물이며, 눈에 보이는 현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업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의 “ 왕좌 ” 에 의해 제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 어린양 ”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영원은 이 희생이 택자들에게 낳은 새로운 탄생의 열매입니다.

“ 강 ” 은 다량의 담수 흐름입니다. 그는 그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활동하는 삶을 상상합니다. 담수는 인간 육상 신체의 75%를 구성합니다. 이는 신선한 물이 그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필수적인 그의 말씀을 묵시록 7장 17절에 따르면 “ 생명수의 근원 ” 에 비유하신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2:13에 따르면 “ 생수의 근원 ” 입니다. 그분의 계시록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 물 ” 이 “ 백성들 ” 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 강 ” 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이 영원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2절: “ 성 광장 중앙과 강 두 독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번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 »

이 두 번째 이미지에서, “ 생명나무 ”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임의 “ 장소 ” 에서 그분 주위에 모인 택하신 자들의 모임의 “ 한 가운데 ” 에서 발견됩니다. 그분은 그들 가운데 “ 한 가운데 ” 계시지만 또한 “ 강의 두 독 ” 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측면에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은 편재합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이 “ 나무 ” 의 열매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 생명 ” 입니다. 왜냐하면 “ 나무의 열매 ” 는 우리 지상 일 년의 “ 12개월 ” 마다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생에 대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영원히 보존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 열매로 판단하는” 과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는 창세기 2장 9절의 처음부터 “생명나무”의 상징적 이미지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앞사귀”의 장식을 “의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그의 “옷”은 그의 의로운 행위를 상징하며, 따라서 그에게 구원을 빛진 선택된 자들의 죄로부터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앞사귀”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운 일은 나무의 “앞사귀”로 육체를 덮었던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택자들이 물려받은 원죄의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죄의 경험을 통해 발견된 영적 나체.

3절: “더 이상 저주를 받을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미래 시제로 표현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들이 죄를 이 땅에서 제거하실 때까지 여전히 악과 그 결과와 싸워야 할 택자들에게 격려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든 하와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저주, 즉 저주(anathema)입니다. 옛 언약의 이스라엘의 창조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전히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낮에는 구름처럼, 밤에는 화려하게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성소의 지성소는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조건으로 오로지 그를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상의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땅에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종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의 봉사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4절: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구성합니다. 안식일의 안식은 이것에 대한 외적인 “표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의 조화로운 대조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네 동물”, 즉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로 상징하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 왕족이고 강하지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인간의 모습이지만 천상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또한 신성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그 분께로 모아졌습니다. “이마”에는 사람의 두뇌, 즉 사고와 성격의 운동 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기 넘치는 두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제시하신 진리의 표준을 연구하고, 반영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두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조직하신 사랑의 표현을 사랑했으며, 그분과 함께 살 권리를 얻기 위해 확립된 규칙에 따라 그분의 도움으로 악을 극복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이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이 그들의 승리를 설명합니다. 특히 재림교회 신앙의 마지막 시험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반역적인 “*짐승*”의 이름을 새기는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도 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취심이라.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밤*”이라는 단어 뒤에는 죄와 악을 상징하는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등불*”은 성경, 곧 “*그의 빛*”의 표준, 즉 선과 선의 표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리킨다.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이며, 선택된 자들은 그것의 신적인 영감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현재 죄의 땅에서 영생으로 이끄는 본질적인 “*계몽*”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이 확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셨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되다*”는 하나님의 확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독자에게 예언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에 그의 영생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확증에 직면하여 인간은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신 오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를 영성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은 다양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장은 완전히 정당합니다. 영혼에 대한 위험은 실제적이고 항상 존재합니다.

이 예언에서 보기 드문 문자적 성격을 나타내는 이 구절에 대한 읽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구절에는 상징이 없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영감이시며, 마지막 계시로 “가브리엘”을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에게 이미지로 계시하셨다는 확증이 있습니다. , 2020년에는 “*즉시*” 일어날 예정 이거나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가장 끔찍한 시대를 건너야 할 것이다. 죽음, 핵 파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얼룩진 끔찍한 시대; 인간과 자연은 사라질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끝까지 “*지키는*” 만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

즉시 ”라는 부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갑자기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가속이나 감속 없이 규칙적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8장 19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정하여졌나니*”라고 상기시키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진노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선택을 위해 계획하신 6000년의 끝, 즉 2030년 4월 3일 이전의 봄의 첫날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8절: “*이 일을 듣고 본 나는 요한이라. 내가 듣고 본 후에 그것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앞에 부복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러 오십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 동사 “프로스쿠네오”는 “앞에 엎드리다”로 번역됩니다. “송배하다”라는 동사는 “불가타(Vulgate)”라는 라틴어 버전의 유산입니다. 분명히 이 잘못된 번역은 마가복음 11:25에 나오는 그리스어 동사 “istemi”의 또 다른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배교한 기독교의 종교적 관습에서 육체적 부복을 포기하고 “서서” 기도하는 길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stékété”라는 형태는 “확고함을 유지하거나 인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L.Segond 버전에서 사용된 Oltramare 번역은 문자 그대로 “서다”를 의미하는 “static”으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성경 번역은 참으로 신성한 것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에 대한 무가치하고 오만하며 터무니없는 태도를 기만적으로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 번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의심스럽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계시록 9:11에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의 “파괴적인” 사용(*Abaddon-Apollyon*)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 진리는 히브리어로 보존된 원본 텍스트에서만 찾을 수 있지만 사라지고 새 언약의 그리스어 기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 있는” 기도가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 나타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트럼펫.*” 역설적이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악마가 그의 추종자들과 희생자들을 이끌고 하느님의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한 새긴 형상들 앞에 엎드리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가톨릭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무시하는 계명인데, 로마서 번역판에서는 이 계명이 삭제되고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 “*그가 내게 이르되 삼가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하더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동료 종이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요한이 범한 잘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경고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기독교의 주된 결점을 구성합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체포당할 때까지 무기를 들고 명령하심으로써 마지막 교훈을 조직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장면을 조직하셨습니다. 때가 왔을 때 그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교훈이 주어졌을 때 그 여자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은 “*나는 너의 동료 종이니라*”라는 설명을 받습니다. “*가브리엘*”을 포함한 “*천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 앞, 새긴 형상이나 그려진 형상 앞에 엎드리는 것을 십계명 중 둘째에서 금하셨습니다. 아이돌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형태. 따라서 우리는 천사들의 반대되는 행동을 주목함으로써 이 구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카엘 다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천사의 창조물인 가브리엘은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반면, 사탄은 유혹적인 모습으로 “*처녀*”로 변장하여 그녀를 숭배하고 섬기기 위한 기념비와 예배소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빛나는 어둠의 가면이 드리워집니다.

천사는 더 나아가 “*너희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문장과 계시록 1:3의 문장 사이에서 우리는 해독 시점인 1980년과 현재 버전인 2020년 사이의 경과 시간으로 인한 차이를 주목합니다. 이 두 날짜 사이에 “*읽는 사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독된 빛을 공유하게 하였고 그들은 차례로 “*선지자들*”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곱셈은 계시된 진리를 듣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부름을 받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1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더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따르면 요한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요한을 우리의 마지막 시대로 옮기셨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책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는 명령은 책이 완전히 봉해졌을 때 나에게 직접 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계시록 10:5의 “*펼쳐진 작은 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승인으로 “*열려*”지면 더 이상 “*인*”으로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가 가까웠음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봄,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9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책*”의 첫 번째 펴기는 단 8:14의 명령 이후, 즉 1843년과 1844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재림교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한 중요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나

그분의 천사가 우리 자매 엘렌 G.화잇의 사역 중에 직접 주신 계시에 기인합니다.

11절: “ 불의한 자는 다시 불의하게 하고 부정한 자는 다시 부정하게 되라. 의인은 여전히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라. »

처음 읽을 때 이 절은 단 8:14의 명령이 적용됨을 확증해 줍니다. 1843년에서 1844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재림교인의 분리는 개신교인들이 영적으로 “ 살아 있지만 ” “ 죽고 ” “ 더러워진 ” 것을 발견하는 “ 사데 ”의 메시지를 확증해주며 , 이 구절에서 “ 백인에 합당한 ” 재림교회 개척자들은 “ 의와 성화 ”. 그러나 “ 작은 책 ”의 시작은 “ 새벽부터 정점까지 대낮의 빛처럼 자라나는 의인의 길 ”처럼 점진적이다 . 그리고 개척자 재림교인들은 “ 다섯째 나팔 ”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밝혀진 것처럼 1991년에서 1994년 사이에 믿음의 ^{시험}이 그들을 가려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절을 다른 방식으로 읽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인봉의 시간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는 대로 끝나려고 합니다. “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를 끼치지 말라. » 땅, 바다, 나무에 해를 끼치는 권한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여섯째 나팔 ” 전입니까, 아니면 “ 마지막 일곱 재앙 ” 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의 죄인들에게 주신 여섯 번째 경고 형벌을 구성하는 “ 여섯 번째 나팔 ”은 이 경우 두 번째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재앙 ”이 개신교의 “땅”과 가톨릭의 “바다”를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여섯째 나팔 ”에 의해 성취된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회심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키는 것임을 생각해 봅시다 .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다음의 말씀을 놓을 수 있는 때는 “ 여섯째 나팔 ” 이후, “ 마지막 일곱 재앙 ” 직전 , 그리고 집단적, 개인적 은혜의 시대의 끝을 표시하는 인봉이 끝나는 때 입니다. 이 구절: “ 불의한 자는 다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다시 더럽혀지게 하라. 의인은 여전히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라. »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다니엘서 8장 14절인 “ 거룩함이 의롭게 되리라 ” 라는 기본적인 “재림교회” 구절에 대해 제가 제시한 좋은 번역을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롭고 거룩하다 ” 는 말은 강력하게 지지되고 하나님에 의해 확증됩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유예기간 종료 시점을 예상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 성령은 완전히 해독된 책이 ‘ 작은 책 ’이 되는 순간을 목표로 삼고, 이 순간부터 그 책을 받아들일느냐 거절할느냐에 따라 ‘ 의로운 자와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가 갈라지게 된다. ” 그리고 우리 주님은 “ 성도가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도록 ” 초대하십니다. 나는 “ 사르데스 ” 메시지에서 “ 더러움 ”이 개신교에 기인한 것으로 다시 기억합니다 . 성령께서는 1994년부터 에큐메니칼 동맹에 합류하면서 저주를 공유해 온 개신교와 제도적 재림교회를 말씀으로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해독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말라기 3장 18절에 따르면 “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의 교훈을 요약합니다. 첫째, 이 책은 1843년과 1844년 사이에 재림교회가 개신교로부터 분리되었음을 확증한다. 두 번째 독서에서는 1994년 이후 개신교와 에큐메니칼 연합으로 복귀한 공식적인 재림교회에 반대한다. 2029년은 유월절 4월 3일 이전의 시작되는 봄으로 정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유예 기간입니다. 2030.

토하게 ” 만든 제도적 재림교회의 몰락의 원인이 1994년에 재림하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8장 14절의 참된 번역을 밝히기 위해 나온 빛의 기여를 고려하기를 거부함; 히브리어 성경 원본 자체가 논쟁의 여지 없이 입증한 빛입니다. 이 죄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의 상이 내게 있느니라”

9년 후에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신성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 20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편협하고 반역적인 가톨릭, 개신교, 재림교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그분의 보응 뭉치의 본질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분 은 또한 계시록 7장, 14장, 21장, 22장에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예언의 말씀과 거룩한 제칠일 안식일을 존중하는 선택된 재림교인들을 위해 예비된 뭉치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 “ 그의 일 ”은 무엇입니까? 이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눈에 자신을 정당화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과거 선택의 오류를 변환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 단어는 쓸모가 없게 됩니다.

13절: “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

시작이 있는 것에는 끝도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 지상에서 제공하신 시간의 길이에 적용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는 6000년이 지나게 됩니다. 서기 30년 4월 3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속죄의 죽음은 또한 2000년간의 기독교 동맹의 알파 시기를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 봄은 본격적인 오메가 타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파는 또한 1844년이며 오메가는 199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는 나와 마지막으로 선출된 공무원을 위한 1995년이며 오메가는 2030입니다.

14절: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루마기를 빨라)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고 문으로 성에 들어가기에 위함이니라»

수많은 죽음을 초래하는 두 번째 형태의 “ 큰 환난 ”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인은 “ 그의 계명을 지켜야 ” 합니다. » ; 하나님의 것과 예수님의 것, “ **하나님의 어린 양** ”은 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이 구절의 베일에 싸인 번역은 바티칸이 주도한 로마 카톨릭에 의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따라서 더욱 충실한 다른 사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 그리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왜곡되고 필수적이고 필수적인 순종을 그리스도인의 소속이라는 단순한 주장으로 대체합니다. 범죄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안식일을 지키며 싸우는 자들에게. 참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자신의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계시록 12:17과 14:12에 인용된 내용, 즉 “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만을 반복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얻은 결과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요구는 그의 순교에서 겪은 고통과 같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보상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들은 상징적 “ **새 예루살렘** ”의 “ 열두 문 ”으로 상징되는 재림교회의 길을 통해 불멸을 얻고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

15절: “ **개들과 마술사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다 물러가라!** »

예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숨겨진 비난은 배도한 기독교 신앙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 1994년부터 동맹을 맺은 재림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개신교 신앙; 재림교회 신앙은 그의 존재 초기에 그에게 풍성한 축복을 받았고, 그의 마지막 대표자들이 반역을 겪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 **개들** ”은 이교도들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형제라고 주장 **하고 그를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 “ **개** ” 라는 용어는 역설적이게도 현대 서양인에게는 동물이 충성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동양인에게는 바로 저주의 이미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는 심지어 그들의 인간 본성에 도전하시고 그들을 믿을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십니다. 다른 용어는 이 판단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확증하셨고 여기서 “ **개들** ”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신

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판단을 표현합니다. 그분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숭고한 사랑의 표현 이후, 그분과 그분의 희생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들을 " *마술사* "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쁜 천사들과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강신술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성모 마리아"의 발현으로 가톨릭 신앙을 처음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행한 기적은 모세와 아론 이전에 바로의 " *마술사* "가 행한 기적과 비슷합니다.

그들을 " *부정한* "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도덕의 해방, 특히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마귀의 종이라고 비난한 가톨릭 신앙과 개신교 교회들이 맺은 부자연스러운 종교적 동맹을 정죄하십니다. 그들은 계시록 17:5에서 비난한 " *음녀 어머니 큰 바벨론* "의 " *음행* "을 " *딸들처럼* " 재현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 그들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죽일 준비를 하는 " *살인자들* "입니다.

영적인 삶보다 물질적인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 *우상 숭배자*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빛을 주실 때 그들은 무관심한데, 그들은 그분의 참된 사자들을 악마화함으로써 뻔뻔스럽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그리고 거짓말을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본성이 거짓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진실에 전혀 무감각할 정도로 비난합니다. 맛과 색깔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나 거짓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영원토록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번식으로 생겨난 피조물 중에서 진리에 대한 사랑을 지닌 사람들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결과는 끔찍하다. 차례로 쫓겨나는 것은 대홍수 이전의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고대의 믿지 않는 유대 동맹, 가증한 로마 교황의 가톨릭 신앙, 우상 숭배하는 정교회 신앙, 칼빈주의 개신교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의 영의 마지막 희생자인 제도적 재림교 신앙입니다. 이전의 전통이 모두 똑같이 선호되었다는 전통입니다.

초림을 믿지 않아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예수님에 의해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림**을 알리는 최근의 "재림교인" 메시지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죄. 진리에 대한 사랑의 부족은 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2020년에 이러한 주요 공식 종교는 모두 예수께서 1843년에 " *시대* " *시대* 의 개신교에 계시록 3:1에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끔찍한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 *너희는 살았다 하였으나 죽었느니라* ".

16절: “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려고 내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빛나는 새벽별 다윗의 뿌리요 씨앗이다. »

예수께서는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요한에게 보내셨고,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그의 충실한 종들인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히 해독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일곱 시대, 즉 일곱 회의의 종들과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오늘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Apo.5, 즉 “ 다윗의 뿌리와 후손 ”을 상징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는 “ **밝은 새벽별**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별은 태양이지만 그는 그것을 상징으로만 인식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사랑하는 진실한 존재들은 이교도들이 신격화한 이 별인 우리 태양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주제에 대해 깨달은 군중이라 할지라도 이 이교 우상 숭배 행위의 심각성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잊어야 하며, 인간의 마음이 이미 거의 6000년 동안 인간의 행동을 따랐기 때문에 사물을 매우 다르게 느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각 작업이 실제로 나타내는 내용을 식별합니다. 이는 주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짧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가 아니라, 영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께서 “ 이기는 자 ”에게 “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 **새벽 별** ”로 소개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자는 예수님을 얻게 될 것이며, 그분 안에 근원이 있는 생명의 모든 빛을 그분과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용어를 상기시키는 것은 베드로 전서 2:19-20-21의 이 구절에 대한 참된 마지막 “ **재림교인** ”의 온전한 관심을 암시합니다.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주의하라. 먼저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 이보다 더 좋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선택된 사람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려하신 행위로 변화시킵니다.

17절: “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듣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십시오. 목마른 자도 올지어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지상 사역 초기부터 “ **오라** ”라는 부르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 **목마름** ”의 이미지를 취함으로써 그는 “ **목마르지** ” 않은 사람은 마시려 오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분의 완전한 공의가 두 번째 기회로서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 **목말라하는** ” 사람들만이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톨릭이나 신성한 “면죄부”는 그것을 돈으로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보편적 소명은 모든 나라와 모든 출신에서 선출된 관리들의 모임을 준비합니다. “**오라**”는 부르심은 마지막 날의 믿음의 시험이 만들어낼 선택받은 자들의 그룹화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시험을 겪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그들을 죄의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만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것 외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으로 그 사람을 치시리라.**»

요한계시록은 평범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성경의 언어로 신성하게 코딩된 문학 작품입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표현이 익숙해진다. 그리고 “성경적 용어 색인”을 통해 비슷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드가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번역자와 필사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에 무엇이든 추가하면 하나님은 이 책에 설명된 재앙으로 그를 치실 것입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위협하십니다.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따라서 언급된 변경 사항은 이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교훈에 주목하겠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암호화된 책의 수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두 가지 엄격한 방법으로 처벌된다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해독된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분명하게 제시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말씀인 이 계시는 “그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긴” 그의 “십계명”의 본문과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 7:25에서 그는 그의 왕의 “**율법**”이 “**때**”뿐만 아니라 “**변개**”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 행동은 로마 권위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어서 321년에 제국주의에 이어 538년에 교황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거만한**” 것으로 판단한 이 행동은 사형으로 처벌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생산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예언에 관해서 그는 단호하게 정죄하는 이러한 유형의 잘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수행되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 없이는 그분의 예언을 해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독된 저작물이 암호화된 저작물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뚜렷이 드러나는 이 일은 매우 높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반체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종들에게 하신 궁극적인 “예수에 대한 간증”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 토요일 안식일의 실천으로 1843년 단 8장 14절의 법령이 발효된 이후 마지막으로 “의롭게 된 성결”이 예정된 2021년이 된다.

20절: “ 이 일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하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 아멘! 오세요, 주 예수님! »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거룩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돌판과 동등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증언하십니다.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말하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 예, 나는 속히 갑니다 ”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인격 전체를 포함하는 단순한 “ 예 ”는 그분이 자신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박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 즉시 » 완전한 의미를 지닌 낱자: 2030년 봄. 그리고 그는 “ 아멘 ”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선언을 확증합니다. 이는 “진실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 “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까? 본 장 17절에 따르면 그들은 『성령과 신부』이다.

21절: “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구절은 “ 주 예수의 은혜 ”를 불러일으키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 이것은 기독교 총회가 시작될 때 법에 자주 반대되는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은혜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정의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그들을 제하고 싶지 않으셨고, 동물 희생이 그에게 예언했던 것을 “ 성취 ”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

가장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은혜에 반대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듯이, 은혜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수준까지 사람이 율법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내 안에 거 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말하는 ‘해야 할 일은 무엇 이며, 그것은 어떤 ‘과일’인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분의 은혜가 가능하게 된 율법에 대한 존중.

주 예수의 은혜가 있었고 ” “ 모든 일에 ” 작용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고 유익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왜곡된 구절은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우리 모두는 그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이미 희망합니다. 가능한 한 많이; 우리의 존경할 만한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문은 “ 모든 성도와 함께 ” 라고 명시함으로써 모든 모호성을 제거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 그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 자들(요한복음 17:17)에게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 길 ”과 “ 생명 ” 사이에는 본질적인 “ 진리 ”가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구절의 축복을 주장하는 반역자들에게 잘못이 아닙니다. 1843년 이래로 주님의 은혜는 토요일에 거룩한 안식일을 회복함으로써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주었습니다. “ 진리 ” 에 대한 사랑의 증언과 관련된 이러한 행동은 택함받은 자를 문제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성서 번역판을 조심하십시오. 성서 번역판에 의존하여 불행을 겪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끔찍한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작품에 제시된 신성한 계시는 창세기 이야기에 예언된 교훈, 즉 우리가 주목해 온 그 중요성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이러한 주요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는 정당한 일이며, 나는 현대 세계에서 로마 카톨릭의 숭배 유산으로 인해 기독교 신앙이 왜곡된 형태로 대량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도들이 이해한 단순하고 논리적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무시되는 이 단순성은 소수의 특성으로 인해 입문자에게는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와 요한계시록의 영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8장 14절의 명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령을 확인하려면 다니엘서 전체를 연구하고 그 예언을 해독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면 묵시록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필요한 연구는 우리가 서방, 특히 프랑스에서 우리 시대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 하려고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택하신 자의 영적 본성을

아신다는 것을 상호보완적으로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각각은 그 자신의 본성에 따라 반응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해 호의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843년 이래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계시를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거절을 정당화할 타당한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예언은 신성한 사상의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민족들을 가르쳐야*” 하는 “*영원한 복음*”에 *그 모든 힘을 부여합니다.*

묵시록의 " 짐승들 "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3에서 “*열 뿔과 일곱 머리에 면류관을 쓴 용*”으로 이미지화된 로마 제국을 지정합니다 . 계 2:6의 “*니골라당*”; 요한계시록 2:10의 “*마귀*”.

요한계시록 13:1의 “*열 뿔 에 면류관을 쓰고 일곱 머리를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된 교황 카톨릭 로마에 관한 것입니다 . 계 2:13의 “*사탄의 보좌*”; 계 2:20의 “*여자 이세벨*”; 요한계시록 6:12에서 “*달이 피로 물들었느니라*”; 요한계시록 8:12의 “*넷째 나팔*” 중 “*달셋째*”; 계시록 10:2의 “*바다*”; 계 11:1의 “*막대 같은 갈대*”; 계시록 12:4의 “*용*”의 “*꼬리*”; 계시록 12:14의 “*뱀*”; 그리고 13, 16, 17절의 “*용*”; 계 14:8과 17:5의 “*큰 바벨론*”.

11:7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이미지화되는 프랑스의 혁명적 무신론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계시록 2:22의 “*큰 환난*”; 계 8:12의 “*넷째 나팔*”; 계 12:16에서 카톨릭 백성을 상징하는 “*하수를 삼키는 입*”. 이것은 계시록 11:14에 인용된 “*둘째 화*”의 첫 번째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 그 두 번째 형태는 2021년 3월 7일부터 2029년 사이에 세상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둘째 화*”라는 제목으로 아포 8:13에 따르면 아포 9:13의 “*여섯째 나팔*”에 의해 성취될 것입니다 . 3차 대전은 핵전쟁으로 끝났다. 땅(*무저갱*)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인간 학살은 “*넷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사이에 확립된 연결고리입니다 . 이 전쟁의 전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 11:40~45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지상 역사상 마지막 믿음의 시험에 처해 있는 개신교 신앙과 그 동맹자인 가톨릭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계시록 13:11에서 “*땅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는 “*바다*”로 상징되는 가톨릭 신앙에서 나온 그녀 자신이라는 뜻이다 . 압도적으로, 종교 개혁 시대에는 배교로 특징지어지는 다양한 측면을 지닌 개신교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존 칼빈의 작품에서 호전적이고 가혹하며 잔인하고 박해하는 성격을 증언합니다 . 단 8:14의 법령이 발효되면서 1843년 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법령이 정죄되었습니다.

1843년부터 1844년까지의 개신교 신앙의 시험에서 살아나온 제도적 재림교회 신앙은 1994년 가을 이후로 퇴보하여 개신교 신앙과 그 신의 저주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는 1991년부터 이 작품에 드러난 신성한 예언적 빛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형태의 이러한 영적 죽음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예언의 최종 성취가 우리 앞에 있으며 모든 사람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 당신의 중요한 계시, 즉 신성한 사랑의 열매를 기쁨과 감사하는 충실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베소 ", 아포에서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2:5, 하나님은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43년 “사대 ” 시대에 그는 또한 계시록 3:3에서 개신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십시오. ”; 이것은 1994년 이후 타락한 재림교회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다음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예언적 계시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이 그들의 적들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스스로에게 주셨습니다.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풍요로워진 그녀의 선택받은 자는 “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 준비된 신부 ”가 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9:7에서 “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흰 세마포를 그에게 입혔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은 여러분, 그들 가운데 포함될 기회와 축복이 있다면 진리 안에서 “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12)!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신비한 예언에 대한 해독이 완료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재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문은 다소 괴로운 의심을 남깁니다 . **빨리 그들에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 진리에 대한 지적인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이 믿음의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직면하게 될 인류는 모든 형태의 이기심을 강력하게 장려하는 환경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개인의 성공은 이웃을 무너뜨리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달성해야 할 목표로 되었으며, 이는 70년이 넘는 오랜 세계 평화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안하신 천국의 가치가 우리 시대의 이 규범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알 때, 그분의 질문은 비극적으로 정당해 보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의 불행;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특성을 발견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준다

이 마지막 장은 묵시록 계시록의 해독을 완료합니다. 실제로 나는 방금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에서 사용하신 상징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성경적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1843-1844년 이후 안식일의 복귀에 대한 그분의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나 계시록의 예언적 본문에서는 단 한 번만 나옵니다. 항상 제안되지만 명확하게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명명하지 않은 이유는 안식일의 실천이 사도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정상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제는 결코 유대인들과 최초의 사도들, 곧 유대교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마귀는 그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를 “더럽히”도록 선동했고, 두 번째로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게 만듦으로써 기독교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 그는 자신을 언급한 원본 텍스트에 대한 잘못된 번역을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성한 진리의 제시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범죄에 대한 비난 없이는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피해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그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약과 새 언약의 기록, 즉 성경 전체에 십계명 중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의 지위에 대한 변경을 가르치는 구절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합니다.** 더욱이 지상 세계를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법령이 발효되면서 개신교가 배교한 이후 1843년 봄부터 오늘날까지 성경을 읽는 것은 죽이는 일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의 번역본에 나타나는 번역 오류 에 기초하여 성경을 사용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9:11에서 형상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무저갱의 사자를 왕으로 삼았으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하더라* ". 나는 여기서 이 구절에 숨겨진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아바돈과 아볼루온* ”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로* ” 즉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무저갱의 사자* ”는 계시록 11장 3절의 “*두 증인* ”을 이용하여 믿음을 파괴합니다.

또한 1843년 이후 거짓 신자들은 성경의 역사적 증언을 읽을 때 두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탄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죽음보다 부활을 더 중요하게 함으로써 이 오류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 오류는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본질적으로 그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하는 것이며, 이는 죄인이 그분에게서 자신을 끊고 그분의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한 동맹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의 부활은 오직 그의 신적 완전성의 행복하고 정당한 결과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꾀박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

이 구절은 주간 “*안식일* ”의 실천을 중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이 선택을 비난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이라는 표현이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연례 종교 “*절기* ”에 의해 발생하는 “*안식일* ”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절기* ”의 시작 부분에 배치되고 때로는 끝에 배치되는 움직임은 “*안식일* ”입니다. “.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는 표현이 이를 연상시킨다. 그들은 “*그치다, 쉬다*”를 뜻하는 “*안식일*”이라는 이름 외에는 주간 “*안식일* ”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쉬셨다* ”라고 나옵니다. 또한 넷째 계명의 히브리어 본문에 인용된 “*안식일* ”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가리키는 L. Segond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안식일* ” 또는 “*일곱째 날* ”이라는 이름으로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절에 인용된 동사인 “*안식* ” 또는 “

안식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JNDarby 성경 버전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 절기와 안식일”에 대해 “*장래 일의 그림자*”, 즉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실재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 “*제칠일 안식일*”이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예언하는 일곱째 천년이 도래할 때까지 “*오승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승리로 인해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타락한 땅과 하늘의 죽은 자들을 심판할 *천년의 기간을 예언하는 “제칠일 안식일”*의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이 절에서 “*절기와 율삭*”과 그 “*안식일*”은 옛 언약 이스라엘의 국가적 형태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이러한 예언을 쓸모없게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은 그분이 성취하신 지상 사역의 현실 앞에서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멈추고 사라져야 했습니다. 주간 “안식일”은 예언된 현실을 충족시키고 그 유용성을 상실하기 위해 일곱째 천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신실한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허용되는 순수한 음식과 금지된 부정한 음식을 규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발언은 이러한 신성한 규례에 도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이 주제에 대해 표현된 인간의 의견(*아무도...*)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의 생각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전개할 것입니다. 주제는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선택된 자들에게 그분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계시된 그분의 규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사도행전 15:19-20-21에서 할례 *에 관해 사도* 들을 대표하여 말하는 사람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안식일을 향한 이교도 개종자들의 자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이 구절들은 오히려 사도들이 권장하고 가르친 안식일 실천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Jacques는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매 안식일*”

”에 해당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갈 때 심층적인 종교적 가르침이 그들에게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원칙을 요약합니다 .

음식의 순수하고 불순한 분류의 종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구실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입니다. 그의 설명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전개되어 그는 환상의 “부정한 동물”을 이교도 “사람들”과 동일시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도록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환상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지 않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불순한 본성을 묘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새로운 것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정해 놓으신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의 분류는 세상 끝날까지 남아 있고 계속됩니다. 단 8:14의 법령에 따라 1843년 이래 인간의 식단은 창세기 1:29에서 확립되고 명령된 원래의 “성화”의 규범을 따랐습니다.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가 주노라. 이것이 당신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 열정적인 죽음이 자신이 구원한 자에게 요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시대

2021년 3월 20일 안식일의 진주

저는 사역 초기부터 “예수께서 봄에 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노래했습니다. 2021년 3월 20일 이번 안식일, 춘분은 오전 10시 37분에

영적집회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는 그때까지 단지 믿음에 대한 단순한 확신에 불과했던 증거를 찾도록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유대 달력을 통해 우리는 춘분을 우리 구주의 탄생일인 기독교 공식 날짜인 3월 21일 “안식일”보다 앞선 6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 6년차인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우리의 공식 날짜가 두 가지 오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수도사인 소(Dionysius)가 달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서기 6^{세기}였습니다. 성경적, 역사적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 탄생일을 헤롯 왕의 사망일로 정하고 이를 로마 건국 75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역사가들은 그의 계산에서 4년의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로마 건국 후 749년에 헤롯이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나셨고, 마태복음 2장 16절은 성난 헤롯 왕이 명령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할 당시 예수님의 나이를 " 2세 " 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고통을 겪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으며, 그로 인해 권력의 향유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 그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날짜로 이년 "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오류의 4년에 더해 로마 건국 6년, 즉 747년이 성경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올해의 춘분 - 6

금년 6일 안식일에 성경은 천사가 “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 ”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거래를 금지하지만 동물을 키우거나 돌보는 것은 금지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이 점을 확증하셨습니다. “ 여러분 중에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져 와서 구하지 않는 양이 있습니까? ”. 그리하여 천사를 통해 인간 양들의 구원자이자 안내자이신 “ 선한 목자 ”의 탄생이 먼저 동물 양들의 보호자이자 보호자인 인간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그러므로 이 “ 오늘 ”은 안식일이었고 밤에 예고가 있었고, 예수의 탄생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와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고하는 밤 시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간 다이얼에서 춘분점 6시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고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 “ 안식일의 주인 ” 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 안식일은 일시적이며 그 유용성은 재림의 날까지 계속되며 이 때는 강력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통해 자신의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일곱 번째

천년기의 남은 기간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2세”의 성인이 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경에 발표된 메시아에 관해 질문하는 종교인들에게 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3일 동안 자신을 찾아다녔던 부모와 헤어진 그는 자신의 신성한 독립성과 지상 인류를 위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간증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이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지상 봉사를 하실 때가 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가르침은 그것을 “ 언약 ” 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 가을 26일부터 가을 33일까지 7년을 상징하는 주간 ”입니다. 이 두 가을 사이의 중앙 위치에는 봄과 30년 유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부활절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30년 4월 3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히브리 의식의 동물 “희생과 예물”*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만. 예수께서 죽으시던 날, 예수의 나이는 35세 13일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 승리하시고 죽으신 예수께서는 “ *다 이루었다* ” 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승리는 나중에 그분의 부활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동행하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주어진 증언에 따라 그들이 보는 동안 오순절 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 기회에 그의 영광스러운 귀환으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 ”. 오순절에 그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동시에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택하신 각 사람의 영 안에서 행동하실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천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언된 그분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 *임마누엘* ”이 더욱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 곳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문서에 제공된 세부 사항은 예수께서 자신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타낸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죽음의 날짜를 통해 우리가 그분이 2030년 봄의 첫날로 예정하신 그분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재림을 알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즉, 30년 4월 3일에 십자가에 처형된 날로부터 20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거룩함과 성화

거룩함과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것을 회상합니다: “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화 "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관련되며 모든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감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과 없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속한 것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모든 생물에 대한 생명과 죽음의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분과 함께 살거나 그분 없이 죽을 권리를 남겨두고,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영원히 그분에게 속하겠다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분과 합류합니다. 그분과의 이러한 화해는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그분의 소유로 만듭니다. 그분께서 환영하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이미 지상의 삶이 준수해야 할 모든 율법과 관련된 그분의 **성화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승인하신 물리적, 도덕적 법칙에 복종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안식일과 십계명이 이 신성한 성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려면 메시아 예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 성화의 개념은 매우 기본적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정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 7이 성경 전체에 걸쳐, 특히 계시록 7:2에서 "왕의 인장"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가 들는 해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인봉을 가졌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하나님의 미묘한 영의 제안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 “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인용되어 있음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2021년 4월 3일 유월절과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은 내 생각을 히브리인 모세의 성소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이 성소에 대해 내가 제시한 해석을 강하게 입증하는 세부 사항을 거기서

언급했습니다 . 즉,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비된 위대한 구원 계획의 예언적 역할입니다.

1948년 이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국토를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끝났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은 “메시아”의 영혼, 그의 육신과 영 안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자신의 몸애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을 밝히셨습니다. *“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성전의 유용성이 끝났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첫째, 그는 다니엘 9:26에 예언된 대로 주후 70년에 디도의 로마 군대에 의해 그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유대인을 추방 한 후 성전 부지를 이슬람교에 넘겼고 그곳에 두 개의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가장 오래된 "알 아크사(Al-Aqsa)"와 바위 돔(Dome of the Rock).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재건할 가능성이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건은 그가 예언한 구원 계획을 왜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유효기간은 건축 형태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담고 있는 이 종교 건물의 드러난 세부 사항을 이미 조사해야 합니다. 성전은 소망을 표현하고 그것을 환영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선택한 다윗 왕에 의해 건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의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여부스”라고 불리는 이 고대 도시를 꾸미고 요새화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다윗의 아들”, “메시아” 사이에 “천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 이유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실한 종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죽여 자기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함으로써 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후에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고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의 죽음으로 형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백성의 수를 세웠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세 가지 선택. 삼하 24:15에 따르면 그는 3일 만에 7만 명의 희생자를 낸 전염병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는 그 집에 “야웨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집”이라는 용어는 가족이 다시 모이는 장소를 암시합니다. 건축된

집은 구속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성소와 성전이라는 두 개의 인접한 요소로 구성됩니다.

지상에서는 인간에게 승인된 구역에서 행해지는 종교 의식이 거행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성소라고 부르는 지성소의 확장으로서, 그 곳과 휘장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성전의 방은 길이가 40큐빗, 즉 성소의 두 배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집 전체의 2/3를 차지합니다.

비록 모세 시대 이후에 세워졌지만 유대 언약은 전적으로 아담 이후 삼천년기 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메시아는 2000년 후인 제5천년기 초에 유대 민족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할당하신 시간은 6000년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YaHWéH의 집의 비율이 $2/3 + 1/3$ 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2/3는 분리 휘장에서 끝나는 야훼의 집의 2/3에 해당합니다. 이 베일은 지상에서 천상으로의 전환을 표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 변화가 지상 성전의 예언적 역할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분리하는 휘장에 아담과 하와 이래로 완전한 천적 하나님과 불완전하고 죄 많은 땅의 인간을 분리시키는 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분리하는 휘장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결된 두 부분의 천적 완전성과 지상적 불완전성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역할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특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완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속죄하고 필멸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죄가 되셨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2000년마다 표시되는 위대한 영적 단계의 예언적 연속의 이미지를 성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드린 첫 번째 희생 -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희생, 미래의 골고다 - 기슭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골고다 산의 - 미카엘을 통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인해 마지막 선택자의 희생이 막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시편 90:4 참조)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 주 연속: 2일 + 2일 + 2일. 그리고 이 연속 뒤에는 영원한 “ 일곱째 날 ”이 열립니다.

성소의 두 방의 내용은 매우 드러납니다.

성소 또는 지성소

날개를 펼친 두 그룹

지성소라 불리는 성소는 길이가 20큐빗, 너비가 20큐빗이다. 완벽한 정사각형이군요. 그 높이도 20큐빗이다. 큐브로 만듭니다.

완벽함의 3중 이미지(= 3 : L = l = H);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과 같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하신 곳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이곳은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천적 성품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다. 그의 생각에는 이 성소에 설치된 모든 상징적 요소가 그 역할을 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현실은 천상 차원의 하나님 안에 있으며, 지상에서는 상징을 통해 이 현실을 설명하십니다. 이로써 나는 이번 2021년 유월절에 대한 이 특별한 발견의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6:23-27을 읽습니다. *한 그룹의 두 날개는 각각 다섯 규빗이었는데, 한 날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의 너비는 십 규빗이었습니다. 둘째 그룹도 십 규빗이더라. 두 그룹의 치수와 모양은 동일했습니다. 두 그룹의 높이는 각각 1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집 중앙, 안쪽에 그룹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퍼졌는데 첫째 날개는 한쪽 벽에 닿았고 둘째 날개는 다른 벽에 닿았습니다. 다른 날개들은 집 중앙 끝에서 만났습니다.”*

이 그룹들은 모세의 장막에는 없었으나 솔로몬의 성전에 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의 의미를 밝혀 주셨습니다. 폭 방향으로 두 그룹의 두 쌍의 날개가 교차되어 있어, 땅에만 사는 인간이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천상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미켈란젤로”와 같은 유명한 화가들이 날개 달린 아기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손으로 활을 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이교 신비주의 정신 착란에 관한 진실을 비난하고 재확립하고자 합니다. 천국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51장 5절 또는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위하여: “보라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리고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영광을 잃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에는 순전하고 순결한 아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사람은 유전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아담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모두 젊은 남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노화되지 않으며 영원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따르면 노년은 독특한 이 세상의 특징이며, 죄와 사망의 결과이자 죄의 최종 샅입니다.

신성 동맹의 방주

왕상 8장 9절 “**궤 안에는 돌판 두 개밖에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놓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소, 즉 지성소에는 활동적인 하늘의 특성을 상징하는 날개를 펼친 두 개의 거대한 그룹이 있고, 무엇보다도 두 큰 그룹 사이의 방 **중앙에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수행해야 할 종교적인 일들을 제시하시는 순서대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언약궤이다. 그러나 이 그릇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보다 덜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십계명이라는 지극히 거룩한 율법을 새겨 주신 두 돌판입니다. 그것은 그의 사고, 그의 규범, 그의 변하지 않는 성격을 반영합니다. 별도의 연구(2018~2030년, 재림교인의 궁극적인 기대)에서 나는 이미 그것이 기독교 시대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생각을 읽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분과의 친교를 가능하게 하고 호의를 베푸는 요소들을 발견합니다. 십계명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인이 자신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만 말하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오직 이 가장 거룩한 곳에서 발견되는 상징화된 현실에 대한 믿음에만 달려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규정된 삶의 표준을 요약합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계명을 존중하고 이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은 이러한 계명에 대한 존중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법은 죄를 지은 당사자의 죽음으로 처벌받을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이후로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이러한 필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치료법이 없는 질병처럼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속죄소

성소,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할 제단의 상징적 형상이 있고, 다른 두 작은 천사가 제단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의 날개는 중앙에서 만난다. 이 이미지에서 하나님은 충실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기초한 구원의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 아기의 모습을 취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먼저 천상의 친구인 “미가엘”이었고, 천사들의 우두머리이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의 눈에 보이는 천상의 표현이었고, 천사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자들의 “ 동료 종들 ”이라고 옮겨 여깁니다.

지성소에는 속죄소로 덮인 법궤가 크고 작은 두 그룹의 날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말라기 4장 2절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서 치료를 그 날개 아래에 두리라** . 너희는 나가서 마구간에 있는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속죄소는 참으로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는 죄인들의 악한 손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방주에 담긴 율법의 범법은 지상의 모든 인간

피조물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범법한 율법이 들어 있는 법궤 위에 놓인 시은좌는 그들이 첫째 부활의 시간에 들어갈 영생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소에서 흘리신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니라. 그러면 죽음으로부터의 치유가 완성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따르면 그룹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생물*”의 상징으로 지정한 하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다. 속죄소에 붙어 있는 병이 두 큰 그룹의 두 중앙 날개 아래에 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의 연례 예식인 "속죄일"에서 염소의 동물의 피를 속죄소 앞부분과 속죄소 동쪽을 향하여 뿌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실제로 흘러야 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사장의 봉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궤와 성물을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의 지성소와 성소에서 골고다산 기슭 지하 돌밭 굴로 옮기시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정리하셨으니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세웠던 바위 표면을 파낸 50cm 입방 구멍 바로 아래, 깊이 6m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진으로 생긴 길고 깊은 단층을 통해 그의 피는 문자 그대로 속죄소 왼편,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오른편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 장 51절이 이러한 일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 1982년 과학적 조사에 따르면 론 와이어트(Ron Wyatt)가 수집한 건조된 혈액은 23개의 X 염색체와 단일 Y 염색체로 비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얼굴과 몸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법궤에 담긴 범법한 율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로부터 참으로 정결한 피를 그 제단에서 받음으로써 완전한 보상을 얻었습니다. 론 와이어트(Ron Wyatt)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성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교리를 강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인간과 다른 피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고 순수한 그분의 본성을 믿을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그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45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을 성육신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비록 우리와 비슷한 육체로 보고 듣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유전적 연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와 함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의 상징에 중요성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모세가 호렙산 바위를 두 번 쳐서 이 신성한 구원 계획을 왜곡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는지 더 잘 이해합니다.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그에게 말만 하면 물을 길어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만나, 모세의 두루마리

17장 10절: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패역한 자손의 표로 간직하여 내 앞에서 그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라. 죽지 마세요.”

출 16:33-34: “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그릇을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놓아 네 자손을 위하여 보존하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궤 앞에 두어 그것을 보존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31:26: “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구절들에 기초하여, 히9:3-4에서 사도 바울이 이 요소들을 방주 옆이나 앞이 아닌 방주 안에 두게 만든 그의 실수를 용서합니다: “ 둘째 휘장 뒤에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라 일컬음을 받는 장막에 속한 그 안에는 금분향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궤 앞에는 만나를 담은 금그릇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지 않고 성전 옆 휘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 옆에 놓인 요소들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된 히브리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증거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궤 옆에 있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 대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따르면 만나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 사람이 떡과 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기록한 두루마리의 형태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궤 위에 있는 시은좌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인간의 피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의 신학적 기초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매우 논리적으로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성취되는 날, 그것을 예언한 상징과 축제인 “음 키푸르(Yom Kippur)”, 즉 “속죄일”의 역할은 넓고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그림자는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제사를 행하던 성전은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를 통해 그분의 하늘 영에 “ 자유롭게 접근 ” 하여 “ 영과 진리 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숭배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심지어 로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루르데스, 메카 등 지상의 어떤 장소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땅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땅에 사는 동안 미리 예비하신 행위로 나타냅니다. 성소의 상징주의는 4,000년 동안의 죄를 지은 후 다섯째 천년기 초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4000년 넘게 이루어졌다면 택함받은 자들은 매주 안식일에 예언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이후로 하나님은 두 가지 동맹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번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속 2:11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날에 많은 민족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니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두 동맹은 속 4:11-14의 “두 감람나무”로 설명됩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등대 좌우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다시 말 하여 그에게 이르되, 금이 흐르는 두 금관 근처에 있는 두 올리브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십니까? 나는 말합니다: 아니요, 영주님. 그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땅의 주 앞에 모시는 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 성경 말씀에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숭고한 미묘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 이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는 신성한 동맹의 프로젝트가 두 개의 연속적인 단계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교훈을 통해 가르쳐집니다. 두 개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뿐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정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메시아 예수의 속죄의 죽음이 없다면 옛 언약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심지어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배 꼬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비극의 원인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스가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그들이 새 언약을 거부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나는 말합니다: 아니요, 영주님. 사실, 민족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시험의 순간까지 이 의미를 무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희생하여 그들의 거절을 개종하거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교도 민족들의 기독교 개종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입증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동맹을 유지하도록 제공하시는 유일한 표징입니다. 이렇게 입증된 이 둘째 계약, 즉 새 계약은 지상 죄의 시대인 6000년 중 마지막 3분의 1 기간에 걸쳐 연장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언약이 완성되는 시기를 알리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재림에 의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인 2030년 봄의 시작에 대한 지식을 그분께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844년에 안식일을 줌으로써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히브리 성소와 솔로몬 성전의 상징에 새겨진 교훈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는 321년 3월 7일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물려받은 가톨릭 일요일의 죄를 비난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단번에 성취된 새로운 “성소의 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일요일”에 대한 자신의 정죄를 더 분명하게 비난하기 위해 실제로 1844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8:12에 주어진 선언에 따라 원래의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필연적으로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그 안식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구 체계를 창조하신 첫 주가 끝날 때부터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의 승리로 얻은 안식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십계명 중 넷째인 지성소 곧 증거궤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삼중으로 거룩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연속적인 역할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거룩하십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모든 것은 하느님의 마음에 소중한 것이며, 그분의 선택받은 자, 그분의 자녀, 그분의 “집”에 사는 백성의 생각과 마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중해야 합니다. 이로써 선택된 자들의 참된 거룩함의 선택이 확립되고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되는 모세의 율법과 달리, 돌에 새겨진 것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계명의 경우인데, 로마 교황이 이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 대해 감히 행한 것처럼 그 어느 것도 수정되거나 제거될 수 없습니다. 후보자들을 영원히 속이려는 악마적인 의도는 10이라는 숫자를 지키라는 계명을 덧붙이는 데서 나타난다. 그러나 피조물이나 새긴 형상이나 형상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후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믿음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피상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때까지 자신의 심판 조건을 무시합니다.

성전이나 성소

하늘에서 본 종교적인 천상적 측면을 종교적 거룩함이 지상에서 부여하는 측면 아래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야웨의 집”의 “성전” 부분에 배치된 요소들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에서는 이 방이 회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진설병 상, 일곱 관과 일곱 등잔이 있는 등대, 그리고 방 중앙 휘장 바로 앞에 놓인 향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왼쪽 북쪽에 떡상이 있고 오른쪽

남쪽에 촛대가 있다. 이러한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구속된 택함받은 자들의 삶에서 구체화되는 현실의 상징입니다. 그것들은 완벽하게 보완적이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일곱 등잔이 달린 금촛대

출 26:35: “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상 맞은편 성막 남쪽에 등대를 놓되 그리고 너는 북쪽에 상을 차려야 한다.*”

사원에서는 왼쪽, 남쪽에 배치됩니다. 기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읽혀집니다. 등대는 옛 언약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동맹은 이미 아담 이후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양이나 어린 숫양이 앞서 상징되고 선행되는 *유월절의 “하느님의 어린 양”* 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계시록 5장 6절에는 촛대의 상징이 붙어 있습니다: “ *일곱 눈은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 그리고 “ *일곱 뿔* ”은 능력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촛대는 택하신 자들의 빛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빛의 성화(= 7)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얻습니다. 이 성화는 처음부터 7일 주간이 창조된 이래 성경 계시에 나타난 숫자 “일곱”으로 상징됩니다. 스가랴서에서 성령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할 주석에 “ *일곱 눈* ”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 *일곱 눈* ”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 *이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와의 눈이니라.* » 요한계시록 5:6에서 이 메시지는 “ *하느님의 어린 양* ”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 “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계시니 그것은 마치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구절은 메시아 예수의 신성이 거룩하게 됨을 강력히 확증합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자발적인 속죄 희생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내 작품에 제시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성한 영의 활동 덕분입니다. 빛은 점진적이며 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집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모든 이해를 그분께 빚지고 있습니다.

향수의 제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온 영혼의 완전한 규범에 따라 자신의 육신을 죽음에 바치심으로써 히브리 의식에서 향수로 상징하는 즐거운 냄새를 하느님 앞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향수를 통해 표현될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하는 주례자의 역할로도 표현됩니다.

휘장 바로 앞에, 증거궤와 속죄소를 바라보는 곳에 향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집전자인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택한 자만이 범한 잘못에 대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를 하신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지상에서 대제사장은 오직 상징적인 예언적 가치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의 권리는 오직 구세주 그리스도에게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중재는 그녀의 배타적인 권리이며 멜기세덱의 명령에 따라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단 8:11-12*에서 더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그를 *쳐서 그의 성소를 헐었느니라 군대는 죄로 인해 영원한 희생으로 넘겨졌습니다. 뿔은 진실을 땅에 던지고 그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23에도 있습니다. 줄을 그은 “*희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로마 교황 통치의 결과를 비난하십니다. 그리스도인과 예수의 직접적인 관계는 교황 지도자의 유익을 위해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잃은 종들을 잃어버리십니다. 신적 완전성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만이 그의 중재를 합법화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중재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이 대표하는 사랑과 정의를 심판하시는 하느님을 위해 즐거운 향기를 풍기는 자발적인 자비의 희생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시간 . 그의 중보기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간구하는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중보를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동기는 택하신 자들의 타고난 육신적 약점에 대한 동정심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며 그의 참된 예배자들과 노예들을 인정합니다. 그의 진정한 제자들은 누구인가? 의식에서 향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개인적인 향유로 충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기분 좋은 향기를 상징합니다. 그 원리는 먹을 음식에 양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상의 대제사장이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예언적 형상은 낡아지고 그가 종교 의식을 행하는 성전과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중보의 원리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과 공로로 동시에 충만하게 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진설병의 식탁

사원에서는 오른쪽, 북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성하는 영적인 자양분, 즉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참된 하늘 만사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7)과 완전한 사람(=5) 안에서 성취된 신성과 인간의 동맹 안에 열두 지파가 있는 것처럼 열두 개의 떡이 있습니다. 숫자 12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동맹의 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적용이자 완벽한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12지파, 예수님의 12사도, 12족장 위에 그분의 동맹을 세우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북쪽을 향한 방향을 읽을 때, 이 상은 새 언약의 쪽에 있고 성소 왼쪽에 있는 큰 그룹의 쪽에 있습니다.

광장

희생의 제단

성소의 “ 뜰 ” 에 특별한 운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 성전 바깥뜰은 그대로 두라. 밖에서 측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밟로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 “ 뜰 ” 은 성소나 지붕이 있는 성전 입구 앞에 위치한 외부 뜰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존재의 육체적 측면과 관련된 종교 의식의 요소를 발견합니다. 첫째, 희생된 동물을 불태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이 의식은 단 9장 27절의 예언에 따라 낡아지고 끝났습니다 . **그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 황폐시키는 자는 가장 가증한 일을 행하여 마침내 파멸과 해결된 일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9절까지에서 그 사실이 입증됩니다: “ **번제와 속죄제를 받지 아니하셨으니 ... 그 때에 내가 말하되 보시옵소서 오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두루마리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였나니)** 먼저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원치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시나니 번제나 속죄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신 후에 이르시되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의 저자로 추정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이 서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엄청난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정확성을 정당화합니다. 실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직접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는 나 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 그런데 시편 40편 본문 8절은 “ **나를 위하여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정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고립되어 성령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지시하신 바울과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기록한 두루마리의 경우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다, 재계 탱크

광장의 두 번째 요소는 세례식의 예표인 재계 탱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바다는 “죽음”과 동의어입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을 홍수로 삼키고, 모세와 그의 히브리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의 기병을 모두 물에 빠뜨렸습니다. 세례를 통해, 필연적으로 완전한 침수 속에서, 죄 많은 옛 사람은 죽어 물에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완전한 정의를 전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을 소개하는 후보자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이론적 원칙일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나요? 반응은 개별적이며, 예수께서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의를 전가시키시거나 전가시키지 않으십니다. 확실한 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율법을 존중할 것이며, 그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세례의 물에서 죽어야 한다면, 인간의 육신적인 약함 때문에 우연한 일이 아닌 한, 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다시 태어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옛 언약의 제사장처럼 자신의 죄가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입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소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신성한 종교의 길은 이 그림 구성에 의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지 상징일 뿐이고, 의롭게 된 택함받은 자들이 사람과 천사들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일들에 현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성소, 즉 지성소 속죄소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1982년까지 예루살렘 골고다산 부지에 대한 예외적 발굴 허가를 받은 재림교 간호사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Ron Wyatt)는 실제로 예수의 피가 십자가 아래 6미터 지하 동굴에 위치한 시은좌 왼쪽으로 흘러내렸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골고다 산 기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사장의 예식에서 성소에 모셔진 제사장은 지성소인 성소에 설치된 속죄소와 하늘의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왼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쓰기는 사람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남북 방향을 취하여 작성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성됩니다. 그러므로 두 언약의 계획은 이 지성소를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신에게는 그 반대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오른쪽 성소에 있는 그룹의 상징적 형상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동맹 동안에는 “속죄일”에 죽인 염소의 피를 속죄소 앞면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해 일곱 번

뿌렸습니다. 구동맹이 그의 구원사업의 동방단계였던 것은 사실이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은 동방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날, 그 피가 바로 이 속죄소 위에 떨어졌고, 그의 피와 공의로 세워진 새 언약은 왼쪽 남쪽에 있는 둘째 그룹의 표징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진행은 시편 110:1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왼쪽에서 그의 축복의 측면인 "오른쪽" **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 찬송가.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하신 말씀이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7절, 4절부터 7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주의 우편에 계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꺾으시느니라 그분은 민족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시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머리를 깨뜨립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시냇물을 마신다. 그래서 머리를 든다 .” 그러므로 온유하지만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롱하는 자들과 반역자들이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에 대한 송고한 간증을 경멸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이 뜰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 땅 위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이 영원토록 숭배하는 “떠오르는 해”를 등지고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길이를 따라 동쪽에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쪽 축. 그러므로 그 너비에 있어서 지성소의 오른쪽 벽은 “북쪽”에 위치하고 왼쪽 벽은 “남쪽”에 위치하였다.

그 날개 아래서 병아리를 지키는 암탉 ”의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 “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이나 원하였느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너희 자녀를 모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 이것이 두 그룹의 뺨은 날개가 연속되는 두 동맹 각각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을 “ 독수리 ”에 비유하십니다. “ 내가 애굽에 행한 일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는 “ 큰 독수리 ”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그리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자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로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한 동안 양육을 받느니라. ”, 그리고 반 때, 뱀의 얼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니라 .” 이 이미지는 동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두 가지 연속적인 동맹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히브리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 곧 택함받은 자들의 몸을 상징하며, 총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의 택함받은 자, 즉 선택된 자들의 모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성전이 기록해지고 존중되도록 위생적인 음식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19: “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

금, 금밖에는 없어

우리는 또한 이 기준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가구와 기구, 그룹들과 내부 벽 자체는 금으로 만들어지거나 두드려서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가 금을 완전한 믿음의 상징으로 만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그 유일하고 완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전과 성소의 내부는 성화, 즉 하나님의 성령의 순결하심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내면적 측면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그분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모범을 자신이 택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요구 사항이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영원한 해의 왕국의 삶, 즉 승리자의 봉급과 보상에 부합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며, 요한일서 2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복제품처럼 그를 닮아야 합니다. “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 금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금은 불변적이지만 불순물의 흔적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려면 가열하고 녹여야 합니다. 그러면 슬래그나 불순물이 표면으로 올라와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악을 뿌리 뽑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양한 시련을 겪게 하시는 구속된 제자들의 지상 생활 경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 말기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위대한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시련에서 승리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승리는 요한복음 15:5-6과 10-14에서 그분이 선언하신 것처럼 그분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느니라. 그런 다음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지면 태워집니다 .” 신성한 계명에 대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은 숭고한 사랑의 규범의 완벽한 정점이 됩니다. “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조건부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것을 준행 하면 나의 친구니라.**”

일곱 등잔이 달린 등대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만을 상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발견된 금은 그 교회의 거짓 신앙 주장을 반영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신교 사원에서는 소박하고 엄숙한 모든 장식이 제거되었습니다. 성소와 성전의 상징에서 금의 존재는 성소가 오직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에베소서 5장 23-24절에는 그가 머리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라.**”, **이는 그의 몸이요, 그는 그 몸의 구주시니라.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세례로 깨끗하게 하사 이 교회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 앞에 영광스럽고 점이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나타나리라.**”. 그렇다면 여기에 참된 기독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에서 구현되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의 표준에 동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성경 예언에 계시된 신비를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선택된 자들에 대한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 할 것이 없는**” 이 기준은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 상기되고 확증되는데, 거기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최종 재림을 “재림교” 성도들에게 돌린다. 그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으로 인친 “144,000”의 상징으로 지정됩니다. 그들의 경험은 **전체**의 경험이다. **성화**. 본 연구는 성막, 성소, 성전과 그 모든 상징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예언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실현에서 자신들의 목적과 성취를 찾았습니다. 따라서 선택된 사람이 그와 유지하는 관계는 예언적인 성격과 성격을 갖습니다. 무지한 인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느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그에게 공개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성전” 부분과 오직 천적 하나님만을 위해 예비된 “성소”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단8:14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된 “성소”라는 단어는 1843년에 정결함이 필요하지 않은 천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성화되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죄의 관행을 끊어야 하는 성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전”과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하나님에 의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들의 기도만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실 하늘 성소에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부분은 지상에서 선택된 자들을 모으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1843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원칙이 갱신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성전”은 땅에 남아 있고 오직 천상의 “성소”에만 남아 있으며, 그리스도의 중보는 선택된 재림교회 택자들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재개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동맹에는 상징이 사라지는 지구상의 “성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의 영적 “성전”뿐입니다.

정결케 되어야 할 유일한 더러움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중 어느 것도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귀와 그의 반역적인 마귀들의 존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가엘을 통해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죄의 땅에 던지셨습니다.

거룩함의 상징성을 논한 후에는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상징들이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일 뿐입니다. 참된 거룩함은 살아있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율법, 지상의 죄인이 범한 그분의 성품과 정의의 형상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던 성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일꾼들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게 하신 것은 오직 그의 택하신 자들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82년에 그의 종인 론 와이어트(Ron Wyatt)에게 그의 증거를 찾아 만질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우상 숭배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영”인 “*예수의 증거*”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준비한 구원 사업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더욱 유용합니다. 론 와이어트(Ron Wyatt)는 천사들이 방주에서 꺼낸 십계명을 촬영하도록 허락받았지만, 그 영화를 보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절을 미리 알고 계셨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그러한 녹음으로 인해 그분의 더 취약한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계시되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감미로운 특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분리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숨겨진 비밀이 밝혀졌다면, 이제 나는 여러분이 '시작'을 의미하는 창세기에 드러난 예언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목 !!! 창세기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간증은 창세기를 그의 종 모세에게 받아쓰신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분노이며, 천국으로 가는 문을 결정적으로 닫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6.

묵시록 서문에서 예수께서는 이 표현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 이 표현은 계시록 22:13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인용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의 예언적 성격, 특히 칠천 년을 예언하는 7일 주간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책을 특히 특징짓는 “ **분리** ” 라는 주제의 측면에서 이 창세기에 접근합니다 .

창세기 1장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시작 ”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처럼 , “ *땅* ”은 참으로 이전의 천상 생명체의 형태와 평행한 새로운 차원의 중심이자 기초로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화가의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새로운 그림을 창조하고 구현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그 기원부터 “ *하늘과 땅* ”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 “ *하늘* ”은 공허하고 어둡고 무한한 성간 우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 *지구* ”는 물로 덮인 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 *지구* ”는 창조의 주간에 선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특정한 지상 차원의 창조의 시작 또는 “ *시작* ”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에서 나오며, 첫 창조물이 하늘에서 범한 죄의 근원인 자유 때문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형태를 취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 *새벽별* ”과 “ *새벽의 아들* ”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이후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기존의 천상의 반군 진영과 미래의 지상 진영의 지도자였습니다.

창 1:2: “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화가가 캔버스에 배경 레이어를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듯이, 하나님은 이미 창조된 하늘의 생명과 그가 창조할 지상의 생명에

만연한 상황을 제시하신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승인하지 않은 모든 것을 "어둠"이라는 단어로 지정하고, 이를 절대적인 반대 입장에서 "빛"이라고 명명할 것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복수형인 "어두움"이라는 단어와 생명이 없는 땅을 가리키는 "무저갱"이라는 단어 사이에 확립된 연결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상징을 사용하여 자신의 적들, 즉 요한계시록 11장 7절의 "신을 모르는" 혁명가와 자유사상가, 요한계시록 17장 8절의 교황 카톨릭의 반역자들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반역적인 프로테스탄트들은 1843년에 그들과 합류했고, 차례로 계시록 9:11; 1995년에 불성실한 재림교회가 합류했습니다.

이 구절에 제시된 이미지에서 우리는 "어두움"이 "하나님의 영"을 "물"에서 분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상징 아래 수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을 예언할 것입니다. 단 7:2-3과 계시록 13:1에서는 "바다"로, 계시록 8:10, 9:14, 16:12에서는 "강" 아래에 있다. 17:1-15. 이 분리는 곧 이브와 아담이 범하게 될 **원죄**로 귀결될 것입니다. 주어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 사탄을 선택하는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붙어 있는 어둠의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십니다.

창 1:3: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은 자신의 주권적인 판단에 따라 "선"의 표준을 정하십니다. 이 "선"이라는 선택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측면 때문에 "빛"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선은 사람이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숨어 있게 만드는 "수치"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창세기 2장 25절과 비교하여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이 느낄 것입니다.

창 1:4: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발표하신 **첫 번째 심판**이다. 그분은 "빛"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선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어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악에 대한 자신의 정죄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상 창조의 목적과 그에 따라 그분의 계획이 성취할 최종 결과, 즉 그분의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두움"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천상과 지상의 피조물에게 주기를 원하신 자유의 원칙에 의해 가능해진 두 가지 선택입니다. 이 두 반대 진영에는 궁극적으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사탄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반대 진영은 지구의 두 극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절대적인 목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23에 따르면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멸망된 반역자들은

결국 창 1:2의 “무저갱”이 되는 황폐한 땅의 “티끌” 처럼 끝날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 부활된 그들은 계시록 20:15에 따르면 “둘째 사망”의 “불못”에서 소멸되어 결정적으로 멸망될 것입니다.

창1: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니라.”

이 창조의 “첫 번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지상의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상에서 서로 대결하게 될 “빛과 어둠”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 두 진영의 결정적인 분리에 바쳐집니다. 따라서 “첫째 날”은 일주일 전체로 예언된 “칠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에게 그분과 싸우도록 허락하시는 권한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6천년 동안 불성실한 이교도나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특히 그리스도교 시대에 발견된 거짓 신 숭배의 표시 또는 “표”가 되기에 이상적으로 적합합니다. 정복되지 않는 태양”을 콘스탄티누스 1세의 제국 권위에 의해 321년 3월 7일에 부과된 주간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날짜 이후로 현재의 “기독교” 일요일이 “브랜드”가 된 이유입니다. 538년부터 교황 로마 카톨릭 신앙이 그에게 준 종교적 지원을 따른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의 “알파”는 “오메가”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일째

창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서도 다시 분리의 문제, 즉 “물과 물”이 문제가 됩니다. 이 행동은 “물”로 상징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분리를 예언합니다. 이 구절은 하늘 생명과 지상 생명이 자연적으로 분리됨을 확증하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분리됨을 확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함께 동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역하는 악한 천사들을 물리치고, 지구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사람이 천상의 차원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의 천사보다 약간 열등하게 창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긴 역사를 겪게 될 것입니다. 죄는 무질서를 확립했고 하나님은 이 무질서를 선별적으로 분류하심으로써 조직하십니다.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어진 이미지는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의 생명과 “아래의 물”에 의해 예언된 지상의 생명을 분리합니다.

창1:8: “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둘째 날이니라.*”

이 하늘은 물을 구성하는 두 가지 가스(수소와 산소)로 형성되어 지구 전체 표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인간이 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대기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천적 생명의 존재와 연결시키십니다. *마귀 자신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라는 이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지금 반역의 아들들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영의 길을 따릅니다.*”; 그는 이미 천상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일째

창세기 1장 9절: “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 물 ”은 온 땅을 덮고 있었지만, 5 일째 에 창조될 해양 동물의 어떤 형태도 아직 거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확성은 창세기 6장의 홍수 활동에 모든 신뢰성을 부여할 것이며, 이는 물속에 잠긴 지구에 동물 해양 생물의 형태를 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해양 화석과 조개껍질을 찾는 것이 정당화될 것입니다.

창1:10: “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많은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새로운 **분리는 바다와 대륙** 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 두 용어를 가톨릭 기독교 교회와 가톨릭 기독교 개신교 좌파를 각각 지정하는 두 상징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 좋은 ”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므로 1170년에서 1843년 사이에 이루어진 그들의 **분리는 하나님에 의해** “ 좋은 ”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당시 그의 신실한 종들에 대한 격려는 요한계시록 2:18-29에 드러났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예외적인 임시 상황을 증언하는 24절과 25절의 중요한 설명을 발견합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다른 모든 자들에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노라 ;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만 붙잡으라 .*” 다시 한 번, 이러한 재편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역적인 천사들과 인간의 영들이 만들어낸 무질서에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이 다른 가르침에 주목해 봅시다. “ *지구* ”는 전체 행성에 그 이름을 부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 *건조한* ” 땅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삶을 위한 자연 환경이 되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 표면은 건조한 지구의 표면보다 4배 더 크므로, 이 행성은 신성한 계획에서 “ *바다* ”라는 이름을 더 잘 가질 수 있었지만 정당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의 단어: "새들이 함께 모이고 깃털의 새들이 함께 모인다"는 이러한 그룹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1170년에서 1843년 사이에 충실하고 평화로운 개신교인들은 참된 일곱째 날인 토요일의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의 정의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8:14에 따르면 “**땅**”을 1843년부터 거짓 기독교 신앙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거는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그의 발**”을 “**바다와 땅**” 위에 두시고 그의 진노로 그들을 상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 1:11: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랬다.**»

“**푸른 풀과 씨 맺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맺는**” 권능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먼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되고, 다음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땅과 하늘의 동물을 위해 생산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땅의 이러한 생산물을 상징적 형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교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나무**”처럼 좋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창 1:12: “**땅이 푸른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 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더럽힌 어떤 흠도 없으며, 자연은 완전하여 “**좋다**”고 여겨집니다. 완벽한 대기와 지상의 순수함 속에서 땅은 생산물을 배가시킵니다. 그 열매는 땅에 살게 될 존재들, 즉 인간과 동물들이 각자의 개성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창 1:1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4 일차

창 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그것으로 때와 날과 해를 표시하는 표가 되게 하라.**”

“**낮과 밤**”이라는 새로운 **분리가 나타납니다**. 이 넷째 날까지는 천체가 일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낮과 밤의 분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상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의 창조물이 그의 임재로부터 독립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성간 우주에서 이 별들의 위치에 기초한 달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황도대 별자리가 나타날

것이며, 그 시대 이전의 점성술은 그것에 첨부된 현재의 점술, 즉 천문학 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창1:15: “ 그리고 그 빛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그랬어요.”

“ 땅 ”은 “ 밤 ”뿐만 아니라 “ 낮 ”으로도 밝혀져야 하지만, “ 낮 ”의 “ 빛 ”은 “ 밤 ”의 빛을 능가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그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상징적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산다. 그리고 “ 밤낮 ” 순서의 계승은 그의 사랑하고 축복받은 선택자들이기도 한 그의 모든 적들에 대한 그의 최종 승리를 예언합니다. “ 지구를 비추는 것 ”으로 구성된 이 역할은 이 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시된 진리나 거짓을 가르치는 종교적 행위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창1:16: “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라 그는 또한 별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 해 ”와 “ 달 ”, “ 두 개의 큰 광명체 ”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은 태양을 “ 가장 큰 것 ”이라는 표현으로 지정하신 반면 일식은 이를 증명하며 두 개의 태양 원반과 달 원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크기에서 하나는 다른 하나를 상호적으로 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작은 모습이 지구로부터의 거리 때문이라는 것을, 즉 태양이 달보다 400배 더 크며 400배 더 멀다는 것을 인간 앞에서 아십니다. 이러한 정확성을 통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확인하고 단언합니다. 더욱이 영적인 면에서는 밤과 어둠의 상징인 달의 작음 에 비할 수 없는 “ 위대함 ”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징적 역할의 적용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 빛 ”으로 명명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 이 빛은 참 빛이었는데, 이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음력에 따라 세워진 육신적인 유대 민족의 고대 동맹이 “ 암흑 ” 시대의 징조 아래 놓였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오실 때까지입니다. 사라지는 달이 보이지 않는 때인 “ 초승달 절기 ”를 기념하는 것처럼, 말라기 4장 2절은 “ 의로운 해 ” 에 비유하는 그리스도의 태양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그의 날개 아래에 치유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나가서 마구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 옛 유대 동맹 이후 “ 달 ”은 거짓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되었고, 321년과 538년부터는 카톨릭, 1843년부터는 개신교, 1994년부터는 제도적 재림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 별들 ”을 언급합니다. 그 빛은 약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밤하늘을 밝게 비춥니다. 따라서 “ 별 ”은 1833년 11월 13일 택함받은 자에게 예언하기 위해 별이 떨어져

온 요한계시록 6장 13절의 " 여섯째 인 " 의 표처럼 서 있거나 떨어지는 종교적 사자의 상징이 됩니다 . . 1843년 개신교의 대대적인 몰락. 동시에 이번 몰락은 그리스도의 사자들, 즉 " 사대 "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으며, 예수께서는 " 너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고 너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난 죽었어." 이 추락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회상됩니다: "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느니라 ." 개신교가 멸망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정죄하신 천주교를 연상시킨다. "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더라. 그리고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 11절에서는 이 별에 " 썩 " 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 **이 별의 이름은 썩입니다. 그리고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 으로 바뀌었고, 그 물들이 쓰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었습니다.**" 그 일은 요한계시록 12:4에서 확증됩니다. "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은 막 해산하려는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종교 사자들은 계시록 8:12에서 프랑스 혁명가들의 처형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도 그러하더라.** 모든 형태의 종교에 적대적인 자유 사상 혁명가들의 표적은 항상 부분적으로(세 번째)" 해"와 " 달"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 별 "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 씨 "를 상징합니다. "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네 씨가 되리라** 하신지라 주목 ! 메시지는 많은 양을 가리키지만, 마태복음 22:14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 " 을 발견하실 이 무리의 믿음의 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 " 별들 "은 단 12:3에서 다시 선택된 자들을 상징합니다 : "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영광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에게 의를 가르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창1:17: "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취게 하시며**"

" **지구를 비추는 것** " 이라는 별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주장을 영적인 이유로 봅니다 .

창1:18: " **낮과 밤을 주관하며 빛과 어두움을 나눠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편으로는 " 낮과 빛 "을, 다른 한편으로는 " 밤과 어둠 "을 연결하심으로써 이 별들의 영적 상징적 역할을 확증하십니다 .

창 1:19: "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제 지구는 빛과 태양열의 혜택을 받아 비옥함과 식물성 식품 생산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역할은 하와와 아담이 범한 죄 이후에만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까지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력이라는 기적적인 힘에 달려 있습니다. 지상 생활은 죄가 모든 저주로 땅을 칠 때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5일째

창 1:20: “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새들이 땅 위를 날아 하늘의 궁창까지 날아가라 하시고* ”

이 5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 물들 ” 에게 현대 과학이 그 모든 것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다양하게 “ 살아 있는 동물들을 많이 생산 ”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 심연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빛의 강도와 심지어 색깔까지 번쩍이고 깜박이며 변화하는 작은 형광 동물의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넓은 하늘에는 “ 새 ” 의 비행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날개 달린 육체 동물이 공중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 날개 ” 의 상징이 나타납니다. 이 상징은 지상과 천상의 물리적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천상의 영들에게 부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날개 달린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새와 날아다니는 동물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 독수리 ” 의 형상을 자신에게 부여하실 것입니다. “ 독수리 ” 는 또한 단 7: 4 의 느부갓네살 왕과 계시록 8:13 의 나폴레옹 1세의 상징이 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 화, 화가 있으리이다. 이는 곧 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한 것임이라! » 이 제국주의 정권의 등장은 아포의 마지막 세 가지 나팔을 상징하며 서방 국가의 주민들을 덮칠 세 가지 큰 “ 불운 ” 을 예언했습니다. 단 8:14의 칙령이 발효된 1843년부터 9, 11장.

“ 독수리 ” 외에 다른 “ 하늘의 새들 ” 은 천상의 천사, 즉 선과 악을 상징합니다.

창 1:21: “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그는 또한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하나님은 죄의 상태, 즉 “ 가장 큰 물고기 ” 가 가장 작은 먹이를 만드는 시간에 해양 생물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프로그램된 운명이자 각 종의 풍부함의 유용성입니다. 날개 달린 새들 역시 먹이를 얻기 위해 서로를 죽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기 전에는 어떤 바다 동물이나 새도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 좋다 ’ 고 판단하십니다. 바다의 “ 동물들 ” 과 “ 새들 ” 은 죄 이후에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종들 사이의 필멸의 싸움은 히브리 제사장들의 재계 의식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죽음”의 의미를 “바다”에 부여할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은 “홍해”를 건넌 것을 기념하여 “바다”라는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기독교 세례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13:1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 종교와 그것을 지지하는 군주제를 물고기처럼 이웃을 죽이고 삼키는 “죽은” 무리와 동일시하십니다. “바다”에서, 마찬가지로 하와와 아담과 그보다 더 많은 인간 후손의 죄로 인해 독수리와 매와 비둘기가 비둘기와 비둘기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창 1: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물을 가득 채우라. 새들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곱셈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 맥락에서 해양 동물과 새의 축복도 곧 인간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한 추종자들의 수를 늘리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누구에게도 구원의 제안에 응답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창 1:2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해양 생물은 다섯째 날에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지상 생물의 창조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해양 생물의 영적 상징은 저주받고 배도한 기독교의 첫 번째 형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321년 3월 7일, 거짓 이교도의 안식일, 첫째 날이자 “태양의 날”이 채택된 날 이후 로마의 가톨릭 종교가 무엇을 나타낼 것인지는 나중에 일요일, 즉 주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5천년기 로마 카톨릭의 출현과 6천년기 개신교의 등장으로 입증된다.

6일째

창 1: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은 육지 생물이 창조되는 날로, 바다 다음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낳습니다.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육상 동물을 그 종류대로. ”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물의 재생산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지 표면에 퍼질 것입니다.

창 1: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은 이전 구절에서 명령한 행동을 확증해 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땅에서 생산되는 이 육상 동물의 창조자요 감독자이심을 주목하십시오. 바다의 동물과 마찬가지로 육지 동물도

인간이 죄를 지을 때까지 조화롭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징적 역할이 창조된 이 동물 창조물을 “*좋다*”고 여기시며, 죄가 확립된 후에 그분의 예언 메시지에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파충류 중에서 “*뱀*”은 마귀가 이용하는 죄를 선동하는 매개체로서 주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죄가 있는 후에는 땅의 동물들이 종을 상대로 서로 종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성은 계시록 13:11에서 참된 귀환으로 정당화되는 재림교회 신앙의 궁극적인 시험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마지막 상태의 개신교를 가리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이름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2030년 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1843년 이래로 대중이 무시한 이 저주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에게 있느니라.”

우리가 합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활동을 지켜보고 열정으로 가득 찬 그분을 둘러싸는 신실한 천사의 세계를 당신의 창조 활동과 연관시키십니다. **분리** 라는 주제 아래, 여섯째 날 에 그룹화되어 있는 이 절 26절에 언급된 육상 동물과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이름의 수, 히브리어 네 글자 “Yod”를 더하여 얻은 수에 주목하십시오. = 10 +, Hé = 5 +, Wav = 6 +, Hé = 5 = 26”; 그의 이름을 구성하는 문자는 “YaHWéH”로 음역됩니다. 이 선택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담이 지상 창조에서 그를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표현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적 정신적 측면,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물과 같은 날 창조된 “*사람*”은 자신의 “*모양*”, 즉 신과 동물, “*짐승*” 중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브와 아담이 스스로를 “*동물*”, “*뱀*”의 유혹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들의 “*삶*”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에 기는 것*”에 대한 지배권을 주심으로써 사람에게 “*뱀*”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고 따라서 뱀에게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권하십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안타깝게도 하와는 유혹을 받아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면 아담과 고립되고 분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상의 모든 창조물과 그것이 담고 있는 바다와 땅과 하늘의 생명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동안 지속되며, 남자와 여자의 창조물을 여기에 모아 놓은 것은 그들의 창조물을 요약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Gen.2는 며칠에 걸쳐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인간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 1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주의 첫 6일에 부여하시고자 하신 상징적 가치를 드러내는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더욱 상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와 그에게서 일어날 “택하신 교회”인 “여자”를 상징하고 예언합니다. 더욱이, 죄 이전에는 실제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상태에서는 시간이 계산되지 않고 "6000년"의 카운트다운이 인간의 첫 죄로 표시된 첫 번째 봄에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규칙성 속에서 12시간의 밤과 12시간의 낮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모양을 강조하십니다. 아담은 약하지 않고 강함이 가득하며 마귀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메시지는 아담과 이브가 원래 모델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인간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 번식하도록 축복받고 장려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얻었습니다. 이는 감상적이고 감상적인 나약함 때문에 동물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는 죄의 저주 이전의 맥락에서이다.

창 1: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당신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식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식물, 과일나무, 곡물, 허브, 채소의 각 종의 씨앗 수를 곱하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전체 유기체와 인간 영혼에 유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촉진하는 완벽한 영양 모델을 인간에게 제공하십니다. 이 주제는 1843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요구 사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음식이 생명을 촉진하는 대신 생명을 파괴하는 화학, 비료, 살충제 등의 희생물이 되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창 1: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의 호흡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이러한 조화로운 삶의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열쇠를 제시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비건이므로 자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동물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서로를 공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런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죽음이 그들 모두를 덮칠 것입니다.

창 1: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날 끝에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했을 때 이번에는 “**심히 좋았다**”고 평가하신 창조물에 만족하셨지만, 다섯째 날에는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주의 처음 6일과 7일을 분리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 1장에서 그 날들을 함께 묶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된 히브리인들에게 그 시대에 제시하실 신성한 율법의 넷째 계명의 구조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일주일에 6일 동안 지상에서 일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경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시작되었지만 아담에게서 창조된 후에는 창세기 3장에서 밝혀지듯이 하나님이 주신 “**뉘는 자**”인 여자가 지상 창조물에 죄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되고, 부부 전체는 죄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행동에서 아담은 자신이 사랑하는 선택된 교회의 잘못을 대신 담당하고 갚으려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골고다 산 기슭의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범한 죄를 속죄하고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이 그분의 완전한 공의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할 권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아담과 하와 이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제7천년기가 시작될 때 동시에 이 영원한 삶에 함께 들어갈 것이며, 그때 안식일의 예언적 역할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주제가 창세기 1장에서 처음 6일을 함께 그룹화한 것과는 별도로 창세기 2장에서 제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일곱째 날

창 2:1: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처음 6일은 “**일곱째 날**”과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는 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에 창조된 생명의 기초를 닦는 일에 대하여는 그러하였거니와 또한 예언한 7000년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였느니라. 처음 6일은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마귀의 진영과 그의 파괴적인 행위에 맞서 역경 속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일은 모든 인간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기 위해 그분이 선택한 자들을 그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사랑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주실 것이며, 그분의 모든 면과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유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은 마귀의 진영에 합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용된 “**군대**”는 “**하늘의 별**”이 상징하는 “**땅**”과 “**하늘**”에서 서로 대항하고 싸우는 두 진영의 생명력을 가리킨다 . 그리고 이 선택을 위한 싸움은 6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창 2:2: “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지상 역사의 첫 주가 끝날 무렵, 하나님의 안식은 첫 번째 교훈을 가르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실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그의 피조물 안에 죄가 없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곱째**” **천년기**를 상징하는 이 “**일곱째 날**”의 예언적 측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

천년”이라고 불리는 “**일곱째**” 천년왕국 으로의 진입은 택하신 자들의 선택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분은 살아 있거나 부활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모두가 영광을 얻었을 때 얻은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쉬다**”라는 동사는 “**안식일**”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샤바트**”입니다 .

창 2:3: “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며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이미지는 이미 “**일곱째 날**”의 성화 에서 발견됩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이유를 잘 이해하십시오 .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생이 최종 보상을 받게 될 순간을 예언합니다. 즉, 순교, 고통, 박탈 속에서도 종종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실함을 증언했던 그녀가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지는 순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년기**가 시작되면 그들은 모두 살아날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진영에 이보다 더 큰 “**안식**”의 이유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보지 않으실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우리의 영원한 주간 중 매 “**제칠일 안식일**”을 그분이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 그의 마지막 승리의 열매는 죄와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얻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땅에서, 그리고 다른 인간들 가운데서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고,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 안식일을 선포하여 죄를 정복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와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확증합니다. “ 내가 보니 보라 백마가 나타났더라. 그것을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승리하고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일곱 번째 천년기에 들어가는 것은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성한 이야기에서 일곱째 날이 “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라는 표현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 낫 .” 요한에게 주어진 묵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곱째 천년을 언급하실 것이며, 이 천년 역시 그 이전의 처음 여섯 년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20:2-4에 따르면 “ 천년 ”으로 구성될 것임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된 자들이 저주받은 진영의 죽은 자들을 심판해야 하는 하늘의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말마다 예언된 큰 안식일의 마지막 “ 천년 ” 동안 죄에 대한 기억이 유지될 것입니다. 오직 마지막 심판만이 죄에 대한 생각을 종식시킬 것이며, 그 때, 일곱째 천년기 끝에 모든 타락한 자들이 “ 둘째 사망의 불못 ”에서 멸망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지상 창조물에 대해 설명하시다

경고: 잘못 인도된 사람들은 창세기 2장의 이 부분을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모순되는 두 번째 증언으로 제시함으로써 의심을 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서술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첫 6일 전체를 창세기 1장에서 제시하십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2장 4절에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에서 설명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창 2:4: “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근본은 이러하니라 ”

죄라는 주제는 그 자체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설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죄라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지상과 천상에서 성취하신 모든 형태에 편재합니다. 7일 주간의 구성 자체에는 오직 시간만이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에게 드러날 많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창 2:5: “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아직 땅 위에는 들에 풀이 하나도 없고 들에는 풀이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음이라.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14-15에 따르면, 모세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명하신 “ 야웨 ”라는 이름의 출현에 주목하십시오 . 모세는 자신이 “ 야훼 ”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과 이스라엘 국가의 창조로부터 역사적 언급을 취합니다.

이렇게 매우 논리적으로 보이는 세부 사항 뒤에는 예언된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의 성장, “*들판의 관목과 풀*”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비*”와 “*땅을 경작*” 할 “*사람*”의 존재를 더하십니다. 1656년, 아담의 죄 이후, 창세기 7장 11절에서, “*홍수*”의 “*비*”는 식물의 생명, “*들의 관목과 풀*”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의 “*농작물*”을 파괴할 것 입니다. 죄의 심화.

창 2:6: “*그러나 증기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더라.*”

무엇이든 파괴하기 전에, 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수증기로 땅 전체를 적시게*” 하셨습니다. 그 행동은 온유하고 효과적이며, 죄 없고 영광스럽고 완벽하게 순수한 삶에 적합합니다. 죄가 있는 후에 하늘은 저주의 표시로 파괴적인 폭풍과 폭우를 보낼 것입니다.

인간의 형성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인간 창조는 새로운 **분리**, 즉 “*땅의 흙*”의 분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생명을 형성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지상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얻고 궁극적으로 선택하여 영원하게 만들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창조주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분은 “*땅의 흙*”으로 그를 “*형성*”하셨으며 *이 단일 기원은 그의 죄와 죽음, 그리고 “ 흙 ” 상태로의 복귀를 예언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신성한 행위는 “*진흙 그릇*”을 만드는 “*도공*”의 행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8:6과 로마서 9:21 에서 주장하실 이미지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는 “*호흡*”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폐의 “*호흡*”이지 영의 호흡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은 인간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며 그 연장이 하느님께 달려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생명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기적의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된 것은 그분의 신성한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에게 닥쳤을 때에도 여전히 문제는 그의 결정입니다.

죄 이전에 아담은 완전하고 무죄하게 창조되었으며, 강력한 생명력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들에 둘러싸인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그의 창조의 형태만이 그의 끔찍한 운명을 예언합니다.

창 2:8: “*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정원은 매혹적인 영양적, 시각적 요소가 모두 모여 있는 인간에게 이상적인 장소의 이미지입니다. 시들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웅장한 꽃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기분 좋은 향기의 향수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제공되는 이 음식은 죄 이전에 음식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유일한 즐거움을 위해 음식을 소비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심으셨다”는 정확한 표현은 그의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살기 좋은 이 멋진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사가 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움의 동산”을 뜻하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은 이 에덴을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시키신다. 인간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의해 이 맛있는 동산에 맡겨졌습니다.

창 2:9: “야훼 하나님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정원의 특징은 다양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지닌 과일을 구성하는 “즉시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직 혼자인 아담의 유일한 기쁨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정원에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두 그루의 나무도 있습니다. 바로 “정원 중앙”의 중심을 차지하는 “생명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원과 그곳의 풍성한 제물이 완전히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미 그 명칭에서 “악”이라는 단어는 죄에 접근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나무가 죄의 땅에서 서로 대결하게 될 두 진영의 이미지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처럼 마귀의 진영에 대항하는 “생명나무”로 이미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입니다. “나무”는 창조부터 “악”이 창조주에 반역하게 만든 날까지 연속적으로 “선”을 알고 경험했거나 경험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과 악”의 원칙은 “살아있는 존재”의 완전한 자유가 만들어내는 두 가지 선택 또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대 열매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째 천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른 천사들은 여전히 반역에 빠졌을 것입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지상 경험이 이미 입증되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마련하신 동산의 모든 관대함 속에는 인간의 신실함을 시험하기 위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동사 “안다”는 순종이나 불순종의 행위에 기초를 두는 “선악”을 경험한다는 극단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잘 이해되어야 합니다. 동산의 나무는 순종의 시험을 위한 물질적 버팀목일 뿐이며, 그 열매는 악을 퍼뜨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금지 사항을 제시하여 이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먹는 데 있습니다.

창 2:10: “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가지로 나뉘었느니라.”

네 팔로 갈라지듯 , 이 이미지는 분리 의 새로운 메시지를 제시하며 , 그 후손들이 사방으로 퍼지거나 하늘에서 네 바람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될 인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지구. ' 강 '은 민족을 상징하고, 물은 인간 생명을 상징한다. 이 " 네 갈래 "로 나누어짐에 따라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온 땅에 생명수를 퍼뜨릴 것이며, 이 사상은 자신의 지식을 강물 전체에 퍼뜨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그의 계획은 창세기 10장에 따라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분리됨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홍수의 증인들은 무서운 신의 형벌에 대한 기억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 이전에 땅이 가졌던 시각적인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분리되기 전에 사람이 거주하는 땅은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온 이 물 근원으로만 물을 공급하는 하나의 대륙으로 나타났음에 틀림없습니다. 현재 내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1년 동안 온 지구를 뒤덮은 홍수의 결과입니다. 홍수 전까지 대륙 전체는 이 네 강으로 관개되었고, 그 지류는 마른 땅 전체 표면에 담수를 분배했습니다. 홍수 동안 지브롤터 해협과 홍해가 붕괴되면서 바다의 염수가 침범해 지중해와 홍해가 형성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새 땅에는 요한계시록 21:1에 따르면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처럼 바다도 없을 것임을 아십시오. 분열은 죄의 결과이며, 분열의 가장 극심한 형태는 파괴적인 홍수의 물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 예언적인 측면에서만 강의 “ 네 팔 ”은 인류를 특징짓는 네 민족을 나타냅니다.

창 2:11: “ 첫 번째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그것은 금이 발견되는 하윌라 온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인 비손 또는 비손은 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에덴이 있던 지역은 현재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유프라테스에서 아라랏 산까지, 티그리스에서 황소자리까지. 터키의 동쪽과 중앙에는 여전히 엄청난 양의 담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반 호수(Lake Van)가 있습니다. 신성한 축복으로 풍부한 물은 하나님의 정원의 극도의 비옥함을 촉진했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금으로 유명한 하빌라라는 나라는 현재 터키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 그것은 현재의 조지아 해안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창세기 10장 7 절에 따르면 “ 하윌라 ”가 “ 구스의 아들 ”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 ' 함의 아들 '은 이집트 남쪽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로 인해 나는 이 “하빌라”라는 나라를 에티오피아, 즉 예멘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 그곳에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금광이 있었습니다.

창 2:12: “ 이 땅의 금은 순결합니다. bdellium과 onyx 돌도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 금 ”은 믿음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을 예언하십니다. 이 나라는 이미 솔로몬 왕과 함께 머물렀던 시바 여왕의 종교 유산을 보존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유익을 위해 에티오피아인들은 "기독교" 서유럽의 민족들을 특징짓는 종교적 어둠의 세기 동안 독립을 유지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켰고 솔로몬의 만남으로 받아들인 참 안식일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덧붙이겠습니다. 사도 빌립은 사도행전 8:27-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초의 에티오피아 기독교인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는 간다게 여왕의 내시였으며 온 백성이 그의 종교적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세부 사항은 이 민족의 축복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항해사 바스코 다 가마가 자발적으로 취하고 결정한 호전적인 행동을 통해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피부의 검은색을 확인시켜주는 " 오닉스 스톤 "은 색상이 "검은색"이며 이산화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추가 부; 트랜지스터 제조에 사용되어 오늘날 특히 높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창 2:13: “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그것은 구스 온 땅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강"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상징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자. 이 두 번째 민족은 “ 구스 땅 곧 에티오피아를 둘러싸고 ” 있습니다. 셈의 후손은 아라비아 땅에서 멀리 페르시아까지 번성할 것이다. 실제로는 에티오피아 영토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 강 ' ' 기혼 '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하여 지칭할 수 있다 . 후기에 이 일행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의 "무슬림" 종교입니다. 그리하여 창조의 시작의 형상이 마지막 때에 재현된다.

창 2:14: “ 셋째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앗시리아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 히데겔 ”은 “호랑이 강”을 가리키고, 지정된 사람들은 “벵골 호랑이”로 상징되는 인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황인종"으로 잘못 명명된 아시아와 그 동부 문명은 예언되고 우려되며 실제로는 " 앗수르의 동쪽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828년부터 1873년 사이에 재림교회가 겪은 수많은 영적 죽음으로 인한 시련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을 잡아먹는 “ 강 ” “호랑이” 라는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

유프라테스 "라는 이름은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묵시록 예언에서 " 유프라테스 "는 서유럽과 그 파생물, 아메리카와 호주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와 함께 " 큰 바벨론 "이라고 이름 붙인 로마 교황의 종교 체제가 지배하는 곳으로

제시하십니다. 이 노아의 후손은 야벳의 후손이 될 것이며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유럽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뻗어 있을 것입니다. 유럽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멸망한 후 기독교 신앙이 좋은 발전과 나쁜 발전을 모두 경험한 토양이었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많은”이라는 형용사는 정당하며 징조에 따르면 사랑받지 못한 여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들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그들의 최종적인 종교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유형의 지상 문명은 그들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버지와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창 2:15: “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이 경작의 형태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죄 이전에는 지치지 않고 행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물에 어떤 형태의 공격도 없이 그의 보호는 극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원의 역할은 곧 현실적이고 정확한 측면을 갖게 될 위험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바로 이 동일한 정원에서 인간 사고의 악마적인 유혹입니다.

창 2:16: “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

수많은 과일나무가 아담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맛과 향을 통해 음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의 필요 이상으로 그를 충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제안은 훌륭하지만 그것은 그분이 아담에게 주신 “ 명령 ”의 첫 번째 부분일 뿐입니다. 이 “ 순서 ”의 두 번째 부분이 다음에 나옵니다.

창 2:17: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 명령 ”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시된 위협은 죄의 열매인 불순종이 완성되고 성취되자마자 무자비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죄 해결 계획이 성취되려면 아담이 타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또는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 명령 ”을 제시하심으로 경고하셨을 때 아담은 아직 혼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마의 생각. 더욱이 영생의 맥락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 너는 죽을 것이다 ”.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숲은 주된 나무 한 그루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금지만으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속담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나무가 숲을 숨기는 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그분의 정의에 대한 반역의 영으로 활력을 얻은 마귀의 가르침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처럼, 동산에 있는 금지된 “나무”는 그분 인격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창 2:18: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마귀의 사악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땅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은 다음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이해하려면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은 바울이 새 아담으로 제시할 그리스도의 예언적 형상입니다.

마귀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의 악한 행위가 보편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개념은 죄를 위해 창조된 이 땅에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형성된 두 쌍은 신성한 그리스도와 그의 택자를 지명하는 배우자의 관계를 예언하는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자신이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의 희생자이자 수혜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마귀를 정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죄의 희생자이며, 죄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죄에 대한 속죄의 대가를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은총의 수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고독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고 사랑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커서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 동행,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이 대면을 통해 하나님은 “도움”을 부르시며, 인간은 인간의 여성 상대를 불러일으킬 때 이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도움의 측면에서 그녀는 그를 사랑으로 인해 넘어지게 만들고 죄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에 대한 아담의 이 사랑은 영원한 죽음에 합당한 죄인을 택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상입니다.

창 2:19: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가 그것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시려 하시고 모든 생물이 이 이름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니라” 남자는 그것을 줄 것입니다.

자기보다 열등한 것에 이름을 붙여 주는 사람은 윗사람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주셨고 아담에게 이 권리를 주심으로써 땅에 사는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확증하셨습니다. 지상 창조의 이 첫 번째 형태에서는 들에 있는 동물과 공중에 나는 새의 종류가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 그들을 노아에게 쌍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창 2:20: “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도움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 소위 선사시대 괴물은 바다를 포함한 온 땅을 덮칠 신의 저주의 결과를 강화하기 위해 죄 이후에 창조되었습니다. 무죄의 시대에 동물의 생명은 인간에게 유용한 " 가축 ", " 새 "로 구성됩니다. 하늘의 동물 '과 ' 들판의 동물 '이 더욱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대응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 2:21: “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습니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그 자리를 채우셨느니라 .”

이 수술에 주어진 형식은 구원 프로젝트를 더욱 드러냅니다. 미가엘에게서 하느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제거하시고, 그분의 선한 천사들을 떠나시고 분리시키십니다. 이는 아담이 빠져 있는 “ 깊은 잠 ”의 표준입니다 .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갈비뼈가 취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열두 사도를 통해 자신의 " 도움 "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육신적인 측면과 죄를 취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영혼". 이 “ 도움 ”이라는 단어의 영적 의미는 매우 큼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그분의 선택받은 교회에게 구원의 계획과 보편적인 죄의 해결 및 죄인의 운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 도움 ”의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창 2:22: “ 여호와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므로 여자의 형성은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의 형성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심으로써 그의 육신적인 본성의 희생자인 그의 신실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육신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신으로 형체를 취하셔야 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 생명을 택하신 자들과 나누려고 오셨습니다.

창 2:23: “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보라,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니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 ” 라는 이름을 부여한 자신의 여성 상대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이 선택한 분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지상의 규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 히브리어에서는 남성 단어인 "ish"가 여성 단어인 "isha"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분명합니다. 이 행동으로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빼앗긴 이 “ 여자 ”는 마치 그의 몸에서 빼앗긴 “ 갈비뼈 ”가 그에게 돌아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처럼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 이 독특한 경험에서 아담은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을 아내에 대해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창조하신 생물들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살아계십니다. 그것은 그를 아버지만큼 어머니로 만듭니다.

창 2:24: “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선택받은 자들과 결속하기 위해 육신적인 가족 관계를 자주 깨뜨려야 하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첫째로,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사랑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그분이 죄와 마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리**와 **친교**의 주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상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과 육체적으로 **분리되어 영적 친교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택함받은 자들, 그리고 그의 신실하고 선한 천사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비뼈 '의 욕망은 인간의 성적 결합, 즉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육체와 정신의 행위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창 2:25: “ 남자와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육체적인 과도한 노출은 모든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연주의 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초기에는 육체적인 나체가 '수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 부끄러움 " 이 나타나는 것은 죄의 결과일 것입니다. 마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간의 마음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결과에 노출되어 무시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금지된 나무의 열매는 이러한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물의 가치와 양심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부부가 책임을 지지 않을 그들의 육체적 나체에 대해 마음속에 느끼는 " 부끄러움 " 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 왜냐하면 그 잘못은 도덕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불순종에만 관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의 가르침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은 일곱째 천년기에 하나님과 그의 신실한 택하신 자들 모두에게 주어질 큰 안식을 예언하는 안식, 즉 일곱째 날의 안식일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벌이실 지상 전투를 통해 승리해야 했습니다. 아담의 지상 경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예시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육신이 되어 자신이

선택한 육신을 창조했고, 그 육신은 궁극적으로 천사들과 비슷한 천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죄로부터의 분리

창 3:1: “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

불쌍한 “ 뱀 ”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 가장 “ 교활 ”한 천사의 매개자로 사용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 뱀 ”과 같은 파충류가 말하지 않는 동물; 언어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특수성이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보면, 여자가 남편과 헤어질 때 마귀가 그 여자에게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그에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있었다면 마귀는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이끄는 데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버가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지칭하는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말은 인간의 확신을 뒤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 또는 아니오”에 “그러나” 또는 “어쩌면”을 추가하여 진리에 힘을 실어주는 확실성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아담은 받아들여 아내에게 전했지만, 아담은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의심은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습니까? »

창 3:2: “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나이다.”

증거는 악마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현명하게 추론하고 말합니다. “ 여자 ”는 말하는 “ 뱀 ”에 반응함으로써 첫 번째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첫째, 금지된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당화합니다.

창 3: 3: “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문구에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성한 말씀이 약해지면 죄의 소멸을

조장할 것입니다. “ 두려움 ” 의 원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 여자 ” 는 마귀에게 정당화되지 않는 이 “ 두려움 ” 을 확증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창 3:4: “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

그리고 최고 거짓말쟁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이 진술에서 드러납니다. “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 ”

창 3:5: “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신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

그는 이제 사악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기인한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비천하고 열등한 상태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이기적으로 당신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막고 싶어합니다. 그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홀로 간직하고 싶어하시는 장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선을 아는 데 이로움이 있다면 악을 아는 데 이로움이 어디 있느냐? 선과 악은 낮과 밤, 빛과 어둠처럼 절대적인 반대이며, 하나님에게 지식은 경험하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동산의 나무들을 **허락 하시고** “선과 악”을 대표하는 나무를 **금하심**으로써 이미 사람에게 선과 악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에게 반역함으로써 “ 선 ”, “ 악 ” 을 차례로 구체적으로 경험한 악마의 상징적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

창 3:6: “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마음을 열게 하기에 귀중한 나무인지라. 그녀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느니라 . ”

뱀이 하는 말은 효과가 있고, 의심은 사라지고, 여자는 뱀이 자신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 과일은 그녀에게 보기 좋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것이 “ **지성을 열어주는 데 귀중한 것** ” 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방금 그의 반항적인 태도를 따르는 추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녀 자신도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됩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아담은 **별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멸의 형벌을 적용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동참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단의 열매를 차례로 먹게 되면 부부 전체가 마귀의 포악한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이 열정적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택한 분을 위해 경험하게 될 것과 비슷하며, 그분은 또한 그녀를 위해 죽기로 동의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창 3:7: “ 두 사람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띠를 만들었더라 . ”

인간 부부의 죄가 완성된 이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6000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의 의식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 보기에 좋은 ” 열매 에 대한 갈망을

담당했던 눈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판단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추구하는 이점은 불이익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까지 그들에게도 하느님께도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던 그들의 나체에 대해 “부끄러움 ” 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발견된 육체적인 나체는 불순종한 부부가 처한 영적인 나체의 육체적인 측면일 뿐입니다. 이 영적인 벌거벗음은 그들에게서 신성한 정의를 박탈하고 죽음의 승인이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벌거벗음의 발견은 하나님이 주신 죽음의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악에 대한 경험있는 지식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 ” 고 말함으로써 가르칩니다 . 그들의 나체를 가리기 위해 반항적인 배우자들은 “ 무화과 잎을 바느질 ” 하여 “ 벨트 ” 를 만드는 인간의 계획에 의지했습니다 . 이 행동은 자기 정당화를 위한 인간의 시도를 영적으로 이미지화합니다. “ 허리띠 ” 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 진리 ” 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아담이 “ 무화과 잎 ” 으로 만든 “ 허리띠 ” 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이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숨어 있는 거짓말 의 상징입니다.

창 3:8: “ 저녁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녁때에 동산에 두루 다니시는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신장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그의 구원 계획과 일치하는지 아십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그의 생각과 사악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단지 그에게서 도망치려 할 뿐이므로 자신의 비난을 듣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어디에 숨을 것인가? 또, “ 동산의 나무들 ” 이 그를 그의 얼굴에서 숨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담이 죄인이 된 이후에 타락한 정신 상태를 증거합니다.

창 3:9: “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

네가 어디 있느냐?” 고 묻습니다 . » 도움의 손길을 뺀어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도록 유도합니다.

창 3:10: “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반응은 그 자체로 그의 불순종에 대한 고백이며 하나님은 그의 말을 활용하여 죄의 경험을 제시하는 방법을 얻으실 것입니다.

창 3:11: “ 그리고 야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그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추론에서 추론까지 그는 그녀에게 “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는 질문을 분명히 던지게 됩니다.”.

창 3:12: “ 그 사람이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이지만 아담의 반응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마귀의 표를 지니고 있으며 더 이상 예, 아니오라고 대답할 줄 모르지만, 자신의 엄청난 죄를 단순히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탄처럼 우회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심지어 그 경험에서 자신이 한 역할을 하나님께 상기시키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범인인 아내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가장 좋은 부분은 모든 것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계획에는 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틀린 점은 그가 여자의 예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해칠 정도로 그녀를 선호한다는 점이며,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것, 모든 사람보다 사랑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3:13 “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위대한 재판관은 남자가 고발한 여자에게 돌아섰고 거기서도 여자의 반응은 사실의 현실과 일치합니다. “ 뱀이 나를 유혹하여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유혹에 빠지도록 허용했고 그것은 그녀의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창 3:14: “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평생 동안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 뱀 ”에게 왜 그랬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탄 마귀에게 매개자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 뱀 ”에게 주신 운명은 사실상 마귀 자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 뱀 ”에게는 적용이 즉각적이었지만 마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후에 성취될 예언에 불과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따르면, 이 적용의 첫 번째 형태는 그가 천국에서 추방되는 것과 그의 진영에서 악한 천사들이 추방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결코 떠나지 못할 땅에 던져졌고, 천년 동안 황폐한 땅에 고립된 채 사탄은 그와 그가 그것을 오용한 자유 때문에 죽은 자들을 환영하는 흙 속에 기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에서 그들은 뱀처럼 행동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하고 그들의 원수가 된 사람을 피해 도망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조심할 것입니다. 그들은 천체의 보이지 않는 몸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서로 대결시켜 해를 끼칠 것입니다.

창 3:15: “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

“뱀”에 적용하면 이 문장은 경험하고 관찰한 현실을 확증해 줍니다. 악마에게 적용하는 것은 더욱 미묘합니다. 그의 편과 인류 사이의 적대감이 확인되고 인정됩니다. “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씨 ”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실한 택자들의 씨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그를 전멸시킬 것이지만, 그 전에 악마들은 먼저 이 “ 발꿈치 ”로 이미지화된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자인 “ 여자 ” 의 “ 발꿈치를 상하게 할 ” 영구적인 가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 발꿈치”는 인간 몸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 모퉁이돌”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창 3:16: “하나님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녀를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주관하리라 하시니라”

죽음으로 출산되기 전에 그 여자는 “ 임신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주목되는 모든 일, 즉 “ 고통을 겪으며 출산 ”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미지의 예언적 의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과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서 “ 해산하는 여인 ”은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와 기독교 시대의 교황의 박해를 상징합니다.

창 3:17: “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을 것이다. ”

인간에게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부끄럽게도 숨기려고 했던 상황에 대한 참된 설명을 인간에게 제시하십니다. 그의 죄는 완전했고, 아담은 또한 자신을 구출하기 전에 그의 죽음에 앞서 일부 사람들이 삶보다 죽음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일련의 저주가 뒤따를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땅의 저주는 끔찍한 일이며 아담은 그것을 어려운 방법으로 배울 것입니다.

창 3:18: “ 그가 너희에게 가시와 가시를 주시리니 너희가 들풀을 먹으리라 .”

에덴동산의 쉬운 경작은 사라졌고, 땅에 번성하는 돌팔이풀 , “ 쫄레, 가시 ”, 잡초와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땅의 저주는 인류의 죽음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진보”를 통해 마지막 날에 인간은 잡초와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작물의 토양에 화학 독을 넣어 자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쫓겨날 동산 밖에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 3:19: “ 네가 취함을 받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

인간에게 닥친 이 운명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와 창조를 정확하게 “ 땅의 흙 ”으로 드러내신 형식을 정당화합니다. 아담은 자신과 우리의 비용을 통해 하나님이 유발하신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단지 “ 흙 ”일 뿐이며, 이 “ 흙 ” 밖에는 이 죽은 몸에서 나오는 산 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Ecc1.9 및 기타 인용문은 이러한 필멸의 상태를 확증합니다.

창 3:20: “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이니라 .”

여기서도 아담은 “ 여자 ”에게 “ 이브 ” 또는 “ 생명 ”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 여자 ”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표시합니다. 인류 역사의 기본 현실로 정당화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유혹을 받은 아내 하와에게서 태어나 사망의 저주를 물려받은 먼 후손이며, 2030년 이른 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창3:21: “ 야훼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

하나님께서서는 지상 배우자들의 죄가 이제 입증된 형태를 취할 그분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희생되고 십자가에 처형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성한 용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무죄한 존재는 자신이 유일하고 신실하게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해 죽는 데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 태초부터 하나님은 무고한 동물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 가족 ”으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덮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그분께서는 인간이 상상한 “ 정의 ”를 그분의 구원 계획이 신앙을 통해 그에게 부여하는 정의로 대체하십니다. 인간이 상상한 “ 정의 ”는 단지 기만적인 거짓말일 뿐이며, 그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 그의 참된 정의 ”를 상징하는 “ 의복 ”,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에 기초한 “ 그의 진리의 허리띠 ”를 부여하셨습니다. 당신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창3:22: “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막자 .”

미카엘을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지상에서 방금 일어난 드라마를 목격하고 있는 선한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 죽으시기 전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배반자인 유다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70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열둘을 택한 것은 내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 중 한 명은 악마야!*. 이 구절의 “우리”는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되지만,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 중 하나”라는 문구는 지상 창조 시초에 창조된 모든 천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천국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예수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증언하시려고 오신 진리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으며,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영적 인격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그분을 대리자이자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이 “*생명나무*”의 섭취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은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상징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는 영생을 조건지었고, 원죄 이후 이 영생은 그리스도와 미가엘 안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다른 나무들도 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동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창 3:23: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니 이는 그 사람이 나온 땅을 경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주에게 남은 일은 첫 번째 아담(인류를 가리키는 단어: 붉은색 = 다혈질)으로부터 형성된 인간 부부를 놀라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정원 밖에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진 몸에서 고통스러운 삶이 그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단단하고 반역적인 땅으로의 복귀는 인간에게 그들의 “*먼지*” 기원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창 3:24: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화염검을 휘두르는 그룹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산을 지키는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그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에덴동산은 결국 이브와 아담의 범죄 이후 1656년에 발생한 홍수가 있기 조금 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에덴동산의 위치를 찾는 데 유용한 설명을 갖게 됩니다. 수호천사는 아담과 이브가 은퇴하는 곳의 서쪽인 “*동산의 동쪽*”에 배치됩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 제시된 추정 지역은 다음 설명과 일치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아라라트 산 남쪽 땅으로 후퇴했으며 금지된 동산은 반 호수 근처 터키의 “*풍부한 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에서 서쪽으로.

창세기 4장

죽음으로 인한 이별

이 4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사탄과 그의 반역적인 악귀들에게 그들의 악의 정도를 드러내는 시범 실험실을 제공하셔야 했던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상의 존재들이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악함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불멸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악함과 잔인성을 드러내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사탄과 같은 존재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죽음을 허용할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4장은 보편성이라는 숫자 4의 상징적 의미 아래 놓여 있으며, 지상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의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독특하고 독특한 보편적 특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지상 생활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말했듯이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영감을 받고 신실한 증인인 바울, 전 사울, 최초의 사명을 받은 다소의 박해자 그리스도의 교회.

창4:1: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습니다**. 그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 도우심으로 사람을 지었으니.*

알다” 라는 동사에 부여하신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점은 요한 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원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영적이지만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는 육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이 첫 번째 부부의 모델을 따라 이 육육적인 사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이”도 하나님과 경험한 영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인한 이 새로운 탄생은 요한 계시록 12장 2-5절에 드러납니다. ... *그녀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더라.*” 하나님에게서 난 아이는 아버지의 성품을 재현해야 하지만,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획득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그의 남동생 아벨이 될 영적인 사람과는 정반대인 육신적이고 지상적인 운명을 예언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출산하는 어머니는 이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위대한 창조주 야훼 하느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을 이 탄생과 연관시킨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4:2: “ 그녀는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목자였고, 가인은 쟁기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호흡이라는 뜻이다. 가인보다 아이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폐의 호흡을 받은 아담의 모형으로 제시됩니다. 사실, 그의 형제에 의해 살해된 그의 죽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며 그의 피로 구속하실 택하신 자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대표합니다.

두 형제의 직업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확인시켜준다. 그리스도처럼 “ 아벨은 목자 ”였고, 세상의 물질주의적 불신자들처럼 “ 가인은 쟁기질하는 사람 ”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첫 번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운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구원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왔습니다.

창4:3: “ 얼마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더니 »

가인은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공경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그분을 “ 땅의 소산 ”, 즉 그의 활동으로 얻은 것들로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선행을 강조하는 수많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종교인의 이미지를 취합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고마워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창 4:4: “ 그리고 아벨은 그를 자기 양 떼와 그 기름 중에서 첫 새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호의적으로 보셨습니다. »

양 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이 “ **장자들** ” 의 희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희생에 대한 기대되고 예언된 형상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 하나님은 아벨의 제안에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뿐입니다.

창4:5: “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이 변했습니다. »

아벨의 제안에 비하면, 논리적으로 실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가인의 제안에는 하나님께서 별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 그의 얼굴은 우울하다 ". 그러나 짜증이 그로 하여금 " **심히 짜증을 내게** " 하게 만들고 이는 실망한 자존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자 . 짜증과 교만은 곧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질투의 대상인 그의 형제 아벨의 살해입니다.

창 4:6: “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하여 하며 얼굴을 숙였느냐? »

그가 아벨의 제사를 더 좋아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반응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기보다는 명백히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선택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위해 악한 종의 역할을 하는 가인의 본성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마 24:48-49: “ 만일 그가 악한 종일지라도 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다가 그가 술고래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완벽하게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하시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가인에게 그의 고통의 원인을 그와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가인은 답을 얻지 못할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를 붙잡을 악에 대해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창 4:7: “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 것이요 악을 행하면 죄가 문에 놓여 있고 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나 주께서 죄를 주관하시느니라 . »

하와와 아담이 먹고 선악을 알게 되어 마귀의 신분을 취한 후 , 그는 다시 나타나서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강요한다. “ 선과 악 ”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 선한 것 ”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포기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 악 ” 을 선택하면 그로 하여금 “ 살인하지 말라 ” 는 여섯 번째 계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번역자들이 표현한 대로 “ 살인하지 말라 ”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범죄를 정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합법화하신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 죄 ” 를 여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형식에 주목하십시오 . “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남편을 주관하리라.” 너 ”. 하느님께 “ 죄의 유혹 ” 은 남편을 유혹하려는 여자의 유혹과 비슷합니다. 남편은 그녀나 남편에 의해 “

지배 ”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로 대표되는 “ **죄** ”에 미혹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4:8: “ 그러나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덮쳐 그를 죽였습니다. »

이러한 신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본성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말을 주고받은 후, 처음부터 그의 영적 아버지 마귀와 같이 영적으로 살인자인 “ 자기 동생 아벨에게 달려가 그를 죽였습니다 .” 이 경험은 종종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속적이거나 종교적 질투로 인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인류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창4:9: “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 ",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 항상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는 자신이 자신을 죽였다는 것을 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만하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 내가 내 동생의 보호자입니까? " »

창4:10: “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즉, 당신은 그의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잘 아시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에게 보여 주십니다. “ 네 형제의 피 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느니라 .” 피를 흘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소리를 주는 이 그림 공식은 Apo.6에서 사용되어 “다섯 번째 ^{복인}”, 즉 가톨릭 종교에 대한 로마 교황의 박해로 인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인 Apo를 불러일으킵니다. 6장 9~10절 “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언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는 것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나이까 ". 그러므로 부당하게 피를 흘리는 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 복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정당한 복수는 올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 그들의 발이 실족할 때에 보수와 보응이 내 것이니라! 그들의 멸망의 날이 가까웠고 그들을 기다리는 일이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 이사야 61장 2절에서 "은혜 의 해" 와 함께 " 신원의 날 "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로다 .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 ...**". 이 “ 은혜의 해 ”의 “ 공포 ”가 “ 신원의 날 ”로부터 2000년이나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오직 기억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저지른 범죄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창4:11: “ 이제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형제의 피를 받은 땅이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신의 관대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는 이 최초의 범죄가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인은 살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그를 치명적인 잔인함으로 이끈 것은 모든 이성을 눈멀게 한 분노였습니다. 이제 그의 형제가 죽었으니 인류는 더 이상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 사람을 치는 자는 사형을 받게 되리라. ”

이 구절은 또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제시합니다: “ 땅이 입을 열어 네 손에서 네 형제의 피를 받았느니라. ” 하나님은 땅에 흘리는 피를 흡수하는 입을 주심으로써 땅을 의인화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 입은 그녀에게 말하여 그녀를 더럽힌 치명적인 행위를 상기시킵니다. 이 이미지는 신명기 26장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키매 그 때에 모인 자가 죽고 불이 이백오십 인을 살랐으니 그들은 경고의 백성을 섬겼느니라. ”.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있을 것입니다: “ 땅이 여자를 도와서 땅이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 ” 강 " 은 특별히 창설된 "용" 군대가 충실한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고 그들을 산으로 쫓아낸 프랑스 가톨릭 군주제 연맹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무장 저항과 유혈 프랑스 혁명입니다. 두 경우 모두 “ 땅이 입을 열었다 ” 는 표현은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환영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창4:12: “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네게 재물을 주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땅에서 방랑자와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

가인의 형벌은 그가 인간의 피를 흘려 처음으로 더럽힌 땅에만 국한된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것입니다. 죄 이후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성을 유지하지만 더 이상 완전한 순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주로 땅을 경작하여 식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카인은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창 4:13: “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 내 벌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

즉, 이런 상황에서는 자살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창4:14: “ 보라, 당신이 오늘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셨느니라.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땅에서 유리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

여기에서 그는 이제 말이 매우 많아 자신의 상황을 사형 선고로 요약합니다.

창4:15: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가인은 일곱 배로 복수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표징을 주셔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죽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미 본 이유 때문에 가인의 생명을 살려 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일곱 배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을 보호해 줄 “표징”을 언급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안식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숫자 “일곱”의 상징적 가치를 예언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주간 마지막 날에 예언되었으며 그분의 구원 계획의 칠천년에 그 완전한 성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겔20:14-20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9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표징”이 주어져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의 시간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호된 **분리의 원칙을 확증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표징”,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 라고 나오며, 이 “인과 표”는 일곱째 날 안식일이다.

창 4:16: “이에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물러난 곳은 이미 에덴동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고통을 의미하는 Nod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삶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주 앞에서 멀리 숨기리이다”라고 말했던 가인의 강박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낯에서 멀리 버림받은 것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얼굴**.”

창4:17: “가인은 자기 아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인은 그 도시의 인구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을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일을 시작하다, 가르치다, 행사하다,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이동사들이 나타내는 모든 것을 요약하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하나님 없는 사회의 유형을 시작하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창4:18: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두셀을 낳고, 므두셀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 짧은 족보는 의도적으로 라멕이라는 인물에서 끝나는데, 라멕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어근에서 나온 단어는 에녹이라는 이름과 같은 교훈과 권력의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창4:19: “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쉘라더라. »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 2:24 참조) 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첫 번째 표징을 발견합니다 . 그러나 라멕에서는 남자가 두 여자에게 결합하여 세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분리는 총체적입니다.

창 4:20: “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양 떼를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

야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아랍 민족과 마찬가지로 유목민 목자의 족장입니다.

창 4:21: “ 그 형의 이름은 유발이라 그는 수금과 피리 부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

유발은 문화, 지식, 예술가가 현대 사회의 기초가 되는 오늘날에도 신이 없는 문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모든 음악가의 족장이었습니다.

창4:22: “ 질라는 놋쇠와 철로 모든 도구를 만드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Naama)였습니다. »

이 구절은 철기시대 이전에 청동기시대를 가정하는 역사가들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에 따르면 최초의 사람들은 철을 단조하는 방법을 알았고, 아마도 아담 이후에도 두발가인이 철을 단련하는 자들의 아버지였다고 본문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된 세부 사항은 우리에게 문명이 최초 인간 이후로 존재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제공됩니다. 그들의 불경한 문화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세련되었습니다.

창4:23: “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쉘라야 내 말을 들으라! 라멕 여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상처 때문에 젊은이를 죽였습니다. »

라멕은 자신의 두 아내에게 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만하고 조롱하면서 자신이 청년도 죽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그를 진정한 “살인자”이자 상습범으로 만듭니다.

창4:24: “ 가인은 일곱 번, 라멕은 일흔일곱 번 복수하리라. »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여주신 관대함을 조롱합니다. 가인의 죽음은 사람을 죽인 후에 “일곱 배”의 복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 라멕은 남자와 청년을 죽인 후에 “일흔일곱 배”의 복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혐오스러운 발언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의 첫 번째 대표자인 가인의 2대부터 7대 라멕의 불경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류에게 드러내고자 하셨다 . 그리고 이것은 그와 분리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4:25: “ 아담은 여전히 자기 아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었더라.”

셋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체스”로 발음되며 인간 신체의 기초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등가 또는 배상”으로 번역하지만 나는 히브리어에서 이 명제에 대한 정당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몸의 기초"를 유지하는데, 그 이유는 셋이 창세기 6장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할 신실한 혈통의 뿌리 또는 기본 기초가 될 것이고, "여자"들에게는 반역적인 혈통의 후손들에게 남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속이는 가인은 이에 반대하여 “사람의 딸들”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씨 ” 를 뿌리고 일으키시는데 , 그 일곱째 자손인 또 다른 에녹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365년의 지상 생활은 창조주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에녹은 가인 계통의 손자 라멕의 아들인 그의 이름과 달리 그의 “교육”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 라멕과 의로운 에녹은 둘 다 그들 혈통의 “일곱째” 후손이었습니다.

창4:26: “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웨(YaHWéH)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

에노쉬(Enosch)는 사람, 죽을 운명의 사람, 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사람들이 야웨(YaHWéH)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순간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실한 혈통의 사람이 자기 본성이 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공경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기 위해 창조주를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창세기 5장

성화를 통한 분리

이 5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실한 혈통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나는 아담과 유명한 노아 사이의 시간을 다루는 이 열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구절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창5:1: “ 이것은 아담의 자손에 관한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느니라.”

이 구절은 인용된 사람들의 이름 목록에 대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알림을 기반으로 합니다. “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록에 들어가려면 인간이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의 이름만큼 중요한 이름이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적인 유사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유사성의 문제이고, 4장에서는 방금 우리에게 가인과 그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을 이름하여 사람이라 부르셨느니라.**”

여기서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키는 것은 언급될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주장은 안식일의 표징으로 그의 종들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모든 주간 중에서 일곱째 날에 준수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은 인간이 ‘사람’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열매 외에도 인간은 다른 종보다 더 발달되고 교육받은 “동물”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창 5:3: “**아담은 일백삼십 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눈에 띄게 아담과 셋 사이에는 두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즉 신실한 혈통에 속하지 않은 가인과 후손 없이 죽은 아벨의 이름입니다. 이로써 축복받은 선택의 기준이 입증됩니다. 언급된 다른 모든 이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창5:4: “**아담이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고 그리고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아담이 “셋”이 태어나기 전과 그 후에 “**아들과 딸들을 낳았**” 으나, 이들이 아버지나 “셋”의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께 불충실하고 무례한 “짐승들”과 합류했습니다. 따라서 아벨이 죽은 후 그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셋”은 지상의 아버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실함으로 자신을 구별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익명으로 남아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의 모범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록은 제시된 각 후손 중 최초의 충실한 사람들의 계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설명은 아담이 아들 “셋”을 낳았을 때 이미 높은 나이인 “130세”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노아에게만 끝나는 긴 목록에 언급된 택함받은 자들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 아들, 즉 셈, 함, 야벳은 그의 영적 형상이 아니므로 택함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5:5: “ 아담은 구백삼십 세를 살았고; 그러다가 죽었어.”

나는 이름이 에녹인 일곱 번째로 선택받은 자에게 직접 갑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과 성격이 정반대인 에녹.

창5:21: “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창5:22: “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창5:23: “ 에녹의 모든 날은 삼백육십오 세였더라.”

창5:24: “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후에는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에녹 사건의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대홍수 이전 사람들도 그들의 “엘리야”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의 공식은 아담의 삶에 대해 “ 그 후에 그가 죽었다 ” 라는 말로 끝나는 다른 모든 공식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 므두셀라(969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계통의 또 다른 라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5:28 “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창 5:29: “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수고에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휴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멕은 자신의 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저주받은 땅 ”을 “ 우리의 피로와 우리 손의 수고 ” 의 각도에서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 당시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처럼 주변 사람들의 사악함이 커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창5:30: “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살았다.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창5:31: “ 라멕의 모든 날은 칠백칠십칠 년이었더라. 그러다가 그는 죽었어»

창5:32: “ 노아는 오백 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창세기 6장

분리 실패

창6:1: “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전에 배운 교훈에 따르면, 이 인간 무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동물 규범이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거부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에 의한 유혹은 인류 전체에 재현되어 있으며 이는 육체에 따르면 정상적인 일입니다. 소녀들은 남자를 유혹하고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서 얻습니다.

창6: 2: “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상황이 까다로워집니다. 성화된 불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의 **분리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룩해진 자들은 “사람의 딸들” 또는 “동물” 인간 집단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한 동맹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추구하시는 **이별** 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잇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니다. 그 결과로 일어날 홍수는 이 금지 사항을 얼마나 준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여성들은 룯과 같은 유대인 남편과 함께 참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그 여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그의 기원에 따른 전통적인 이교 종교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교 배도로 이끄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반대의 경우도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딸” 여자는 “사람의 아들”, “동물” 및 거짓 종교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녀에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모든 “여자”나 “소녀”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만 “여자”이며, 그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은 남자처럼 하나님의 천사들과 비슷한 무성적인 천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은 남녀 공통이며 완전한 신적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결혼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옳든 그르든 그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행동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냅니다. 택함받은 자가 선택받기에 합당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과의 동맹은 그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이를 계약한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될 자격이 없게 되고 그의 신앙은 주제넘게 되고 끔찍한 환멸로 끝날 환상이 됩니다. 최종 공제액을 도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혼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것은 현대 인류 사회가 노아 시대와 똑같은 부도덕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거짓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여 신성한 “진리”에 완전히 닫혀지는 마지막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기록에 계시된 이 메시지를 전개하도록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택함받은 자의 경험은 배교와 가증함의 행복한 “시작”과 비극적인 “끝”으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또한 공식적으로나 역사적으로 1863년에 축복받았지만 영적으로는 1873년에 “*빌라델피아*”에서 “시작”을 위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라는 제도적 형태를 취한 마지막 교회의 내용을 요약 합니다. , 그리고 1994년 “*라오디게아*”에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토하신*”, 그의 “*마지막*”, 형식주의적 미지근함과 진영과의 동맹 때문에 따라서 이 기독교 종교 기관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의 시간은 “시작과 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언약이 예수께서 택하신 열두 사도에 의해 지속되었던 것처럼, 재림교회 사업도 나와 이 예언적 증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1843년 재림교회 개척자들과 1844. 나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그들의 예언적 해석의 표준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동기를 축복하셨다고 명시합니다. 안식일의 실천은 형식주의적이고 전통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그리스도의 참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언급된 진리에 대한 사랑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봄.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구조와 측면, 곧 그의 “*심판*”을 이해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인생, 동맹, 교회의 “*시작*” 상황과 “*끝*”에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원칙은 단 5장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계산하고, 세고,*”, “*무게를 달고 나누다*”라는 단어는 *벨사살 왕의 삶의* “*시작*”과 그 “*마지막*”의 때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이 심판받는 대상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증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시작*” 즉 “*알파*”부터 “*끝*”, 즉 “*오메가*”까지 관찰을 받으셨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주제에서는 동일한 원칙이 관련된 모든 “*교회*”의 “*시작과 끝*”을 정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도 시대의 교회를 발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시작*”은 “*에베소*”에 전해진 메시지에서 기억되며, 그 “*끝*”은 열심이 부족하여 하느님의 영을 거두실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서기 303년 이전의 “*서머나*”에서 전달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회개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응답될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런 다음 로마 교황 카톨릭 교회는 538년 “*버가모*”에서 시작하여 “*두아디라*”로 끝납니다. 개신교 종교 개혁 당시이지만 특히 공식적으로는 교황 비오 6세가 우리 도시

발렌시아 감옥에 투옥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 프랑스, 1799년. 다음으로 개신교 신앙의 경우가 나오며, 하나님의 승인도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 시작 ”은 “ 두아디라 ”에 언급되어 있고 , 그 “ 끝 ”은 1843년 “ 사데 ”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로마 종교에서 물려받은 일요일 관습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 너희는 죽었느니라 ”라는 그의 메시지가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 “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 아래에서 우리가 앞서 본 제도적 재림교회의 사례는 “ 일곱 교회 ”에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와 그들이 상징하는 시대의 시대를 마무리 짓는다.

께서는 이미 성취된 일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창세기와 같이 “ 태초 ”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의 사실과 교회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 심판 ”은 성령의 신성의 “ 입장 ”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 6:3: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육신이요 그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 »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10년도 채 되지 않아 오늘날 이 메시지는 놀라운 화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영은 “ 영원히 사람 속에 머물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육신이요 그의 날은 백이십구 년 이 되리라 . ”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주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해 하고 그분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6천년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문제는 아담이 930세에 죽은 이후로 그가 대홍수 이전 사람들에게 준 엄청난 수명에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메두셀라가 969세까지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930년의 충성이라면 감당할 만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만일 교만하고 가증한 라멕이라면 평균 120년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 해석은 홍수가 끝난 이후 인간의 수명이 우리 시대에 평균 80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역사에 의해 확인됩니다.

창 6:4: “ 그 때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이들은 고대에 유명한 영웅들이니라 .

and also ” 라는 정확성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 하나님은 홍수 이전의 첫 번째 창조가 거대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아담 자신의 키는 대략 4~5미터 정도였을 것입니다. 지구 표면의 관리가 변경되고 축소됩니다. 이 “ 거인 ” 의 한 걸음은 우리 다섯 걸음의 가치가 있었고, 그는 오늘날 사람보다 땅에서 다섯 배나 더 많은 식량을 얻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토지는 빠르게 인구가 거주하고 전체 표면에 거주했습니다. “ **그리고 또한** ”의 정확성은 “ 거인 ” 의 이 표준이 성화된 자와 버림받은 자, “ **하나님의**

아들들 ”과 “ 사람의 딸들 ” 의 동맹에 의해 수정되지 않았 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 따라서 노아는 그 자신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도 키가 4~5미터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홍수 전의 표준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땅에 파견된 히브리 정탐꾼들을 겁에 질린 것은 바로 이 거인, 즉 “아나킴”이었습니다.

창 6:5: “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날마다 악으로만 향함을 보시고 ”.

그러한 관찰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창조물들의 생각 속에 숨겨진 이 사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땅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므로 “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날마다 악으로만 향하였 ” 기 때문에 원하는 증거가 얻어졌습니다 .

창 6:6: “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악을 지배하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회개, 더 정확하게는 후회하는 생각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도덕적 재앙에 직면한 그의 고통은 너무나 큼니다.

창 6:7: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멸하리라.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을 후회합니다 .”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악귀들이 땅과 그 주민들에게 승리한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에게 시련은 끔찍했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남은 것은 인간이 너무 오래 살고 거대한 크기에 비해 너무 강력한 이 최초의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뿐입니다 . 가축, 파충류, 공중의 새 등 인간과 가까운 육상동물도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창 6:8: “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호와와의 눈에 .”

그리고 에스겔 14장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유일한 자였으며 그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창 6:9: “ 이들은 노아의 자손이니라. 노아는 그 당시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 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

옅처럼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 의롭고 의롭다 ”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의로운 에녹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함께 “ 걷는다 ”고 전가하셨습니다.

창 6:10: “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

창세기 5장 22절에 따르면 노아는 500세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 이 아들들은 자라서 남자가 되고 아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할 때 그의 아들들의 도움과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난 때부터 홍수까지 100년이 지나게 된다. 이것은 3절의 “120년”이 그 건축을 완성하는 데 주어진 기간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창 6:11: “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가 반드시 폭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폭력이 그것을 표시하고 특징화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고통은 강렬하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최고조 에 달했던 이 폭력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라멕이 자랑했던 유형입니다.

창 6:12: “ *하나님이 땅을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더라.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그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채 안 되어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시 보시고 홍수 당시와 같은 상태, 즉 “ *모든 육체가 그 길을 부패하게 되리라* ”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패에 관해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언급이 인간이라면 그 주제에 대한 의견만큼이나 답변도 많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한 질서와 규칙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가져오는 모든 타락을 부패라고 부릅니다. 부패 속에서 남자는 더 이상 남자로서의 역할을 맡지 않고, 여자도 여자로서의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비가미스트 라멕의 경우가 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규범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에게 매달릴 것이다.* ” 그들의 신체 구조의 모습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담에게 “ *도움* ”으로 주어진 것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적 이미지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어떤 “ *도움* ”을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역할은 구원받은 선택된 사람들의 수를 늘리고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근력이 없는 그녀의 역할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서에 따라 그들이 가족을 찾을 때까지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땅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 왜곡된 현대 생활은 이러한 규범에 등을 돌렸습니다. 집중된 도시 생활과 산업 고용으로 인해 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공장이나 상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못 양육된 아이들은 변덕스럽고 요구가 많아 2021년에 폭력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9절에서 디모데에게 한 묘사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서신에 전적으로 주목하십시오. 이는 그가 변하지 않으실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을 이 편지들에서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2030년 봄에 영광으로 돌아올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 6:13: “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종말은 내게 정하였느니라. 그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악이 돌이킬 수 없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땅의 주민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정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상의 유일한 친구에게 자신의 끔찍한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인 에녹과 멸망의 홍수에서 살아남기에 합당한 유일한 사람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운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 그의 말씀 **에서 “ 그들이 ...** 노아는 충실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14: “ **너는 침엽수로 방주를 만드라. 너는 이 방주를 세포들로 배열하고, 안팎을 역청으로 덮을 것이다.**”

노아는 혼자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계획의 6000년이 끝날 때까지 그의 피조물의 생명이 계속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범람하는 동안 선택된 생명을 보존하려면 떠다니는 방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방수 기능이 있는 침엽수를 사용하며 아치는 소나무나 전나무에서 채취한 수지인 피치로 코팅하여 방수 처리됩니다. 그는 탐승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대결을 피하기 위해 각 종이 별도로 살 수 있도록 세포를 만들 것입니다. 방주에 머무는 기간은 일년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입니다.

창 6:15: “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삼백 큐빗, 너비가 오십 큐빗, 높이가 삼십 큐빗이니라.**”

이 거인의 **큐빗** 이라면 히브리인의 약 55센티미터의 5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히브리인과 모세가 알고 있는 표준으로 이러한 차원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건설된 아치는 길이 165m, 너비 27.5m, 높이 16.5m였습니다.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아치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지만, 그 크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키가 4~5m인 남성의 경우 높이가 약 5m인 3개 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창 6:16: “ **방주에 창을 내되 꼭대기에서 한 큐빗 으로 줄여야 하며 방주 옆쪽에 문을 내라. 그리고 당신은 낮은 층, 두 번째, 세 번째 층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방주의 유일한 “ **문** ”은 1층 층의 “ **방주 옆** ”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방주는 완전히 닫혀 있었고, 창세기 8장 6절에 따르면, 3층 지붕 아래에는 높이와 너비가 55cm인 창문 하나가 홍수가 끝날 때까지

닫혀 있어야 했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은 홍수 기간 내내 어둠 속에서 살았고 등잔불의 인공적인 불빛 속에서 살았습니다.

창 6:17: “ 그리고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 천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리라. 땅의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다 .”

하나님께서서는 이 멸망과 함께 홍수 후에 그리고 6000년의 신성한 계획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땅에 다시 거주할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대홍수 이전의 기준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체, 즉 사람과 동물의 크기를 점차적으로 아프리카 피그미족의 크기로 감소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 6:18: “ 그러나 나는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갈 것입니다. »

다가오는 홍수의 생존자 중 여덟 명이 있지만 그들 중 일곱 명은 노아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축복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유익을 얻습니다. 그 증거는 겔 14:19-20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 다니엘과 욥, 나는 살아 있습니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자녀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 그들은 땅을 다시 채우는 데 유용할 것이지만, 노아의 영적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불완전성을 신세계로 가져옵니다.

창 6:19: “ 무릇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둘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가 너와 함께 생명을 유지하게 하라. 수컷 하나와 암컷 하나가 있게 하라 .”

종당 한 쌍의 " 살아있는 모든 것 "은 번식에 필요한 표준일 뿐이며, 이들은 육상 동물 속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될 것입니다.

창 6:20: “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네가 보존할 것이니라. 그들의 삶 .”

이 구절의 열거에서 하나님은 야생 동물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창세기 7장 14절에서는 그것들을 방주에 싣는 것으로 언급하실 것입니다.

창 6:21: “ 너희는 먹을 모든 식물을 가져다가 저축하여 너희와 그들의 식물이 되게 하라 .”

8명이 1년 동안 먹을 식량이 필요했고, 방주에 실린 동물들은 모두 넓은 자리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창 6:22: “ 노아가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음이라 .”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지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지구는 강과 강으로만 관개되는 하나의 대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거주하는 아라랏 산 지역에는 바다가 없고 평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동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바다 없는 대륙 한가운데에 떠 있는 건축물을 짓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소그룹에게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곧 택하신 자를 조롱하는 것을 그치고 그들이 믿고 싶지 않은 홍수의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홍수의 마지막 분리

창 7:1: “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서 **당신** 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

진실의 순간이 도래하고 최후 의 창조 **분리** 가 이루어진다. “ 방주에 들어가 ”면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 방주 ”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여하신 “ 의 ”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 이 링크는 그의 손가락이 그의 “ **십계명** ” 을 새길 두 개의 판의 형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 정의 ” 를 담은 신성한 상자가 될 미래의 “ **간증케** ” 를 통과합니다. 이 비교에서 노아와 그의 동료들은 비록 노아가 하나님의 정확성으로 표시된 이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될 자격 **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갈 때 모두가 구조로부터 유익을 얻는 정도까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당신 말이 맞아요.** ” 그러므로 노아는 대홍수 이전의 종들에게 이미 그 원칙으로 가르쳐진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창 7:2: “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곧 수컷과 암컷 일곱 쌍을 네게로 취하고 정결하지 아니한 짐승 한 쌍, 수컷과 암컷, »

순수한 동물과 불순한 동물 ” 로 분류된 동물 사이의 구별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 그러므로 이 기준은 이 땅의 창조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며,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이 기준만을 기억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 **안식일** ” 과 같이 우리 시대에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인간을 위해 그의 확립된 질서를 영화롭게 하는 것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 **불순한** ” 에 대해 “ **순결한 일곱 쌍** ” 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 계획 시간의 성화 숫자 “7”인 “인”으로 표시하신 순결을 선호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창 7:3: “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쌍이라 자기 종족을 온 지면에 생존하게 하리라.”

천사 같은 하늘 생명의 이미지 때문에 “공중의 새들”의 “일곱 쌍”도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7:4: “앞으로 칠 일 동안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일곱 (7)이라는 숫자는 동물과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첫 번째 물이 떨어지는 순간을 구분하는 “칠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전히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 동안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 숫자 “40”은 테스트의 숫자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40일”과 그들이 거인들이 거주하는 땅에 들어가기에 거부한 결과로 광야에서 생사를 나누는 “40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사역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의 금식 후에 마귀의 유혹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강림 사이에는 “40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폭우의 목적은 ‘그가 만든 존재’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이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분께 속해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잊지 말아야 할 쓰라린 교훈을 주고 싶어한다.

창 7:5: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느니라.”

충실하고 순종적인 노아는 하느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며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행했습니다.

창 7: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는 육백 세였더라.»

그 시기에 대한 다른 세부 사항이 주어질 것이지만 이미 이 구절에서는 노아의 생애 600 세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0 세에 첫째 아들을 낳은 지 어느덧 100년이 지났다.

창 7:7: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오직 8명만이 홍수를 피할 것입니다.

창 7: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사이에는”

하나님은 긍정적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두 마리가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대홍수 이전 또는 홍수 이후의 “지구” 중 어느 것입니까? “움직이다”라는 동사의 현재 시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모세 시대의 홍수 이후의 땅을 암시합니다. 이 미묘함은 홍수 이전에 존재했다면 다시 인구가 증가한 지구에 원치 않는 특정 괴물 종을 버리고 완전히 근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창 7: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노아와 함께 남자와 여자로 둘씩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 원칙은 동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에 관한 그 자신의 세 아들에 의해 형성된 세 인간 부부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부부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실 역할, 즉 번식과 번성이라는 역할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창 7:10: “7일 뒤에 홍수가 땅에 넘쳤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방주에 들어간 날은 노아의 생애 600^세 2월 10일, 즉 17세가 되기 7일 전이었다. 이어지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 7장 16절에 인용된 정확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방주 “문”을 닫으신 것은 이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창 7:11: “노아 육백 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 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쏟아졌더라. 열었습니다.»

노아 600^세의 “**둘째 달 십칠일**”을 “하늘 문을 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숫자 **17**은 성경과 예언의 숫자 코드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6장의 택함받은 자들의 계승에 의해 확립된 계산은 이브와 아담의 죄 이후인 1656년, 즉 6001년 봄에 성취될 세상 종말의 봄 전 4345년에 홍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달력은 2030년 봄이며, 거짓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간 달력의 30일 4월 3일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부터 2345년 전입니다.

다음 설명은 창8:2에서 갱신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깊음의 근원**”의 보완적인 역할을 환기시킴으로써 홍수가 단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무저갱**”은 창조 첫날부터 온통 물로 뒤덮인 땅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면, 그 “**근원**”은 바다 자체로 인해 수위가 상승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현상은 해저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수위가 상승하여 첫날 지구 전체를 덮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합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바다의 깊은 곳이 가라앉아서 마른 땅이 물 밖으로 드러났고, 그 반대 작용으로 마른 땅이 홍수로 덮였습니다. “**하늘의 수문**”이라고 불리는 비는 형벌이 하늘로부터,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나타내는 데에만 유용했습니다. 나중에 이 “**하늘의 자물쇠**”라는 이미지는 동일한 천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 7: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내렸느니라.”

이 현상은 믿지 않는 죄인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홍수 이전 땅은 시냇물과 강을 통해 관개되고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아침 이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마른 땅 위에 방주를 지은 이후로, 노아가 예고한

홍수를 말과 행동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40주야 ” 라는 때는 시련의 때를 가리킨다. 그 결과, 이집트에서 갓 나온 육적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동안 모세가 없는 동안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육신적인 모세의 형 아론의 동의로 녹인 “금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그 후 “*40주야*” 동안 가나안 땅을 탐험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그 땅에 거하는 거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40주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번에는 오랜 단식으로 약해지셨지만, 그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결국 승리하지 못한 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그분의 지상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7:13: “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내와 세 자부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 구절은 지상의 인간 피조물이 남녀 모두 선택됨을 강조합니다. 각 인간 남성은 “ *그의 조력자* ”, 즉 “ *아내* ” 라고 불리는 그의 여성을 동반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각 부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분의 도움*”, 그분께서 구원하실 선택받은 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방주라는 피난처는 방주가 인간에게 드러내는 첫 번째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창 7:14: “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와 모든 작은 새와 날개 있는 모든 것이...*

종 ”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인류가 마지막 시대에 동물과 심지어 인류에 대해 논쟁하고 범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당신의 본성의 법칙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보다 더 종족의 순수성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신성한 견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원래 창조의 완전성은 이 순수함과 종의 절대적인 **분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개 달린 종족을 강하게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의 땅과 공중을 마귀에게 예속된 왕국으로 암시하시며, 마귀는 자신을 에베소서에서 “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라고 부르셨습니다. 2:2.

창 7:15: “ *생명의 호흡이 있는 육체가 둘씩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각 부부는 같은 종류의 부부와 **분리**되어 홍수 후에도 그 생명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분리**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앞에 두신 두 길의 원칙을 실천하십니다. 선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악한 길은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창 7:16: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남자와 여자가 들어오니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중 ”의 번식 목적은 여기에서 “수컷과 암컷 ”이라는 언급으로 확인됩니다 .

이 경험에 모든 중요성을 부여하고 신성한 은혜의 시대 마지막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부여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그에게 문을 닫으셨다 .” 삶의 운명과 죽음의 운명이 변함없이 갈라지는 순간이다 . 2029년에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당시의 생존자들은 제시된 최후통첩에 따라 하느님과 그분의 제칠일 안식일, 즉 토요일을 공경할지 아니면 로마와 로마의 첫째 날 일요일을 공경할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반역적인 인류에 의한 법령의 형태로. 여기에서 다시 “은혜의 문 ”은 계시록 3:7에 따르면 “여는 이도 닫는 이도 ”하나님에 의해 닫힐 것입니다 .

창 7:17: “홍수가 땅에 사십일 동안 있었더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방주는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치가 올라갑니다.

창 7:18: “물이 땅에 많아 더욱 많아지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니라.”

방주는 떠다닌다.

창 7:19: “물이 점점 많아져 온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건조한 토양은 물에 잠기면 보편적으로 사라집니다.

창 7:20: “물이 산 위로 15큐빗이나 솟아올라 잠겼더라.”

당시 가장 높은 산은 약 8m의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 7:21: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니라.”

공기를 마시는 모든 동물은 익사합니다. 새들에 관한 정확성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는 사탄과 같은 하늘의 존재들이 땅의 존재들과 함께 멸절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적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창 7:22: “마른 땅 위에 호흡 곧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느니라.”

호흡에 생명을 의존하는 사람처럼 창조된 모든 생명체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은 홍수의 형벌을 가리는 유일한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엄격히 사람에게 있고 어딘가에서는 무고한 동물의 죽음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역적인 인류를 완전히 익사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구 대기의 공기를 호흡하는 동물들을 좋아하는 동물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정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위해 땅을 창조하셨지, 사람을 둘러싸고 동행하고 가축의 경우 그를 섬기도록 창조된 동물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창 7:23: “ 지면의 모든 생물이 다 끊어졌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니 그들이 땅에서 끊어지니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들 만 남았더라.**”

함께 그룹화되어 있는 그의 인간 동료들 사이에 만드신 차이점을 확증해 줍니다. **방주 안에.**”

창 7:24: “ 물이 백오십 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계속 쏟아져 홍수가 난 후, “ 백오십 일 ”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 가장 높은 산 ” 보다 약 8m 높은 “ 15규빗 ”의 최대 높이에 도달한 후 수위는 “ 150일 ”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때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참고 : 하나님은 홍수 이전의 인간과 동물에 관한 거대한 기준에 따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그의 프로젝트는 그의 모든 창조물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홍수 이후의 규범에 따라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히브리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이 들고 다녀야 할 만큼 큰 포도송이를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크기 감소는 필연적으로 나무, 과일 및 채소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조주께서는 창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은 발생하는 새로운 생활 조건에 맞게 지상의 창조물을 수정하고 적응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양광선이 지구에 90도 각도로 닿는 열대 및 적도 지역에서 강한 태양복사에 노출되어 사는 인간의 피부에 검은 색소 침착을 만들어 냈습니다 . 다른 피부색은 햇빛의 양에 따라 다소 흰색이거나 창백하며 다소 구릿빛입니다. 그러나 피로 인한 아담의 기본 붉은색(Red)은 모든 인간에게서 발견된다.

성서는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동물 종의 자세한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제를 신비하게 남겨두셨고, 특별한 계시 없이도 모든 사람은 사물을 상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첫 번째 형태의 육상 생명체에 완전한 성격을 부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이 오늘날 과학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되는 선사 시대 괴물의 뼈가 지구 땅에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지구. 또한 나는 곧 하나님에게서 다시 멀어질 인류를 위해 땅의 저주를 강화하기 위해 홍수 후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끊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게 주신 총명과 위대한 지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인간이 사나운 동물들에게 공격받고 위협을 받는 "동굴인"의 타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의 소중한 도움으로 그들을 집단으로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천후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의.

창세기 8장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의 순간적인 분리

창 8:1: “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짐승과 모든 육축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매 물이 잔잔하게 되었느니라.* ”

안심하세요, 그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떠다니는 방주에 갇힌 이 독특한 생명들의 집합은 인류와 동물 종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축소된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그것들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땅에 다시 사람이 살고 땅 표면에 퍼지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창 8:2: “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라* ”

하나님은 그의 필요에 따라 홍수의 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늘로부터,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물쇠지기의 모습을 취하여 상징적인 하늘의 수문을 열었고 다시 닫을 때가 온다.

“ *깊음의 근원* ”의 보완적인 역할을 환기시킴으로써 홍수가 단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 *무저갱* ”은 창조 첫날부터 온통 물로 뒤덮인 땅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면, 그 “ *근원* ”은 바다 자체로 인해 수위가 상승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현상은 해저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수위가 상승하여 첫날 지구 전체를 덮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합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바다의 깊은 곳이 가라앉아서 마른 땅이 물 밖으로 드러났고, 그 반대 작용으로 마른 땅이 홍수로 덮였습니다. “ *하늘의 수문* ”이라고 불리는 비는 형벌이 하늘로부터,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나타내는 데에만 유용했습니다. 나중에 이 “ *하늘의 자물쇠* ”라는 이미지는 동일한 천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마음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홍수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창조된 창조물에 대해 점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연이 그의 손에 있는 강력한 무기, 즉 선한 방향으로 걷는지 악한 방향으로 걷는지에 따라 축복이나 저주를 제공하기 위해 조작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인류에게 보여줍니다.

창 8:3: “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러가며 일백오십 일을 마치니 물이 줄어들었느니라.”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최고 수위에서 150일이 안정되면 경기 침체가 시작됩니다. 천천히, 바다 심연의 수위는 내려오지만, 홍수 이전만큼 깊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창 8:4: “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렛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더라.”

다섯 달이 끝나는 날, 즉 “ 일곱째 달 십칠일 ”에 방주는 더 이상 뜨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아라랏의 가장 높은 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숫자 “17”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의 끝을 확증해 줍니다. 이 설명으로 볼 때, 홍수 동안 방주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지은 지역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의 증거가 러시아와 터키 당국에 의해 접근이 금지되어 있던 바로 이 아라랏 산 정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가시적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선택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얼음과 눈 속에 방주 조각이 끼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공 사진 촬영을 선호하셨습니다. 오늘날 위성 관측을 통해 이러한 존재를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권위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수처럼 행동하며, 공의롭게도 하나님은 전염병과 테러 공격으로 그들을 치심으로써 그들에게 갚으십니다.

창 8:5: “ 열째 달까지 물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열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니라”

홍수 후에 수위가 대홍수 이전 지구의 수위보다 높기 때문에 물의 감소는 제한적입니다. 고대 계곡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으며 지중해, 카스피해, 홍해, 흑해 등과 같은 현재 내륙 바다의 모습을 갖습니다.

창 8:6: “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를 위해 만든 창문을 열었습니다.”

150일의 안정과 40일의 기다림 끝에 노아는 처음으로 작은 창을 엽니다. 1큐빗(55센티미터)의 작은 크기는 생명의 방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를 풀어주는 용도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당화되었습니다.

창세기 8:7: “ 까마귀를 놓으시니 까마귀가 나와서 땅의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며 돌아오더라.

창조 초기의 ' 어둠과 빛 ' 또는 ' 밤과 낮 ' 의 순서에 따라 일어난다 . 또한, 가장 먼저 보낸 발견자는 " 밤 "과 같은 " 검은색 " 깃털을 가진 불순한 " 까마귀 " 입니다 .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에 대하여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이 활성화될 어둠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의 행위에서 구출하려고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옛 언약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까마귀”처럼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분리된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창 8:8: “그리고 땅의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아보시려고 비둘기도 놓아 주셨습니다.”

같은 순서로 눈처럼 “하얀” 깃털을 지닌 순수한 “비둘기”가 정찰을 위해 보내집니다. “낮과 빛”이라는 표시 아래에 배치됩니다. 이처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바탕으로 새 언약을 예언한다.

창 8:9: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바닥을 들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 방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독립적인 검은색 ‘까마귀’와는 달리, 흰색 ‘비둘기’는 노아와 함께 ‘손을 내밀어 방주 안으로 데려가겠다’는 제안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와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인연의 형상입니다. “비둘기”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실 때 그 위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두 가지 성경 인용문을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둘기가 발바닥으로 쉴 곳을 찾지 못하더니” 마 8:20의 이 구절과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돌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 1장 5절과 11절의 이 구절들에서 그는 생명의 신성한 “빛”의 성육신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요 자기 백성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둘기”가 자신을 “그의 손”에 붙잡고 부활하여 노아에게 돌아왔듯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메시지를 남기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당신의 신성을 향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관한 그의 좋은 소식은 계시록 14:6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분은 “일곱 교회”가 예언한 “일곱 시대”에 그들을 “그의 손에”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곱 족대”로 표현된 그분의 “빛”을 신성한 성화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 8:10: “칠일을 더 기다린 후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놓았더라.”

7일”에 대한 이 이중적 상기는 노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이 “7일” 주간의 통일성, 또한 “7천”년의 상징적 통일성 에 기초하여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질서가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위대한 구원 프로젝트에 대해. 이 숫자 “일곱”에 대한 언급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숫자에 주시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지상 지배를 종식시킬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특히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창8:11: “저녁이 되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 부리에 찢어진 감람나무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이라는 단어로 예고된 “어두움 ”의 오랜 시간이 지나면 , 구원의 소망과 죄로부터의 구원의 기쁨이 “ 감람나무 ”의 형상 아래로 올 것이며, 옛 동맹과 새 동맹이 차례로 올 것입니다. 노아가 “감람 나무 잎사귀”를 통해 바라던 땅이 그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처럼 , “ 하나님의 아들들 ”은 하나님의 사자 에 의해 천국이 그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배우고 이해할 것입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

이 “ 감람잎 ”은 나무의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이 다시 가능해졌음을 노아에게 증거했습니다.

창8:12: “ 그리고 그는 칠 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둘기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 ”가 다시 한번 먹이를 제공하는 자연에 머물기로 선택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

비둘기 ”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후 사라지듯이 , 자신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후, “ 평화의 왕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과 제자들을 떠나 그들을 자유롭게 독립되게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창 8:13: “ 육백일년 정월 곧 그 달 초하루에 땅의 물이 말랐느니라. 노아가 방주 뒤편을 걸어내고 보니, 땅의 표면이 말랐습니다.

땅의 건조는 여전히 부분적이지만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아는 방주의 지붕을 열어 방주 외부를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아라랏 산 정상에 좌초되었음을 알고 그의 비전은 아주 멀리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넓게. 홍수 체험에서 방주는 부화하는 알의 이미지를 취합니다. 부화하면 병아리 자체가 자신을 감싸고 있던 껍질을 깨뜨립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폭우로부터 방주를 보호하는 데 더 이상 쓸모가 없을 “ 방주의 뒤편을 제거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닫았던 방주의 문을 열기 위해 오시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구원의 문과 천국의 문이 항상 닫혀 있는 지상의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의심하거나 바꾸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창 8:14: “ 둘째 달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더라.”

배에 오른 날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날로부터 377일 동안 방주 안에 완전히 갇혀 있으면 땅은 다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창 8:15: “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 8:16: “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 방주 ”가 나오도록 신호를 주시는 분, 홍수 전에 방주에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 문 ”을 닫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

창 8:17: “ 너와 함께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

그 장면은 창조 주간의 다섯째 날의 장면과 비슷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수 후에 땅에 다시 사람이 사는 것은 지상 역사의 첫 6000년 동안 예언된 프로젝트의 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이 단계가 끔찍하고 설득력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한 심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류에게 치명적인 증거를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부터 8절까지에서 상기할 증거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에 잠기워 멸망하였나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여 두어 심판과 파멸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느니라 불경건한 남자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으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니라 .”* 예언된 불의 홍수는 일곱째 천년기 말 마지막 심판 때에 땅 전체 표면을 덮을 지하 마그마의 화염 근원이 터짐으로써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20:14-15에 인용된 이 “ 불 못 ”은 불충실하고 반역적인 주민들과 그들이 하나님의 입증된 사랑을 멸시함으로써 특권을 누리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와 함께 땅의 표면을 멸절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천년은 주일의 일곱째 날로 예언되었는데, 이는 “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는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창 8:18: “ 노아가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

동물들이 풀려나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들이 차례로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비좁고 어두운 밀폐된 공간에서 377일 밤낮을 감금된 후 햇빛과 자연이 제공하는 광활하고 거의 무한한 공간을 찾습니다.

창 8:19: “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으니 .”

방주가 나가는 것은 택하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으나 오직 하나님께 정결하다고 심판을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노아 시대에는 아직 그렇지 아니하니 정결한 자와 더러운 자와 함께 같은 땅에 살면서 세상 끝날까지 서로 싸우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창 8:20: “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렸느니라 .”

번제는 선택받은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행위이다. 무죄한 희생자(이 경우에는 동물)의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방법을

상기시켜 줍니다. 순수한 동물은 영혼과 몸과 영 전체에 완전한 순결을 구현하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형상화하기에 합당합니다.

창 8:21: “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고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처음부터 악함이라. 그리고 나는 내가 한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는 참된 믿음의 행위요,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치시기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제사 의식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 좋은 냄새 ”라는 표현은 신적인 후각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선택된 자의 순종과 이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자비로운 희생에 제공하는 예언적 비전을 높이 평가하는 신적인 성령에 관련됩니다.

마지막 심판까지는 더 이상 파괴적인 홍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사도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선천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육신적으로 “ 악하다 ” 는 것이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 “ 그러므로 너희가 악할 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공유한 의견인 이 “ 사악한 ” “ 동물 ” 을 길들여야 할 것이며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 사악한 ” 사람들 중 일부는 신실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창 8:22: “ 땅이 있는 한 파종과 수확,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 ”

이 여덟 번째 장은 창조 첫날부터 지상 생활의 조건을 지배하는 절대적 반대의 교대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하느님께서 “ 밤과 낮 ” 의 구조를 통해 “ 어두움 ” 과 “ 어두움 ” 사이의 지상 전투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승리할 빛 ” 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거나 미워할 정도로 거부할 수 있는 천상과 땅의 피조물에게 주어진 자유 선택의 결과인 극단적인 변화를 나열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결과는 홍수가 방금 보여주었듯이 선의 편에 선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악의 편에 선 자에게는 죽음과 파멸이 될 것입니다.

인용된 주제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파종과 수확 ” : 복음화의 시작과 세상의 종말을 암시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것을 뿌린*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는 세상의 종말이다 . 수확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다.”

“ 냉기와 더위 ”: “ 더위 ”는 계시록 7:16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 그러나 정반대로 “ 추위 ”는 죄의 저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 여름과 겨울 ”: 이것은 극한의 두 계절이며, 둘 다 지나치게 불쾌합니다.

“ 낮과 밤 ”: 하나님은 인간이 그에게 부여한 순서대로 그것들을 인용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그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의 시간인 낮의 시간이 오기 때문이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 ”(요한복음 9장 4절), 즉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때가 끝날 때부터 삶과 죽음이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삶의 규범으로부터의 분리

창9:1: “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방주, 즉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 의해 선택되고 구원받은 생명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역할이 될 것입니다.

창9:2: “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네가 너희를 무서워하고 놀라게 하리라. 당신 손에 ”

동물의 생명은 인간 덕분에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홍수 이전보다 훨씬 더 동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짜증 때문에 동물이 통제력을 잃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창9:3: “ 움직이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의 식물이 되리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푸른 풀 같이 주리라. ”

이러한 식단 변화에는 몇 가지 정당성이 있습니다. 제시된 순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먼저, 나는 홍수 동안 식물성 식품이 즉시 고갈되지 않고 소금물로 덮인 땅이 부분적으로 불모화되어 점차 완전하고 완전한 비옥함과 생산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더욱이, 히브리 희생의식의 확립은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이 먹히는 성만찬의 예언적 환상에서 희생된 희생의 살을 소비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의 피의 상징으로 마시는 포도 주스. 세 번째 이유는 허용하기 쉽지 않지만 사실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요소를 인간의 몸에 가져오는 육체의 소비는 사람의 욕망과 결정의 성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채식주의 또는 비건 식단에 대한 경험만이 개인적인 확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동물이** 건강에 해로울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먹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창9:4: “ 오직 고기를 그 영혼과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이 금지 사항은 레위기 17:10-11에 따라 옛 언약에서도 유효할 것입니다. “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무슨 피든지 먹으면 내가 그 먹는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리라** ” **피를 흘리면 내가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을 것이다 .** ” 또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뉴스에는 “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려움을 끼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서 ...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음 이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

육신의 몸과 육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으로 이루어진 피조물 전체를 “ **영혼** ”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살에서 운동 기관은 폐에서 흡입되는 산소에 의해 숨을 쉴 때마다 정화되는 혈액 자체에 의해 공급되는 뇌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뇌는 생각과 기억을 생성하는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육체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육체 기관의 기능을 관리합니다. 더욱이, 각 살아있는 영혼에 고유한 계놈에 의한 "피"의 역할은 건강상의 이유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혈액은 몸 전체에 생성된 노폐물과 불순물을 운반하기 때문이며 영적인 이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교적 가르침을 위해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원칙을 보존해 두셨으나, 오직 포도즙이라는 상징적인 형태로만 보존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몸이 영양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실제 원칙에 따라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한 성품으로 재건됩니다.

창9:5: “ **너희도 이것을 알라 내가 너희 영혼의 피를 요구하고 모든 동물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리고 나는 사람, 곧 그의 형제에게서 사람의 영혼을 요구할 것입니다.**”

생명은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범죄가 빼앗긴 생명의 진정한 주인인 그를 향한 분노를 깨닫기 위해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살해 명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다. 앞 구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의 생명을 취하여 음식으로 삼을 권한을 주셨지만 여기서 인간은 동물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끝내는 범죄, 살인의 문제입니다. 이 제거된 생명은 더 이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며,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행동의 변화를 목격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보복의 법칙의 기초를 두셨습니다. 동물은 사람을 죽인 대가를 그 자신의 죽음으로 지불할 것이고, 가인형의 사람은 자신의 혈통인 아벨형의 “**형제**”를 죽이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창9:6: “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살인자의 죽음을 허락하심으로써 억제 효과를 기대하시고, 발생하는 위험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공격성을 통제하여 죽음에 합당한 암살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되고 참된 믿음으로 활력을 얻은 사람만이 “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서구 세계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과학적 지식의 유혹을 받는 경우처럼 인류가 괴물 같고 가증스러워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창9:7: “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위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은 정말로 이러한 증가를 원하시며, 합당한 이유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선택받은 사람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피조물의 수가 많을수록 그들 가운데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을 찾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단 7:9에 기록된 정확성에 따르면 그 비율은 100억 부르심에 100만, 즉 10,000에 1이기 때문입니다.

창9:8: “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인 남성에게 지배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권위 아래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행하도록 허용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확신의 표시이지만,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면전과 심판 앞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창9:9: “ 보라,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후손과 내 언약을 세우노라.

»

“ 언약 ” 을 세우신 “ 씨앗 ” 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생활과 그 매력적인 발명품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새로운 시작의 상속자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맺은 언약은

구체적입니다. 더 이상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실 동맹이 올 것이며, 이 동맹은 문자 그대로 시간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춘 두 가지 연속적인 측면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동맹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의 신분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개별적일 것이다. 그분의 초림 이전 16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제정된 종교 의식을 통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든 빛 가운데 계시된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후, 약 16세기 동안 불신앙이 충실함을 이어받을 것이며, 1260년 동안 가장 어두운 어둠이 로마 교황의 비호 아래 통치할 것입니다. 1170년 페터 발도(Peter Valdo)가 참안식일 준수를 포함하여 순수하고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다시 실천할 수 있게 된 이후, 덜 계몽된 선출직 관리들이 그의 뒤를 이어 종교 개혁 사업에 참여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채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중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 재림교회의 선구자들 가운데서 신실한 택자를 찾으실 수 있었던 것은 1843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의 예언에 밝혀진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맹의 표징은 언제나 그분의 빛을 가져오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쓰고 있는 작업이 그분의 마지막 형태인 “예수에 대한 간증”을 구성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동맹이 매우 현실적이고 확인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창9:10: “너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이나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동맹은 동물, 곧 땅에 살아 있고 번성하게 될 모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창 9:11: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사람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주는 교훈은 독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근접전을 벌이실 것입니다.

창9:1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표징은 살아있는 모든 것, 정결한 것, 불순한 것 모두에 적용됩니다. 제철일 안식일은 아직 그분의 인격에 속해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이 표시는 그분이 다시는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창9: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과학은 무지개가 존재하는 물리적 원인을 설명할 것입니다. 얇은 물층이나 높은 습도에 떨어지는 햇빛의 빛 스펙트럼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무지개가 나타나고 태양이 빛을 발산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비는 홍수를 연상시키며, 햇빛은 눈에 띄고 유익하며 위안을 주는 하느님의 빛의 이미지라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창9:14: “ 내가 땅 위의 구름을 모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것이요; »

그러므로 구름은 홍수 후에만 비를 생성하고 동시에 무지개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이 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증한 시대에 불경건한 남자와 여자들은 이 하나님의 동맹의 상징을 성적 변태들의 집합의 약어와 상징으로 삼음으로써 이 무지개라는 주제를 왜곡하고 더럽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인류를 향한 이 가증스럽고 무례한 인류를 공격할 타당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진노의 마지막 징조가 곧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불처럼 타고르고 죽음처럼 파괴될 것입니다.

창9:15: “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자비로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홍수 이전의 수준에 이르렀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오늘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그 역설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 더 이상 홍수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반역자들을 위해서는 심판 날까지 불의 홍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제3차 세계대전의 핵불, 즉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여섯 번째 나팔"이 여러 가지 불길하고 치명적인 "버섯"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 지구의 대도시, 수도이든 아니든 불평등의 피난처를 없애십시오.

창9:16: “ 활이 구름 속에 있을 것이다.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생물 곧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시간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들에게 대홍수 이전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를 피할 큰 희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홍수 이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어디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창9:17: “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와 맺은 이 언약의 성격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집단적 의미에서 항상 인류와 관련된 동맹입니다.

창9:18: “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는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모두 대홍수 이전 시대의 크기를 유지한 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거인들은 특히 이집트를 떠나는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에서 계속해서 번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크기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다.

창9:19: “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이요, 그들의 후손이 온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원래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기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홍수 이후의 새로운 삶은 셈, 함, 야벳 세 사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의 민족은 **분리되고 분열 될 것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탄생은 그 족장인 셈, 함, 야벳과 연결될 것입니다. 분열의 정신은 조상의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서로 대항하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기원에 의존할 것입니다.

창9:20: “ 노아는 땅을 경작하기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은 대체로 정상 범위 내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경작이 끝나면 포도를 수확하고 압착된 즙이 산화되어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창9:21: “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가운데서 벌거벗은지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음으로써 Noé는 자신이 혼자라고 믿고 자신을 폭로하고 완전히 옷을 벗습니다.

창9: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를 밖으로 자기 두 형제에게 고하니라.»

그 당시 인간의 마음은 죄 많은 아담이 발견한 이 벌거벗음에 여전히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확실히 약간 조롱하는 참은 자신의 시각적 경험을 두 형제에게 보고하려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9:23: “ 이에 셈과 야벳이 겹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뒤로 물러가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더라. 그들은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면서 두 형제는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창 9:24: “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들었으나.”

그래서 두 형제가 그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은 아버지가 침해당한 것처럼 자신의 명예를 느끼는 노아를 흥분시킬 것입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되고 설탕이 알코올로 변하는 포도 주스의 자연 반응의 희생자였습니다.

창9:25: “ 그리고 그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게 하소서! »

사실 이 경험은 창조주 하나님이 노아 자손의 후손에 대해 예언하시는 구실일 뿐입니다. 가나안 자신은 그의 아버지 함의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잘못이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를 저주했습니다. 확립된 상황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 이 명백한 불의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유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들은 공격을 받을 때 항상 아버지의 편을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치시면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옹호할 것입니다. 노아는 아들 가나안을 저주함으로써 후손의 성공을 걱정하는 아버지 함을 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 된 결과를 그와 함께 감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노아와 그분이 축복하신 두 아들 셈과 야벳에 대해 지속적인 분노를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고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함의 또 다른 아들: 미스라임)에게 그들의 국토를 제공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9:26: “ 그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노아는 그의 아들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자손이 셈 자손의 종이 되리라. 참은 남쪽으로 확장하여 현재의 이스라엘 땅까지 아프리카 대륙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Sem은 동쪽과 남동쪽으로 확장하여 현재 아랍 무슬림 국가에 거주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이라크인 칼데아에서 순수한 셈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역사는 가나안 아프리카가 참으로 셈의 후손인 아랍인들의 노예였음을 확증합니다.

창9:27: “ **하나님이 야벳의 소유를 확장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야벳은 북쪽, 동쪽, 서쪽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북쪽이 남쪽을 지배할 것입니다. 북방의 기독교화 국가들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방의 아랍 국가들을 착취하고 가나안의 후손인 아프리카 민족들을 노예로 삼게 될 것입니다.

창9:28: “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았더라.** ”

350년 동안 노아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홍수를 증언하고 홍수 이전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창9:29: “ 노아의 모든 날은 구백오십 세였더라. 그러다가 죽었어 .”

아담 홍수해인 1656년에 노아는 600세였으므로 아담의 범죄 이후인 2006년에 950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따르면, 1757년 " 벨렉 "이 태어났을 때, 니므롯 왕과 그의 바벨탑의 반역적인 반역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 땅이 나뉘었습니다 ". 분열 또는 분리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분리 되어 그분의 얼굴과 뜻 앞에서 더 이상 연합된 블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그들 에게 주신 다양한 언어의 결과였습니다 . 따라서 노아는 그 사건을 경험했고 그 당시 그는 757세였습니다.

노아가 죽었을 때 아브람은 이미 태어났으나(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2052년 전인 1948년, 우리의 허위력 30년) 그는 북방에 살았던 노아와는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아라랏산.

1948년에 태어난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크가 70세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하란을 떠났는데, 2023년 75세, 즉 2006년 노아가 죽은 지 17년 만이다. 동맹의 영적 중계는 따라서 확신하고 성취했습니다.

2048년, 100세가 된 아브람은 이삭을 낳습니다. 그는 2123년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따르면, 2108년 60세의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민족의 분리

이 장에서는 우리에게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을 소개합니다. 이 계시는 유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에서 항상 관련 지역의 원래 이름을 언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름 중 일부는 주요 뿌리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름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ede의 경우 " Madai ", Tobolsk의 경우 " Tubal ", Moscow의 경우 " Meshech "입니다.

창 10:1: “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

야벳의 아들들

창 10:2: “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더라. »

" *Madai* "는 미디어입니다. " *자반* ", 그리스; " *Tubal* ", Tobolsk, " *Meshech* ", 모스크바.

창 10:3: "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요.* »

창 10:4: "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다.* »

" *다시스* "는 다소를 뜻한다. " *Kittim* ", 키프로스.

창 10:5: " *그들로 말미암아 열방의 섬들이 그 땅 과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거주하게 되었느니라.* »

열국의 섬들 " 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유럽의 서부 국가들과 아메리카 대륙, 호주와 같은 그 넓은 지역을 가리킨다.

각 사람의 언어에 따른 " 정확성은 창세기 11장에 드러난 바벨탑의 경험에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의 아들들

장군. 10:6: "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니라.* »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지정합니다. " *미스라임* ", 이집트; " *푸트(Puth)* ", 리비아; 그리고 " *가나안* "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또는 고대 팔레스타인을 의미합니다.

창 10:7: "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월라, 샹다, 라에마, 샹드가니라. 라에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

창 10:8: " *구스는 또한 니므롯을 낳았고; 지구상에서 강력해지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

이 왕 " *니므롯* "은 창세기 11장에 따라 사람들을 민족과 나라로 **분리 하고 고립시키는** 하나님에 의한 언어 **분리** 의 원인인 " *바벨탑* "의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창 10:9: "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었으며 그러므로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과 같다고 말합니다.* »

창 10:10: " *그는 처음으로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네를 다스렸습니다.* »

" *바벨* "은 고대 바벨론을 가리킨다. " *Accad* ", 고대 Akkadia 및 현재 도시 바그다드; " *시니어* ", 이라크.

창 10:11: "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왔습니다. 그는 니네베, 르호보힐, 갈라를 건축했다.* »

' *아수르* '는 아시리아를 가리킨다. " *니네베* "는 지금의 모술이 되었습니다.

창 10:12: " *그리고 니네베와 갈라 사이의 레센; 그것은 대도시입니다.* »

이 세 도시는 현재 이라크 북부와 "타이거" 강을 따라 위치해 있었습니다.

창 10:13: “ 미츠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힘을 낳았으며”

창 10:14: “ 파트루심, 가슬루힘, 그에게서 블레셋 사람과 갑도림 사람이 나왔습니다. »

“ 블레스타인 ”은 옛 동맹처럼 여전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팔레스타인을 가리킨다. 그들은 1979년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역사적 적이었던 이집트의 자손들입니다.

창10:15: “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헛을 낳았고 »

창 10:16: “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 여부스 ”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 아모리 족속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첫 번째 주민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대 규범에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 그의 백성 앞에서 특별로 쓸어버리시고 그 곳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창10:17: “ 히위 족속, 알렉 족속, 신 족속”

' 신'은 중국을 가리킨다.

창10:18: “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 그러자 가나안 족속들이 흩어졌습니다. »

창 10:19: “ 가나안 사람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 쪽을 거쳐 가사까지와 소돔 쪽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거쳐 레사까지 이르렀더라. »

이 고대 이름은 그 부지에 소돔과 고모라가 건설된 것에 따라, 서쪽은 시돈이 있는 곳부터 남쪽은 현재 가자가 여전히 위치한 남쪽, 동쪽은 남쪽인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사해(死海) 곧 스보임이 있는 북쪽에 있는 곳.

장군. 10:20 “ 이들은 함의 자손이니 그 종족과 방언과 나라와 나라대로라. »

셈의 아들들

창 10:21: “ 헤벨의 모든 아들의 아버지이자 장로 야벳의 형제인 셈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

창 10:22: “ 셈의 아들은 엘람, 앓수르, 아르박삿, 룿, 아람이더라. »

“ 엘람 ”은 현재 이란의 고대 페르시아인과 인도 북부의 아리아인을 지칭합니다. 현재 이라크의 고대 아시리아인 " Assur "; “ Lud ”, 아마도 이스라엘의 Lod; “ 아람”, 시리아의 아람 사람들.

창10:23: “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이다. »

창10:24: “ 아르박삿은 셀락을 낳았고 그리고 셀락은 히벨을 낳았습니다. »

창 10:25: “ 헤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시대에 땅이 나누어졌으므로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고 ,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욱단이였다. »

우리는 이 구절에서 “ *그 때에 땅이 나뉘었으므로* ”라는 정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1757년에 바벨탑을 세워 반역적인 통일을 시도한 결과로 언어가 **분리된** 사건과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지금은 니므롯 왕의 통치 시기이다.

창 10:26: “ *욕단은 알모닷과 셸렙과 하살마윗과 예라를 낳았으며* ”

창 10:27: “ *하도람, 우살, 디글라,* ”

창 10:28: “ *오발, 아비마엘, 세바* ”

창 10:29: “ *오빌, 하월라, 요밥. 이들은 모두 욱단의 아들들이다.* »

창 10:30: “ *그들은 스발 옆 메사에서부터 동쪽 산까지 거주하였느니라.* »

창 10:31: “ *이들은 셈의 자손들이니 그 가족과 방언과 나라와 나라대로였더라.* »

창 10:32: “ *이들은 그 세대와 나라대로 본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니라. 그리고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 나갔습니다.* »

창세기 11장

언어별 분리

창세기 11장 1절: “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같았느니라* ”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라는 한 쌍의 후손이라는 사실의 논리적 결과를 상기시키십니다. 따라서 구어는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창 11 :2: “ *그들이 동쪽으로 떠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 하였고* ”

현재 이라크의 "시니어" 국가의 "동쪽"에는 현재의 이란이 있었습니다. 더 높은 지역을 떠나 남자들은 두 개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히브리어: 프랏과 히데켈)가 흐르고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평야에 모였습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삼촌과 헤어질 때 이곳을 선택하여 정착했습니다. 대평원은 세상 끝날 때까지 유명하게 남을 큰 도시 “ *바벨* ”의 건설을 촉진할 것입니다.

창 11:3: “ *그들이 서로 말하되 오라! 벽돌을 만들어 불에 굽자. 그리고 벽돌은 돌의 역할을 했고, 역청은 시멘트의 역할을 했습니다.* ”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텐트에서 살지 않고, 영구적인 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구운 벽돌 제조를 발견합니다. 이 발견은 모든 도시의 기원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파라오를

위해 람세스를 짓기 위해 이 벽돌을 제조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을 고통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들의 벽돌은 불에 구워지지 않고 흙과 짚으로 만들어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에 말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창11:4: “ 또 그들이 다시 말하되 가자! 성읍 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은 유목민으로서 온 땅에 흩어져 살았으며, 항상 여행에 적합한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한 장소와 영구적인 거처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여 최초의 정착 백성이 되는 순간을 이 계시에서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모임은 논쟁, 싸움, 죽음을 불러오는 **분리**를 벗어나기 위해 그들을 단결시키도록 이끈다. 그들은 노아에게서 홍수 이전 사람들의 사악함과 폭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지경이었습니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를 위험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 한 곳에 촘촘히 모이면 이러한 폭력을 피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벨 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통치자와 큰 지배권은 연합과 집합에 힘의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전 장에서는 분명히 바벨탑과 그 탑을 건설함으로써 당시 인류를 통합한 최초의 지도자였던 니므롯 왕을 인용했습니다.

텍스트에는 “ **상부가 하늘에 닿는 탑**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만진다”는 이 생각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지낼 수 있고 문제를 스스로 피하고 해결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합류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창 11:5: “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들이 건축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반역적인 생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류의 계획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창 11 :6: “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들이 한 민족이요, 모두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들이 계획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일 민족을 이루고,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이상을 꿈꾸는 현대 보편주의자들은 바벨 시대의 상황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니므롯이 모인 사람들과 같은 우리의 보편주의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 1747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표현하셨습니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은 그를 기쁘게 하지 않으며 짜증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전멸시킬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역적인 인류가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단점이 있으며 그것은 그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더 많이 모일수록 그들은 그를 더 거부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그의 면전에서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창 11:7: “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더 이상 서로의 언어를 듣지 못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더 이상 서로의 언어를 듣지 못하게 합시다.” 이 행동은 신성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순간에 남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원하는 단위가 **손상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인간의 분리는 여전히 존재하며 잘 성취되었다.

창 11:8: “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그리고 그들은 도시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다른 사람들과 멀어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돌과 벽돌로 만든 도시를 발견하게 될 여러 장소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 언어 ”의 경험 이후입니다. 국가가 형성될 것이며 그들의 잘못을 처벌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서로 대적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 평화를 이루려는 ‘ 바벨 ’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창 11:9: “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느니라.”

언어의 혼란 ”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인간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알려질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모세에게 지시하신 간증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읽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반역자들에게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이 보편적인 모임이 재현되어 제3차 세계 대전 이후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반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멸망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그분의 거룩하신 안식일에 충실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택하신 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분의 진노”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인류가 결코 준수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 의해 또는 대규모의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멸망될 때까지 온 땅에 계속해서 큰 도시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셈의 후손들

신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현재 유일신교를 향하여

창 11:10: “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라. 셈은 홍수가 있던 지 2년 뒤에 백세 된 아르박갓을 낳았다.

셈의 아들 아르박갓은 1658년에 태어났다(1656+2).

창 11:11: “ 셈은 아르박갓을 낳은 후에 오백년을 살았으며 그리고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셈은 2158년 600세(100 + 500)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창 11:12: “ 아르박갓은 삼십오 세라 셀락을 낳았고”

Arpacschad의 아들인 Schélach는 1693년(1658 + 35)에 태어났습니다.

창 11:13: “ 셀락을 낳은 후 아르박갓은 사백삼 년을 살았고; 그리고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아르팍샤드는 2096년 438세(35+403)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창 11:14: “ 셀락은 서른 살이요 헤벨을 낳았고”

에베르는 1723년(1693 + 30)에 태어났습니다.

창 11:15: “ 셀락은 히벨을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살았고; 그리고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Schélach는 2126년(1723+403) 433세(30+403)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창 11:16: “ 헤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펠렉은 1757년(1723 + 34)에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따르면 그가 탄생할 당시 바벨에 모인 사람들을 나누고 분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한 언어로 “ 땅이 나뉘”었습니다.

창 11:17: “ 벨렉을 낳은 뒤에, 헤벨은 사백삼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에베르는 2187년(1757 + 430) 464세(34 + 430)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창 11:18: “ 벨렉은 서른 살이 되어 르후를 낳았다.”

레후는 1787년(1757 + 30)에 태어났다.

창 11:19: “ 벨렉은 르후를 낳은 후에 이백구 년을 살았고; 그리고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펠렉은 1996년(1787 + 209) 239세(30 + 209)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시대에 성취된 바벨탑의 반역으로 인해 잔인하게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창 11:20: “ 르후는 서른두 살이 되어 스룩을 낳았다.”

세루그는 1819년(1787 + 32)에 태어났습니다.

창 11:21: “ 르후는 스룩을 낳은 뒤에 이백칠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레후는 2096년(1819+207) 239세(32+20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창 11:22: “ 스룩은 서른 살이요 나홀을 낳았고”.

나코르(Nachor)는 1849년(1819 + 30)에 태어났습니다.

창 11:23: “ 스룩은 나홀이 태어난 후에 이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세루그는 2049년(1849+200) 230세(30+200)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창 11:24: “ 나홀은 스물아홉 살에 데라를 낳았다.”

1878년(1849 + 29)에 태어났습니다.

창 11:25: “ 나홀은 데라를 낳은 후, 백십구 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나코르는 1968년(1849 + 119) 148세(29 + 119)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창 11:26: “ 데라는 칠십 세가 되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아브람은 1948년(1878 + 70)에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따르면 아브람은 2048년에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첫 적자 이삭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에 백 세였더라.”

아브람은 2123년에 175세의 나이로 죽을 것 입니다: “ 아브라함의 향년이 이러하니 그가 백칠십오 세를 살았더라».

창 11:27: “ 이들은 데라의 자손들이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은 데라의 세 아들 중 장남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위 26절에 명시된 대로 그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일 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창 11:28: “ 그리고 하란은 그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롯이 나중에 아브람의 여행에 동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브람은 그를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아브람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에서였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다니엘 시대에 반역적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곳도 갈대아 바벨론에서였다.

창 11:29: “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딸이요 밀가의 아버지 이며”

이 시대의 동맹은 매우 친밀했습니다. 나홀은 그의 형제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후손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규범이자 의무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자기 종을 보내어 아람 사람 라반의 가까운 가문에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것입니다.

창11: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

이러한 불임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 여자가 남편 아브람처럼 거의 백 살이 되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불임은 예언적인 차원에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시대에 성육신하실 새 아담의 모형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에는 “하나님 의 약속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예언적 역할 때문에 그가 자신의 아내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육신 안에서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즉 그의 안에 계신 아버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

창 11: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곧 그 아들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려갔더라.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하란에 와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아브람을 포함한 온 가족은 그 나라 북쪽의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이 첫 번째 움직임은 그들을 인류 탄생의 자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그들은 이미 인구가 많고 반항적인 대도시, 비옥하고 번영하는 평야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11:32: “데라의 날은 이백오 년이요. 그리고 데라는 하란 에서 죽었습니다.”

1878년에 태어난 Térach는 2083년 20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 장의 연구를 마치면서 기대 수명을 120세로 줄이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겠습니다. 셈의 “600년”과 나홀의 “148년” 또는 아브라함의 “175년” 사이에는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약 4세기 후에 모세는 정확히 120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용하신 숫자를 완성된 모형으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보존하는지 여부에 따라 모든 인간 피조물 가운데서 택하신 택하신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무엇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 주십니다. 이 역사적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 이삭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며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새 언약이 탄생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지상 가족과의 이별

창 12:1: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조국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람은 지상의 가족, 즉 아버지의 집을 떠날 예정이며, 우리는 이 순서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그의 말씀에 주신 영적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브람은 오직 그의 선택받은 모임인 “신부”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예언적 영적 역할에 들어가기 위해 “그의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육신의 유대는 창조주 하나님 야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한 몸”을 이루는 데 성공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영적 진보의 장애물입니다.

창 12:2: “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람은 유일신론자들에 의해 “신자들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최초의 성경 족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종으로, 그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자세히 추적되고 밝혀질 것입니다.

창 12:3: “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의 여행과 만남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며, 이미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사래와 잠자리를 원했을 때, 아브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말한 대로 사래가 자기 누이라고 믿었을 때였습니다. 환상에서 하나님은 사래가 선지자의 아내였으며 그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인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유다 지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아브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표준을 제시하는 두 가지 연속적인 동맹을 세우실 곳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준은 기호 유형에서 실제 유형으로 이동하기 위해 진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전에 살느냐 그리스도 후에 살느냐에 따라.

창 12:4: “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느니라. 아브람이 하란에서 나올 때 그의 나이는 칠십오 세였다.

75세인 아브람은 이미 오랜 인생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는 이러한 경험을 얻어야 합니다. 그와 분리된 인류의 저주를 발견 한 후 이루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아브람이 그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자 그는 급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유익한 순종은

창세기 26장 5절에 인용된 이 구절에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확인되고 상기될 것입니다: "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에게 제시하셨다면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증거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오랜 삶에 대한 요약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175세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녀가 매분, 초 단위로 무엇을 살았는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요약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아브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순종에 달려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모범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과 그 예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연구는 헛될 것입니다. 29: "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이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 **즐거운 일** " 을 함으로써 달성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참된 종교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기쁘게 하는 단순한 형태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징후는 부모와 국가 권위에 대한 자녀들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항하고, 배은망덕하고, 무관심한 어른들이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조직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동은 그의 의로운 분노와 정당한 비난을 표현하기 위해 외침과 말보다 훨씬 더 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창 12:5: "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래와 그의 조카 롯과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과 그들이 하란에서 얻은 종들을 데려갔느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느니라.**"

차란은 가나안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은 하란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가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창 12:6: " **아브람은 그 땅을 거쳐 세겜이라는 곳,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까요? " **가나안 사람들** "은 거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람 자신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아직 임박했고 아브람의 몸집이 거인만큼 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는 이 거인의 존재를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 자신이 여전히 이 표준에 있다면 이는 논리적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브람은 오늘날의 갈릴리를 건너 오늘날의 사마리아인 세겜에 도착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복음화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 **사마리아 여인** "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처음으로 유대인이 그 가족에게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창 12:7: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날의 사마리아를 선택하여 아브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 만남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통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적 상징입니다. 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한 미래의 국가 복음화와의 연관성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나라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새 땅에서 성취될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원칙에 따라 아브람에게 약속된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창 12:8: “ 그가 거기서 벰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벰엘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더라. 그는 또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브람은 벰엘과 아이 사이의 산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두 도시의 방향을 지정하셨습니다. 벰엘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며 아브람은 그것을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 향하는 방향인 서쪽에 두었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동쪽. 동쪽에는 아이(Ai)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어근은 돌더미, 폐허, 언덕,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심판을 계시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는 동쪽에는 폐허와 돌무더기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아브람은 자유에 이르는 두 길, 즉 서쪽으로는 벰엘과 생명, 동쪽으로는 아이와 죽음이라는 두 가지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이미 YaHWéH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창 12:9: “ 아브람은 계속 여행하여 남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첫 번째 가나안 횡단에서 아브람은 다윗의 미래 도시인 예루살렘의 이름인 “여부스”로 가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는 그곳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창 12:10: “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이집트로 머물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첫 고관이 되었을 때, 아브람을 애굽으로 데려온 것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겪은 경험은 이 장의 나머지 구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평화롭고 심지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아내 사라이를 데려가다가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한 그는 반쪽 진실인 그녀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바로는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부와 권력을 줄 재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사래가 자신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집트를 부유하고 강력하게 남겨둔 아브람을 쫓습니다. 이 경험은 애굽의 노예였던 후 금과 부를 빼앗고 애굽을 떠날 히브리인의 체류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곧 그에게 매우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람이 롯과 헤어짐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과 그의 가족과 그의 조카 롯은 벰엘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벰엘과 아이베 사이, “하나님의 집”과 “파괴” 사이에 있는 이 곳에 있습니다. 종들 사이의 다툼이 있은 후, 아브람은 롯과 헤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번영을 약속하는 평야와 그 비옥함을 선택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보니 요단강 온 평야가 물이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소알 까지는 여호와의 동산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파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해”로 부분적으로 덮여 있는 이 계곡의 도시들을 불과 유황으로 치실 때 그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는 두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경고하고 그가 살 곳인 소돔에서 떠나게 하실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두 딸과 함께 형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소돔 백성은 악하여 여호와께 큰 죄인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은 벰엘 근처 산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창 13:14~18: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누구든지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네 씨도 세리라. 일어나서 땅의 길이와 너비를 여행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람이 장막을 치고 헤브론 근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맡긴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몫을 받고 거기서 다시 축복과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따른 그의 “ 씨 ”와 “ 땅의 먼지 ”, 즉 *인간의 영혼, 몸과 영의 기원과 끝* 의 비교는 창세기의 “ *하늘의 별들* ” 의 비유로 확증될 것입니다 .15:5.

창세기 14장

권력에 의한 분리

동방에서 네 왕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 있는 골짜기의 다섯 왕과 전쟁을 하러 옵니다. 다섯 왕도 패하고 롯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경고를 받은 아브람은 도움을 받아 모든 포로 인질을 구출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의 관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창 14:16: “ 그는 모든 부를 되찾았고; 그는 또한 그의 동생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을 다시 데려왔다.”

실제로 아브람이 개입한 것은 롯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언급하심으로써 이 현실을 가리시어 악인의 성읍에 사는 잘못된 선택을 한 롯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창 14:17: “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갔더라.”

승자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Savéh"라는 단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롯을 유혹하고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가?

창 14:18: “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은 “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의 왕은 정의이다”라는 뜻이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개입은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지상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예배는 아브람 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이 겪은 예언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구원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창 14:19: “ 그리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

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대표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람에게 직접 베푸신 축복을 더욱 확증해 줍니다.

창 14:20: “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하지만 그의 승리를 그에게 돌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는 그것을 “ 가장 높으신 하나님 ” 으로 돌린다. 그의 원수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 그리고 우리는 아브람 이 “나의 왕은 정의이시다”라는 뜻의 멜기세덱에게 “ 모든 것의 십일조 ” 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구체적인 예를 갖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 십일조의 법은 지상의 홍수가 끝난 이래로 이미 존재했으며 아마도 “홍수” 이전에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창 14:21: “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에게 사람을 주고 너는 재물을 얻으라 .”

소돔 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 아브람에게 빛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봉사에 대해 왕족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창 14:22: “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 하늘과 땅의 주권자 ” 이신 “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 의 존재를 상기시켰습니다 . 이로 인해 그는 왕이 그의 사악함을 통해 얻은 모든 부의 유일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창 14:23: “ 네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람을 치부하게 하였나이다 하지 않게 하려고 네 것은 아무 것도 취하지 아니하되 실 한 뉘이나 싼 한 뉘도 취하지 아니하리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이런 태도로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자신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나섰을 뿐이라고 증언합니다. 아브람은 악과 타락과 폭력 속에 사는 이 왕을 하나님처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합당하지 않게 얻은 재물을 거절함으로써 그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창 14:24: “ 오직 그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이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

그러나 아브람의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종인 그에게만 해당되며, 그의 종들은 제공된 부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언약에 의한 별거

창세기 15:1: “ 이 일이 있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 너의 상이 매우 클 것이다.”

아브람은 잔혹한 세상에 살고 있는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비전 속에서 그의 친구 야훼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니 너의 상이 심히 클 것이니라”.

창 15:2: “아브람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아이 없이 갈 예정이다. 내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람은 적부인 사례의 불임으로 인해 오랫동안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으면 가까운 친척인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재산을 상속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 도시 “다마스쿠스”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 15:3: “아브람이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람은 자식이 없으므로 후손에게 주신 약속을 깨닫지 못하더라.

창 15: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참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 15:5: “또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세어 보라 하시니라.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네 씨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브람에게 주어진 이 환상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별”이라는 단어에 영적으로 부여하신 의미에 대한 상징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원래 창세기 1장 15절에 인용된 “별”은 “땅을 비추는” 역할을 하며, 이 역할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부르시고 구별하신 아브람의 역할이지만, 그 역할은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주장할 것이다. 단 12:3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에 들어갈 때 “별”의 지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의 영광과 같이 빛나고 의를 가르치는 자는 우리에게 빛나리라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별”의 형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자기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구절 강좌는 믿음의 정의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의 공식적인 요소를 구성합니다. 믿음은 바로 계몽되고, 정당하며, 존엄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분의 뜻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계몽된 지식에서만 합법적이며, 이것이 없으면 불법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브람의 모범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을 따라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분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시대에 제안되고 요구되는 신성한 진리에 동일한 순종으로 그와 같이 행동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예언합니다.

창 15:7: “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제시하는 서문으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공식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인용된 하나님의 “십계명” 중 첫 번째인 “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의 제시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창 15:8: “ 아브람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

아브람은 여호와께 표징을 구합니다.

창 15:9: “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삼년 된 암송아지와 삼년 된 염소와 삼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어린 비둘기를 취하라. ”

창 15:10: “ 아브람은 이 모든 동물을 가져다가 가운데를 자르고 각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들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의 응답과 아브람의 행동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사식은 동맹을 맺은 두 당사자, 즉 함께 나누자라는 나눔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운데에 잘린 동물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이 몸은 하나이므로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자들 사이에 영적으로 공유될 것입니다. 양은 인간과 그리스도의 형상이지만, 새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늘의 상징으로 언약에 나타나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속죄는 하늘의 천사들이 아닌 지상의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유익할 것입니다.

창 15:11: “ 맹금류가 시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계획에서는 오직 악인과 반역자들의 시체만이 구세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맹금류의 먹이로 넘겨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동물의 시체는 하느님과 아브람에게 매우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미래와 최종 운명에 관한 예언과 모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브람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창 15:12: “ 해질 무렵에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보라, 두려움과 큰 흑암이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잠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시어 그의 갈비뼈 중 하나로 그의 “ 돕는 자 ” 인 여자를 만드신 것과 같은 “ 깊은 잠 ”입니다. 그가 아브람과 맺은 동맹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이 “ 도움 ”에 주어진 예언적 의미를 그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죽게 하여 영원한 임재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그가 영생, 곧 참된 생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 큰 흑암 ”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상 생활에 눈멀게 하여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 자신의 출현과 임재를 포함하여 예언적 성격의 가상의 형상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어둠 속으로 빠진 아브람은 정당한 “ 두려움 ”을 느낍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공할 성품을 강조합니다.

창 15:13: “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자손이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않는 땅에서 나그네가 될 줄 알라. 그들은 그곳에서 종노릇을 하며 사백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미래, 곧 그의 후손을 위한 운명을 알려 주셨습니다.

“... 네 자손은 자기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라 ” 이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가 될 것입니다 ”: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파라오가 바뀌면서 그의 전임자의 대총독이 된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이 노예화는 모세 시대에 성취될 것이다.

“... 그리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억압을 받을 것이다 ”: 이것은 단지 이집트의 억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는 아브람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땅인 가나안에서 소유물을 얻을 때까지 영향을 미칠 압제에 관한 것입니다.

창 15:14: “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번에 표적이 된 나라는 오직 이집트뿐인데, 그들은 이집트의 모든 부를 사실상 가지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구절에서 인용된 “압제”를 이집트의 탕으로 돌리지 않으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언급된 “ 사백 년 ”이 애굽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창 15:15: “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노년에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될 것이다. 이 굴은 아브람이 살아 있는 동안 헛 사람에게서 산 땅이다.

창 15:16: “ 4대째에 그들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들 아모리 족속 가운데 헷 족속은 아브람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표자로 생각하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그의 무덤을 위해 땅을 팔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 4대 ” 또는 “ 400년 ”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며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역의 문턱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모두 멸절되어 그들의 땅을 히브리인에게 남겨 줄 것입니다. 그들의 국가 땅.

가나안 족속을 위한 이 비참한 계획을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노아가 그의 아들 함의 첫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는 노아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정하신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창세기 15:17: “ 해가 저서 깊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보라, 그것은 연기 나는 풀무였고, 불꽃이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

이 의식에서는 사람이 불을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감히 이 원칙을 어긴 대가로 아론의 두 아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그것은 둘로 갈라진 동물들 사이를 통과하는 하늘의 불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세벨이라는 이방인 여왕이자 아합 왕의 아내의 지원을 받는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증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제단은 물에 잠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은 제단과 엘리야가 마련한 물을 태울 것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제단은 그 불로 무시될 것입니다.

창 15:18 “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5장 끝에서 이 구절의 주요 주제는 선택받은 자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 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이 동맹을 공유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 **동맹 에 관한 것임을 확증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약속된 땅의 경계는 그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차지하게 될 경계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 이집트 ”를 분리하는 수르 사막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 유프라테스 ”와 합류하는 시리아와 아라비아의 광대한 사막도 그의 제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 이 사막들 사이에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입니다.

예언적 영적 독서에서 “ 강 ”은 민족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은 아브람의 후손에 대해 예언하실 수 있으며, 요한계시록 9장에 상징된 “ 유럽 ”의 서쪽,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넘어 자신의 숭배자들과 택한 자들을 찾을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14 **큰 강 유프라테스**라는 이름으로 .

창 15:19: “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의 땅*”

창 15:20: “ *헛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창 15:21: “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중에서.*”

아브람 시대에 이 이름들은 가나안 땅을 구성하고 거주하는 도시들에 모인 가족들을 가리킨다. 그 중에는 여호수아가 “4대” 또는 “400년” 후에 영토를 차지할 때 대홍수 이전의 거대한 규범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존할 르바임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두 언약의 족장입니다. 육신을 통한 그의 후손은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로 태어날 수많은 후손을 낳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육신에 기초한 첫 번째 동맹은 구원 계획을 왜곡하고 이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두 동맹에 대한 믿음의 행위에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고 확증해 준 그의 순종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을 조건으로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명과 규례와 신성한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에서 문자의 가르침은 영의 예지에 의해 밝혀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6장

적법성에 의한 분리

창 16:1: “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느니라. 그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종이 있었습니다.*”

창 16:2: “ *그리고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종에게로 오십시오. 아마도 나는 그녀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목소리를 들었다.*”

창 16:3: “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자기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으니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십 년을 거주한 후에라.*”

사라이의 주도로 인한 이 불행한 선택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축복받은 부부에게 나타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 사래에 대해서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브람은 자신이 발표한 내용의 세부점을

얻기 위해 창조주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설명의 부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측면에서 불법적인 대응물을 창조하시는 인간의 주도권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호전적이고 항의적인 경쟁, 적, 심지어 적.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 앞에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길 외에도 "당나귀를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서로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역시 아브람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탄생은 역사상 마지막 형태, 종교, 이슬람(복종,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반항적인 이 사람들의 높이)까지 아랍 참모들의 형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창16:4: “ 그가 하갈에게로 갔더니 그가 임신하였더라.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보고 경멸의 눈빛으로 여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주인에 대한 이집트인 하갈의 경멸적인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랍 무슬림 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방 세계는 신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된 엄청난 특권을 무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아랍 종교는 서구가 그 생각의 기록에서 신을 지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위대하다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주어진 이미지는 우리 마지막 시대의 정확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기독교는 심지어 사례처럼 왜곡되어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고 어둠의 영적 불임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맹인의 땅에서는 외눈박이가 왕이 됩니다.

창 16:5: “ 그리고 사례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내 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보고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

창 16:6: “ 아브람이 사례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소견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자 사례가 그녀를 학대했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그 여자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책임을 맡으며, 이 사생아 탄생의 영감이 된 것에 대해 사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합법성은 불법에 대한 법을 부과하고 이 교훈에 따라 이제부터 결혼은 미래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얻은 국가 형태까지 동일한 직계 가족의 사람들만을 결합할 것입니다.

창 16:7: “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술 길 곁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과 하갈 사이의 이러한 직접적인 교류는 오직 아브람의 축복받은 지위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낙타를 위한 식량을 끊임없이 찾아 천막에 사는 유목민 아랍인들의 집이 될 슈어 사막에서 그것을 찾으십니다. 물의 근원은 하갈의 생존 수단이었고 그녀는 하갈의 신분과 다산의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생명수의 샘”을 만난다.

창 16:8 “ 그가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래에게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답: 도망가고 있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답: 나의 여주인 사래에게서 왔습니다.

창 16:9: “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손 아래서 스스로 겸비하라 하였느니라.”

위대한 판사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복귀와 겸손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는 불임과는 별개로 그의 합법적인 여주인으로 남아 있고 섬김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그의 여주인에 대한 경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창 16:10: “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웨께서는 그에게 “당근”을 주시며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분은 그에게 “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무리는 육신적이지 영적이 아닐 것입니다. 새 언약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자손만이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진실한 아랍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에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코란은 출현 이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성경의 진리를 고발하고 비판하며 왜곡합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미 아브람에게 사용된 표현인 “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단지 인간의 번식에 관한 것이지 영생을 위해 선택된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비교에는 항상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예: “ 하늘의 별 ”은 “ 지구를 비추는 것 ”으로 구성된 모든 종교 활동과 관련됩니다 . 그런데 무슨 빛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합법화하신 진리의 빛만이 단 12 :3에 따라 하늘에서 “ 영원히 빛나게 ” 합당한 “ 별 ” 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창 16:11: “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잉태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네 고난 중에 네 말을 들으셨느니라.”

창 16:12: “ 그는 들나귀 같을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과 마주하여 살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의 아랍 후손들을 반항적이고 완고한 성격으로 유명한 동물인 “ 들나귀 ”에 비유하셨습니다. 더욱이 잔인하기 때문에 ‘ 야만인 ’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길들여지거나 길들여지거나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형제와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유전을 자신의 유전자에 전달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확립되고 계시된 이 심판은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의 “ 빛 ”이 오직 “ 빛 ”에 불과했던 시대에 거짓 기독교에 의해 싸웠던 이슬람교가 하나님에게 별을 주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둠 ”.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표적이 되었고, 기독교 서구도 미국의 힘에 의해 보호를 받았는데, 그들은 이를 너무도 착각하지 않고 “ 위대한 사탄 ”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 사탄 ”이라도 “ 큰 자 ”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나님이 들으셨다 ”는 뜻의 이름인 이스마엘을 넣음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람의 가족 내에 추가적인 분리를 창조하셨다 . 바벨 경험으로 만들어진 언어의 저주를 더해줍니다. 그러나 형벌할 수단을 마련하신다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두 번의 동맹에서 인간들의 반역적인 행위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 16:13: “ 그녀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아타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가 나를 본 후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본 적이 있습니까? »

Atta El Roi라는 이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려는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우월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된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하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종인 그녀는 운명을 보시고 계시하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경험 후에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창 16:14 그러므로 이 우물을 라게 왕의 우물이라 일컬었더라. Kadès와 Bared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지상의 장소들은 명예롭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바치는 영예는 종종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그들의 우상 숭배 정신에 기인합니다.

창 16:15 “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실제로 아브람의 진짜 아들이고, 특히 그가 자연스럽게 애착을 갖게 될 그의 첫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에게 주어진 이름 “ *이스마엘* ” 또는 “ *하나님이 들으셨다* ”는 이름은 무엇보다도 그의 여주인과 주인이 내린 결정의 희생자인 하갈의 고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에서 그것은 또한 이집트인 하갈이 잉태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확증, “응답”, 성취라고 순간적으로 믿었던 아브람과 사래의 오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오류는 세상 끝날 때까지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신은 인간 사고의 게임에 뛰어들었고 그를 위해 본질적인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즉 분쟁과 갈등적 **분리 의 자식이** 살아 있습니다.

창 16:16: “ *하갈이 아브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은 팔십육 세였더라.* ”

따라서 “이스마엘”은 아브람이 86세였던 2034년(1948+86)에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7장

할레로 이별함은 육체에 있는 표니라

창 17:1: “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게 하라.* ”

2047년, 99세, 이스마엘 13세인 아브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 *전능하신 하나님* ”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의 방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성품을 드러내실 행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주로 언어적, 청각적 순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본체와 닮은 형상은 죽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 17:2: “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 너를 끝없이 번성하게 하리라.* ”

아무도 셀 수 없는 ” “ *땅의 티끌* ”과 “ *하늘의 별들* ”과 같이 “ *무한히* ” 그렇게 하리라는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

창세기 17:3: “ *아브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

아브람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엎드려 그의 온 영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창17:4: “ *이것이 내가 너와 세우는 내 언약이니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

그날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 17:5: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기 때문이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은 결정적인 일이며, 그분의 시대에 예수께서는 사도들의 이름을 변경하심으로써 동일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창 17:6: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너로 여러 민족이 나게 하리라. 그러면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람은 이스마엘에서 아랍 민족의 첫 조상이 되고, 이삭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인 히브리인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는 그는 미디안 자손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드로의 딸인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우리라. 이는 영원한 언약이라 내가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그의 언약의 말씀을 미묘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육신적인 후손들과 맺은 동맹이 제한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초림과 인간 성육신을 통해 당신의 자발적인 속죄의 죽음 위에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새로운 동맹의 기초를 세우실 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처음부터 표적이 되고 지명된 장자들은 모두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담의 장자 가인의 경우가 그러하고, 아브람의 사생아 장자 이스마엘의 경우가 그러하며, 그 다음에는 이삭의 장자 에서의 경우가 그러하리라. 장자의 실패 원칙은 유대인의 육체적 동맹의 실패를 예언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영적이며 인간의 거짓된 주장으로 인한 기만적인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개종한 이교도들에게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창 17: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에 묶여 있는 한 “**영원한 소유**”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그것은 무효가 될 것이며, 이 폭동이 있는 지 40년이 지나면 그 나라와 그 수도 예루살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멸망될 것이며,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명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거부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정당성을 가지고 그 동맹을 파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 17:9: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후손은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키리라”

이 구절은 양립할 수 없고 반대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에큐메니칼 동맹으로 모인 유일신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러한 모든 종교적 주장에 목을 비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맺은 일종의 계약인 언약의 기초를 제시하는 자신의 말씀에 의해서만 구속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을 확증하고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속적인 두 단계로 이루어진 그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것이고, 둘째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의 이 구절은 인간 개인의 믿음,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유대 민족은 이교도들에게 문을 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입양되고 아브라함의 영적 아들로 전가됩니다. 따라서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딸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갖게 될 미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후손을 땅에서 나타내기 위해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실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로 구원받은 택자를 선택하기 위한 지상 후보자들을 대표하는 인간 모임의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는 너희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육신의 후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입니다. 그것의 약점은 믿음으로 활력을 얻든 아니든, 순종하든 아니든 모든 후손에게 적용되는 집단적 형태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동맹에서는 시험받는 믿음에 의한 선택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개별적으로 경험될 것이며, 그 후 그들은 이 동맹에서 위태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에 불행한 결과를 추가해야 합니다. 무슬림 역시 그들의 족장 이스마엘 이후로 할례를 받았으며 그들은 이 할례에 영생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이끄는 영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할례는 영원한 육체적 효과가 아닌 영원한 육체적 효과만을 갖습니다.

창세기 17:11: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것은 나와 당신 사이의 동맹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동맹의 표시이지만 그 효과는 단지 육체적일 뿐이며 7, 8절과 다음 13절은 그것이 유일한 “영원한” 적용을 확증합니다.

창 17:12: “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너희 세대대로 난 팔 일 만에 집에서 태어났든지, 이방인의 아들에게서 돈으로 산 든지 할례를 받으라. 당신의 인종에 속하지 않고’.

여전히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영속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8천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예언을 구성합니다 . 이것이 "8일"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7일은 6천년 중 택함받은 자의 선택과 7천년의 심판이라는 지상의 시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유대 민족과 그 최초의 배아인 아브람과의 긴밀한 동맹을 조직함으로써,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잘려진 포피에 집중되어 있는 육욕적인 성적 약함에서 해방된 선택받은 자의 미래 영원의 이미지를 계시하신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나오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것과 같이 옛 언약에서는 외국인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편에서 살기를 원하는 때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할례의 주요 개념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는 인간이 더 이상 생식을 할 수 없고 육체적 욕망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의 육체의 할례와 새 언약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의 할례를 비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는 육체의 순결함과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치는 마음의 순결함을 암시합니다.

할례를 베푸는 것은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며** ,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과 독특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사랑의 배타성과 우선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필요하다면 구원에 해로운 주변 인간 관계를 끊어야 하며, 자신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사물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를. 교육학적 예언적 이미지로서 이 원리는 첫째로 그의 육신적 이스라엘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의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창17:13: “ 집에서 태어난 자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

하나님은 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합법적인 자녀와 사생자는 그에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구원 프로젝트의 두 동맹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 **획득한 돈을 얻었습니다** "라는 표현의 반환으로 표시되는 주장은 예수를 예언합니다 반역적인 종교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30데나리온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30데나리온의 비용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동맹의 이름으로 유대인과 이교도의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생명을 바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의 표징의 “ **영원한** ” 성격은 상기되며 “ **당신의 육체에 있는** ” 정확성은 그것의 일시적인 성격을

확증해 줍니다. 단 7:24에 따르면 여기서 시작되는 이 언약은 메시아가 “*죄를 끝내려고*” 나타나실 때 끝나기 때문입니다.

창 17:14: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 남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내 언약을 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대한 존중은 매우 엄격하며, 그들의 범법이 그의 예언적 계획을 왜곡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 잘못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해의 왕국에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지상의 유대 백성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창 17:15: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더 이상 네 아내 사래를 사래라 부르지 말라.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사라가 될 거예요.*”

아브람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래는 귀족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이미 이스마엘의 아버지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변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에게 선언하실 아들이삭의 후손이 많아짐에 따라 정당화됩니다. 같은 이유로, 불임의 사래도 이삭을 통해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입니다.

창 17: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말미암아 네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민족들이 되게 하겠다. 민족들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의 일상은 땅에 속한 것이며 신성한 기적이 아닌 땅의 자연 조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래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창 17:17: “*아브라함이 엎드리니라; 그가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그런데 구십 세인 사래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

사래가 이미 99세인데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음을 깨닫고 그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상황은 지상 인간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창 17:18: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당신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추리하고, 이미 태어나 13세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만 자신의 곱셈을 이해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창 17:19: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워 그의 후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시고 해석의 오류가 있을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시 선포하신다.

이삭의 기적적인 탄생에 대해 아브라함이 표현한 의심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러날 의심과 불신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 측에서 공식적인 거부의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창 17: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생육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는 열두 방백을 낳을 것이요,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며, 이 개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주신 이름을 정당화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열두 방백”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아랍 국가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숫자 12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가 계승하게 될 그의 거룩한 동맹의 야곱의 12아들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것은 신성한 도움을 입증하지만 그의 영생 계획에 관한 구원의 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이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일 것입니다. 이 해로운 역할은 불임 어머니와 지나치게 안일한 아버지가 상상하는 똑같이 불법적인 과정에 의한 사생아 출산을 승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동일한 저주를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동일한 거부를 당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관을 알게 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유대 동맹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의 규칙에 따라 살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선택은 택하신 자들에게 제공될 영원한 구원처럼 개별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기원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며 영원에 이르는 길이 그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표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창 17: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7절에 따르면 이 환상을 볼 당시 이스마엘은 13세였으므로 이삭이 태어날 때 그는 14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

창 17:22: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보다 높이시니라.”

하나님의 출현은 드물고 예외적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기적에 익숙해지지 않는 이유와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추론이 여전히 지상 생활의 자연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의 메시지가 전달되자 하나님은 물러가셨습니다.

창 17:23: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그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데려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 날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즉시 실행됩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당화합니다. 고대의 이 강력한 주인은 하인을 구입하고 노예의 지위가 존재했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은 폭력의 사용과 하인에 대한 학대입니다. **종의 신분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모든 사람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창 17:24: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에 나이 구십구 세였더라.*”

이 설명은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장 어린 것부터 가장 나이 많은 것까지.

창 17:25: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에 열세 살이더라.*”

그러므로 그는 그의 형 이삭보다 14년 더 나이가 많을 것이며, 이는 그에게 적법한 아내의 아들인 그의 남동생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창 17:26: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정당성을 상기시키신다. 그들의 일반적인 할례는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후손들의 주장만큼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상의 육신적인 아버지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주장할 때, 예수께서는 이 주장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처음부터 마귀요, 사탄이요, 거짓의 아버지요 살인자인 자로 전가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시 반역적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의 아랍인과 무슬림의 주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창 17:27: “*그 집의 모든 남자는 집에서 태어난 자나 타인에게서 돈을 받은 자나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 순종의 모델 이후, 우리는 애굽을 떠나는 히브리인들의 불행이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이 순종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적 형제의 이별

창 18 :1 : “그가 그 날 더울 때에 그 장막 문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창 18:2: “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세 사람이 그의 곁에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문에서 달려가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노인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방문객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 ”기 때문에 좋은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하늘의 사자로 인식하였습니까? 그가 그들 앞에서 “ 땅에 엎드리 ”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세 남자"이고 우리는 그의 반응에서 그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성격의 결실인 자발적인 환대를 볼 수 있습니다.

창 18:3: “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주의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방문객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큰 겸손의 결과였으며, 그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20-23에 따르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의 “ 영광 ” 을 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방문하는 것은 예외적입니다. 내 얼굴을 보려고 함이로다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내 근처에 한 곳이 있다. 너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그리고 내가 손을 돌리면 너희가 내 뒤를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에 대한 비전이 금지되었다면,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접근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인 아브라함을 방문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태아 때부터 속죄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방문하실 것입니다.

창 18:4: “ 발을 씻을 물을 조금 가져오라. 그리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세요.”

1절에 보면 더워서 발에 땀이 흠뻑 젖어 덮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문객의 발을 씻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즐거운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아브라함의 신용에 대한 것입니다.

창 18:5: “ 내가 가서 빵 한 조각을 가져 너희 마음을 강건하게 하리라. 그 후에는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종의 결을 지나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방문객들을 하늘의 존재로 식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보이는 관심은 그의 타고난 인간적 특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도움이 되고 후대하는 분이십니다. 그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들. 이러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제안을 승인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창 18:6: “ 아브라함이 급히 그의 천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빨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음식은 육신에 유익하니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세 개의 육신이 있는 것을 보고 방문하는 자들의 체력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음식을 예비하였느니라.

창 18:7: “ 아브라함이 양떼에게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급히 요리하더라.”

부드러운 송아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 관대함과 자연스러운 자비를 더욱 보여줍니다. 그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의 기쁨.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방문자에게 최고를 제공합니다.

창 18:8: “ 그리고 그는 준비된 송아지 고기와 함께 크림과 우유를 더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 자신도 그들 옆, 나무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은 지나가던 낯선 사람, 그가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방문자의 화신은 사람을 위해 만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입니다.

창 18:9: “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거기, 텐트 안에 있습니다.

호스트의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에 성공하면서 방문객들은 이전 환상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아내의 이름을 "사라"로 명명하여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창 18:10: “ 그 중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때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의 뒤에 있는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방문객의 모습에서는 야훼와 동행하는 두 천사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천국의 생명이 여기에 나타나며 그곳을 지배하는 평등주의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세 명의 방문자 중 한 명이 사라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동안 그녀는 천막 입구에서 말하는 내용을 듣고 텍스트에는 " 그 뒤에 있던 "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녀를 보지 못했고 인간적으로도 그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창 18:11: “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더 이상 자녀를 갖기를 바랄 수 없더라.”

이 구절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정상적인 인간 조건을 정의합니다.

창 18:12: “ 그리고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었는데도 욕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인님도 늙으셨어요.”

정확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하세요. “ 그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의 웃는 소리를 들은 자가 없느니라.

창 18:13: “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찌 아이를 낳으리요 하였느냐? »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으셨는데, 이는 야훼에 대한 언급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라의 숨은 생각을 아실 수 있으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 18:14: “ 여호와께 놀라운 일이 있느냐? 내가 정한 때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이 되시며 자신의 신성의 이름인 야웨(YaHWéH)를 통해 자신의 예언을 분명히 갱신하십니다.

창 18:15: “ 사라는 내가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웃었습니다.”

“ 사라가 거짓말을 했다 ”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은밀한 생각을 들으셨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작은 거짓말이었을 뿐 사람에게는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꾸짖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기까지 하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 도리어 (거짓) 웃으셨다 ”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은 남편의 축복으로만 혜택을 받는 합법적인 아내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다. 그의 생각은 이미 이스라엘의 미래의 유전적 원수이자 경쟁자인 이스마엘의 탄생이라는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신성한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 18:16: “ 이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려고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바라보더라.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러 나갔습니다.”

식히고, 영양을 공급받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합법적인 아들 이삭의 미래 탄생을 새롭게 한 후, 하늘 방문객들은 그들의 땅 방문도

염두에 두고 있는 또 다른 사명, 즉 소돔에 관한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밝힙니다.

창 18:17: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아모스 3장 7절의 이 구절을 정확하게 적용합니다: “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창 18:18: “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확실히 ” 라는 부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미 상실로 인해 나는 그것이 확실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파괴적인 계획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은 서둘러 아브라함에게 그의 면전에서 그의 신분에 대해 확신을 주시고 그에게 주실 축복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류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지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 아브라함에 대해 3인칭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축복하고 다가오는 구절에서 상기하고 정의하는 모델을 육신적이고 영적인 후손들에게 보여줍니다.

창 18:19: “ 내가 그로 그 아들과 집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와 공의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묘사하시는 내용은 그분이 멸망시키실 소돔과 전혀 다른 점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끝날까지 택하신 자들은 이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 본문 위에 세우실 참된 의와 정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 약속을 존중하시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창 18:20: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지고 그 죄가 중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공격을 받았을 때 도우러 왔던 왕들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이 그의 가족과 종들과 함께 정착하기로 선택한 곳도 소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착의 유대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의 의도를 그에게 알리기 위해 노인에 대한 관심의 형태를 증가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 자신을 그의 종 아브라함의 인간적 추론 수준에 두기 위해 가능한 한 자신을 인간화합니다.

창 18:21: “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나에게 전한 소문과 과연 그대로 행하였는지 알아보리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알겠습니다.”

이 말은 사라의 생각에 대한 지식과 대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야의 이 두 도시에 이르게 된 부도덕의 수준과 그들의 풍부한 번영을 무시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충실한 종이 자신의 심판의 정당한 선고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기울이시는 관심을 드러냅니다.

창 18:22: “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떠나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방문객들의 분리는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서 말을 나누도록 격려하는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웨를 식별하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해질 것이다 두 도시의 구원을 얻기 위해 일종의 거래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정도로, 그 중 하나에는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창 18:23: “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

아브라함이 묻는 질문은 정당합니다. 정의를 위한 집단적 행동을 통해 인류는 부수적 손해라고 불리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과 그의 성경 간증을 읽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창 18:24: “ 성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성 중에 의인 오십을 인하여 그도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오십이 있사오나이까? »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영혼 속에서 아브라함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두 도시에서 최소한 5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상상하고, 이 50명의 가능한 의로운 사람들을 불러 하느님께 두 도시의 은총을 구합니다. 무죄한 자를 죄인과 함께 치실 수 없는 그분의 완전한 공의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창 18:25: “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악인과 같이 의인과 함께 하려 하시니 주께서는 결단코 없으시리이다.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

따라서 아브라함은 완전한 정의에 그토록 집착하는 자신의 성품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창 18:26: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께서 인내와 자비로 아브라함이 말하게 하시고 그의 대답으로 그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으니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읍들이 멸망되지 아니하리라

창 18:27: “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도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골짜기에 있는 두 성읍이 멸망된 후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남게 된다는 것은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인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은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창 18:28: “*5명의 의인 중에 다섯 명이 부족할 것 같으니 그 다섯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의인 사십오 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그가 발견할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의 수를 매번 낮춤으로써 협상을 계속하도록 이끌 것이며 32절에서 10명의 의인의 수에 대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안한 숫자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창 18:29: “*아브라함이 계속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혹시 거기에는 40명의 의인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사십인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지라

창 18:30: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는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말하리라. 아마도 거기에는 30명의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의인 삼십 명을 찾으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 18:31: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시옵소서, 내가 감히 여호와께 말씀드리나이다. 아마도 거기에는 20명의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이십인 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2: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는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시간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도 거기에는 의인 열 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의인 열 명을 인하여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그의 주장이 불합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 아브라함의 협상이 끝납니다. 그분은 의인 열 명 앞에서 멈추십니다. 그는 비록 롯과 그의 친척들만 포함하더라도 이 두 부패한 도시에서 이만큼의 의로운 사람들이 발견되어야 한다고 낙관적으로 믿습니다.

창 18: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시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두 친구, 즉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땅의 흠인 사람의 지상 만남이 끝나고 각자는 각자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거처로 향하고 여호와와는 자기의 멸망의 심판이 임할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느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생명에 강력하고 귀중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참된 정의가 성취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신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거래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비상시 별거

창 19 :1: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앞에 앉았습니다.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니라.”

우리는 이 행동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합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방문객들에게 동일한 사려 깊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소돔 도시 주민들의 나쁜 도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그 일을 합니다.

창 19:2: “그가 이르되 내 주여 청컨대 종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시옵소서. 발을 씻으십시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행을 계속할 것이다. 아니요, 그들은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보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롯은 부패한 주민들의 뻔뻔하고 악의적인 행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을 그의 의무로 삼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세 명의 방문객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환영의 말을 발견합니다. 롯은 참으로 이 도시의 비뚤어진 존재들과의 동거로 인해 자신이 타락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두 천사는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왔지만 도시를 파괴하기 전에 주민들의 사악함을 적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사악함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얻으려면 소돔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 위해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 19:3: “그러나 롯이 그들을 강권할 때 그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그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은 그의 환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에게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인 롯의 아름다운 영혼을 발견하도록 가르칩니다.

창 19:4: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도 아니하였더니 그 성읍 소돔 사람들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 집을 에워싸고 온 국민이 달려왔습니다.”

주민들의 사악함의 시위는 두 천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 롯이 그들을 영접한 집에도 그들을 찾으러 왔기 때문이다. 이 사악함의 전염

수준에 주목하십시오: “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심판은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창 19:5: “ *그리고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

순진한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의 의도에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친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았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예의 성경적 의미에서 지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타락은 총체적이며 구제책이 없습니다.

창 19:6: “ *롯이 집 문으로 나가서 뒤에서 문을 닫고.* ”

가증스러운 존재들을 만나러 서둘러 달려가고, 방문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 있는 집의 문을 조심스럽게 닫는 용감한 롯.

창 19:7: “ *그가 이르되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해를 끼치지 말라.* »

선한 사람은 악인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와 같은 사람이고, 그들의 행동이 지시하는 죽음으로부터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할 희망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 19:8: “ *보라,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로 데려오겠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다만 이 사람들은 내 지붕 그늘에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

롯의 경우, 소돔 사람들의 행동은 이 경험에서 이전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아직 처녀인 두 딸을 대신 제공하기 위해 옵니다.

Gen.19:9: “ *그들이 말했다: 떠나라! 그들이 다시 말했다: 이 사람은 낯선 사람으로서 와서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글썄, 우리는 당신에게 그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롯을 세계 누르고 문을 부수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

롯의 말은 모인 무리를 진정시키지 못하며, 그들은 이 괴물 같은 존재들이 그들보다 그에게 더 나쁜 짓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창 19:10: “ *그 사람들이 손을 펴고 롯을 집으로 데려오고 문을 닫으니.* ”

용감한 롯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천사들이 개입하여 롯을 집 안으로 데려옵니다.

창 19:11: “ *또 집 문 앞에 있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여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게 하매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썼으나 헛수고하였더라.* ”

밖에서 가장 가까운 흥분한 사람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따라서 집의 거주자는 보호됩니다.

창 19:12: “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네가 아직도 여기에 누구 있느냐? 사위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이 성 안에 있는 네게 속한 모든 자들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롯은 천사들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는 “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그 도시와 평야의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아이 성처럼 폐허 지역이 될 이 계곡의 주민들을 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제물은 살아 있는 인간 피조물 가운데 그분께 속한 모든 것까지 확장됩니다.

분리 라는 주제에서 “ **나오라** ” 는 하나님의 명령은 영구적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거짓 기독교 교회와 같은 모든 형태의 악에서 스스로 분리될 것을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4에서 그는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 **나가라** ”고 명령하십니다. » “ **큰 바벨론** ”에 관한 것인데, 이는 첫째로 가톨릭 종교에 관한 것이고, 둘째로 다형 개신교에 관한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롯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일요일을 쉬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 공포되자마자 은혜의 시간은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입장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필요한 의사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나타내는 위험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질병, 사고, 공격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린 반응을 인식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 경우 집단적 은총의 시간의 끝은 그 중요성을 모두 잃습니다. , 그녀 앞에서 죽는 사람은 불의와 하나님의 정죄 속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바울은 히브리서 3장 7-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제안에 응답해야 할 긴급함이 있으며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 있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려워하자 너무 늦게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창 19:13: “ **이 곳 주민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집에 온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 도시는 야훼의 결정에 따라 속히 멸망되어야 한다.

창 19:14: “ **롯이 나가서 그 딸들을 데려온 사위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그 도시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위들의 눈에는 농담을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롯의 사위들은 확실히 다른 소돔 사람들의 사악함 수준에 있지 않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장인의 믿음은 그들에게 흥미가 없었으며, 하나님 야훼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갑작스런 생각은 그들에게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창 19:15: “ 날이 밝아오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 성읍이 멸망함 가운데서 멸망할까 하노라”

소돔의 멸망은 믿음과 믿음의 부재를 드러내는 가슴 아픈 **이별을 불러일으킵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남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창 19:16: “ 그가 지체하니 그 사람들이 그와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살려 두심이라. 그들은 그를 끌고 가서 성 밖에 버려두었습니다.

이 행동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 불에서 꺼낸 낙인 ”을 보여 주십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은 의로운 롯을 위해 그의 두 딸과 아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도시에서 쫓겨난 그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창 19:17: “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매 그 중 한 사람이 이르되 네 생명을 구원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판에 멈춰 서지도 마십시오. 멸망하지 않으려면 산으로 도망하여라.”

구원은 산에 있을 것이며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평원과 그 번영을 선택한 자신의 실수를 이해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서 하나님의 불이 계곡에 닿을 때 안전을 원한다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받았다. 이 순서는 문자 그대로,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래와 생명이 소돔의 생존자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곧 하늘에서 던져진 유황석에 의해 불타오르는 백열등의 폐허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 19:18: “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 아니, 주님! »

천사의 명령은 롯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창 19:19: “ 보소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고 당신께서는 내 생명을 보존하여 나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 나는 산으로 도망갈 수 없고, 멸망할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알고 있었고, 그 산에 도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간청하고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창 19:20: “ 보라 이 성읍은 내가 피신하기에 가깝고 작도다. 오 !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 작지 않은가?...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 있다는 것! »

계곡 끝에는 작다는 뜻의 Tsoar가 있습니다. 그녀는 롯과 그의 가족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 계곡의 비극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창 19:21: “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도 이 은혜를 네게 허락하고 네가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도시의 존재는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가 위치한 평야 골짜기의 도시들에 영향을 미친 이 극적인 사건을 아직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 19:22: “ 급히 그리로 피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이 도시에 소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이다.”

천사는 이제 그의 동의에 의존하며 롯이 소알에 들어가서 계곡을 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창 19:23: “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뒹터라.”

소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일출 아래 새로운 날이 선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

창 19:24: “ 그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느니라.”

이 기적적이고 신성한 행동은 재림교회 고고학자 론 와이아트(Ron Wyatt)의 발견을 통해 강력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 계곡과 접해 있는 산의 서쪽 경사면을 기준으로 주거지가 서로 기대어 있는 고모라 도시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장소의 땅은 유황석으로 만들어져 있어 불에 노출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기적은 완전히 입증되었으며 선택된 자들의 신앙에 합당합니다.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곡을 파괴하기 위해 원자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례적인 순도 90%로 추정되는 유황과 순수한 유황으로 만든 돌을 요구하셨다. 하늘에는 유황 구름이 없기 때문에 이 멸망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땅과 하늘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필요에 따라 어떤 물질이든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창 19:25: “ 그 성읍들과 온 평지와 성읍의 모든 주민과 땅의 식물을 멸하셨으니.”

유황불이 쏟아지는 곳에서 무엇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암석과 유황석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 19:26: “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은 이 저주받은 장소에 대한 후회와 관심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소금기둥, 즉 절대적인 영적 불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이를 알려십니다.

창 19:27: “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가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으로 가니라.”

일어난 드라마를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나무로 와서 세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창 19:28: “ 그리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평야의 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는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은 훌륭한 전망대이다. 아브라함은 키가 커서 그 지역을 다스리며 소돔과 고모라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땅이 여전히 백열등 화로라면, 유황과 사람이 도시에서 수집한 모든 재료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운 연기가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 곳은 세상 끝날까지 불임의 선고를 받은 곳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암석, 돌, 유황석, 그리고 토양을 불모화시키는 많은 양의 소금만을 발견합니다.

창 19:29: “ 하나님이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롯에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가 살던 성읍들을 헐어 멸하셨습니다.”

이 설명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신실한 종인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번영하는 계곡과 부패한 도시를 선택한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소돔이 "불에서 빼앗은 낙인"으로 알려진 운명에서 실제로 구원 받았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창 19:30: “ 롯이 소알에 머물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높은 산에 이르러 산에 거하니라. 그는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별거의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소알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곳은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으로 가서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신이 창조한 자연의 안전한 피난처인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창 19:31: “ 큰 형이 작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모든 나라의 관습에 따라 우리에게 올 사람이 없습니다.”

롯의 두 딸이 취한 계획에는 추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그들이 아버지에게 후손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당화하시고 승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가 없다면 이니셔티브는 근친상간이 될 것입니다.

창 19:32: “ 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의 종족을 보존하자.”

창 19:33: “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큰 딸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잤는데, 그 아버지는 그 여자가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창 19:34: “ 다음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어젯밤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잤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가서 그와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의 종족을 보전하자.**”

창 19:35: “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막내는 그 사람과 함께 자고 그 사람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더라.”

이 행위에 있어서 롯의 전적인 무의식은 우리 마지막 시대의 동물과 인간에게 인공수정을 적용하는 이미지를 준다. 쾌락에 대한 추구는 조금도 없으며, 인류가 시작될 때 형제자매가 결합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도 없습니다.

창 19:36: “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

우리는 롯의 이 두 딸에게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자기 희생의 탁월한 특성을 주목합니다. 미혼모로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아버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며, 따라서 남편, 배우자, 동반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창 19:37: “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가 오늘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니라.**”

창 19:38: “ **막내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암몬 족속의 조상 이니라**”

우리는 다니엘 11:41의 예언에서 두 아들의 후손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들은 그의 손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육신적, 영적 유대는 이 후손들을 히브리 민족의 헤벨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과 연합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 뿌리는 다툼을 일으키고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게 할 것입니다. 스바냐 2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재앙을 예언하신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모압은 소돔 같겠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가시덤불과 소금 광산이요 영원히 사막이 되리라 나의 나머지 백성이 그들을 약탈할 것이고, 나의 나머지 백성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요, 같은 아버지 데라에게서 난 그의 형제들에게는 축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본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두 딸에게서 태어난 그의 후손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하나님의 선지자 신분에 따른 이별

(현재 가자 근처 팔레스타인)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로 소개합니다 . 다시 , 그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그로 하여금 사라의 남편이 그의 선지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힘과 두려움은 그 지역 전체에 퍼졌습니다.

창세기 21장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의 분리

사랑하는 것의 희생을 통한 이별

창 21:1: “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느니라. »

이 방문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오랜 불임 기간을 끝내셨습니다.

창 21:2: “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

이사야 55:11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내 뜻을 행하고 내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켜졌으므로 이 구절은 정당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탄생을 선포하신 후에 세상에 옵니다. 성경은 그를 “약속의 아들”로 표현하는데, 이는 이삭을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예언적 모형으로 만듭니다.

창 21:3: “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아들을 발표하시는 것을 듣고 웃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긍정적이라면 조롱하는 웃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두 배우자 모두 인간의 편견의 희생자로서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간적인 반응을 생각하면서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 수명은 크게 단축되었고, 인간의 경우 100세는 노년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러나 만물의 한계를 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발견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통해 부와 명예와 아버지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받았습니다.

창 21:4: “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

그러면 합법적인 아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됩니다.

창 21:5: “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에 백세였더라.* »

그 일은 놀랍지만 홍수 이전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 21:6: “ *그리고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게 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

사라는 자신이 인간이고 인간 편견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상황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웃고 싶은 욕망은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처럼 그녀도 정상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나이에 출산할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창 21 :7: “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들을 젖을 먹일 것이라고 말하였겠습니까? 이는 그가 노년에 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았음이라.* »

그 일은 정말 예외적이고 완전히 기적적입니다. 사라의 이 말을 예언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삭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예언하는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첫 언약의 아들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함으로써 할례의 표를 따라 육신을 따라 태어난 이 아들은 믿음으로 선택된 그리스도인 아들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삭처럼 새 언약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대표하기 위해 기적으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마엘은 오로지 육욕적인 기반과 엄격한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창 21:8: “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

모유를 먹은 아기는 사춘기가 될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과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가 열리며 그가 기뻐하며 축하할 것입니다.

창 21:9: “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축복받은 부부의 삶에서 분명히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적자 이삭을 향한 이스마엘의 적개심과 질투는 그를 비웃고 조롱하게 만든다. 사라에게는 견딜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의 조롱 다음에는 아들의 조롱이 옵니다. 너무 많아요.

창 21:10: “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Sarah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위를 살펴보십시오. 사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선택된 자들과 함께 새 동맹을 상속받지 못할 첫 동맹은 무가치하다고 예언합니다.

창 21:11: “ *아브라함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보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라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를 이스마엘과 맺은 14년 간의 애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창 21:12: “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네 여종을 인하여 네게 원한을 품지 말라 하시니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가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장자 이스마엘의 소원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이러한 **분리**는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세의 옛 언약이 실패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위로로서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에 의해 “ **택하신 자** ”가 “ **부름을 받** ”게 될 새 언약의 확립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이삭은 옛 언약의 족장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서 육신과 할례의 표에 따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그 기초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바로 이 이삭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에 관한 교훈만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창 21:13: “ *그리고 여종의 아들도 네 씨이므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

이스마엘은 중동의 많은 민족의 족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구원 사역을 위해 나타나실 때까지 영적 정당성은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의 후손에게만 속했습니다. 서구세계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채 다양한 형태의 이교주의 속에 살았습니다.

창 21:14: “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하갈이 그에게 아이를 주어 보내니라.*” 그리고 그녀는 브엘세바 광야로 가서 방황하였다. »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친히 돌보실 것임을 알고 그들과 **헤어지기 로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지금까지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창 21:15: “ *부대에 담긴 물이 떨어지매 그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 내던지고*”

브엘세바 광야에서는 떠내려온 물이 빨리 소모되고 물이 없어 하갈은 자신이 처한 불행한 상황의 최종 결과가 죽음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 21:16: “ 활이 닿는 거리에 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다: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여자는 맞은편에 앉아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갈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 21:17: “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네가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창 21:18: “ 일어나 아이를 안고 손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내가 그것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

아이 이스마엘은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십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 하갈에게 복종하는 아이이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아들을 부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는 강력한 운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 21:19: “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열어 주셨고, 그녀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

기적의 결과이든 아니든 이 우물은 하갈과 그 아들에게 생명의 맛을 주기 위해 필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물의 비전과 지성을 열거나 닫으시는 강력한 창조주께 그들의 생명을 빚지고 있습니다.

창 21:20: “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던니. »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활로 사냥하여 먹은 동물을 사냥했기 때문에 사막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 21:21: “ 그리고 그는 바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집트 땅에서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

그러므로 이스마엘 사람들과 이집트인들 사이의 유대는 강화될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쟁은 그들을 영구적인 천적이 될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창 21:22: “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대장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제시함으로써 발생한 경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창 21:23: “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베푼 은혜대로 너도 내게 행할 것이라 그리고 당신이 머물렀던 나라를 향해. »

아비멜렉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계약의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평화로운 동맹에 대한 확고하고 단호한 약속을 얻기를 원합니다.

창 21:24: “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대해 나쁜 의도가 없었으므로 그는 이 계약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창 21:25: “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더라. »

창 21:26: “ 아비멜렉이 이르되 나는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 알지 못하오며 당신도 나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오늘에서야 그 일을 들었노라. »

창 21:27: “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

창 21:28: “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 떼에서 어린 양 일곱 마리를 분리했습니다. »

아브라함이 “일곱 마리 양”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에 정착했지만 자신의 노동의 열매가 자신의 재산으로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창 21:29: “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따로 놓은 이 어린 양 일곱 마리는 무엇이냐? »

창 21:30: “ 그가 이르되 너는 이 어린 양 일곱 마리를 내 손에서 취하여 내가 이 우물 판 것을 증거로 삼으라. »

창 21:31: “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불렀더라. »

분쟁 중인 우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7"이라는 숫자의 어근인 "sheba"라는 단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간 안식으로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토요일인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 "안식일"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지상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이 동맹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그 우물을 “일곱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창 21:32: “ 그리고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피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

창 21:33: “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

창 21:34: “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오랫동안 우거했습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종을 위해 평화와 평온의 조건을 마련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버지와 외아들의 이별이 희생됐다

이 22장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지성적이며 자율적인 상대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시작부터 은밀하게 예비하신 구원의 원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은 그의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보답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한 자들일 것입니다.

창 22:1: “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우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간증으로서 그의 모범적인 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그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는 그를 그의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만들고 그 후손이 하나님에 의해 승화될 족장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창 22:2: “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오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하나님께서서는 백년이 넘는 이 노인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의도적으로 아픈 것을 누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에게 아들과 그의 합법적인 아내 사라를 낳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 *네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라* ”는 하나님의 놀라운 요청을 숨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반응은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로 동의한 후에는 하나님 자신도 더 이상 그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말할 산 중 하나에서 ” 라는 정확성에 대한 관심을 주목해보자 . 이 정확한 장소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창 22:3: “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당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

아브라함은 이 과잉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영혼에 죽음을 안고 하나님이 명하신 피의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창 22:4: “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보니. »

모리자라는 나라는 그가 사는 곳에서 걸어서 3일 거리에 있다.

창 22:5: “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당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십시오. 나와 그 청년은 예배하러 그 먼 곳까지 갔다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

그가 저지르려는 끔찍한 행동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그의 두 하인과 헤어진다 .

창 22 :6: “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싣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리고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

이 예언적 장면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목이 못 박히게 될 무거운 “경대”를 짊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삭은 그의 희생된 몸을 불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창 22:7: “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불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삭은 많은 종교적 희생을 목격했으며, 희생될 동물이 없다는 사실에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창 22:8: “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둘은 함께 걸었다. »

아브라함의 이 반응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치르실 엄청난 희생을 장엄하게 예언하고, 이로써 선택된 죄인들에게 신적 완전함 속에서 효과적이고 공의로운 구원자가 필요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원의 미래,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야훼께 희생된 동물이 예언한 구원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반응은 그가 저지르게 될 범주를 공포에 질려 바라보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창 22:9: “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매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으니라. 그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

불행하게도 제단 앞에 선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이삭이 희생의 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길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신부가 이 특별한 수용을 통해 자신의 숭고함을 보여주었다면, 이삭의 유순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시대에 어떠하셨을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과 자기희생에서 숭고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 22:10: “ *이에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

반응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성을 간증하기 위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손에 칼* ”; 이제 남은 것은 이미 희생된 많은 양들처럼 이삭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창 22:11: “ *이에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믿음이 나타났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노인의 시련과 그에게 그토록 사랑받고 사랑받을 만한 아들의 시련을 끝내셨습니다.

“ *내가 여기 있나이다* ” 라고 대답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그에게서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웃을 향한 그의 관대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증언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죄의 상황에 빠진 아담의 태도와 대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 *네가 어디 있느냐?* ”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

창 22:12: “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며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야끼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

신실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으며, 그를 성육신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에 의해 참된 믿음의 모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완전함으로 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참된 신자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완벽한 순종의 모델에서입니다. 이 경험에서 아브라함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의 외아들을 실제적이고 필멸의 희생으로 바칠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방금 수행했습니다.

창 22:13: “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뒤에 있는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숫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

“ *아 번제 할 어린 양은 하나님 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 라는 대답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 “ *제공* ” 되고 *제공되는 것*입니다. 남자 아담에게 책임과 지배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은 항상 남자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구속자 그리스도도 남성이 될 것입니다.

창 22:14: “ *아브라함은 이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이리라 하였느니라.* »

YaHWéH Jireh) 라는 이름의 뜻은 '야웨(YaHWéH)가 보이리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채택은 모리아 땅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큰 하나님이 덜 무서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알리는 참된 예언이다. 그리고 이 임명의 기원, 즉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의 지상 사역을 확증합니다. 재생산되고 반복되는 유형과 모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면, 아브라함이 19세기 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바로 그 장소, 골고다 산 기슭에서 자신의 희생을 바쳤을 가능성이 있고 거의 확실합니다., 예루살렘 밖 그 성은 한동안만 거룩하리라.

창 22:15: “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

이 끔찍한 시련은 아브라함이 겪어야 할 마지막 시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순종하는 믿음의 합당한 모범적인 조상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창 22:16: “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맹세합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장래의 희생을 예언하기 때문에 “ 네 독생자 ” 라는 이 말을 강조하십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지 멸망하지만 영생을 얻으라.* ”

창 22:17: “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리고 네 자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

주목 ! 아브라함의 축복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며 그의 후손인 각 남자나 여자는 차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 이 후손 중에서 오직 동일한 신실함과 동일한 순종으로 행동하는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모든 영적 무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돌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반론을 논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아버지로 여겼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로 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성문 중 가장 먼저 무너진 성문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록에 계시된 다양한 가르침에 따라 마지막 원수인 “*큰 바벨론*”으로 향하는 문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창 22:18: “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으므로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

그것은 참으로 “*땅의 모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제안은 모든 출신,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또한 이집트 땅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에게 계시된 신성한 신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축복으로 얻어집니다.

이 구절에서 축복과 그 원인,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 22:19: “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매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가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하였음이라.* »

창 22:20: “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보라 밀가도 네 형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다 하였느니라*”

이어지는 구절은 신실하고 온순한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상적인 아내가 될 “*리브가*”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 중 아브라함의 가까운 가족에게서 취해질 것입니다.

창 22:21: “ *그의 딸아들은 우스요 그의 아우 부스는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이요*”

창 22:22: “ *게셋, 하소, 필다스, 짓랍, 브두엘.* »

창 22:23: “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는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낳은 여덟 아들이니라.* »

창 22:24: “ *그의 첩 르우마도 데박, 가함, 다하스와 마야가를 낳았습니다.* ”.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창세기 23장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있는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매장지를 차지하면서 약 400년 후 하나님께서 그 땅 전체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 24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이교도 민족들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종을 먼 곳, 그의 직계 가족에게 보내어 자기 아들이삭의 아내를 찾게 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주도권과 판단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고 효과적입니다. 마치 선택된 아내 리브가처럼 사랑스럽고 지적이고 외모가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영적이고 신실합니다. 아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남자들이 찾아야 할 진주입니다.

야곱과 에서

나중에 Gen.25에 따르면 리브가는 원래 아브람의 아내 사래처럼 불임이었습니다. 이 공유된 불임은 두 여자가 마리아라고 불리는 어린 처녀의 태에서 하느님에 의해 형성될 그리스도에게 복된 후손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계보는 그분의 기적적인 행위로 특징지어집니다. 이러한 자연적 불임으로 고통받는 리브가는 야웨께 호소하여 자기 태에서 싸우는 두 쌍둥이를 그에게서 얻습니다. 걱정이 되어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야웨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두 나라가 네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네 태에서 나뉘리라.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할 것이고, 더 큰 사람이 더 작은 사람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두 명의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의 강렬한 털이 많았고 그는 완전히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에게 “에돔”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장남은 “털이 많다”는 뜻의 이름인

"에서"로 명명되었습니다. 막내의 이름은 “야곱”인데, 그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두 이름은 그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벨루”는 육즙이 풍부한 “루” 또는 빨간 렌즈콩 요리를 위해 자신의 장자권을 막내에게 팔 것입니다. 그는 이 장자권의 공정한 가치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합니다. 정반대로, 영적인 “사기꾼”은 이 칭호를 탐냅니다. 이 칭호는 영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을 강제로 차지하기를 원하는 폭력적인 사람들의 유형에 속하며, 예수께서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그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끓어오르는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또한 “털 많은” 사람에게서는 훨씬 더 나쁘고 “사기꾼”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이 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평범한 사기꾼이 아니며 그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는 그의 결심에 대한 다른 성경적 예가 없으며 그가 “속이는” 것은 오직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분을 본받을 수 있고 신실한 하늘이 기뻐할 것입니다. 에서는 아담 과 같은 어근과 의미를 지닌, “빨간색”을 의미하는 이름인 “예돔” 사람들을 그의 후손으로 갖게 될 것이며, 이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나는 “빨간색”이라는 색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 계획의 예언적 이미지에서만 죄를 나타내고 이 기준은 “에서”와 같은 그의 작품의 배우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중세의 암울한 시대에는 악하다고 여겨지는 빨간 머리의 아이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붉은 색이 평범한 사람을 갈색 머리카락 금발 머리보다 더 죄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의 믿음의 나쁜 행위로 식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따르면 인간의 피의 색깔인 “붉은색”은 상징적 가치로만 죄를 상징합니다. “와서 우리가 변론하자!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죄가 주홍 같으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보라색처럼 붉으면 양털처럼 될 것이다 . » 마찬가지로, 묵시록, 계시록에서 예수께서는 붉은 색을 무의식적이든 아니든 악마,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첫 번째 죄인인 사탄을 섬기는 인간 도구와 연결시키십니다. 예: 계시록 6:4의 “붉은 말”, 계시록 12:3의 “붉은 색 또는 불 같은 붉은 용”, 계시록 17:3의 “진홍빛 짐승”.

이제 이 장자권을 갖게 된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는 인생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 따르면 그는 형 에서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가족을 떠났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 27장 24절에 따르면 그가 죽어가는 아버지의 축복을 무시하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레베카의 마음에서 책략을 빼내십시오. 이번 납치 사건에서 쌍둥이의 두 이름은 그 중요성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템페르'는 털이 많은 피부를 이용하여 눈이 먼 이삭을 속이고, 자신을 타고난 '털 많은' 형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에 더 가깝습니다. 이 행동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감을 가져온 사냥꾼 에서를 선호했던 이삭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선택에 모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장 합당한 자, 즉 속이는 자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은 아람 사람인 삼촌이자 리브가의 동생인 라반에게 일을 하러 도착했고, 야곱은 라반의 딸들 중 막내지만 가장 아름다운 라헬과 사랑에 빠진다. 그가 모르는 것은 그의 실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구원 프로젝트를 예언해야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반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노력한 끝에 큰 딸 “레아”를 그에게 맡기고 그녀를 아내로 줍니다. 라헬을 구하고 결혼하려면 그는 삼촌을 위해 “7년 더”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험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계획에서 겪으셔야 할 일을 예언합니다. 그도 또한 그의 마음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는 첫 번째 동맹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경험은 그 선함에 합당한 성공과 영광으로 표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드문 예외에도 불구하고 "사사"와 "왕"의 계승은 항상 좋지 않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에 합당한 원하는 아내는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의 구원 계획을 밝힌 후에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이요. 인간의 선호와 신의 선호는 완전히 반대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산하는 레아입니다. 먼저 야곱에게 레아를 아내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가 첫 번째 동맹에서 두 사람이 경험하게 될 실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경험에서 하나님은 그의 첫 번째 동맹이 끔찍한 실패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메시아 예수를 거부한 것은 이 예언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신랑이 택한 사랑받는 자가 아닌 레아는 이교 출신으로 유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오랫동안 살았던 새 동맹의 택자를 예언하는 형상이다. 그러나 레아의 다산적 성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을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1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 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라.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당신의 기쁨과 기쁨이 터지게 하십시오! 버림받은 자의 아들이 결혼한 자의 아들보다 많을 것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 여기서 버림받은 자는 레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예언하고, 결혼한 자는 라헬을 통하여 옛 히브리 언약을 예언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부유하고 번영하는 라반을 떠난 야곱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정의롭고 복수심에 불타는 분노를 두려워하는 형 에서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은 새벽까지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엉덩이에 상처를 입히시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여 승리하였으므로 이제부터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싸움에서 싸우는 야곱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고 구했던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 위에 세워진 육신적 이스라엘의 헌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나온 후 곧 두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에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두 형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아내와 두 하인과 함께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단 한 명의 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래와 리브가처럼 불임이었으나 우상 숭배를 하던 라헬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자녀, 즉 첫째 요셉과 막내 베냐민을 얻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기초한 새 언약의 수립과 함께 옛 언약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적용에서, 이러한 필멸의 상황은 그가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신성한 측면으로 돌아올 때 그의 행복한 개입으로 구원받을 그의 선택자의 최종 운명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선택받은 이들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죽어가는 어머니가 " *벤오니* " 또는 " *내 슬픔의 아들* " 이라고 불렀던 아이의 이름이 바뀌고 , 아버지 야곱이 "벤오니"라고 이름을 바꾼 것으로 예언된다. *베냐민* » "오른쪽 아들"(오른쪽) 또는 축복받은 아들 중 하나입니다. 확증적으로, 마태복음 25:33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 *그의 양은 그 오른쪽에 , 염소는 왼쪽에* " 두실 것입니다. " *베냐민* "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예언적 계획을 위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야곱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라헬은 " *옳다* " 라는 수식어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 세상 끝에 관한 이러한 일들은 요한계시록 7장 8절의 설명에서 전개됩니다.

존경할 만한 요셉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역할은 그로 하여금 그의 영적 지배에 분노한 형제들을 지배하게 하여 그를 아랍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의 정직함과 충성심으로 인해 요셉은 높이 평가받았으나 주인의 아내가 그를 학대하려고 하여

저항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꿈과 사건을 설명하면 그를 파라오 아래의 가장 높은 순위 인 First Vizier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승격은 그의 뒤를 이은 다니엘의 예언적 은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이집트를 그에게 맡긴 바로로부터 그에게 감사를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흥년이 들 때 야곱의 형들은 애굽으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요셉은 악한 형들과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베냐민도 그들과 합류할 것이며,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이집트 고센 지방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과 신실한 모세

노예가 된 히브리인들은 모세에게서 나일강의 "물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 아이를 발견할 것이며, 파라오의 딸이 키우고 입양한,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해방자입니다.

노예 생활의 조건이 점점 더 강화되는 동안, 모세는 히브리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인을 죽이고 이집트에서 도망칩니다. 그의 여행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으로 데려가고, 사라가 죽은 후 그의 두 번째 아내인 그두라가 결혼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큰딸 심보라와 결혼하여 호렙산을 향해 양떼를 치던 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주는 타지만 타지 않는 백열등나무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난다. 그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그를 이집트로 보내 그의 백성의 출국을 인도하게 합니다.

파라오가 그의 소중한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려면 열 가지 재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언적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은 열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히브리인들은 역사상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장자*” 이시며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신 메시아 예수의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유월절은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예수, 즉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예언적 선포입니다. 출애굽은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은 지 약 2500년 후인 기원전 15세기 경 정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에게 주신 “*4대*” 중 “*400년*”의 기간을 확증해 줍니다.

파라오의 교만과 반역적인 정신은 그의 군대와 함께 “*홍해*”의 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홍해는 히브리인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연 후에 홍해를 닫습니다. 이집트 반도의 남쪽 끝. 미디안을 피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막을 거쳐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시험을 받아야 할 학식 있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시내 산에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40일 밤낮 동안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신성한 손가락으로 새겨진 두 개의 율법판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진영에서 모세의 오랜 부재는 아론에게 압력을 가하여 결국 그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주조하고 주조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반역적인 영들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만으로도 모든 시대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권위에 대한 의심을 더 선호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형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40일 밤낮의 시련이 지나면 가나안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며, 시험받은 이 세대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약 2540년경.

창세기 이야기의 주요 인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조직하신 작품의 배우들이다. 그들 각각은 예언적 목적이든 아니든 교훈을 전달하며, 구경거리에 대한 이 개념은 고린도전서 4:9에서 다음 *과 같이 말한 사도 바울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 사도들은 사람 중에 마지막에 속한 자라 어떤 면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 » 그 이후로 주님의 사자인 엘렌 G. 화잇은 “시대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스펙터클*”이라는 개념은 확인되었지만 성서의 “별들, 별들” 이후에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시를 받은 것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차례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재현하지 않고 그들의 선한 행위를 모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니엘(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심판자”로 남아 계시며, 확실히 자비로우시지만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경험은 재앙이지만, 그것은 광범위한 배교로 끝나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경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사성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의 이스라엘은 단지 온 땅에 거주하는 인간의 축소판, 곧 표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곳에서 구주이자 “*신실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새 언약만큼 참된 믿음이 드문 이유입니다 .

성경 전체에서

하느님께서 인간 종들에게 받아쓰시고 영감을 주신 성서 전체에는 예언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배우들은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광경 속에서 예언적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건의 조직자가 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00년 동안 천법의 자유로운 측면을 주셨는데, 그 기간은 2840년경에 끝나는 "사사"의 기간입니다. 그는 마침내 그들의 유전적인 적들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때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곱 번" "해방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성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맺은 열매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죄로 되돌아가는 이 300년의 자유를 하느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이들의 모범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의로운 예녹의 300년 생애와 비교해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녹은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와 함께, 그로 하여금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부활한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선택된 자들보다 먼저 그의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것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변형되거나 부활될 것입니다.

"사사"의 시대 이후, 왕들의 시대가 왔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은 그의 첫 두 배우 **에게 악이** 최종 선, 즉 밤이나 어둠으로부터 진행된다는 메시지를 확증하는 예언적 역할을 주셨습니다. 빛을 향해. 이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은 지상의 택자들을 위해 예비된 구원의 계획, 즉 두 단계 또는 두 번의 연속적인 거룩한 동맹의 전체 계획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왕이 됩니다. 마치 옛 영원한 언약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과 통치와 영원한 통치를 세우실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다른 땅의 나라들처럼", 즉 "이교도" 왕을 두시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상의 군주제에는 신성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는 이 왕들의 모델이 신적인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가치관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기희생과 연민이 가득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듯이 마귀도 가혹하고 교만하며 이기적이고 경멸적이어서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그의 백성의 거절로 부당하게 상처를 받은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고 그의 불행에 대해 마귀의 기준과 그의 모든 불의에 따라 그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해서**, 왕족은 신성한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 연설은 두 개인 간의 교환 수단입니다. 성경은 지상의 피조물들에게 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구술하거나 영감을 주신 간증들을 모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언을 분류하고, 선택하고, 그룹화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확립된 정의의 불완전성을 지적할 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오직 율법의 문자에 의해서만 정의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 편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성경은 요한계시록 11:3에 표시된 대로 “증인”이 될 수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문자로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인정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인격의 신성한 본성에 기초한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분만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물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을 분석하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 그분은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들의 동기, 다른 창조물들이 숨기고 무시하는 것들의 동기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심판에 사용되는 증언의 근거만을 제공합니다. 하늘 심판의 “천년” 동안 선택된 성도들은 심판받는 영혼들의 동기에 접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필요한 완전한 심판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종 판결에서 둘째 사망에서 겪게 될 고통의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범인의 실제 동기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통해 우리는 지상 최초의 살인자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증언에 따르면, 가인은 아벨의 제물을 축복하고 가인의 제물을 경멸하기로 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질투하게 되었는데, 후자는 영적인 차이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식별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수많은 매개변수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율법의 기초를 문자로 제시하고 그들의 은밀한 생각이 하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유일한 책임 인간을 위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역할은 행위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회상하면서 이 견해를 확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발생하는 선하거나 악한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 발생하는 이 일은 전적으로 성경이 신의 법칙에 따라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선행은 인본주의적 성격과 영감을 지닌 작품이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경이 완전히 멸시되고 인간사회는 세계화되고 신비롭고 거짓된 면모를 드러낸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더 넓게는 성경의 전 지구적 보편적 계획을 특징짓는 “진리”라는 단어가 그 중요성을 완전히 띠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특한 “진리”에 대한 경멸은 인류가 모든 관계적, 세속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거짓 위에 스스로를 세우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2021년 8월 14일 안식일, 내일인 8월 15일에 대규모 모임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거짓 종교에 속은 희생자들은 그가 “뱀”을 도구로 사용한 이후로 그의 경력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탄의 신비화에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에덴”의 매체: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 아래 그녀의 모습. 진짜 사람은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후에 그녀는 아들딸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쉽게 사라지며 최고의 성경적 주장에도 저항합니다. 어쨌든, 이번 8월 15일 이후에는 이 분노를 위해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고 죄인의 머리 위에 떨어질 그분의 정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최대 8번의 축하 행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발현에서 어린이들은 “처녀”의 환상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말하고 가장하는 것처럼 순수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이들에게 무죄가 잘못 인정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공모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받은 환상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한 매우 반역하는 영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마귀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많은 말씀을 마귀에게 바치셨습니다. 역사는 유혹당하고 기만당한 희생자들을 “둘째 사망”으로 이끄는 기만적인 유혹의 힘을 증언합니다.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 교회 전반에 걸친 마귀 숭배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하나님에 의해 비난 **됩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 누구며, 누가 그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상황이 강요하는 관용의 시간에 이 숭배가 시작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선출된 성도들의 강압하고 박해하는 “**짐승**”의 이 “**숭배**”가 끝난 후에야 시작됩니다. 악마적인 “처녀”의 유령의 매혹적인 수단으로; 남편을 유혹한 ‘여자’를 ‘뱀’이 유혹한 이후, ‘뱀’을 대신할 ‘여자’. 원칙은 동일하며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선택 시간

신성한 계시에 대한 이 연구는 모든 측면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창세기 분석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께서 거의 백 세가 되었을 때 아브람에게 특별한 믿음의 시험을 가하심으로써 피조물들에게 순종을 단호하게

요구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요구 사항은 더 이상 입증될 필요가 없습니다.

1843년 봄 이래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마지막 선택의 시기에, 더 정확하게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 요구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성도들이 그분께 바친 사랑의 증거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영적 상황은 종교, 기독교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만 전달되는 단일 질문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너를 죽이느냐, 영원히 살게 하는 질문

황제, 왕, 교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문까지도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대답하셨습니다. 마 5:17-18: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동일한 예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2:47-49에서 자신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선포할 것을 친히 정해 주셨느니라. »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다. 그러나 단 7장 25절은 로마 카톨릭 교황권에 대하여 “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학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 **변화** ” 시키려는 의도가 기독교 시대에 나타나려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 **높으시고, 그는 때와 법을 바꾸기를 바랄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 그 분노는 그치고 다음 26절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이 “ **때** ” 즉 예언적 해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그의 박해 통치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 **판단** ”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것은 1843년 봄 이래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림교” 신앙을 **분리 하고 성화시키는** 일입니다. 재림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로부터 **분리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계는 계시록 3:1-7-14에 나오는 “ **사대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행 가능합니다. “ **우리는 그의 지배권을 빼앗을 것입니다.** ” 2030년 봄에 예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선출된 재림교인들은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무가치한 가톨릭, 개신교, 재림교 반역자들과 **분리되어 영원에 들어간다. 이 조치는 요한계시록 3:14의 “라오디제아”** 시대 말에 성취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간 택함받은 자들이 실행하는 타락한 죽은 자의 심판 단계입니다. 피해자들이 재판관이 되어 반군 각자의 생명을 별도로 심판하고 그들의 죄에 비례하여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이 문장은 그들의 “둘째 사망”**의 행위가 초래하는 “고통”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주제가 Rev.4의 주제이다. 11:18과 20:4; 이것은 단 7:9-10 이후이다.

넷째, 일곱째 천년기 말,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택자를 위한 큰 안식일에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자가 선고하는 집행 단계가 옵니다. 그들이 부활한 죄의 땅에서, 정죄받은 반역자들은 “**성결의 불”에 의해 “영원히”** 전멸됩니다.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서 이 집행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11-15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종교적 개념은 서로 극도로 반대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분리됩니다**.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요구에 적응합니다. 다른 입장에는 진리가 시간의 문제이지 지성, 추론, 간증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수백 년 된 종교적 전통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표현한 “새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이 되었으나 그들이 깨뜨린 언약이라 주인님,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야웨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에 기록하시는 일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까? » 인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사랑, 옛 언약의 규범이 획득하지 못한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두 동맹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성육신되어 계시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된 신성한 사랑의 표현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순종을 끝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토록 강렬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택하신 자들에게 더욱 순종해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는 자신의 영원을 공유하기에 적합하고 합당한 선택받은 자를 얻습니다.

분리 라는 주제입니다 . 이것이 선택받은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점입니다. 정상적인 본성상 사람은 자신의 습관과 사물에 대한 관념이 흔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교란은 확립된 거짓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말에 선택받은 사람이 되려면 인간은 뿌리를 뽑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시는 사람들과의 분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 선택된 사람은 자신의 생각, 습관, 결코 영생이 될 수 없는 존재와의 육체적 유대에 구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종교적 우선순위는 수직적입니다. 목표는 인간 관계에 해를 끼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견고한 유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 종교는 수평적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해를 끼치는 일이라도 다른 인간과 맺은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재림교회: 분리, 이름, 역사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선택자들은 영적으로 함께 모여 계시록 7장의 “*12지파*”의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1843년 단 8:14에 발표된 예언의 말씀에 나타난 관심에 기초한 일련의 신앙 시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가톨릭 신앙으로 대표되기 전까지 기독교의 하나님에 의한 재개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538년 이후, 그리고 1170년 이후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신앙에 의해 단 8:14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즉 재림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것이 그의 “기다림”을 야기시켰고 라틴어로 “adventus”는 1843년에서 1844년 사이에 그 경험과 그 추종자들에게 주어진 재림교 이름입니다. 명백히 이 메시지는 안식일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외양적으로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곱째 천년기, 즉 매주 일곱째 날 안식일인 유대인의 토요일에 예언된 큰 안식일의 시작을 표시하실 것입니다 . 이러한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한 초기 재림교인들은 이 시련의 시기가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시는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이해했을 때, 개척자들은 “제칠일”에 형성된 교회의 이름으로 기억된 안식일 진리를 굳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업의 상속자들은 안식일을 다니엘의 예언에서 지적인 1843년 날짜에 연결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안식일을 적용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성을 안식일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신성한 요구 사항을 연기하는 것은 1994년에

하나님께서 조직과 반군 진영에 인도하신 그 구성원들을 거부하신 잘못이 되었습니다. 이미 1843년 이래로 그분에 의해 정죄되었습니다. 이 슬픈 경험과 마지막 관리의 실패 기독교 신앙의 제도는 거짓 기독교가 **인간의 결속의 분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신성한 진리에 대한,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경고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 역사의 궁극적인 교훈입니다. , YaHWéH-Michael-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여전히 같은 주제로, 고통스러운 영적 분리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0장 37절의 이 구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앞의 구절들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분리하는 특성을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는 34절부터 38절까지 모두 언급합니다.

“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과 아버지 사이, 딸과 어머니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나누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 이 37절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정당화합니다. 그는 육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한 재림교인 형제에게 자신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이 구절을 그에게 인용함으로써 우리의 길은 갈라졌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때 나는 이 “형제”로부터 광신자라고 불렸으며, 이 경험 이후로 그는 전통적인 재림교회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에게 재림교와 채식주의의 유익을 소개한 사람은 나중에 알세이머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건강이 양호하고, 77세의 나이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의사나 약에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귀한 조언에 돌립니다. 진심으로!

재림교회의 역사를 요약하려면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21년 3월 7^일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이교 이름인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날”로 제정된 일요일을 **종교적으로** 합법화한 가톨릭 신앙의 오랜 지배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교”라는 이름으로 그의 마지막 성도 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초기 재림교인들은 물려받은 기독교 일요일을 경건하게 존중하는 개신교나 가톨릭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843년 봄과 1844년 10월 22일에 그들에게 연속적으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하는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안식일의 빛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선택 이후였습니다. 제시. 또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는 엄청난 오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작업에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지식 없이 개척자들은 결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소위 “조사” 심판 이론을 세웠습니다. 안식일의 빛이 그들에게 주어진 후에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이론에 따르면, 1843년부터 1844년까지 예수께서는 천국에서 구원받아야 할 마지막 택자를 선택하기 위해 증언서를 검토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일요일 죄에 대한 명확한 식별은 단 8:14의 메시지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서투른 번역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번역은 풀리지 않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의한 성취에 주로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결하게 된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도 이보다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었는지 ...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을 본받아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므로 하늘에서 정결하게 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 심판은 더 이상 논리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어떤 죄나 죄인도 하늘을 다시 더럽히기 위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7의 12절과 특히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땅으로 몰아내심으로써 하늘 지역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공식적인 재림교회의 두 번째 오류 역시 안식일의 역할에 대한 원래의 무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안식일은 훨씬 후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재림의 때에 아직 살아 있을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마지막, 궁극적인 믿음의 시험에 그들의 관심을 잘못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번 마지막 시험이 되어서야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으며, 이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일요일을 실천하는 자들과 우정을 추구하는 것을 실제로 그 유래로부터 설명해준다.**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계시록 8장, 9장, 11장의 “일곱 나팔”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처음 6개는 321년 이후 기독교 시대 전체에 걸쳐 사람들에게 정죄된 일요일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 단 8:12은 이미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뿔은 진실을 땅에 던져 그의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 “**죄**”는 이미 있었으며, 일요일 관습은 321년 부터 콘스탄티누스 1세로부터 시민적으로 물러받았으며 538년부터 교황 로마에 의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는 Apo.13:15에 인용된 “**짐승의 표**”입니다. 14:9-11; 16:2. 1982년과 1991년 사이에 내가 제안한 예언의 빛을 거부한 후, 공식 재림교회는 1995년에 선언되고 드러난 하나님의 적들과 동맹을 맺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전형적인 죄의 상징적

이미지인 고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수많은 비난의 예는 이 행동에서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이는 재림교인의 죄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사실, 안식일의 역할과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칭호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깨달은 재림교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적들을 분명히 식별하고 그들과 형제적 동맹을 맺는 것을 피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안식일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요, 그 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왕의 표인 **일요일**은 계 13장 15절의 “**짐승의 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공식적인 제도적 재림교회의 몰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우려는 다니엘 8장 14절의 참된 번역에 대한 빛을 거부하는 것과 다니엘 12장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 그 교훈은 제칠 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신성한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1994년에 발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희망을 두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1843년과 1844년에 사업의 선구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요 심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7천년의 역사 동안 연속적으로 수많은 심판에 복종시키시는 것은 인류의 불순종한 행위로 인해, 죄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인식됩니다. 인류가 따르는 과잉은 인류를 주권적 판단에 의해 승인된 진리의 길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신성한 개입을 요구합니다.

옛 언약의 심판 .

1차 심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아 “ **에덴** 동산 ”에서 쫓겨난 하와와 아담이 범한 죄를 심판하십니다 .

두 번째 심판: 하나님은 전 지구적인 “ **홍수** ”로 반역적인 인류를 멸망시키십니다.

3차 심판: 하나님은 바벨탑 **에서** 올라간 후 사람들을 각기 다른 언어로 **나누십니다** .

넷째 심판: 하나님은 아브람과 동맹 을 맺으시 고 그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극악한 죄가 자행되는 도시인 **소돔 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가증스럽고 가증스러운 “ **지식** ”.

다섯 번째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제시하시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됩니다.

여섯 번째 심판: 300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지시와 해방시키는 일곱 사사의 행동을 통해 죄로 인해 적들에게 침략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일곱 번째 심판: 백성의 요청과 그들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은 지상의 왕들과 그들의 오랜 왕조(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심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

아홉 번째 심판: 이스라엘은 신성한 “메시아” 예수를 거부합니다 – 옛 언약의 종말. 새 언약은 완전한 교리적 기초 위에서 시작됩니다.

열 번째 심판: 이스라엘 국가는 70년 로마인들에 의해 멸망됩니다.

새 언약의 심판 .

그들은 계시록에서 “ 일곱 나팔 ”로 언급됩니다.

1차 심판 : 321년 이후 395년에서 538년 사이에 야만족의 침입.

두 번째 심판: 538년에 지배적인 교황 종교 체제의 수립 .

세 번째 심판: 종교 전쟁: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신 개신교 개혁자들에 대해 카톨릭을 반대합니다: 단 11:34의 “ 위선자들 ”.

4차 심판: 프랑스의 혁명적 무신론은 군주제를 전복시키고 로마 카톨릭 전제주의를 종식시켰다 .

5차 심판 : 1843~1844년, 1994년.

– 시작: 다니엘 8:14의 법령이 발효됩니다 – 1170년 이후의 완벽한 모범인 피터 발도(Peter Valdo) 이후 종교 개혁에 의해 시작된 사역의 완성을 요구합니다. 개신교 신앙은 무너지고 재림교회는 승리하여 탄생합니다. 로마 일요일의 관습은 정죄되었고, 토요일 안식일의 관습은 1843년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정당화되고 요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개혁 사업은 완성되고 완성되었습니다.

– 끝: 예수님에 의해 “ 토한 ” 그녀는 “ 라오디게아 ”에게 전한 메시지에 따라 1994년에 제도적으로 사망했습니다 .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집이 예언적 믿음에 대한 치명적인 시험을 겪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승인받지 못한 전직 선출직 공무원은 가톨릭과 개신교 반군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여섯째 심판: “ 여섯째 나팔 ”은 단 11:40~45에 설명된 제3차 세계 대전, 이번에는 핵 전쟁의 형태로 성취됩니다 . 생존자들은 궁극적인 우주 정부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이 첫째 의무일의 나머지 부분을 회복합니다. 법령. 그 결과, 일곱째 날 안식일인 토요일의 휴식이 금지되었고, 처음에는 사회적 제재로 인해 금지되었으며, 나중에는 새로운 법령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심판: 요한계시록 16장에 묘사된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있기 전인 2030년 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인간의 지상 문명의 존재를 종식 시킵니다 . 인류는 멸종되었습니다. 오직 사탄만이

황폐한 땅, 즉 요한계시록 20장의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자들은 죽은 악인들을 심판하러 나아갑니다 · 이것이 계시록 11장 18절에 인용된 심판이다.

9번째 심판: 마지막 심판 · 죽은 악인들은 부활되어 땅을 덮고 죄로 인한 모든 흔적을 태워버리는 “불못 ”으로 인해 “*둘째 사망* ”의 표준을 겪게 됩니다.

열째 심판: ^{더럽혀진}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새롭고 영원한 왕국에 선택된 자들을 환영합니다!

A에서 Z까지, Aleph에서 Tav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신성

성경은 표면적인 시각적 외양 외에는 인간이 쓴 다른 책들과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원문이 우리에게 전달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언어 별 쓰기 규칙에 따라 읽은 표면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경을 쓸 때 알파벳 글자가 현재의 글자와 다른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바빌론 유배 기간 동안 글자를 글자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띄어쓰기 없이 글자가 서로 붙어 있어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 뒤에는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한 문자에 따라 다른 단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고 입증되었으며, 이는 성경이 인간의 상상과 성취의 가능성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직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기억만이 그러한 일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은 것을 관찰하면 거기에 나오는 각 단어가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나 묵시록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책의 다양한 저자들에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영감을 받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90년경 러시아 수학자 이반 파닌(Yvan Panin)은 성경 본문 구성의 다양한 측면에서 숫자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알파벳 문자가 숫자와 숫자로도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반 파닌의 시위는 하나님의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상당히 가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견이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정당성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반 파닌(Yvan Panin)은 성경의 구성 전반에 걸쳐, 특히 창세기 1장 1절의 첫 구절에서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어디에나 등장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제철일 안식일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 임을 스스로 입증한 이 연구는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까다로운 과학자들에게 논쟁의 여지 없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이 뛰어난 수학자가 발견한 증거를 확증할 뿐입니다..

이반 파닌(Yvan Panin) 이후 현대 컴퓨팅은 고대 동맹의 성서를 구성하는 304,805개의 문자 기호를 분석했으며 소프트웨어는 단일 수평선으로 정렬 가능성이 시작되는 거대한 체커보드에 각 문자를 배치하여 셀 수 없이 다양한 판독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304805개의 문자 중 하나의 수직선을 얻을 때까지 304805개의 문자; 그리고 이 두 가지 극단적 정렬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 세계, 국제적 사건, 고대 및 현대인의 이름에 관한 메시지를 발견하며, 유일한 필수 조건은 형성된 단어의 각 문자 사이에 동일한 공백(1부터 n까지...)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수평 및 수직 정렬 외에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양한 경사 정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다의 이미지를 취하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바다의 표면 수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영원 동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거대하고 무한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신명기 6:5; 마 13:5). 22:37); 그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세상의 경험은 이를 입증할 것이며, 비난, 질책, 처벌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유로운 삶의 시작부터 이 구절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요일 4:18). 택함받은 자의 선택은 그들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표현에 기초합니다. 이 " 완전한 사랑"에는 더 이상 율법이나 계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것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나님과 " 함께 걸음 "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여준 늙은 예노키였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완전성 속에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 욥 및 하나님만이 이름을 아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따라 최초의 인간 모델을 따라 이 " *참된* " 사랑의 교훈을 확증하러 오셨습니다 .

시간에 따른 변형

인류의 비뚤어진 정신으로 인해 진화와 변화를 겪지 않은 언어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히브리어도 이러한 인간의 왜곡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으로 간주하는 히브리어 본문은 이미 부분적으로 왜곡된 상태의 모세 글의 원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발견을 이반 파닌(Ivan Panin)의 작업과 그가 1890년에 사용한 히브리어 원문의 창세기 1:1에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용어 "엘로힘"으로 디지털화했다는 사실 덕분에 빚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단수형으로 신을 뜻하는 '엘로하'의 복수형이다. 세 번째 형태는 "ֱלֹהִים"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름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니엘; 사무엘; 베델; 등... 참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용어들은 참 하나님과 인간의 거짓 이교 신들 사이의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 우리의 번역에서 대문자를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을 “엘로하”, 즉 유일한 참된 “엘로하”로 만드는 “하나”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수 단어 "엘로힘"을 부여하심으로써 자신이 이미 지상 시스템의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생명의 아버지라고 정당하게 주장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이유입니다. 또는 차원, 그리고 지구상에 나타날 모든 생명의. 이미 창조된 하늘의 생명들은 그의 첫 번째 자유 창조물에 나타난 죄로 인해 이미 분열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지칭하심으로써, 자신에게서 태어나고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선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속죄의 죽음만을 통해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형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또한 세례 후에 택하신 자들의 삶을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기 위해 행동하실 “ 성부, 성자, 성령 ” 이신 그분의 구원 계획에서 그분이 맡게 될 다양한 역할을 예언합니다 . 이 복수형은 또한 하나님이 지실 다양한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그의 천사들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택하신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왜곡의 예로 히브리어 어근 "brq"로 표현되고 사용된 모음 선택이 결국 "축복" 또는 "저주"로 번역되는 동사 "축복"을 들겠습니다. 이러한 비뚤어진 왜곡은 욕에 관한 메시지의 의미를 왜곡하는데, 그의 아내는 실제로 번역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가 아니라 " *하나님을 찬미하고 죽으라* "고 *말합니다*. 교묘하고 비뚤어진 변화의 또 다른 예는 프랑스어에서 원래 확실하고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확실히"라는 표현이 인간의 생각에서 "아마도"라는 의미를 띠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례는 중요성을 얻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인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petit Larousse" 사전에서 "Sunday"라는 단어의 정의가 변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 버전에서는 한 주의 첫날로 도입됐지만, 다음 해 버전에서는 일곱 번째 날이 됐다. 그러므로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이 확립한 진화론적 관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달리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가치관도 사물과 만물의 질서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때부터 정해 놓으신 때입니다.

인류의 타락한 행위는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에도 표시를 하여 구원의 결과 없이 모음을 부당하게 배정하였지만, 그 공식 번역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진짜 본문과 가짜 본문을 식별하는 수단인 수치적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정통 성서 버전을 독특하게 특징짓는 수많은 숫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으며, 그 기호는 기원전 2 세기 이후로 수정되지 않았습니

사람의 믿음 으로) 칭의에 대한 진리를 회복하신다 .

나는 방금 성경 본문의 왜곡을 언급했습니다. 원본 저작물의 여러 번역가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백성을 계몽시키기 위해 진리의 영은 진리를 회복하고, 그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전히 심각한 왜곡이 남아 있는 본문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2021년 9월 4일 이번 안식일에 내가 '수정 안식일'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루어진 일이다. 저는 공부 주제 선택을 르완다 자매에게 맡겼고, 그 자매와 함께 온라인으로 안식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에 의한 칭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매우 명확하게 해주는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성령은 믿음을 정금으로 상징하신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느니라."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 믿음, 참된 믿음이 극히 드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갈과 돌은 어디에서나 발견되지만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구절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라는 사실을 먼저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두 가지 가르침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그것이 "그것을 찾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한다는 확신은 속일 수 없는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사람은 그분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제시하시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석처럼 하나로 묶어 주는 이 사랑의 띠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사랑을 묘사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인용된 유명한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라는 유명한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이 구절에서 루이 세공(Louis Segond)이 제안한 번역은 *다음 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오랫동안 이 구절은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교만으로 “ *교만한* ”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 *의롭다* ”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따르면 “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 분이 누구입니까? 해결책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Segond에서 인용된 “ *부풀어오른* ” 이라는 단어 대신에 “ *믿지 않는* ”이라는 단어를 발견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 놀랍게도 우리는 "가톨릭" Vigouroux 버전에서 완벽하게 명확하게 하는 훌륭한하고 논리적인 번역을 발견했습니다. 성령의 메시지. 사실, 성령은 솔로몬 왕에게 이미 영감을 받은 스타일로 하박국에게 메시지를 영감을 주었는데, 그가 잠언의 형태로 절대 반대의 반대 매개변수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박국서에는 “ *불신앙* ”과 “ *믿음* ”이 있습니다. 그리고 Vigouroux와 그의 번역의 라틴 별게이트 기초에 따르면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올바른 영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 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루이 세공은 이 구절의 두 부분을 동일한 주제로 간주함으로써 성령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으며 그의 독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리된 물건을 이제 우리는 하박국이 1843-1844년, 1994년의 “재림교인” 시련과 그리스도의 참된 최종 재림에 관한 최종 날짜인 2030년 봄을 어떻게 정확하게 묘사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2030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정한 이 책은 우리가 이미 확인된 재림교회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 입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시록 10:6-7, 표현: “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고 ...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리라* ”. 이 시련을 위해 나는 하박국 2장의 처음 부분부터 설명하는 주석을 삽입합니다.

내가 수정한 L.Segond 버전

1절: “ *내가 내 자리에 있고 망대 위에 서리라.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지켜보며 내 변론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 지켜보리라.* »

재림교회의 시련을 특징짓는 선지자의 “기다리는” 태도에 주목하십시오. 성령께서 단 12:12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 “ *논쟁* ”의 의미는 하박국 *이* 제기한 문제가 지상에서 악인의 번영을 연장하는 것인 앞 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항상 아끼지 않고 민족을 행합니까?* »(합 1:17). 이러한 성찰과 질문에서 하박국은 세상 끝날까지 같은 관찰을 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형상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 경멸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신실치 아니하고 반역하는 자의 지배를 결정적으로 종식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예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응답하실 것입니다.

2절: “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언을 기록하여 판에 새겨 널리 읽게 하라. »

1831년에서 1844년 사이에 윌리엄 밀러는 먼저 1843년 봄에, 그 다음에는 1844년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자신의 발표를 요약한 표를 제시했습니다. 1982년에서 1994년 사이에 나도 재림교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했고 지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네 개의 테이블에는 우리의 “ *마지막 때* ”를 위해 진리의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새로운 예언의 빛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 1994년의 이 시련에 따른 실제 결과가 1844년의 경우처럼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해된다면, 그 날짜와 계산은 오늘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입증됩니다.

3절: “ 이것은 이미 정한 예언이니라 ”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는 2018년부터 계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을 기준으로 이 정한 때는 2030년 봄입니다.

“ 그녀는 종말을 향해 걷고 있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해진 때에 성취될 것이며, 그것을 알리는 예언은 “ *거짓말이 되지 아니하리라* ”. 예수 그리스도는 2030년 봄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 만약 그것이 지연된다면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

그 날짜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재림은 그만이 2018년까지 알고 있던 이 지정된 시간에 이루어질 것 입니다 . 1843년, 1844년, 1994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짓 발표를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구원을 주장하는 기독교인의 신앙으로, 자신이 선출한 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거짓 선포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 끝날까지 " *겨에서 밀, 염소에서 양* ", 신실한 자와 이교도, " *믿는 자와 불신자* "를 분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 타락한 자들의 선택을 받은 자.

두 번째 재림교 시험이 끝난 1844년 가을 이후 참된 제칠일 안식일의 실천으로 성별되고 인봉된 마지막 성도들을 묘사하는 요소로 남아 있는 *재림교인* 의 “기다림”이라는 매개변수를 입증합니다 .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는 승리자요, 해방자요, 복수자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특징짓는 **확실성의 개념을 강조하십니다.**

Vigouroux 버전

4절: “ 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정직한 영혼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이 메시지는 1843년, 1844년, 1994년, 2030년에 연결된 네 가지 재림교회 재판을 받는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각 시대마다 날카롭습니다. 예언적 발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자나 선지자들의 예언적 발표를 비웃음으로써 “ 믿지 않는 ” 본성을 드러내는 “ 위선자 ” 그리스도인들의 가면을 벗겨내십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예언적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가 드러내는 새로운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 기뻐하시는 ” 것으로 판단하신 이 순종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전가된 의를 보존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순종적인 믿음만이 다가올 영원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 믿음의 반응은 개인적 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예: 마 24:13: “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저장되었습니다 .” 신앙은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집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인간의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원하는 후보자들이 보여준 믿음에 대한 그분의 판단에 따라 누가 구원받을지 멸망받을지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하박국서의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는 “ 믿음 ”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 행함 ”의 밀접하고 분리할 수 없는 유대를 계시하고 **확증하십니다** . 사도 야고보가 이미 제기한 것(야고보서 2:17: “ 믿음도 그러하니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 이는 복음화 초기부터 신앙의 주제가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가치와 생명을 부여하는 작품의 증언을 무시하고 믿음의 측면만 첨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신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의 참된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종들에게 그의 큰 빛을 부어주시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1843년 이후 제정하신 새로운 요구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사랑의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처음에 안식일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었으나 1844년 이후에는 결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1843년부터 2030년까지 계시된 그분의 예언적 진리에 대한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2018년부터 받은 새로운 빛은 2030년 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될 일곱 번째

천년기의 예언적 이미지가 된 일곱째 날 안식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칭의” 믿음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과 그의 모든 옛 빛과 새 빛에 대한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선택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고 유익을 줍니다: “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 지식을 가진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인간에 의해 숨겨지고 무시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하박국과 메시아의 초림

이 예언은 또한 유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도 성취되었으며, 그곳에서 메시아의 첫 번째 강림을 알렸습니다. 이 오실 시간이 단 9:25에 정해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열쇠는 에스라서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역사서 가운데 두었고 에스라서보다 앞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의 예언적 역할은 축소되어 독자들에게 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관심을 다니엘의 예언으로 이끈 최초의 예언자이셨습니다.

만약 지체되거든 기다리라 ” 고 선언된 말씀 도 성취되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61장에 의지하여 로마인의 복수자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전파하며* ”. 2절에서 성령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 **여호와와 영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61장 2절에 따르면, “ *은혜의 해* ”와 “ *복수의 날* ” 사이에 승리자요 해방자요 복수자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아직 2000년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이 교훈은 누가복음 4:16-21에 인용된 증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읽으려고 일어서시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시니라. 그것을 풀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쓴 곳을 찾았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여호와와 영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다음 그는 책을 말아서 하인에게 건네주고 앉았습니다. » 여기에서 읽기를 중단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초림이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이 “ **은혜의**

해 ”에만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1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쳐다보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들은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 무시되고 읽히지 않는 “ **복수의 날** ”은 **하나님께서 2030년 봄, 즉 그분의 모든 신성한 능력으로 재림하실 때를 위해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림 이전에 **하박국의 예언**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1843-1844년과 1994년에 있었던 “재림교” 시련을 통해 “

자연”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헌신

진실을 직시하세요

신의 해가 시작되는 2021년 봄, 부유하지만 거짓된 기독교 서구 인류는 국가 경제적 파탄을 치르더라도 노인들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열망을 방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신성한 형벌에 대한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모든 연령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제3차 세계 대전에 이를 적용하실 이유입니다. 8년 후에 우리 앞에는 지상 창조의 6000년이 될 것이며,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승리하고 승리를 거두신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과 살아 있는 택하신 자들과 부활할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처음부터 반역한 천사인 반역한 천사를 어둠 속에 고립시켜 홀로 두실 지상의 모든 인간 생명을 멸하실 것입니다., 사탄, 악마.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여려면 6000년 원칙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이다. 아브라함의 생년월일(데라의 세 아들에 대한 단일 날짜: 창 11:26)에 관한 “모호함” 때문에 성경에 제시된 수치로부터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인간 세대의 연속은 이 숫자가 6000에 가깝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어림의 정확한 숫자에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이 선택을 “지적인” 존재, 즉 모든 지성과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넷째 계명에 인용된 “안식일”의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모든 일을 하는 데 “6일”과 6천년을 주셨지만, 일곱째 날과 일곱째 천년은 안식의 “거룩한” 때입니다. 별도로)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작품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총명 하거나 *지혜로운*” 행동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다니엘 12:3 참조: “*지혜 있는 자는 광채와 같이 빛나리라*”) 그들은 *별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가르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는 드라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작품을 마치면서 나는 이 작품을 읽고 믿음과 기쁨으로 환영할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구절을 바치고 싶습니다. 내가 1980년 6월 14일에 침례를 받았을 때 두 곳의 다른 출처에서 헌납되었습니다. 하나는 기관에서 받은 세례 증명서에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던 나이에 당시 봉사의 동반자가 이 기회에 나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의 서문에 있습니다.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당신은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증 사무엘아, “진실로”!

마지막 통화

제가 이 메시지를 쓰고 있는 2021년 말에도 세계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보편적인 종교적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독된 예언적 계시에 대한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나는 끔찍한 세계 대전이 준비 중이며 앞으로 3~5년 내에 완수될 궤도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라는 상징적 이름으로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성령께서는 321년 3월 7일 이후로 거룩한 안식일과 다른 규례들을 무시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 이미 다섯 가지의 끔찍한 형벌이 이미 임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불멸의 신에 대한 형벌은 신성한 종교 프로그램에 따라 조직된 인류 역사의 1600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여섯 번째 형벌은 마지막으로 그를 향한 불신앙의 죄를 범한 기독교를 경고하기 위해 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떠나서는 인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6장의 유추에 의해 드러나는 점진적인 성격을 지닌 "나팔", 즉 "여섯째"의 살인 강도가 인류가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던 공포의 극치에 도달할 이유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5절에 따르면 "사람의 삼분의 일"인 수많은 인류를 멸망시킬 궁극적인 세계 대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계시록 9장 16절에 주어진 정확성에 따라 2억 명의 무장하고 훈련받고 장비를 갖춘 전문 전사들이 서로 대결하게 될 전쟁에서 말 그대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수를 들었습니다. "; 즉, 2 x 10000 x 10000. 이 마지막 충돌 이전인 20^{세기} 동안 1914-1918년과 1939-1945년의 두 차례 세계 대전은 자유 국가와 독립 시대를 종식시키려는 큰 형벌의 전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도피성을 제공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진노의 우선순위로 삼은 지역을 피하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분명한 지시를 남겨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임무를 맡은 인간이 가해야 할 타격을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분이 택하신 자 중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믿지 않는 반역자나 불신자들은 그분의 신성한 진노의 도구이자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기독교를 믿고 경쟁하는 서구 민족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제3차 충돌의 동기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일 것이며, 교리적으로 결코 양립할 수 없었던 경쟁 종교들을 서로 대결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평화와 무역만이 이러한 환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7:2-3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갖고 있던 악마적인 보편성은 "땅과 바다에 해를 끼치기 위해" 풀려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충실한 "개신교와 가톨릭교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볼 때, 불충실한 기독교 신앙은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옛 언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70년에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 여섯째 나팔 " 과 병행하여 단 11:40-45의 예언은 " 세 왕 " 을 언급함으로써 확증합니다. ", 일신교의 세 종교, 즉 유럽 가톨릭교, 아랍 및 북아프리카 이슬람교, 러시아 정교회를 의미합니다. 분쟁은 국왕으로 지명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전통적 잠재적 적으로 지목된 미국 개신교의 개입으로 상황이 역전되면서 끝났다. 경쟁 세력의 제거는 " the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 이라고 계시록 13:11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맥락에서 연이은 히스패닉 이민으로 인해 미국 개신교 신앙은 소수가 되었고, 로마 카톨릭 신앙이 다수가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겠습니다. 2022년 아일랜드 출신 대통령은 암살된 존 케네디 대통령처럼 가톨릭 신자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자들인 그분을 믿고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 " 고 명령하십니다. 이 책에서 교황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증거로 확인된 " 바벨론 " 은 " 그 죄 " 때문에 심판받고 정죄되었습니다 . " 그 죄 " 의 역사적 유전으로 인해 가톨릭교의 죄는 종교적 실천을 통해 로마에서 물려받은 일요일 휴식을 정당화하는 개신교와 정교회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바벨론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 자신의 죄 " 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식별하는 " 표 " 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매주 안식일, 신성한 명령의 한 주의 첫날, 로마 일요일.

이 메시지에서 나는 시대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수도인 파리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북부 지역을 떠나기를 촉구합니다. 그 도시는 곧 하나님의 진노에 맞아 "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 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시록 11장 8절에서 그가 비유한 " 소돔 " 과 같은 핵 도시입니다 . 그는 또한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역사 기록에 나오는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종교적인 헌신의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그것을 " 죄 " 의 상징적 이미지인 " 이집트 " 라는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 전쟁 상황에서는 도로가 절단되고 금지되어 목표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치명적인 비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무엘

먼저 이 작업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발견하려는 사람들은 프랑스와 유럽의 임박한 파괴의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을 내기 위해 그토록 확신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읽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쌓이는

증거를 수집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 안에 세워졌습니다. 사실, 그분께 모든 영광이 속해 있습니다.

나쁜 놀라움은 비교할 수 없는 그의 힘, 가장 많은 수,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될 때까지 그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이끄는 그의 능력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작업을 마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영감은 “**마지막 재림교회 행자들의 하늘 만나**” 라는 작품에 제시된 메시지의 형태로 영원히 주목되고 기록됩니다 .